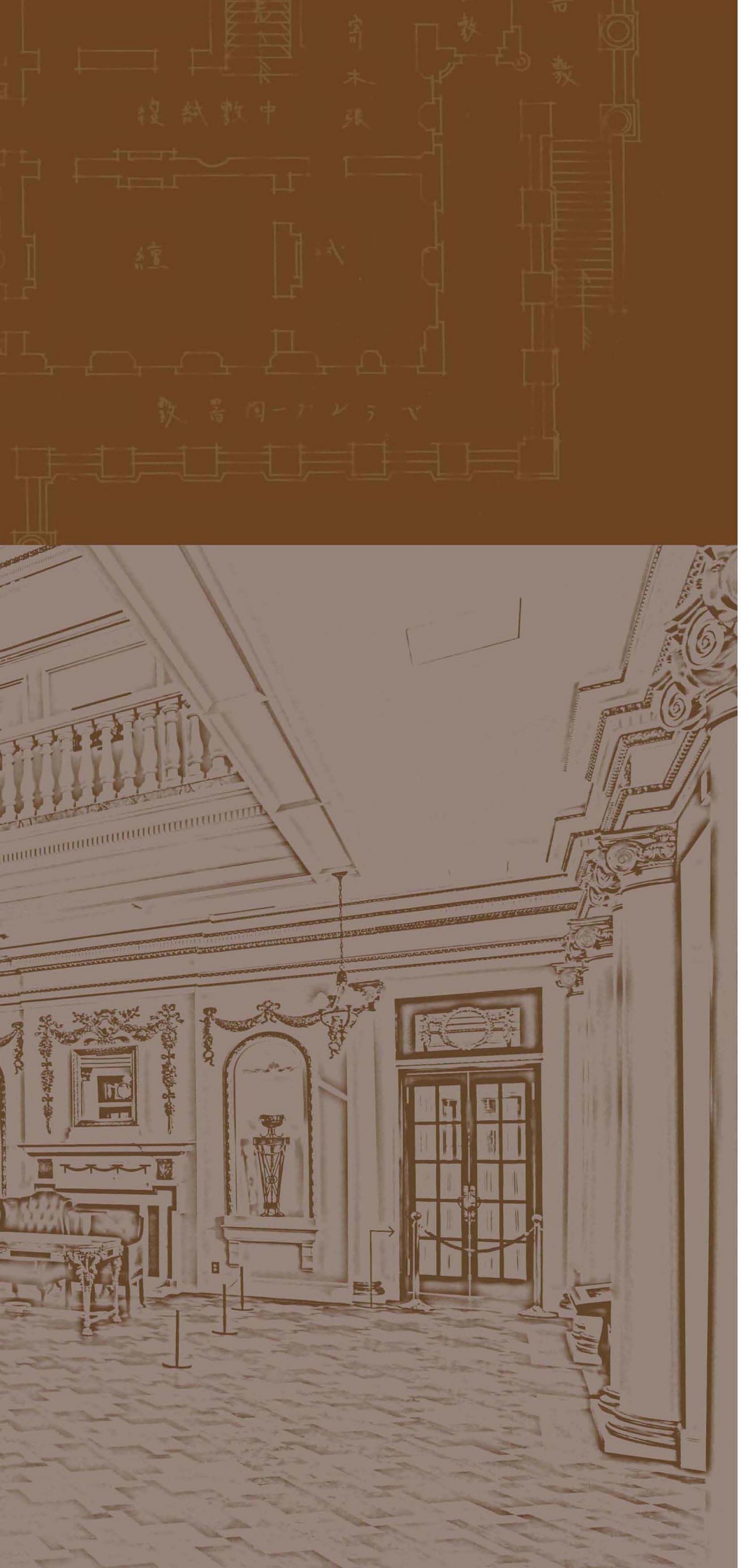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550000-001575-01

덕수궁 석조전
실측 및 수리보고서

2014

문화재청



발간등록번호
11-1550000-001575-01

덕수궁 석조전

실측 및 수리보고서

2014

문화재청

목차

▌목차

▌원색화보

제 1 장 수리 개요

1. 덕수궁 석조전 보수 · 복원 개요

1) 덕수궁 보수 · 복원정비 개요 ····· 35

2) 석조전 보수 · 복원 개요 ····· 36

3) 공사 개요 ····· 37

4) 층 명칭과 각 실 명칭 ····· 38

2. 보수 · 복원 공사 내용

1) 보수 · 복원 설계 ····· 43

2) 설계 변경 ····· 50

3) 공사 내역 ····· 55

4) 주요 공정 ····· 65

3. 자문회의

1) 자문회의 개요 ····· 68

2) 자문회의 내용 ····· 69

4. 공사관계자

1) 자문, 행정, 설계, 시공, 보고서 관계자 ····· 82

2) 각 공종별 관계자 ····· 83

제 2 장 실측 조사

1. 덕수궁 석조전 실측조사 개요

1) 실측조사 개요 ····· 87

2. 석조전 평면 조사

1) 평면 개요 ····· 90

2) 지층 평면 ····· 92

3) 1층 평면 ····· 125

4) 2층 평면 ····· 152

3. 석조전 구조 조사

1) 평면 구조 ····· 175

2) 단면 구조 ····· 188

3) 벽난로와 돌출벽 ····· 194

4) 부속물 ····· 203

제 3 장 수리공사

1. 덕수궁 석조전 수리공사 개요 ····· 209

2. 고증 자료

1) 개요 ····· 211

2) 조적벽체 자료 ····· 212

3) 사진 자료 ····· 213

4) 도면 자료 ····· 214

5) 문헌 자료 ····· 215

3. 평면 복원

1) 개요 ····· 217

2) 1층 평면 복원 ····· 218

3) 2층 평면 복원 ····· 233

4. 가설공사

1) 가설울타리 ····· 250

2) 가설사무소와 창고 ····· 250

3) 가설비계 ····· 251

4) 보호막과 실사현수막 ····· 252

5) 안전시설 ····· 253

6) 덕수궁 관리사무소 이전 설치공사 ····· 254
5. 철거공사 ····· 255
6. 보강공사
1) 철골보강공사 ····· 257
2) 벽체 균열 보수 ····· 262
3) 아치형철판 콘크리트 슬라브 보수 ····· 264
4) 슬라브 단면 보강 보수 ····· 265
5) 바닥 정리 ····· 267
7. 조적공사
1) 벽돌 수급 ····· 268
2) 회몰탈 ····· 269
3) 조적쌓기 ····· 270
8. 미장공사 ····· 272
9. 수장공사
1) 개요 ····· 276
2) 벽 수장공사 ····· 278
3) 몰딩공사 ····· 284
4) 천장공사 ····· 294
10. 도장공사 ····· 297
11. 대리석공사
1) 복도, 벽, 바닥 대리석공사 ····· 301
2) 화장실 바닥 대리석공사 ····· 306
12. 바닥공사
1) 1층, 2층 바닥 마루공사 ····· 308
2) 지층 바닥 공사 ····· 312
13. 벽난로공사 ····· 313
14. 창호공사
1) 내부창호 ····· 324
2) 외부창호 ····· 327
15. 2층 황제서재 · 황후거실 · 욕실공사

1) 바닥공사 ····· 330
2) 칸막이공사 ····· 334
16. 2층 중앙홀공사
1) 난간공사 ····· 335
2) 천창공사 ····· 340
17. 벽감(Niche)공사
1) 개요 ····· 344
2) 시공 ····· 347
18. 옥상공사
1) 굴뚝공사 ····· 349
2) 방수공사 ····· 352
19. 욕조, 변기, 세면기 및 방열기 설치공사
1) 방열기 설치 ····· 355
2) 욕조, 변기, 세면기 설치 ····· 356
20. 장식물 설치공사
1) 가구 설치공사 ····· 360
2) 카펫 설치공사 ····· 369
3) 커튼 설치공사 ····· 372
4) 등기구 설치공사 ····· 376
5) 벽 장식물 설치공사 ····· 378
21. 기타공사
1) 외부 지반 정비 및 배수공사 ····· 381
2) 외벽 보존처리공사 ····· 385

제 4 장 도면

1층 접견실(구 제3전시실)

1층 접견실(구 제3전시실) 남쪽면

1층 접견실(구 제3전시실) 북쪽면

1층 접견실(구 제3전시실) 서쪽면

1층 접견실(구 제3전시실) 동쪽면

1층 중앙홀

1층 중앙홀 서쪽면

1층 중앙홀 남쪽면

1층 중앙홀 북쪽면

1층 중앙홀 동쪽면

1층 대식당(구 제1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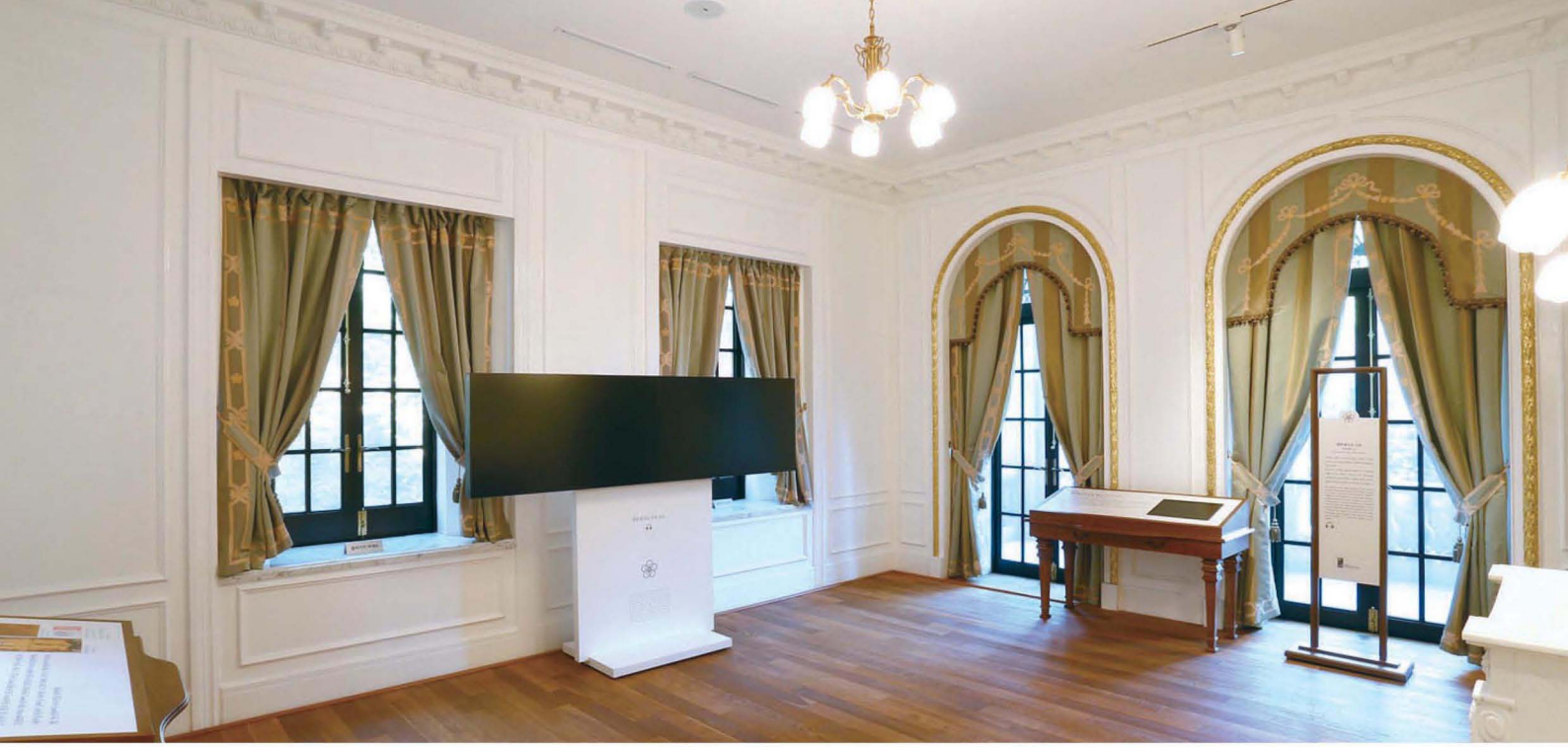
1층 대식당(구 제1전시실) 동쪽면

1층 귀빈대기실(구 제1전시실) 동쪽면

1층 귀빈대기실(구 제1전시실) 서쪽면

1층 동남1실(구 제5전시실) 서남쪽면

1층 동남1실(구 제5전시실) 동북쪽면



1층 동북1실(구 관장실) 동북쪽면

1층 동북1실(구 관장실) 서남쪽면

1층 소식당(동)(구 제4전시실) 남쪽면

1층 소식당(동)(구 제4전시실) 북쪽면

1층 소식당(서)구 제2전시실)

1층 소식당(서)구 제2전시실) 동쪽면

1층 소식당(서)구 제2전시실) 남쪽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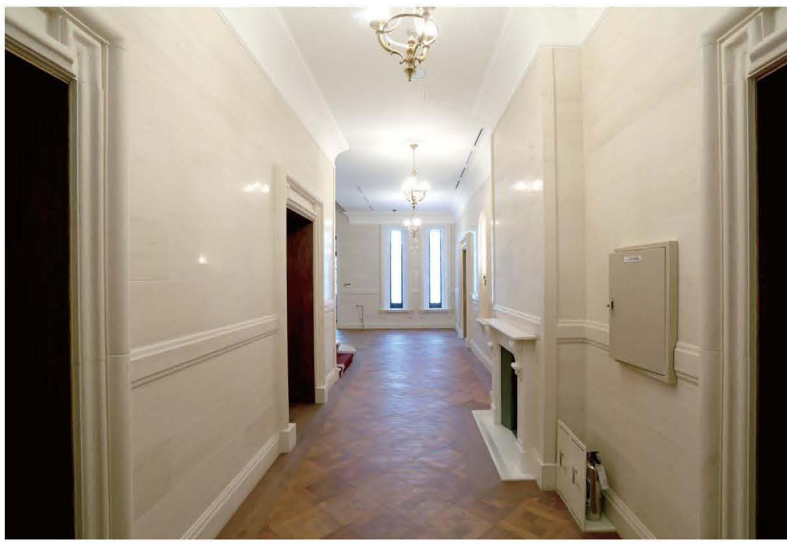
1층 소식당(서)구 제2전시실) 서쪽면

1층 소식당(서)구 제2전시실) 북쪽면

1층 서북1실(구 공조실1) 서북쪽면

1층 서북1실(구 공조실1) 동남쪽면

1층 서쪽 복도(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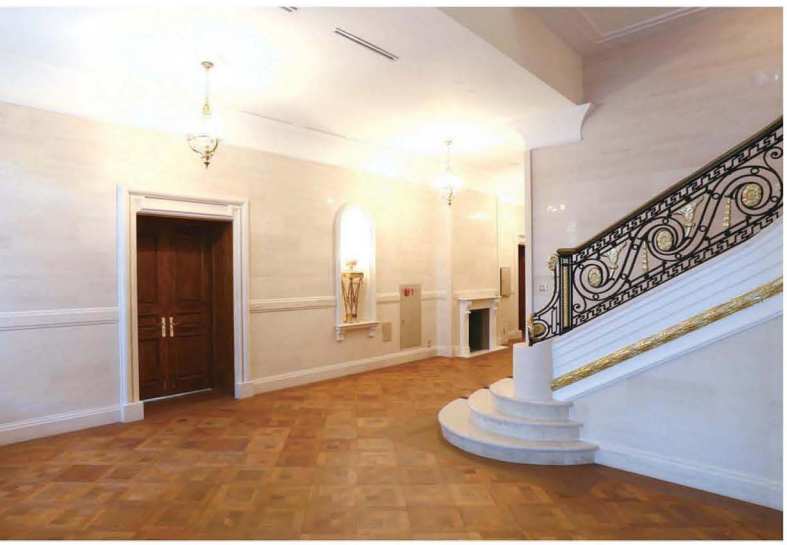


1층 동쪽 복도(서→동)

1층 서쪽 계단실(북서쪽면)

1층 서쪽 계단실(남쪽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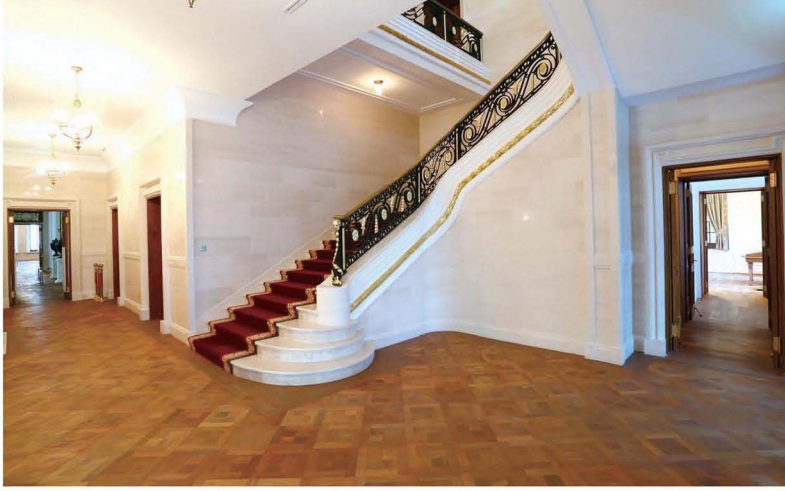
1층 서쪽 계단실(북동쪽면)



1층 동쪽 복도(서남쪽면)

1층 동쪽 복도(동쪽면)

1층 동쪽 복도(동북쪽면)



1층 동쪽 복도(서북쪽면)

2층 응접실(구 제10전시실) 동쪽면

2층 응접실(구 제10전시실) 남쪽면

2층 응접실(구 제10전시실) 서쪽면

2층 응접실(구 제10전시실) 북쪽면

2층 응접실과 시종실4(구 제10전시실) 사이 복도(서→동)

2층 시종실4(구 제10전시실) 욕실(서→동)

2층 시종실4(구 제10전시실)동북쪽면

2층 시종실4(구 제10전시실)서남쪽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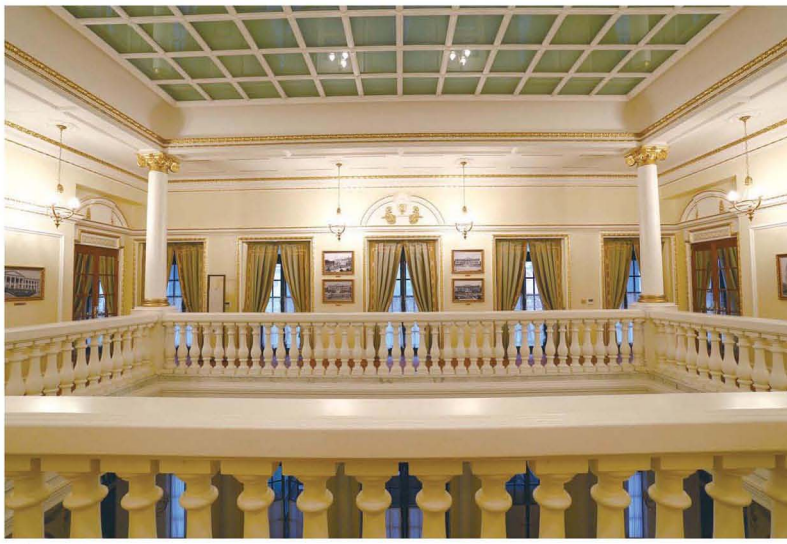
2층 시종실4(구 제10전시실) 남쪽면

2층 시종실4(구 제10전시실) 북쪽면

2층 시종실4(구 제10전시실) 서쪽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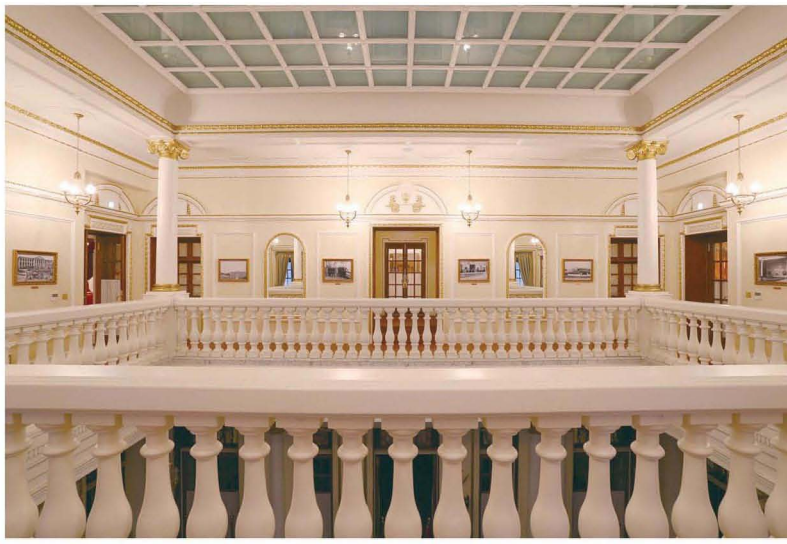
2층 중앙홀

2층 중앙홀 동쪽면



2층 중앙홀 남쪽면

2층 중앙홀 서쪽면



2층 중앙홀 북쪽면

2층 시종실3(구 제6전시실) 서북쪽면

2층 시종실3(구 제6전시실) 서남쪽면

2층 시종실3(구 제6전시실) 욕실

2층 시종실2(구 제6전시실) 남쪽면

2층 시종실2(구 제6전시실) 북쪽면

2층 시종실1(구 제6전시실) 서북쪽면

2층 시종실1(구 제6전시실) 동남쪽면

2층 동북1실(구 여자 화장실) 동북쪽면

2층 동북1실(구 여자 화장실) 서북쪽면

2층 동북1실(구 여자 화장실) 서쪽면

2층 동북1실(구 여자 화장실) 남쪽면

2층 서북1실(구 문화사랑방) 남쪽면

2층 서북1실(구 문화사랑방)서북쪽면

2층 황제침실(구 제8전시실)

2층 황제침실(구 제8전시실) 동쪽면

2층 황제침실(구 제8전시실) 남쪽면

2층 황제침실(구 제8전시실) 서쪽면

2층 황제침실(구 제8전시실) 북쪽면

2층 황제서재(구 제8전시실)

2층 황제서재(구 제8전시실) 동쪽면

2층 황제서재(구 제8전시실) 남쪽면

2층 황제서재(구 제8전시실) 서쪽면

2층 황제서재(구 제8전시실) 북쪽면

2층 황후거실(구 제8전시실)

2층 황후거실(구 제8전시실) 동쪽면

2층 황후거실(구 제8전시실) 남쪽면

2층 황후거실(구 제8전시실) 서쪽면

2층 황후거실(구 제8전시실) 북쪽면

2층 황제서재(구 제8전시실) 욕실과 화장실

2층 황후거실(구 제8전시실) 욕실과 화장실

2층 황제거실(구 제8전시실)앞 복도

2층 황후거실(구 제8전시실)앞 복도

2층 황제서재(구 제8전시실) 욕실

2층 황제서재(구 제8전시실) 화장실

2층 황후거실(구 제8전시실) 욕실과 화장실

2층 황후침실(구 제9전시실)

2층 황후침실(구 제9전시실) 동쪽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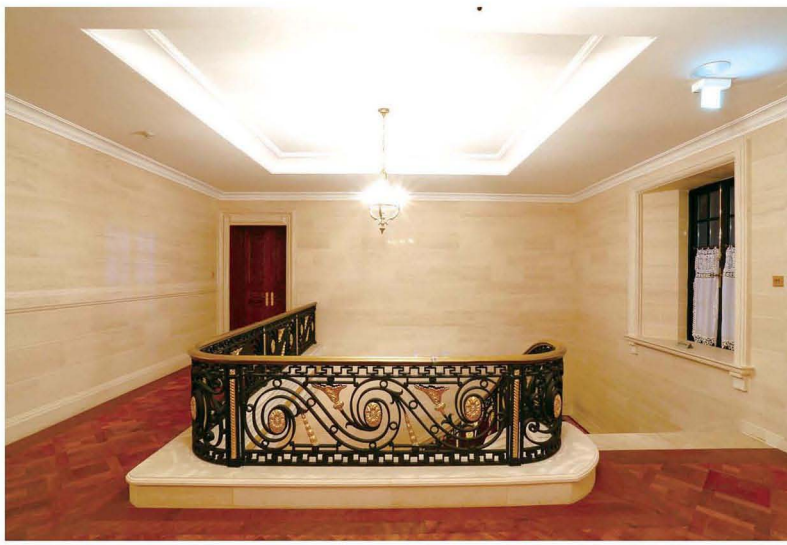
2층 황후침실(구 제9전시실) 남쪽면

2층 황후침실(구 제9전시실) 서쪽면

2층 황후침실(구 제9전시실) 북쪽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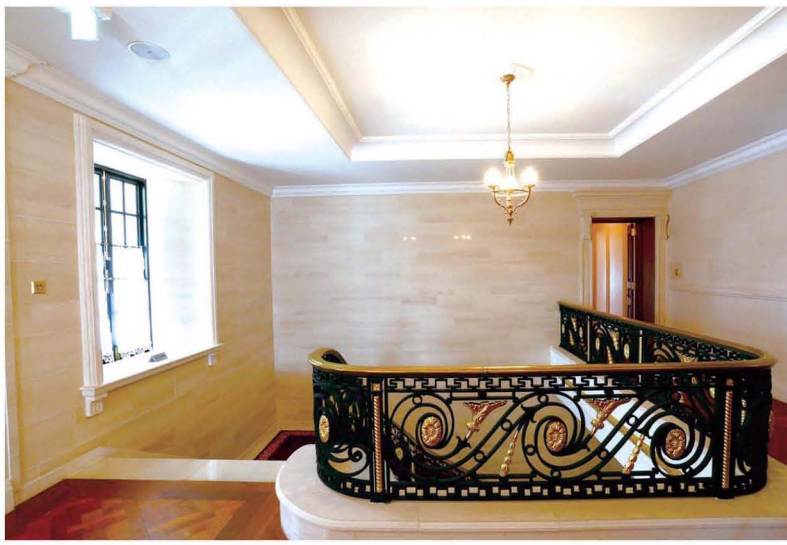
2층 동쪽 계단 동남쪽면

2층 동쪽 계단 서쪽면



2층 동쪽 계단 북쪽면

2층 서쪽 계단 서쪽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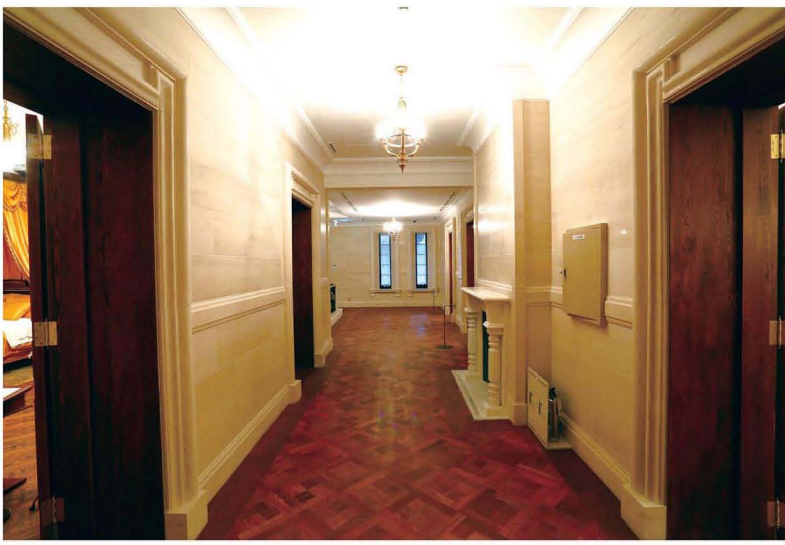


2층 서쪽 계단 북쪽면

2층 서쪽 계단 동쪽면

2층 서쪽 계단 남쪽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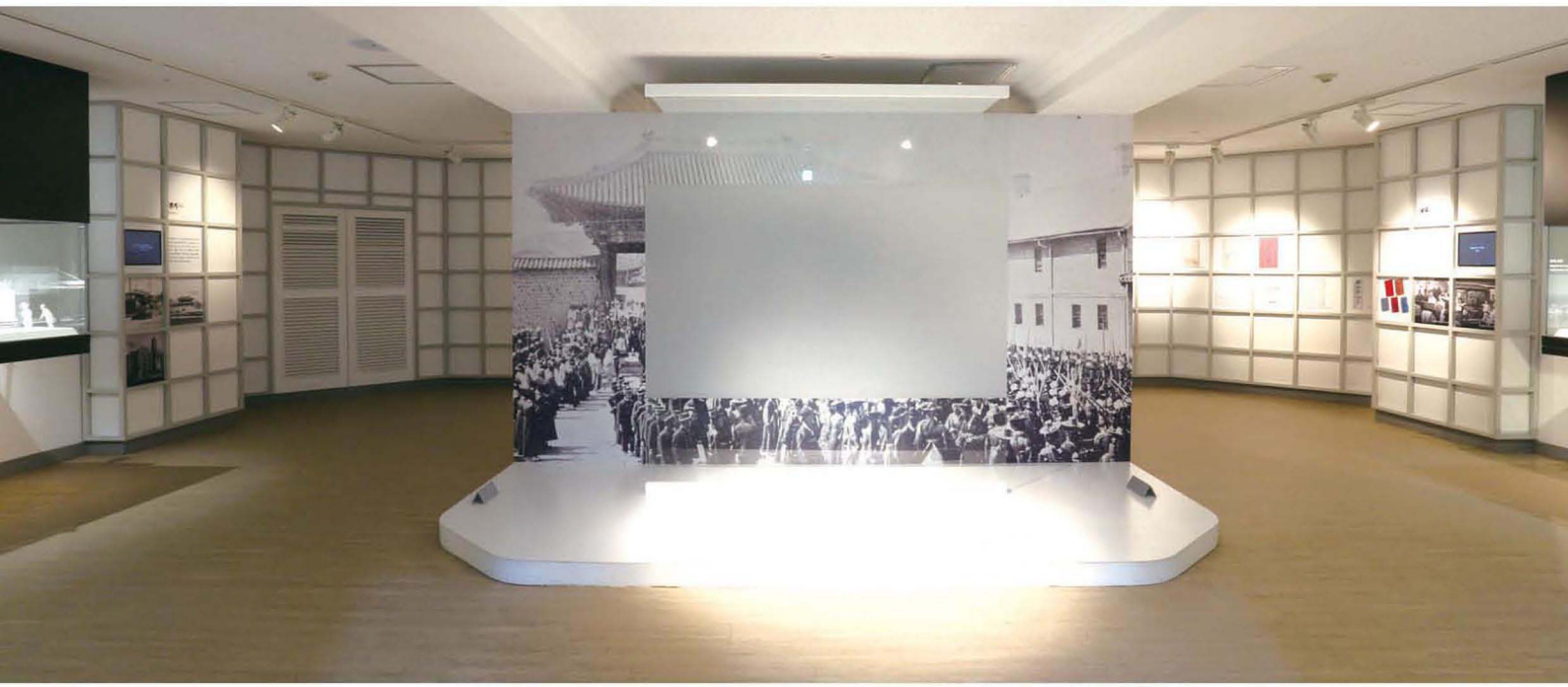
2층 서쪽 복도 남쪽면



2층 동쪽 복도(서→동)

지층 고종의 근대적 개혁 전시실(서남1실)

지층 석조전 복원기 전시실(서남2실)



지층 전시실(수장고 중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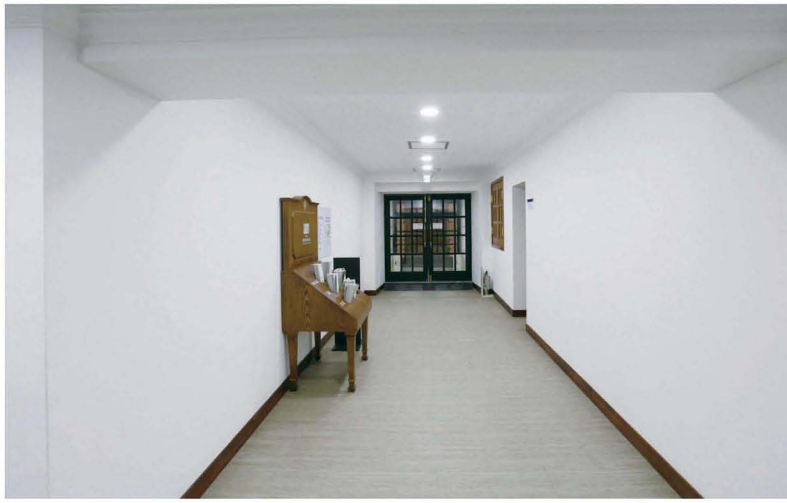
지층 전시실(수장고 전실1)

지층 전시실(수장고 (서))

지층 서쪽 복도(북→남)

지층 서쪽 복도(서→동)

지층 서쪽 복도(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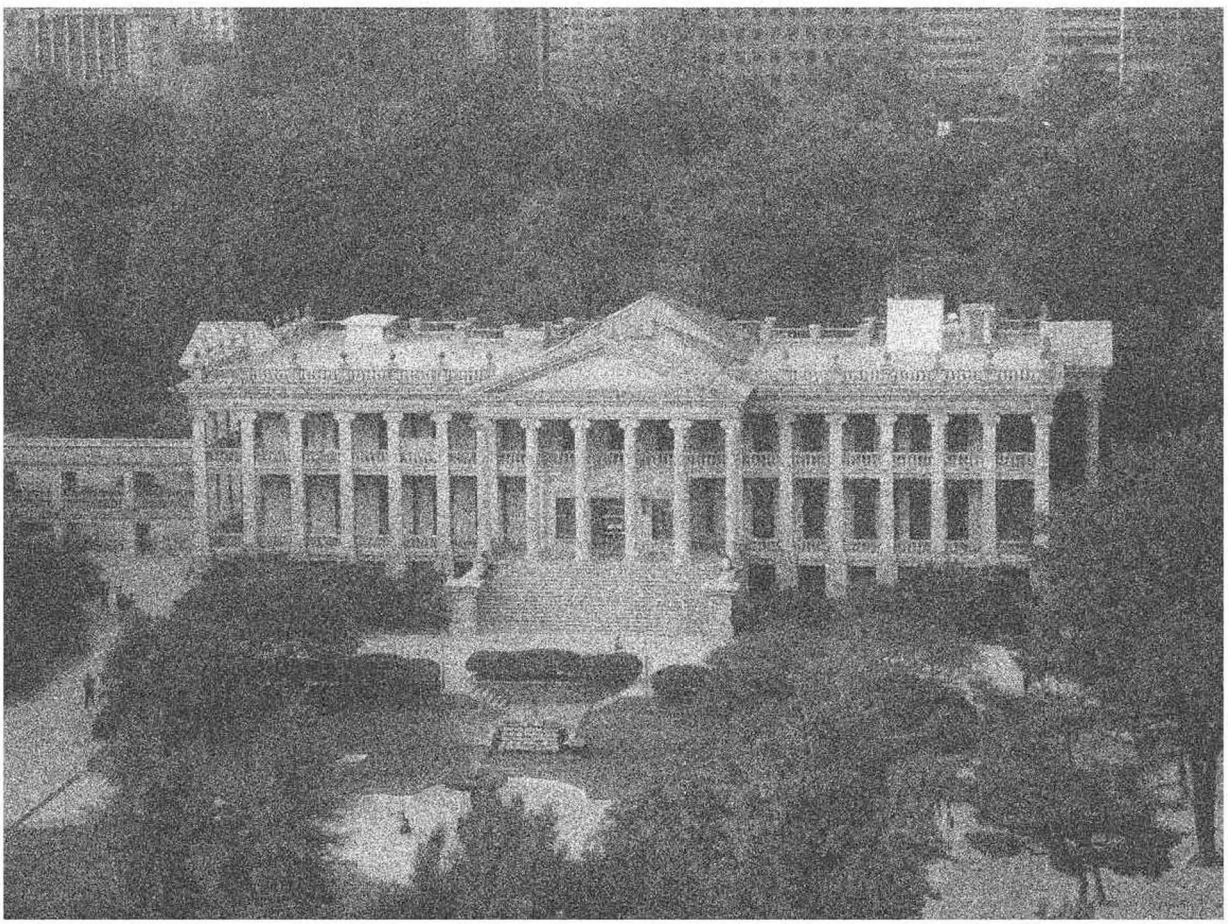
지층 중앙 복도(북→남)

지층 중앙 복도(남→북)

지층 동쪽 복도(서→동)

제 1 장

수리 개요



제 1 장

수리 개요

덕수궁 석조전은 대한제국기 말, 격동의 역사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었다. 1901년 착공하여 1910년 준공된 석조전은 역사의 혼란 속에서 고종황제가 사용한 곳이기도 하다. 이후에는 미술관, 국립박물관, 현대미술관, 덕수궁관리사무소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 사이에 외부는 원 모습이 유지되었지만, 준공한 지 100년이 넘다 보니 건물이 노후하였고 내부는 원 모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에 건립 당시의 모습으로 원형복원하여 대한제국의 상징공간으로 활용하고 역사의식을 고양하며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전면적으로 보수·복원하게 되었다.

1. 덕수궁 석조전 보수·복원 개요

1) 덕수궁 보수·복원정비 개요

• **경운궁 :** 19세기 말 조선은 일제의 폭압에 의해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경운궁을 황궁으로 삼았다. 이즈음 경운궁은 대대적인 궁궐조성사업이 진행되었는데, 1904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계속 중건역사가 진행되어 마침내 궁궐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경운궁 권역은 현재 덕수궁 권역 외에 (구)경기여고 부지 등을 포함한 태평로와 신문로 사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종황제 붕어 이후 일제에 의해 전각이 철거되고 궁성의 축소가 차츰 진행되어 현재 정전인 중화전을 비롯한 중심영역의 일부와 석조전 등만 남아있게 되었다.[1)]

•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 당시의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은 19세기 말 조선 역사의 무대로 그 보존가치가 크다. 이에 당시 일제에 의해 훼철된 덕수궁의 면모를 확인하고 왜곡 단절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연결하며, 국

1) 문화재청,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2005, p3~4 요약 정리함.

가 정체성을 확립하여 역사를 바로 알고 세우며 그 역사적 가치를 재현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2005년 덕수궁 원형복원을 위한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에 의하면 복원 기준은 대화재 후 고종 중창 반포 시점인 1907년을 기준으로 하였고 복원 영역은 현실성을 고려하여 현 덕수궁 영역과 그 외곽 영역으로 나누고, 현 덕수궁 영역은 7개 일곽, 그 외곽 영역은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석조전은 현 덕수궁 영역 중 '석조전 일곽' 에 해당하는데 덕수궁 내에 존재하는 서양건축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 보존을 전제로 한 정비를 제시하였다. 이에 석조전을 건립 당시의 모습으로 원형복원하여 대한제국의 상징공간으로 활용하고 역사의식을 고양하며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전면적으로 보수·복원하게 되었다.

2) 석조전 보수 · 복원 개요

• **석조전 :** 조선 말, 역사의 격랑 속에서 건립된 덕수궁 석조전은 1897년 당시 대한제국 재정고문이었던 영국인 브라운(John Mcleavy Brown)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1898년에 영국인 하딩(John Reginald Harding)이 설계하고 1901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공사는 잠시 중단되었다가 1903년 8월에 재개되어 1910년 준공되었다. 기초공사는 오가와요우키치(小川陽吉)와 심의석(沈宜錫)에 의해 시공되어 1901년 완료,되었지만 1902년 공사가 잠시 중지되었다가 1903년 8월 오쿠라도보쿠구미가 공사를 재개, 1906년 11월 구조공사가 완료되었다. 구조공사에는 데이비슨(Davidson)이 공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1907년부터 시작된 내부공사는 영국인 로벨(Lovell)이 공사감독을 하였고 참여회사는 영국 Crittall & Co사와 Maples & Co사였다.

이후 현재까지 몇 번의 용도변경과 내부평면 변화가 있었다. 초기에는 황가의 생활공간과 집무공간으로 사용되었는데 1933년부터 덕수궁미술관으로 전용되었다. 1938년에는 서관이 완공되면서 이왕가미술관으로 바뀌었고 1945년에는 해방 후 임시정부 등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후 6·25전쟁으로 인해 훼손된 부분을 보수한 후 1955년 국립박물관으로 전용되었다. 그러다가 1973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으로, 1987년에는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사용되다가 2005년부터는 덕수궁관리소로 사용했다.

• **보수 · 복원 추진 경과** :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석조전의 보수·복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08년 9월 설계를 시작으로 2009년 10월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4년 5월에 공사를 완료했다.

설계는 2008년 9월 시작하여 2009년 8월 완료했다. 설계자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다담(대표이사 : 박태연)이다. 보수·복원공사 시공자는 문화재청이 조달청에 의뢰하여 전자입찰을 통해 결정했다. 시공자는 선혜종합건설(주)(대

표이사 : 성순연)이었고 공고 예정금액의 86.049%에 낙찰되었다. 수리보고서는 선혜종합건설(주)이 (주)아름터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 김석순)에 의뢰하여 작성하였다. 공사 중에 기술지도자문회의를 17차례 열어 고증 문제와 기술적 문제를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또 카펫, 커튼, 가구 등과 관련해서 개별자문을 11차례 받았고 그 외에도 시공 상의 공법과 구조적인 문제 등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각종 조사가 5차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은 시행자인 문화재청과 자문위원, 시공자, 보고서 작성자, 그리고 각 분야 기술자와 기능자가 일체가 되어 공사 및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기록하고 사진 촬영하여 이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이들 관계자는 석조전을 원형대로 복원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발굴하고 연구하였다. 그 결과, 마침내 석조전을 원형 보수·복원하기에 이르렀다. 관계전문가 자문위원들은 근대건축물의 모범적 보수·복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고증 자문을 해주었다. 시공자는 시공 중에 최선을 다해 수많은 중요한 자료를 찾아내어 복원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 자료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완성도 높은 복원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시공 중간에 가장 오래된 석조전 도면이 언론을 통해 발굴되어 보수·복원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3) 공사 개요

- **사 업 명 :** 덕수궁 석조전(본관) 보수 · 복원공사(건축 · 기계)
- **공 사 대 상 :** 서울 덕수궁 석조전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 **지 정 별 :** 사적 제124호 (1963년 1월 18일)
- **공 사 금 액 :** 11,911,387,000원(건축 · 기계)
- **공 사 기 간 :** 2009. 10. 29 ~ 2014. 05. 30
- **시 행 청 :**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 **설 계 자 :** (주)종합건축사사무소다담
- **시 공 자 :** 선혜종합건설(주)
- **수리 보고서 :** (주)아름터건축사사무소
- **면적 및 구조 :**

[표 1-1] 복원대상 면적 및 구조

구 분	석조전	
면적	건축면적 : 1,630.05㎡(493.09평), 연면적 : 4,122.52㎡(1,247.06평)	
구조	기초	철근 콘크리트(추정)
	벽	조적조 내력벽 및 외부 석조마감
	바닥	아치형철판 콘크리트 슬라브[2]

2) '아치형철판 콘크리트 슬라브' 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석조전 바닥구조 특성에 맞게 만든 조어이며 이 보고서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 **보수·복원 내용 :**

[표 1-2] 복원대상 보수·복원 내용

구 분	석조전		
건축공사	• 건축공사	• 가설공사	공통가설, 일반가설(울타리, 비계 등), 실사디자인 등
		• 철근콘크리트공사	콘크리트공사 등
		• 조적 및 타일공사	내부 조적공사 등
		• 목공사	벽마감, 마루마감, 천장마감, 걸레받이 등
		• 방수 및 미장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지붕동판공사 등
		• 창호공사	내·외부 창호 교체공사 등
		• 유리공사	내·외부 창호 유리공사 등
		• 도장공사	내부 마감용 도장공사
		• 수장공사	내부 마감용 석재공사, 벽난로공사, 난간공사 등
		• 덕수궁 사무소 이설공사	임시 덕수궁관리사무소 설치
		• 철거공사	기존 내부벽, 천장, 바닥, 변기 철거공사 등
		• 골재대	모래, 자갈, 시멘트
		• 운반비	운반공사 등
		• 정밀안전진단 및 계측	내업, 외업 구조 계측, 2층 추가 벽체 구조 검토 등
		• 주변정비공사, 기타공사	구조보강, 칸막이공사, 천장공사, 난간 조형물공사 등
		• 장식물제작설치공사	황동거울장식, 장식물 등
		• 내부가구 재현	수리가구 운송
	•사후정산(PS)	• 수직카펫(PS)	카펫 제작 및 설치
		• 내부고전장식물(PS)	샹들리에, 펜던트 등 등기구 제작 및 설치
		• 준공수리보고서(1, PS)	준공수리보고서 작성
	•원가항목	• 재료분석비	회몰탈 배합비 분석
		• 준공수리보고서(2)	준공수리보고서 작성
		• 복원공사 중간 자료집	사진 및 자료집 발간
		• 가구실측조사	국립고궁박물관 및 창덕궁 희정당 가구 조사
		• 해외수입가구	영국가구 구매
		• 가구수리	국립고궁박물관 및 창덕궁 희정당 가구 수리
		• 가구제작	구매가구 제작
기계설비공사	• 냉난방기 장비 설치공사		냉난방기 설치
	• 냉난방기 냉매 및 배수배관공사		냉난방기 냉매주입 및 배수배관공사
	• 전열교환기 장비설치공사		디퓨저 등
	• 매립닥트공사		닥트공사 등
	• 환기닥트공사		환기용 닥트공사 등
	• 기존닥트 및 배관철거공사		기존닥트 및 배관철거공사

4) 층 명칭과 각 실 명칭

• **층 명칭** : 공사 전, 설계 당시에는 석조전의 층 명칭을 기존에 사용하였던 관례를 따라 1층, 2층, 3층으로 구분하였다. 또 1차 자문회의에서도 1층, 2층, 3층으로 결정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확인된 도면과 공사 중 발견된 도면 등에 의하면 1층을 'BASEMENT, 地下室, 地層'으로, 2층은 '階下, 第一階, FIRST FLOOR'로, 3층을 '階上, 第二階, SECOND FLOOR'로 표현하고 있다. 즉, 당시에는 1층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도 지하층이나 지층으로 보고 있었고 2층은 1층, 3층은 2층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층 명칭 조정이 필요하다

고 판단되어 준공 시에는 1층을 지층, 2층을 1층, 3층을 2층으로 결정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층수 명칭을 지층, 1층, 2층으로 사용하였다. 이 보고서 원고 중 자문회의관련 부분에서 언급되는 층수는 관례대로 1층, 2층, 3층으로 자문의견서가 작성되었으나 혼란을 감안하여 이를 전부 지층, 1층, 2층으로 수정하여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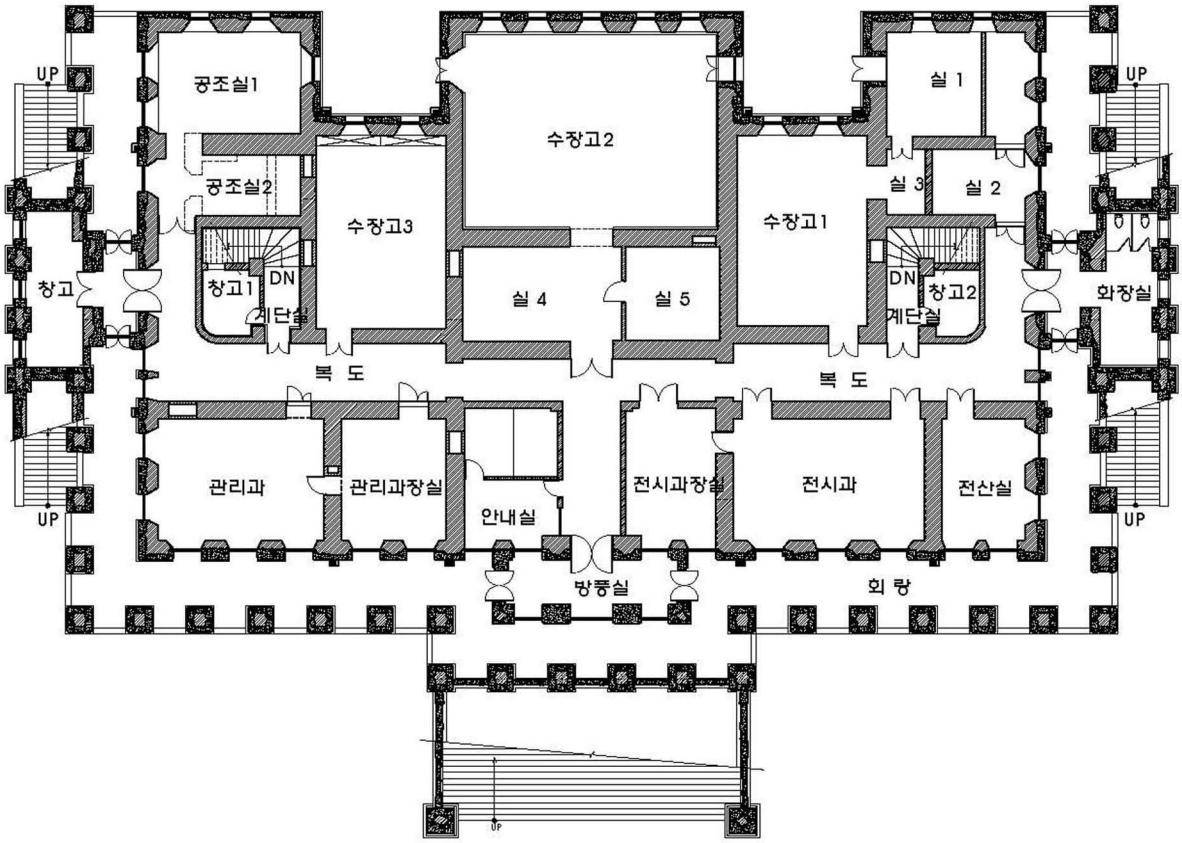
• **각 실 명칭** : 실 명칭 또한 공사 전과 공사 후가 달라졌다. 공사 전에는 이전 궁중유물전시관에서 사용된 명칭으로 통용되었다. 궁중유물전시관 시절 사용된 명칭은 사용상 필요한 명칭일 뿐이어서 명칭의 재조정이 필요하였다.

당시 신문 기사나 사용된 가구에 표시된 중요 실에 대한 명칭을 분석한 결과 [표 1-3]과 같았다. 1층과 2층의 주요 실에 관한 명칭이 나온다. 약간의 단어 차이가 있지만, 그 의미는 거의 같음을 알 수 있었다. 1층 접견실의 경우를 보면 '접견실', '알현실', '알견실' 등으로 나온다. 2층 황제침실의 경우는 '침실', '주무시는 방', '어침실'로 표현하고 있다. 즉,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 용도는 같았다. 이에 이들 명칭을 참조하여 쉽게 그 용도를 알 수 있는 명칭으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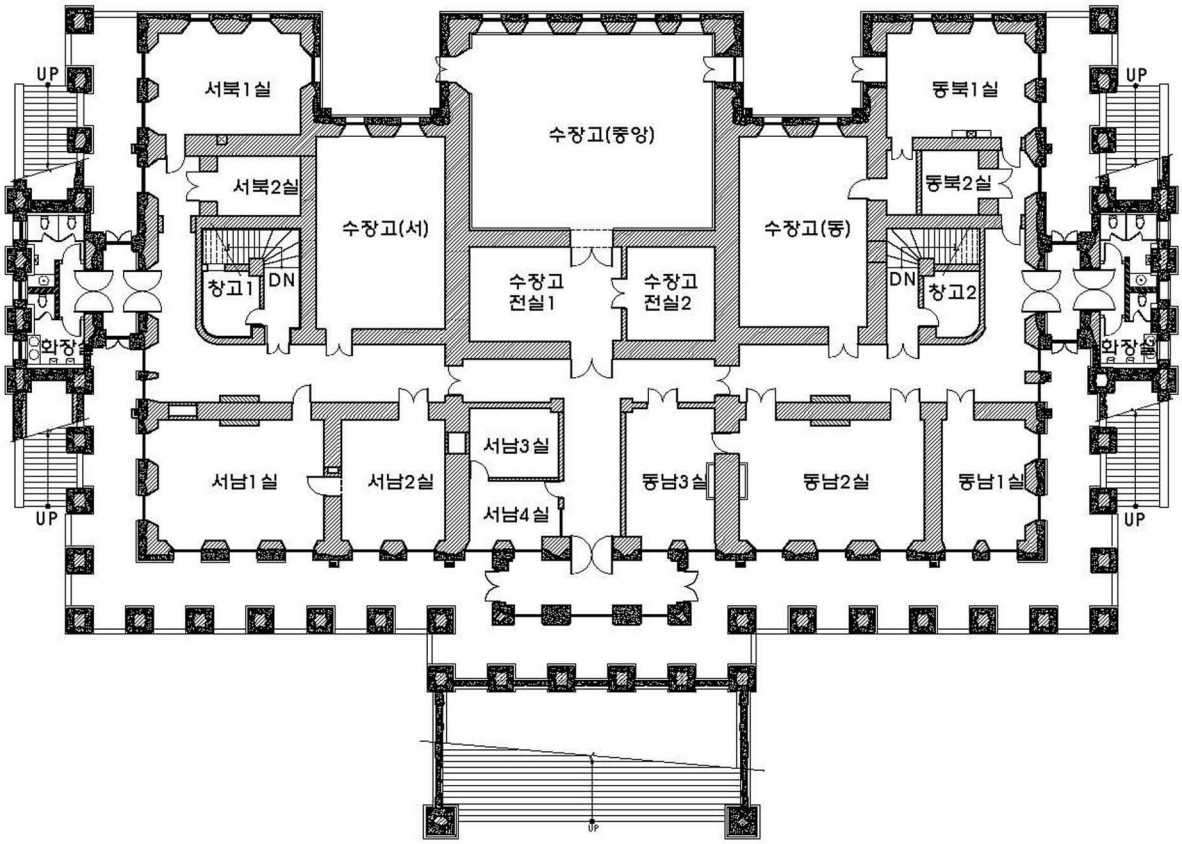
이 보고서에서는 준공 시점에서 결정된 명칭을 사용하였다. 다만, 공사 중에 사용된 명칭이 있어 자문회의관련 기술에는 층 명칭과 달리 공사 중에 사용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 주요 실과 그 용도가 분명한 실 외에는 방위를 전제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표 1-3] 1층, 2층 주요 실 명칭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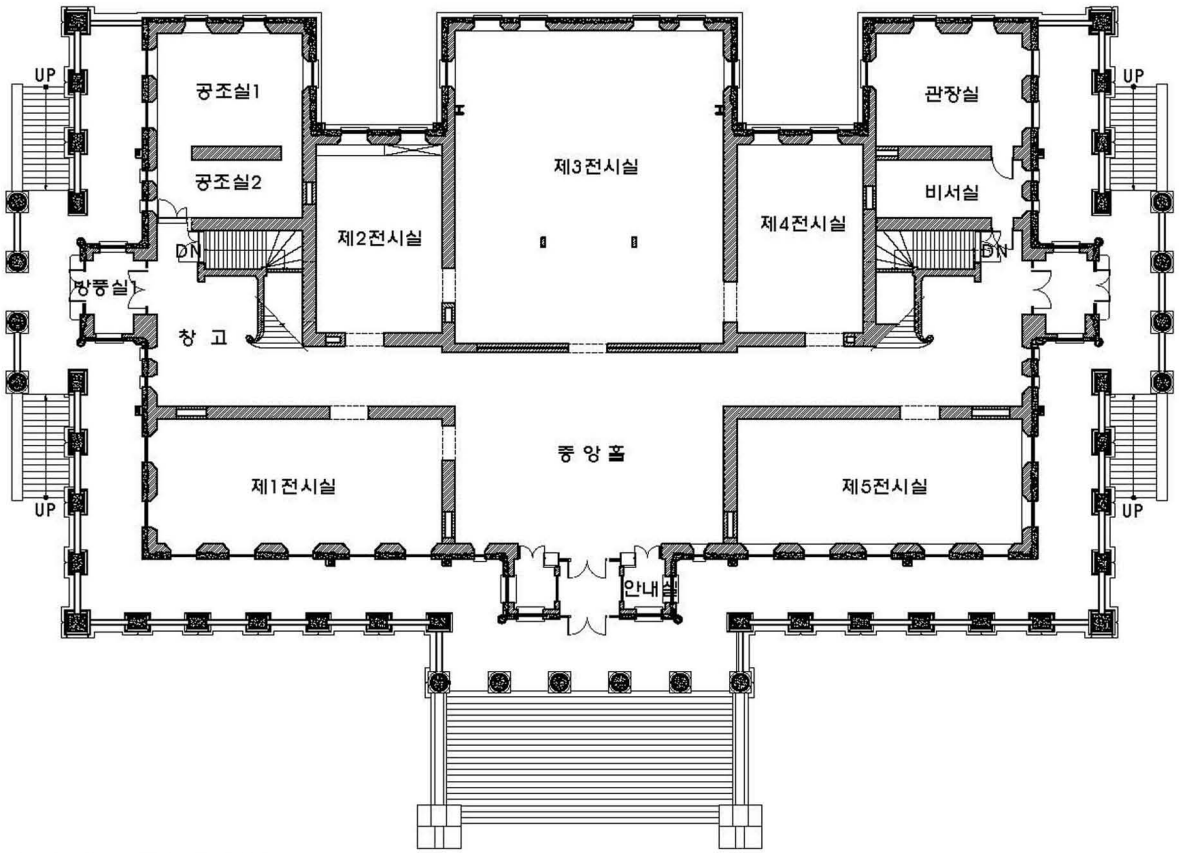
층수	결정 명칭	출처					
		『每日申報』 1910. 12.3 「石造殿 竣工期」	『每日申報』 1918. 12. 29 「兩殿下를 迎接코자」	『每日申報』 1922. 4. 26 「質素하고 莊嚴한 石造殿」	『建築雜誌』 第288号』 1910. 12 「朝鮮德壽宮の 石造殿」	『朝鮮と建築』 1933. 11 「德寿宮石造殿その他」	석조전 가구 명문
1층	**중앙홀**			대청	大廣間	大廣間	
	귀빈대기실			응접실			RECEPTION ROOM
	접견실	접견실	알현실	접견실	接見室	謁見室	
	소식당		식당			小食堂	PRIVATE DINING ROOM
	대식당		식당	식당		貴賓食堂	DINING ROOM
2층	**황제침실**	침실	주무시는 방	침실	寢室	御寢室	EMPEROR' S BEDROOM
	황제서재	거실	책보는 방		居室	御居間	EMPEROR' S LIBRARY
	황후거실	거실			居室	御居間	EMPRESS' S BOUDOIR
	황후침실	침실	주무시는 방	침실	寢室	御寢室	EMPRESS' S BEDROOM
	욕실/화장실	목욕실	목욕하시는 방	욕실, 변소	浴湯		
	시종실		관원 거처할 방	시종실, 응접실	談話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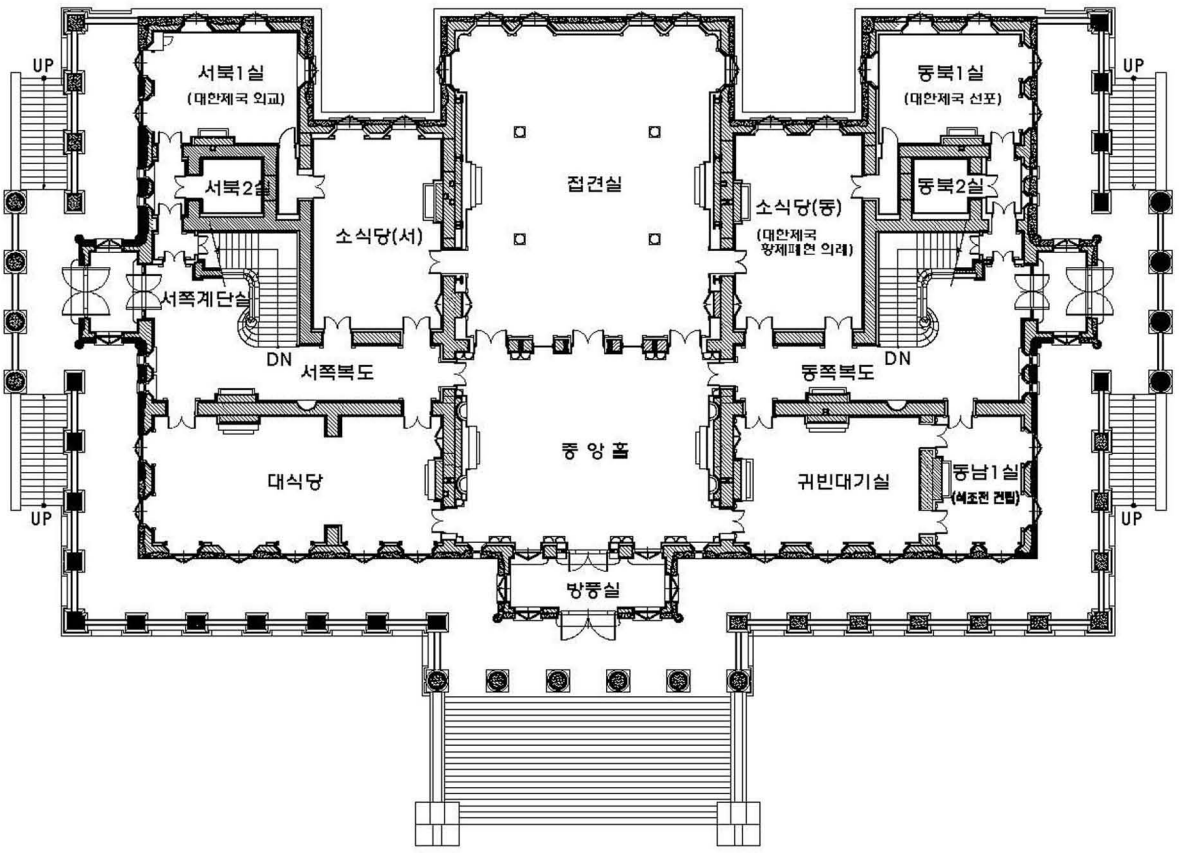
[도면 1-1] 지층 공사 전 실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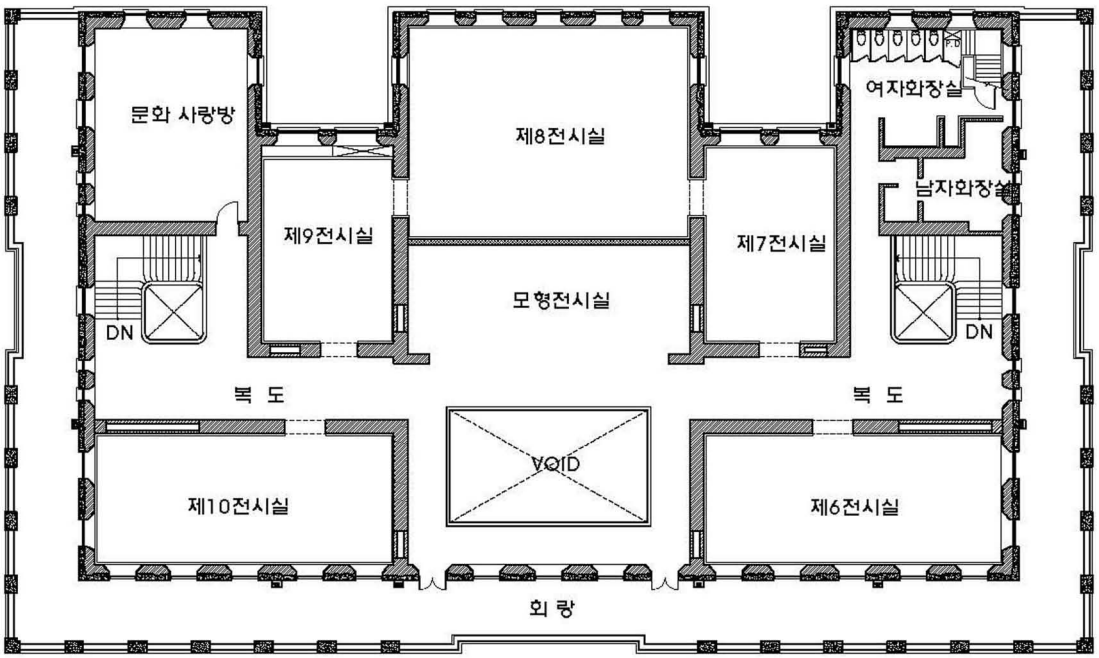
[도면 1-2] 지층 공사 후 실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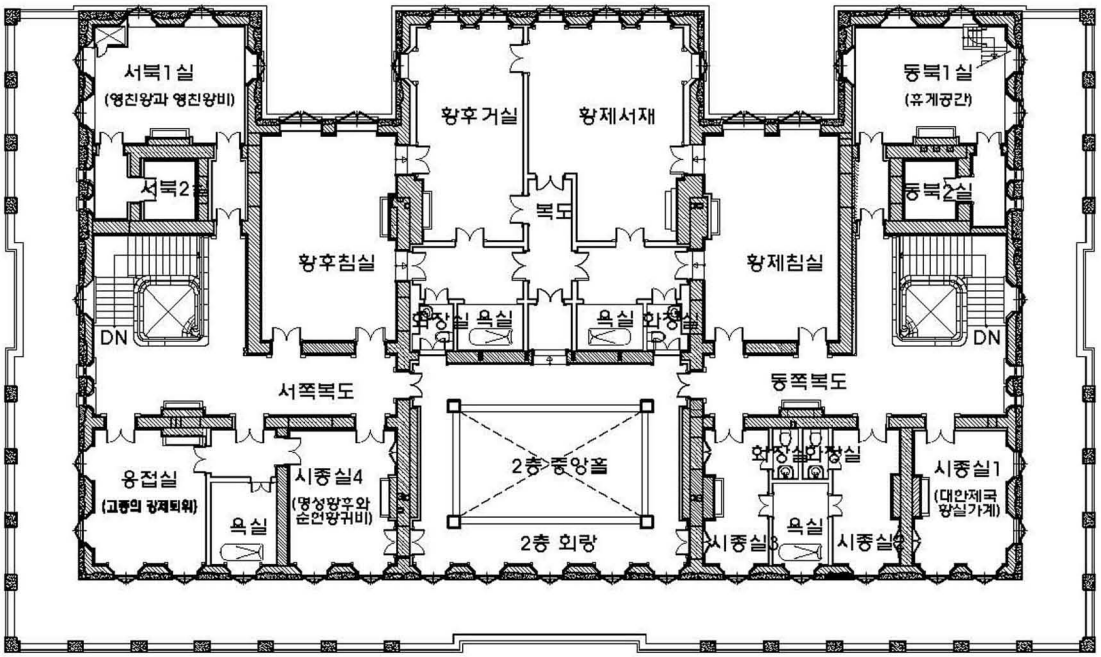
[도면 1-3] 1층 공사 전 실 명칭



[도면 1-4] 1층 공사 후 실 명칭



[도면 1-5] 2층 공사 전 실 명칭



[도면 1-6] 2층 공사 후 실 명칭

2. 보수·복원 공사 내용

1) 보수·복원 설계

• **설계 지침** : 설계는 ㈜종합건축사사무소다담(대표이사 : 박태연)이 하였다. 설계 용역명은 '덕수궁 석조전 원형복원 및 활용방안 조사용역' 이었다. 설계용역비는 기초금액 120,990,000원이었고 89.333%에 낙찰되었다. 용역의 주요 과업지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략]

5. 용역지침

ㅇ 덕수궁 장기 원형복원 계획의 일환으로 석조전 원형복원 계획(설계) 및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제시

ㅇ 덕수궁 내 중명전과 연계한 활용방안도 제시

6. 용역세부개요

ㅇ 석조전

- 건물에 대한 고증자료를 수집, 조사하고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와 복원계획 설계를 작성, 제출토록 한다
- 석조전의 건립 목적 및 기능에 맞는 활용방안이 보고서에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 원형복원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한다
- 활용계획 연구 시 다음 내용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한다

· 석조전 본래 기능에 맞게 건물을 원형복원 후, "대한제국역사관(가칭)"으로 활용·운영하며 복원 후의 건물 1층과 2층 적정부분 공간(실내벽면, 복도 등)에 근대미술품 배치 검토(현대미술관 추천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

ㅇ 중명전

- 석조전과 연계한 활용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ㅇ 용역수행 과정에서 각계(언론, 시민단체, 관련 학술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역사적 가치와 그 기능에 맞는 활용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한다.

7. 조사연구진 구성

ㅇ 자문위원단 구성은 각 분야별 관련전문가가 참여토록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ㅇ 조사·연구의 총괄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를 책임연구원으로 하고 분야별 책임자와 조사반원을 편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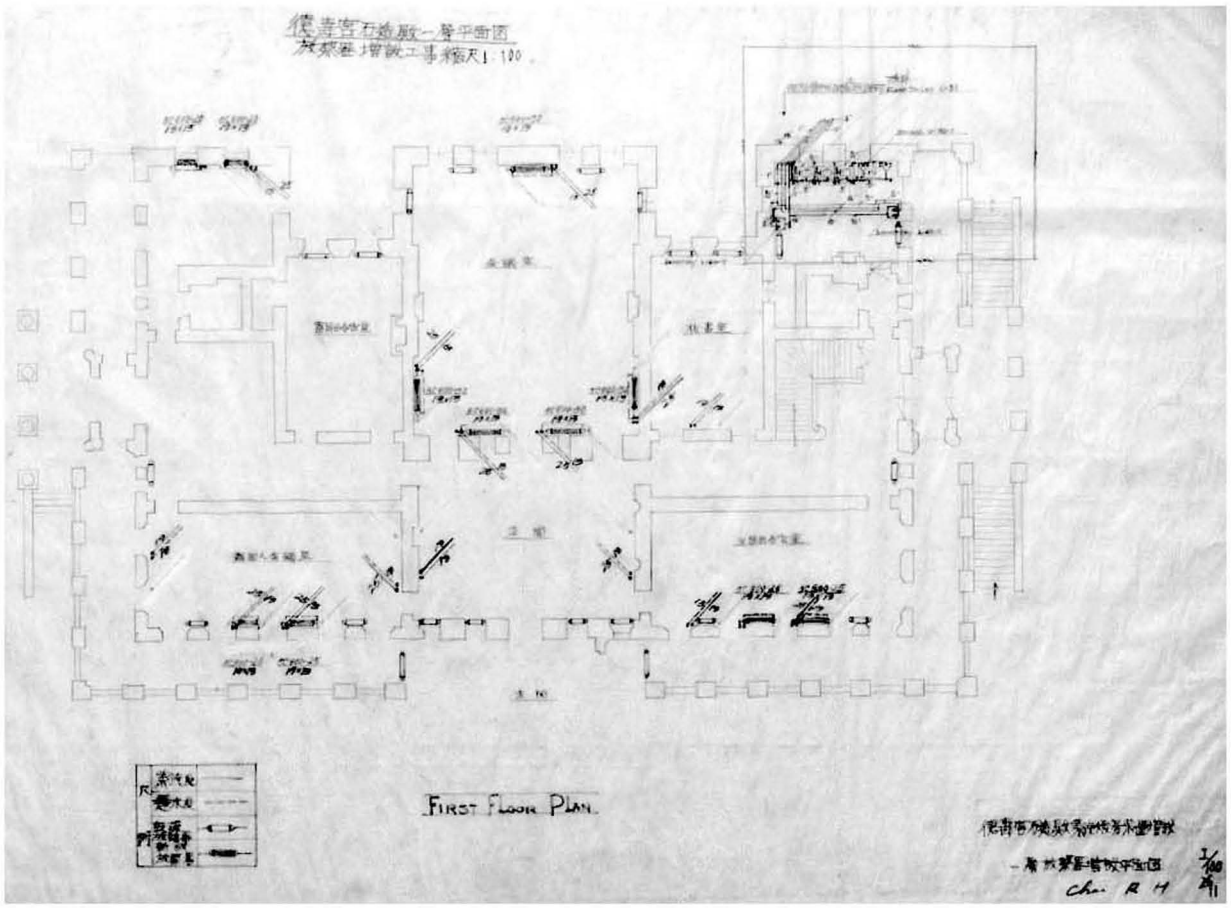
[하략]

• 설계 과정 : 설계의 주된 내용은 보수·복원 설계와 활용방안 연구로 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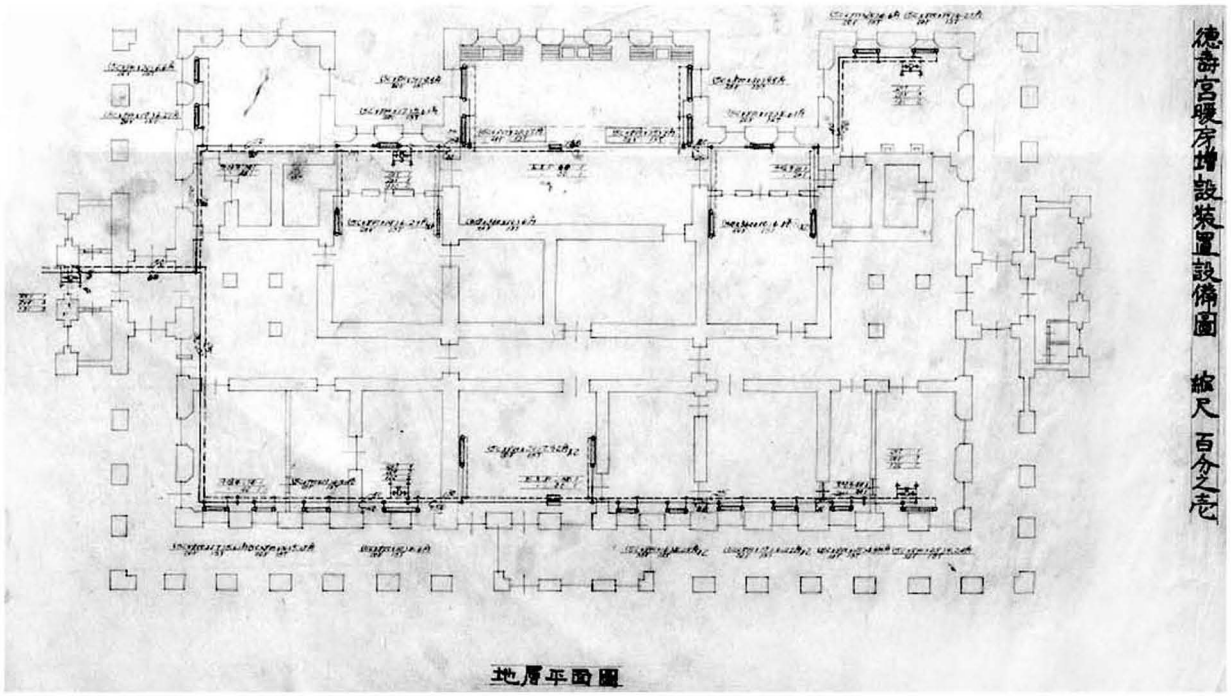
궁 장기 원형복원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석조전의 기초자료(사료, 문헌, 옛 도면, 사진 등)의 수집·분석을 통해 당해 건물 원형 및 변형에 대한 고증조사 연구와 연구결과에 따른 원형복원·활용계획 설계를 통해 당해 역사적 가치와 그 기능에 맞는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자료를 조사하였다. 국내 자료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서울대학교 규장각 자료실, 국가기록원(대전본원, 성남지원, 부산지원), 부산시립시민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서 찾아보았고 국외 자료로는 일본의 궁내청자료보관소, 국립공문서기록관, 대성건설주식회사 등과 영국의 대영도서관, 국가기록원, 대영토목학회 등에서 찾아보았다.

조사결과 1933년 개수공사 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석조전 지붕도면 및 고증자료를 발굴하였고, 국가기록원(성남지원)에서 6·25 동란으로 내부 소실 직전인 1945년 10월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석조전 도면을 찾아내었다.[그림 1-1~1-10 참조] 총 12장으로 되어 있고 트레이싱지에 그린 난방 설비 도면이다.[3] 또 석조전 설계자인 J.R. Harding 관련 자료를 찾아냈다. 하딩이 그동안 G.R. Harding으로 알려졌는데 J.R. Harding임을 밝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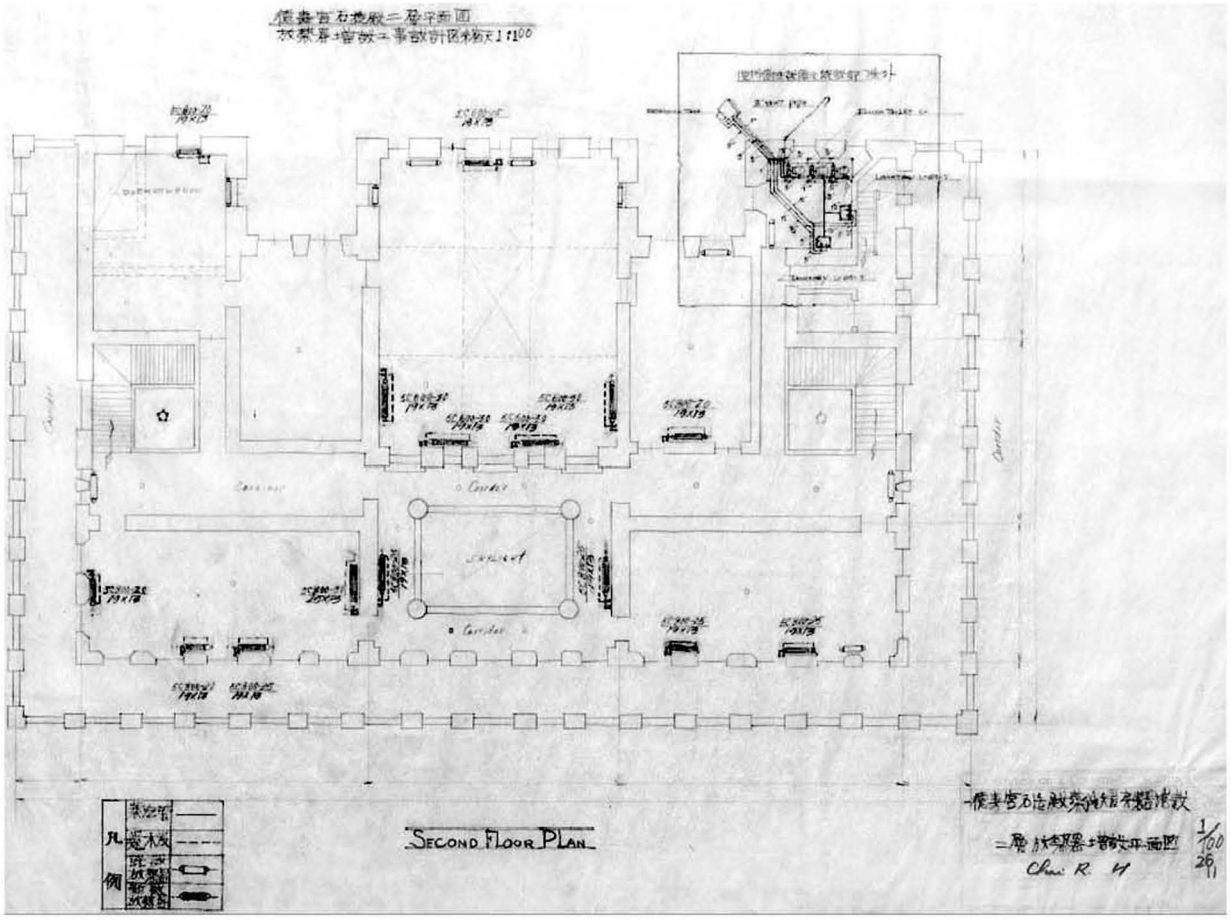
3) 이 도면 외에 석조전 관련 도면과 사진 등을 모아 석조전 공사 중인 2011년에 문화재청에서 '덕수궁 석조전 본관 복원공사 자료집'이란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 이 도면들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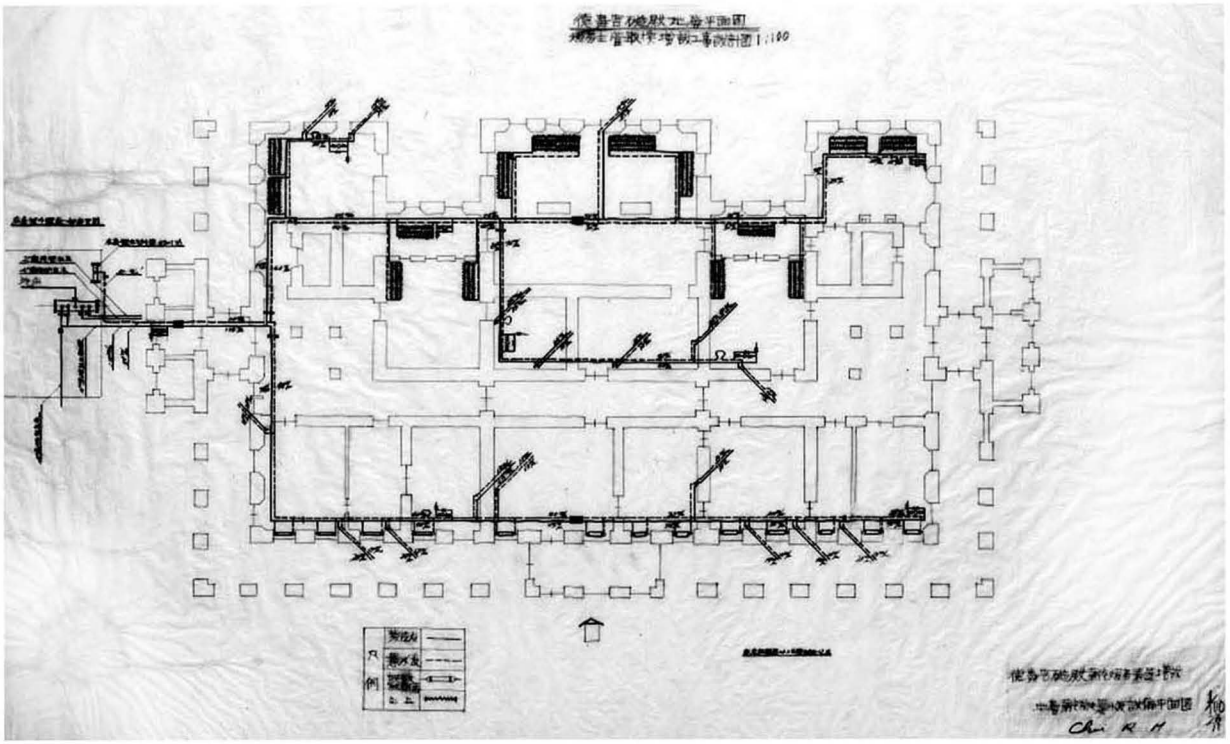
[그림 1-1] 덕수궁 석조전 일층평면도/방열기 증설공사-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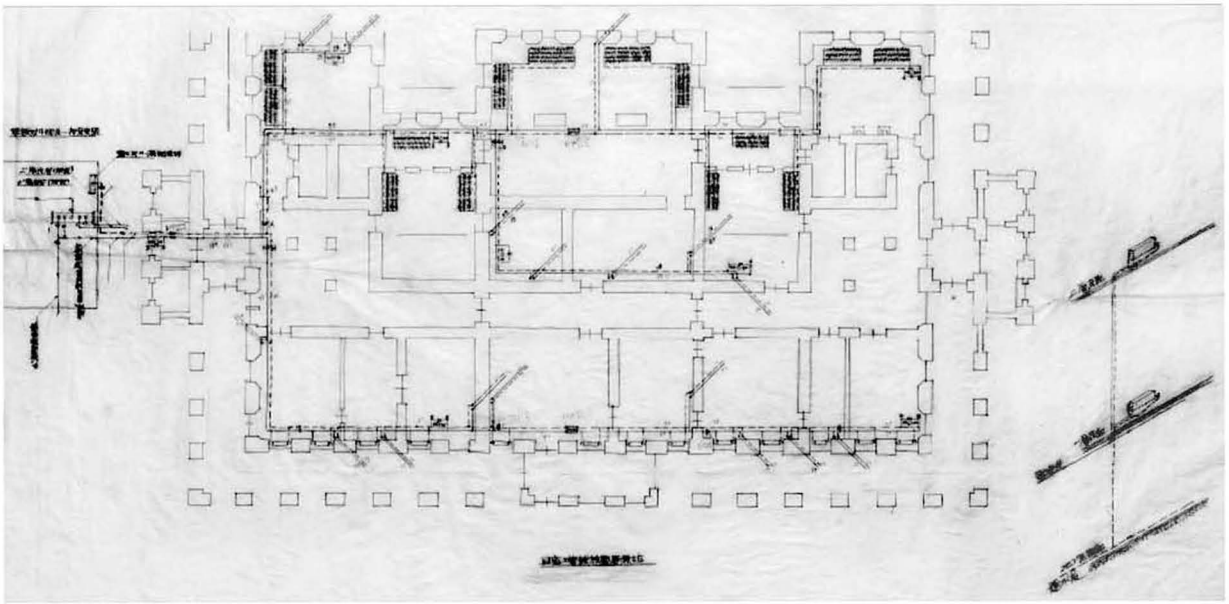
[그림 1-2] 덕수궁 난방증설장치 설비도-지층(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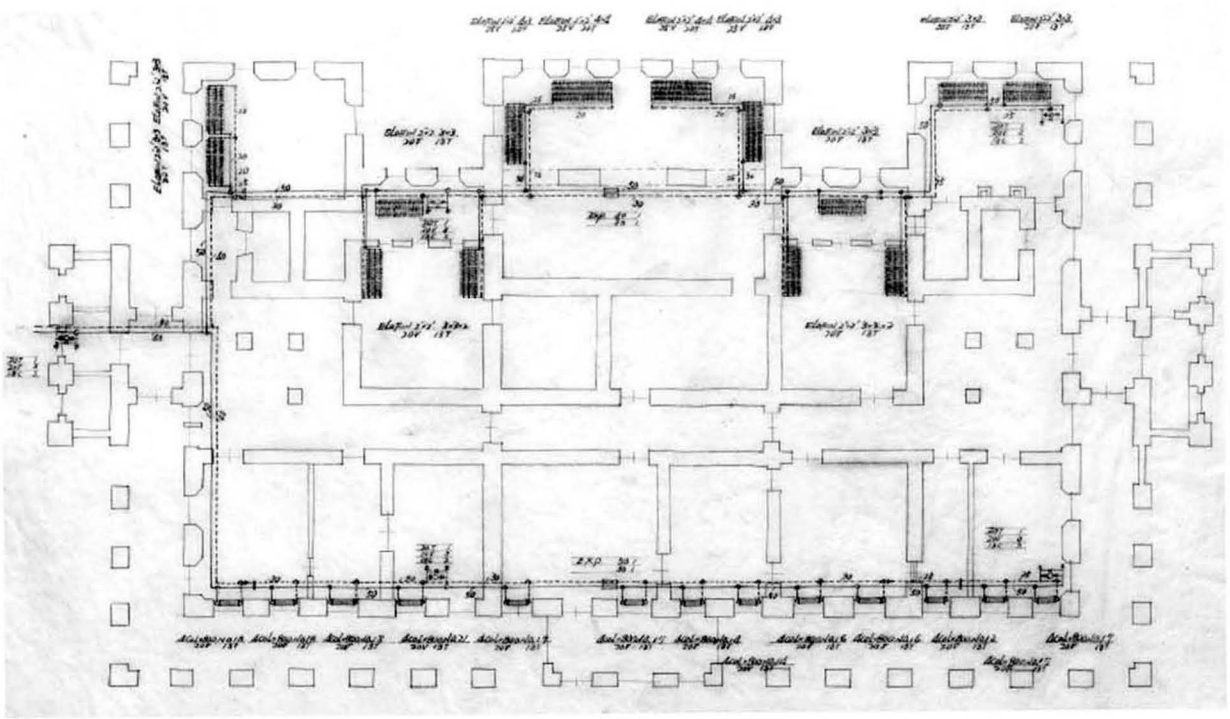
[그림 1-3] 덕수궁 석조전 이층평면도/방열기 증설공사 설계도-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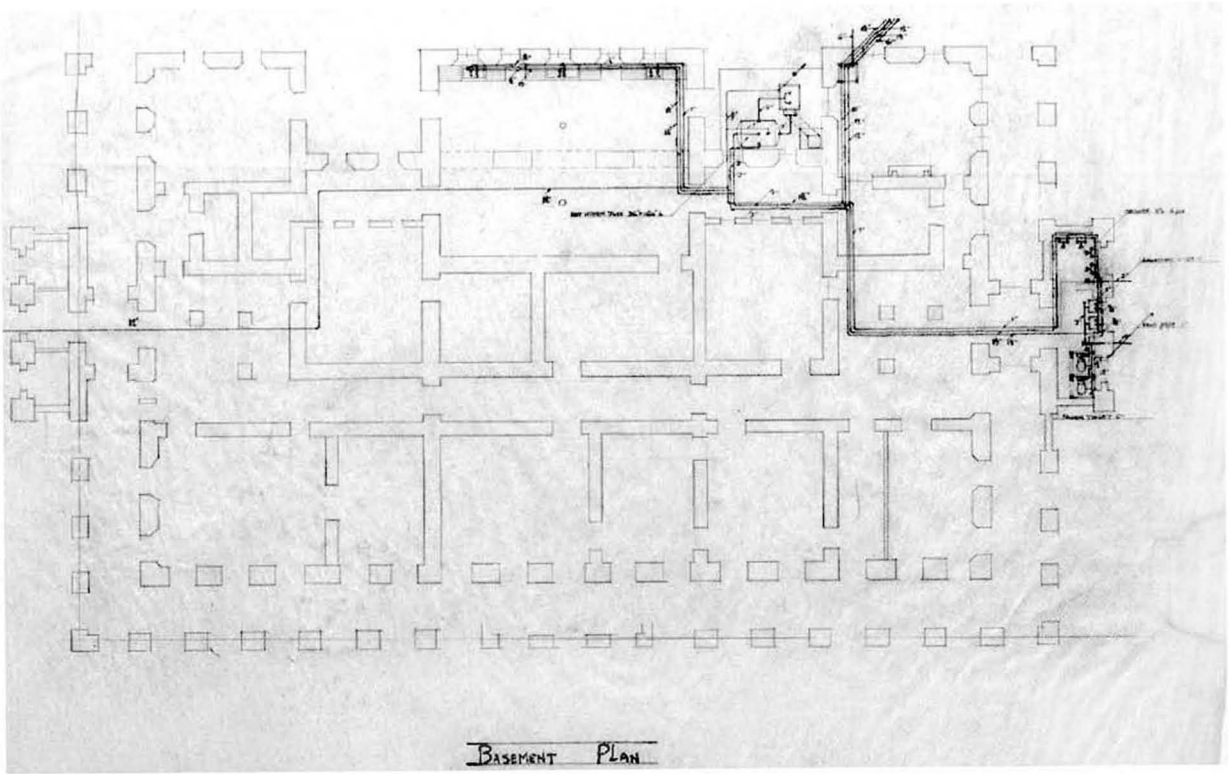
[그림 1-4] 덕수궁 석조전 지층평면도/난방주관취한증설공사 설계도- 지층(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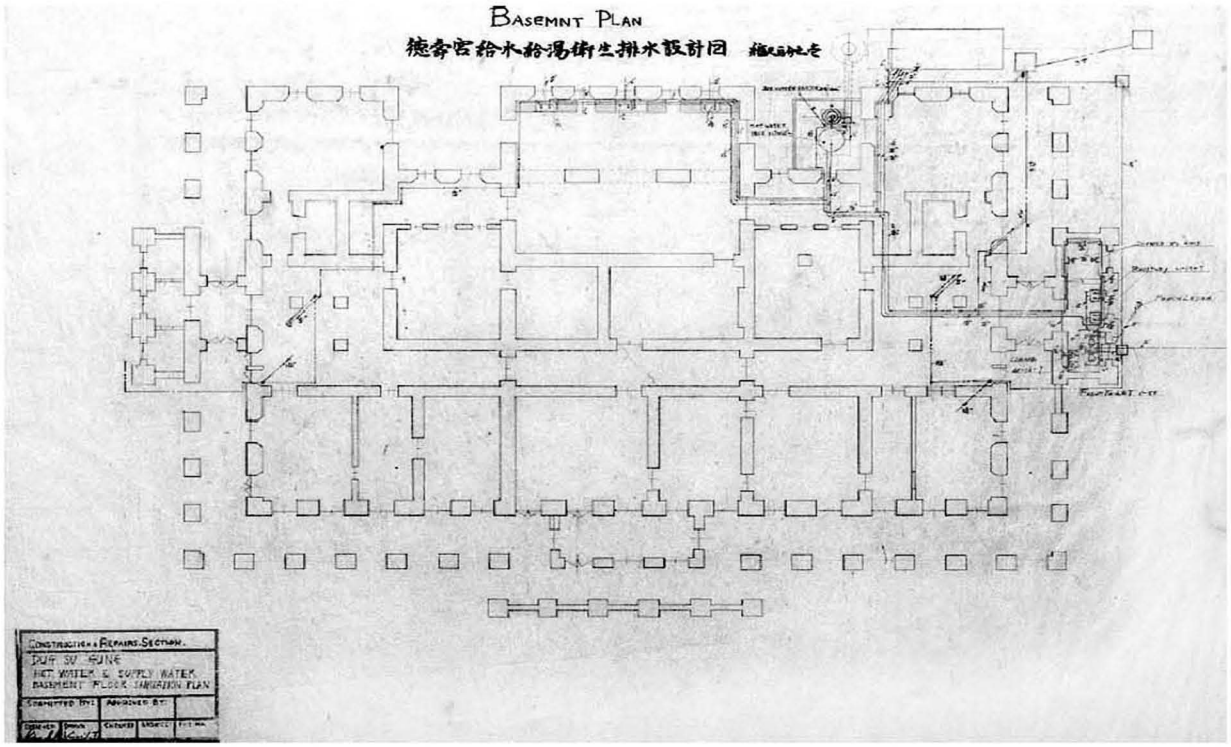
[그림 1-5] 석조전 증기난방설치-지층(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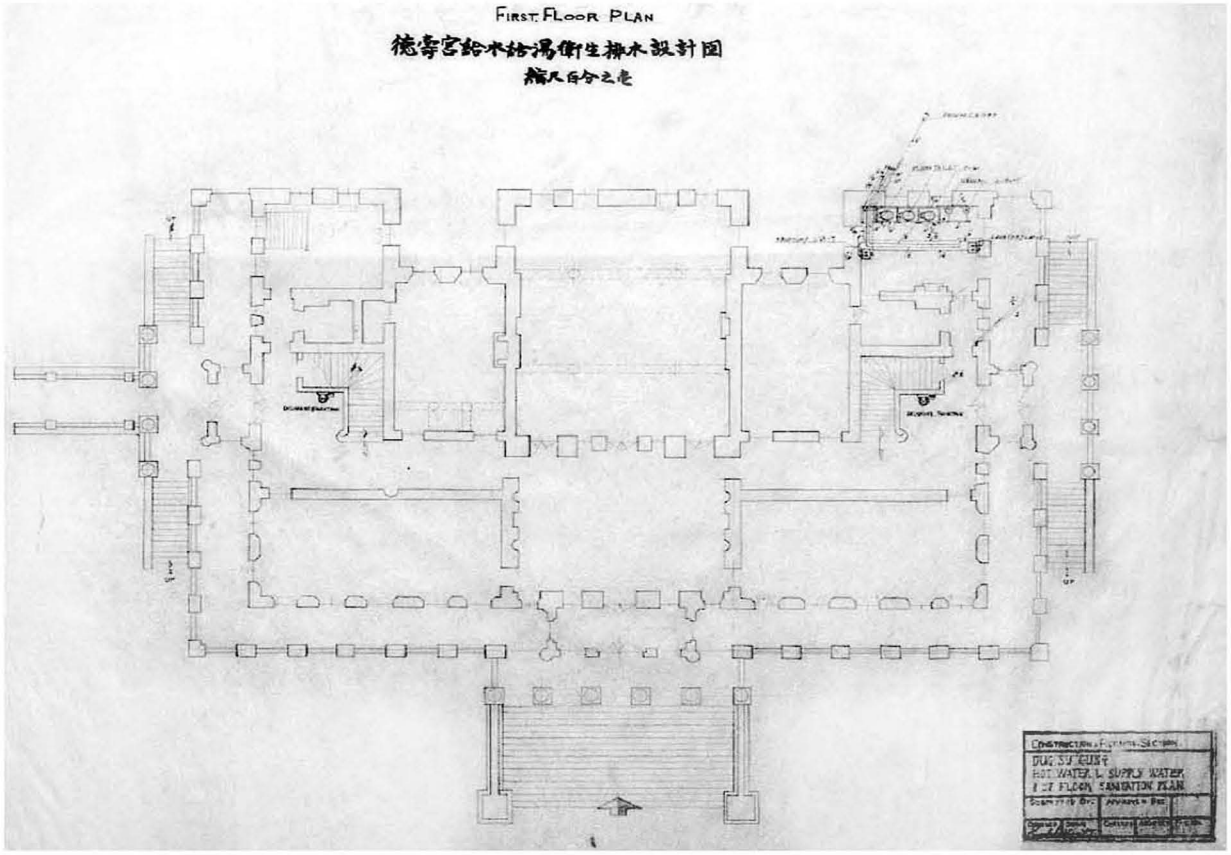
[그림 1-6] 석조전 증기난방설치-지층(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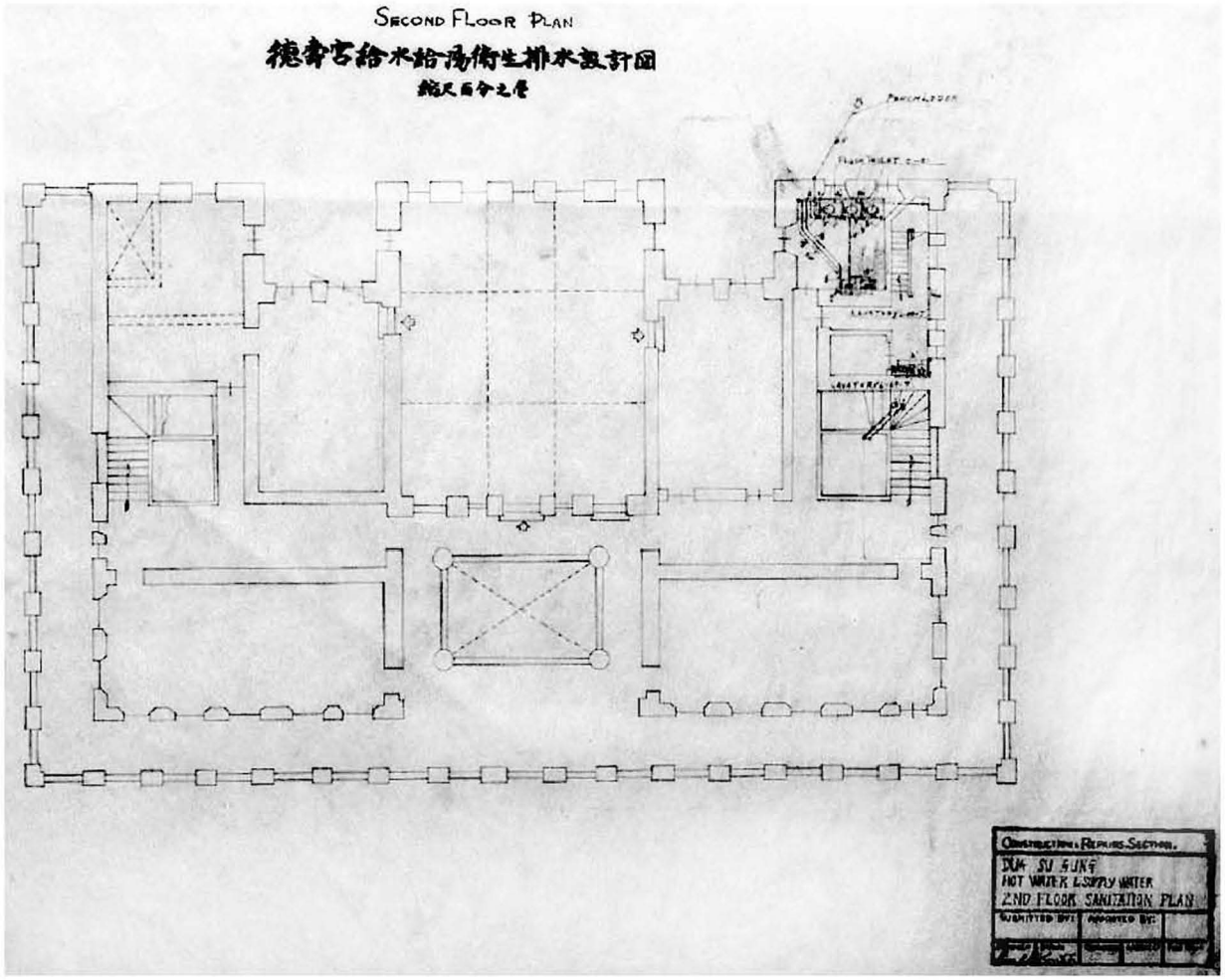
[그림 1-7] 석조전 증기난방설치-지층(5)



[그림 1-8] 덕수궁급수급탕위생배수설계도-지층



[그림 1-9] 덕수궁급수급탕위생배수설계도-1층



[그림1-10] 덕수궁급수급탕위생배수설계도-2층

그 외 석조전 건립과 관련된 고증자료(문헌, 사진)를 다수 수집할 수 있었다. 한편, 복원설계의 방향 설정을 위해 고증과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자문위원은 근대건축역사 및 한국사 관련 학자로 구성하였고 자문회의는 총 4차례가 이루어졌다. 자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설계 자문회의와 자문위원

자문회의	자문위원
• 1차 회의 : 2008년 10월 09일 • 2차 회의 : 2008년 11월 20일 • 3차 회의 : 2009년 01월 08일 • 4차 회의 : 2009년 05월 22일	• 김정동(문화재위원, 목원대교수, 근대건축연구), • 이민원(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 대한제국기 연구), • 김란기(근대건축 연구, 도쿄모모 코리아 연구위원), • 김종헌(배재대교수, 근대건축연구), • 강성원(근대건축연구, 근대건축 공학박사), • 이혜원(대한제국 황실사 연구)

자문 결과	
• 석조전 외부	• 석조전 외부는 과거와 현재의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금회 복원공사에서는 내부 실만 원형 복원공사를 실시한다.
• 석조전 1층	• 석조전 지층은 과거에는 시종 및 상궁 등이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주로 관리사무실 및 공조실, 화장실 용도로 사용하므로 현황을 유지하되 관리사무소 및 자료보관(창고) 공간으로 활용한다. • 석조전 1층은 원래 실별인 대광간(홀), 접견실, 거실, 침실, 욕실, 귀빈대기실, 소식당 등으로 계획한다. •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벽난로와 접견실 내부 기둥, 대광간(홀)의 붙임기둥을 복원한다. • 1층 접견실은 1918년대 사진이 원형의 모습이고, 이는 미술관 및 근대일본미술진열관에서도 유사하다. 또한, 샹들리에 같은 고급조명시설은 1938년에도 원형유지 했던 걸 알 수 있다. 석조전 1층 접견실은 기존에 있던 사진 자료(1918년)를 바탕으로 복원한다. •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부 기둥이 있었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스팬의 접견실에서 구조적인 역할로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내부기둥은 최소한 근대일본미술진열관으로 쓰이던 1930년대까지는 존재하였으나,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그 이후에 소실되었다. • 1층 대광간(홀)은 현재 중앙홀 부분으로 사진으로 보듯이 내부 붙임기둥, 조명기구, 벽난로, 등 화려했던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대광간(홀) 역시 1930년대에 벽난로 등 세부요소가 변경되었으며, 한국전쟁 중에 훼손되었다. • 대광간(홀)은 기존에 있던 사진 자료(1918년)를 바탕으로 복원한다. • 현재에는 없는 벽난로, 붙임기둥(외부 회랑 기둥과 같은 형태인 이오니아식 기둥)으로 복원하며, 출입문 및 거울, 장식문양, 몰딩 등을 복원한다. • 접견실, 대광간(홀) 이외의 실(석조전 1층 거실, 침실, 귀빈대기실, 소식당, 욕실)은 원형자료가 많이 부족하며, 기존에 있던 사진 자료와 동시대 건물을 참고하여 복원한다.
• 석조전 2층	• 석조전 2층은 원래 실별인 중앙복도(난간), 알현실, 거실, 침실, 욕실, 귀빈식당, 소회의실로 복원한다. •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벽난로와 중앙복도에 철재난간을 원래 난간으로 복원한다. • 알현실은 창건 당시(1918년) 실내 내부 장식으로 복원하며, 실내 벽난로, 문양과 장식, 몰딩, 가구 등을 복원한다. • 중앙복도 부분은 현재 철재난간을 난간동자로 복원하며, 알현실 출입문, 벽면 모양도 사진을 바탕으로 복원한다. • 현재 없는 난간 모서리에 네 개의 기둥(외부 회랑 기둥과 같은 형태인 이오니아식 기둥)을 복원한다. • 알현실, 중앙복도 이외의 실(석조전 2층 거실, 침실, 귀빈식당, 소회의실, 욕실)은 원형자료가 많이 부족하며, 기존에 있던 사진 자료와 동시대 건물을 참고하여 복원한다.
• 기타	• 석조전 천장 반자는 고증자료를 근거로 복원하며, 동시대 건물 내부 마감을 참고로 원형복원한다. • 석조전 천장 조명등과 벽면 조명등은 영국의 크리탈 회사의 것으로 고증자료를 근거로 복원하며, 고궁 박물관, 창덕궁 희정당 등에 소장된 조명 기구를 참고한다. • 석조전 바닥 마감은 고증자료를 근거로 목재 마루 마감 위 양탄자로 복원하며, 바닥 문양 및 형태는 창덕궁 희정당 등 동시대의 건물을 참고하여 복원한다. • 석조전 가구는 남아있는 고증자료와 국립고궁박물관 등에 남아있는 석조전 관련 고가구를 참고 복원한다.

2) 설계 변경

문화재공사의 경우 공사를 하다 보면 현대건축보다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진다. 수리를 위해 해체를 하다 보면 해체 전에는 알 수 없던 원형이 확인되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면 애초 설계내용과 달라져 원형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설계변경의 주된 사유는 원형 확인에 따

른 공사내용의 변경과 그에 따른 시공방법의 변경, 현장여건 변경 등이다. 석조전 보수·복원을 하면서 총 8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다. 각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5] 설계변경 총괄 내용

구 분	변경 횟수	금 액			공사기간	
		애 초	최종변경	증 감	애 초	변 경
건축공사	8회	4,158,679,480	11,050,946,000	+ 6,892,266,520	2009.10.29~2012.10.27	2009.10.29~2014.05.30
기계공사	8회	531,735,520	860,441,000	+ 328,705,480	2009.10.29~2012.10.27	2009.10.29~2014.05.30
계		4,690,415,000	11,911,387,000	+ 7,220,972,000		

[표 1-6] 1회 설계변경

1회 설계변경	기간	2009. 10. 29 ~ 2009. 12. 28			총공정률	약 16.71%	
	구분	총 부기금액			금차금액(1차 사업)		
		건축	기계	계	건축	기계	계
	애초	4,158,679,480	531,735,520	4,690,415,000	1,771,000,000	219,000,000	1,990,000,000
	변경	4,158,679,480	531,735,520	4,690,415,000	1,886,787,000	103,213,000	1,990,000,000
	증감	0	0	0	+115,787,000	-115,787,000	0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건축공사	• 주변과 어울리는 디자인의 실사출력물을 공사현장 외부에 확장 설치, 관람객에게 자연스러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며 편안한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작업차량 출입구 신설 • 철거 시 구조안전 확보를 위하여 강관동바리 증가 설치 • 원형추정을 위한 내부 마감재 철거물량 증가, 마감자재의 불연성능재 변경 • 밀폐식 창호로 변형된 외부창호를 원형과 같은 개폐식 창호로 복원 • 석조전 내부철거로 인한 덕수궁관리소의 이전 설치 • 철거에 따른 구조체 및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계측 실시 • 내부 고전장식물 물량 변경						
기계공사	• 변경 없음						

[표 1-7] 2회 설계변경

2회 설계변경	기간	2010. 03. 29 ~ 2010. 12. 24			총공정률	약 29.30%	
	구분	총 부기금액			금차금액(2차 사업)		
		건축	기계	계	건축	기계	계
	애초	4,158,679,480	531,735,520	4,690,415,000	1,235,630,000	264,370,000	1,500,000,000
	변경	5,277,915,124	534,868,396	5,812,783,520	1,235,630,000	264,370,000	1,500,000,000
	증감	+1,119,235,644	+3,132,876	+1,122,368,520	0	0	0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건축공사	• 벽체쌓기(고벽돌) 범위 및 물량 증가에 따른 변경 • 벽체 미장(회벽바름) 범위, 면적 등 증가 및 1층 바닥 방수공사 추가에 따른 변경 • 기존 철재(기둥, 천장 바닥판, 트러스 등) 녹제거 및 녹막이 페인트칠 추가에 따른 변경 • 바닥콘크리트철거 및 페인트면 긁어내기 제외 • 철골보강, 철판보강, 균열부 에폭시보강 및 알현실 바닥 목상설치 등 추가에 따른 변경 • 실측조사 및 현황조사 구간 추가(1층) 및 상세도면 작성 등으로 인한 내용 변경에 따른 증가						
기계공사	• 변경 없음						

[표 1-8] 3회 설계변경

3회 설계변경	기간	2011. 03. 21 ~ 2011. 12. 15			총공정률	약 50.09%	
	구분	총 부기금액			금차금액(3차 사업)		
		건축	기계	계	건축	기계	계
	애초	5,277,915,124	534,868,396	5,812,783,520	2,155,498,124	167,285,396	2,322,783,520
	변경	10,017,862,000	748,660,000	10,766,522,000	2,292,905,644	183,877,876	2,476,783,520
	증감	+4,739,946,876	+213,791,604	+4,953,738,450	+137,407,520	+16,592,480	+154,000,000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건축공사	•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등 고증결과에 따른 내부 원형복원 변경 • 목재마루 바자무늬 깔기는 원목(오크목) 마루 깔기로 조정 • 벽체 목재 문양장식 제외 및 석고형틀 제작 · 몰딩설치로 변경 • 1층 외부 창호 변경에 따른 제작 추가 • 목재 창호 자재(홍송→오크목) 및 규격 변경 • 1, 2층 계단실 및 복도 벽체 대리석 설치 면적 증가 • 옥상 굴뚝 11개소 복원 및 조각물 설치 • 벽난로 내화벽돌 설치 제외, 화구 주물제작 및 대리석 가공 마감 변경 • 벽면, 천장 등 각종 장식물 제작 설치 수량 증가 • 옥상 누수에 따른 우레탄 방수 추가 • 중앙홀 천창 변형부분 복원 추가 • 옥상 난간 장식물 추가 • 벽체 석고보드 설치 면적 증가(1층 추가) • 1차 설계변경 시 제외된 사후정산품목(카펫, 조명기구 등) 추가 • 복원 자료집 발간						
기계공사	• 공조설비 실외기 위치 조정 및 1층 천장고(h=2.1m)에 따른 시스템 에어컨 설치 제외 후 스탠드형 에어컨 설치 • 냉난방 공조설비가 개별제어식으로 설치되어, 효율적인 관리 등을 고려하여 중앙제어식으로 병행 설치 • 급수 및 급기덕트 및 배관 설치 추가 • 기존의 노후된 소화배관을 철거하고 옥내소화전 신규 배관						

[표 1-9] 4회 설계변경

4회 설계변경	기간	2012. 01. 30 ~ 2012. 12. 20			총공정률	약 75.03%	
	구분	총 부기금액			금차금액(4차 사업)		
		건축	기계	계	건축	기계	계
	애초	10,017,862,000	748,660,000	10,766,522,000	2.719.760,000	200,340,000	2,920,000,000
	변경	9,967,293,000	799,227,000	10,766,522,000	2.763.374.000	206,626,000	2,970,000,000
	증감	-50,567,000	+50,567,000	0	+43,614,000	+6,386,000	+50,000,000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건축공사	• 석조전 전면 가설울타리 실사그림 훼손 및 노후 등에 따른 디자인막 교체 • 중앙홀 좌측면 벽감 설치, 알현실 좌우측 개구부, 2층 남측면실 개구부, 계단실 개구부 폐쇄 등에 따른 조적, 미장, 석고보드 설치 등 공사 물량 증가 • 2층 황제, 황후 화장실 및 전면 화장실 2개소 바닥 타일 변경(압착타일→대리석)에 따른 물량 조정 • 1층 천장 및 1, 2층 복도, 1층 전실, 2층 실 구획 변경에 따른 GFRG(석고형틀 및 몰딩제작) 물량 증가, 1층 내부 의장기둥 설치 물량 추가 • 1, 2층 각 실 바닥 마루문양 변경(올드스타일→무늬마루) 및 복도 바닥 대리석 설치를 무늬마루 깔기로 변경, 1, 2층 준비실 장마루 깔기 추가 • 옥상 지붕트러스 동판 하부 방수시트 설치 추가 • 주물제작 창호 손잡이 및 잠금쇠 설치를 고전스타일 손잡이 및 잠금쇠 설치로 변경 • 1, 2층 실 구획 변경에 따른 창호 물량 증가 • 벽체 수성페인트 마감(로울러→뿜칠, 줄퍼티→올퍼티) 방법 변경 • 고전 라디에이터(방열기) 설치 물량 추가(4개소) • 2층 중앙홀 난간을 목재난간으로 변경에 따른 하부 철골보강 추가 • 석조전 외부 석재 열화 및 지의류 등 훼손 부위 보존처리 및 세척공사 추가 • 2층 천창 내 그림자 투과 방지를 위한 블라인드 설치 추가 • 수작업 제작 카펫 설치 물량 조정 • 전등(고전 장식등) 설치수량 변경 • 2차 물가변동 금액 포함						
기계공사	• 실외기 설치 물량 조정, 1층 휴게실의 급수, 급탕, 오 · 배수 배관 추가 • 2차 물가변동 금액 포함						

[표 1-10] 5-1회 설계변경

5-1회 설계변경	기간	2013. 01. 28 ~ 2013. 12. 10			총공정률	약 97.64%	
	구분	총 부기금액			금차금액(5차 사업)		
		건축	기계	계	건축	기계	계
	애초	9,967,293,000	799,227,000	10,766,522,000	1,788,596,356	41,140,124	1,829,736,480
	변경	10,770,102,000	860,441,000	11,630,543,000	2,591,405,356	102,354,124	2,693,759,480
	증감	+802,809,000	+61,214,000	+864,023,000	+802,809,000	+61,214,000	+864,023,000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건축공사	• 실 내부 천장 및 벽체 석고몰딩 및 도장용 가설비계 및 이동식 비계설치 물량 추가 • 실 내부 무늬마루 바닥 보양을 위한 골판지 깔기 물량 추가 • 2층 남측면실 화장실 및 욕실 벽체 및 바닥 타일 설치 물량 증가 • 실 내부 개구부 및 창호 커튼박스 설치 물량 증가 • 계단실 석고형틀, 몰딩제작 물량 추가 및 물량 변경 • 석조전 천장 및 벽체에 설치되는 석고몰딩 바탕용 합판 설치 물량 추가 • 2층 난간 기둥 하단부 오크몰딩 물량 추가 • 1, 2층 무늬마루 및 장마루 깔기 물량 증가 및 마루 환기구 설치 추가 • 1, 2층 오크목 문틀 제작설치 물량 증가 및 창호 부속품 물량 변경 • 벽체 뿜칠도장 일부 제외 및 몰딩 가칠 붓칠 면적 증가 • 알현실, 황제, 황후침실 페인트칠 제외 후 직물벽지 바름 변경 • 기성제품 커튼 설치 제외, 고전 스타일 커튼 제작 및 물량 증가 • 1, 2층 계단 난간 해체 후 재설치 물량 추가 • 수직카펫 설치 물량 감소(알현실, 황제·황후침실 및 거실 설치) • 기계직조카펫 설치 추가(계단실 설치)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석조전 가구(44점) 수리 물량 증가 및 실측비용 추가 • 석조전 내부 설치가구 해외 구매물량(106점) 추가 • 석조전 내부 각종 장식물 설치 및 제작 등 정밀상세도면 작성비용 추가 • 준공수리보고서 2009~2010년 준공 정산금액 사후정산 제외 후 내역서 포함 • 석조전 지층 좌측면 남·녀 화장실 추가 설치						
기계공사	• 석조전 지층 좌측면 화장실 추가 설치에 따른 설비 배관 추가 • 기존 덕수궁 소화펌프 및 급수탱크 노후 및 훼손 등에 따른 교체 설치						

[표 1-11] 5-2회 설계변경

5-2회 설계변경	기간	2013. 01. 28 ~ 2013. 12. 10			총공정률	약 97.64%	
	구분	총 부기금액			금차금액(5차 사업)		
		건축	기계	계	건축	기계	계
	애초	10,770,102,000	860,441,000	11,630,543,000	2,591,405,356	102,354,124	2,693,759,480
	변경	11,050,946,000	860,441,000	11,911,387,000	2,591,405,356	102,354,124	2,693,759,480
	증감	+280,844,000	0	+280,844,000	0	0	0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건축공사	• 도장용 가설비계 물량 추가 • 지층 좌측 화장실 방수보드 설치의 건식공법으로 변경 • 지층, 1, 2층 발코니 천장 도장 추가 • 욕조, 세면기, 양변기 수입품 설치로 변경 • 석조전 주변 배수로 정비 추가 • 석조전 주변 레벨인하 및 포장 추가 • 1층 발코니 천장 철판보강공사 추가 • 선홈통 및 기둥 부위 녹물방지공사 추가 • 2층 발코니 선홈통 및 기둥부위 녹물방지공사 추가 • 석조전 내부 설치가구 해외 구매물량 감소(86점 구매) • 석조전 수리가구 물량 감소(41점 수리) • 미구매가구 국내 제작 추가(6점 제작)						
기계공사	• 변경 없음						

[표 1-12] 5-3회 설계변경

5-3회 설계변경	기간	2013. 01. 28 ~ 2013. 12. 10			총공정률	약 97.64%	
	구분	총 부기금액			금차금액(5차 사업)		
		건축	기계	계	건축	기계	계
	애초	11,050,946,000	860,441,000	11,911,387,000	2,591,405,356	102,354,124	2,693,759,480
	변경	11,050,946,000	860,441,000	11,911,387,000	2,591,405,356	102,354,124	2,693,759,480
	증감	0	0	0	0	0	0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건축공사	• 방열기, 욕조, 세면기, 양변기 수입품의 현지제작지연으로 인한 금회공사 제외 • 외벽 보존처리 금회공사 물량 증가						
기계공사	• 변경 없음						

[표 1-13] 6회 설계변경

6회 설계변경	기간	2014. 02. 13 ~ 2014. 05. 30			총공정률	100%	
	구분	총 부기금액			금차금액(6차 사업)		
		건축	기계	계	건축	기계	계
	애초	11,050,946,000	860,441,000	11,911,387,000	280,844,000	0	280,844,000
	변경	11,050,946,000	860,441,000	11,911,387,000	280,844,000	0	280,844,000
	증감	0	0	0	0	0	0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건축공사	• 수리검토에 따른 배수로공사 변경 • 바닥구배 조정을 위한 포장면적 증가 • 마루코팅 추가 • 관람객 인제책 설치추가 등						
기계공사	• 변경 없음						

3) 공사 내역

가. 건축 및 기계 내역 집계

[표 1-14] 건축 및 기계 최종 공사원가계산서

비목	항목	요율(%)	합계	건축	기계설비
순공사원가	직접재료비		4,380,376,183	4,051,329,105	329,047,078
	①[재료비 소계]		4,380,376,183	4,051,329,105	329,047,078
	직접노무비		3,070,954,551	2,794,471,619	276,482,932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10.00%	307,095,453	279,447,160	27,648,293
	②[노무비 소계]		3,378,050,004	3,073,918,779	304,131,225
	산출경비		355,907,933	355,887,535	20,398
	산재보험료	노무비의 3.40%	114,853,699	104,513,239	10,340,460
	고용보험료	노무비의 0.67%	22,632,934	20,595,256	2,037,678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1.49%	42,947,676	39,280,371	3,667,305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4.78%	2,052,898	1,877,601	175,297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2.43%	70,042,184	64,061,278	5,980,906
	퇴직공제부금	직접노무비의 2.30%	70,617,098	63,299,296	7,317,8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직접노무비의 1.88%	140,085,017	128,701,055	11,383,962
	기타경비	재료비+노무비의 5.54%	429,816,806	394,738,732	35,078,074
	③[제경비 소계]		1,248,956,245	1,172,954,365	76,001,880
	⑤[순공사원가]		9,007,382,432	8,298,202,249	709,180,183
일반관리비		순공사원가의 3.58%	322,464,290	297,075,642	25,388,648
이윤		②+③+⑤의 10.24%	506,629,843	465,113,832	41,516,011
몰탈분석비			7,000,000	7,000,000	
준공수리보고서			187,917,600	187,917,600	
복원공사 중간자료집			49,644,000	49,644,000	
가구실측조사			15,000,000	15,000,000	
해외가구구입			303,700,000	303,700,000	
가구수리			322,930,927	322,930,927	
가구제작			27,600,000	27,600,000	
[공급가액]			10,750,269,092	9,974,184,251	776,084,841
부가가치세		10%	1,075,026,908	997,418,425	77,608,483
물가변동금액(1차)			34,053,000	30,920,124	3,132,876
물가변동금액(2차)			52,038,000	48,423,200	3,614,800
[도급비계]			**11,911,387,000**	**11,050,946,000**	**860,441,000**

[표 1-15] 설계변경 횟수별 공사원가계산서

비목	항목	요율(%)	1차 - 2009년	2차 - 2010년	3차 - 2011년	4차 - 2012년	5차 - 2013년	6차 - 2014년	총차
순공사원가	직접재료비		607,330,746	495,390,869	896,597,618	1,276,944,680	996,068,590	108,043,680	4,380,376,183
	①[재료비 소계]		607,330,746	495,390,869	896,597,618	1,276,944,680	996,068,590	108,043,680	4,380,376,183
	직접노무비		658,798,918	449,949,147	766,956,674	796,017,223	335,505,940	63,726,649	3,070,954,551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의 10.0%	65,879,891	44,994,914	76,695,667	79,601,722	33,550,594	6,372,665	307,095,453
	②[노무비 소계]		724,678,809	494,944,061	843,652,341	875,618,945	369,056,534	70,099,314	3,378,050,004
	산출경비		144,435,335	118,213,308	20,724,188	18,151,512	50,317,873	4,065,717	355,887,535
	산재보험료	노무비의 3.40%	24,639,079	16,828,097	28,684,179	29,771,043	12,547,923	2,383,378	114,853,699
	고용보험료	노무비의 0.67%	4,855,348	3,316,124	5,652,470	5,866,647	2,472,679	469,666	22,632,934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1.49%	7,266,550	7,672,725	10,208,804	11,860,657	4,999,037	939,903	42,947,676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4.78%	347,340	366,755	487,983	566,940	238,953	44,927	2,052,898

비목	항목	요율(%)	1차 - 2009년	2차 - 2010년	3차 - 2011년	4차 - 2012년	5차 - 2013년	6차 - 2014년	총차
순공사원가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2.43%	11,850,817	12,513,236	16,649,257	19,343,218	7,643,437	2,042,219	70,042,184
	퇴직공제부금	직접노무비의 2.30%	15,915,113	10,544,787	17,640,003	18,308,395	6,275,835	1,932,965	70,617,09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작의 1.88%	23,803,237	17,772,392	31,274,819	38,971,683	25,033,600	3,229,286	140,085,017
	기타경비	①+노무비의 5.54%	73,793,328	54,864,554	96,409,846	119,252,024	75,627,930	9,869,124	429,816,806
	③[제경비 소계]		306,906,146	242,091,978	227,731,549	262,092,119	185,157,266	24,977,187	1,248,956,245
	④[순공사원가]		1,638,915,701	1,232,426,908	1,967,981,507	2,414,655,743	1,550,282,390	203,120,183	9,007,382,432
⑤일반관리비		순공사원가의 3.58%	58,673,181	44,120,882	70,453,737	86,444,674	55,500,109	7,271,707	322,464,290
이윤		②+③+⑤의 10.24%	111,502,027	80,088,575	116,883,620	125,312,148	62,412,913	10,430,560	506,629,843
몰탈분석비			-	7,000,000	-	-	-	-	7,000,000
준공수리보고서			-	-	15,701,246	26,280,163	111,445,915	34,490,276	187,917,600
가구실측조사			-	-	49,644,000	-	-	-	49,644,000
해외가구구입			-	-	-	-	15,000,000	-	15,000,000
가구수리			-	-	-	-	303,700,000	-	303,700,000
가구제작			-	-	-	-	322,930,927	-	322,930,927
복원공사 중간자료집			-	-	-	-	27,600,000	-	27,600,000
[공급가액]			1,809,090,909	1,363,636,364	2,220,684,110	2,652,892,727	2,448,872,255	255,312,727	10,750,289,092
부가가치세		10.00%	180,909,091	136,363,636	222,066,410	265,289,273	244,887,225	25,531,273	1,075,026,908
물가변동금액(1차)			-	-	34,053,000	-	-	-	34,053,000
물가변동금액(2차)			-	-	-	52,038,000	-	-	52,038,000
[도급비계]			1,990,000,000	1,500,000,000	2,476,783,520	2,970,000,000	2,693,759,480	280,844,000	11,911,387,000

나. 건축공사 내역

[표 1-16] 석조전 건축공사 순공사비 내역 집계표

명 칭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건축공사 총계	**4,051,329,105**	**2,794,471,620**	**355,887,534**	**7,201,688,259**
건축공사 합계	**3,469,944,764**	**2,755,786,987**	**243,355,622**	**6,469,087,373**
가 설 공 사	79,608,731	106,854,203	76,966,282	263,429,216
철근콘크리트공사	4,171,117	1,276,902	224,577	5,672,596
조적 및 타일공사	446,237,974	110,770,783	0	557,008,757
목 공 사	974,729,908	430,933,597	0	1,405,663,505
방수 및 미장공사	103,783,352	342,885,730	23,952	446,693,034
창 호 공 사	804,705,145	191,599,074	541	996,304,760
유 리 공 사	2,760,347	13,128,195	525	15,889,067
도 장 공 사	66,361,973	286,532,366	14,499	352,908,838
수 장 공 사	673,223,308	737,071,234	31,829,488	1,442,124,030
덕수궁관리소이설공사	51,643,260	39,499,894	44,460,061	135,603,215
철 거 공 사	5,708,271	158,355,204	22,935,513	186,998,988
골 재 대	5,242,708	0	0	5,242,708
운 반 비	407,517	4,355,943	2,779,556	7,543,016
정밀안전진단 및 계측	0	23,212,844	26,868,080	50,080,924
주변정비공사, 기타공사	243,532,598	291,493,647	10,232,943	545,259,188
장식물제작설치공사	7,828,555	17,817,371	0	25,645,926
내부가구재현	0	0	27,019,605	27,019,605
사후정산(PS) 합계	**581,384,341**	**38,684,633**	**112,531,912**	**732,600,886**
수직카펫	97,824,341	458,145	0	98,282,486
내부고전장식물	483,560,000	0	0	483,560,000
준공수리보고서(1)	0	38,226,488	112,531,912	150,758,400

원가항목 합계	0	93,572,818	820,219,709	913,792,527
재료분석비			7,000,000	7,000,000
준공수리보고서(2)	0	59,354,818	128,562,782	187,917,600
복원공사 중간자료집	0	34,218,000	15,426,000	49,644,000
가구실측조사			15,000,000	15,000,000
해외수입가구			303,700,000	303,700,000
가구수리			322,930,927	322,930,927
가구제작			27,600,000	27,600,000

[표 1-17] 가설공사 내역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실사안내판	130*110cm,후렉스	개소	8	0	0	1,307,952	1,307,952
펜스실사제작설치	3*50m연속형 가설울타리도안	EA	1	11,960,908	964,333	0	12,925,241
실사디자인막제작설치	(17*7m,2매, 18*7m,1매) 디자인조감도	식	1	16,647,174	6,757,784	1,634,944	25,039,902
이동형분진집진기	3.7kw(5.0HP),산업용	대	2.00	0	0	2,800,000	2,800,000
조립식가설사무소	36개월	M2	106.00	0	0	8,164,862	8,164,862
조립식가설창고	36개월	M2	130.00	0	0	6,749,470	6,749,470
조립식가설울타리(R.P.P.판)	36개월,H=3.0m	M	145	0	0	29,591,600	29,591,600
출입문설치	(W:6M,3M,1M)	식	1	0	0	1,376,779	1,376,779
내부수평비계	강관,1개년	M2	3,710.27	8,674,611	20,829,455	0	29,504,066
강관비계매기	36개월	M2	2,640.00	15,449,280	19,765,680	0	35,214,960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	36개월	M2	85.54	2,530,615	2,185,547	0	4,716,162
낙하물방지망(강관)	36개월,8m	M2	600.00	0	0	5,009,400	5,009,400
비계주위보호막설치	PVC코팅 #420	M2	2,240.00	0	0	8,086,400	8,086,400
CONC보양	가마니(인력유)	M2	2,597.19	763,573	1,669,993	0	2,433,566
석재.타일보양	하드롱지	M2	2,597.19	464,897	1,392,093	0	1,856,990
건축물현장정리	조적조	M2	4,122.52	0	15,471,817	0	15,471,817
먹매김	사무소	M2	4,122.52	0	16,725,063	0	16,725,063
쓰레기슈트설치	6개월,Ø450mm	M	40.50	2,994,327	238,464	0	3,232,791
내부투광조명	할로겐300W	식	1.00	4,494,911	3,566,798	0	8,061,709
강관동바리	강관동바리,36개월 (손율55%)	M2	1137.49	11,882,220	5,237,003	0	17,119,223
실사디자인막, 추가제작설치	3*50m연속형가설울타리 실사 교체 설치	식	1.00	0	0	7,099,100	7,099,100
실사디자인막교체		식	1.00	0	0	6,453,727	6,453,727
가설비계설치(홀,계단부)	몰딩,도장용,발코니도장비계	M2	875.16	1,634,448	8,526,858	0	10,161,306
이동식비계설치	몰딩,도장용, 실별1대	대	25.00	607,932	1,294,802	0	1,902,734
마루바닥보양	골판지깔기	M2	1,382.71	1,503,835	2,228,513	0	3,732,348
[합 계]				**79,608,731**	**106,854,203**	**76,966,282**	**263,429,216**

[표 1-18] 철근콘크리트공사 내역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레미콘	서울, 25-18-10	M3	75.87	2,543,390	0	0	2,543,390
무근CON'C타설/펌프카배관(47m)	슬럼프8~12, 50~100m3미만[80~95]	M3	77.87	86,435	675,755	224,577	986,767
와이어메쉬깔기	#8 -150*150	M2	1473.4	1,346,687	601,147	0	1,947,834
레미콘타설	서울, 25-21-10	M3	4.34	194,605	0	0	194,605
[합 계]				**4,171,117**	**1,276,902**	**224,577**	**5,672,596**

[표 1-19] 조적 및 타일공사 내역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붉은벽돌	고벽돌,210*100*45	매	262,209	1,540	403,801,860	0	403,801,860
0.5B벽돌쌓기(고벽돌,기존형,벽난로)	10,000매이상,3.6m미만	천매	1.719	22,890	39,347	438,436	477,783
1.5B벽돌쌓기(고벽돌,기존형,벽난로)	10,000매이상,3.6m미만	천매	10.109	25,433	257,100	2,131,346	2,388,446
2.0B벽돌쌓기(고벽돌,기존형)	10,000매이상,3.6m미만	천매	28.924	26,704	772,398	5,458,777	6,231,175
2.5B벽돌쌓기(고벽돌,기존형)	10,000매이상,3.6m미만	천매	22.051	27,976	616,900	3,674,137	4,291,037
3.0B벽돌쌓기(고벽돌,기존형)	10,000매이상,3.6m미만	천매	6.894	28,612	197,250	992,083	1,189,333
3.5B벽돌쌓기(고벽돌,기존형)	10,000매이상,3.6m미만	천매	15.841	29,418	466,010	1,919,786	2,385,796
1.5B벽돌쌓기(고벽돌,기존형,벽난로)	10,000매이상,3.6~7.2m미만	천매	85.506	25,433	2,174,656	21,633,334	23,807,990
2.0B벽돌쌓기(고벽돌,기존형)	10,000매이상,3.6~7.2m미만	천매	28.046	26,704	748,951	6,351,684	7,100,635
2.5B벽돌쌓기(고벽돌,기존형)	10,000매이상,3.6~7.2m미만	천매	31.574	27,976	883,317	6,313,035	7,196,352
아치쌓기	보통쌓기	천매	4.60	25,433	116,990	1,828,077	1,945,067
적벽돌 끼워넣기(고벽돌, 기존형)		천매	25.55	23,089	589,954	38,474,404	39,064,358
벽돌소운반	1층,인력	천매	118.768	0	0	3,821,716	3,821,716
벽돌소운반	2층,인력	천매	118.263	0	0	5,073,955	5,073,955
연도	250*250*500 재현품	개	59	516,298	30,461,593	0	30,461,593
아치받침재료	아치부분	개소	36	24,773	891,828	3,098,980	3,990,808
아치받침재료	궁륭부분	개소	2	143,183	286,366	1,613,861	1,900,227
타일압착붙임.150*150(일반C)	벽,바탕18mm+압6mm(백)	M2	156.97	6,188	971,330	5,465,695	6,437,025
타일압착붙임.150*150(일반C)	바닥,바탕15mm+압5mm(백)	M2	38.25	9,908	378,981	1,140,117	1,519,098
벽체방수합판설치	상40*40@300 합판+방수합판	M2	42.38	42,247	1,790,423	944,514	2,734,937
벽체방수합판설치	상40*90@300 합판+방수합판	M2	9.60	82,575	792,720	396,846	1,189,566
[합 계]					**446,237,974**	**110,770,783**	**557,008,757**

[표 1-20] 목공사 내역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천장수장재붙임	T=9.5,석고보드2겹붙임	M2	2,380.10	11,379,258	48,801,570	0	60,180,828
커튼박스설치	합판2겹붙임	M2	256.53	2,242,328	8,493,451	0	10,735,779
벽,띠장설치(미송)	30*30,@450*600	M2	3,601.14	6,521,664	10,904,251	0	17,425,915
벽,수장합판붙임	T=12,바탕붙임포함	M2	417.97	3,357,553	6,615,211	0	9,972,764
벽,석고보드붙임	T=9.5,2겹붙임	M2	3,183.17	14,426,126	53,852,870	0	68,278,996
걸레받이설치	라왕H100*18mm,조합페인트2회	M	848.33	2,287,946	1,875,657	0	4,163,603
G.F.R.G내장공사	석고형틀, 몰딩제작설(고전물재현)	식	1.00	419,485,843	165,523,485	0	585,009,328
오크벽 몰딩	오크원목 조각	㎡	81.68	38,217,663	17,857,698	0	56,075,361
오일스테인2회	오크벽	㎡	122.52	319,654	478,685	0	798,339
클리어락카칠7회	오크벽	㎡	122.52	673,247	3,952,005	0	4,625,252
목재방충방부처리	목재면	㎡	824.52	7,009,244	2,879,223	0	9,888,467
장마루깔기	원목4mm장마루깔기하부합판하지포함	㎡	136.15	12,283,863	4,647,105	0	16,930,968
원목마루깔기	원목4mm주문문양제작설치 하부합판하지포함	M2	1,384.83	257,696,834	42,132,189	0	299,829,023
G.F.R.G내장공사신규	석고형틀, 몰딩제작설치(고전물재현)	식	1.00	181,177,218	48,066,796	0	229,244,014
마루환기구설치	Ø130, 2.0T, 황동신주	개소	130.00	3,691,532	509,912	0	4,201,444
마루재료분리대설치	30*30, 1.5T 황동신주	개소	37.00	716,360	290,265	0	1,006,625
몰딩하지용 합판설치	T=9	M2	1,078.81	6,129,366	10,277,175	0	16,406,541
천장 등박스 합판설치	T=9	M2	46.44	263,853	575,131	0	838,984
난간기둥하단부 오크몰딩	오크벽 몰딩적용	M2	10.54	4,931,987	2,304,535	0	7,236,522
스탠드 받침, 소식당오크벽	오크벽 몰딩적용	M2	4.10	1,918,369	896,383	0	2,814,752
[합 계]				**974,729,908**	**430,933,597**	**0**	**1,405,663,505**

[표 1-21] 방수 및 미장공사 내역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시멘트액체방수	1종	M2	1,148.25	1,974,990	11,923,428	0	13,898,418
바탕면 정리	바탕면 정리	M2	1099.86	155,850	5,197,498	0	5,353,348
우레탄방수	바닥 3mm 노출	M2	1099.86	24,215,727	16,400,012	0	40,615,739
모르타르바름	바닥40mm	M2	1473.4	0	12,659,452	0	12,659,452
회벽바름(초벌)	벽돌바탕벽 15mm	M2	5,176.24	3,732,069	101,982,280	0	105,714,349
회벽바름(정벌)	재사벽표면위 정벌 5mm	M2	5,176.24	424,451	132,630,797	0	133,055,248
기존방수층 철거	에폭시우레탄철거	M2	998.00	812,372	16,254,426	0	17,066,798
기존몰탈 면갈이	기계바닥갈기	M2	998.00	45,908	5,538,900	23,952	5,608,760
옥상우레탄방수		M2	998.00	22,019,872	16,125,684	0	38,145,556
주입식균열보수	건조균열	M	174.63	1,066,814	1,820,343	0	2,887,157
동판이음잇기	0.5T*450*450	M2	354.00	39,599,856	0	0	39,599,856
1층 고름몰탈	두께 60mm	M2	1,121.28	3,902,054	13,206,435	0	17,108,489
지붕동판 하부보강	300*격자위 12mm합판, 방수쉬트 2mm	M2	354.00	5,833,389	9,146,475	0	14,979,864
	[합 계]			**103,783,352**	**342,885,730**	**23,952**	**446,693,034**

[표 1-22] 창호공사 내역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경첩	황동, 5"*3.2(베어링2개)	개	525.00	1,690,500	0	0	1,690,500
유리양판문 손잡이	4.0*30.2	개	80.00	12,735,355	0	0	12,735,355
유리양판문손잡이 조각	손잡이 판 주물제작	개	2.00	447,458	0	0	447,458
도어스토퍼	황동 말굽형 大	개	172.00	1,406,052	0	0	1,406,052
자유조방 경첩5"(SWING)	브론즈,헤펠레	EA	60.00	2,478,180	0	0	2,478,180
레버핸들 DUMMY+LEVER/조	황동, 고전식 손잡이판	EA	72.00	4,646,664	0	0	4,646,664
레버핸들 LOCK+LEVER+KEY/조	황동, 고전식 손잡이판, 마스터키 적용	EA	82.00	10,478,206	0	0	10,478,206
FLUSHBOLT (매입형상/하)		EA	147.00	1,328,145	0	0	1,328,145
DUSTPROOF STRIKE		EA	147.00	948,591	0	0	948,591
잠금쇠	1200mm 슬라이드볼트,클래식스타일	EA	40.00	22,200,800	0	0	22,200,800
잠금쇠	900mm 슬라이드볼트,클래식스타일	EA	54.00	27,183,060	0	0	27,183,060
잠금쇠	600mm 슬라이드볼트,클래식스타일	EA	67.00	15,739,305	0	0	15,739,305
잠금쇠	300mm 슬라이드볼트,클래식스타일	EA	13.00	1,526,941	0	0	1,526,941
도어경첩달기	숨은경첩	개소	585.00	117,585	5,904,405	0	6,021,990
도어핸들설치	손잡이 + 도어록	개소	231.00	59,136	2,967,426	0	3,026,562
도어스톱설치	바닥설치	개소	119.00	17,374	873,460	0	890,834
외부창호제작설치	창호유리포함 고전창호제현	식	1	322,105,367	12,391,156	0	334,496,523
외부창호제작설치 (1층추가분)	창호유리포함 고전창호제현	식	1.00	63,382,953	0	0	63,382,953
창문틀주위몰탈충진		m	1,114.70	555,677	2,926,087	0	3,481,764
창호프레임실리콘	10*10	m	1,114.70	1,556,121	2,739,709	0	4,295,830
1-WD	유리양판문 1500*3075=4.6125㎡	EA	3.00	4,637,837	0	0	4,637,837
2-WD	유리양판문 890*3075=2.7367㎡	EA	2.00	1,834,486	0	0	1,834,486
3-WD	유리양판문 1200*3140=3.768㎡	EA	6.00	7,577,398	0	0	7,577,398
4-WD	양판문 1300*2375=3.0875㎡	EA	19.00	21,496,558	0	0	21,496,558
5-WD	양판문 1200*2375=2.85㎡	EA	6.00	6,266,202	0	0	6,266,202
6-WD	양판문 1100*2375=2.6125㎡	EA	17.00	16,274,719	0	0	16,274,719
7-WD	유리양판문 1200*3075=3.69㎡	EA	4.00	4,947,028	0	0	4,947,028
8-WD	유리양판문 1200*2375=2.85㎡	EA	8.00	7,641,743	0	0	7,641,743
9-WD	개방형목재문	EA	1.00	0	0	0	0
10-WD	양판문 1300*2085=2.7105㎡	EA	8.00	7,945,987	0	0	7,945,987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11-WD	양판문 800×2375=1.9㎡	EA	2.00	1,392,490	0	0	1,392,490
12-WD	유리양판문 1300×2085=2.7105㎡	EA	3.00	2,725,388	0	0	2,725,388
1-WW	유리양판문 1200×1450=1.74㎡	EA	2.00	1,166,369	0	0	1,166,369
13-WD	양판문 1250×2000=2.5㎡	EA	9.00	4,497,409	0	0	4,497,409
14-WD	양판문 900×2000=1.8㎡	EA	10.00	3,597,910	0	0	3,597,910
15-WD	양판문 1700×2000=3.4㎡	EA	1.00	679,607	0	0	679,607
16-WD	양판문 750×2000=1.5㎡	EA	2.00	599,652	0	0	599,652
2-WW	유리양판문 1100×1100=1.21㎡	EA	1.00	235,408	0	0	235,408
Door frame제작설치	오크목, 고전스타일	㎡	420.96	196,965,079	92,034,484	0	288,999,563
Door frame제작설치	무늬목	㎡	27.38	1,467,184	6,730,852	0	8,198,036
오일스테인2회		㎡	1,544.30	4,029,078	6,033,580	0	10,062,658
클리어락카칠7회		㎡	1,544.30	8,485,928	49,812,940	0	58,298,868
18-WD	양판문 900×2000=1.8㎡	EA	3.00	1,349,217	950,385	0	2,299,602
19-WD	양판문 900×2375=2.137㎡	EA	5.00	2,670,325	1,880,965	0	4,551,290
20-WD	양판문 1000×2375=2.375㎡	EA	2.00	1,186,812	835,986	0	2,022,798
21-WD	양판문 1200×2085=2.502㎡	EA	1.00	625,138	440,345	0	1,065,483
30-WD	개방형목재문 2380×2085	EA	2.00				0
62-WD	양판문 1100×2085=2.294㎡	EA	2.00	1,146,336	807,474	0	1,953,810
70-WD	양판문 730×2100=1.533㎡	EA	1.00	383,027	269,803	0	652,830
도어스토퍼	바닥, 반달형	EA	125.00	645,372	0	0	645,372
손잡이구멍마개	주문제작	EA	69.00	890,614	0	0	890,614
도어스토퍼 설치	0	EA	172.00	13,467	674,652	0	688,119
슬라이드볼트설치		EA	169.00	13,232	662,885	0	676,117
플러시볼트설치		EA	140.00	10,962	549,136	0	560,098
더스트푸르프설치		EA	140.00	10,962	549,136	0	560,098
알현실 상부 아치창 제작설치		톤	0.30	69,535	1,381,167	541	1,451,243
강화도어설치	12×900×2,100 투명	개	4.00	623,216	183,041	0	806,257
	[합 계]			**804,705,145**	**191,599,074**	**541**	**996,304,760**

[표 1-23] 유리공사 내역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맑은유리	5mm	M2	32.56	124,444	0	0	124,444
유리끼우기및닦기	10mm미만	M2	32.56	1,432	914,187	0	915,619
거울설치(상부아치형)	5mm,틀및몰딩포함	M2	52.56	1,761,022	1,337,021	525	3,098,568
조각거울	금은장원목수공조각 750×850	개	19.00	873,449	10,876,987	0	11,750,436
	[합 계]			**2,760,347**	**13,128,195**	**525**	**15,889,067**

[표 1-24] 도장공사 내역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바탕만들기	재도장면 철재면 녹제거 천장	M2	2685.76	0	41,523,192	0	41,523,192
녹막이칠	에나멜칠 1회, 천장	M2	2685.76	1,379,406	13,842,138	0	15,221,544
낙서방지용페인트	벽2회,뿜칠	M2	1,208.26	1,562,280	3,995,715	14,499	5,572,494
G.F.R.G 내장공사 가금		식	1.00	36,250,976	71,550,263	0	107,801,239
수성페인트 칠	천장면3회, 뿜칠	M2	3,978.05	6,778,597	8,248,884	0	15,027,481
바탕만들기	석고보드면, 올퍼티	M2	5,333.80	14,887,169	46,607,277	0	61,494,446
몰딩가칠	낙서방지용, 붓칠 3회	M2	2,210.94	3,359,744	75,146,976	0	78,506,720
우레탄도장	난간,방화문 바탕청소포함	M2	135.86	170,096	2,876,726	0	3,046,822
발코니 천장도장	천장 바탕청소포함	M2	1,037.70	1,973,705	22,741,195	0	24,714,900
	[합 계]			**66,361,973**	**286,532,388**	**14,499**	**352,908,838**

[표 1-25] 수장공사 내역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대리석붙임(바닥)	수마20mm,정선석,몰탈32mm	M2	47.60	8,178,727	1,930,227	0	10,108,954
경량철골천장틀	M-BAR H:1m미만.인써트유	M2	2,380.10	7,623,460	38,633,783	0	46,257,243
천장틀보강	36×36 각재보강	M2	1,597.97	4,057,245	12,617,571	0	16,674,816
비닐무석면타일붙임 (디럭스)	450×450×3.0mm	M2	795.86	4,286,501	5,812,165	0	10,098,666
석고판못붙임 (바탕용,천장)	일반9.5mm	M2	2,380.10	3,244,076	15,215,979	0	18,460,055
천장텍스설치		M2	761.82	4,002,602	4,688,240	0	8,690,842
내부석공사	벽난로,계단,복도,욕실 대리석공사(고전양식재현)	식	1	341,726,296	156,006,828	18,209,921	515,943,045
화강석공사	옥상굴뚝,방풍실바닥 (몰딩조각재현)	식	1	26,922,635	385,240,097	24,377,822	436,540,554
벽난로목형제작	벽난로화구목형제작 원형복원	개소	1.00	118,491	8,736,856	0	8,855,347
AL금형제작	화구금형제작 원형복원	개소	1.00	3,200,124	754,971	0	3,955,095
주물제작설치	화구주물제작설치 원형복원	개소	2.00	1,773,584	2,399,494	0	4,173,078
화이어박스	기성품	개소	7.00	1,503,117	0	0	1,503,117
기성벽난로설치	대리석기성품	개소	20.00	63,975,300	0	0	63,975,300
난간설치	목재난간,로그로가공 고전난간재현	식	1.00	44,766,926	40,404,817	0	85,171,743
폐기물처리비	그라스울	톤	-50.20	0	0	-11,490,378	-11,490,378
폐기물처리비	그라스울	톤	31.38	0	0	1,786,024	1,786,024
폐기물운반비	그라스울, 40km, 중간처리	톤	-18.82	0	0	-1,053,901	-1,053,901
방열기설치	고전식 주물 13칸 h:490	개	4.00	9,809,664	0	0	9,809,664
직물벽지바름	직물원단배접	㎡	257.32	44,259	4,246,551	0	4,290,810
직물원단	배접, 방염, 피치처리	야드	800.00	15,833,144	0	0	15,833,144
커튼제작설치	암막형+창문부착형	식	1.00	87,510,823	60,383,655	0	147,894,478
SMC 천장	사각	㎡	35.93	1,607,718	0	0	1,607,718
욕조주문설치	수입품	개	4.00	16,604,150	0	0	16,604,150
세면기주문설치	수입품	개	4.00	13,795,487	0	0	13,795,487
변기주문설치	수입품	개	4.00	12,638,979	0	0	12,638,979
	[합 계]			**673,223,308**	**737,071,234**	**31,829,488**	**1,442,124,030**

[표 1-26] 덕수궁 관리소 이설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관리소이설공사	198M2사무실설치,조경수이식,통신,전기,배관,창고이사	식	1	51,643,260	39,499,894	44,460,061	135,603,215
	[합 계]			**51,643,260**	**39,499,894**	**44,460,061**	**135,603,215**

[표 1-27] 골재대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모래	서울, 자연사,도착도	M3	122.64	1,716,960	0	0	1,716,960
자갈	서울, 도착도, #57	M3	9.52	126,616	0	0	126,616
시멘트	대리점	포	1,452.00	3,399,132	0	0	3,399,132
	[합 계]			**5,242,708**	**0**	**0**	**5,242,708**

[표 1-28] 운반비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일반자재운반(8톤카고트럭)	현장까지 10KM	차	6.00	0	462,426	255,888	718,314
목재운반(8톤카고트럭)	현장까지 270KM	차	11.00	0	340,912	1,985,126	2,326,038
파쇄물상차	로우더1.34M3,타어어	M3	1031.69	407,517	839,795	538,542	1,785,854
화강석운반(옥상)	보통인부	인	42.60	0	2,712,810	0	2,712,810
	[합 계]			**407,517**	**4,355,943**	**2,779,556**	**7,543,016**

[표 1-29] 철거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벽돌벽철거	인력	M3	234.33	628,473	14,457,223	0	15,085,696
무근콘크리트철거	인력	M3	84.13	590,003	13,571,178	0	14,161,181
철골재철거	아세틸렌사용	TON	2.93	45,224	720,551	0	765,775
타일철거	바닥 및 벽체	M2	390.22	0	4,185,109	0	4,185,109
리노륨철거	바닥	M2	734.12	0	1,180,464	0	1,180,464
마루틀및마루널철거		M2	412.51	0	6,269,739	0	6,269,739
벽지떼내기	벽체 및 천장	M2	1,385.58	0	742,670	0	742,670
경량칸막이철거	두께 55	M2	3085.65	873,238	20,136,951	0	21,010,189
모르타르철거	벽	M2	2985.53	1,083,747	24,976,943	0	26,060,690
텍스및합판철거(천장)		M2	3731.66	0	8,754,474	0	8,754,474
경량철골천장틀철거	천장	M2	1865.83	768,721	17,721,653	0	18,490,374
모르타르철거	천장	M2	57.98	27,018	621,835	0	648,853
철재문철거		M2	328.8	407,383	9,373,759	0	9,781,142
화강석철거	판석	M2	836.46	584,685	13,456,968	0	14,041,653
대변기철거		개	8	14,152	325,688	0	339,840
소변기철거		개	4.00	2,680	61,728	0	64,408
세면기철거	카운터형	개	2.00	890	20,522	0	21,412
전기설비철거		식	1	501,353	16,711,778	0	17,213,131
그라스울철거		M2	784.54	0	1,348,624	0	1,348,624
폐기물처리비	그라스울	톤	50.20	0	0	11,490,378	11,490,378
폐기물운반비	그라스울, 40km, 중간처리	톤	50.20	0	0	2,811,149	2,811,149
고철재	스크랩	KG	15000	0	0	-2,250,000	-2,250,000
전기설비철거	추가	식	1	180,704	3,717,347	0	3,898,051
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	톤	96.39	0	0	5,486,119	5,486,119
폐기물운반비	상차, 운반비	톤	96.39	0	0	5,397,867	5,397,867
	[합 계]			**5,708,271**	**158,355,204**	**22,935,513**	**186,998,988**

[표 1-30] 정밀 안전진단 및 계측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정밀안전진단인건비	내업+외업,구조해석,스트레인게이지계측,보고서작성	식	1	0	20,459,254	0	20,459,254
정밀안전진단경비	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식	1	0	0	26,868,080	26,868,080
2층추가벽체구조검토	구조해석,안전성검토	식	1	0	2,753,590		2,753,590
	[합 계]			**0**	**23,212,844**	**26,868,080**	**50,080,924**

[표 1-31] 주변 정비공사, 기타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구조보수보강공사		식	1	23,139,551	24,186,504	331,617	47,657,672
창틀주변석재보존처리공사		식	1	614,670	9,126,891	0	9,741,561
옥상동판보강공사	처마홈통설치	m	26.4	497,030	391,944	0	888,974
알현실바닥목상공사		M2	184.53	31,656,822	16,634,549	0	48,291,371
2층 칸막이벽설치	2x6각재, 석고보드	M2	244.04	9,763,674	9,935,234	0	19,698,908
계단설치1.4m		개소	6	1,091,712	720,747	0	1,812,459
계단설치1.8m		개소	1	220,804	146,089	0	366,893
실외기대제작설치		개소	2.00	7,164,164	5,233,720	3,922	12,401,806
중앙홀천창설치		식	1.00	3,914,497	15,565,596	344,198	19,824,291
중앙홀천장주물장식		개소	55.00	1,018,435	3,136,485	0	4,154,920
중앙홀천장주물장식조각틀	형틀제작	식	1.00	23,519	203,513	0	227,032
보존처리공사	보존구간	M2	6.25	2,301,468	1,170,581	0	3,472,049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옥상난간조형장식물	기존 페데스탈 재현	식	1.00	1,221,303	5,597,281	0	6,818,584
화장실칸막이벽설치		M2	25.63	3,243,143	3,984,106	0	7,227,249
잡철물 제작설치	기둥, 난간보강	톤	2.01	475,361	8,632,731	5,352	9,113,444
형강	50*50*2.3	m	521.59	1,696,564	0	0	1,696,564
형강	100*100*2.3	m	38.20	258,365	0	0	258,365
점검구설치	450*450	개	191.00	3,031,150	6,124,090	0	9,155,240
외부벽체세척,풍화석재보존처리	습식세척, 석재표면경화처리	식	1.00	96,931,950	125,565,047	6,054,770	228,551,767
천창상부블라인드설치	전동식 블라인드	식	1.00	7,457,927	1,345,823	0	8,803,750
난간해체설치	해체, 인상설치	톤	3.31	249,746	6,663,946	1,100	6,914,792
석조전 주변 배수로공사	D250배수	식	1.00	3,011,610	1,139,072	77,041	4,227,723
석조전 주변 바닥 포장공사	경화토포장공사	식	1.00	24,600,480	31,244,035	2,689,435	58,533,950
1층 발코니 철판보강공사		M2	8.84	2,531,448	2,383,264	82,530	4,997,242
선홈통 주변 보수공사	선홈통보수, 발코니개구부방수	식	1.00	1,719,501	7,128,707	0	8,848,208
폐기물상차		톤	313.43			642,978	642,978
마루코팅제도포	장마루, 원목마루부분	M2	1520.98	13,742,054	5,233,692		18,975,746
인제책설치		개	25	1,955,650			1,955,650
[합 계]				**243,532,598**	**291,493,647**	**10,232,943**	**545,259,188**

[표 1-32] 장식물 제작 설치공사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황동거울장식	타원형,750*1,324	개	3.00	1,600,491	2,943,087	0	4,543,578
황동거울장식조각틀	타원형,750*1,324	개	2.00	1,417,864	1,135,738	0	2,553,602
장식물1제작	420*644	개	4.00	402,020	1,417,160	0	1,819,180
장식물1조각틀	420*644	개	1.00	250,664	288,037	0	538,701
장식물2제작	441*1236	개	2.00	397,598	1,401,186	0	1,798,784
장식물2조각틀	441*1236	개	1.00	431,973	567,049	0	999,022
장식물3제작	643*420	개	4.00	448,100	1,328,536	0	1,776,636
장식물3조각틀	643*420	개	1.00	250,375	288,858	0	539,233
장식물4제작	425*671	개	4.00	462,004	1,315,408	0	1,777,412
장식물4조각틀	425*671	개	1.00	260,180	278,190	0	538,370
장식물5제작	420*1027	개	6.00	929,574	3,292,674	0	4,222,248
장식물5조각틀	420*1027	개	1.00	361,419	515,349	0	876,768
장식물6(리본)제작	91*1127	개	8.00	388,344	2,819,608	0	3,207,952
장식물6(리본)조각틀	91*1127	개	1.00	227,949	226,491	0	454,440
[합 계]				**7,828,555**	**17,817,371**	**0**	**25,645,926**

[표 1-33] 내부가구 재현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리가구 운송	예술품운송, 왕복	식	1.00	0	0	27,019,605	27,019,605
[합 계]				**0**	**0**	**27,019,605**	**27,019,605**

[표 1-34] 수직 카펫, 가구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수직카펫	뉴질랜드WOOL100%,10mm이상,방염	M2	145.72	87,432,000	0	0	87,432,000
시공비및부자재비	S-edgy, Latex, join Tape	M2	145.72	1,020,040	0	0	1,020,040
Rubber Underlay	Firmalay6.0(말레이시아)	M2	145.72	874,320	0	0	874,320
기계직조카펫	고전문양	M2	63.96	8,497,981	458,145	0	8,956,126
[합 계]				**97,824,341**	**458,145**	**0**	**98,282,486**

[표 1-35] 내부 고전 장식물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크리스탈샹데리어(펜던트)	"1"Type ,접견실.알현실	SET	1.00	25,000,000	0	0	25,000,000
크리스탈샹데리어(펜던트)	"2"Type ,접견실.알현실	SET	6.00	150,000,000	0	0	150,000,000
펜던트샹데리어	"3"Type ,1.2층 홀	SET	27.00	59,400,000	0	0	59,400,000
벽부등	"4"Type ,벽난로	SET	6.00	13,200,000	0	0	13,200,000
펜던트샹데리어	"5"Type ,회의실.식당	SET	19.00	41,800,000	0	0	41,800,000
벽부등	"6"Type ,회의실.식당 벽난로	SET	26.00	23,400,000	0	0	23,400,000
스탠트	"7"Type ,대광간.접견실	SET	8.00	96,000,000	0	0	96,000,000
벽부등	"8"Type ,접견실	SET	4.00	3,600,000	0	0	3,600,000
벽부등	"9"Type ,알현실	SET	6.00	7,200,000	0	0	7,200,000
벽부등	"10"Type ,대광간	SET	2.00	2,400,000	0	0	2,400,000
펜던트샹데리어	"11"Type ,복도	SET	3.00	18,000,000	0	0	18,000,000
직부등 (회랑)	마르퀴트	SET	99.00	43,560,000	0	0	43,560,000
[합 계]				**483,560,000**	**0**	**0**	**483,560,000**

[표 1-36] 준공수리보고서 1 - 직접 공사비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기초조사및연구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식	1.00	0	6,075,226	0	6,075,226
공사현황조사	수리공사내용조사	식	1.00	0	18,154,754	0	18,154,754
자료분석 및 정리	수리공사내용분석.정리	식	1.00	0	4,118,354	0	4,118,354
원고작성	원고작성.편집/교정	식	1.00	0	0	0	0
도면작성	상세도작성	식	1.00	0	9,878,154	0	9,878,154
제경비	직접인건비의120%	식	1.00	0	0	54,309,464	54,309,46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40%	식	1.00	0	0	39,826,448	39,826,448
직접경비	업무수행경비	식	1.00	0	0	18,396,000	18,396,000
보고서 발간비	A4 300부, 옵셋인쇄	식	1.00	0	0	0	0
[합 계]				**0**	**38,226,488**	**112,531,912**	**150,758,400**

[표 1-37] 준공수리보고서 2 - 원가에 반영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기초조사및연구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식	1.00	0	0	0	0
공사현황조사	수리공사내용조사	식	1.00	0	10,662,316	0	10,662,316
자료분석 및 정리	수리공사내용분석.정리	식	1.00	0	2,418,716	0	2,418,716
원고작성	원고작성.편집/교정	식	1.00	0	14,728,940	0	14,728,940
도면작성	상세도작성	식	1	0	31,544,846	0	31,544,846
제경비	직접인건비의120%	식	1.00	0	0	62,788,103	62,788,103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40%	식	1.00	0	0	46,044,679	46,044,679
직접경비	업무수행경비	식	1.00	0	0	10,804,000	10,804,000
보고서 발간비	A4 300부, 옵셋인쇄	식	1.00	0	0	8,926,000	8,926,000
[합 계]				**0**	**59,354,818**	**128,562,782**	**187,917,600**

[표 1-38] 복원공사 중간자료집

명 칭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조사 및 연구		식	1.00	0	4,662,056	0	4,662,056
자료집 구성		식	1.00	0	4,662,056	0	4,662,056
제경비	직접인건비의120%	식	1.00	0	11,188,745	0	11,188,745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40%	식	1.00	0	8,205,143	0	8,205,143
직접경비	업무수행경비	식	1	0	5,500,000	0	5,500,000
자료집 발간비	A4 편집제본	식	1.00	0	0	15,426,000	15,426,000
[합 계]				**0**	**34,218,000**	**15,426,000**	**49,644,000**

다. 기계공사 내역 집계

[표 1-39] 기계공사 내역 집계표

품 명	수량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합 계
냉난방기 장비 설치공사	1	104,783,067	0	0	104,783,067
에어콘설치공사	1	48,484,099	14,145,158	0	62,629,257
룸선설치공사	1	2,233,886	5,914,128	0	8,148,014
냉난방기냉매 및 배수배관공사	1	11,906,850	21,133,911	0	33,040,761
전열교환기 장비설치공사	1	12,327,563	11,272,872	0	23,600,435
매립닥트설치공사	1	58,388,912	26,533,240	0	84,922,152
환기닥트공사	1	31,406,810	46,480,218	0	77,887,028
장비설치공사	1	30,130,764	2,429,023	0	32,559,787
급기덕트설치공사	1	1,067,300	44,856,863	0	45,924,163
위생기구설치공사	1	3,171,350	1,858,809	0	5,030,159
급수급탕배관공사	1	13,810,514	9,001,610	60	22,812,184
오배수배관공사	1	5,416,818	10,461,930	15,209	15,893,957
소화배관공사	1	7,162,984	6,406,041	5,129	13,574,154
코아설치공사	1	585,243	13,208,041	0	13,793,284
기존 닥트 및 배관 철거공사	1	2,034,492	40,689,856	0	42,724,348
철거공사	1	-3,863,574	22,091,232	0	18,227,658
[합 계]		**329,047,078**	**276,482,932**	**20,398**	**605,550,408**

4) 주요 공정

가. 행정처리 일정

[표 1-40] 행정처리 일정

구 분		기 간	내 용
계약 관계	2009년	• 2009년 10월 27일 • 2009년 10월 29일 • 2009년 10월 29일 ~ 2009년 12월 28일	공사 계약 체결 공사 착수계 제출 1차 공사 기간
	2010년	• 2010년 03월 29일 ~ 2010년 12월 24일	2차 공사 기간
	2011년	• 2011년 03월 21일 ~ 12월 15일	3차 공사 기간
	2012년	• 2012년 01월 30일 ~ 12월 20일	4차 공사 기간
	2013년	• 2013년 01월 28일 ~ 12월 10일	5차 공사 기간
	2014년	• 2014년 02월 13일 ~ 05월 30일	6차 공사 기간
자문회의	2009년	• 2009년 11월 20일 • 2009년 12원 18일	1차 기술자문회의 2차 기술자문회의
	2010년	• 2010년 03월 16일 • 2010년 06월 03일	3차 기술자문회의 4차 기술자문회의
	2011년	• 2011년 05월 18일 • 2011년 07월 14일 • 2011년 08월 22일 • 2011년 09월 29일 • 2011년 12월 13일	5차 기술자문회의 6차 기술자문회의 7차 기술자문회의 8차 기술자문회의 9차 기술자문회의
	2012년	• 2012년 02월 22일 • 2012년 05월 24일 • 2012년 07월 19일 • 2012년 10월 18일 • 2012년 12월 24일	10차 기술자문회의 11차 기술자문회의 12차 기술자문회의 13차 기술자문회의 14차 기술자문회의
	2013년	• 2013년 02월 20일 • 2013년 06월 19일 • 2013년 09월 03일	15차 기술자문회의 16차 기술자문회의 17차 기술자문회의
기타 자문회의	2013년	• 2013년 06월 13일 ~ 9월 17일 • 2013년 06월 25일 ~ 9월 20일 • 2013년 10월 01일	커튼자문(김선미 교수 개별자문, 3회) 카펫자문(김선미 교수 개별자문, 7회) 가구패브릭자문(김선미 교수 개별자문, 1회)

나. 각종 조사 일정

[표 1-41] 각종 조사 일정

구 분		기 간	내 용
각종조사	2010년	• 2009년 12월 05일 ~ 2010년 05월 07일	• 실측조사
		• 2010년 01월 28일 ~ 2010년 04월 28일	• 구조안전진단
		• 2010년 06월 01일 ~ 2010년 06월 30일	• 회몰탈분석
	2012년	• 2012년 03월 26일 ~ 2012년 03월 30일	• 2층 바닥구조 검토
		• 2012년 10월 16일 ~ 2012년 11월 13일	• 국립고궁박물관 및 창경궁 희정당 소장 가구 실측조사

다. 공사 일정

[표 1-42] 각종 공사 일정

구분		기간	내용
가설공사	2009년	• 2009년 10월 30일 ~ 12월 11일	가설사무소, 비계, 펜스 설치
	2010년	• 2010년 02월 05일 ~ 02월 08일	가설조명, 전기선 설치, 펜스펜스 추가설치
		• 2010년 03월 10일 ~ 03월 24일	가설사무소 설치 및 보완
		• 2010년 06월 24일 ~ 06월 25일	전면 비계 수정
		• 2010년 07월 08일 ~ 07월 10일	비계, 임시보강재 수정
	2011년	• 2011년 11월 16일 ~ 11월 17일	2층 천장 하부 비계설치
	2012년	• 2012년 06월 04일 ~ 06월 08일	내부 강관 비계 설치
		• 2011년 12월 05일 ~ 12월 05일	배면 비계 이동설치, 2층 천장 가설재 이동설치
	2013년	• 2013년 11월 07일 ~ 11월 20일	발코니 비계설치, 해체
	2014년	• 2014년 05월 17일 ~ 05월 18일	가림막 철거, 가설비계 해체, 반출
콘크리트공사	2010년	• 2010년 03월 08일 ~ 03월 11일	1, 2층 바닥 몰탈타설 및 양생
철거공사	2009년	• 2009년 11월 25일 ~ 11월 30일	2층 비품운반 및 천장, 마감재 철거
		• 2009년 12월 01일 ~ 12월 16일	1, 2층 철거
		• 2009년 12월 22일 ~ 12월 31일	지층, 1, 2층 모르타르 철거 및 1층 철거
	2010년	• 2010년 01월 26일 ~ 02월 01일	2층 철거재 운반 및 지층, 1, 2층 철거
		• 2010년 02월 08일 ~ 03월 03일	지층, 1층 철거
		• 2010년 03월 18일 ~ 04월 06일	1층 창호, 바닥 철거, 연도 내 폐쇄부위 벽돌 철거
		• 2010년 05월 10일 ~ 05월 13일	시멘트 벽돌 철거
		• 2010년 06월 08일 ~ 06월 18일	조적벽체, Con`c인방 철거
	2011년	• 2011년 11월 11일 ~ 11월 12일	1층 칸막이 벽체 철거
조적공사	2010년	• 2010년 04월 29일 ~ 04월 30일	벽돌 소운반
		• 2010년 05월 24일 ~ 05월 29일	1층 조적벽체 쌓기(시험쌓기)
		• 2010년 06월 14일 ~ 07월 05일	고벽돌 1:4 회몰탈 쌓기,1층 벽돌 쌓기
		• 2010년 07월 06일 ~ 07월 24일	지층, 1, 2층 벽돌 쌓기, 궁륭아치틀 제작설치
		• 2010년 08월 02일 ~ 08월 11일	2층 벽돌쌓기, 궁륭 천장형틀 제작설치
		• 2010년 08월 16일 ~ 09월 25일	1, 2층 벽돌쌓기
	2012년	• 2012년 05월 10일 ~ 05월 18일	지층 날개벽, 1층, 2층 벽돌 쌓기
목공사	2010년	• 2010년 12월 08일 ~ 12월 17일	목상 설치
	2011년	• 2011년 12월 01일 ~ 12월 28일	소식당 오크수장, 지층 1층 천장 수장공사
	2012년	• 2012년 04월 13일 ~ 12월 18일	2층 목재문 보관창고 설치, 석고 몰딩조각, 중앙홀 난간 공사, 소식당 몰딩 각재 설치, 점검구 설치, 2층 칸막이 벽 철거 후 재설치, 내부석고 몰딩설치, 내부 마루설치
	2013년	• 2013년 06월 03일 ~ 06월 05일	마루환기구, 재료분리대 설치
방수 및 미장공사	2010년	• 2010년 02월 22일 ~ 02월 22일	2층 바닥 몰탈 타설
		• 2010년 04월 10일 ~ 05월 01일	지층 시멘트액체방수, 우레탄방수, 옥상 지붕 주변보완
		• 2010년 07월 09일 ~ 07월 09일	1층 시범 미장(초벌)

구분		기간	내용
방수 및 미장공사	2010년	• 2010년 08월 16일 ~ 09월 18일	지층, 1층 벽체 미장
		• 2010년 09월 24일 ~ 11월 08일	지층, 1, 2층 벽체 미장
	2011년	• 2011년 06월 20일 ~ 06월 21일	1층 대식당 미장해초풀 및 수사 작업 전 준비
		• 2011년 07월 18일 ~ 08월 16일	옥상 기존방수층 철거, 균열부 에폭시공사,
		• 2011년 08월 24일 ~ 08월 26일	옥상박공하부 시트부착, 우수 드레인 주변 하지처리
		• 2011년 09월 01일 ~ 09월 03일	우레탄 하도, 중도(2회)
		• 2011년 09월 15일 ~ 09월 17일	옥상방수 상도, 옥상방수 박공 상도
		• 2011년 11월 14일 ~ 11월 15일	1층 칸막이 벽체 미장 초벌 및 정벌
		• 2011년 12월 09일 ~ 12월 09일	지층 외부창문틀 몰탈 사춤
	2012년	• 2012년 05월 18일 ~ 05월 22일	지층 날개벽 미장, 지층, 1층, 2층 미장
		• 2012년 06월 11일 ~ 06월 29일	옥상 동판하부보강 및 동판잇기
창호공사	2010년	• 2010년 02월 03일 ~ 02월 03일	철제창호 견본제작
		• 2010년 02월 03일 ~ 08월 01일	창틀 주변 하지작업, 창틀, 창호, 외부창호 제작
		• 2010년 08월 02일 ~ 08월 22일	창호 유리, 현관문틀 설치, 백업제 및 실란트 설치
		• 2010년 08월 23일 ~ 11월 27일	창호 제작 및 설치, 코킹, 손잡이 설치
	2011년	• 2011년 09월 02일 ~ 12월 29일	지층 외부창호 제작
	2012년	• 2012년 09월 24일 ~ 10월 18일	내부 창호 및 창호철물 설치
		• 2012년 11월 27일 ~ 12월 01일	내부 창호 철물설치
유리공사	2012년	• 2012년 11월 30일 ~ 12월 01일	유리끼우기, 거울설치
	2013년	• 2013년 10월 21일 ~ 11월 17일	조각거울설치
도장공사	2010년	• 2010년 05월 17일 ~ 05월 24일	철골부재 녹제거, 하지처리, 방청도장,
	2012년	• 2012년 03월 21일 ~ 03월 27일	내부 목재 창호 도장
		• 2012년 10월 09일 ~ 12월 02일	내부 벽면 및 벽체 퍼티 및 바탕도장, 내부 도장
이설공사	2009년	• 2009년 12월 18일 ~ 12월 31일	덕수궁 관리소 이설
	2010년	• 2010년 01년 03일 ~ 01월 22일	덕수궁 관리소 설치, 전기배관 설비배관 설치
		• 2010년 02월 10일 ~ 02월 11일	덕수궁 관리소 전산실 이설
정밀안전진단 및 계측	2010년	• 2010년 03월 03일 ~ 03월 07일	정밀안전진단
		• 2010년 03월 24일 ~ 04월 03일	정밀안전진단 추가조사
주변정비공사 기타공사	2011년	• 2011년 08월 06일 ~ 08월 27일	옥상 페데스탈 재현
		• 2011년 12월 01일 ~ 12월 29일	1층 대식당 전시벽체 보존처리, 옥상조형물 복원설치, 배면 실외기대 제작, 기성벽난로 운반 및 조립,
	2012년	• 2012년 01월 08일 ~ 01월 14일	2층 황제실 칸막이 설치
		• 2012년 09월 05일 ~ 12월 11일	옥상 페데스탈 재현
		• 2012년 11월 21일 ~ 12월 05일	중앙홀 천창설치
		• 2012년 12월 03일 ~ 12월 07일	보존처리공사(대식당 보존구간)
		• 2012년 12월 14일 ~ 12월 19일	실외기대 제작설치
	2013년	• 2013년 10월 15일 ~ 12월 10일	외부벽체 세척, 풍화석재 보존처리
		• 2013년 07월 05일 ~ 08월 07일	천장 롤스크린 설치
		• 2013년 09월 04일 ~ 10월 25일	발코니 선홈통주변 방수공사
	2014년	• 2014년 05월 06일 ~ 05월 15일	외부벽체 세척, 풍화석재 보존처리
		• 2014년 05월 17일 ~ 05월 27일	석조전 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 2014년 05월 28일 ~ 05월 30일	경화마사토포장공사
장식물제작	2013년	• 2013년 04월 02일 ~ 05월 01일	장식물제작, 설치
	2013년	• 2013년 04월 24일 ~ 12월 10일	커튼제작, 설치
		• 2013년 05월 13일 ~ 11월 30일	가구 구매
		• 2013년 05월 20일 ~ 12월 10일	등기구 제작, 설치
		• 2013년 05월 22일 ~ 11월 10일	가구운송, 수리, 이전
		• 2013년 06월 12일 ~ 11월 30일	카펫 제작 설치
		• 2013년 10월 15일 ~ 12월 10일	가구제작
인테리어도면 작성공사	2011년	• 2011년 05월 18일 ~ 08월 10일	내장도면 작성 및 수정보완
	2012년	• 2012년 03월 30일 ~ 04월 12일	도면작성

3. 자문회의

1) 자문회의 개요

자문회의는 덕수궁 석조전 보수·복원과 관련해서 고증의 문제, 그에 따른 기술적 문제 등을 자문하는 회의이다. 보수·복원공사를 시작하면서 5년간에 걸쳐 총 17차례의 공사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11회의 전문분야(커튼, 카펫, 가구) 개별자문을 받았다. 자문위원은 관련분야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중요한 안건들을 자문위원회에 상정해 그에 따른 자문을 받아 시공하였다.

[표 1-43] 자문회의 일정 및 개요

회 차	일 시	자문위원	안 건
1회	2009년 11월 20일	최기수, 김정동, 김종헌, 김란기, 권기혁, 최병하	• 층별 명칭 검토, 각 실 명칭 검토, 석조전 관련 국외 자료 조사 추진 검토 • 가벽체 철거 후 구조 확인 필요
2회	2009년 12월 18일	최기수, 김정동, 김종헌, 안창모, 김란기, 최병하, 강성원	• 변형 모습 확인을 위해 건물 철거 범위 검토 • 벽 마감방법 검토, 창호 방식 검토 • 구조안전 진단 검토
3회	2010년 03월 16일	최기수, 김정동, 김종헌, 안창모, 권기혁, 김란기, 이민원	• 고증자료 검토, 수장고 내부 복원 검토 • 벽체, 벽난로, 굴뚝 복원 검토, 창호 검토 • 구조부 보강 검토 및 방수 및 배수로 검토
4회	2010년 06월 03일	김정동, 김종헌, 안창모, 권기혁	• 조적쌓기 적정성검토, 현황과 고증자료 및 일치사항 검토 • 원형보존구간 선정(벽난로, 연도, 설비 등), 옥상굴뚝 및 연도 연결여부 검토 • 내장 마감재질검토
5회	2011년 05월 18일	김정동, 김종헌, 안창모, 권기혁, 김란기	• 지층 수장고 및 관리사무소 마감재 검토 및 1,2층 벽체 복원 및 활용 방안 검토 • 전시 활용 방안 검토, 계단실, 중정기둥, 벽난로 등 복원 검토 • 중앙홀 천창 및 옥상 굴뚝 검토, 옥상방수 및 실외기 검토 • 설비 및 조명 검토
6회	2011년 07월 14일	김정동, 김종헌, 안창모, 권기혁, 김란기	• 각 실 용도 및 명칭 검토 • 각 실 벽 및 천장 마감 검토 및 벽난로 복원 검토
7회	2008년 05월 15일	김정동, 김종헌, 안창모, 권기혁, 김란기, 이민원	• 발견된 석조전 설계도면 검토
8회	2011년 09월 29일	안창모, 권기혁, 우동선, 김란기, 백민호, 이민원, 강성원	• 발견 설계도면 검토 및 내부 벽체 원형복원 검토 • 석조전 소방 및 화재예방시설 적정성 검토 • 지층 활용방안 검토
9회	2011년 12월 13일	안창모, 권기혁, 우동선, 김란기, 강성원	• 석조전 오크목재 색상 검토 • 내부창호 경첩 검토 • 대리석 벽난로 석재 검토 - 벽난로 실별 설치계획, 복도, 계단 대리석 석재 종류 검토
10회	2012년 02월 22일	김정동, 안창모, 김종헌, 권기혁, 김란기, 우동선, 강성원. 이민원	• 지층 복원 및 활용 방안, 추가 확인 고증자료 검토, 2층 중앙홀 난간 재질 검토
11회	2012년 05월 24일	김정동, 안창모, 우동선, 김란기, 권기혁, 강성원	• 각 실 마루문양, 타일 문양 검토 • 2층 목재 수종 및 벽체 구조안전성 검토 • 1층 대식당 벽체 전시방안 검토 및 대한제국 역사관 전시계획 검토
12회	2012년 07월 19일	김정동, 안창모, 우동선, 김란기, 권기혁	• 각 실 벽체 마감 색상 선정 및 각 실별 가구 및 전등 배치 • 카펫 제작 및 지층 전시공간 창호 설치 방안 • 1층 대식당 벽체 전시구간 조정
13회	2012년 10월 18일	김란기, 권기혁, 우동선	• 알현실, 황제·황후침실 도배지 선정, 각 실 도장 색상 선정
14회	2012년 12월 14일	김정동, 안창모, 우동선, 김란기, 권기혁, 강성원, 이민원, 김연수	• 석조전 실내 가구 배치 및 제작 방안 검토
15회	2013년 02월 20일	김정동, 김종헌, 권기혁, 강성원, 이민원, 김선미	• 석조전 실내 카펫 및 커튼설치 방안 검토
16회	2013년 06월 19일	김정동, 김란기, 안창모, 김종헌, 권기혁, 우동선, 이민원	• 석조전 관련 고가구 수입 및 선정 방안 검토 • 석조전 내부 욕조 및 세면기, 변기 설치 방안 검토 • 석조전 실내 카펫 및 커튼설치 제작·설치 관계전문가 자문결과 보고 • 석조전 스위치 및 콘센트 설치 계획
17회	2013년 09월 03일	김정동, 김란기, 안창모, 김종헌, 권기혁, 우동선, 이민원	• 석조전 관련 고가구 구입 및 일부 가구 제작 방안 검토 • 석조전 주변 화단 및 배수로 등 주변정비 방안 검토 - 석조전 주변 노후 배수관 교체 및 지반 정비 - 석조전 전면 화단 및 배면 수목 정비 • 석조전 선홈통 누수에 따른 기둥 오염부위 처리 방안 검토

2) 자문회의 내용

① 1차 자문회의

[표 1-44] 1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일 자	2009년 11월 20일 11시	
■ 장 소	덕수궁 회의실 및 석조전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최기수, 김정동, 김종헌, 김란기, 권기혁, 최병하
	문화재청	이재서, 최길섭
	시공자	김진묵
	기타	박기화, 민경배(덕수궁관리소)
■ 회의 결과	■ 덕수궁 석조전 시공 방향 • 층별 명칭을 고증 문헌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1층, 2층, 3층으로 통일하여 표기함이 좋겠음. • 각 실 명칭은 고종황제의 사용시기와 동일한 명칭 부여 • 차기 회의 일정은 천장과 벽체의 기존 전시관 용도로 쓰였던 가벽체 등을 일정부분 철거한 후 원래의 구조 등 확인이 가능한 상태에서 개최함. • 향후 자문회의를 거쳐 해체 및 복원에 대한 세부과정 추진 • 석조전 관련 국외(중국, 일본)자료 조사 조속 추진	

[사진 1-1] 1차 자문회의

[사진 1-2] 2차 자문회의

② 2차 자문회의

[표 1-45] 2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일 자	2009년 12월 18일 11시	
■ 장 소	덕수궁 회의실 및 석조전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최기수, 김정동, 김종헌, 안창모, 김란기, 최병하, 강성원
	문화재청	이재서, 최길섭
	시공자	김진묵
	기타	박기화, 민경배(덕수궁관리소), 김석순(수리보고서)
■ 회의 결과	■ 덕수궁 석조전 시공 방향 • 건물 철거 범위는 변형된 모습을 찾기 위해 전시실을 포함한 건물 전체(지층, 1층, 2층) 미장벽 철거가 필요함. • 천장 및 벽체 복원공사는 벽돌벽 위 회미장 후 불연재인 석고보드를 사용 마감 문양제작 및 도장으로 처리함이 좋겠음. • 변형 설치된 밀폐형 창호는 원래의 개방 형태의 창호로 복원함이 좋겠음. • 철거 결과 누적된 구조체 변형으로 인하여 종합적인 구조안전 진단이 필요하므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함이 좋겠음.	

③ 3차 자문회의

[표 1-46] 3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일 자	2010년 03월 16일 11시	
■ 장 소	덕수궁 회의실 및 석조전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최기수 김정동, 김종헌, 안창모, 권기혁, 김란기, 이민원
	문화재청	김원기, 이재서, 고정주
	시공자	김진묵
	기타	박기화(덕수궁관리소), 김석순(수리보고서)
■ 회의 결과	■ 고증자료(사진, 도면 등)와 현장 검토 후 복원 • 1층 대광간 벽면은 고증자료(사진)의 벽면부와 일치하는 위치인지 좀 더 검토토록 함. • 건물 내부 좌우측 지층~2층간 계단부는 설계도(38년, 45년)상 계단 없이 기둥만 표기되어 있으나 기능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보존토록 함. ■ 수장고 내부복원 • 지층 수장고 내측 창문벽체는 조적(벽돌)으로 막아져 있으나 원형회복을 위해 제거하고 변형된 콘크리트 바닥은 걷어내어 애초 바닥높이를 유지토록 하며 철재출입문은 현 상태대로 보존하도록 함. ■ 벽체 훼손부 및 벽난로 · 굴뚝 복원 여부 • 원형이 잘 남아있는 벽난로 및 연도 일부 개소는 보존처리 후 현 상태대로 복원하여 전시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벽난로는 복원함. 옥상의 굴뚝은 연도 위치에 맞게 외형을 복원하도록 하고 일부 멸실된 옥상난간조각도 복원하여 외형을 유지하도록 함. ■ 창호 복원 • 1층, 2층 창호는 설계내용과 같이 복원하고 내역에 미 반영되어 있는 1층 창호는 고증자료를 바탕으로 복원하도록 함. ■ 구조부 보강 및 보존 • 1층 대광간 및 2층 알현실 앞 철골기둥은 철거 시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형에 문제가 없으면 현 상태대로 존치토록 함. • 2층 알현실 바닥콘크리트 슬라브는 해체하지 말고 설계도(38년, 45년)와 같이 바닥높이 조정(상승 50㎝ 정도)을 하도록 하되 멍에 및 장선을 까는 등의 방법으로 검토토록 함. • 녹이 슬어 있는 철골부재는 녹을 제거하고 녹막이 도료칠을 하도록 함. • 지붕 철골트러스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휘거나 불량한 부재는 보수 · 보강토록 하고, 천창의 원형복원 여부는 추후 검토토록 함. ■ 방수 및 배수로 정비 • 우수 시 물이 스며들고 있는 지층 내부바닥 및 공동구(피트) 등에는 전체적으로 방수처리를 하도록 함. • 우수 시 건물 주변 배수처리가 불량하므로 전체적으로 배수로를 조사 후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게 정비토록 함. ■ 기타 • 배관보온재 등은 현재 노출된 모습을 보존처리 후 전시토록 함. • 복원 시 근거자료 확보 및 기록보존을 위해 세부적인 정밀실측도면을 작성하도록 함.	

[사진 1-3] 3차 자문회의

[사진 1-4] 3차 자문회의

④ 4차 자문회의

[표 1-47] 4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일 자	2010년 06월 03일 11시	
■ 장 소	덕수궁 회의실 및 석조전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김정동, 김종헌, 안창모, 권기혁
	문화재청	고정주
	시공자	김진묵
	기타	박기화(덕수궁관리소), 오강호, 강원석(재. 한국건설안전기술원), 김석순(수리보고서)
■ 회의 결과	■ 벽돌 조적쌓기 및 창호설치 검토 • 벽돌 시범쌓기 및 창호설치는 적정하며, 벽돌쌓기 몰탈은 시멘트몰탈쌓기에 비해 시공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애초 줄눈 및 시범쌓기와 같이 강회몰탈로 시공토록 함. ■ 실측조사 자료검토(현황과 고증자료 미 일치구간) •황토줄눈으로 막혀있는 아치형 출입문 현황 구간은 고증자료(사진, 도면 등)와 상이한 경우 고증자료를 중심으로 복원토록 함. • 도면(1938년, 1945년)에서 나타나 있는 지층(구 수장고) 기둥은 상층바닥이 철판이 아닌 콘크리트 슬래브이고, 상층(1층) 기둥을 목재로 하면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치하지 않도록 함. ■ 내장 마감재질 검토 • 쪽매마루로 계획되어 있는 바닥마루재는 황실에 어울리도록 제대로 설치되도록 하고, 필요 시 전문가가 고증자료를 분석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함. • 1층 실내기둥은 부재를 이음한 흔적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석재재질이 아니고 도장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됨. • 고증자료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계단실은 대리석, 1층 소식당은 오크목 실내장식 등으로 설치하되 오크목은 반드시 영국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음. ■ 원형보존 전시구간(실) 선정 • 벽난로 형태가 비교적 잘 남아있는 공조실(지층)을 원형 보존하여 전시하도록 하고, 1층의 귀빈대기실의 설비(강관을 새끼로 보온) 구간은 부분적으로만 전시함이 타당함. ■ 옥상굴뚝 설치 및 연도 연결 • 옥상굴뚝은 전체적(11개소)으로 형태를 복원하되 1개소에 한하여 굴뚝을 기능까지 복원(연도 연결)하여 시연함이 좋을 것임. ■ 냉난방 설비 설치 • 냉난방 설비는 천장 등 장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라디에이터 외형복원(춘천 주교관 참조) 또는 벽난로, 벽체그릴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함. ■ 구조적 검토 • 옥상 슬래브 위에 굴뚝을 설치(11개소)할 경우 풍압 등 굴뚝 자체 안전성 및 슬래브의 안전성을 검토토록 함. • 부재 간 이완 및 균열이 기 발생된 외부 기둥에 대한 안전성도 검토가 요구됨.	

[사진 1-5] 4차 자문회의

[사진 1-6] 5차 자문회의

⑤ 5차 자문회의

[표 1-48] 5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일 자	2011년 05월 18일 16시	
■ 장 소	덕수궁 회의실 및 석조전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김정동, 김종헌, 안창모, 권기혁, 김란기
	문화재청	박영근, 김원기, 이재서, 고정주
	시공자	김진묵
	기타	박기화(덕수궁관리소), 김석순, 조규화, 박창범(수리보고서)
■ 회의 결과	■ 지층 수장고 및 관리사무소 공간 마감재 • 수장고 내부 마감재는 전시활용계획에 따라 추후 검토함. • 관리사무소 영역은 설계내용과 같이 석고보드(벽면), 텍스(천장)로 마감하며 천장의 조명은 LED로 설치함. ■ 1층 및 2층의 원형고증이 어려운 공간(실)의 벽체 복원 및 활용 방안 • 석조전의 각 실은 층별로 좌 · 우가 서로 대칭되게 배치되어 있어 마감재도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벽체 마감 형태의 고증이 미흡한 공간은 대칭 공간(실)의 마감 형태를 따라 복원토록 함. • 좌 · 우의 대칭 모두 고증이 어려운 공간(실)인 준비실, 욕실, 화장실 등은 주변공간(실)의 마감 형태를 참고하여 복원토록 함. ■ 전시 활용 방안 • 1층 귀빈대기실은 노출된 파이프 보온재 및 벽돌 벽체 일부 구간은 보존 처리하여 전시하되 설명판을 설치토록 함. • 침대, 가구, 집기, 욕조기구 등은 현 소장처와 원래 형태 등을 조사하여 전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함. ■ 계단실, 내부 중정 장식기둥, 벽난로 등의 복원(마감재 등) 방안 • 계단실(1층)은 고증자료와 같이 바닥과 벽체는 대리석(판석)계열의 재질로 복원하고 난간 장식구간은 금장칠로 복원토록 함. • 내부 기둥은 구조재가 아닌 의장재이므로 거푸집을 만들어 트래버틴 등을 부어 만든 형태로 보이며 속은 중공으로 판단, 주두는 복원 중인 서울역사 내부 기둥 등을 참조하여 복원토록 함. • 벽난로는 고증자료에 나타난 것과 같이 외부 대리석 장식에 내부 주물 화구로 복원하며 고증자료 미확보공간(실)은 대칭공간(실) 형태를 따라 복원토록 함.(목포 영사관 형태 등 참고) • 1층 소식당 및 귀빈식당은 고증자료와 같이 벽면 오크패널, 벽면 상단 및 천장부는 석고조각(몰딩) 장식으로 복원토록 함. ■ 중앙홀(2층) 천창 및 옥상 굴뚝 복원 • 중앙홀 천장 철재트러스는 투명창에 잘 비치지 않은 연회색계열로 하도록 함. • 옥상 굴뚝(11개소)은 경량석재(연석) 재질로 하여 지붕 하중을 경감하도록 함. ■ 옥상방수 및 실외기 설치 • 지붕은 우기 시 부분 누수되고 있어 방수처리토록 함. • 지층의 냉난방용 실외기는 건물 배면 외부에 있어 설치하되 미관을 고려토록 하고 1층과 2층의 실외기는 옥상에 설치토록 함. ■ 각종 설비 및 조명 설치 • 사무공간(지층) 천장형 공조기 설치는 천장고 확보에 문제가 있으므로 입상형 냉난방기로 변경하고 또한 냉난방 공조기(1층, 2층)의 개별식 제어를 중앙제어식으로 변경토록 함. • 회랑(1층, 2층) 등기구는 내부공간(실)과 조화롭게 고전식 등기구로 함이 타당함.

⑥ 6차 자문회의

[표 1-49] 6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일 자	2011년 07월 14일 14시	
■ 장 소	덕수궁 회의실 및 석조전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김정동, 김종헌, 안창모, 권기혁, 김란기
	문화재청	최이태, 이재서, 김태영
	시공자	김진묵
	기타	김석순(수리보고서)
■ 회의 결과	■ 석조전 각 층의 실별 용도 및 명칭 • 고증사진 및 실측자료, 원래의 철판 바닥 형태 등 분석 결과, 1층 좌측의 귀빈대기실을 귀빈식당으로, 우측의 귀빈식당은 귀빈대기실로 변경. 1층 알현실 우측의 부속실 및 준비실은 화장실 및 세면소로, 소식당은 황제가 사용했던 부속실로 변경. 2층 우측의 식당을 담화실로 변경 • 각 실의 명칭은 황실연구원 등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명칭 부여 ■ 각 실별 벽체 및 천장마감 방안 • 실별 벽체 및 천장의 마감장식(몰딩 및 조각 등)은 사진 등 고증자료를 근거하여 원래의 형태대로 마감 - 사진을 토대로 작성된 세부 설계도대로 시공하되 고증자료 추가 발견 시 고증자료를 근거하여 마감 • 대광간홀 문 상부(좌측벽체)의 거울로 추정되는 장식물은 추가자료 등을 확보하여 재검토 • 대광간 2층의 난간 재실은 사진자료 분석 결과 목재동자주 및 돌란대로 판단되므로 목재로 복원 ■ 벽난로 복원 • 사진자료에 의거 외부형태 및 장식모양, 화구 형태가 뚜렷한 귀빈대기실은 원래의 형태로 벽난로를 복원 • 외부형태 및 장식만 고증이 가능한 대광간홀, 알현실, 귀빈식당, 황제거실은 외부형태만 원래 모습대로 복원(화구는 기존 설계대로 설치) • 고증이 어려운 나머지 실의 벽난로는 설계대로 시공하되 가능한 석조전 격에 맞는 형태로 복원 추진 • 라디에이터도 형태 등을 고증하여 복원(설치)하는 방안 검토	

⑦ 7차 자문회의

[표 1-50] 7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일 자	2011년 08월 22일 11시	
■ 장 소	덕수궁 회의실 및 석조전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김정동, 김종헌, 안창모, 권기혁, 김란기, 이민원
	문화재청	박영근, 최이태, 이재서, 김태영
	시공자	김진묵
	기타	김은주(하딩 설계 도면 발견자), 김태식(연합뉴스), 이경희(중앙일보), 허윤희(조선일보), 김석순, 조규화(수리보고서)
■ 회의 결과	■ 석조전 건립 관련 발견 설계도면 • 입면도(정면도, 배면도, 측면도) : 청사진 - 1989년 설계자 하딩의 서명이 있으며 대만에서 작성 • 각 층 평면도 -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나카무라 요시헤이(덕수궁 석조전 서관 설계자)관련 자료에서 발견 - 작성연대를 알 수 없으며 각 실의 바닥마감 자재가 한문으로 명시되어 있고 각 실에 붉은색 ×자 표시와 붉은 글자(메모)가 첨가되어 명시 - 김정동 위원은 붉은색 ×자 표시와 메모 등으로 보아 하딩이 설계한 원래도면이 아니라 1911년 이후 1930년대 초에 일본이 석조전 내부를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 ■ 금번 발견된 석조전 건립 당시 설계도면 설명 • 입면도는 하딩이 설계한 원래의 도면을 청사진으로 복사한 것으로 판단 - 석조전은 내부 복원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외부 복원공사 추진 시 활용 • 평면도는 작성연대를 알 수 없어 원 설계도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없으나 현재까지 발견된 석조전 관련도면 중 가장 아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 다만 하딩이 작성한 원 도면이라고 단정 곤란 • 석조전 내부는 건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많은 변화가 있으므로 새로 발견된 도면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폭넓게 검토하여 복원공사 추진	

구 분	내 용
■ 회의 결과	• 새로 발견된 평면도면 내용과 현재까지 추진된 석조전의 복원공사 내용을 비교분석 및 검토하여 향후 복원 방향 설정 • 금번 발견된 평면도와 관련하여 일본 하마마츠시립도서관의 석조전 관련 소장 자료에 대한 추가 조사 • 설계도면을 발견한 김은주 씨는 소장하고 있는 석조전 관련 자료를 복원공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새로 발견된 도면(평면도)과 현재까지 시공한 공사내용을 비교분석 및 검토 - 비교분석 및 검토 결과를 관계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검토 : 9월 - 자문회의 결과를 공사에 반영 및 설계변경 추진 • 평면도와 차이 없는 부분은 기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계속 공사 추진 • 일본 내 도서관 소장 석조전 관련자료에 대한 추가 조사 - 실측 및 현장 조사팀에서 조사 추진

[사진 1-7] 7차 자문회의

[사진 1-8] 8차 자문회의

⑧ 8차 자문회의

[표 1-51] 8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일 자		2011년 09월 29일 14시
■ 장 소		덕수궁 회의실 및 석조전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안창모, 권기혁, 우동선, 김란기, 백민호, 이민원, 강성원
	문화재청	최이태, 이재서, 김태영
	시공자	김진묵
	기타	김석순(수리보고서)
■ 회의 결과		■ 석조전 관련 설계도면 비교·분석 및 추진방안 검토 • 김은주 씨가 발견한 평면도 중 현재까지 사진 등 고증자료로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되, 도면에 나타나는 오류 등은 추후 일본 하마마츠시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석조전 관련 도면을 확인 후 재검토하도록 함. ■ 석조전 내부 벽체 원형복원 방안 검토 • 덕수궁 석조전 복원은 원형복원을 확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과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석조전 소방 및 화재예방시설 적정성 검토 • 덕수궁 석조전에 설치된 소방설비 등의 문제는 없으나, 건물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감지설비 재배치 등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정토록 함. ■ 석조전 지층 활용방안 • 덕수궁 석조전 지층은 구조적인 보강 및 변형 등으로 원형복원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대한제국 역사관(가칭)'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정함. ■ 향후 조치계획 • 덕수궁 석조전 관련 도면이 보관 중인 일본 하마마츠시립도서관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10월 초)하여 자료 확보 및 분석 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 •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추진

⑨ 9차 자문회의

[표 1-52] 9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일 자	2011년 12월 13일 11시	
■ 장 소	덕수궁 회의실 및 석조전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안창모, 권기혁, 우동선, 김란기, 강성원
	문화재청	이재서, 김태영
	시공자	김진묵
	기타	김석순(수리보고서)
■ 회의 결과	■ 석조전 내부 오크목재 수장 오일스테인 색상 • 석조전 내부 오크목재(문틀, 오크벽, 문) 오일스테인 색상은 외국의 유사한 양식의 건물 및 운현궁 양관 등의 사례와 같이 다크오크 색상으로 하되, 오크목 설치 시 나무무늬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 ■ 석조전 내부 목재창호 경첩 • 목재창호 경첩 설치 시 중앙홀(대광간), 알현실 등 유리문은 원래와 같은 자유경첩을 설치하고, 기타 목재문은 나비경첩을 사용토록 하되, 경첩의 색상은 브론즈 색이 나타나도록 함. ■ 복원제작 대리석 벽난로 석재 종류 • 원형과 같이 설치되는 벽난로(9개소)는 최대한 원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되, 고증사진에서 나타나듯이 흰색계열의 비앙코(이탈리아산) 대리석을 사용토록 하고, 귀빈대기실은 비앙코와 흑색계열의 그린마블대리석을 사용하여 명암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기성 대리석 벽난로 실별 설치 계획 • 기성 벽난로(20개소)는 건립 당시의 제품사인 메이플사의 카탈로그를 참조하여 기성제품의 대리석 벽난로를 사용토록 하되, 실의 위치와 용도에 따라 문양 및 조각양식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설치함. ■ 석조전 복도, 계단실 대리석 석재 종류 • 석조전 계단의 마감대리석은 고증사진과 같이 베이지색 계열의 광택이 있는 보티치노(이탈리아산)를 사용하고, 벽체는 광택이 나지 않는 모카크림(포르투갈) 대리석을 사용토록 함. ■ 기타 • 오크목 색상, 벽난로 및 계단, 벽체의 대리석 선정을 위한 조사자료, 근거 등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되, 기성제품을 사용하는 곳은 원형을 알 수 없어 부득이 사용하였음을 명시하도록 함.	

[사진 1-9] 9차 자문회의

[사진 1-10] 9차 자문회의

⑩ 10차 자문회의

[표 1-53] 10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일 자	2012년 02월 22일 14시	
■ 장 소	덕수궁 회의실 및 석조전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김정동. 안창모, 김종헌, 권기혁, 김란기, 우동선, 강성원, 이민원
	문화재청	박영근, 최이태, 이재서, 김태영
	시공자	김진묵
	기타	박정상, 민경배(덕수궁관리소) 김석순, 박창범(수리보고서), 김지형, 김윤희, 전나나(대한제국 역사관 전시기획팀)
■ 회의 결과	■ 석조전 지층 복원 및 활용 방안 • 지층은 훼손 및 변형으로 인한 구조적인 안전문제로 원형복원이 곤란하므로 현 상태에서 벽체 마감 등만 보수정비하고 대한제국 관련 전시관 등으로 활용토록 함. • "대한제국 역사관(가칭)" 의 명칭은 너무 광범위하므로 전시 내용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명칭 재검토) ■ 추가 확인된 고증 자료 · 설계도면과 현 복원계획 비교 · 분석 및 추진방안 검토 ※ 참고 - 고 신문자료(매일신보, 1918년 및 1922년)에 나타나 있는 1~2층 평면 배치와 현 복원계획 비교 - 일본 하마마츠 도서관 소장 평면도(지층, 1층, 2층, 청사진)의 평면 계획과 현 복원계획 비교 - 매일신보의 평면 배치 내용과 평면도의 평면 계획이 대부분 일치하여 석조전과 관련된 가장 이른 시기의 도면으로 볼 수 있으나 원 도면으로는 볼 수 없음.(원 도면을 본 뜬 도면으로 보이며, 원 도면은 확인이 불가함.) - 고증자료(매일신보, 하마마츠 소장 평면도 등)에 나타난 평면 형태와 같이 복원계획을 수정하여 1층과 2층의 내부 복원공사를 추진하도록 함. - 1층의 좌 · 우측 배면 방 뒤쪽 계단은 배면 벽체에 설치 흔적이 일부 있으나 건립 당시부터 있었는지 고증되지 않으며, 2층 좌 · 우측 배면 방 측면 계단은 벽체 등에 설치 흔적이 없고 평면도에는 1층과 2층의 계단이 철거되고 없다는 메모가 있으므로 복원하지 않는 것으로 함 - 1층 알현실 전면 좌 · 우측 첫 번째 문은 매일신보 내용과 사진(1911년 영친왕 촬영) 분석 결과와 같이 출입을 하는 문이 아닌 거울 장식한 문(문 형태의 가짜 문)으로 복원하도록 함. - 1층 알현실 전면 중앙홀 좌측 벽체는 우측 벽체와 같은 형태(벽감 등)의 벽체로 복원하고 전면(입구)의 기둥(4개소) 내부도 평면도 상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장식기둥으로 복원하도록 함. - 1층과 2층 좌 · 우측의 궁륭 천장으로 되어 있는 실도 평면도와 같이 벽체를 복원하도록 함. - 2층의 황제 및 황후거실 전면의 전실과 중앙홀 좌 · 우측의 실 평면은 평면도의 실 평면과 같이 복원하도록 함. 단, 추가 복원되는 벽체(칸막이벽)는 하중 등 구조안전을 우선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벽체의 구조(시멘트벽돌벽체, 경량목재벽체 등)를 선정토록 하고, 화장실은 실제 사용되는 화장실이 아니라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의 화장실로 설치토록 함.(건립 당시 위생기구 설치 및 배관 제외) - 2층 중앙홀 전면 좌 · 우측 출입문(현 복원계획)은 벽체를 구성하여 로벨의 기법이 가미된 장식형의 문(실제 사용하지 않는 의장문 형태)으로 복원토록 함. 평면도에 표시되어 있는 2층 거실 전면의 전실 앞 중앙 출입구 좌측의 날개벽은 설치하지 않도록 함.(1911년 영친왕 촬영 사진 분석결과 날개벽 없음.) - 1층과 2층 각 실의 바닥 마감재는 청사진 평면도 및 복원계획에 의거 쪽매마루와 무늬마루로 설치하고 그 위에 까는 카펫은 설치여부, 종류 등에 대하여 추후 검토토록 함. - 2층 좌 · 우측 침실 배면 창호 뒤쪽의 베란다는 실 특성 및 출입에 따른 창호 형태, 베란다가 설치되었던 흔적 등을 감안할 때 애초부터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치하지 않도록 함. ■ 2층 중앙홀 난간 재질 검토 등 • 2층 중앙홀 난간의 재질은 영국 헤리티지 자문 및 시공사 관계자의 영국 현지 자료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검토토록 함. • 고증 불가로 원형복원을 하지 못하는 부분과 건물 구조안전 문제 등에 의거 원형복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고 전시 구성 시 설명판을 설치하여 이해를 구하도록 함.	

[사진 1-11] 10차 자문회의

⑪ 11차 자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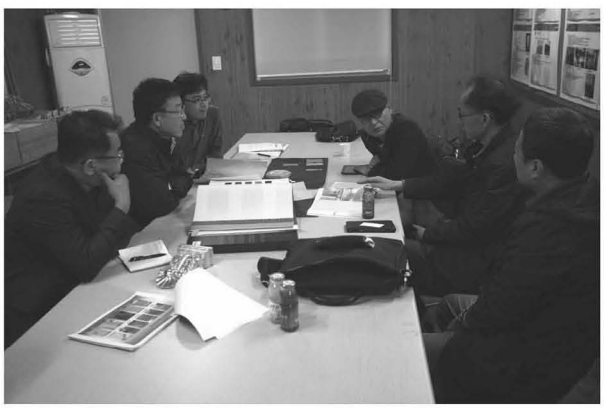
[표 1-54] 11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안 건	석조전 실별 바닥재료 선정, 2층 난간 재료, 1층 대식당 벽체전시 등 검토	
■ 일 자	2012년 05월 24일 11시	
■ 장 소	덕수궁 회의실 및 석조전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김정동, 안창모, 우동선, 김란기, 권기혁, 강성원
	문화재청	최이태, 이재서, 김태영
	시공자	김진묵, 오현민
	기타	박정상, 민경배(덕수궁관리소), 김지형, 김윤희, 전나나(대한제국 역사관 전시기획팀) 김석순(수리보고서)
■ 회의 결과	■ 석조전 각 실별 마루문양 선정 및 라디에이터 설치 • 각 실 바닥의 목재마루(오크목) 문양은 중앙홀 사진자료의 문양대로 하되, 알현실, 거실, 침실 등 황제와 황후가 사용한 실의 바닥은 창덕궁 대조전 마루 문양을 참고하여 격이 있게 하도록 함.(필요시 일본 오사카 궁의 마루 바닥 문양도 참고토록 함.) • 건물 내부의 온열기(라디에이터)는 사진자료(1910년 촬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형에 대한 추가 조사를 추진하여 1층 알현실과 대기실, 2층 중앙홀 복도에 각 2기를 설치토록 하되, 고증이 어려울 경우 원형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설치토록 함.(유사 제품 설치 시 조사 및 설치 경위에 대한 설명 안내판 등을 설치하도록 함) • 1층 대기실 등 천장면의 문양이나 장식이 고증되지 않는 실은 벽체 상부까지만 석고몰딩 등 장식을 복원하고, 천장면은 향후 고증이 될 경우 장식복원을 추진토록 함. ■ 욕실 및 화장실 바닥타일 문양 선정 • 욕실 및 화장실의 바닥타일은 창덕궁 대조전의 타일양식을 참고하여 설치하고 벽체 타일은 바닥타일과 어울리는 백색의 타일을 적정 높이까지 부착토록 함. • 욕조, 변기, 세면대 등 위생기구는 건립 당시 사용된 위생기구에 대하여 추가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후 검토토록 함. ■ 2층 홀 난간 목재 수종 및 벽체 구조안전성 검토 등 • 2층 중앙홀의 난간은 목재로 하되 강도가 강하고 갈라짐이 비교적 없는 물푸레나무나 너도밤나무 등을 사용토록 하고, 관람객의 발길이 닿는 하부는 대리석으로 설치토록 함. • 2층의 추가되는 칸막이 벽체(황제 및 황후거실 전면과 화장실 등)는 건물의 하중 안정을 위하여 하중이 실리지 않는 경량목재 벽체로 설치토록 함. ■ 1층 대식당 벽체 전시 방안 • 1층 대식당의 전면 5칸 중 우측 3칸은 벽돌벽체, 배관형태, 창호 상부의 한국전쟁 당시 불탄 흔적이 있는 인방석 등을 노출하여 전시될 수 있도록 하고 좌측 2칸은 벽체 장식으로 마감토록 함. ■ '대한제국 역사관' (가칭) 전시 계획(안) 보고 • 국립고궁박물관 및 국립중앙박물관, 창덕궁 등에 소장되어 있는 석조전 관련 유물(집기, 위생기구, 가구 등)은 가급적 석조전에 비치될 수 있도록 협의·추진토록 하고 부득이할 경우 복제하여 재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함.	

⑫ 12차 자문회의

[표 1-55] 12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안 건	각 실별 벽체 마감 색상 선정, 가구 및 전등 배치, 카펫 제작 및 1층 전시공간 창호 설치 방안, 1층 대식당 벽체 전시구간 조정	
■ 일 자	2012년 07월 19일 14시	
■ 장 소	덕수궁 회의실 및 석조전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김정동, 안창모, 우동선, 김란기, 권기혁
	문화재청	최이태, 이재서, 김태영
	시공자	김진묵. 오현민
	기타	김지형, 김윤희, 전나나
■ 회의 결과	■ 1층과 2층의 각 실 내부 벽체 표면 마감 색상 선정 관련 • 1층 알현실과 2층의 황제 거실 및 침실은 사진, 신문 기사 등 고증 자료에 의거 비단벽지 등으로 마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순종황제가 거처하였던 창덕궁의 희정당 및 대조전의 내부 벽지 형태와 색상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검토, 반영토록 함. · 조사자 : 강성원 자문위원, 김석순 실측담당 건축사, 김진묵 현장대리인 등 3명 - 사진 등에 의거 음영 등이 고증되는 실(대식당, 중앙홀 등)은 알현실과 황제침실 등 주요 실의 색상 선정 후 서로 조화될 수 있는 색상(연황색 등)을 선정하도록 함. - 내부 장식이나 마감방법이 고증되지 않아 향후 전시실 등으로 활용 예정인 실(부속실 등)은 백색으로 마감하여 전시구성에 대비토록 함. - 벽지 바르기 또는 도색하는 실은 일부분을 시범 시공한 후 자문위원회에서 검토토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 공사 추진토록 함. ■ 1층과 2층의 각 실별 가구 배치 및 전등 설치 - 각 실의 가구 및 집기는 사진으로 고증되는 실만 사진내용과 같이 배치토록 함. - 국립고궁박물관, 창덕궁 등에 소장되어 있는 석조전 관련 유물(의자, 집기, 가구 등)은 가급적 환수하여 석조전의 원래 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함. - 실존 유물이 없는 가구 등은 사진의 형태와 같이 복제, 제작하여 배치토록 함. - 알현실은 황제가 신하나 외국 사절 등을 알현하는 매우 격이 있는 실이므로 알현의례에 따른 어탁 존재 여부 등을 고증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토록 함. - 각 실의 전등은 사진에 나타난 형태 및 재질에 최대한 유사한 전등을 구입, 또는 제작하여 설치토록 함. ■ 바닥 마루 위의 카펫은 고증사진을 참고하여 기성제품(기계직조)을 사용토록 하되, 전시공간과 관람객 이동공간을 구분하여 설치토록 함. ■ 지층 내부 각 실 문은 설계내용과 같은 판문 형태로 설치토록 함. - 전시관으로 활용 대비 자동문 설치 시 많은 관람객이 한꺼번에 관람할 경우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관람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1층 대식당 전면의 노출(전시)벽체는 건립 당시 배관이 있는 벽체구간만 노출시켜 전시토록 함. ■ 석조전(본관) 외부 석재 벽면의 풍화 등으로 인한 박리 및 박락부분과 지의류가 심하게 번식되거나 철 녹물 등 오염이 있는 부분은 금회 복원공사와 병행하여 보존처리 등을 추진토록 함.	



[사진 1-12] 13차 자문회의

[사진 1-13] 13차 자문회의

⑬ 13차 자문회의

[표 1-56] 13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안 건	말현실, 황제·황후침실 도배지 선정, 각 실별 도장 색상 선정	
■ 일 자	2012년 10월 18일 16시	
■ 장 소	덕수궁 회의실 및 석조전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권기혁, 김란기, 우동선
	문화재청	최이태, 이성희, 김태영
	시공자	김진묵, 오현민
■ 회의 결과	■ 말현실, 황제·황후침실 도배지 선정 • 1층 말현실 및 2층 황제·황후침실의 도배지는 황색계열의 국내산 최고급 모직 도배지를 사용하도록 함. - 석조전 말현실 및 황제·황후침실 등에 사용된 도배지 재료에 대한 고증자료는 매일신보(1922년 4월) 및 조선과 건축(1933년 11월), 조선일보(1972년 3월)에서 간략히 언급되고 있으나, 각각 비단, 펠트 등 재료에 차이가 있는 등 정확한 고증에는 한계가 있음.(1910년 준공 이후 내부 수장재의 교체, 보수 등 유지관리 공사로 도배지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창덕궁 대조전 및 희정당에 사용된 벽지는 그 재질 및 색상 등이 석조전에는 맞지 않으므로 제외토록 함. ■ 각 실별 도장 색상 선정 • 옛 고증사진에서 음영 등이 고증되는 실(대식당, 대기실, 중앙홀 등)의 색상은 시범 시공한 황색도장 중 채도 및 명도가 가장 낮은 것과 중간색의 가운데 정도의 도장으로 시범 도장하여 고증사진 등과 비교 후 전체 도장을 실시토록 함. ■ 향후 조치계획 •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 추진 및 설계변경 추진 • 석조전 관련 고증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추진	

⑭ 14차 자문회의

[표 1-57] 14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안 건	석조전 실내 가구 배치 및 제작 방안 검토	
■ 일 자	2012년 12월 14일 10시 30분	
■ 장 소	덕수궁 회의실 및 석조전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김정동, 김종헌, 권기혁, 김란기, 우동선, 강성원, 이민원, 김연수
	문화재청	최이태, 이성희, 김태영
	시공자	김진묵, 오현민
■ 회의 결과	■ 실내 가구 배치 및 제작 방안 • 석조전 가구 배치는 원형복원되는 1층과 2층에 각 실에 고증사진 자료 및 메이플사 카탈로그 대조결과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배치토록 함. - 1층 말현실 좌·우측의 소식당은 가구배치 형태와 모양이 같으므로, 말현실 좌측 소식당만 재현하고, 우측 소식당은 용도만 안내토록 함. - 각 실별 개구부에 설치되는 가리개는 석조전 복원공간에 대한 효과적인 전시를 위하여 소량만 제작·전시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석조전에 배치되는 가구는 국립고궁박물관 및 창덕궁에 소장되어 있는 석조전 관련 소장 가구를 고증사진 및 가구 명문 등에 따라 최대한 수리하여 이전·전시토록 하고, 나머지 가구는 메이플 가구 또는 양식 및 유사한 형태의 가구를 구입·전시토록 함. - 가구 구입 등을 위하여 일본 고베 이인관, 토마스하우스와 영국 및 프랑스 등의 고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구매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석조전 관련 조명기구, 커튼, 생활용품 등을 국립고궁박물관 및 이화장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 후 확인된 유물을 이동경위 조사결과와 함께 석조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함. • 영국, 일본 등 외국 왕실의 말현 자료를 찾아서 석조전 말현실에서 근대 말현을 상상할 수 있도록 재현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함. ■ 향후 조치계획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및 사업시행.	

⑮ 15차 자문회의

[표 1-58] 15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안 건	석조전 실내 카펫 및 커튼설치 색상 검토	
■ 일 자	2013년 02월 20일 11시	
■ 장 소	덕수궁 회의실 및 석조전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김정동, 김종헌, 권기혁, 강성원, 이민원, 김선미(개별자문)
	문화재청	최이태, 이성희, 김태영
	시공자	정부형
■ 회의 결과	▪ 실내 카펫 및 커튼설치 색상 검토 석조전 카펫은 원형 재질과 문양 등의 정확한 고증이 어렵고, 전시 등 관리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고증사진에 나타난 것과 최대한 유사한 문양으로 과도하지 않게 알현실, 황제·황후침실 및 거실 등 주요공간에만 설치하도록 함. - 일반 관람객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출입구 구역에 관련시설(카펫, 발판 등)을 설치하는 방안 강구 - 대식당, 소식당, 귀빈대기실, 전시공간 등은 카펫 설치를 제외 - 석조전 복원공간 1, 2층 창호 및 개구부는 회의자료와 같이 고증사진에 나타난 커튼 문양 및 형태에 따라 제작 설치 - 커튼의 재질과 색상 등은 창덕궁 대조전 및 희정당에 설치된 커튼을 참고하여 선정 - 카펫 및 커튼의 문양 및 색상에 대하여 별도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공샘플을 제작하고, 향후 관계전문가 자문회의에 최종 선정토록 함. ▪ 김선미 교수(텍스타일 전공) 개별자문 • 석조전 내부에 설치되는 커튼과 카펫의 색상은 건립 당시의 가구 등의 색상 등과 조화를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함. - 암막커튼의 색상은 진한 보로도색(포도주색)으로 하고, 상부 바란스에는 징금수를 넣도록 함. - 커튼의 바탕에는 다마스크 패턴 무늬를 약 40㎝ 간격으로 배치토록 함. - 석조전 중앙홀의 알현실 유리문에 설치되는 자바라 커튼은 연한 황금색 계열로 제작토록 하고, 기타 유리문은 흰색을 사용토록 함. - 카펫은 밝은 보로도색을 바탕으로 하고, 문양은 고증사진에 있는 형태대로 제작하도록 함. • 커튼과 카펫은 자문결과에 따라 샘플을 제작한 후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제작·시공토록 함. ▪ 향후 조치계획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및 사업시행.	

⑯ 16차 자문회의

[표 1-59] 16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안 건	석조전 관련 고가구 수입 및 선정 방안, 욕조 및 세면기, 변기 설치 방안, 실내 카펫 및 커튼설치 제작·설치 관계전문가 자문결과 보고, 스위치 및 콘센트 설치 계획	
■ 일 자	2013년 06월 19일 11시	
■ 장 소	덕수궁 회의실 및 석조전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김정동, 김란기, 안창모, 김종헌, 권기혁, 우동선, 이민원
	문화재청	최이태, 이성희, 김태영
	시공자	정부형
■ 회의 결과	▪ 고가구 구입 방안 및 대상선정 • 수입가구는 각종 고증사진 및 카탈로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석조전 관련 가구와 가능한 동일제품을 구입·전시토록 하되, • 동일 제품을 구입할 수 없을 경우, 동시대 또는 제작 시기에 차이가 있으나, 형태 및 재료, 제작기법 등이 유사한 가구를 구매토록 함. • 영국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가구 구입대상 중 석조전 관련 가구와 형태 및 제작기법 등이 유사한 가구는 구매토록 하되, 기존 석조전 관련 고가구와 이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색상 등을 보완토록 함. - 석조전 가구 관련 고증자료와 일부 형태가 상이한 가구는 향후 영국 등 2차 가구구매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구입여부를 결정토록 함. ▪ 욕조, 세면기, 변기 설치 • 석조전 2층 황제·황후거실 전면 및 남측면 실에 화장실 및 욕실에 설치되는 욕조, 세면기, 변기는 건립 당시의 메이플사 카탈로그에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제품을 수입하여 설치토록 함. - 욕조 및 세면기는 창덕궁 대조전과 유사한 유럽형 고전스타일 형태를 구입토록 하고, 변기는 하이시스턴(high cisterns) 방식을 구입토록 함.	

구 분	내 용
■ 회의 결과	- 황제·황후실 설치되는 욕조, 세면기, 변기와 부속실에 설치되는 것은 형태 등 격을 달리하여 구입토록 함. ■ 커튼 및 카펫 설치 • 1층 알현실 및 황제침실, 거실, 귀빈대기실에 사용되는 커튼은 고증사진에 나타난 것과 같은 문양으로 제작·설치하되, 식당 및 부속실에 사용되는 커튼은 색상 등을 차별화하여 설치토록 함. - 알현실, 황후침실·거실, 대기실, 소식당 : 적자주색 다마스크패턴 톤온톤 - 황제거실 및 침실 : 황금색 다마스크패턴 톤온톤 - 커튼 상부 바란스는 흰색에 금색의 선을 새긴 아플리케로 제작 - 대식당 : 카멜레온직(에메랄드그린+황금빛) 세로방향 톤온톤 - 기타 부속실 : 카멜레온직(에메랄드그린+황금빛) 단일색상 - 내부 유리문 자바라 커튼 : 흰색 아사 - 외부 유리문 레이스 커튼 : 흰색 바젠버그레이스 • 1층 알현실 및 황제·황후침실, 거실에 설치되는 카펫은 고증사진에 나타난 문양과 같이 제작·설치토록 함. - 알현실 : 고증사진 문양, 황금색 계열 - 황제·황후거실 : 황제거실 카펫 문양, 베이지브라운 계열 - 황제·황후침실 : 대칭 고전문양, 베이지브라운 계열 - 계단 : 적자주색 단일색상, 보더장식 ■ 스위치 및 콘센트 설치 • 스위치 및 콘센트는 석조전 1, 2층 복원공간에 어울리는 유럽형 고전 스타일을 설치(스위치 55개, 콘센트 54개)토록 함. ■ 기타 사항 • 석조전 관련 각종 소모품(신발장, 문방사우, 침대장식물, 커튼부속품 등)에 대한 고증조사를 거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함. • 커튼에 나타나는 이화문양 제작 시 문양의 형태 등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함. • 향후 석조전 가구에 대한 제작 및 가구업체 기증 등 협력방안에 대하여 검토토록 함. ■ 향후 조치계획 •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및 사업시행.

⑰ 17차 자문회의

[표 1-60] 17차 자문회의

구 분		내 용
■ 안 건		석조전 관련 고가구 구입 및 일부 가구 제작 방안, 석조전 주변 화단 및 배수로 등 주변정비 방안 석조전 선홈통 누수에 따른 기둥 오염부위 처리 방안 검토 등
■ 일 자		2013년 09월 03일 11시
■ 장 소		덕수궁 회의실 및 석조전 현장
■ 참석자	자문위원	김정동, 김란기, 안창모, 김종헌, 권기혁, 우동선, 이민원
	문화재청	최이태, 이성희, 김태영.
	시공자	정부형.
■ 회의 결과		■ 석조전 관련 고가구 구입 및 일부 가구 제작 방안 • 영국 현지에서 수입된 가구를 석조전 내에 배치·전시토록 하되, 수입 가구 색상 및 패브릭 마감 등을 기존 석조전 가구와 유사하게 조정토록 함. - 석조전 내 가구 전시 시 석조전 건립 당시 사용된 가구와 해외에서 구입한 가구를 구분하여 관람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함. • 당초 계획된 수입대상 가구(92점) 중 금회 구입이 곤란한 소파 3점과 형태가 상이한 협탁 3점은 제작토록 하되, 석조전 내 기존 가구와 재료 및 제작기법 등이 동일하게 하고, 형태는 기존 가구 및 메이플사 카탈로그 등에 맞추도록 함. • 석조전 관련 생활소품(의상, 수건걸이, 화장지 등) 및 거울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내부에 전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석조전 주변 카프포장 등에 따라 지반높이가 건립 당시의 원 지반보다 약 10~15㎝ 정도 높아져, 석조전 좌우측 계단이 지반에 묻혀 있으므로 당초 지반높이를 확인하여 정비토록 함. • 석조전 배면의 배수로의 높이가 낮고, 주변에 매설된 우수관의 관경이 작아 우수 시 빗물이 역류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석조전 주변의 우수관을 정비토록 함. - 석조전 배면 및 석조전 미술관 전면에 매설된 기존 배수관(오지토관)은 보존토록 함. • 석조전 전면 화단은 주목 등을 보식하여 채광 및 환풍 등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좌측 전면에 있는 단자함은 이설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함. • 2층 발코니의 선홈통 연결부위 누수로 인하여 석조전 외부 기둥에 녹물 오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선홈통 정비 및 오염 녹물을 제거토록 함. ■ 향후 조치계획 •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및 사업시행

4. 공사관계자

1) 자문, 행정, 설계, 시공, 보고서 관계자

① 자문위원

[표 1-61] 자문위원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급
설계 자문	김정동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목원대학교 교수, 근대건축연구
	김란기	도코모모 코리아 연구위원, 근대건축연구
	김종헌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배재대학교 교수, 근대건축연구
	이민원	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 대한제국기 연구
	강성원	강희재건축사사무소, 근대건축연구
	이혜원	대한제국 황실사 연구
시공자문	최기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서울시립대 교수, 전통조경
	김정동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목원대학교 교수, 근대건축연구
	김란기	한국역사문화정책연구원장, 근대건축연구
	권기혁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건축구조
	안창모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경기대학교 교수, 근대건축연구
	김종헌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배재대학교 교수, 근대건축연구
	우동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근대건축연구
	최병하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건축물 보존 · 수리
	이민원	전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위원, 대한제국기 연구
	강성원	강희재건축사사무소, 근대건축연구
	김연수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장
	김선미	건국대학교 교수, 텍스타일전공

② 문화재청

[표 1-62] 문화재청 관계자

구 분			현 임 자	전 임 자
• 청장			나선화	이건무, 최광식, 김찬, 변영섭
• 차장			김종진	이성원, 송인범, 김 찬
• 국장			김원기	서영애, 엄승용, 박영근
• 궁능관리과	과장		나명하	최병선, 김원기, 최이태, 정영훈
	설계 용역	담당	이재서(시설사무관)	김지성
		감독	최길섭(시설주사)	-
	보수 복원 공사	담당	이성희(시설사무관)	이재서(시설사무관)
		감독	장승호(시설주사)	최길섭(시설주사)/ 고정주(시설주사)/ 김태영(시설주사)

③ 보수 · 복원설계

[표 1-63] 보수 · 복원설계 관계자

구 분	성 명
• (주)종합건축사사무소다담	
• 대표이사	박태연
• 설계	전순봉, 오정규, 김맹희, 조건희, 정민경, 이정행

④ 시공

[표 1-64] 시공 관계자

구 분	현 임 자	전 임 자
• 선혜종합건설㈜		
• 대표이사	성순연	
• 현장대리인	정부형(보수기술자 1224호)	김진묵(보수기술자 1056호)
• 공무	안승엽	
• 작업 반장	전두혁	

⑤ 준공수리보고서

[표 1-65] 준공수리보고서 관계자

구 분	성 명
• (주)아름터 건축사사무소	
• 대표이사	김석순(건축사/ 실측·설계기술자 367호)
• 실측 및 도면 작성	김석순, 진의학(실측·설계기능자 5196호), 이상은(실측·설계기능자 4829호), 박창범(실측·설계기능자 5565호), 이지영(실측·설계기능자 5568호), 소병준(실측·설계기능자 5947호), 장우길(실측·설계기능자 6050호), 박상준(실측·설계기능자 6045호), 이한율(실측·설계기능자 7264호), 김영현(실측·설계기능자 7266호)
• 사진 촬영	김석순, 김경자, 김진묵, 정부형
• 원고 작성	1장 : 수리개요(김석순) 2장 : 실측조사(김석순) 3장 : 수리공사(김석순)
• 편집 및 교정	편집 : 김석순 교정 : 김영현

2) 각 공종별 관계자

[표 1-66] 기타 공종별 관계자

구 분	공종별 관계자
• 가설공사	선유플러스 이인호, 민병생, 문광섭, 다인 조준제
• 조적공사	금산적벽돌 기현오, 박태언, 무산조형 윤형진
• 수장목공사	가원종합인테리어 김진호
• 몰딩공사	한국지앤지 진재욱, 조창식
• 마루공사	아큐펌 김성근, 김병규
• 오크벽공사	반하우스 송만영, 김성규, 조성운
• 방수공사	우리건축 김두현
• 동판공사	경진공사 김병재
• 미장공사	현건설 현재순
• 철재창호공사	대진창호 최지성, 가원종합인테리어 김진호
• 목재창호공사	유림목재 고성욱
• 창호철물	헤펠레코리아 주재식
• 유리공사	가원종합인테리어 김진호
• 도장공사	승산도장
• 금박공사	서천불교 이종국
• 대리석공사	천흥륭석재 송영수

구 분	공종별 관계자
• 굴뚝공사	하나석재 박태연, 도정린
• 벽난로공사	예진석재 장응준, 팍슨 박성규
• 난간공사	반하우스 송만영, 김성규, 조성운
• 커튼공사	한복기술진흥원 박현주, 이석주, 홍은주, 이순임(자수), 박홍석(디자인)
• 욕실용품, 방열기	아큐펌 김성근
• 철거공사	마포건설 박재권
• 구조보강공사	나건특수건설 나윤식
• 옥상조형장식물	무산조형 윤형진
• 외벽세척 및 석재보존처리	잡스 전찬민
• 전동블라인드	세명차양시스템 박영남
• 마루코팅	보나마루 노선호
• 경화마사토포장	FC 코리아랜드 성세경
• 장식물제작설치	이유금속 이지수
• 카펫제작설치	카루라카펫 김영훈, 심계은(디자인)
• 등기구제작설치	크레아룩스 김재광
• 정밀안전진단	한국건설안전기술원 오강호(구조기술사)
• 재료분석	배재대학교 김택남
• 가구구입	더로프트 김혜정
• 가구수리	키아드랩 가람 김성수, 김영기, 송만영, 전문철, 김진우, 이봉주, 김태연
• 가구제작	키아드랩 가람 김성수, 김영기, 송만영
• 복원공사중간자료집	강희재건축사사무소 강성원

제 2 장

실측 조사

제 2 장

실측 조사

석조전 실측 조사는 애초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그런데 벽 미장을 해체하고 난 후 옛 벽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많이 나와 자문회의에서 실측 필요성이 인정되어 수리보고서 작성자인 ㈜아름터건축사사무소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문화재 실측은 원형보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목적이 있다. 석조전 역시 내벽의 구성과 옛 흔적을 찾아내어 기록하고 원형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상세실측을 했다.

1. 덕수궁 석조전 실측조사 개요

1) 실측조사 개요

• **실측 배경 :** 석조전 보수·복원 공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석조전 내부에 있는 전시 시설물을 철거하였다. 전시물을 철거한 결과 미장으로 마감된 벽 전체가 노출되었다. 근대건축물인 덕수궁 중명전을 수리하면서 원래 벽체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 벽의 미장만을 긁어내 확인한 경험이 있어, 석조전도 마찬가지로 벽의 미장을 일부 긁어내 보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벽 하부 바닥에서부터 약 50㎝ 높이까지만 미장을 긁어내 보기로 하였다. 벽 하부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 벽 전체를 긁어내지 않아도 문이나 벽체 연결 흔적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었다. 미장을 긁어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알려져 있던 석조전의 평면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벽체 안에 사용하지 않고 막혀 있는 출입구 흔적과 벽체가 없어진 부분, 건축용으로 쓰인 받침석 등이 나왔다.

이에 석조전 평면 등의 변화과정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미장 전체를 해체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자문회의(2차) 안건으로 상정해서 벽 마감 미장을 해체하게 되었다. 해체 결과 벽 하부만 미장을 긁어서 확인한 것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애초 석조전의 평면구성과 출입구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석조전의 평면과 다른 요소가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보수·복원 공사의 고증 자료가 된 옛 사진(이하 고증사진)을 촬영한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는데 벽체 미장 해체 후 상당부분 알 수 있었다. 이에 좀 더 상세한 실측을 해서 기록을 남기고 이번 공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실측은 외부입면 관련 실측을 제외한 석조전 평면에 대한 상세실측과 벽 구성내용 실측 위주로 진행되었다. 실측은 2009년 12월 시작하여 2010년 약 5월까지 이루어졌다. 실측을 통해 석조전의 정확한 평면구성과 내벽 입면 구성을 알 수 있었고 더불어 벽두께와 사용된 벽돌의 규격과 철물, 미장종류, 몰탈 종류, 벽난로 위치와 구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측 결과는 도면으로 작성되었고 이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 **실측 방법** : 실측 수준은 정밀실측은 아니고 기본실측보다 좀 더 상세한 실측 수준이었다. 준정밀실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본실측보다는 정밀하게 하되 정밀실측보다는 요소를 줄인 실측이다. 실측은 물리적 형태조사 위주로 진행되었다. 석조전의 평면과 내벽 전개를 실측조사 하였고 동시에 사진촬영을 하였다. 석조전 실측은 보수공사를 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외형만을 정밀실측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실측하였다.

- 현장조사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항시 주변상황을 살펴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한다.
- 실측을 하면서 해당 문화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철저한 실측조사와 분석을 통해 원형을 도출해 낸다.
- 애초의 법식 연구 및 보존을 위해 모든 형상을 있는 그대로 조사한다.
- 조사 시 발견되는 모든 항목은 빠짐없이 기록한다.
- 실측값은 미터법을 준수하고 측정범위는 일단위까지의 ㎜ 단위로 한다.
- 실측 야장 작성은 실측에 참여하지 않은 3자가 보아도 확인과 점검이 가능하도록 실측항목, 실측위치, 좌표, 작성자, 기록자를 빠짐없이 기록한다.
- 벽돌의 쌓기방법과 규격, 몰탈의 종류 등을 조사하였고, 벽돌벽의 보수흔적, 이음흔적 등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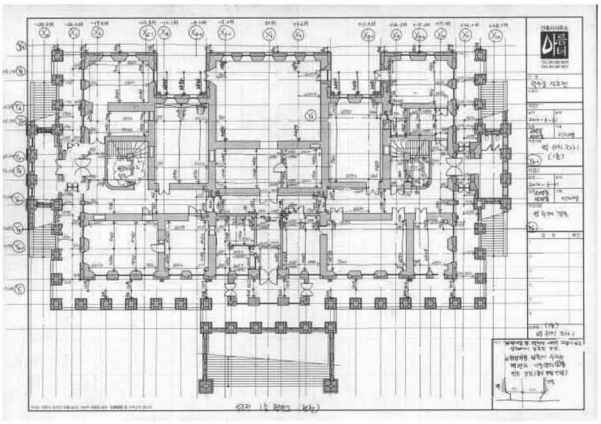
• **실측 도구** : 주된 실측도구는 레이저레벨기, 트랜시트, 줄자, 레이저거리측정기, 실 등이다. 줄자는 헝겊 줄자와 철제 줄자가 있는데 헝겊 재질 줄자는 실측 오차가 많으므로 여기서는 법랑 입힌 철제 줄자를 사용하였고 같은 회사 제품으로 사용하였다. 줄자는 실측자마다 휴대용으로 항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7.5m짜리를 사용하고 긴 거리는 50m 줄자를 사용하였다.

• **사진 촬영** : 사진은 그 자체가 자료로써 실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사진 촬영은 매우 실질적이어야 한다. 여기서는 사진촬영 목적을 작업용과 기록용으로 구분하고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여 촬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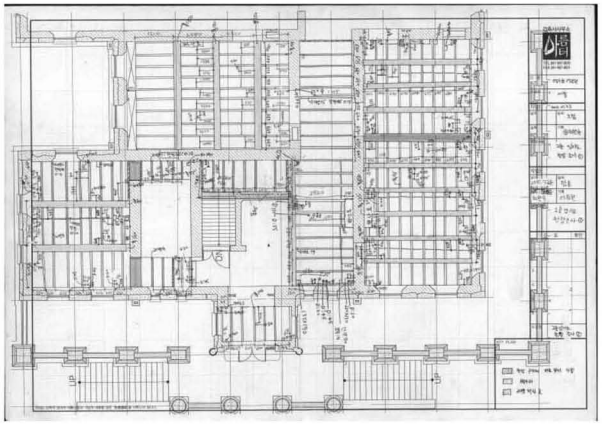
기록용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캐논 EOS 5D(28~105㎜, 17~40㎜) 카메라를 사용하였고 사진 촬영 순서는 촬영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순서를 정하고 순서마다 원경, 전경, 근경, 상세의 순서로 촬영하여 단순 작업으로 인한 누락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작업용 사진은 설계도서 작성 시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디지털 캐논 EOS 50D를 사용하여 원경, 전경, 근경, 상세의 순서로 촬영하여 작업에 활용하였다.

[사진 2-1] 실측조사

[사진 2-2] 실측기준선



[그림 2-1] 실측 야장



[그림 2-2] 실측 야장

2. 석조전 평면 조사

1) 평면 개요

• **평면 변화 확인 :** 실측조사 결과 석조전의 2009년 현재 평면은 그 이전 평면과 다르고 변화가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벽 미장 마감이 해체된 이후 실측조사 된 결과를 보면 어느 시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평면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내벽 일부가 없어진 흔적이 나왔고 출입구가 막힌 흔적도 나왔다. 또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벽난로와 그 흔적도 나왔다. 이들 흔적은 애초 석조전 평면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석조전은 건립 후 용도가 변경되면서 [표 2-1]과 같이 내부 변경이 많든 적든 최소 3번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흔적들이 이번 공사에서 벽 미장을 해체하면서 노출된 것이다.

[표 2-1] 석조전 용도 주요 변경 내용

시기	평면 변경 여부	용도 변경 내용
1933	변경	석조전미술관으로 전용
1938	변경 가능	서관 완공에 맞춰 근대일본미술진열관으로 변화
1953	변경 가능	국립미술관
1955	변경	625당시 훼손 보수 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활용
1973	변경 가능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사용
1984	변경 가능	왕궁전시관으로 사용
1987	변경	궁중유물전시관으로 내부평면 변경 및 설비요소 첨가
1992	-	궁중유물전시관으로 개관

• **평면 변화 근거** : 평면 변화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근거는 조적벽 해체 흔적과 출입구 폐쇄 흔적, 벽의 조적 쌓기 방법 차이와 벽돌 종류의 차이, 접착 몰탈 종류 차이, 벽난로의 확인 등이었다.

석조전은 내력벽이 적벽돌로 된 조적조 건물이다. 외부가 석재로 마감되어 있을 뿐이다. 조적조는 기본적으로 막힌줄눈으로 쌓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 통줄눈이 생기면 그것은 시간차를 두고 조적했다는 의미이다. 시간차를 둔 것은 건설 당시에 설계내용이 변경되어 개구부를 막았거나, 건설 후에 어떤 이유로 부분적 해체 후에 다시 쌓았거나 아니면 개구부 등을 막았다는 의미가 된다. 즉, 평면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의미이다. 이 상황을 잘 분석하면 애초 원형에 가깝게 평면을 추정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주된 근거는 접착 몰탈 종류의 차이이다. 실측조사에 의하면 석조전에 사용된 몰탈은 회몰탈, 황토몰탈, 시멘트몰탈이었다. 시멘트몰탈은 비교적 나중 것이기 때문에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 회몰탈과 황토몰탈은 처

음에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자세히 살펴본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 몰탈에 왜 차이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추정한다면, 첫째는 10년이라는 긴 공사기간 때문에 재료 공급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다. 즉 한 가지 재료로만 사용하기 어렵다 보니 다른 재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다. 둘째는 처음에는 한 가지 재료만 사용했지만 건설 이후 어떤 이유로 변경되면서 같은 재료를 사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다. 왜냐하면 몰탈 사용에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잘 분석하면 애초 원형에 가깝게 평면을 추정할 수 있다.

미장 마감을 해체하고 나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벽난로와 그 흔적의 발견이었다. 각 층마다 11개소씩 벽난로와 그 흔적을 발견하였다. 벽난로는 원래 벽에서 돌출되어 있었는데 돌출된 부분을 전부 철거해서 벽면과 같은 면이 되어 있었다. 하부는 철거되어 있었지만 상부는 돌출된 부분도 있었다. 돌출된 벽난로 부분을 철거하다 보니 옹기로 된 연도가 그대로 나온 것도 있었다. 흥미로운 흔적이었다. 천장에 연도가 연결된 흔적이 나온 것도 있었다. 벽난로와 그 흔적이 나옴으로써 평면 변경내용을 재차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2) 지층 평면

① 지층 서남1실(고종의 근대적 개혁 전시, 구 관리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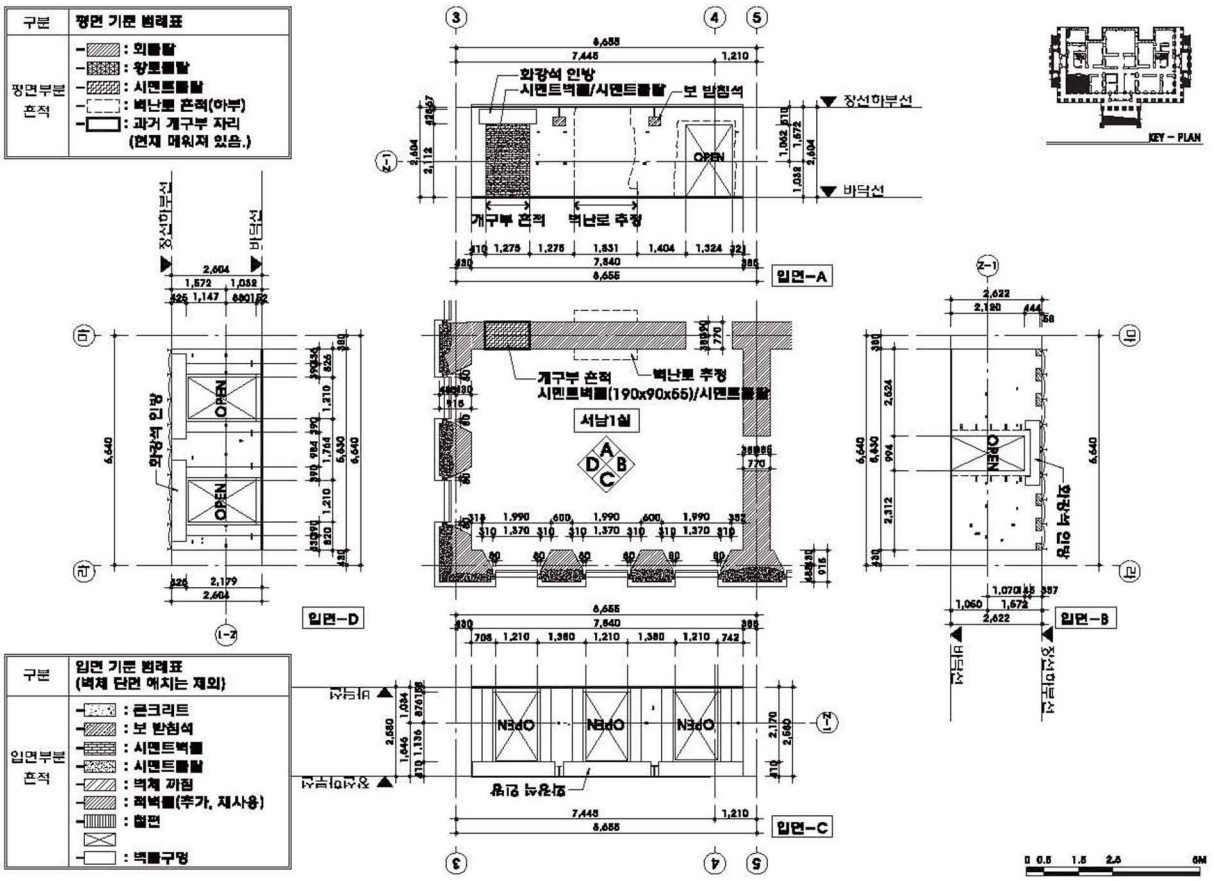
서남1실은 지층 남서쪽 모서리에 있는 방이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7,84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5,830㎜이다. 북쪽 벽에는 개량형 시멘트벽돌(190×190×55㎜)로 쌓아 채워진, 폭 1,275㎜의 개구부 흔적이 있다. 이 개구부 상부에는 화강석으로 된 인방석이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과거에 개구부였던 것을 폐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개구부 우측에는 벽난로 흔적이 있다. 돌출된 부분을 철거하다 보니 벽돌이 불규칙하게 깨진 흔적이 보인다. 이 부분 상부에 있는 아치형철판 콘크리트 슬라브에는 철판을 이은 흔적이 있다. 구멍이 있었던 것을 철판으로 이어 덧붙인 흔적이다. 즉, 과거에는 이 부분에 벽난로가 있었는데 벽난로를 철거하면서 구멍을 메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벽난로가 있는 벽 반대편 복도 쪽에도 벽난로 흔적이 있다. 즉, 벽을 사이에 두고 앞뒤로 벽난로가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남1실에서는 과거에 있던 개구부가 폐쇄되어 있었고 벽난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외 특별한 흔적은 없다.

[사진 2-3] 지층 서남1실 동쪽 벽

[사진 2-4] 지층 서남1실 서쪽 벽

[사진 2-5] 지층 서남1실 남쪽 벽

[사진 2-6] 지층 서남1실 북쪽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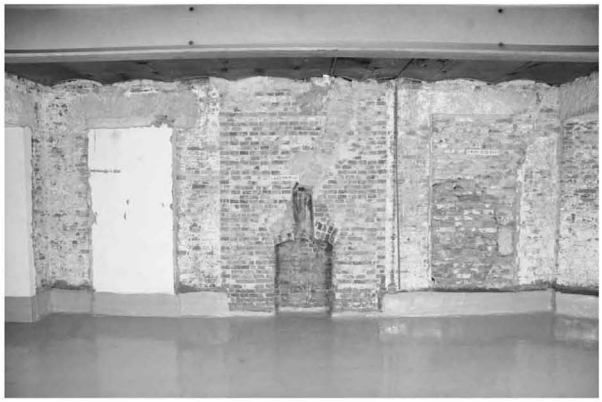
[도면 2-1] 지층 서남1실 내부 입면 전개도

② 지층 서남2실(석조전 복원기 전시, 구 관리과장실)

서남2실은 지층 서남1실 동쪽으로 면한 방이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4,645㎜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5,830㎜이다. 북쪽 벽과 남쪽 벽은 변화과정이 없었고 동쪽 벽과 서쪽 벽은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쪽 벽에는 좌측과 우측으로 과거에 있던 개구부를 적벽돌로 막은 흔적이 나왔다. 서남1실은 시멘트벽돌로 막았지만 여기는 적벽돌로 막혀 있었다. 폭은 각각 1,065㎜이다. 이 개구부 상부에는 화강석으로 된 인방석이 있었다. 개구부 사이에는 벽난로가 나왔다. 돌출된 부분을 벽면에 맞춰 철거한 흔적이 보인다. 벽난로는 폭 650㎜, 높이 1,070㎜ 정도 되고 그 위로는 폭 230㎜ 정도 되는 사각형 모양의 오지관으로 된 연도가 꺾여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연도 상부는 시멘트벽돌로 메워 있었다. 벽난로 상부는 벽돌아치로 되어 있고 난로 자체는 벽면에서 약 200㎜ 정도 들어가 있다.

서쪽 벽은 상부 좌·우측에 적벽돌로 메운 흔적이 확인되었다. 설비 배관 등을 위해 뚫었던 것을 메운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서남2실은 개구부가 폐쇄된 상태로 나왔고 벽난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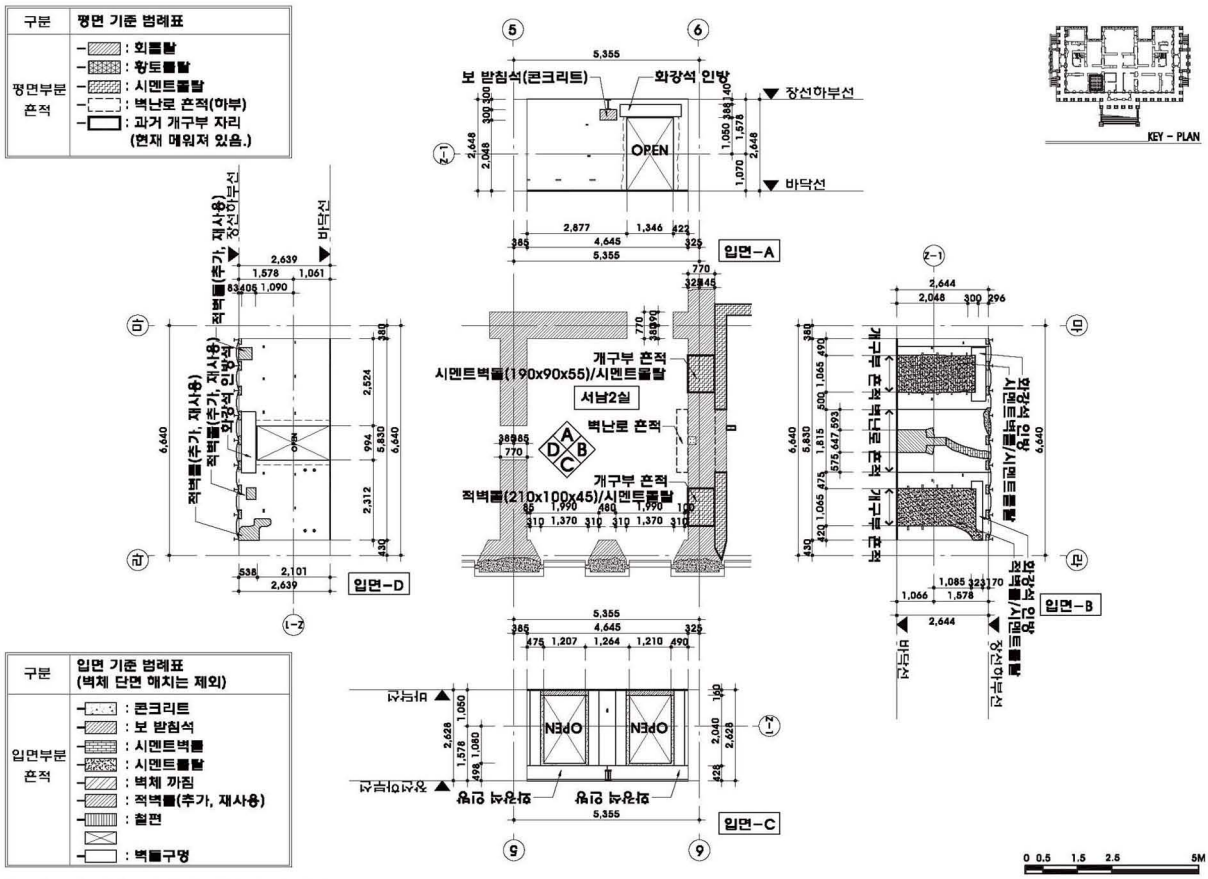


[사진 2-7] 지층 서남2실 동쪽 벽

[사진 2-8] 지층 서남2실 서쪽 벽

[사진 2-9] 지층 서남2실 남쪽 벽

[사진 2-10] 지층 서남2실 북쪽 벽



[도면 2-2] 지층 서남2실 내부 입면 전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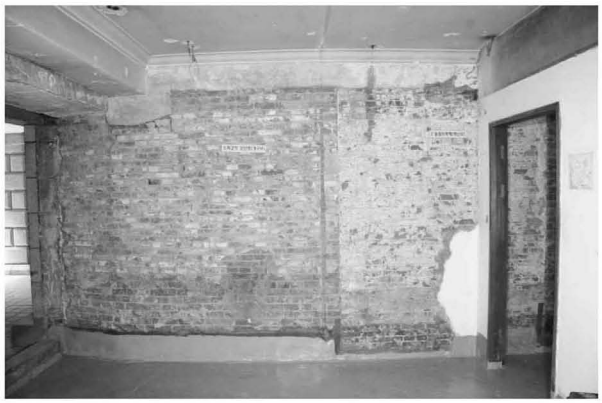
③ 지층 서남3실, 4실(구 안내실)과 동남3실(구 전시과장실)

서남3실, 4실과 동남3실은 지층 남쪽 중앙에 있는 부분으로 출입구와 통로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11,38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5,830㎜이다. 이 안에 서남3실, 4실과 동남3실, 통로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분 칸막이벽은 모두 시멘트벽돌로 되어 있고 옛 도면과 평면내용도 다르다. 칸막이벽은 중앙통로 쪽(동서방향)은 1.5B, 출입구 쪽(남북방향)은 1.0B, 서남3실, 4실 칸막이벽은 0.5B로 조적되었다. 용도변경 때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동남3실 동쪽 벽에서 벽난로가 나왔다. 이 벽난로는 동남3실 동쪽에 면한 동남2실과 연결되어 있는데 연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벽난로 폭은 650㎜이다. 이 벽난로 또한 돌출되어 있다. 서남1실이나 서남2실은 돌출된 부분을 철거하였는데 여기서는 돌출된 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오히려 나머지 부분에 1.5B로 덧붙여 적벽돌을 추가로 쌓았다. 그러다 보니 동남2실에서 보이는 출입구 흔적이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 벽 좌측에 있는 출입구는 폭이 1,163㎜로 벽면에 깨진 흔적이 보이고 있다.

서남3실, 4실 서쪽 벽도 동쪽 벽과 동일한 구성을 하고 있다. 벽난로와 추가로 덧붙여 쌓은 벽, 막힌 개구부 등이 같다. 이 벽에서도 벽난로가 나왔다. 다만 마감의 철거 정도가 동쪽면에 비해 약해, 한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벽난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벽난로 또한 돌출되어 있는데 동쪽 벽과 같이 돌출된 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덧붙여 1.5B로 적벽돌을 추가로 쌓았다. 서남2실과 연결된 출입구 부분은 서로 연결된 흔적이 보이고 있다.

나머지 벽면은 시멘트벽돌로 조적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서남3실, 4실과 동남3실에서는 과거에 있던 개구부가 폐쇄되어 있었고 벽난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외 특별한 흔적은 없다.



[사진 2-11] 지층 서남3실, 4실 서쪽 벽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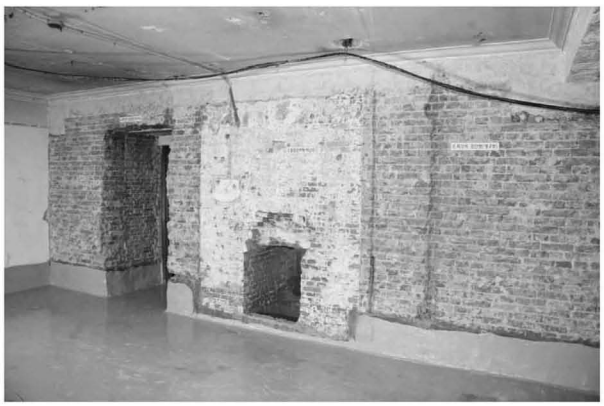
[사진 2-12] 지층 서남3실, 4실 서쪽 벽 2

[사진 2-13] 지층 서남3실, 4실 남쪽 벽

[사진 2-14] 지층 서남3실, 4실 중간 칸막이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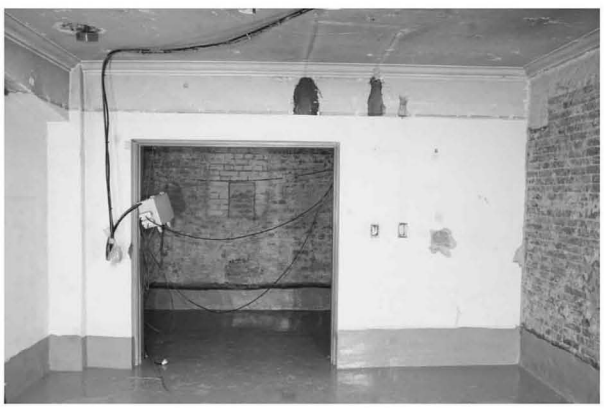
[사진 2-15] 지층 서남3실, 4실 동쪽 칸막이벽

[사진 2-16] 지층 서남3실, 4실 북쪽 칸막이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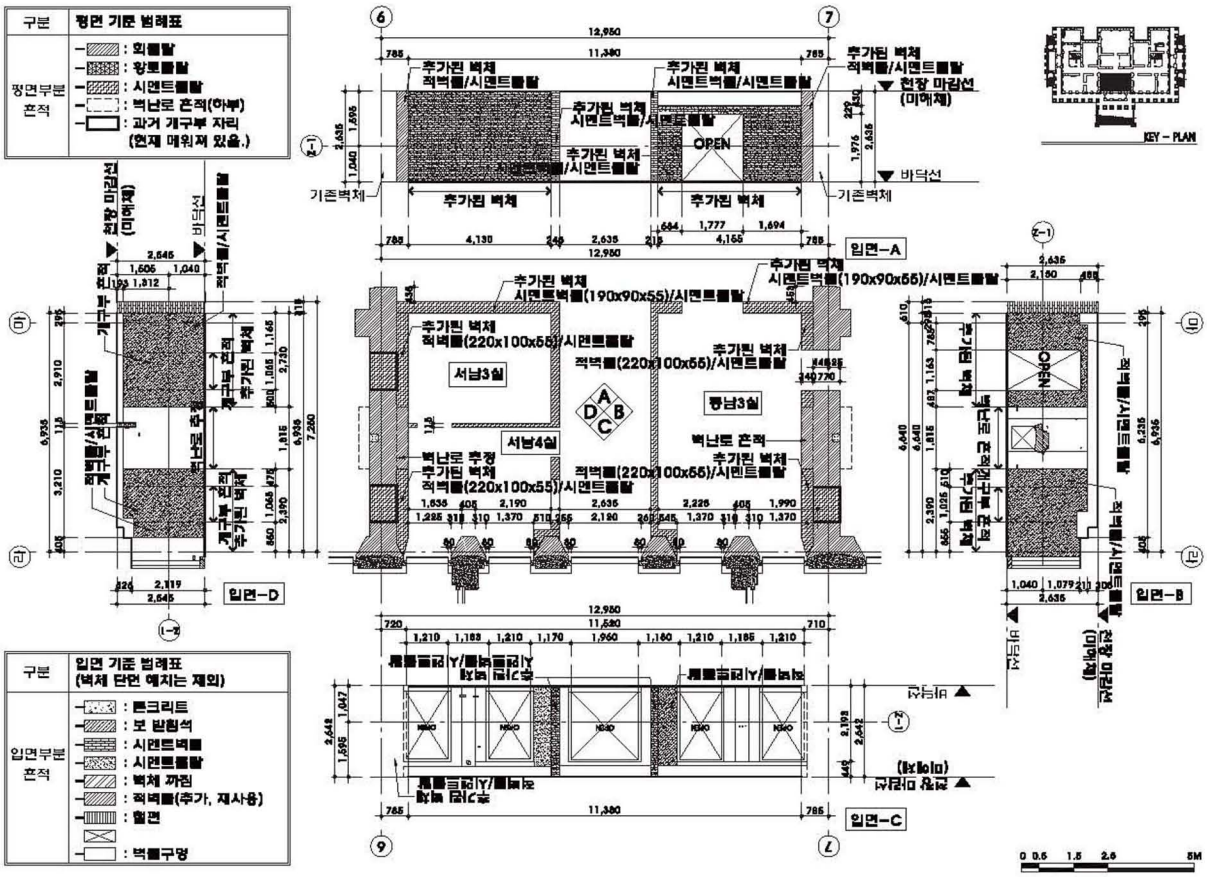
[사진 2-17] 지층 동남3실 동쪽 벽

[사진 2-18] 지층 동남3실 서쪽 벽



[사진 2-19] 지층 동남3실 북쪽 벽

[사진 2-20] 지층 동남3실 남쪽 벽



[도면 2-3] 지층 서남3,4실 및 동남3실 내부 입면 전개도

④ 지층 동남2실(구 전시과)

동남2실은 지층 동남3실 동쪽에 면한 방이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8,535㎜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5,830㎜이다. 남쪽 벽은 특이한 흔적이 없고 북쪽 벽도 설비용 배관이 조적벽에 묻혀 있는 것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다. 동쪽 벽에는 적벽돌과 시멘트벽돌로 단을 두고 쌓아 막은 폭 1,040㎜의 개구부 흔적이 있다. 이 개구부 상부에도 화강석으로 된 인방석이 있다. 이 벽엔 벽난로 흔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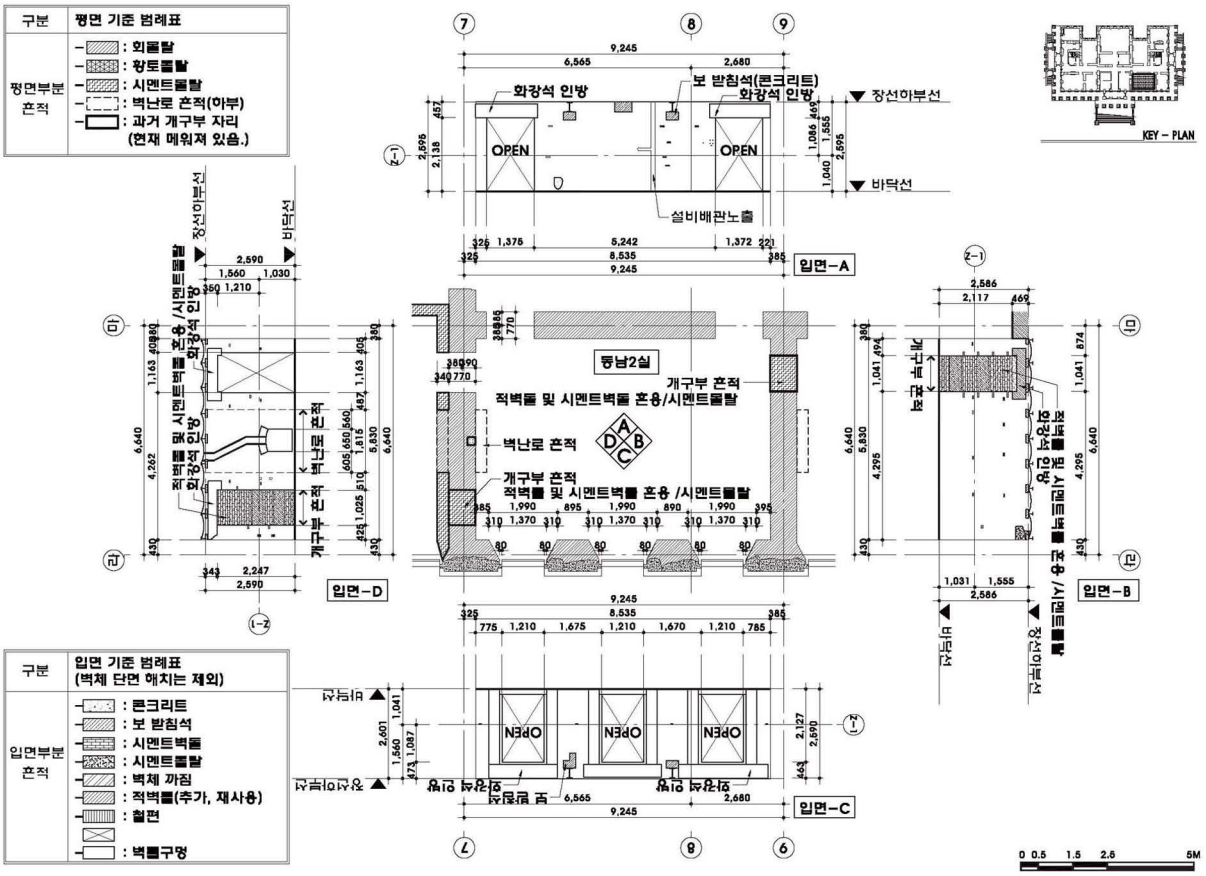
서쪽 벽에는 동남3실과 통하는 개구부가 있고 중앙에는 벽난로가 있다. 벽난로는 돌출된 부분을 철거하여 벽면이 요철 없이 매끄럽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벽돌이 불규칙하게 깨진 흔적이 보인다. 이 벽난로는 폭 650㎜, 높이 1,070㎜ 정도 되고 그 위로는 폭 230㎜ 정도 되는 사각형 모양의 오지관으로 된 연도가 꺾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벽난로 좌측에는 폭 1,025㎜되는 막힌 개구부가 있다. 이 개구부도 동쪽 벽과 마찬가지로 적벽돌과 시멘트벽돌로 단을 두고 조적하여 막았다. 이 개구부 상단에도 화강석으로 된 인방석이 있다. 결론적으로 동남2실에서도 막힌 개구부와 벽난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2-21] 지층 동남2실 동쪽 벽

[사진 2-22] 지층 동남2실 서쪽 벽

[사진 2-23] 지층 동남2실 남쪽 벽

[사진 2-24] 지층 동남2실 북쪽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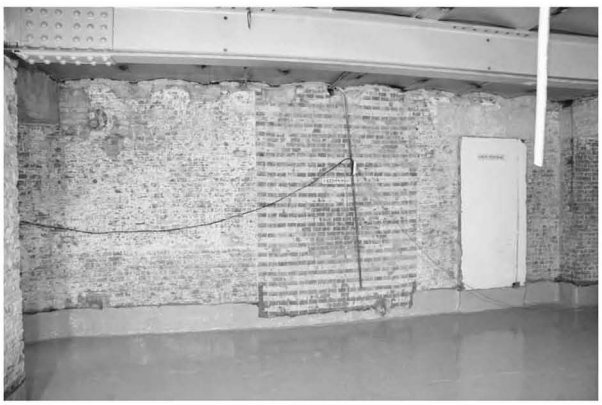
[도면 2-4] 지층 동남2실 내부 입면 전개도

⑤ 지층 동남1실(구 전산실)

동남1실은 지층 남동쪽 모서리에 있는 방이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3,95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5,770㎜이다. 동쪽 벽과 북쪽 벽은 특이사항은 없다. 남쪽 벽은 중간 벽에 적벽돌로 보강하여 쌓은 부분이 있다. 중간 벽이 너무 적어 보강한 것인데 시멘트몰탈을 사용하였다.

서쪽 벽에서는 개구부 흔적이 나왔고 돌출된 벽 흔적이 나왔다. 개구부는 폭 1,040㎜로 동남2실과 연결하는 개구부이다. 적벽돌에 시멘트몰탈을 사용하여 조적하였다. 상부에는 화강석 인방이 있다. 이 개구부 좌측에는 돌출된 벽 흔적이 나왔다. 폭은 약 1,815㎜이다. 이 벽면에는 벽돌이 불규칙하게 깨진 흔적이 보인다. 그런데 벽난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연도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벽난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돌출된 벽에서는 모두 벽난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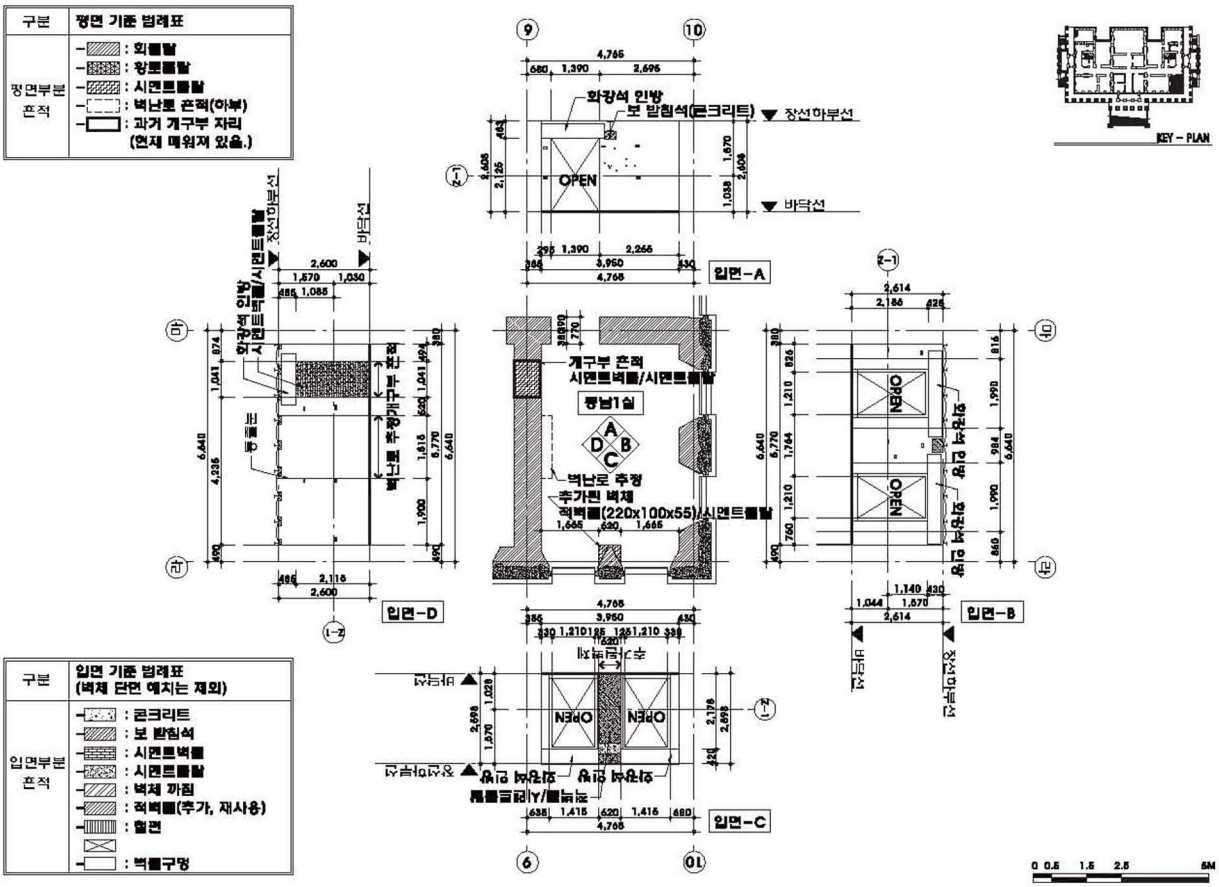
[사진 2-25] 지층 동남1실 동쪽 벽



[사진 2-26] 지층 동남1실 서쪽 벽

[사진 2-27] 지층 동남1실 남쪽 벽

[사진 2-28] 지층 동남1실 북쪽 벽



[도면 2-5] 지층 동남1실 내부 입면 전개도

⑥ 지층 서북1실(구 공조실 1)

서북1실은 지층 북서쪽 모서리에 있는 방이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6,57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4,765㎜이다. 동쪽 벽과 서쪽 벽 그리고 북쪽 벽은 특이사항은 없다. 동쪽과 서쪽에는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다. 서쪽 출입구에는 3단으로 된 계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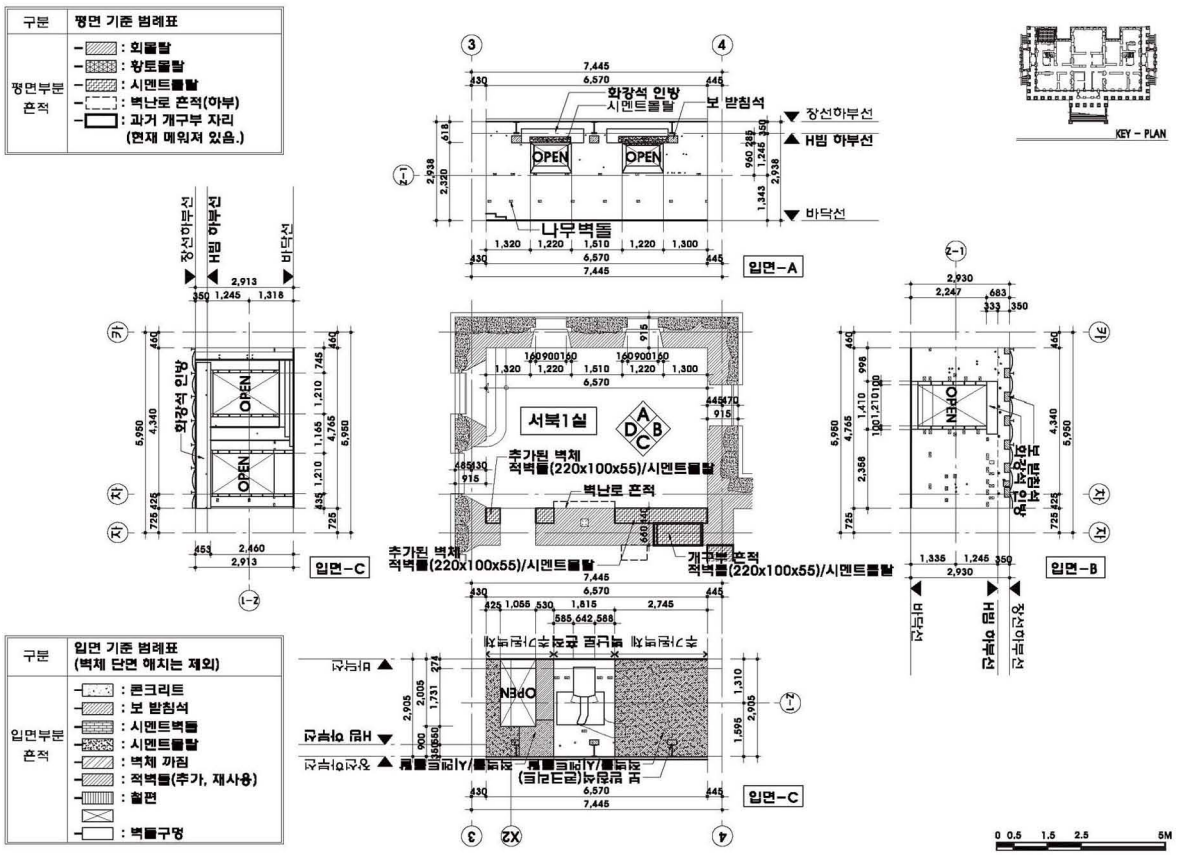
남쪽 벽은 흥미롭다. 우측으로 개구부가 있고 중앙부는 벽난로가 있다. 벽난로는 원래 돌출된 벽으로 되어 있는데 돌출되지 않은 나머지 벽에 1.5B 정도 적벽돌로 덧붙여 추가로 쌓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 벽을 쌓으면서 시멘트몰탈을 사용하였다. 벽을 요철 없이 만들기 위함이었다. 벽난로는 완벽한 상태로 노출되었는데 폭 640㎜이고 높이는 약 830㎜이고 난로 위에는 꺾인 연도가 있다. 벽난로 우측으로 개구부가 있다. 이 개구부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벽을 추가로 덧붙여 쌓다보니 상부에 인방이 없다. 다만 원래 벽 개구부 상부에는 화강석으로 된 인방석이 있다. 좌측으로도 개구부가 있는데 벽이 덧대어 있어 서북1실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사진 2-29] 지층 서북1실 동쪽 벽

[사진 2-30] 지층 서북1실 서쪽 벽

[사진 2-31] 지층 서북1실 남쪽 벽

[사진 2-32] 지층 서북1실 북쪽 벽



[도면 2-6] 지층 서북1실 내부 입면 전개도

⑦ 지층 서북2실(구 공조실 2)

서북2실은 서북1실 남쪽에 면한 실이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6,57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2,480㎜이다. 일종의 전실과 같은 위치이다.

동쪽 벽에는 개구부 흔적이 있다. 폭이 1,390㎜로써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거칠게 쌓았는데 상부에 인방석이 보이지 않았다. 건설 당시에 있던 개구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측 상부 벽에 구멍이 뚫려 있다. 아마도 설비 배관용 구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쪽 벽 우측에는 폭이 1,645㎜인 비교적 폭이 큰 개구부가 있다. 상부에 인방석이 있다. 통상 인방석은 벽에 상당 부분 물려 있는데 여기서는 벽에 약간 물려 있는 상태이다. 원래는 벽에 많이 물려 있었는데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벽 철거로 인해 벽돌들이 깨진 흔적이 보인다. 벽 중간쯤에는 벽이 철거된 흔적이 보인다. 폭이 760㎜ 정도 된다. 원래 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벽 좌측 상부에도 인방석이 보인다. 인방석으로 볼 때 애초 개구부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나무벽돌이다. 개구부가 있는 부분에는 나무벽돌이 개구부 모서리에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된 것이 이 건물 특징 중의 하나인데 여기서도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다만 통줄눈으로 조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애초 시공 시에는 개구부를 둘 생각이었으나 계획이 변경되면서 잔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부분 상부에는 뚫린 구멍을 적벽돌로 메운 흔적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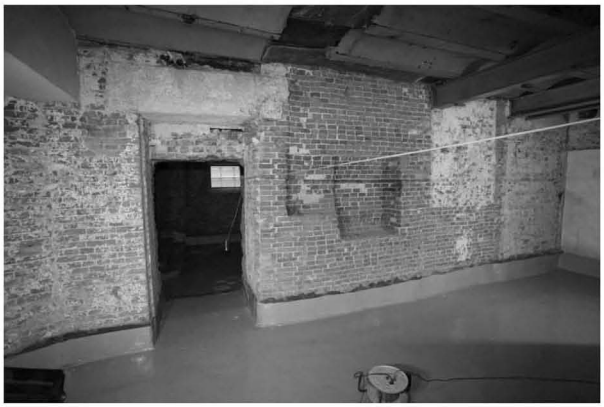
북쪽벽 좌측에는 원래 있던 개구부가 있고 상단에는 인방석이 있다. 이 벽 중간에 흥미로운 알코브(alcove)가 있다. 알코브의 생긴 모양이나 위치로 볼 때 벽난로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닥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약 1m 높이에서부터 생겼고 모양도 'ㄱ' 형태여서 벽난로로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우측으로는 폭 760㎜ 정도 되는 벽이 철거된 흔적이 보인다. 이 흔적은 남쪽 벽에 있는 벽 흔적과 같은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남쪽과 북쪽이 서로 연결되는 벽이 있었던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우측으로는 개구부 흔적이 있다. 폭이 1,288㎜ 정도 되는데 적벽돌로 쌓았고 시멘트몰탈을 사용하였다. 통줄눈이 보이고 크기가 다른 적벽돌을 사용하였다. 이 부분에도 나무벽돌이 있고 상부에 화강석 인방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애초에 개구부였던 것을 폐쇄한 것으로 보인다. 남쪽 벽의 같은 부분에서도 개구부 흔적이 있었던 것과 그 좌측에 철거된 벽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벽을 두고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애초부터 시공이 되었는지 아니면 시공 과정에서 변화가 생긴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추정할 뿐이다.

서북2실은 개구부 흔적과 벽 철거 흔적 등으로 볼 때 과거 공간구성과 동선에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서쪽 벽은 특이사항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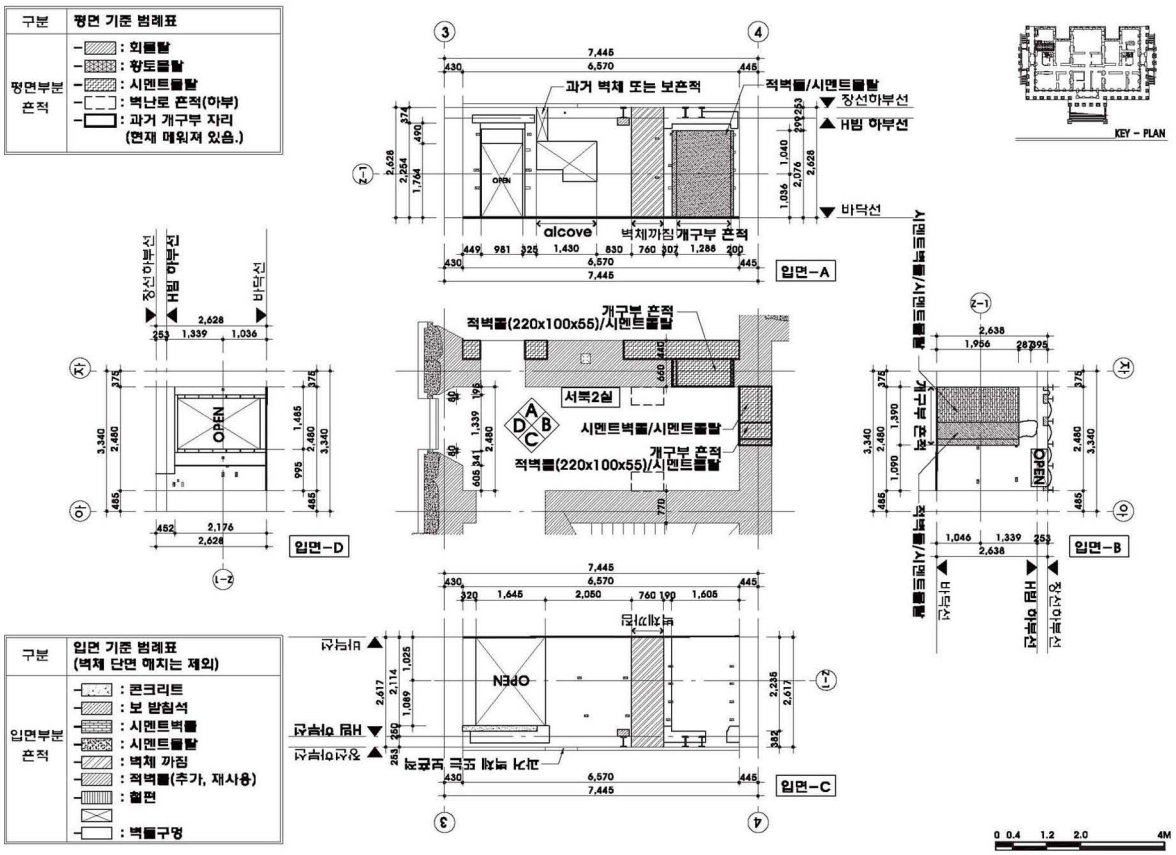
[사진 2-33] 지층 서북2실 동쪽 벽

[사진 2-34] 지층 서북2실 서쪽 벽

[사진 2-35] 지층 서북2실 남쪽 벽



[사진 2-36] 지층 서북2실 북쪽 벽



[도면 2-7] 지층 서북2실 내부 입면 전개도

⑧ 지층 계단실1

계단실1은 서쪽에 있는 계단이다. 창고와 계단이 같이 있다. 계단실로만 볼 때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4,375㎜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5,310㎜이다. 계단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오르는 돌음계단이다.

동쪽 벽에는 2개소의 흔적이 있다. 하나는 개구부 흔적이고 또 하나는 벽난로로 추정되는 흔적이다. 폭 980㎜ 정도 되는 개구부는 좌측에 있는데 상부에 화강석으로 된 인방석이 있고 개구부 부분은 통줄눈으로 되어 있다. 우측에 있는 벽난로로 추정되는 흔적은 폭이 약 370㎜인데 돌출되지 않고 벽면과 같은 면으로 되어 있다. 이 흔적 위에는 벽돌 아치가 있고 통줄눈으로 되어 있다. 연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쪽 벽은 계단이 있는데 우측에 화강석 인방석이 보인다. 통줄눈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서북2실 남쪽 벽의 나무벽돌이 있는 개구부 위치와 같다. 추정한다면 애초 개구부로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어떤 이유로 변경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서쪽은 창고가 있는데 1.0B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하였다. 계단 밑이 막혀 있는데 계단은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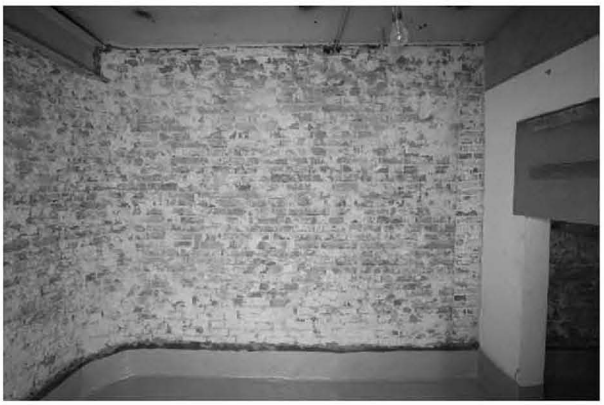
[사진 2-37] 지층 계단실1 동쪽 벽

[사진 2-38] 지층 계단실1 서쪽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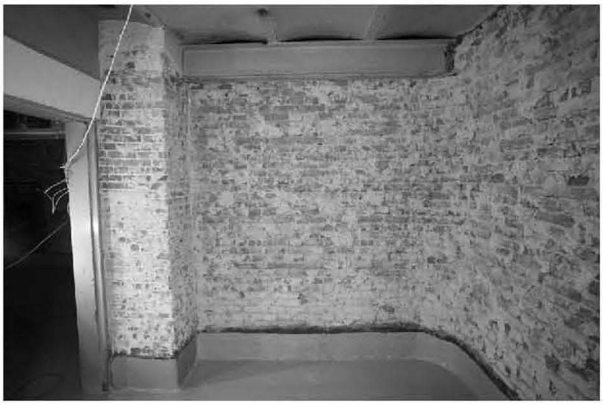
[사진 2-39] 지층 계단실1 동쪽 벽과 서쪽 벽(남쪽방향)

[사진 2-40] 지층 계단실1 북쪽 벽

[사진 2-41] 지층 창고 1 동쪽 벽



[사진 2-42] 지층 창고 1 서쪽 벽



[사진 2-43] 지층 창고 1 남쪽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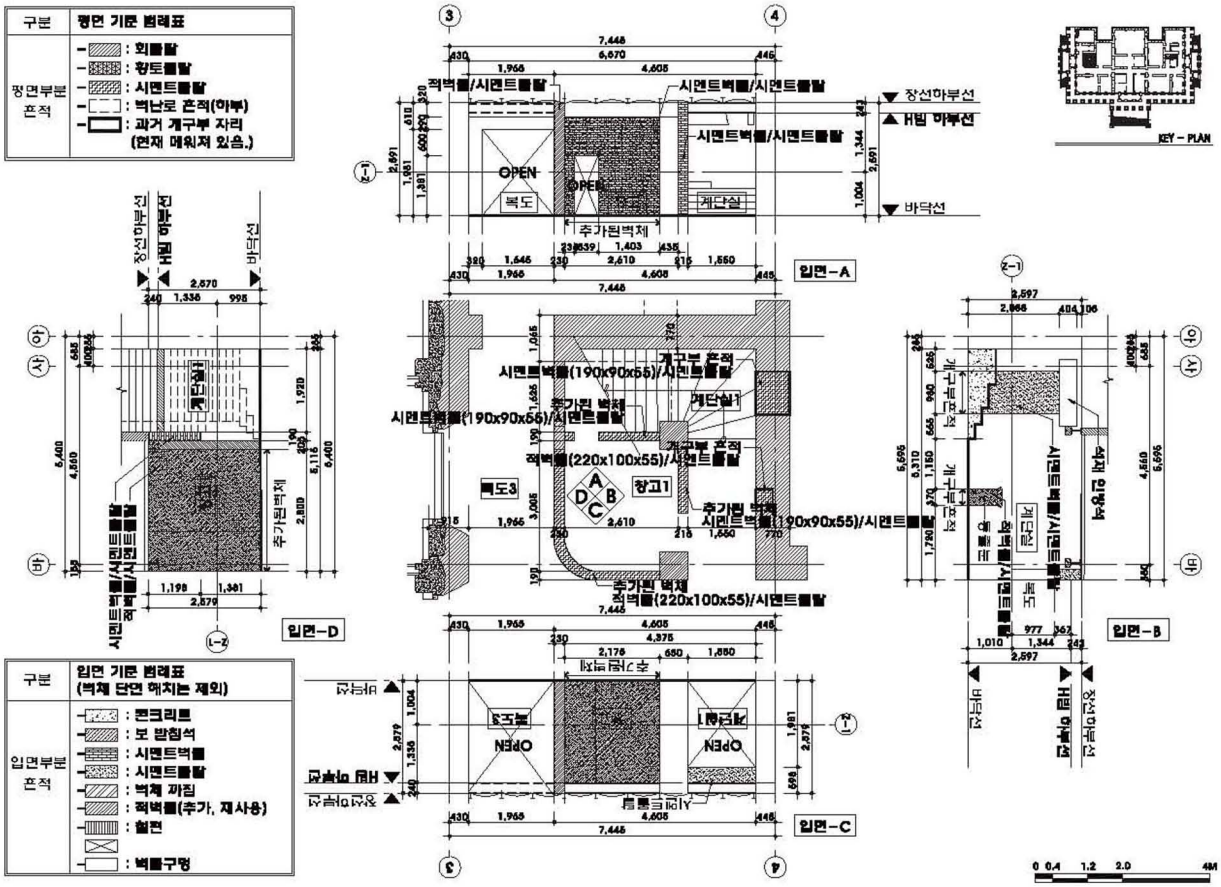
[사진 2-44] 지층 창고 1 북쪽 벽

[사진 2-45] 지층 계단실1 하부 동쪽 벽

[사진 2-46] 지층 계단실1 하부 서쪽 벽

[사진 2-47] 지층 계단실1 하부 북쪽 벽

[사진 2-48] 지층 계단실1 하부 남쪽 벽



[도면 2-8] 지층 계단실1 내부 입면 전개도

⑨ 지층 수장고(서)(구 수장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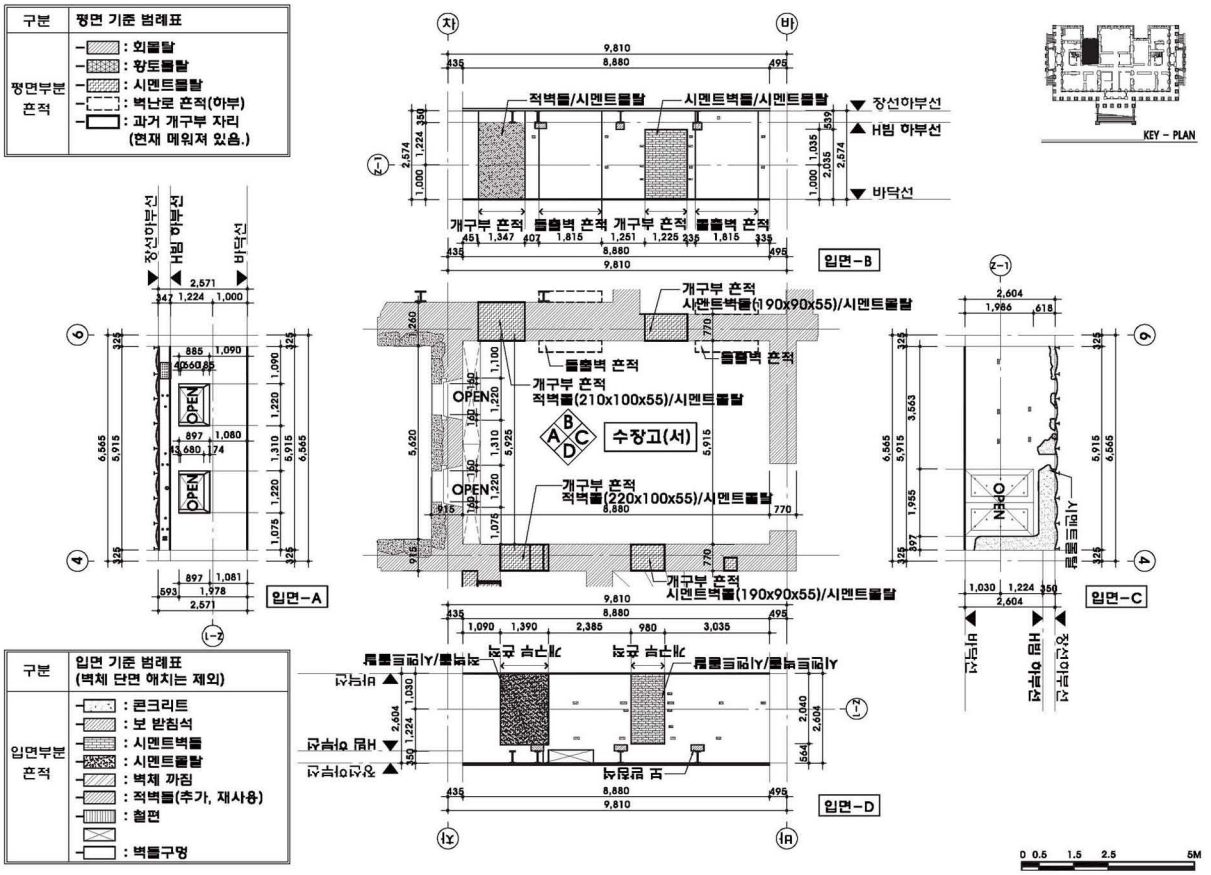
수장고(서)는 계단실1 동쪽에 있는 방이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5,915㎜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8,880㎜이다.

동쪽 벽에는 2개의 개구부 흔적과 2개의 돌출벽 흔적이 있다. 좌측부터 개구부, 돌출벽, 개구부, 돌출벽 순으로 되어 있다. 좌측에 있는 개구부는 폭 1,347㎜ 정도 되는데 폐쇄되어 있다.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하였고 통줄눈으로 되어 있다. 상부에 인방석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 우측으로는 돌출된 벽 흔적이 있다. 폭이 약 1,815㎜ 정도인데 돌출된 벽을 깎아내어 벽면이 옆면과 같게 되어 있다. 이 벽에 벽난로가 있다는 구체적 흔적은 없었다. 연도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 우측으로는 폭 1,225㎜되는 개구부 흔적이 있다. 인방석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나무벽돌은 있었다. 그 우측으로 돌출된 벽을 깎아낸 흔적이 있다. 폭은 좌측에 있는 돌출벽과 같은 1,815㎜ 정도이다. 여기서도 벽난로 흔적이나 연도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서쪽 벽에는 2개의 개구부 흔적이 있었다. 이 개구부 흔적은 서북2실과 계단실 동쪽 벽에 있는 개구부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쌓았다. 계단실과 통하는 개구부는 상부에 인방석이 있지만 서북2실과

연결되는 개구부는 인방석이 없다. 각각 통줄눈으로 되어 있다.

남쪽 벽은 우측에 개구부가 있는데 폭이 약 1,955㎜로 우측부분 벽을 새로 쌓은 흔적이 있다. 개구부 상부에 인방석은 없고 새로 쌓은 흔적이 있다. 북쪽 벽은 특이사항이 없다. 이 방 북쪽 부분에는 보일러실로 연결되는 지하 통로가 있다.



[도면 2-9] 지층 수장고(서) 내부 입면 전개도

[사진 2-49] 지층 수장고(서) 동쪽 벽

[사진 2-50] 지층 수장고(서) 서쪽 벽

[사진 2-51] 지층 수장고(서) 남쪽 벽

[사진 2-52] 지층 수장고(서) 북쪽 벽

⑩ 지층 수장고(중앙) (구 수장고 2)

수장고(중앙)는 북쪽 중앙에 있는 가장 큰 방이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11,38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9,130㎜이다. 동쪽 벽은 좌측에 출입구가 있고 중간에 개구부 흔적, 그 우측에 돌출된 벽 흔적이 있다. 좌측에 있는 문은 폭이 약 1,210㎜로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인데 철문으로 되어 있다. 애초부터 있던 문이다. 중간에 있는 개구부 흔적은 폭이 약 1,350㎜ 정도 되고 수장고(동)과 연결되는 문이다. 상부에 인방석이 있고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하였다. 그 우측으로는 돌출된 벽이 있다. 벽난로 흔적이나 연도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쪽 벽은 동쪽 벽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동쪽과 대칭되는 구성을 하고 있다. 개구부의 위치나 돌출된 벽이 같은 위치에 있고 폭도 같다. 동쪽 벽과 서쪽 벽 중간부분에 기둥형 돌출 철골기둥이 각각 2개씩 총 4개가 있는데 이 철골기둥은 1층 접견실에 있는 철골기둥을 받기 위해 받침기둥으로 설치한 것으로 1987년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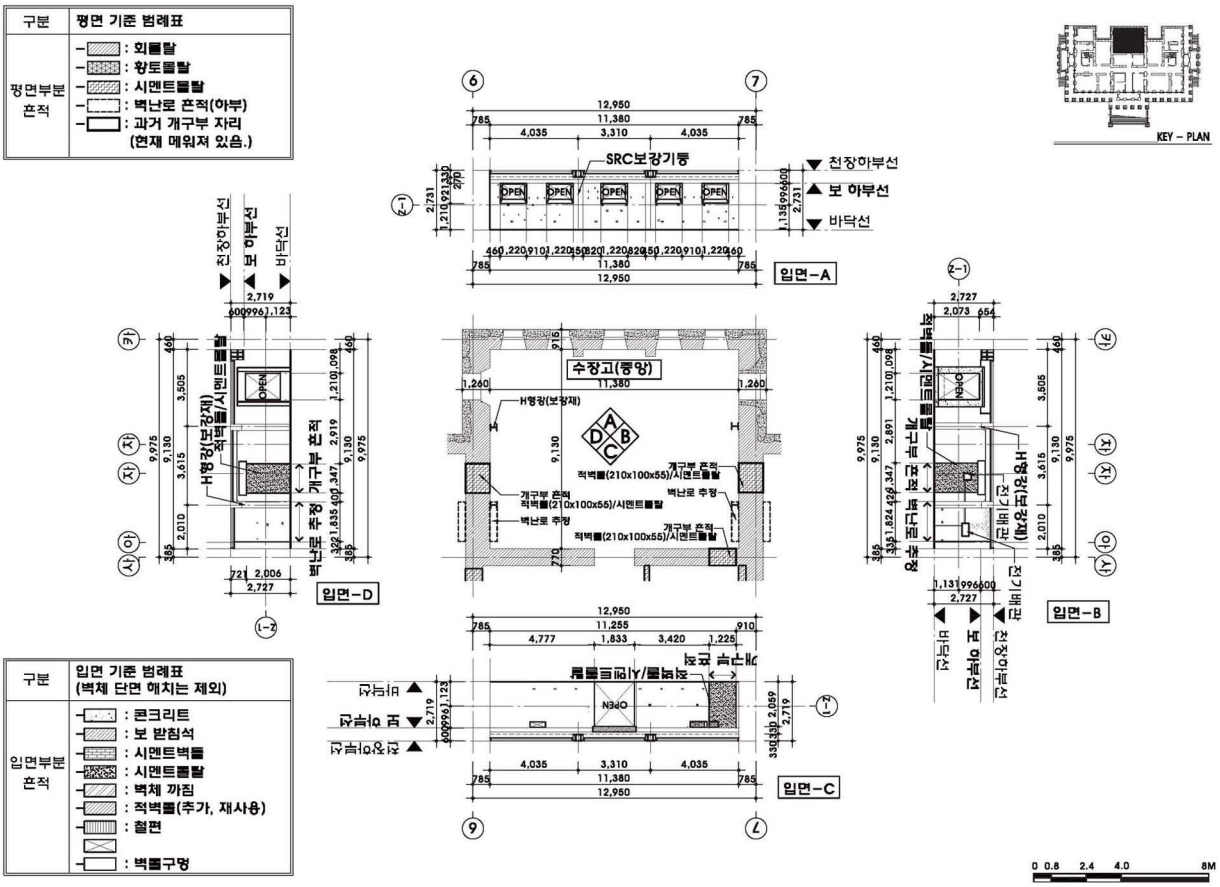
남쪽 벽은 중앙에 출입구가 있고 좌측에 개구부 흔적이 있다. 폭 1,225㎜ 정도 되는데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하였다. 나머지 부분은 조적벽이다. 북쪽 벽은 창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특이사항은 없다.

[사진 2-53] 지층 수장고(중앙) 동쪽 벽

[사진 2-54] 지층 수장고(중앙) 서쪽 벽

[사진 2-55] 지층 수장고(중앙) 남쪽 벽

[사진 2-56] 지층 수장고(중앙) 북쪽 벽



[도면 2-10] 지층 수장고(중앙) 내부 입면 전개도

⑪ 지층 수장고(동)(구 수장고 1)

수장고(동)은 동쪽 계단 서쪽에 있는 방이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5,925㎜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8,880㎜이다. 수장고(서)와 규모가 동일하다.

동쪽 벽에는 1개의 출입구와 1개의 개구부 흔적이 있다. 좌측에 있는 출입구는 폭 885㎜ 정도 되는데 애초 출입구 폭보다 줄여 만들었다. 이 출입구 우측 벽에 폭 440㎜ 정도 막은 흔적이 있다. 출입구 상부에는 인방이 없는데 이 위에는 콘크리트 인방이 있다. 중앙부에는 개구부 흔적이 있다. 폭 900㎜로 시멘트벽돌로 조적하였다.

서쪽 벽은 2개의 돌출벽 흔적과 1개의 개구부 흔적이 있다. 좌측에 있는 돌출벽은 폭 1,815㎜로 돌출된 벽을 면바르게 철거한 흔적이 있다. 우측에 있는 돌출벽도 폭이 같고 돌출된 벽이 철거되어 있다. 2개의 돌출벽 흔적에서는 벽난로나 연도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맨 우측에는 폭 1,347㎜ 정도 되는 개구부 흔적이 있다.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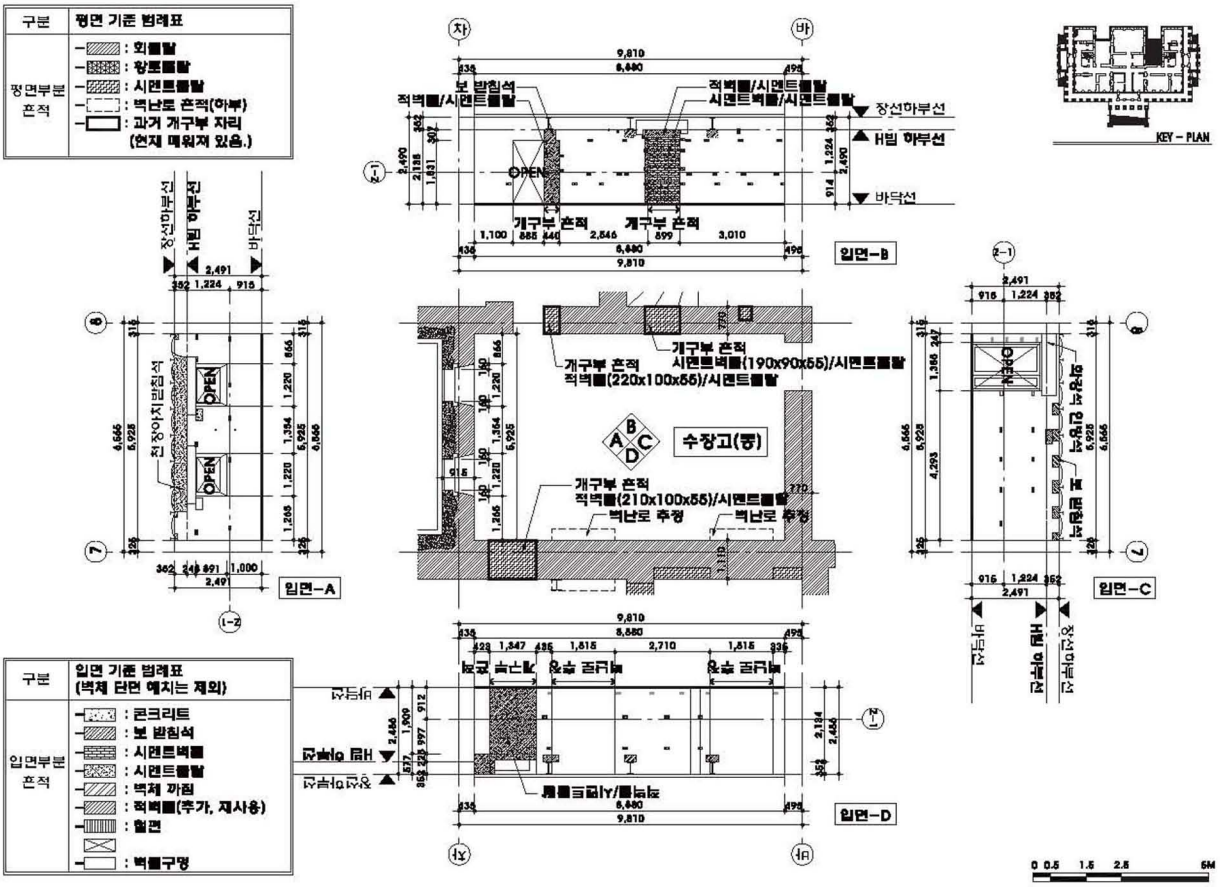
남쪽 벽은 좌측에 출입구가 있고 특이사항은 없다. 북쪽 벽은 창문 2개가 있고 특이사항은 없다.

[사진 2-57] 지층 수장고(동) 동쪽 벽

[사진 2-58] 지층 수장고(동) 서쪽 벽

[사진 2-59] 지층 수장고(동) 남쪽 벽

[사진 2-60] 지층 수장고(동) 북쪽 벽



[도면 2-11] 지층 수장고(동) 내부 입면 전개도

⑫ 지층 동북1실(안내 해설사실, 구 실 1)

동북1실은 지층 동북쪽 모서리에 있는 방이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6,560㎜이고 남북방향 길이가 5,105㎜이다.

동쪽 벽은 2개의 창문이 있다. 창문 사이에 있는 벽에 추가로 덧붙인 벽이 있다. 시멘트벽돌로 조적하였는데 그 이유는 불분명하다. 서쪽 벽에는 외부로 나가는 폭 1,210㎜되는 출입구가 있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다.

남쪽 벽에는 2개의 출입구와 1개의 벽난로가 있다. 출입구는 좌측과 우측에 있는데 좌측 출입구는 폭이 1,315㎜이고 우측 출입구는 폭이 1,401㎜이다. 각각 상부에 화강석 인방석이 있다. 이 인방석은 한쪽은 벽에 물려 있고 한쪽은 공중에 떠 있다. 아마도 출입구를 넓힌 것 같다. 중앙에 벽난로가 나왔다. 폭 640㎜이고 높이는 인방 밑까지 675㎜이다. 그 위로 연도가 나왔는데 연도가 꺾인 모양으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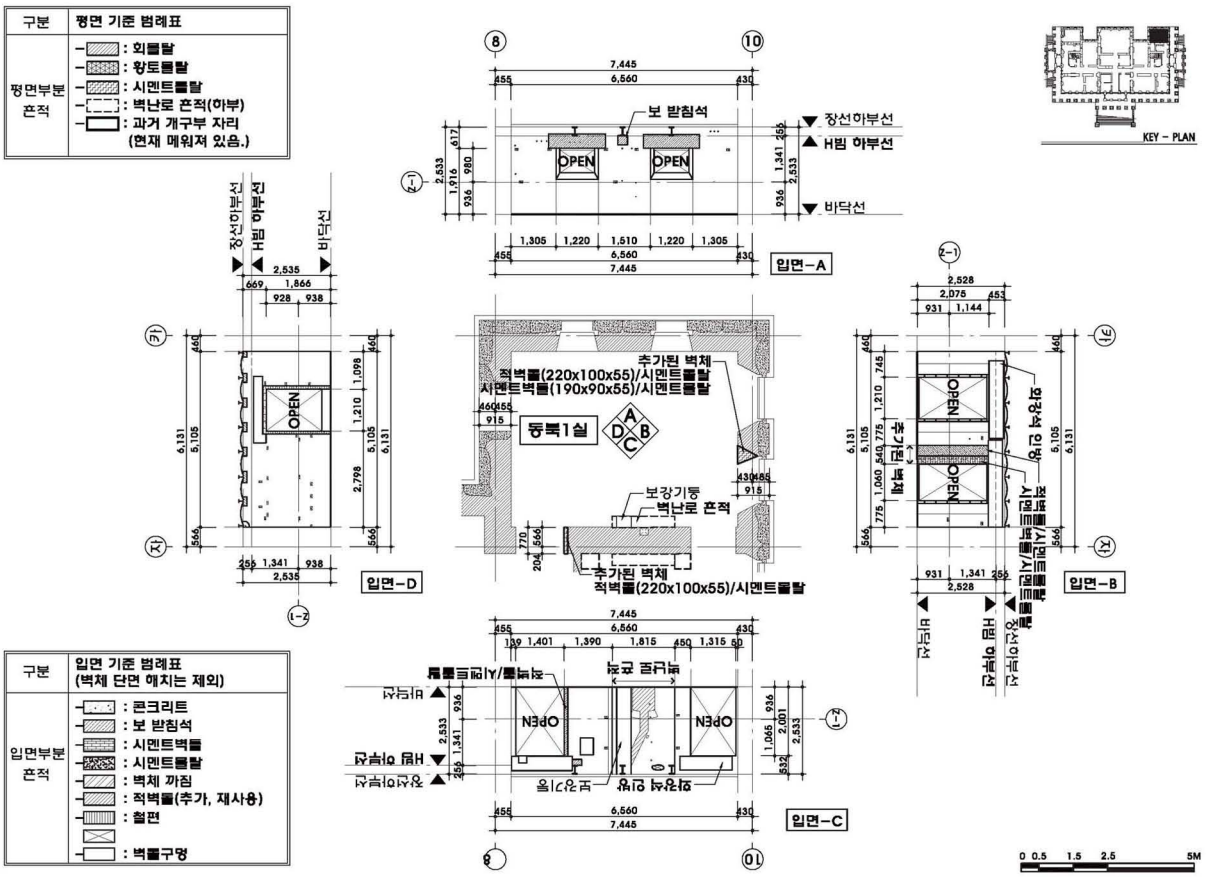
북쪽 벽은 2개의 창문이 있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다.

[사진 2-61] 지층 동북1실 동쪽 벽

[사진 2-62] 지층 동북1실 서쪽 벽

[사진 2-63] 지층 동북1실 남쪽 벽

[사진 2-64] 지층 동북1실 북쪽 벽



[도면 2-12] 지층 동북1실 내부 입면 전개도

⑬ 지층 동북2실(구 실2)

동북2실은 동북1실 남쪽에 있는 방이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는 6,421㎜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2,470㎜이다. 동북2실은 원래 1개실인데 사이에 1.0B 시멘트벽돌로 조적하여 분리된 것에 불과하다.

동북2실의 동쪽 벽은 창문이 있고 서쪽 벽은 동북2실과 분리되는 벽이 있다. 남쪽 벽은 좌측에 출입구가 있다. 폭이 1,314㎜이다. 상부에는 화강석 인방석이 있다. 이 인방석은 한쪽은 벽에 물려 있고 한쪽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이다. 출입구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 그 출입구 우측으로 벽이 철거된 흔적이 있다. 폭 390㎜ 정도 된다. 동북2실 측면에 있는 복도와 분리되는 벽과 면한 부분에서도 폭 515㎜ 정도 되는 벽 철거 흔적이 있다. 북쪽 벽 우측에는 출입구가 있다. 폭 1,314㎜로 동북1실로 통하는 출입구이다. 이 출입구 좌측으로도 벽이 철거된 흔적이 있다. 폭 450㎜ 정도 된다. 좌측으로도 폭 515㎜ 정도 되는 벽 철거 흔적이 보인다. 즉 남쪽 벽에 있는 벽 흔적과 연결되는 것인데 후대에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출입구 좌측으로 돌출된 벽 흔적이 있다. 돌출된 부분이 면바르게 철거된 상태이다. 벽난로나 연도 흔적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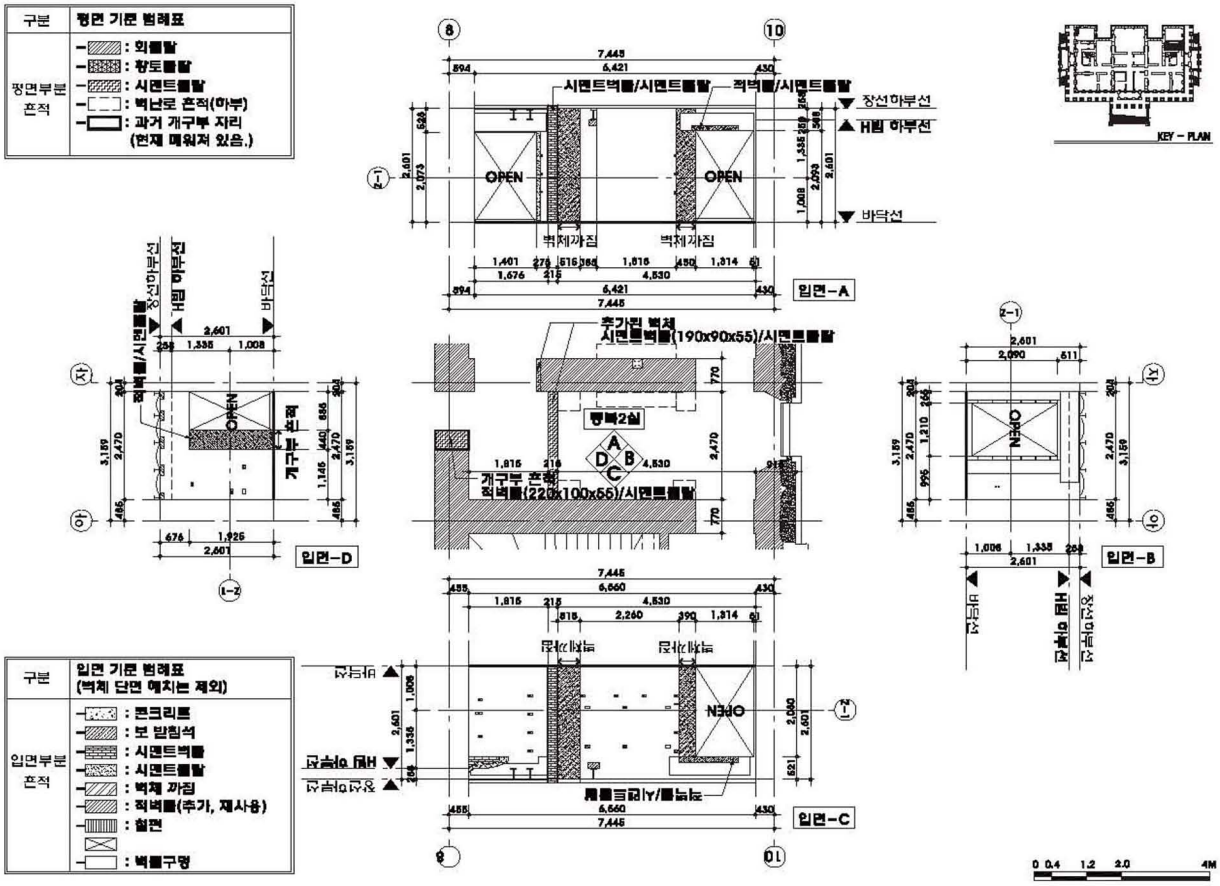
동북2실의 동쪽 벽은 시멘트벽돌 벽이 있다. 서쪽 벽은 수장고(동)과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다. 북쪽 벽에는 동북1실과 통하는 출입구가 있다.

[사진 2-65] 지층 동북2실 동쪽 벽

[사진 2-66] 지층 동북2실 서쪽 벽

[사진 2-67] 지층 동북2실 남쪽 벽

[사진 2-68] 지층 동북2실 북쪽 벽



[도면 2-13] 지층 동북2실 내부 입면 전개도

⑭ 지층 수장고전실1(구 실4), 수장고전실2(구 실5)

수장고전실1, 수장고전실2는 수장고(중앙) 남쪽에 면한 방이다. 1개 실이나 마찬가지인데 중간에 시멘트벽돌로 1.0B 벽을 막아 2개 실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는 11,72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4,235㎜이다. 수장고전실1, 수장고전실2의 동쪽 벽에는 돌출된 벽이 있는데 돌출된 벽에 맞게 나머지 벽을 1.0B로 벽을 덧붙여 조적하였다. 돌출된 벽에 벽난로나 연도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쪽 벽은 우측에 폭 1,225㎜ 정도 되는 개구부 흔적이 있다. 시멘트벽돌로 조적하였다. 중앙에는 돌출된 벽 흔적이 있다. 돌출된 부분을 철거하여 면바르게 되어 있고 벽난로나 연도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남쪽 벽은 중앙에 출입구가 있고 우측으로는 폭 1,130㎜ 정도 되는 개구부 흔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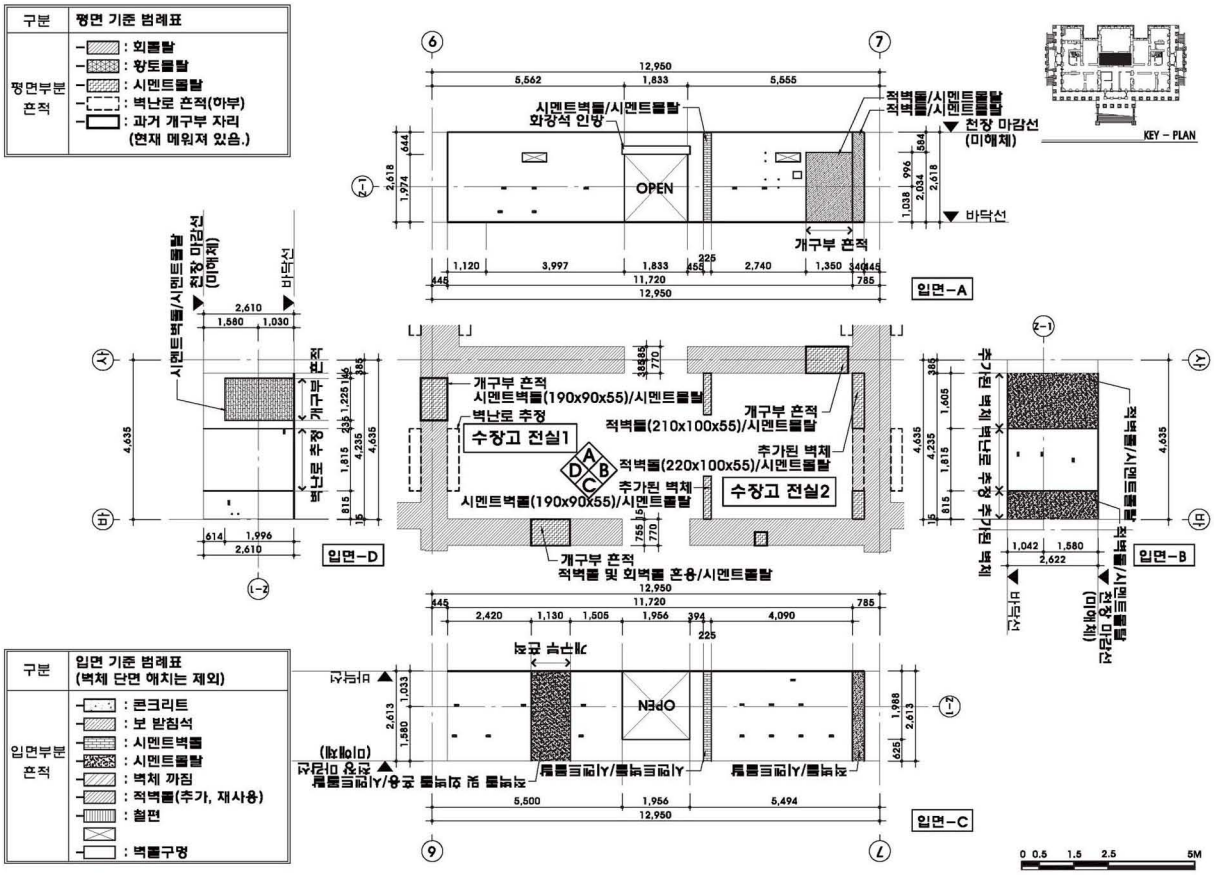
북쪽 벽은 중앙에 출입구가 있고 우측에 폭 1,350㎜되는 개구부 흔적이 있다.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하였다. 좌·우측 상단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설비 배관용 구멍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 2-69] 지층 수장고전실1, 수장고전실2의 동쪽 벽

[사진 2-70] 지층 수장고전실1, 수장고전실2의 서쪽 벽

[사진 2-71] 지층 수장고전실1, 수장고전실2의 남쪽 벽

[사진 2-72] 지층 수장고전실1, 수장고전실2의 북쪽 벽



[도면 2-14] 지층 수장고 전실1,수장고 전실2 내부 입면 전개도

⑮ 지층 계단실2

계단실2는 동쪽에 있는 계단이다. 서쪽에 있는 계단실1과 구성이 같다. 창고와 계단이 같이 있다. 계단실로만 볼 때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4,575㎜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5,120㎜이다. 계단은 시계방향으로 오르는 돌음계단이다. 창고는 1.0B로 적벽돌로 조적되어 막혀 있다.

서쪽 벽에는 계단실1과 똑같이 2개소의 흔적이 있다. 하나는 개구부 흔적이고 하나는 벽난로로 추정되는 흔적이다. 폭 995㎜ 정도 되는 개구부는 우측에 있는데 상부에 화강석으로 된 인방석이 있고 개구부 부분은 통줄눈으로 되어 있다. 좌측에 있는 벽난로로 추정되는 흔적은 폭이 약 370㎜인데 돌출되지 않고 벽면과 같은 면으로 되어 있다. 이 흔적 위에는 벽돌 아치가 있고 통줄눈으로 되어 있다. 연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쪽 벽도 계단이 있는데 계단실1과 같이 좌측에 화강석 인방석이 보인다. 통줄눈은 보이지 않는다.

동쪽은 창고가 있는데 1.0B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되어 있다. 계단 밑은 막혀 있는데 계단은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다.

[사진 2-73] 지층 계단실 2 동쪽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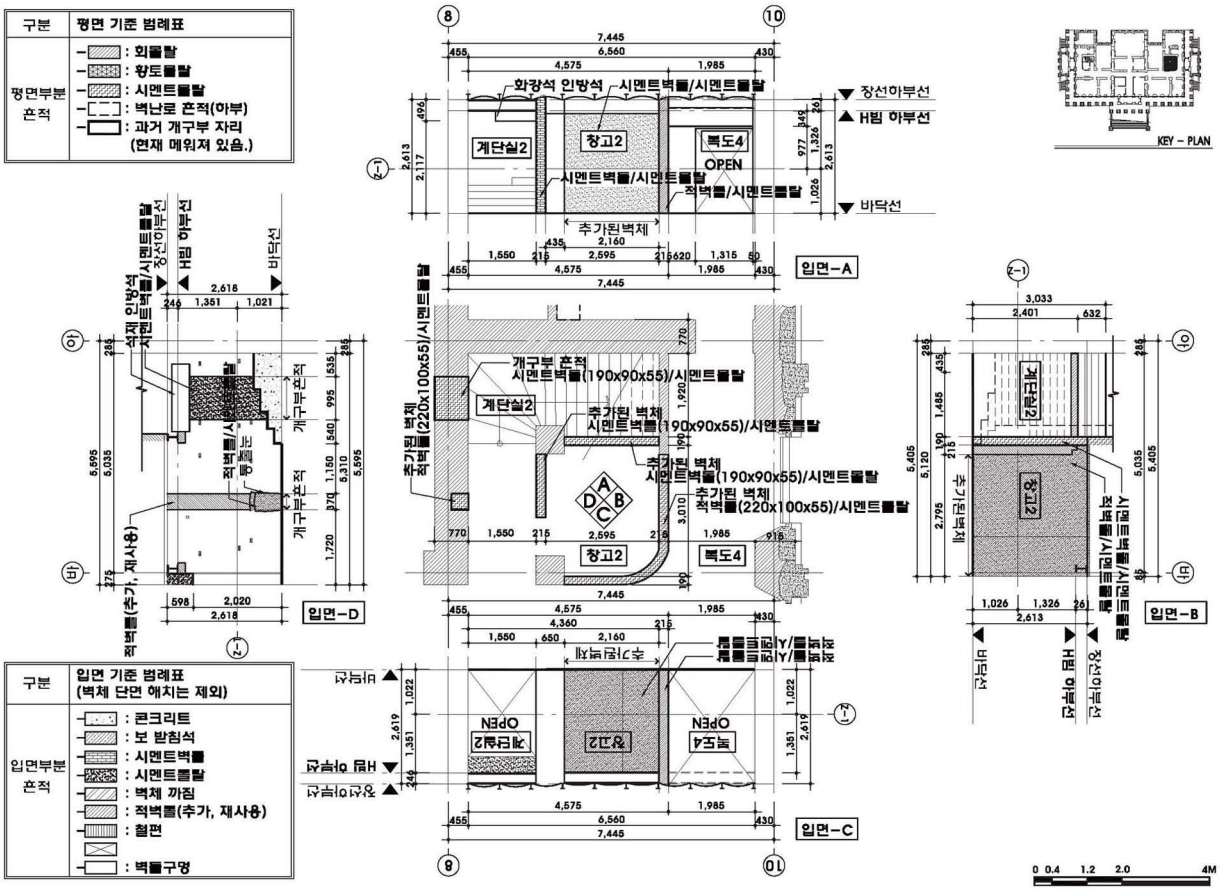
[사진 2-74] 지층 계단실 2 서쪽 벽

[사진 2-75] 지층 계단실 2 남쪽 벽

[사진 2-76] 지층 계단실 2 북쪽 벽

[사진 2-77] 지층 계단실 2 남쪽 벽

[사진 2-78] 지층 계단실 2 동쪽 벽



[도면 2-15] 지층 계단실2 내부 입면 전개도

⑯ 지층 중앙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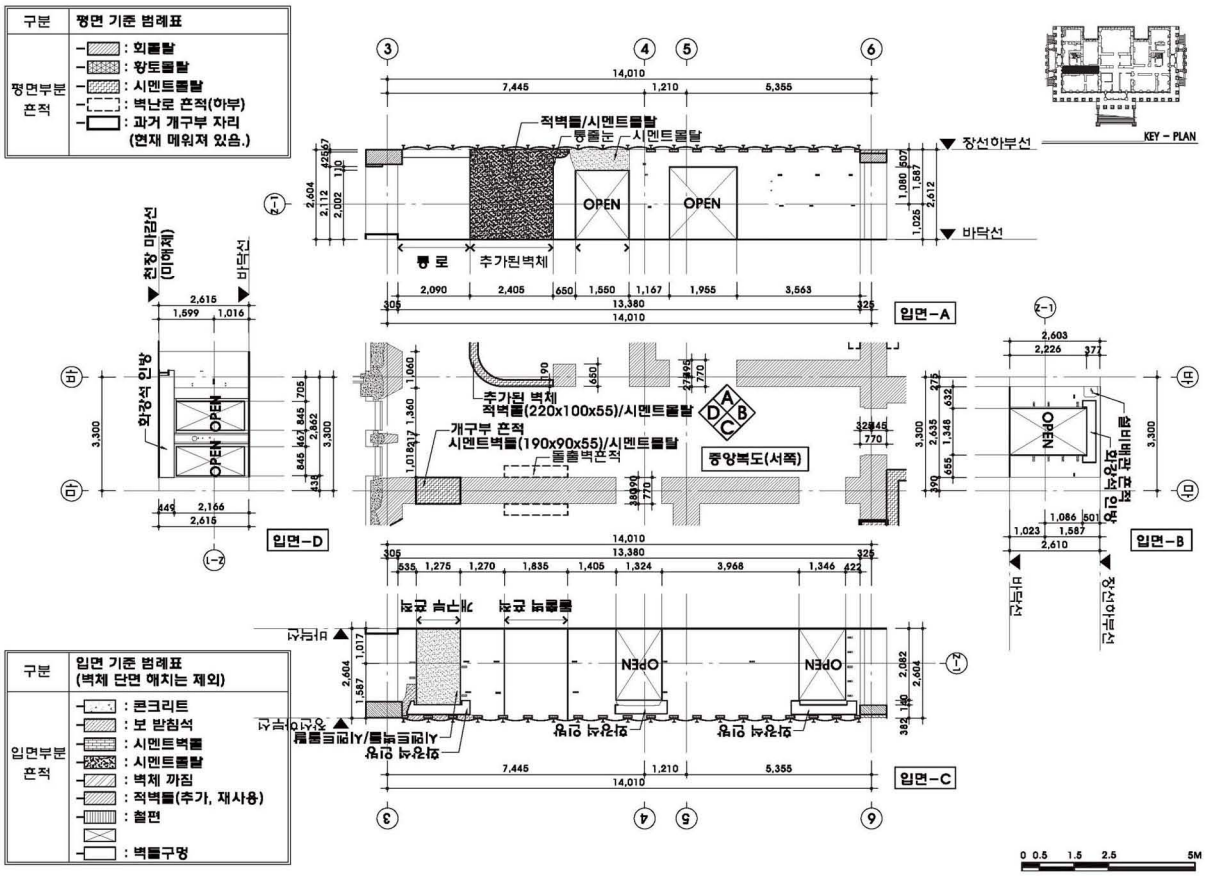
중앙복도는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40,11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2,635㎜이다. 남쪽 벽에는 7개의 출입구와 1개의 개구부 흔적, 1개의 돌출벽 흔적이 있다. 돌출벽은 서쪽에 있는 것으로 벽난로나 연도 흔적은 없다. 북쪽 벽은 특이사항이 없다.

[사진 2-79] 지층 중앙복도 (북에서 남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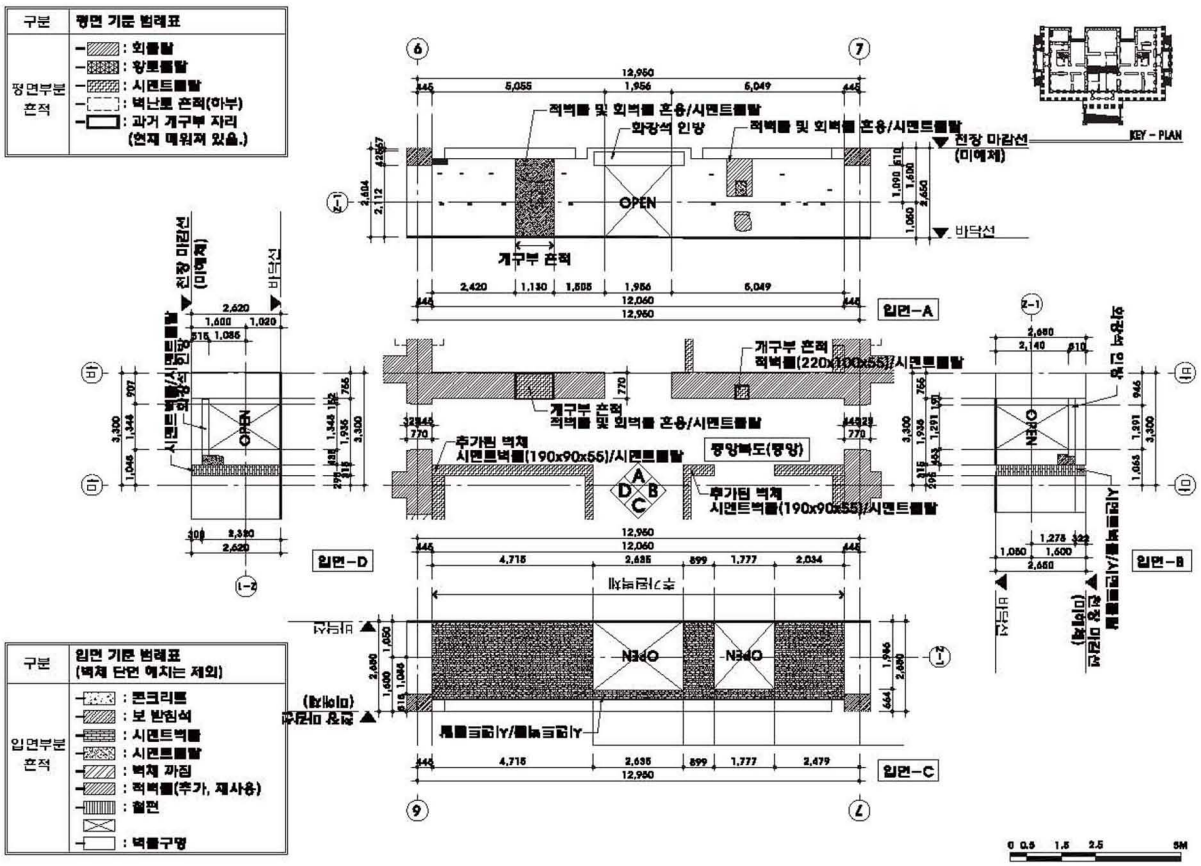
[사진 2-80] 지층 중앙복도 (남에서 북으로)

[사진 2-81] 지층 중앙복도 (서에서 동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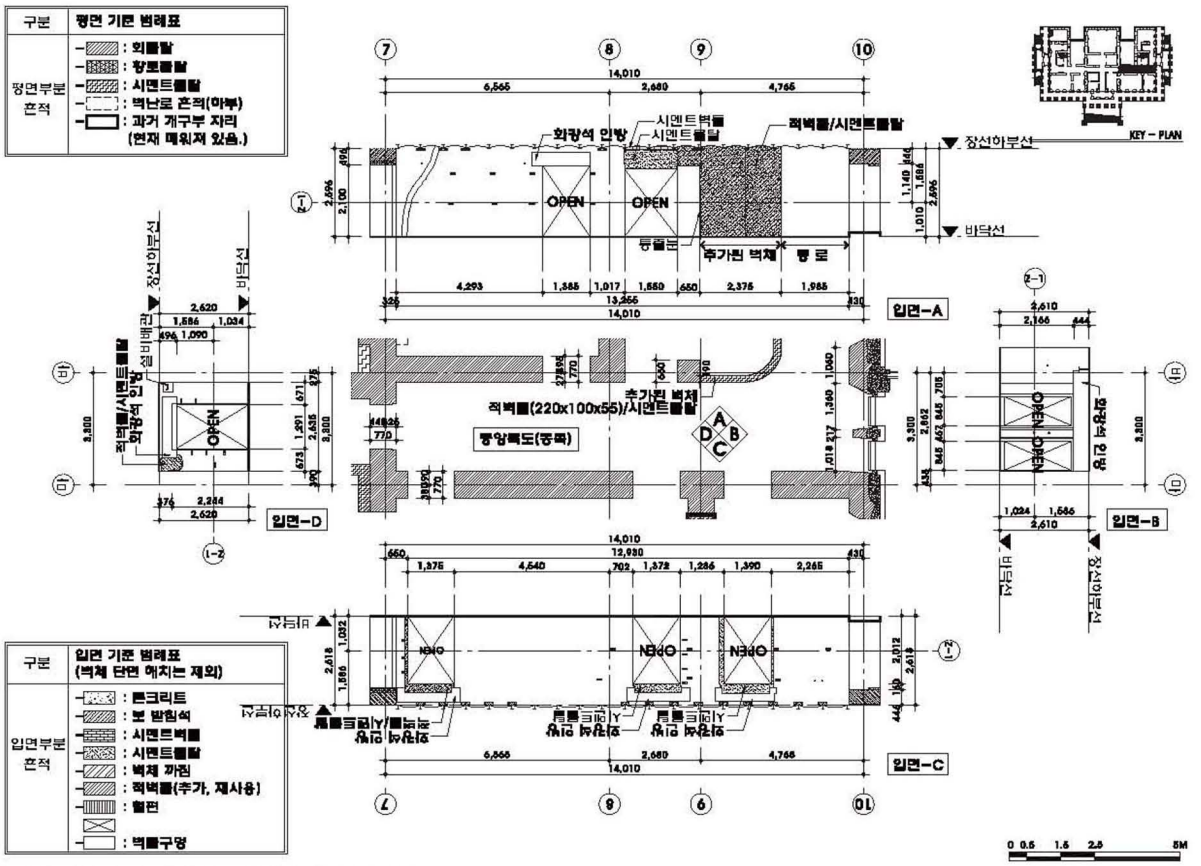
[사진 2-82] 지층 중앙복도 (동에서 서로)



[도면 2-16] 지층 중앙복도(서쪽) 내부 입면 전개도



[도면 2-17] 지층 중앙복도(중앙) 내부 입면 전개도



[도면 2-18] 지층 중앙복도(동쪽) 내부 입면 전개도

⑰ 지층 방풍실

지층에는 방풍실이 3개소가 있고 이 방풍실이 출입구가 된다.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에 있다. 이 방풍실 위는 1층 복도 부분이다. 동쪽과 서쪽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규모가 같고 남쪽은 동·서 방풍실보다 조금 크다. 동쪽 방풍실은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1,685㎜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3,847㎜이다. 서쪽 방풍실은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1,685㎜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3,865㎜이다. 남쪽 방풍실은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7,320㎜이고 남북으로 2,135㎜이다. 사방으로 출입구가 있다. 이 출입구 상부에는 화강석으로 된 인방석이 있다.

벽은 애초 건설 당시와 같다. 이 부분은 애초 형태와 같고 외부여서 해체할 필요가 없었다. 마감은 사방으로 모두 화강석으로 마감되어 있다. 화강석을 조적처럼 쌓았는데 가로줄눈은 평줄눈으로 되어 있고 벽의 꺾인 부분과 출입구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세로줄눈은 없다. 춤은 평균 약 310㎜ 정도 된다.

[사진 2-83] 지층 동쪽 방풍실 동쪽 벽

[사진 2-84] 지층 동쪽 방풍실 서쪽 벽

[사진 2-85] 지층 동쪽 방풍실 남쪽 벽

[사진 2-86] 지층 동쪽 방풍실 북쪽 벽

[사진 2-87] 지층 서쪽 방풍실 동쪽 벽

[사진 2-88] 지층 서쪽 방풍실 서쪽 벽

[사진 2-89] 지층 서쪽 방풍실 남쪽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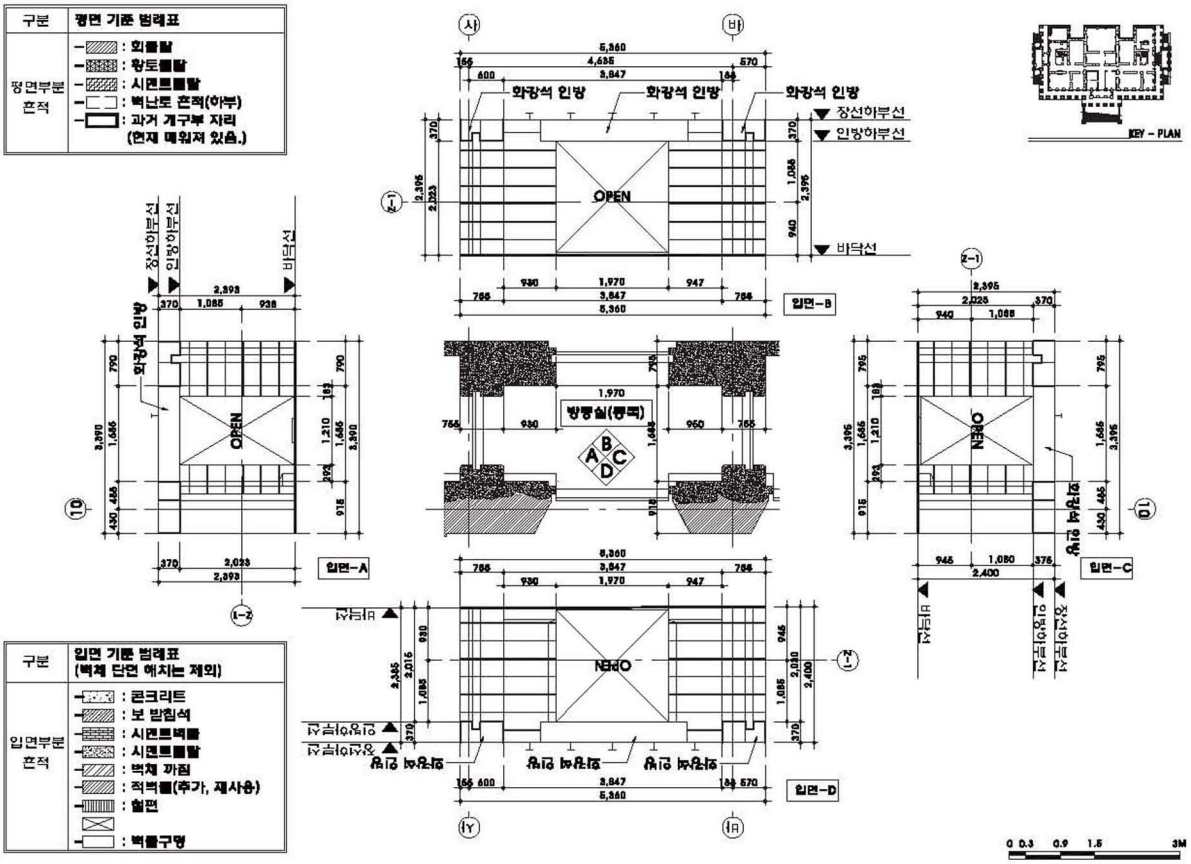
[사진 2-90] 지층 서쪽 방풍실 북쪽 벽

[사진2-91] 지층 남쪽 방풍실 동쪽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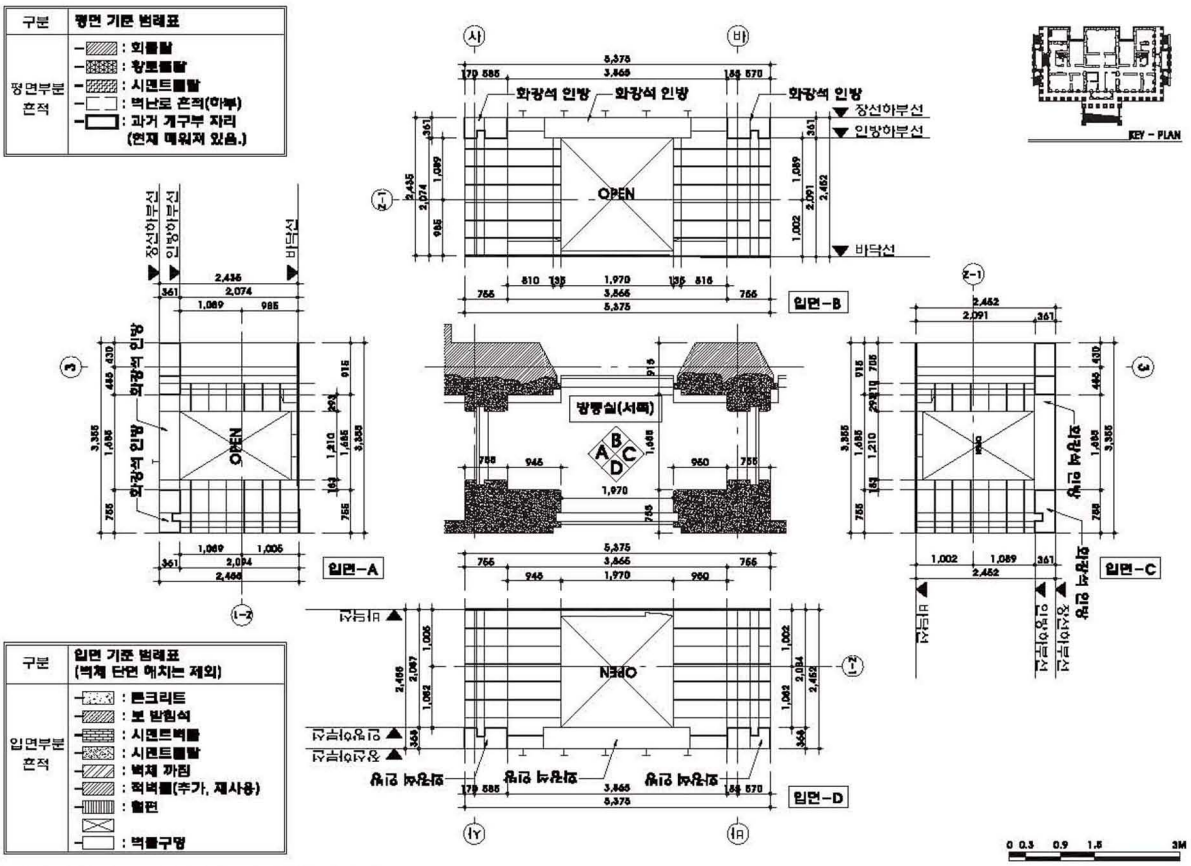
[사진2-92] 지층 남쪽 방풍실 서쪽벽

[사진2-93] 지층 남쪽 방풍실 남쪽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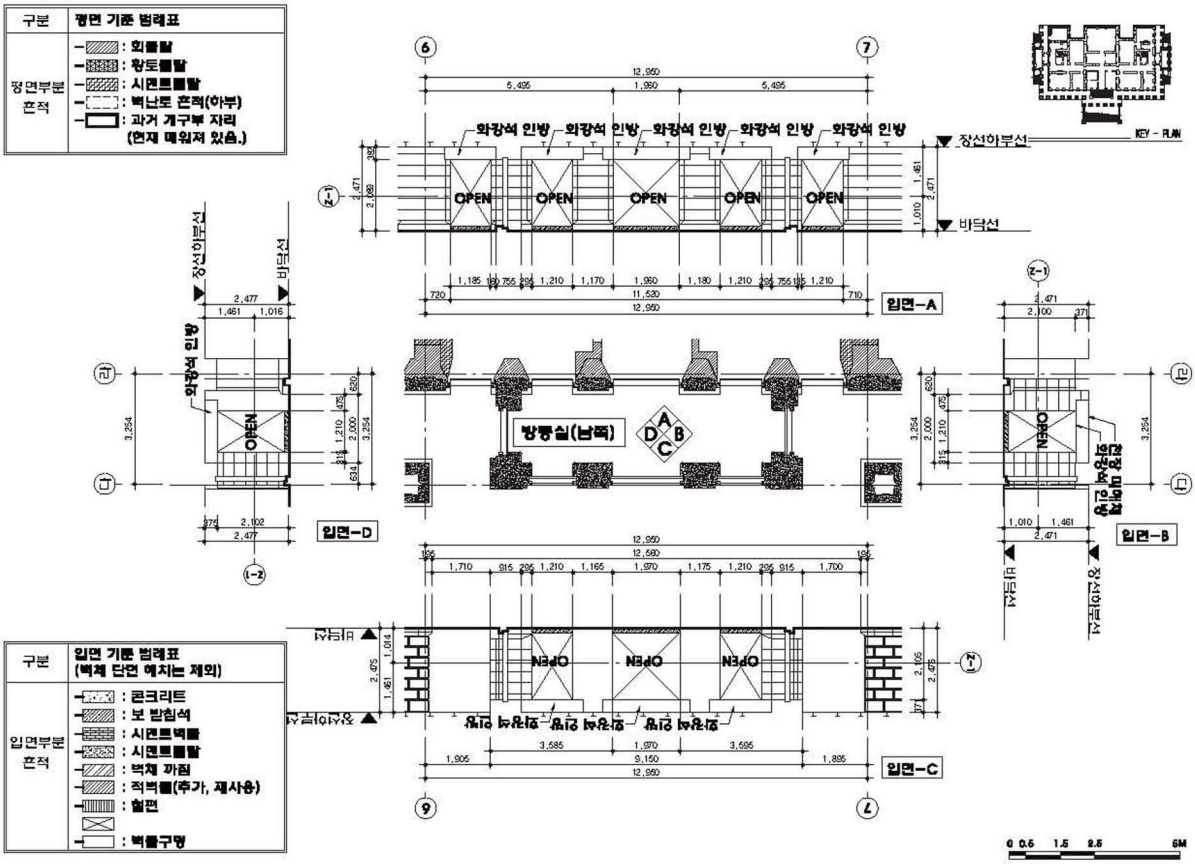
[사진2-94] 지층 남쪽 방풍실 북쪽벽



[도면 2-19] 지층 동쪽 방풍실 내부 입면 전개도



[도면 2-20] 지층 서쪽 방풍실 내부 입면 전개도



[도면 2-21]지층 중앙 방풍실 내부 입면 전개도

⑱ 지층 화장실(서), 화장실(동)

화장실(서)와 화장실(동)은 동쪽과 서쪽 계단 밑에 있는 방이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규모는 같다. 서쪽은 창고로 사용되었고 동쪽은 화장실로 사용되었다.

서쪽에 있는 화장실(서)는 안목으로 남북방향 길이가 7,735㎜이고 동서방향 길이는 2,760㎜이다. 화장실(동)은 안목으로 남북방향 길이가 7,735㎜로 서쪽 화장실과 같다. 동서방향 길이는 2,725㎜로 약간 차이가 난다. 이 차이는 미세한 것으로 실측오차를 감안한다면 화장실(서)와 규모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사방으로 각각 동쪽방향과 서쪽방향으로는 출입구와 창문이 있다. 남북 쪽으로는 개구부 없이 벽으로만 되어 있다. 출입구와 창문 상부에는 화강석으로 된 인방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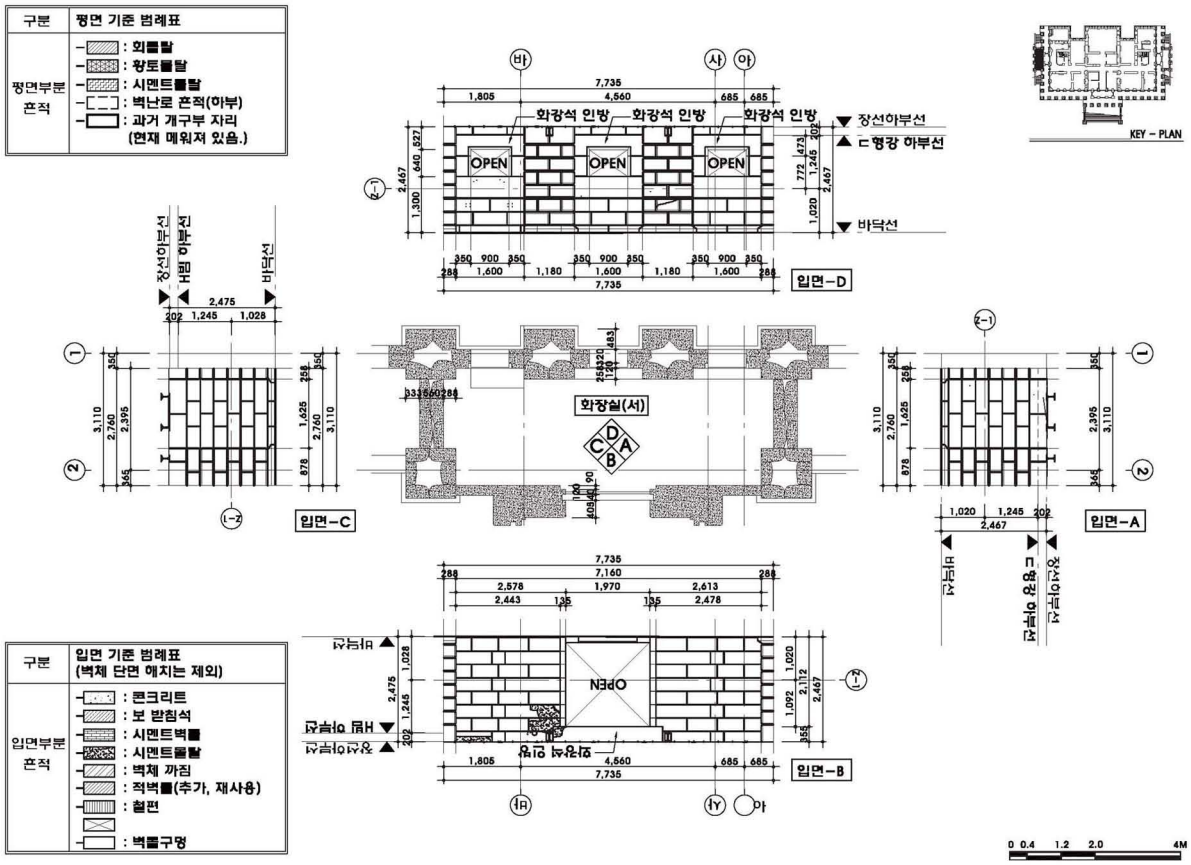
벽은 방풍실과 같이 애초 건설 당시 형태와 같고 외부여서 해체할 필요가 없었다. 마감은 사방 모두 화강석으로 마감되어 있다. 화강석은 조적처럼 쌓여 있는데 가로줄눈은 평줄눈으로 되어 있고 세로줄눈은 방풍실과는 달리 막힌 줄눈으로 되어 있다. 화강석 석재의 춤은 방풍실과 같이 평균 약 310㎜ 정도 된다.

[사진 2-95] 지층 화장실(서) 동쪽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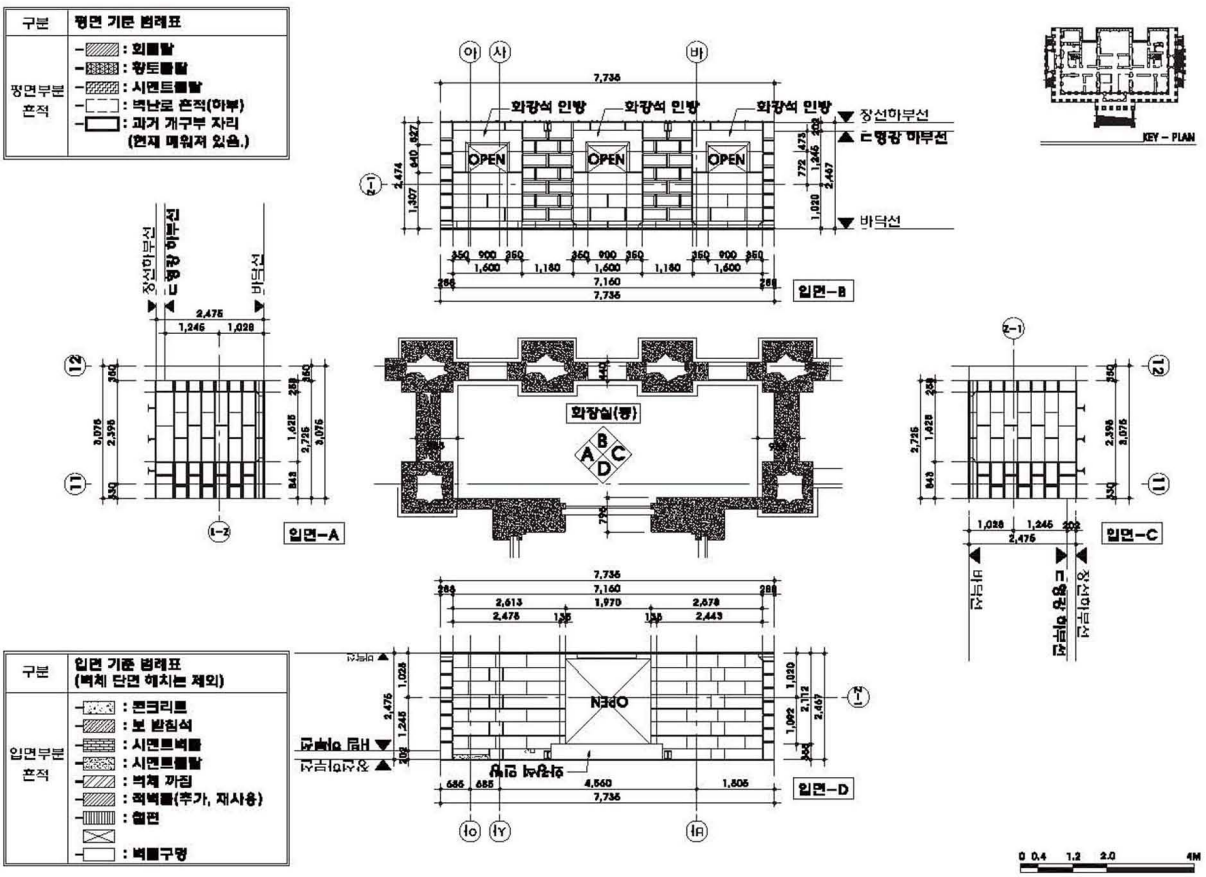
[사진 2-96] 지층 화장실(서) 서쪽 벽

[사진 2-97] 지층 화장실(서) 남쪽 벽

[사진 2-98] 지층 화장실(서) 북쪽 벽



[도면 2-22]지층 화장실(서) 내부 입면 전개도



[도면 2-23] 지층 화장실(동) 내부 입면 전개도

3) 1층 평면

① 1층 대식당(구 제1전시실)

대식당은 1층 남서쪽 모서리에 있는 방이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13,46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6,065㎜이다. 동쪽 벽과 북쪽 벽에서 그간 변화를 보여 주는 과거 흔적이 확인되었다. 개구부 흔적과 벽난로가 나왔다.

동쪽 벽에서는 1개의 출입구와 1개의 개구부 흔적, 1개의 벽난로 흔적이 나왔다. 1개의 출입구는 폭 1,980㎜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출입구인데 상부에 콘크리트 인방이 벽난로가 있는 부분까지 길게 걸려 있다. 그 위로는 애초부터 있었던 벽돌 아치가 있었다. 즉, 애초에 개구부, 또는 예정된 개구부가 있었고 변화과정에서 애초 개구부 폭보다 넓혀 출입구를 만들고 그때 콘크리트 인방을 둔 것이다. 후대에 조성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추정하건대 1987년 공사 때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출입구 우측으로는 벽난로가 나왔다. 난로 형태 자체는 안 보이나 연도 2개가 확인되었다. 좌측에 있는 연도는 벽 중간에서부터 나왔고 꺾인 모양으로 되어 있다. 우측 연도는 거의 직선형으로 되어 있고 바닥까지 있었다. 이 연도는 위치와 방향으로 볼 때 지층 서남2실에 있

는 벽난로 연도와 연결되어 있다.

북쪽 벽에는 대식당이 원래 2개실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칸막이벽, 또는 돌출 부축벽 흔적이 나왔고 1개의 출입구, 4개의 개구부 흔적, 1개의 돌출벽 흔적이 나왔다. 칸막이벽 흔적은 중앙에서 약간 우측 상부에 있었다. 폭이 약 550㎜로 2.5B 두께이다. 이 철거 흔적은 반대편 쪽인 남쪽 벽의 같은 위치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과거에 칸막이벽 또는 돌출 부축벽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벽 철거 흔적이 상부에만 있는 것은 하부에는 출입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 출입구는 폭 1,825㎜로 동쪽 벽과 마찬가지로 상부에 콘크리트 인방이 있고 길게 벽에 걸쳐 있다. 그러다 보니 칸막이벽 흔적이 없는 것이다. 이 출입구 또한 동쪽 벽에 있는 출입구를 만들 때 같이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 출입구 좌측 부분에는 개구부 흔적도 있다. 콘크리트 인방석 바로 위에서 벽돌 아치가 확인되었고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하였고 기존 벽과 연결되는 부분은 통줄눈으로 되어 있다. 북쪽 벽 좌측에도 개구부 흔적이 있다. 폭이 1,495㎜이고 상부에 벽돌아치가 있으며 시멘트벽돌로 조적되어 있다. 그 우측으로는 돌출벽 흔적과 개구부 흔적이 겹쳐서 나왔다. 돌출벽 흔적은 돌출된 부분이 철거된 상태이다. 이 벽과 겹쳐서 폭 1,465㎜되는 개구부 흔적이 있다. 이 개구부 상부에는 벽돌아치가 없고 돌출된 벽과 겹쳐 있는 것으로 볼 때 애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측 출입구를 만들 때 같이 막은 것으로 보인다. 맨 우측으로도 개구부 흔적이 있다. 폭 1,390㎜로 좌측에 있는 개구부 흔적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상부에 벽돌아치가 있다.

남쪽 벽에서는 흥미로운 것이 확인되었다. 두 줄로 된 설비 배관재인데 배관을 새끼줄로 감았다. 새끼줄을 보온재로 쓴 것이다. 1918년 1월 9일 『매일신보』에 의하면 영친왕 입국 시에 설비배관을 보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일본 하마마츠 시립도서관에서 발견된 도면 중에는 1936년 난방설비 도면이 있다. 이 배관재가 어느 시기에 설치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최소한 1936년 이전에 설치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자문회의에서 이 벽 일부를 노출 전시하기로 했다. 서쪽 벽은 특이사항이 없다.

[사진 2-99] 새끼줄로 감은 배관

[사진 2-100] 1층 대식당 동쪽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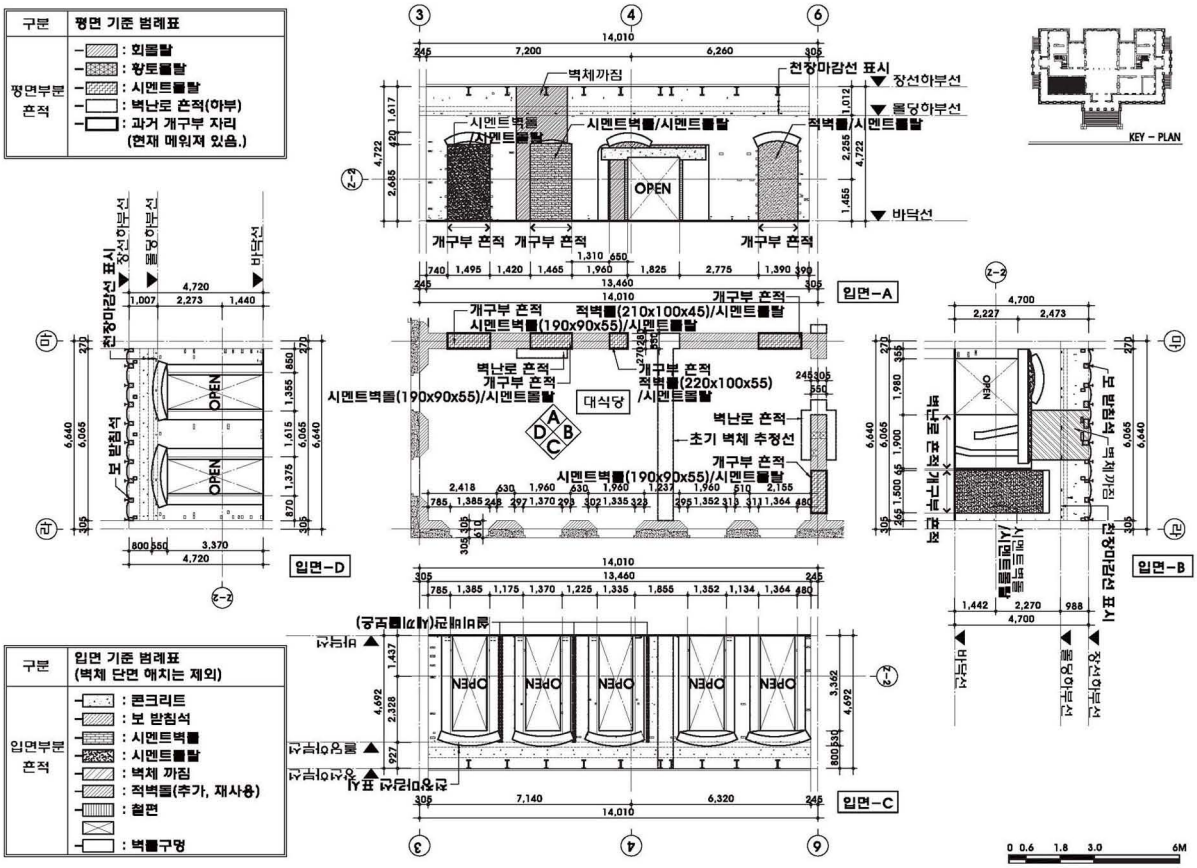
[사진 2-101] 1층 대식당 서쪽 벽

[사진 2-102] 1층 대식당 남쪽 벽

[사진 2-103] 1층 대식당 남쪽 벽

[사진 2-104] 1층 대식당 북쪽 벽

[사진 2-105] 1층 대식당 북쪽 벽



[도면 2-24] 1층 대식당 내부 입면 전개도

② 1층 중앙홀

중앙홀은 1층 남쪽 중앙에 있는 방으로 말 그대로 출입 중앙홀이다. 소위 '대광간' 으로 불렸던 방이다. 여기서 촬영된 고종황제 사진이 있다. 홀이다 보니 사방으로 동선이 연결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출입구가 많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12,34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9,100㎜이다.

동쪽 벽에서는 2개의 출입구와 2개의 개구부 흔적, 1개의 벽난로 흔적이 확인되었다. 좌측에 있는 출입구는 중앙복도로 연결되는 출입구인데 애초보다 넓힌 것이다. 상부는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치는 시멘트몰탈로 되어 있다. 그 위에 애초 있었던 벽돌 아치가 있다. 애초 아치보다 아래 아치가 넓게 되어 있다. 또 출입구 측면벽을 보면 기존에 있던 벽을 철거한 흔적이 있다. 이 두 가지로 볼 때 애초에는 지금보다 좁았는데 나중에 넓힌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출입구 우측에는 폭 1,500㎜되는 개구부 흔적이 있다. 과거에 실제 출입을 위한 개구부였는지 다른 기능의 개구부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상부에는 벽돌아치가 있고 통줄눈이 보인다. 적벽돌을 황토몰탈로 조적하였다. 시멘트몰탈이 아닌 황토몰탈로 채워져 있는 것이 흥미롭다. 황토몰탈을 사용했다는 것은 매우 오래된 흔적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조전의 오랜 건설기간(10년)으로 인한 몰탈 종류의 차이이거나 아니면 1930년대 용도변경 때 폐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우측에서 돌출된 벽난로 흔적이 나왔다. 벽난로 흔적은 없지만 연도 흔적은 있고 상부에 돌출된 벽 일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확실하게 벽난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벽난로 흔적의 우측에는 개구부 흔적이 있다. 폭 1,500㎜ 정도로 통줄눈으로 되어 있다. 시멘트벽돌로 조적하였다. 상부에 벽돌아치인방은 보이지 않고 철제 각파이프로 인방을 하였다. 이 각 파이프에 졸대를 붙여 몰탈 마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서쪽 벽은 기본적으로 동쪽 벽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서로 대칭되는 셈이다. 다만 출구가 2군데 있는 것이 다르다. 그러나 이는 개구부 하나가 막혀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에 불과하다. 우측에 있는 중앙 복도 출입구는 동쪽에 있는 출입구와 같은 상태이다. 애초보다 넓혔다. 그 좌측에 있는 출입구는 동쪽 벽의 개구부 흔적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동쪽 벽은 막혀 있지만 서쪽 벽은 다른 형태의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 출입구 상부에는 콘크리트 인방이 있는데 그 위에 애초에 있던 벽돌아치가 있다. 즉, 애초 개구부 위치에 출입구를 조금 넓게 만든 것이다. 그 좌측으로 벽난로가 있다. 폭 645㎜, 높이 838㎜되는 벽난로가 있고 약하게 꺾인 연도도 나왔다. 또 돌출된 벽 부분을 철거한 흔적도 나왔다. 반대편 벽에 있는 벽난로는 지층에서부터 올라오는 연도가 있지만 이 벽면에서는 지층에서 올라오는 연도는 없는 것으로 볼 때 중앙홀에 있는 벽난로는 지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좌측에

는 개구부를 막은 흔적이 나왔다. 상부에 인방은 없고 폭은 1,500㎜이고 시멘트벽돌로 조적되어 있다.

남쪽 벽은 특이사항이 없다. 북쪽 벽은 과거 흔적이 있는 벽은 이미 예전에 철거된 상태이고 구조 보강을 위해 I-beam 6개가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사진 2-106] 1층 중앙홀 동쪽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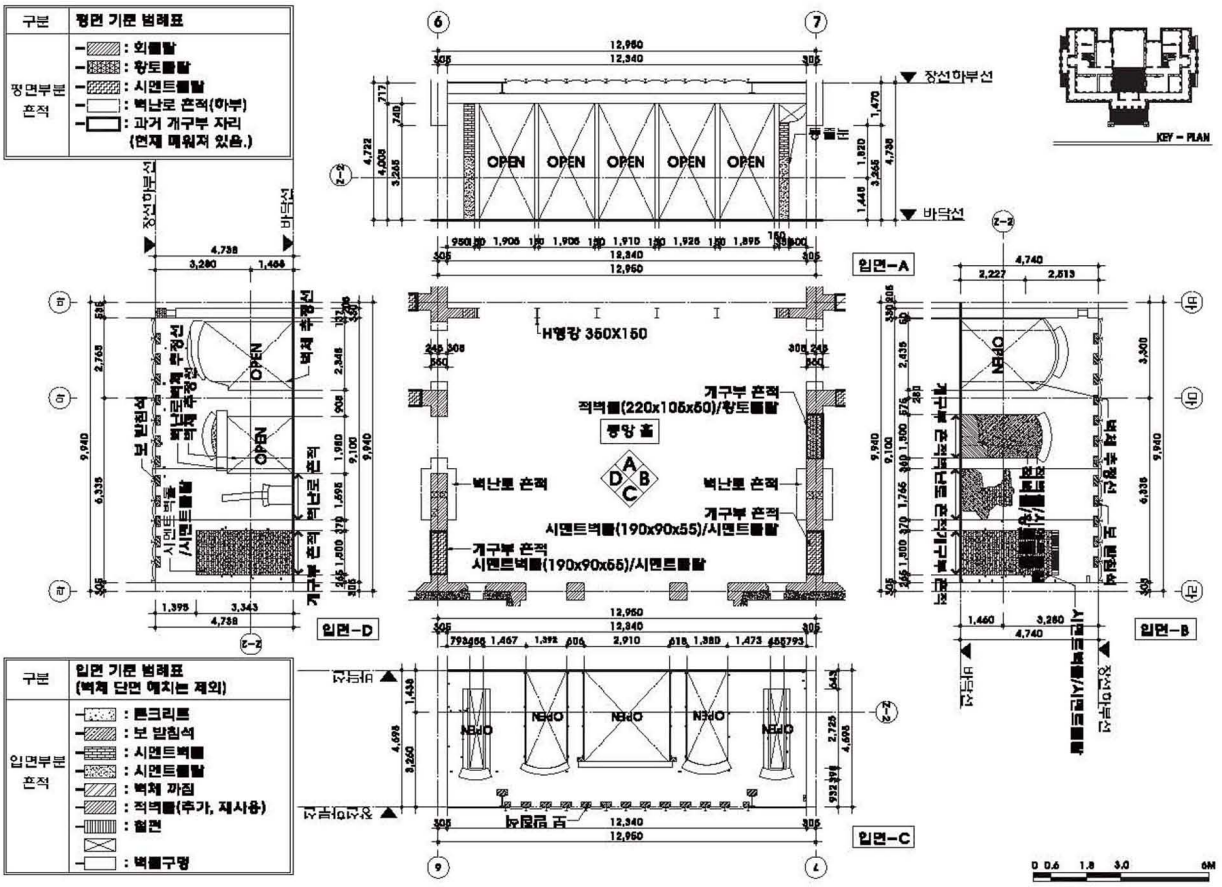
[사진 2-107] 1층 중앙홀 서쪽 벽

[사진 2-108] 1층 중앙홀 남쪽 벽

[사진 2-109] 1층 중앙홀 북쪽 벽

[사진 2-110] 1층 중앙홀 동쪽 벽 돌출 벽

[사진 2-111] 1층 중앙홀 동쪽 벽 벽난로



[도면 2-25] 1층 중앙홀 내부 입면 전개도

③ 1층 귀빈대기실과 동남1실(석조전 건립 전시, 구 대기실)

귀빈대기실과 동남1실은 1층 동남쪽 모서리에 있는 방으로 기본적으로 대식당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규모도 비슷하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는 13,46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6,065㎜이다. 2개의 벽난로가 확인되었고 5개의 개구부 흔적이 나왔다.

서쪽 벽은 중앙홀과 맞닿은 벽이다. 중앙홀 동쪽에 있는 벽난로가 반대쪽 벽의 같은 위치에 있다. 벽 중앙에 있는 벽난로는 폭 935㎜, 높이 875㎜로 위에는 꺾인 연도가 1개 있다. 벽은 돌출된 벽이었는데 돌출된 부분이 철거되어 나머지 부분과 같은 면으로 되어 있다. 벽난로와 연도는 시멘트벽돌로 채워져 있다. 그 우측에는 개구부 흔적이 있다. 폭 1,435㎜이고 상부에 벽돌아치가 있다. 적벽돌을 황토몰탈로 조적하였다. 좌측에 있는 개구부는 중앙홀과 연결되는 개구부로 구성이 같다.

북쪽 벽은 변화가 많다. 3개의 개구부 흔적과 1개의 출입구, 1개의 벽난로, 벽 철거 흔적이 확인되었다. 출입구는 폭 1,882㎜인데 상부는 콘크리트 인방으로 되어 있고 그 인방은 무척 길어서 우측 끝까지 설치되어 있다. 이 인방 아래에는 애초 개구부가 있었는데 철거되고 인방 상부에만 그 흔적이 있

다. 출입구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인방 위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즉, 기존 개구부를 조금 넓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우측으로도 개구부 흔적이 있는데 상부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아래는 철거된 후 시멘트벽돌로 조적하였기 때문에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 부분은 시멘트벽돌과 적벽돌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 즉, 기존 개구부를 막은 적벽돌 벽이 있고 그 개구부 일부를 철거하고 다시 시멘트벽돌로 조적해 막은 것이다. 복잡하게 되어 있다.

출입구 좌측에서 벽난로가 나왔다. 폭이 1,085㎜이고 높이는 875㎜이다. 상부에서 연도 흔적도 나왔다. 벽난로와 연도는 적벽돌로 메워 있었다. 폭이 넓은 것은 철거되면서 조금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벽난로 또한 돌출된 벽이었는데 철거되어 나머지 벽과 같은 면으로 되어 있다. 벽난로 좌측으로는 개구부 흔적이 있다. 폭은 1,505㎜이고 상부에는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이 부분도 적벽돌을 황토몰탈로 조적하였다. 출입구 바로 우측 상부에는 벽이 철거된 흔적이 나왔다. 대식당과 같은 구성이다. 이 흔적은 약 575㎜ 두께로 2.5B 정도 된다. 이 부분 반대편인 남쪽 벽에도 벽이 철거된 흔적이 나왔다. 따라서 대식당과 같이 귀빈대기실과 동남1실 또한 애초에 실이 2개로 구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남쪽 벽에서는 대식당과 같이 설비배관을 새끼줄로 감싼 흔적이 나왔다. 3군데에서 확인되었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다. 동쪽 벽은 창호가 설치되어 있고 특이사항은 없다.

[사진 2-112] 1층 동남1실 동쪽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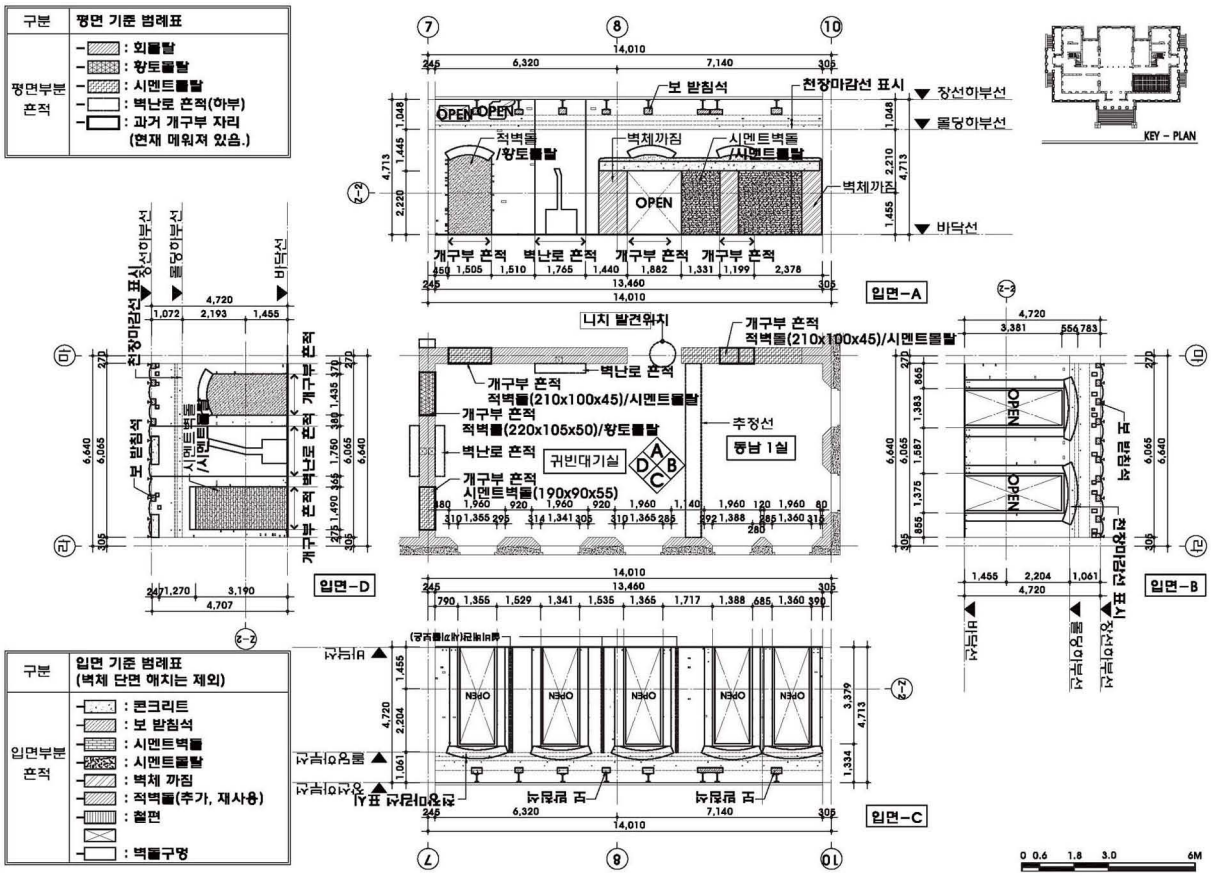
[사진 2-113] 1층 귀빈대기실 서쪽 벽

[사진 2-114] 1층 귀빈대기실과 동남1실 남쪽 벽 1

[사진 2-115] 1층 귀빈대기실과 동남1실 남쪽 벽 2

[사진 2-116] 1층 귀빈대기실과 동남1실 북쪽 벽 1

[사진 2-117] 1층 귀빈대기실과 동남1실 북쪽 벽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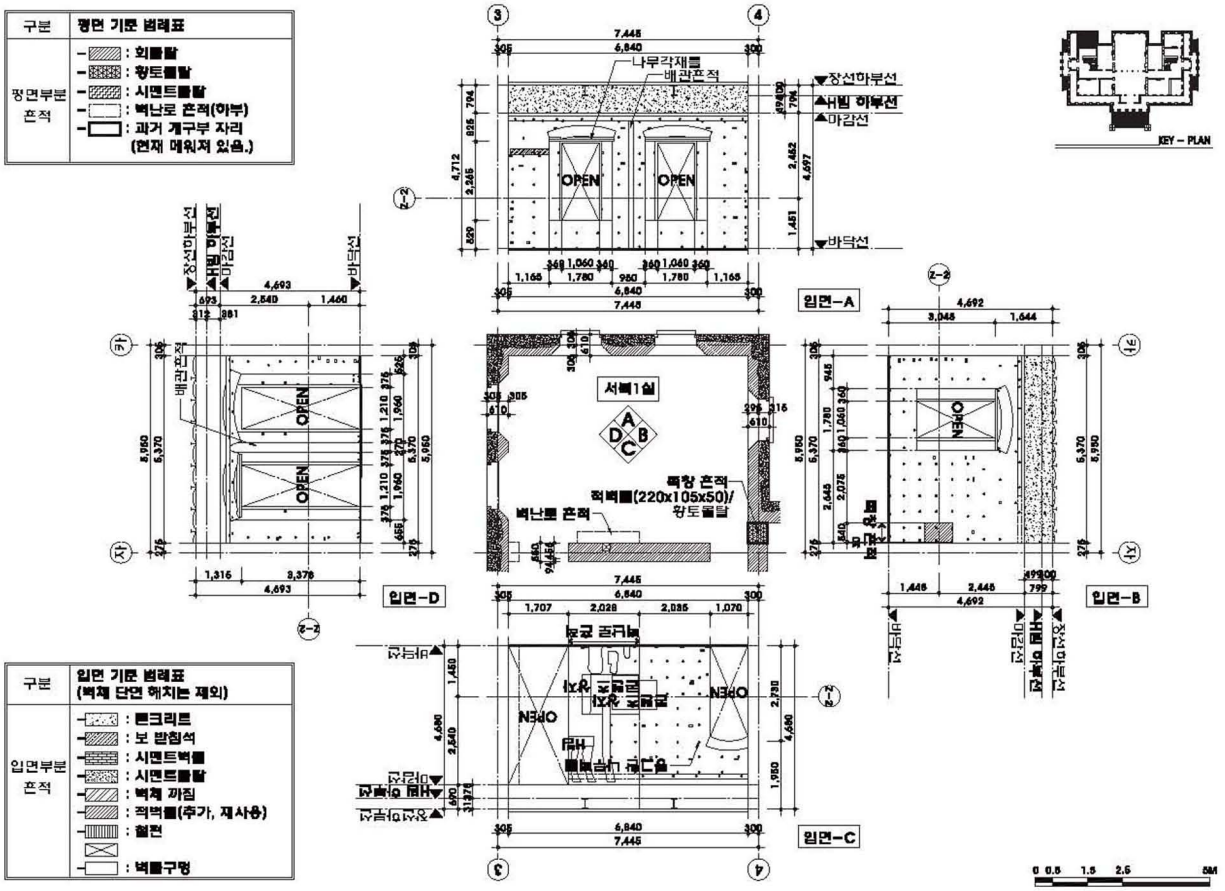
[도면 2-26] 1층 귀빈대기실과 동남1실 내부 입면 전개도

④ 1층 서북1실(대한제국 외교 전시, 구 공조실1)

서북1실은 서북쪽 모서리에 있는 방이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6,84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5,370㎜이다. 2개의 출입구와 1개의 벽난로가 있다.

남쪽 벽은 좌우측으로 출입구가 있고 중앙에는 1개의 벽난로가 있다. 좌측에 있는 출입구는 폭 1,070㎜이고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우측에도 출입구가 있는데 폭이 1,707㎜이다. 상부까지 철거되어 있었기 때문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측벽이 깨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애초 폭보다 넓어진 것은 확실하다. 중앙에는 벽난로가 확인되었다. 돌출된 벽을 철거하여 면바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벽난로가 나온 것이다. 벽난로는 많이 손상되어 그 크기를 알 수 없지만 윤곽은 희미하게 보인다. 연도 2개도 확인되었다. 1개는 지층 공조실 벽난로에서 올라오는 연도이고 1개는 이 벽난로 연도이다. 연도는 쪼개진 시멘트벽돌과 적벽돌로 채워져 있다.

서쪽 벽과 남쪽 벽에는 설비배관 흔적이 있다. 중앙부분에 있는데 시멘트몰탈로 채워져 있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다. 동쪽 벽도 특이사항이 없다.



[도면 2-27] 1층 서북1실 내부 입면 전개도

[사진 2-118] 1층 서북1실 동쪽 벽

[사진 2-119] 1층 서북1실 서쪽 벽

[사진 2-120] 1층 서북1실 북쪽 벽

[사진 2-121] 1층 서북1실 남쪽 벽

⑤ 1층 서북2실(구 공조실 2)

서북2실은 서북1실 남쪽에 면한 방이다. 평면 상황으로 봐서 서북2실의 전실 정도 되지 않는가 싶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6,84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2,890㎜이다. 3개의 출입구와 1개의 개구부 흔적이 있다. 이 공간에서 특이한 것은 천장이다. 반원형볼트로 되어 있다. 볼트 재료가 무엇인지는 마감이 해체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으나 동쪽에 있는 동북2실 반원형볼트가 벽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여기도 벽돌로 볼트를 구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석조전 평면이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인 점과 동북2실과 평면 내용이 똑같기 때문이다. 반원형볼트는 출입 통로에는 없고 중간부분에만 있다.

동쪽 벽에는 폭 1,340㎜되는 개구부 흔적이 있다. 상부에는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이 부분은 시멘트벽돌로 조적되어 있는데 그 좌측으로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된 부분이 같이 붙어 있다. 즉, 과거 개구부보다 넓게 만들었다가 다시 막은 것이다. 그 상부에는 큰 구멍이 2개 뚫려 있다. 아마도 설비를 위한 구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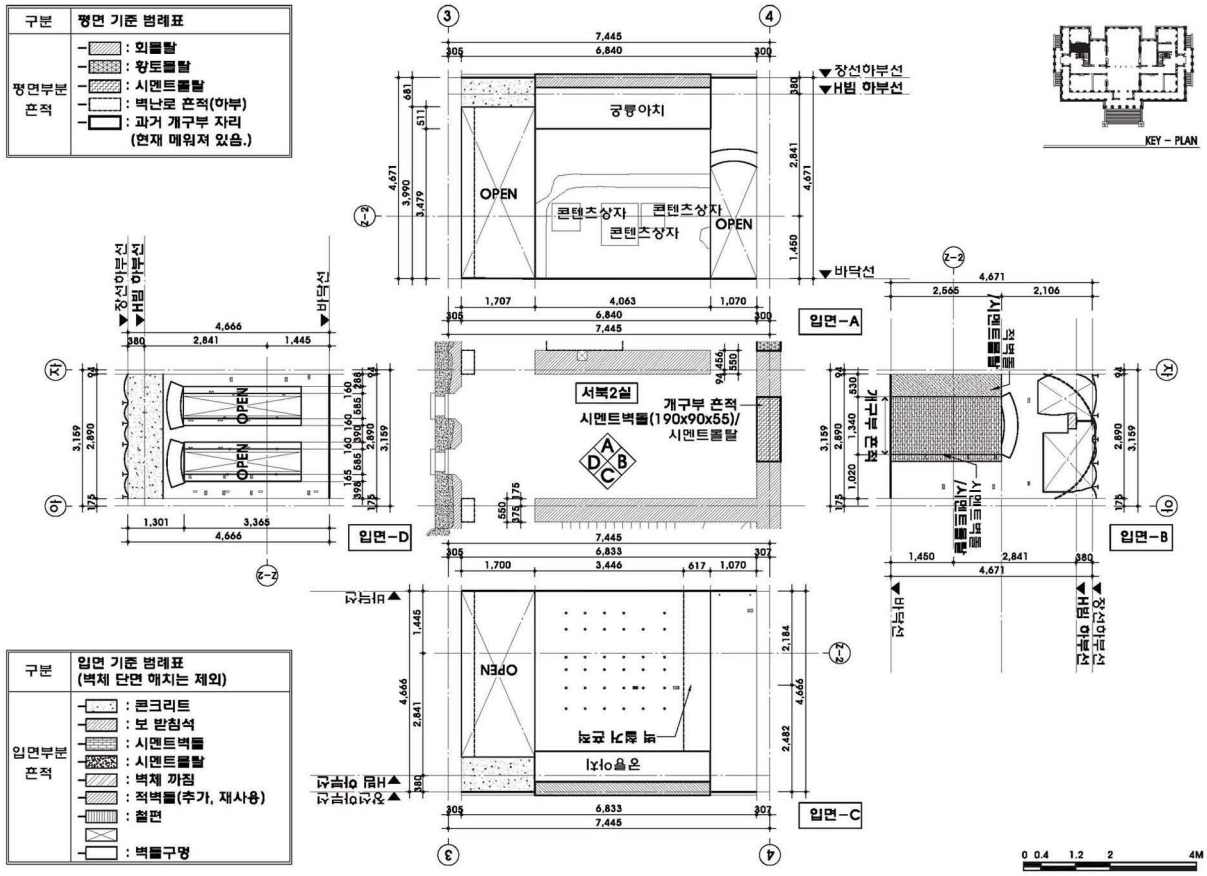
남쪽 벽 좌측에는 벽이 있었는데 철거된 흔적이 있다. 이 벽은 북쪽 벽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북쪽 벽은 몰탈을 제거하지 못해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다. 북쪽 벽과 서쪽 벽은 특이사항이 없다.

[사진 2-122] 1층 서북2실 동쪽 벽

[사진 2-123] 1층 서북2실 서쪽 벽

[사진 2-124] 1층 서북2실 남쪽 벽

[사진 2-125] 1층 서북2실 북쪽 벽



[도면 2-28] 1층 서북2실 내부 입면 전개도

⑥ 1층 서쪽 계단실 및 복도

서쪽 계단실은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6,84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7,965㎜이다. 복도는 남북방향 길이가 2,745㎜이고 동서방향 길이는 계단실 부분과 합쳐서 13,460㎜이다. 계단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오르는 돌음계단이고 콘크리트 슬라브로되어 있다. 계단은 동쪽 벽과 북쪽 벽에 면해 있다.

계단실과 복도 남쪽 벽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1개의 출입구와 4개의 개구부 흔적, 1개의 돌출벽 흔적이 있다. 이 부분은 대식당에 면한 벽으로 구성이 대식당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쪽 면에는 '니치(niche)'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니치는 벽감 또는 감실(이하 벽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식을 목적으로 두꺼운 벽면을 파서 움푹하게 후퇴시켜 만든 부분으로, 보통 장식물 등을 놓아두는 부분으로 반원형 평면이고 윗부분은 반돔형인 것이 많다. 출입구 상부에 있는 벽돌 아치인방 일부를 반원형으로 깎아내고 구성했는데 현재는 막혀 있다. 니치 흔적은 동쪽 복도의 같은 자리에서도 볼 수 있다.

복도 북쪽 벽은 소식당(서)에 면한 벽으로 1개의 출입구와 2개의 개구부 흔적이 있다. 좌측에 있는 개구부 흔적은 폭 1,255㎜이고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시멘트벽돌로 막혀 있다. 이 개구부와 약간 맞물려 출입구가 있다. 상부는 콘크리트 인방으로 되어 있다. 우측에도 개구부 흔적이 있는데 폭이 1,485㎜ 정도이다. 상부에는 벽돌 아치인방이 있고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하였다. 좌측에 있는 개구부에는 시멘트벽돌을 사용하였지만 이 개구부는 적벽돌을 사용한 것이 다르다.

계단실 서쪽 벽에는 서쪽으로 나가는 출입구와 창문 2개가 있다. 출입구 상부에는 벽돌 아치인방이 있는데 지금은 평아치로 되어 있고 그 사이는 적벽돌로 채워져 있다.

계단이 면한 동쪽 벽과 북쪽 벽은 특이사항이 없다.

[사진 2-126] 1층 서쪽 계단실과 복도 동쪽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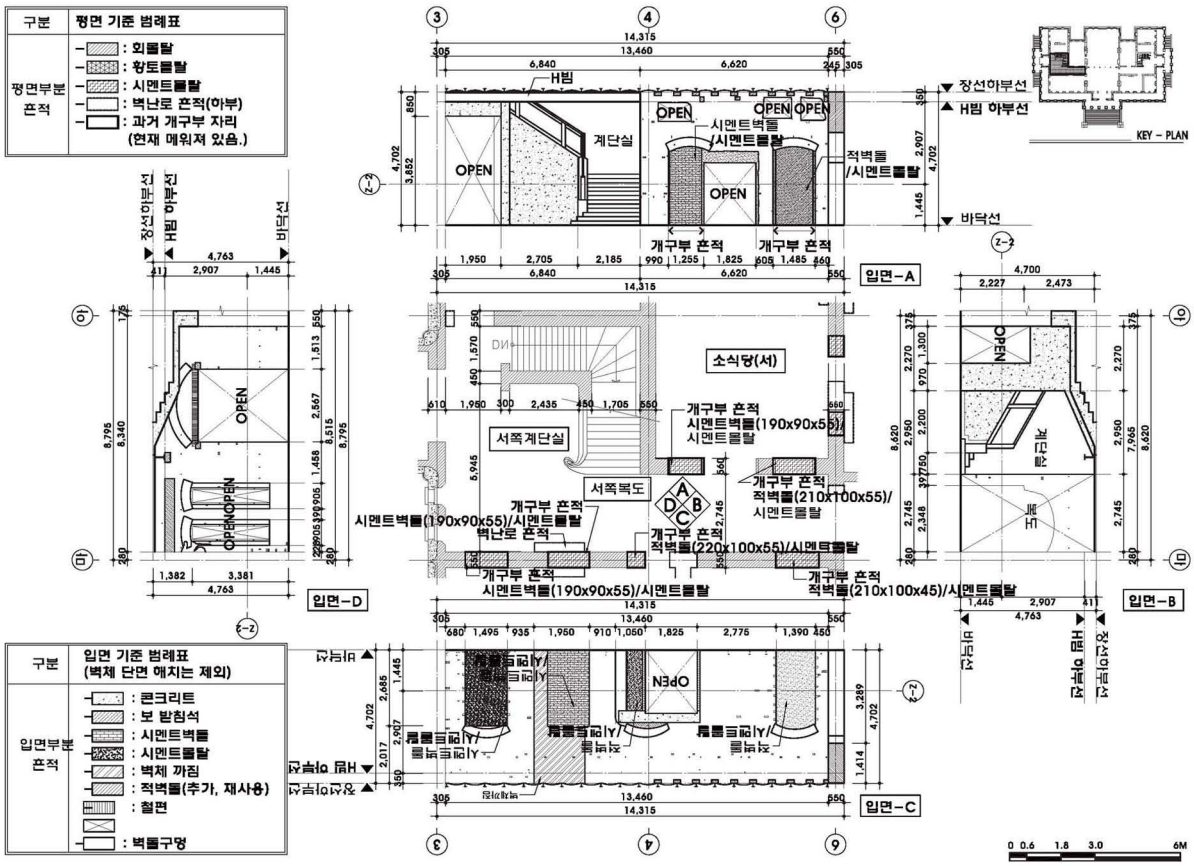
[사진 2-127] 1층 서쪽 계단실과 복도 동쪽 벽

[사진 2-128] 1층 서쪽 계단실과 복도 남쪽 벽

[사진 2-129] 1층 서쪽 계단실과 복도 북쪽 벽

[사진 2-130] 1층 서쪽 계단실과 복도 동남쪽 벽

[사진 2-131] 1층 서쪽 계단실과 복도 북서쪽 벽



[도면 2-29] 1층 서쪽계단실과 복도 내부 입면 전개도

⑦ 1층 소식당(서)(구 제2전시실)

소식당(서)는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6,045㎜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9,220㎜이다. 2개의 출입구와 6개의 개구부 흔적, 1개의 벽난로가 있다.

동쪽 벽에는 1개의 출입구, 2개의 개구부 흔적, 1개의 벽난로가 있다. 출입구는 1개의 개구부 흔적과 겹쳐 있다. 출입구 상부에는 콘크리트 인방이 있고 좌측의 개구부와 겹쳐진다. 이 개구부는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되어 있다. 출입구 우측에는 시멘트벽돌로 조적되어 있다. 즉, 기존 개구부와 함께 그 우측까지 철거하고 그 중간에 출입구를 낸 것이다. 좌측에도 개구부 흔적이 있는데 적벽돌을 황토몰탈로 조적하였다. 초기 형태인 것이다. 상부에는 벽돌아치 흔적이 있다. 벽 중간에는 벽난로가 나왔다. 돌출된 부분을 철거한 흔적도 있다. 벽난로 자체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연도는 그 실루엣이 보인다. 벽난로와 연도는 시멘트벽돌로 채워져 있었다. 벽 상부에는 3개의 큰 구멍이 있다. 모두 설비용 배관이 설치된 것이 아닌가 싶다.

서쪽 벽은 서북2실과 계단실 동쪽 벽과 면한 벽으로 서북2실과 통하는 개구부가 있다. 그 좌측에는 시멘트몰탈로 된 부분이 있다. 개구부인지 돌출된 벽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 벽 우측에는 아주 흥미로운 조그만 개구부 흔적이 있다. 적벽돌을 황토몰탈로 조적하였는데 바닥에서 약 1,000㎜ 위에 있으며 폭 540㎜, 높이 약 800㎜ 정도 된다. 이 개구부는 초기 형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용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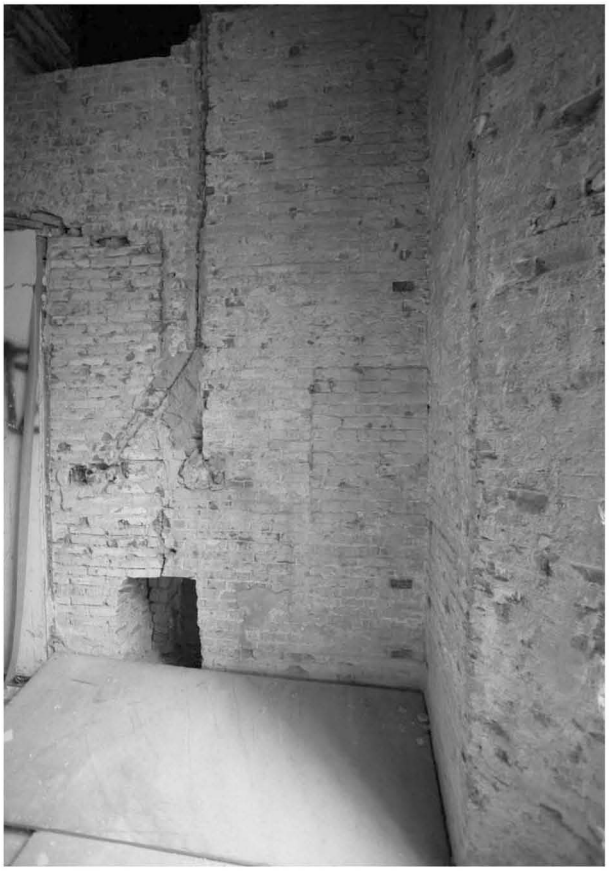
남쪽 벽은 복도에 면한 벽으로 복도 북쪽 벽과 같다. 1개의 출입구와 2개의 개구부 흔적이 있다. 복도 면과 다른 것은 콘크리트 인방이다. 복도 쪽은 짧지만 소식당에서는 꽤 길게 보이고 있다. 상부에는 3개의 구멍이 있다.

북쪽 벽은 특이사항이 없다.

[사진 2-132] 1층 소식당(서) 동쪽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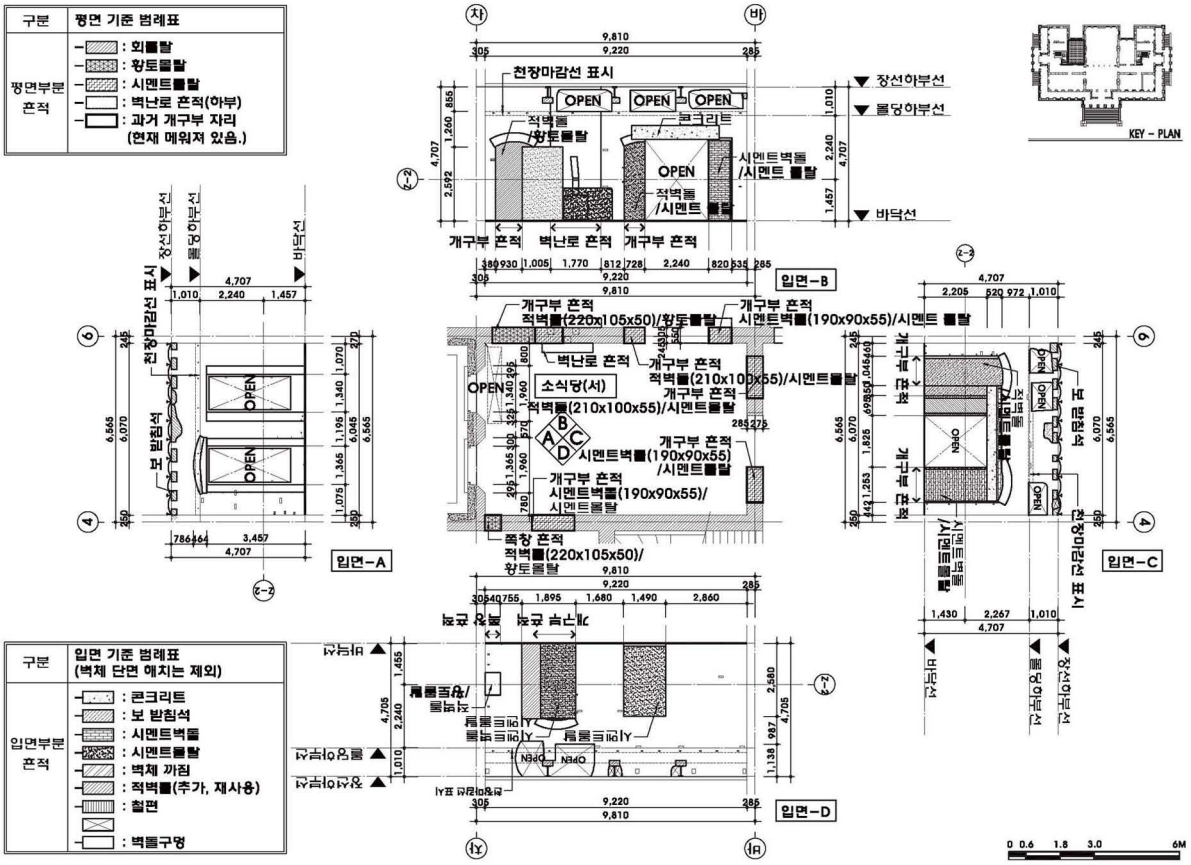
[사진 2-133] 1층 소식당(서) 서쪽 벽

[사진 2-134] 1층 소식당(서) 남쪽 벽



[사진 2-135] 1층 소식당(서) 서쪽 벽 작은 개구부 흔적

[사진 2-136] 1층 소식당(서) 북쪽 벽



[도면 2-30] 1층 소식당(서) 내부 입면 전개도

⑧ 1층 접견실(구 제3전시실)

접견실은 1층에서 가장 큰 방이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12,34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14,305㎜이다. 사방으로 개구부와 출입구가 있다. 벽난로는 동쪽과 서쪽 벽에서 각각 1개씩 총 2개가 확인되었고 돌출벽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2개 확인되었다.

서쪽 벽에는 창문 1개, 출입구 1개, 개구부 흔적 2개소가 있다. 좌측에는 현재 출입구가 있다. 상부에는 콘크리트 인방이 있고 우측으로는 개구부 흔적이 있다. 그런데 우측은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되어 있고 좌측은 시멘트벽돌로 조적되어 있다. 시차를 두고 변화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중앙부에 있는 벽난로는 모양이 이상하다. 마치 난로가 2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난로 모양이 2개이고 연도도 2개인데 한쪽 연도가 다른 쪽 연도와 연결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벽난로와 연도 부분이 적벽돌로 채워져 있어 2개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어려웠고 불분명하였다. 이 벽난로는 돌출된 벽에 있는 것인데 돌출된 벽은 철거되어 나머지 벽과 같은 면으로 되어 있다. 돌출된 벽 흔적은 출입구가 있는 상부에서 확인되었다. 돌출된 부분은 철거되어 있다. 이 부분에 출입구가 생긴 것이다. 벽난로 우측으로는 개구부 흔적이 있는데 폭은 1,440㎜이다. 이 개구부는 적벽돌을 황토몰탈로 조적하였고 상부는 벽돌 아치 인방이 있다. 초기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벽난로와 출입구 사이 벽에는 설비배관이 있다. 상부에는 3개의 비교적 큰 구멍이 있다.

동쪽 벽은 서쪽 벽과 위치와 구성 등이 같다. 이 벽에 있는 벽난로도 동쪽 벽에 있는 벽난로처럼 벽난로가 2개인 것처럼 보이고 연도도 2개가 올라가면서 1개로 연결되어 있다. 상부에는 3개의 구멍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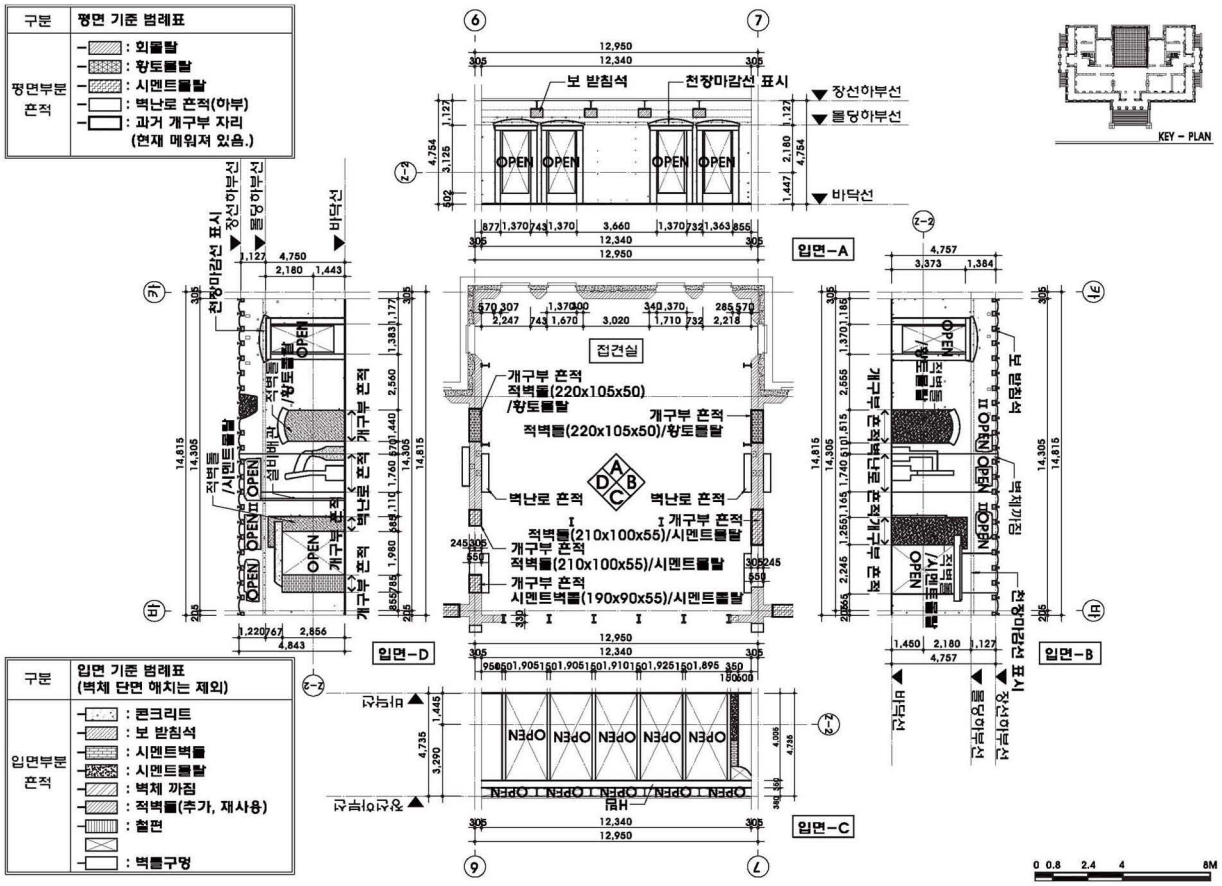
북쪽 벽은 특별한 사항이 없지만 중앙에 있는 벽에는 2줄의 설비배관 흔적이 있다. 남쪽 벽은 중앙홀과 연결되는데 벽은 없고 철골기둥만 6개가 있다.

[사진 2-137] 1층 접견실 동쪽 벽

[사진 2-138] 1층 접견실 서쪽 벽

[사진 2-139] 1층 접견실 남쪽 벽

[사진 2-140] 1층 접견실 북쪽 벽



[도면 2-30] 1층 소식당(서) 내부 입면 전개도

⑨ 1층 소식당(동)(구 제4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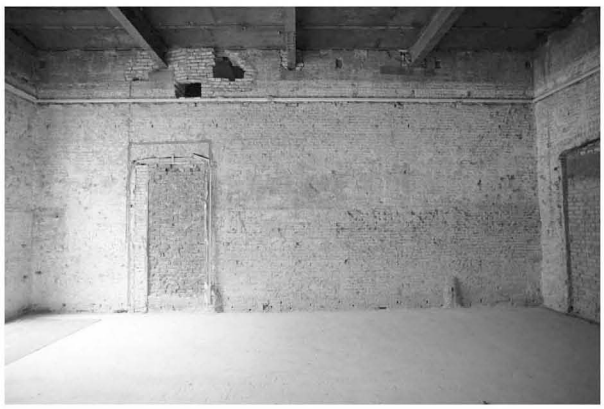
소식당(동)은 소식당(서)와 구성과 규모가 똑같다. 개구부의 수, 벽난로의 수가 같고 위치도 접견실을 기준으로 대칭되어 똑같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6,07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9,230㎜이다.

서쪽 벽에는 1개의 출입구, 2개의 개구부 흔적, 1개의 벽난로가 있다. 출입구는 1개의 개구부 흔적과 겹쳐 있다. 출입구 상부에 콘크리트 인방이 있

다. 그 우측에 겹쳐 있는 개구부는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하였다. 우측에도 개구부 흔적이 있는데 이곳에는 적벽돌을 황토몰탈로 조적하였다. 상부에 초기 형태로 보이는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벽 중간에는 벽난로가 나왔다. 돌출된 부분을 철거했기에 벽난로 자체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연도는 그 실루엣이 보인다. 벽난로와 연도는 시멘트벽돌로 채워져 있었다. 벽 상부에는 3개의 큰 구멍이 있다. 설비용 배관이 설치된 것이 아닌가 싶다.

동쪽 벽은 동북2실과 동쪽 계단실 서쪽 벽과 면한 벽인데 동북2실과 통하는 개구부가 있다. 폭이 1,370㎜이다. 이 벽 좌측에도 소식당(서)에서 확인된 아주 조그만 개구부 흔적이 있다. 적벽돌을 황토몰탈로 조적하였는데 바닥에서 약 1,000㎜ 위에 있으며 폭 540㎜, 높이 약 800㎜ 정도 된다. 이 개구부는 초기 형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용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남쪽 벽은 복도에 면한 벽이다. 1개의 출입구와 2개의 개구부 흔적이 있다. 상부는 콘크리트 인방이 길게 설치되어 있다. 출입구 우측에 면하여 개구부 흔적이 있는데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하였다.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폭은 1,450㎜이다. 좌측으로도 출입구에 면하여 개구부 흔적이 있다. 이 개구부는 시멘트벽돌로 조적하였다. 조적된 시기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상부에는 3개의 구멍이 있다. 북쪽 벽 중앙에는 새끼줄로 감싼 설비배관 흔적이 있다. 그 외에 특이사항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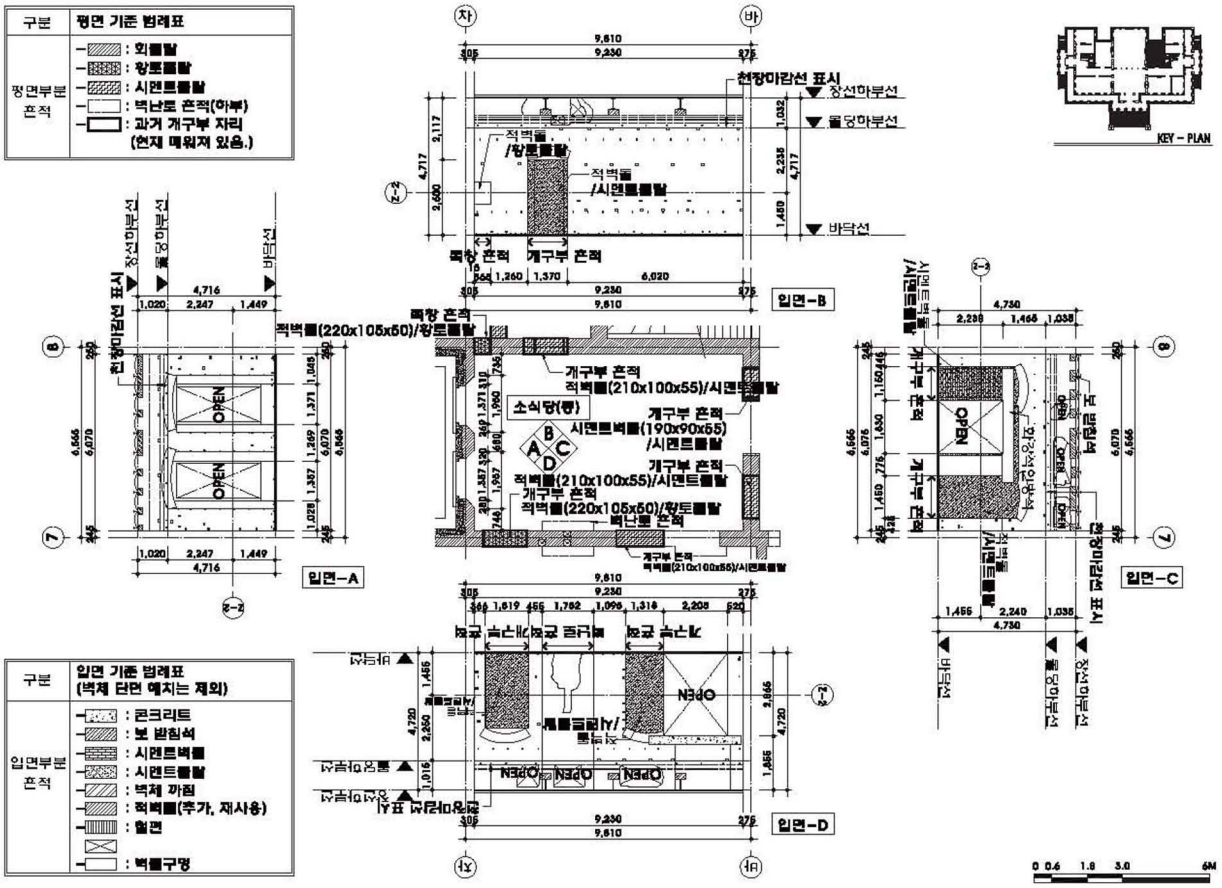


[사진 2-141] 1층 소식당(동) 동쪽 벽

[사진 2-142] 1층 소식당(동) 서쪽 벽

[사진 2-143] 1층 소식당(동) 남쪽 벽

[사진 2-144] 1층 소식당(동) 북쪽 벽



[도면 2-32] 1층 소식당(동) 내부 입면 전개도

⑩ 1층 동북1실(구 관장실)

동북1실은 1층 동북쪽 모서리에 있는 방으로 소식당(서)와 같은 구성을 하고 있고 규모도 같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6,84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5,370㎜이다.

남쪽 벽은 좌측에 출입구가 있고 우측에는 개구부 흔적, 중앙에는 1개의 벽난로가 있다. 좌측에 있는 출입구는 폭 1,180㎜이고 상부에 벽돌 아치인 방이 있다. 우측에는 개구부 흔적이 있는데 폭 1,170㎜를 시멘트벽돌로 조적하였고 상부에 벽돌아치 흔적이 있다. 중앙에는 벽난로가 확인되었다. 돌출된 벽을 철거하여 면바르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벽난로가 있는 것이다. 벽난로는 많이 손상되어 윤곽이 희미하게 보인다. 연도 1개도 확인되었다. 다른 벽난로 연도는 대부분 꺾인 형태인데 이 연도는 거의 직선으로 되어 있다. 연도는 적벽돌로 채워져 있다.

서쪽벽에는 설비배관 흔적이 있다. 중앙부분에 있는데 시멘트몰탈로 채워져 있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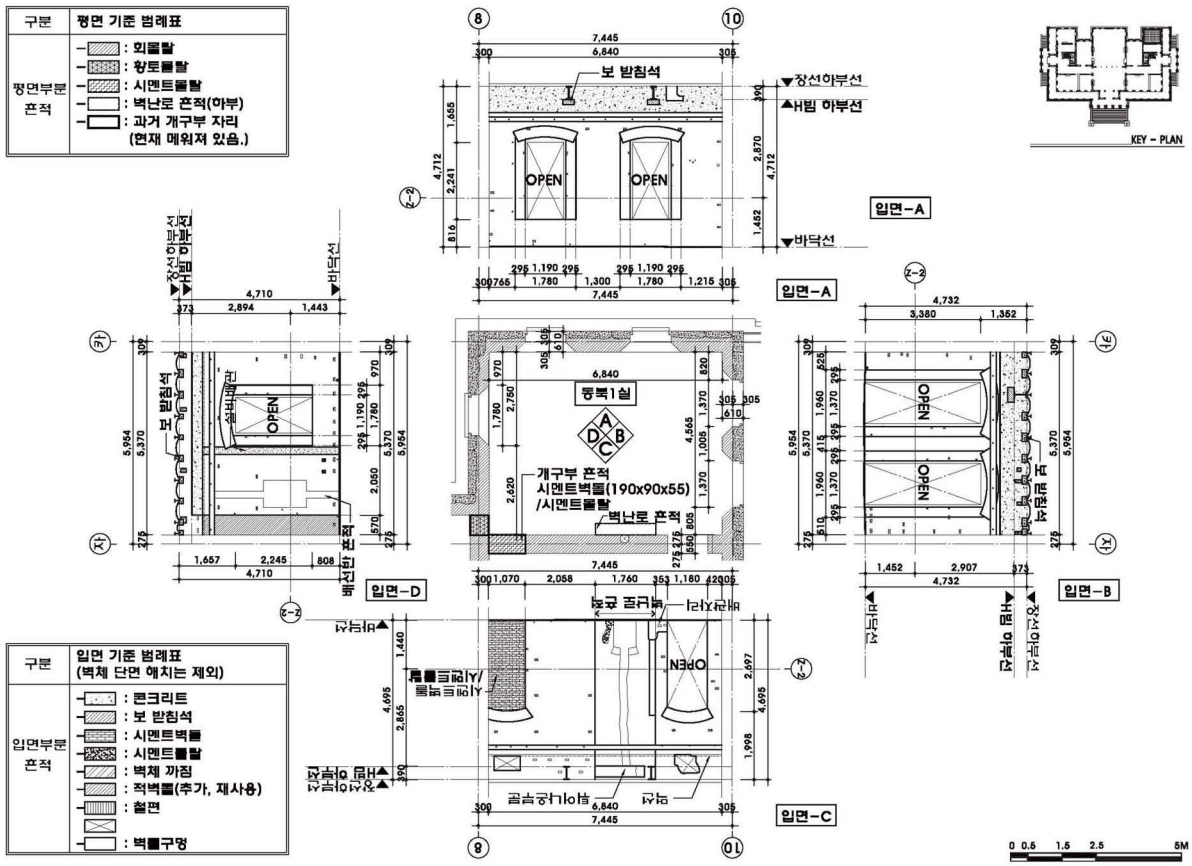
동쪽 벽과 북쪽 벽은 특이사항이 없다.

[사진 2-145] 1층 동북1실 동쪽 벽

[사진 2-146] 1층 동북1실 서쪽 벽

[사진 2-147] 1층 동북1실 남쪽 벽

[사진 2-148] 1층 동북1실 북쪽 벽



[도면 2-33] 1층 동북1실 내부 입면 전개도

⑪ 1층 동북2실(구 비서실)

동북2실은 동북1실 남쪽에 면한 방으로 서쪽에 있는 서북2실과 구성이 비슷하고 규모도 같다. 평면 상황으로 봐서 동북1실의 전실 정도 되지 않는가 싶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6,84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2,890㎜이다. 2개의 출입구와 1개의 개구부 흔적이 있다.

동쪽 벽에는 2개의 창문이 있고 서쪽 벽에는 소식당(동)과 연결되는 개구부 흔적이 있다. 이 개구부는 소식당(동)에서 보는 구성과 같다.

남쪽 벽은 좌측에 출입구가 있다. 상부는 벽돌 아치인방으로 되어 있고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다. 북쪽 벽에는 좌측에 동북1실과 연결되는 개구부가 있고 구성은 동북1실과 같은 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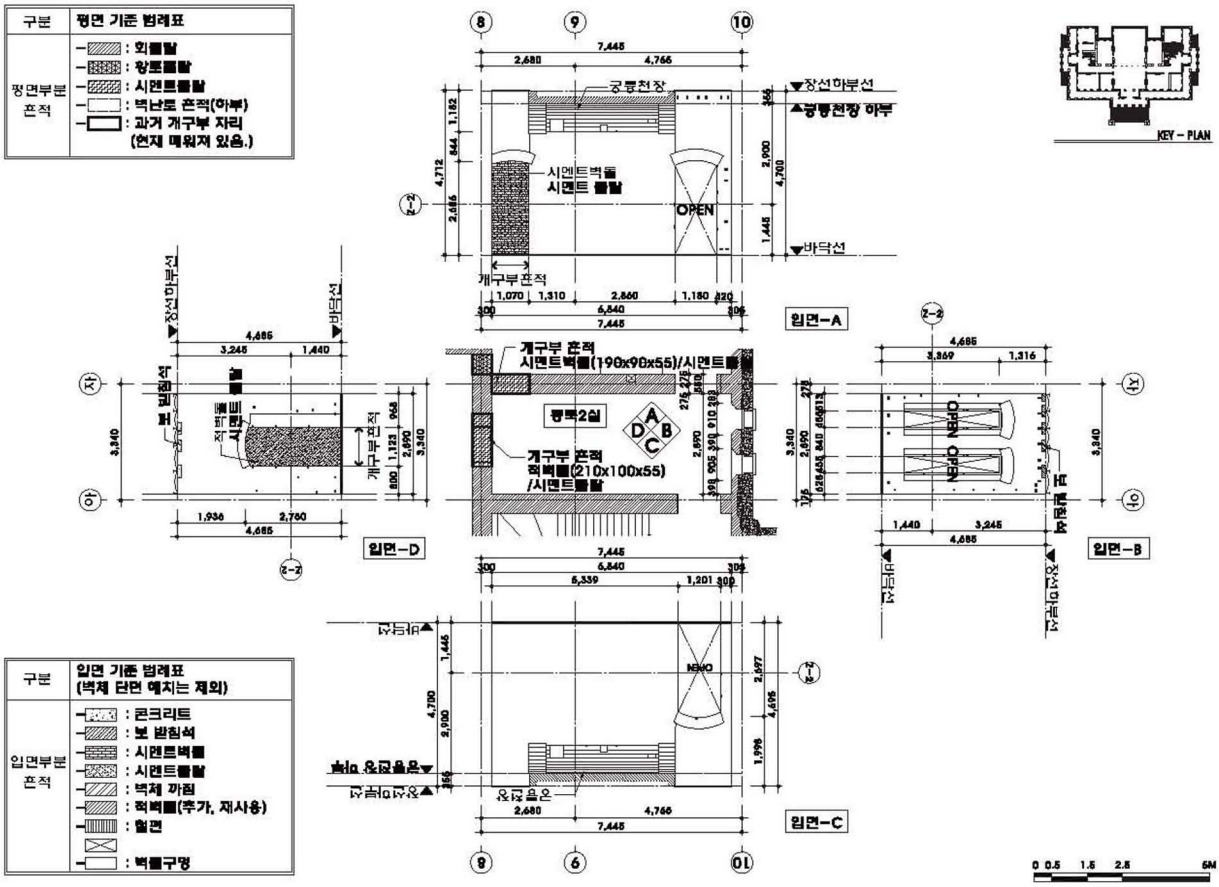
동북2실에서 특별한 것은 반원형볼트이다. 이 볼트는 서북2실에도 있다. 통로 쪽에는 없고 중앙부분에만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이 서북2실과 똑같다. 그런데 여기서는 볼트를 만든 재료가 보인다. 적벽돌로 되어 있다. 매우 치밀하게 조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벽과 맞닿는 부분 일부가 파손되어 있다. 추정하건대 변경을 하면서 천장 설치를 위해 일부를 해체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2-149] 1층 동북2실 동쪽 벽

[사진 2-150] 1층 동북2실 북서쪽 벽

[사진 2-151] 1층 동북2실 남쪽 벽

[사진 2-152] 1층 동북2실 반원형볼트



[도면 2-34] 1층 동북2실 내부 입면 전개도

⑫ 1층 동쪽 계단실과 복도

동쪽 계단실과 복도는 서쪽 계단실 및 복도와 평면이 대칭이면서 같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6,84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7,965㎜이다. 복도는 남북방향 길이가 2,745㎜이고 동서방향 길이는 계단실 부분과 합쳐서 13,460㎜이다. 계단은 시계방향으로 오르는 돌음계단이고 콘크리트 슬라브로 되어 있다. 계단은 서쪽 벽과 북쪽 벽에 면해 있다.

계단실과 복도 남쪽 벽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1개의 출입구와 3개의 개구부 흔적, 1개의 돌출벽 흔적이 있다. 이 부분은 대기실에 면한 벽으로 그 구성이 대기실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쪽 면에서도 서쪽 중앙복도에서 보였던 벽감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출입구 상부에 있는 벽돌 아치인방 일부를 반원형으로 깎아내고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는 막혀 있다.

복도 북쪽 벽은 소식당(동)에 면한 벽으로 1개의 출입구와 2개의 개구부 흔적이 있다. 지금의 출입구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좌측에 있는 개구부 흔적은 폭 1,450㎜이고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시멘트벽돌로 조적되어 있고 막혀 있다. 중앙에는 출입구가 있다. 상부는 콘크리트 인방으로 되어

있다. 이 개구부와 맞물려 우측으로 개구부 흔적이 있다. 즉, 기존 개구부 일부를 철거하고 출입구를 낸 것이다. 상부에는 벽돌 아치인방이 있는데 콘크리트 인방 위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는 것이다. 좌측에 있는 개구부는 시멘트벽돌을 사용하였지만 이 개구부는 적벽돌을 사용한 것이 다르다.

계단실 동쪽 벽은 서쪽으로 나가는 출입구와 창문 2개가 있다. 출입구 상부는 벽돌 아치인방이 있는데 지금은 평아치로 되어 있고 그 사이는 적벽돌로 채워져 있다.

계단이 면한 동쪽 벽과 북쪽 벽은 특이사항이 없다.

[사진 2-153] 1층 동쪽계단실 동쪽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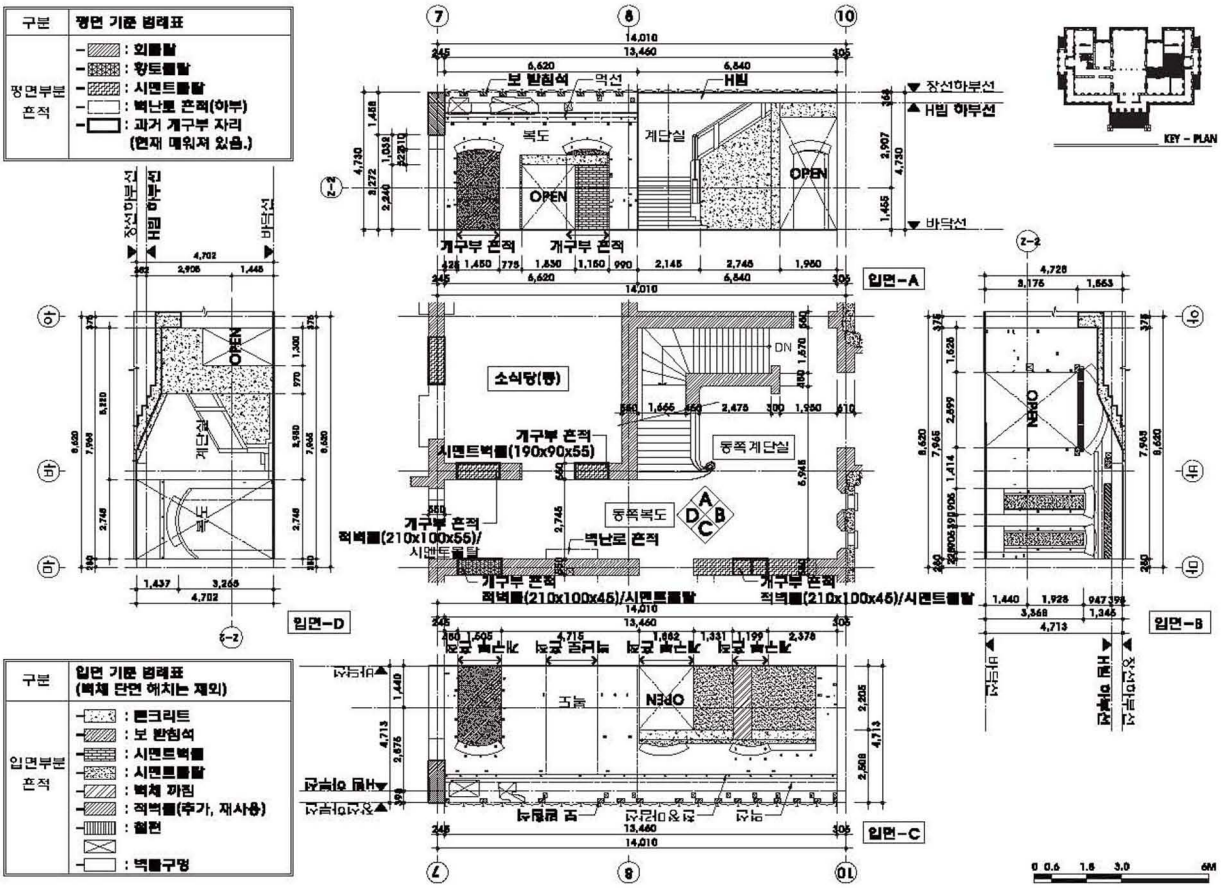
[사진 2-154] 1층 동쪽계단실 서쪽 벽 1

[사진 2-155] 1층 동쪽계단실 남쪽 벽 1

[사진 2-156] 1층 동쪽계단실 북쪽 벽

[사진 2-157] 1층 동쪽계단실 남쪽 벽 2

[사진 2-158] 1층 동쪽계단실 서쪽 벽 2



[도면 2-35] 1층 동쪽계단실과 복도 내부 입면 전개도

⑬ 1층 방풍실

1층에는 방풍실이 3개소 있다. 이 방풍실이 출입구가 된다.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에 있다. 이 방풍실 위는 2층 복도가 있는 부분이 된다. 동쪽과 서쪽은 규모가 같고 남쪽은 동·서 방풍실보다 조금 크다. 동쪽과 서쪽 방풍실은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2,315㎜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3,850㎜이다. 남쪽 방풍실은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7,314㎜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2,320㎜이다. 동선방향으로 출입구가 있고 그 직각방향은 창문으로 되어 있다.

벽은 애초 건설 당시와 같다. 지층은 벽마감이 화강석으로 되어 있지만 1층은 회몰탈로 되어 있었다. 내부 출입구 상부에는 벽돌 아치인방으로 되어 있는데 아치가 끝나는 위치에 철제 형강으로 틀을 짜 평아치를 만들었다. 이 철제 아치 앞뒤로 졸대를 대어 몰탈이 접착되도록 하였다. 외부 출입구 상부는 화강석을 인방으로 사용하였다.

[사진 2-159] 1층 동쪽 방풍실 동쪽 벽

[사진 2-160] 1층 동쪽 방풍실 서쪽 벽

[사진 2-161] 1층 동쪽 방풍실 남쪽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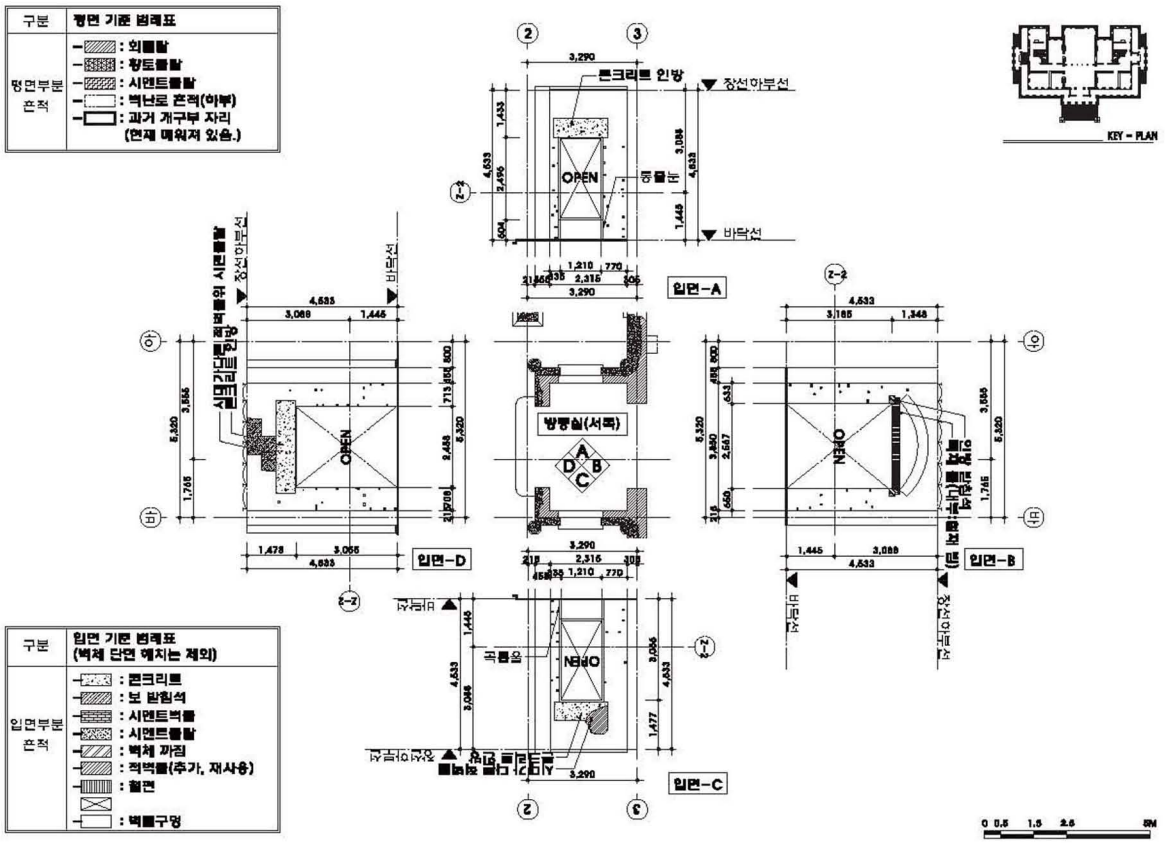
[사진 2-162] 1층 동쪽 방풍실 북쪽 벽

[사진 2-163] 1층 서쪽 방풍실 동쪽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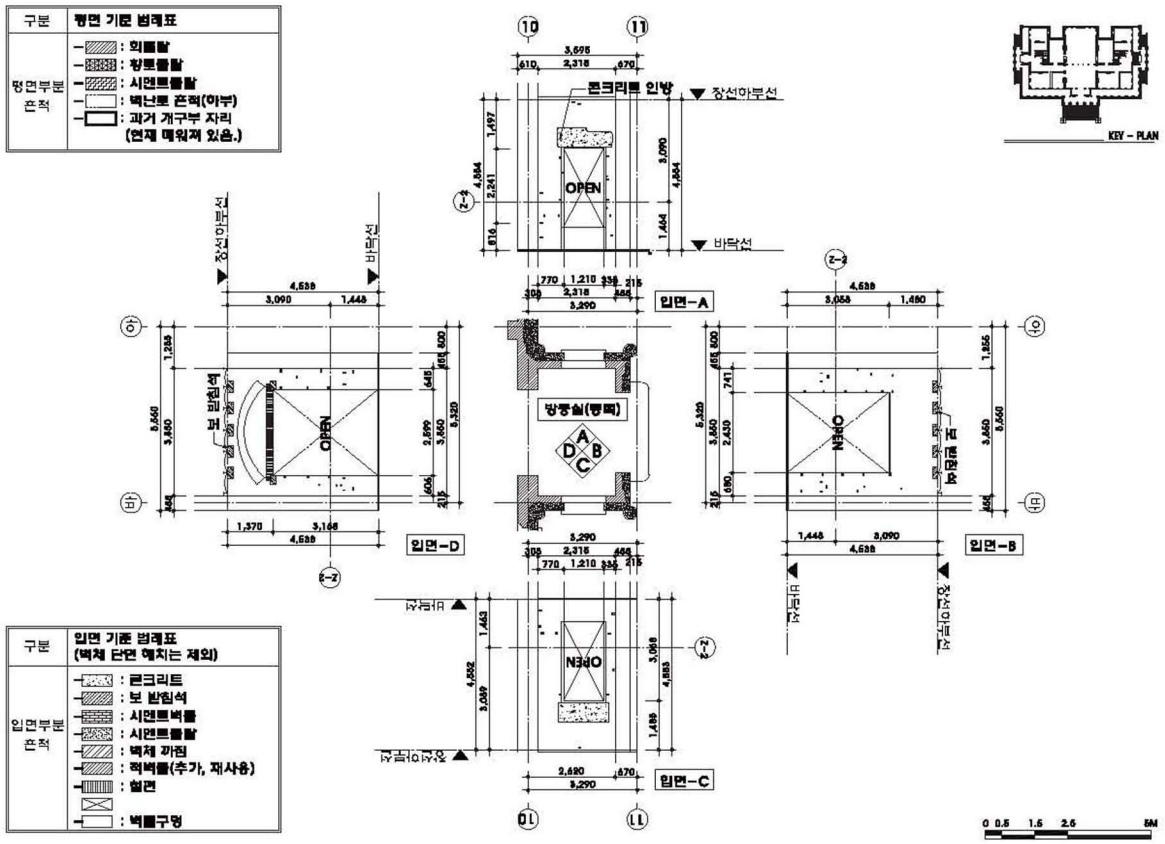
[사진 2-164] 1층 서쪽 방풍실 서쪽 벽

[사진 2-165] 1층 서쪽 방풍실 남쪽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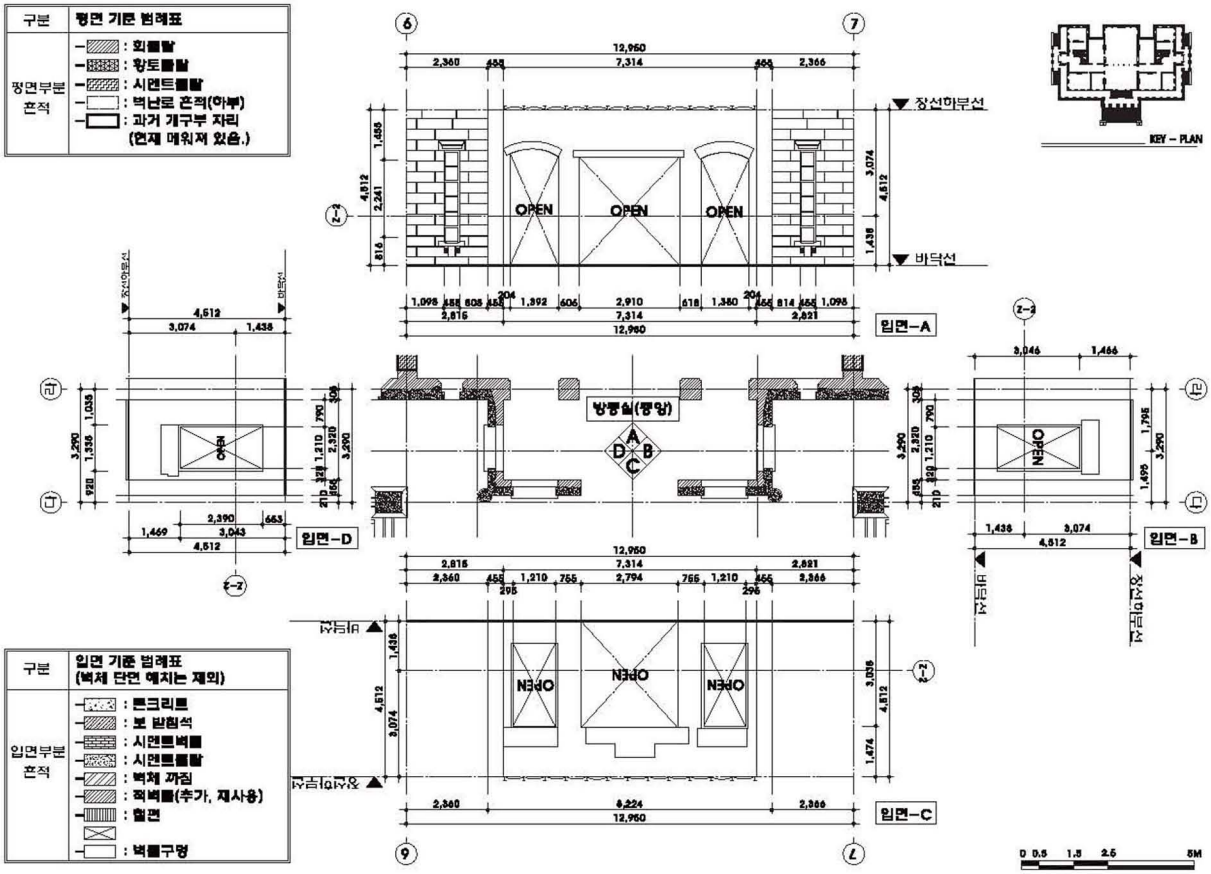
[사진 2-166] 1층 서쪽 방풍실 북쪽 벽



[도면 2-36] 1층 서쪽 방풍실 내부 입면 전개도



[도면 2-37] 1층 동쪽 방풍실 내부 입면 전개도



[도면 2-38] 1층 중앙 방풍실 내부 입면 전개도

4) 2층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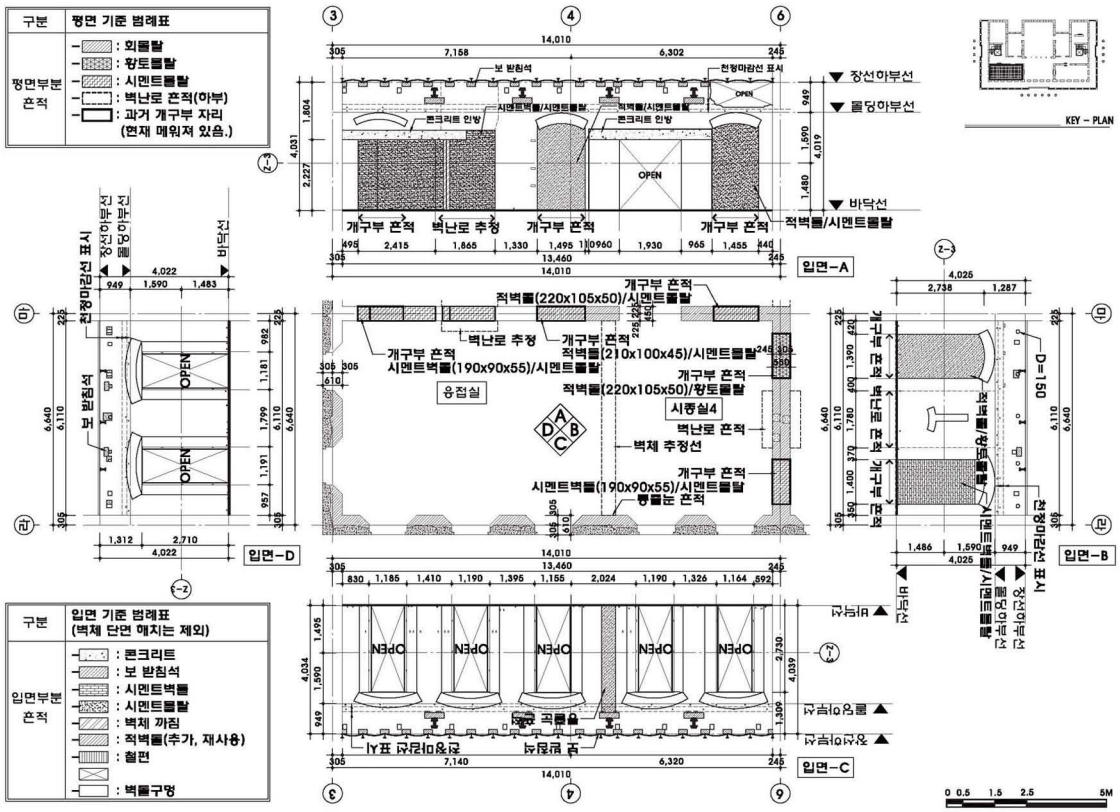
① 2층 응접실과 시종실4(고종의 강제퇴위 및 명성황후와 순헌황귀비 전시, 구 제10전시실)

응접실과 시종실4는 2층 서남쪽 모서리에 있는 방이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13,46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6,110㎜이다. 이 방은 원래 2개실로 구획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1개실로 되어 있다. 남쪽 벽과 서쪽 벽은 창문이 있고 동쪽과 북쪽은 칸막이벽이다.

동쪽 벽에는 2개의 개구부 흔적과 1개의 벽난로 흔적이 있다. 개구부 흔적은 좌측과 우측에 있다. 좌측에 있는 개구부는 폭 1,390㎜인데 적벽돌을 황토몰탈로 조적하였고 상부에는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황토몰탈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초기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우측에 있는 개구부는 폭이 1,400㎜인데 시멘트벽돌로 조적되어 있다.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그런데 좌측 인방 부분과 우측 인방 부분이 조금 다르다. 좌측 인방의 아치부분 밑은 적벽돌로 채워져 있는데 우측 인방의 밑은 졸대로 마감되어 있다. 시기와 처리 방법이 모두 다른 것이다. 중앙에는 벽난로 흔적이 있다. 벽난로 부분은 명확하지 않으나 연도부분은 오지관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벽난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벽난로가 있는 부분의 벽은 돌출되어 있었는데 돌출된 부분은 철거된 상태였다.

북쪽 벽은 1층 대식당처럼 조금 복잡하다. 4개의 개구부 흔적과 1개의 출입구가 있다. 4개 개구부 중 3개는 애초 개구부이고 1개는 1987년 만들어진 개구부이다. 이 개구부는 애초 개구부와 중첩되어 있다. 개구부는 모두 막혀 있는 상태이고 출입구는 우측쪽에 있다. 이 출입구는 1987년에 만들어졌는데, 좌측에 당시 같이 만든 개구부가 있다. 둘 다 상부에 콘크리트 인방이 있다. 그런데 좌측 개구부는 출입구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시멘트벽돌로 막혀 있다. 좌측에 있는 애초 개구부는 새 개구부와 중첩되어 있는데 하부 쪽은 새 개구부를 만들면서 없어지고 상부에 벽돌 인방 아치만 남아 있다. 중앙에도 개구부 흔적이 있다. 폭 1,498㎜이고 상부에 벽돌 인방 아치가 있다.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하였다. 우측에도 개구부 흔적이 있는데 폭이 1,455㎜이다.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고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하였다. 벽난로 흔적은 좌측에 있는데 좌측 개구부가 1987년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그 흔적은 거의 없고 상부에만 흔적이 일부 남아 있다. 이 방 아래층인 1층의 같은 위치에 벽난로와 연도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상층인 이 부분도 벽난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쪽 벽과 남쪽 벽은 특이사항이 없다. 다만 창문 위쪽이 조금 재미있다. 벽돌 아치인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아래에 졸대로 평아치가 있다. 여기에 미장재로 마감한 것이다. 모든 창문 위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도면 2-39] 2층 응접실과 시종실4 내부 입면 전개도

[사진 2-167] 2층 시종실4 동쪽 벽

[사진 2-168] 2층 응접실 서쪽 벽

[사진 2-169] 2층 응접실과 시종실4 남쪽 벽 1

[사진 2-170] 2층 응접실과 시종실4 남쪽 벽 2

[사진 2-171] 2층 응접실과 시종실4 북쪽 벽 1

[사진 2-172] 2층 응접실과 시종실4 북쪽 벽 2

② 2층 시종실1, 2, 3(구 제6전시실)

시종실1, 2, 3은 2층 동남쪽 모서리에 있는 방으로 서쪽에 있는 응접실과 시종실4와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벽난로와 개구부 위치와 구성, 면적이 같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13,46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6,110㎜이다. 이 방 또한 원래 2개실로 구획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개실로 되어 있다. 남쪽 벽과 동쪽 벽에는 창문이 있고 서쪽과 북쪽은 칸막이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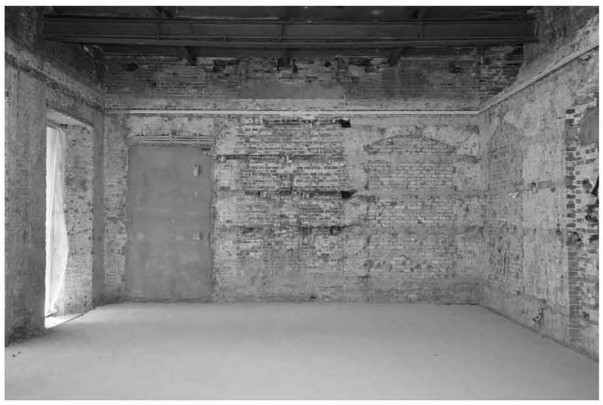
서쪽 벽에는 2개의 개구부 흔적과 1개의 벽난로 흔적이 있다. 개구부 흔적은 좌측과 우측에 있다. 우측에 있는 개구부는 폭 1,400㎜인데 적벽돌을 황토몰탈로 조적하였고 상부에는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황토몰탈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초기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우측에 있는 개구부는 폭이 1,443㎜인데 시멘트벽돌로 조적되어 있다.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그런데 좌측 인방 부분과 우측 인방 부분이 조금 다르다. 좌측의 아치부분 밑은 적벽돌로 채워져 있는데 우측의 아치부분 밑은 졸대로 마감되어 있다. 시기도 다르고 처리 방법도 다른 것이다. 중앙에는 벽난로 흔적이 있다. 벽난로 부분은 명확하지 않으나 연도부분에서 오지관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벽난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난로와 연도는 적벽돌로 채워져 있다. 벽난로가 있던 부분 벽은 돌출된 벽이었고 돌출된 부분은 철거된 상태였다.

북쪽 벽은 응접실과 시종실4처럼 조금 복잡하다. 4개의 개구부 흔적과 1개의 출입구가 있다. 4개 개구부 중 3개는 애초 개구부이고 1개는 1987년에 만들어진 개구부이다. 이 개구부는 애초 개구부와 중첩되어 있다. 개구부는 모두 막혀 있는 상태이고 출입구는 왼쪽에 있다. 출입구 상부에도 콘크리트 인방이 길게 걸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출입구 역시 1987년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1987년에 같이 만들어진 개구부가 좌측에도 있다. 그런데 우측 개구부는 출입구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시멘트벽돌로 막혀 있다. 우측에 있는 애초 개구부는 새 개구부와 중첩되어 있는데 하부 쪽은 새 개구부를 만들면서 없어지고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만 남아 있다. 중앙에도 개구부 흔적이 있다. 폭 1,440㎜이고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하였다. 좌측에도 개구부 흔적이 있는데 폭이 1,500㎜이다.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고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하였다. 벽난로 흔적은 중앙에서 조금 좌측에 있는데 좌측 개구부가 1987년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그 흔적 중 일부만 남아 있고 연도는 명확하게 남아 있다. 연도는 꺾인 형태인데 벽돌로 채워져 있지 않고 오지관이 아주 명확하게 남아 있다. 이 방 바로 아래층인 1층의 같은 위치에 벽난로가 있어 여기서 연도가 2개 보여야 한다. 그런데 보이는 연도는 1개뿐이다. 벽난로 일부가 철거된 상태여서 이 연도가 아래층에서 연결되는 연도인지 이 방 연도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연도가 비교적 좌측으로 쏠려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연도는 1층 벽난로 연도이고 2층 연도는 철거된 부분에 있지 않나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벽난로가 있는 부분은 돌출되어 있었는데 돌출된 벽은 철거된 상태이다.

서쪽 벽과 남쪽 벽은 특이사항이 없다. 다만 창문 위쪽의 인방 구성은 서쪽 응접실과 시종실4와 같이 졸대로 된 평아치로 되어 있다. 모든 창문 위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사진 2-173] 2층 시종실1, 2, 3 동쪽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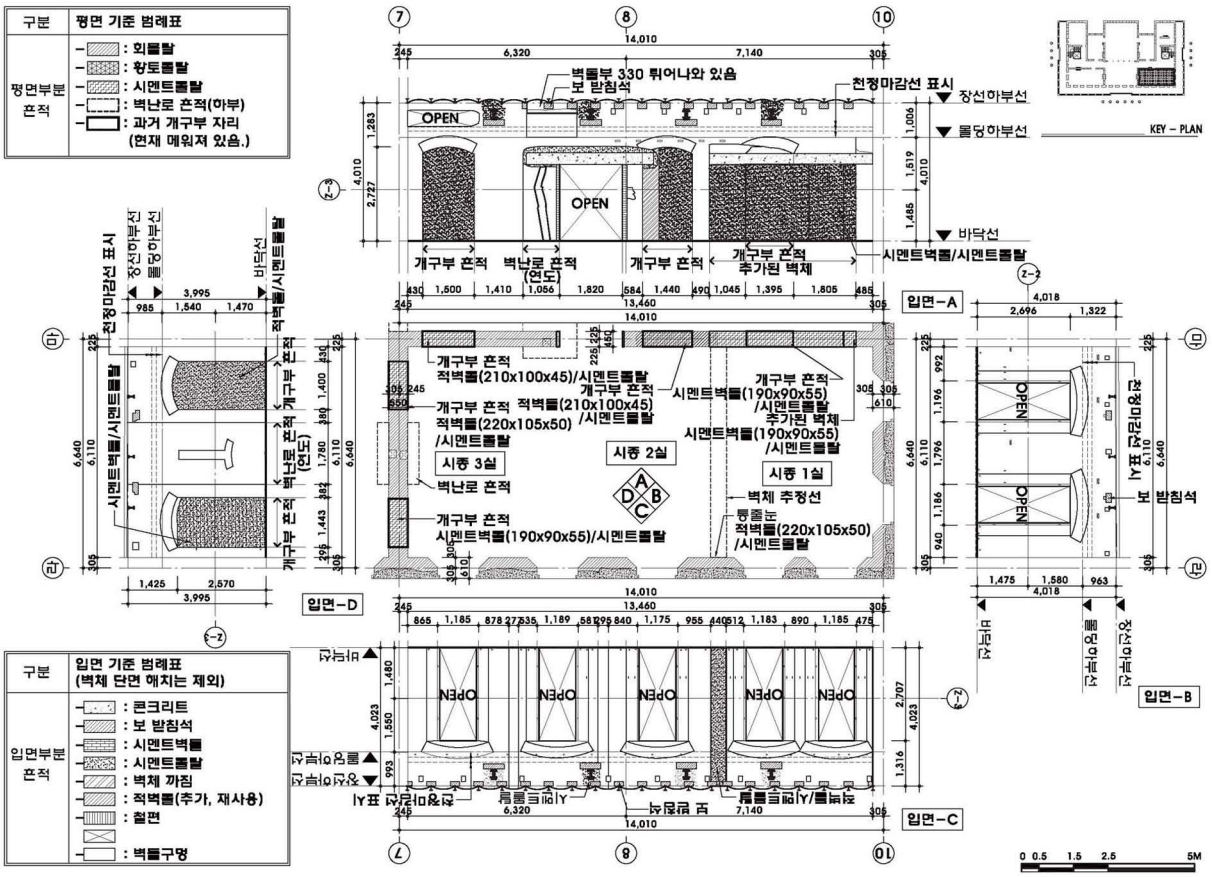
[사진 2-174] 2층 시종실1, 2, 3 서쪽 벽

[사진 2-175] 2층 시종실1, 2, 3 남쪽 벽 1

[사진 2-176] 2층 시종1, 2, 3 남쪽 벽 2

[사진 2-177] 2층 시종실1, 2, 3 북쪽 벽 1

[사진 2-178] 2층 시종실1, 2, 3 북쪽 벽 2



[도면 2-40] 2층 시종실 1,2,3실 내부 입면 전개도

③ 2층 중앙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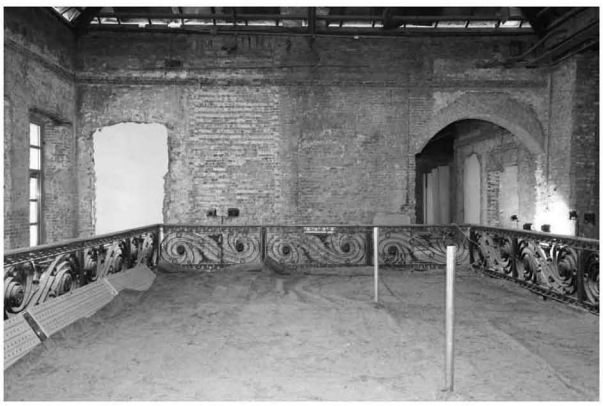
2층 중앙홀은 바닥이 개방되어 있어 1층 중앙홀과 1개 실로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벽 쪽으로만 일부가 통로로 사용되고 있고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평면 형태와 규모, 구성 등이 모두 1층 중앙홀과 같다. 여기서 촬영된 영친왕 사진이 있다. 홀이다 보니 사방으로 동선이 연결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출입구가 많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12,340㎜ 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9,100㎜ 이다.

동쪽 벽에는 1개의 출입구와 2개의 개구부 흔적, 1개의 벽난로 흔적이 확인되었다. 좌측에 있는 출입구는 중앙복도로 연결되는 출입구인데 애초보다 넓힌 것이다. 상부는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이 아치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벽돌 아치인방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폭을 넓히면서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출입구 측면 벽을 보면 기존에 있던 벽을 철거한 흔적이 있다. 이 두 가지로 볼 때 애초에는 지금보다 좁았는데 나중에 넓힌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출입구 우측에는 폭 1,500㎜ 되는 개구부 흔적이 있다. 이 개구부 또한 1층처럼 과거에 실제 출입을 위한 개구부였는지 다른 기능의 개구부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상부에는 벽돌 아치가 있고 통줄눈이 보인다. 적벽돌을 황토몰탈로 조적하였다. 그 우측에서 돌출된 벽 흔적이 나왔다. 벽난로와 연도 흔적은 없었지만 1층과 비교할 때 이곳에 벽난로가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돌출된 부분은 철거되어 나머지 벽면과 같은 면으로 되어 있다. 그 우측에는 또 개구부 흔적이 있다. 폭 1,505㎜ 정도로 통줄눈으로 되어 있다. 시멘트벽돌로 조적하였다.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보인다.

서쪽 벽도 동쪽 벽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서로 대칭되는 셈이다. 우측에 있는 중앙 복도 출입구는 동쪽에 있는 출입구와 같은 상태이다. 애초보다 넓혔다. 그 좌측에 있는 출입구는 동쪽 벽 개구부 흔적과 같은 위치에 있으며 막혀 있다. 적벽돌이 황토몰탈로 조적되어 있다.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그 좌측으로는 돌출벽 흔적이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벽난로나 연도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동쪽 벽과 구성이 같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 벽난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좌측에서는 개구부를 막은 흔적이 나왔다.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고 폭 1,495㎜로 시멘트벽돌로 조적되어 있다.

남쪽 벽은 특이사항이 없다. 북쪽은 과거 흔적이 있는 벽은 이미 예전에 철거된 상태이고 구조 보강을 위해 I-beam 4개가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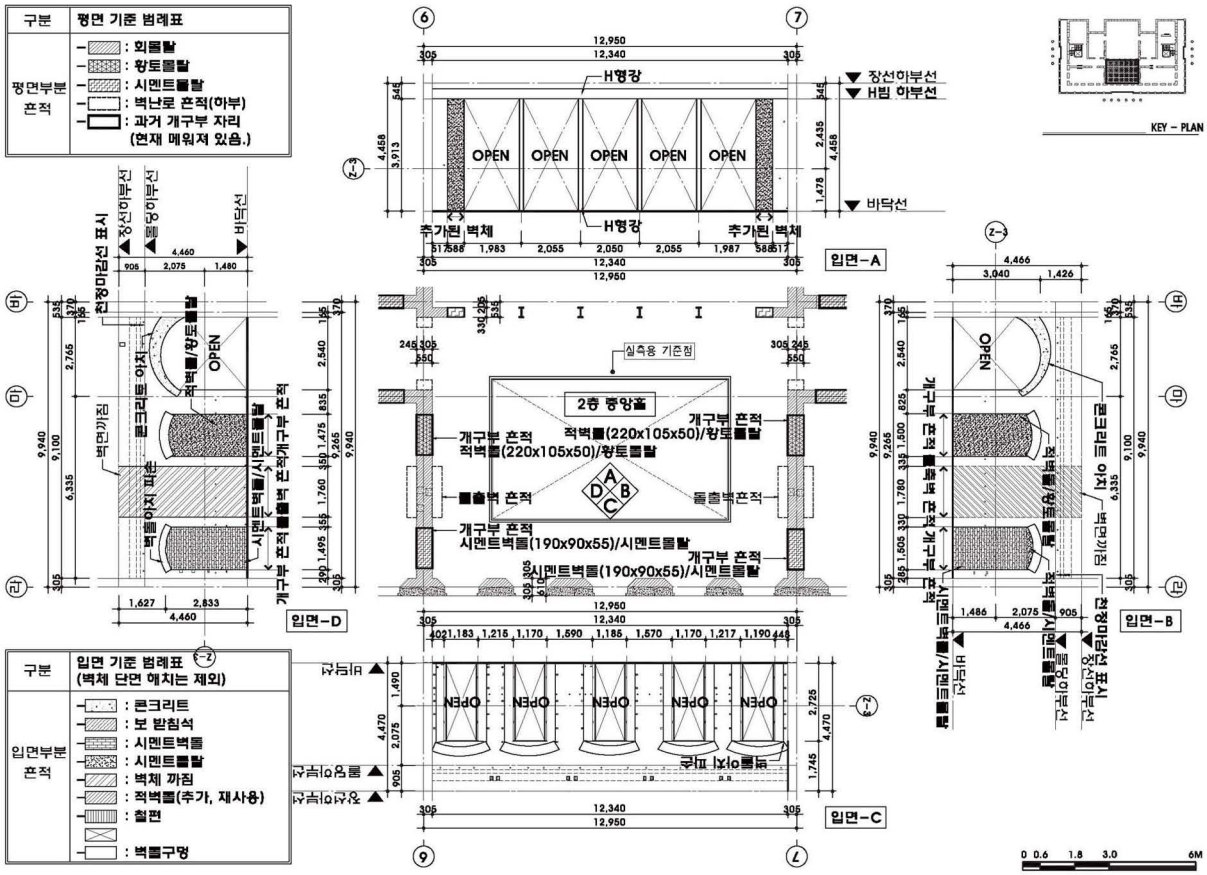
[사진 2-179] 2층 중앙홀 동쪽 벽



[사진 2-180] 2층 중앙홀 서쪽 벽

[사진 2-181] 2층 중앙홀 남쪽 벽

[사진 2-182] 2층 중앙홀 북쪽 벽



[도면 2-41] 2층 중앙홀 내부 입면 전개도

④ 2층 서북1실, 서북2실(영친왕과 영친왕비 전시, 구 문화사랑방)

서북1실은 서북쪽 모서리에 있는 방이다. 1층 서북1실 상층에 있는 방인데 1층 서북1실처럼 원래는 준비실과 전실로 되어 있던 방이다. 그런데 사이 칸막이벽을 철거하고 지금은 1개의 실로 되어 있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6,84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8,710㎜이다. 1개의 출입구와 2개의 개구부 흔적이 있다.

동쪽 벽에는 1개의 창문과 2개의 개구부 흔적이 있다. 2개의 개구부 중 1개는 초기 개구부이고 1개는 후대 조성된 개구부 흔적이다. 초기 개구부 흔적은 적벽돌을 황토몰탈로 조적하였고 상부에는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이 개구부와 좌측으로 중첩되면서 후대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개구부가 있다. 상부에는 콘크리트 인방이 있고 적벽돌을 황토몰탈로 조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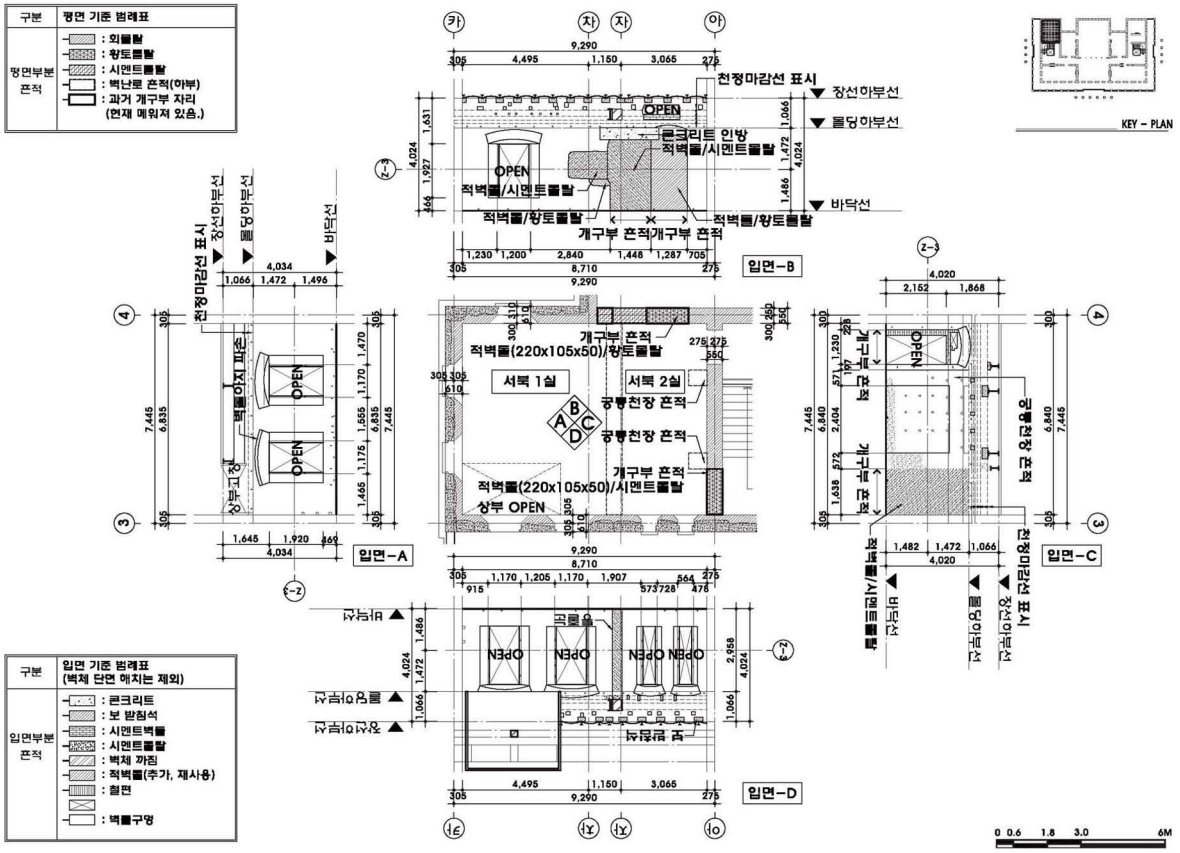
서쪽 벽에는 4개의 창문이 있다. 이 창호 사이에 있는 중간 벽에 벽을 철거한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이 이 방을 원래 2개실로 구성하였던 흔적이다. 중간 벽은 약 1.5B 두께로 되어 있었다.

남쪽 벽에는 1개의 출입구와 1개의 개구부 흔적이 있다. 출입구는 좌측에 있고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그런데 우측에 있는 개구부 흔적은 조금 애매하다. 반드시 출입구라고 할 수 없다. 통줄눈으로 되어 있어 시기를 달리 해서 조적된 것은 분명한데 상부에 인방이 없고 적벽돌을 황토몰탈로 조적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북1실도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 이곳에서는 분명히 출입구가 있으며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석조전 평면이 대칭인 점을 고려하면 이 출입구도 벽돌 아치인방으로 되어 있었고 어느 시기에 상부까지 철거하고 다시 막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보다 흥미로운 것은 벽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측에 있는 반원형볼트 흔적이다. 좌·우측부분과 벽 상부 부분에 돌출된 부분을 철거한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이 볼트는 이 방 바로 밑에 있는 1층 서북1실과 동북1실에도 있고 2층 동북1실에도 있는데 이 방만 없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실을 없애면서 동시에 없앴기 때문이다. 구획했던 벽이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천장 상부에 있는 3개의 연도다. 이 연도는 원래 벽이 있었던 위치에 있다. 연도가 3개인 것은 지층에서부터 올라오는 연도 1개, 1층에서 올라오는 연도 1개, 2층인 이 방에서 올라가는 연도가 있기 때문이다.

북쪽 벽은 특이사항이 없다.

이 방에서 특이한 것은 천장이다. 이 방 북서쪽 모서리 천장 일부가 뚫려 있다. 천장 위에 벽이 있고 벽 측면으로 창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 부분이 언제 조성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동쪽에 있는 동북1실에는 이 부분과 같은 위치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이 방도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동쪽은 출입구이지만 이 부분은 계단 대신 천창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도면 2-42] 2층 서북1,2실 내부 입면 전개도

[사진 2-183] 2층 서북1실 동쪽 벽

[사진 2-184] 2층 서북1실 서쪽 벽

[사진 2-185] 2층 서북1실 남쪽 벽

[사진 2-186] 2층 서북1실 북쪽 벽

[사진 2-187] 2층 서북1실 천창

[사진 2-188] 2층 서북1실 벽난로 연도

⑤ 2층 동북1실(구 여자화장실)

동북1실은 동북쪽 모서리에 있는 방으로 서북1실, 서북2실에서 서북2실을 제외한 규모와 같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6,84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4,495㎜이다. 2개의 출입구와 1개의 벽난로가 있다. 이 방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북쪽 벽 우측에서 시작해서 동쪽 벽을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다.

동쪽 벽에는 2개의 창문이 있다. 특별한 흔적은 없으며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면하고 있다.

서쪽 벽에는 1개의 창문과 1개의 개구부 흔적이 있다. 이 개구부는 1층 서북1실과 동북1실에 있는 작은 개구부와 구성이 같다. 즉, 1층과 2층의 동북쪽 모서리와 서북쪽 모서리에 있는 방은 그 구성이 똑같은 것이다. 이 개구부는 적벽돌을 황토몰탈로 조적하였는데 바닥에서 약 1,000㎜ 위에 있으며 폭 540㎜, 높이 약 800㎜ 정도 된다.

남쪽 벽에는 2개의 출입구와 1개의 벽난로가 있다. 출입구는 좌측과 우측에 있는데 좌측 출입구 상부에는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우측에 있는 개구부 흔적에서도 좌측에 있는 개구부와 같은 흔적이 나왔다. 흔적인 상부 인방이 나왔다. 아주 조금 남아 있는데 벽돌 아치인방이다. 이 인방 흔적으로 볼 때 우측과 좌측 출입구는 규모나 조성시기가 같음을 알 수 있다. 중앙에는 벽난로가 나왔다. 연도도 나왔다. 벽난로 자체는 없어져서 확인이 안 되지만 연도는 3개가 나왔다. 3개가 나왔다는 것은 2층에 벽난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상부에는 벽난로가 있던 부분이 돌출된 벽이었다는 증거가 있는데 상부에만 돌출된 벽 일부가 1.5B 두께로 남아 있다. 즉, 돌출된 부분을 철거하고 나머지 벽과 면바르게 하였고 그 와중에 벽난로 흔적이 없어진 것이다. 연도는 벽돌로 채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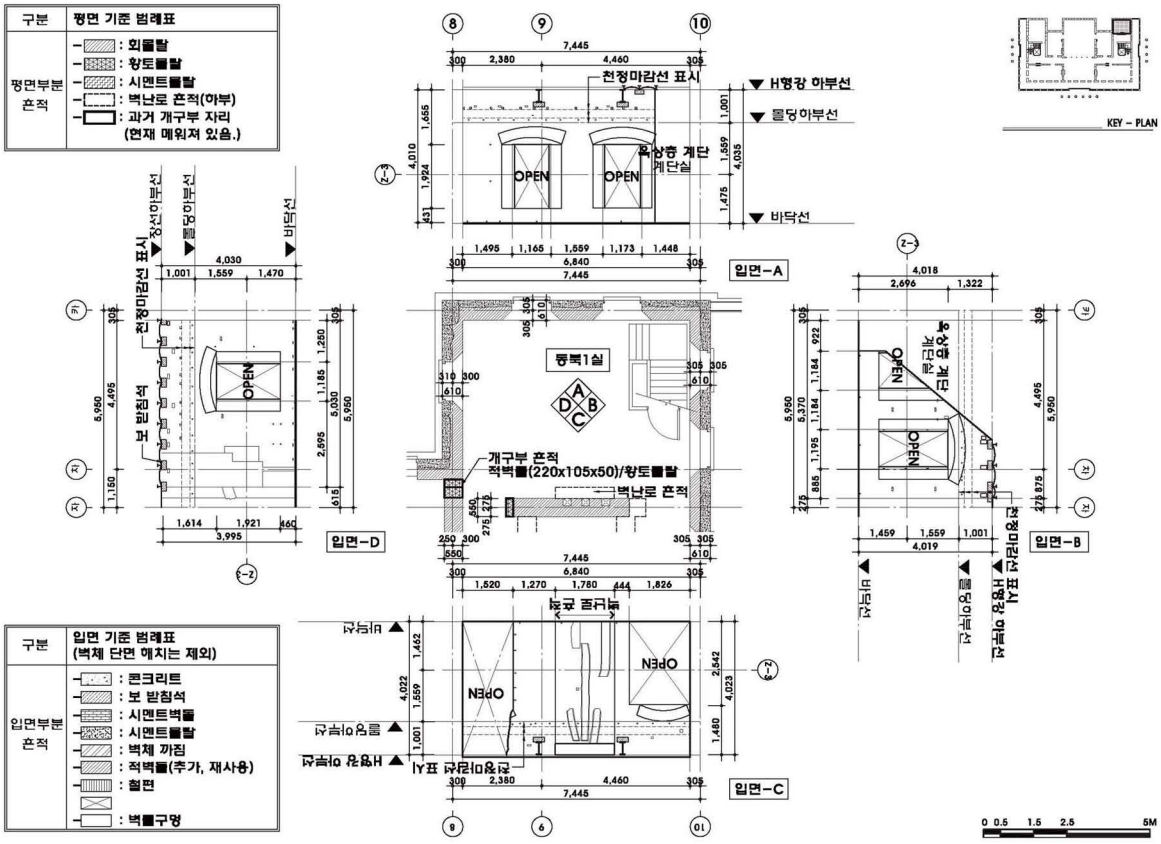
북쪽 벽은 특이사항이 없다.

[사진 2-189] 2층 동북1실 동쪽 벽

[사진 2-190] 2층 동북1실 서쪽 벽

[사진 2-191] 2층 동북1실 남쪽 벽

[사진 2-192] 2층 동북1실 북쪽 벽



[도면 2-43] 2층 동북1실 내부 입면 전개도

⑥ 2층 동북2실(구 남자화장실)

동북2실은 동북1실 남쪽에 면한 방으로 1층 동쪽에 있는 동북2실과 구성이 비슷하고 규모도 같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6,84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2,890㎜이다. 2개의 출입구와 1개의 개구부 흔적이 있다.

동쪽 벽에는 2개의 창문이 있고 서쪽 벽에는 황제침실과 연결되는 개구부 흔적이 있다. 폭 1,497㎜이고 적벽돌을 황토몰탈로조적하였다. 이 개구부는 황제침실에서 보는 구성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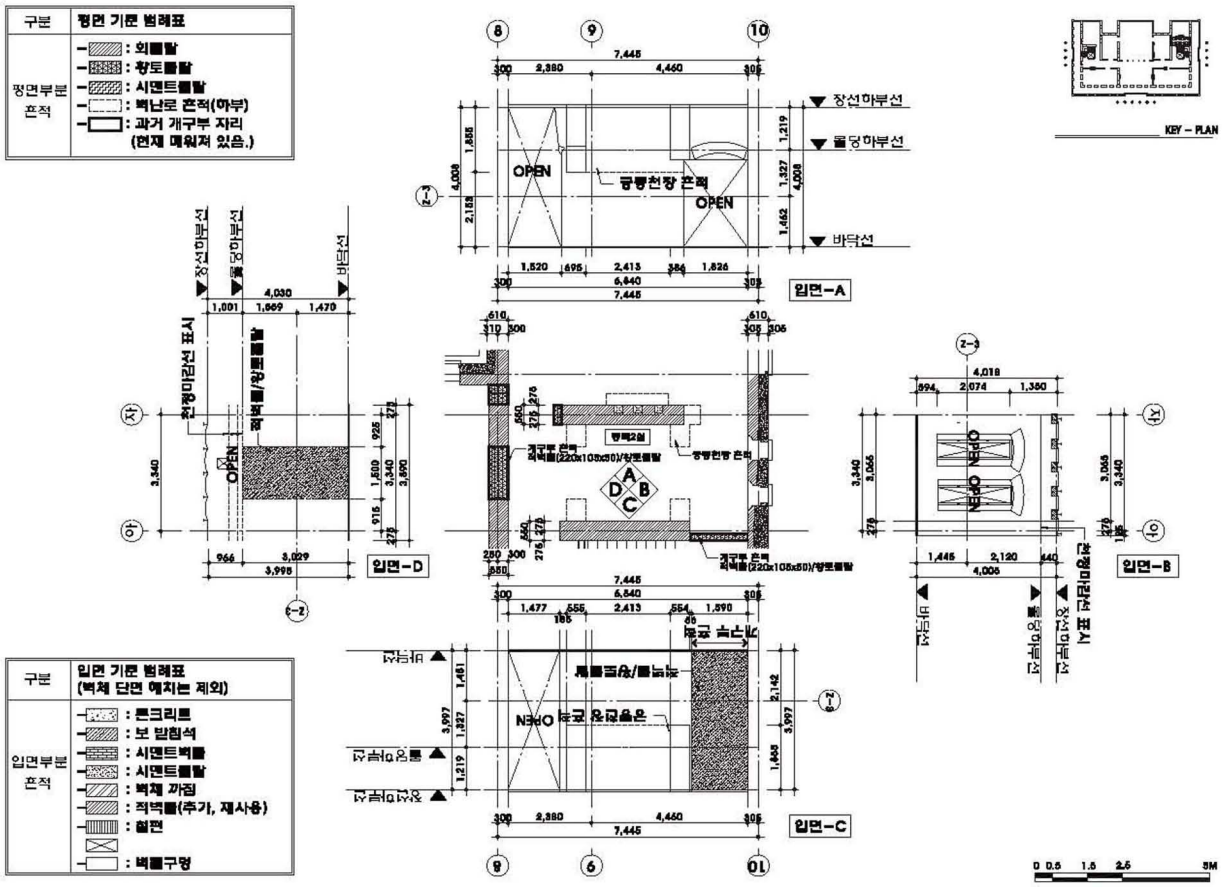
남쪽 벽은 우측에 출입구가 있는데 상부까지 뚫려 있다. 좌측에는 폭 1,590㎜ 되는 개구부 흔적이 있다. 여기도 적벽돌을 황토몰탈로 조적하였다. 상부까지 조적되어 있어 상부에 인방은 없었다. 그런데 이 개구부만 벽 두께가 얇다. 벽면의 다른 부분에 비해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대부분 벽이 면바르게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이한 상황이다. 이 방에도 천장에 반원형볼트가 있는데 그 흔적이 벽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측에 있다. 좌우측부분과 벽 상부 부분에 돌출된 부분을 철거한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 이 볼트는 이 방 바로 밑에 있는 1층 동북2실과 서북2실에도 있고 2층 서북2실에도 있다. 천장의 반원형볼트는 없고 벽에 반원형볼트가 있었던 흔적이 있다. 이 볼트는 북쪽 벽과 연결된다. 북쪽 벽은 이 흔적 외에 특별한 것은 없다.

[사진 2-193] 2층 동북2실 동쪽 벽

[사진 2-195] 2층 동북2실 남쪽 벽

[사진 2-196] 2층 동북2실 북쪽 벽

[사진 2-194] 2층 동북2실 서쪽 벽



[도면 2-44] 2층 동북2실 내부 입면 전개도

⑦ 2층 동쪽 계단실과 복도

동쪽 계단실은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6,84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8,120㎜이다. 복도는 동서방향 길이가 13,460㎜, 남북방향 길이는 2,850㎜이다. 이 계단실 천장 위 상부에는 많은 그을음이 있다. 언제 생긴 것인가는 불분명하다. 추정하건대 6·25 전쟁 당시 생기지 않았나 싶다.

계단실과 복도 남쪽 벽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1개의 출입구와 3개의 개구부 흔적, 1개의 벽난로 흔적이 있다. 이 벽은 시종실1, 2, 3실에 면한 벽으로 그 구성이 시종실1, 2, 3실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개구부는 모두 막혀 있는 상태이고 출입구는 오른쪽에 있다. 출입구 상부에는 콘크리트 인방이 길게 걸려 있다. 이 출입구는 1987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1987년에 같이 만들어진 개구부가 좌측에도 있다. 둘 다 같이 상부에 콘크리트 인방이 있다. 그런데 왼쪽 개구부는 출입구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시멘트벽돌로 막혀 있다. 우측에 있는 애초 개구부는 폭 1,500㎜이고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만 남아 있다. 중앙에도 개구부 흔적이 있다. 폭 1,440㎜이고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하였다. 좌측에도 개구부 흔적이 있는데

상부 벽돌 아치인방 만 있고 하부는 새로운 개구부를 만들면서 없어졌다.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하였다. 벽난로 흔적은 중앙에서 조금 우측에 있는데 연도가 명확하게 남아 있다. 이 방 바로 아래층인 1층의 같은 위치에 벽난로가 있다. 이 벽난로가 있는 부분은 돌출되어 있었는데 돌출된 벽은 철거된 상태이다.

복도 북쪽 벽은 황제침실에 면한 벽으로 1개의 출입구와 2개의 개구부 흔적이 있다. 지금의 출입구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좌측에 있는 개구부 흔적은 폭 1,409㎜이고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시멘트벽돌로 조적했고 막혀 있다. 중앙에는 출입구가 있다. 상부는 콘크리트 인방으로 되어 있다. 이 개구부와 맞물려 우측에 개구부 흔적이 있다. 즉, 기존 개구부 일부를 철거하고 출입구를 낸 것이다. 상부에는 벽돌 아치인방이 있는데 콘크리트 인방 위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는 것이다. 좌측에 있는 개구부는 적벽돌을 사용하였지만 이 개구부는 시멘트벽돌을 사용한 것이 다르다.

계단실 동쪽 벽에는 동쪽으로 난 창문 3개가 있다. 출입구 상부에는 벽돌 아치인방이 있었는데 지금은 평아치로 되어 있고 그 사이는 적벽돌로 채워져 있다.

계단과 면한 북쪽 벽 우측에는 통줄눈이 명확하게 보인다. 이 부분이 애초 개구부였는지 아니면 계획변경으로 개구부가 막힌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 벽 반대편 벽은 동북2실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부분 벽만 다른 벽에 비해 두께가 얇다. 거기에다가 황토몰탈로 조적되어 있다. 분명히 시기를 달리해 조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단참 위에 있는 부분인 것을 감안한다면 애초 계단참에서 이 개구부를 통해 동북2실로 바로 진입이 되었던지 아니면 계획 변경으로 막힌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서쪽 벽은 특이사항이 없다.

[사진 2-197] 2층 동쪽 계단실 동쪽 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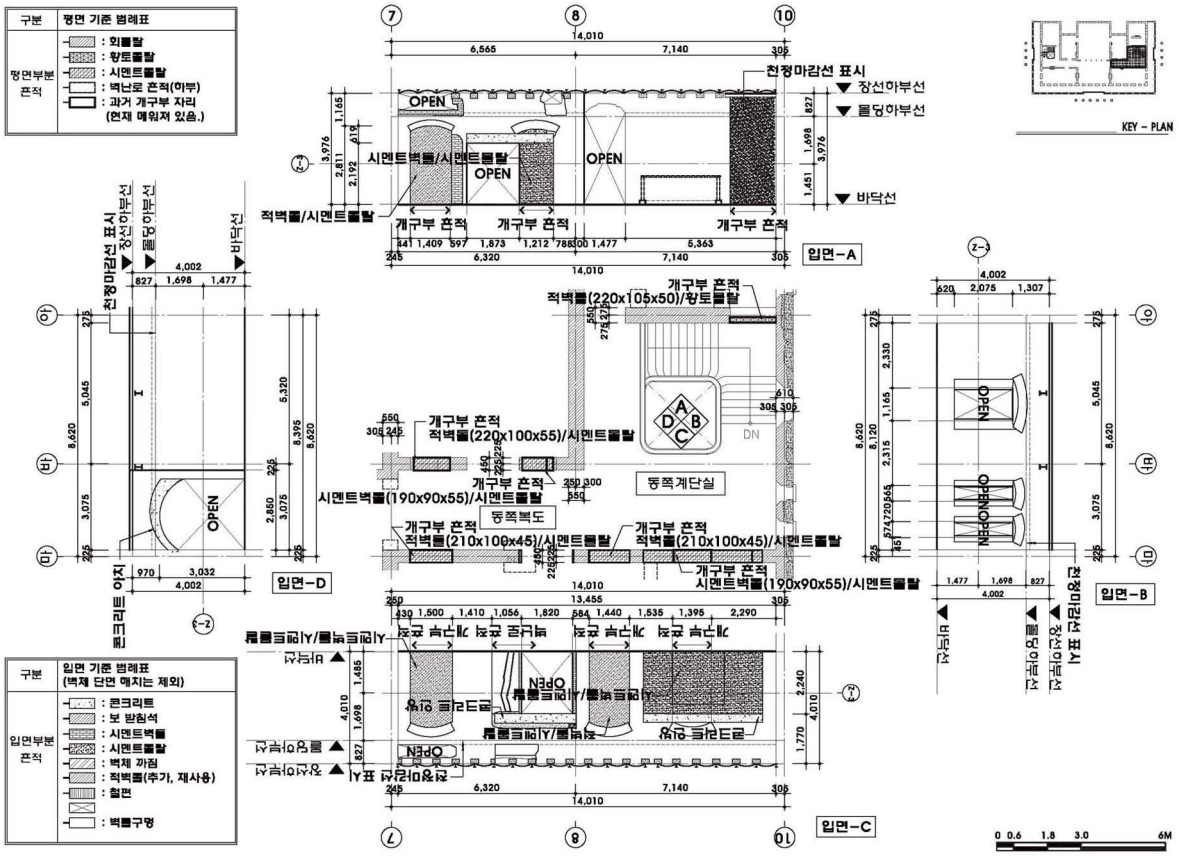
[사진 2-198] 2층 동쪽 계단실 서쪽 벽

[사진 2-199] 2층 동쪽 계단실 남쪽 벽

[사진 2-200] 2층 동쪽 계단실 북쪽 벽

[사진 2-201] 2층 동쪽 계단실 복도

[사진 2-202] 2층 동쪽 계단실 복도 북쪽 벽



[도면 2-45] 2층 동쪽 계단실과 복도 내부 입면 전개도

⑧ 2층 서쪽 계단실과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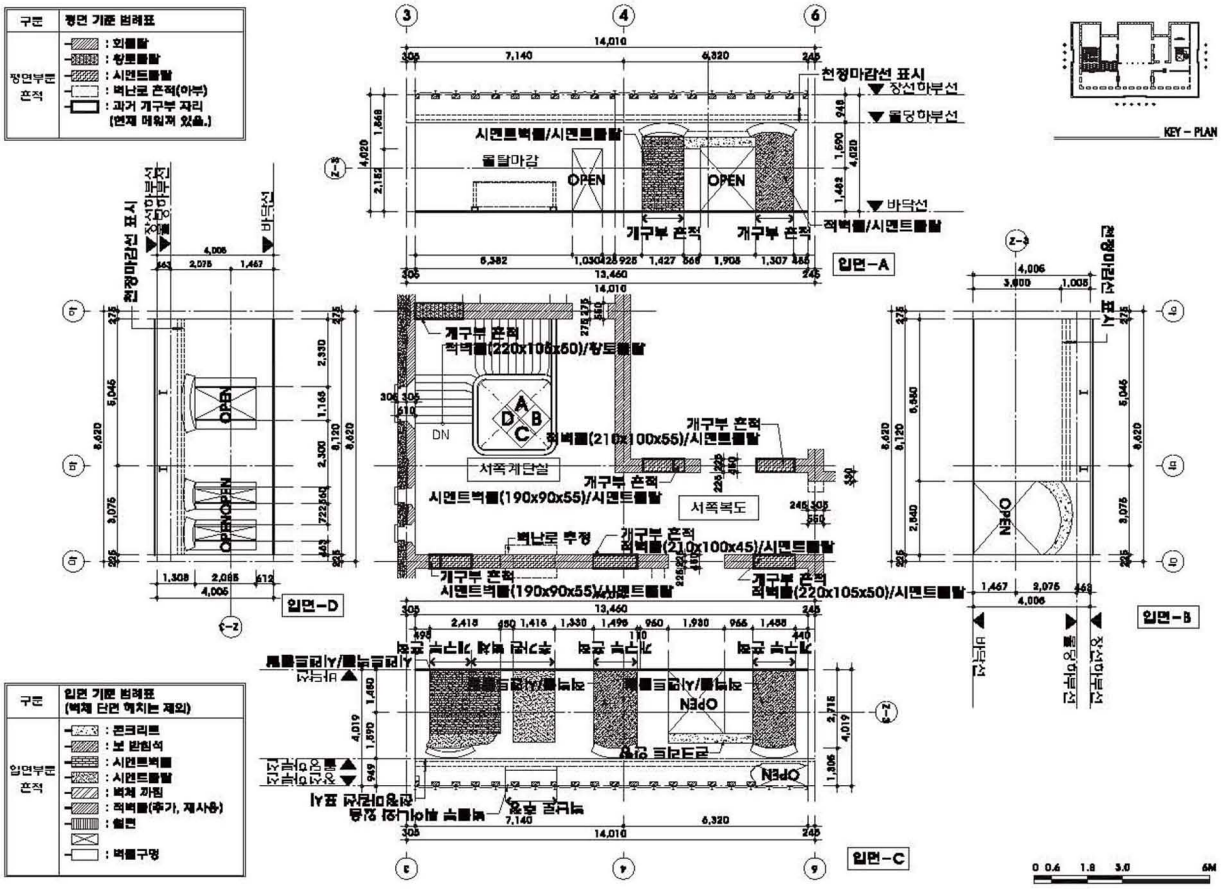
서쪽 계단실은 동쪽 계단실과 그 구성이 같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6,84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8,120㎜이다. 복도는 동서방향 길이가 13,460㎜, 남북방향 길이는 2,850㎜이다.

계단실과 복도 남쪽 벽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1개의 출입구와 3개의 개구부 흔적, 1개의 벽난로 흔적이 있다. 이 벽은 응접실과 시종실4에 면한 벽으로 그 구성이 응접실과 시종실4와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 개구부는 모두 막혀 있는 상태이고 출입구는 왼쪽에 있다. 출입구 상부에는 콘크리트 인방이 길게 걸려 있다. 이 출입구는 1987년 만들어진 것이다. 1987년에 같이 만들어진 개구부가 좌측에도 있다. 둘 다 같이 상부에 콘크리트 인방이 있다. 그런데 왼쪽 개구부는 출입구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시멘트벽돌로 막혀 있다. 좌측에 있는 애초 개구부는 폭 1,455㎜이고 상부에 벽돌 인방 아치만 남아 있다. 중앙에도 개구부 흔적이 있다. 폭 1,495㎜이고 상부에 벽돌 인방 아치가 있다.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하였다. 우측으로도 개구부 흔적이 있는데 상부 벽돌 아치인방만 있고 하부는 새로운 개구부를 만들면서 없어졌다.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하였다. 벽난로 흔적은 중앙에서 조금 우측에 있는데 상부에만 돌출된 흔적이 있고 하부 쪽에는 난로나 연도 흔적이 없다. 아마도 돌출된 벽을 철거하면서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석조전 평면이 대칭인 점을 고려하고 동쪽 계단실 복도에 벽난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곳에 벽난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복도 북쪽 벽은 황후침실에 면한 벽으로 1개의 출입구와 2개의 개구부 흔적이 있다. 지금의 출입구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좌측에 있는 개구부 흔적은 폭 1,427㎜이고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시멘트벽돌로 조적하여 막혀 있다. 중앙에는 출입구가 있다. 상부는 콘크리트 인방으로 되어 있다. 이 개구부와 맞물려 우측으로 개구부 흔적이 있다. 즉, 기존 개구부 일부를 철거하고 출입구를 낸 것이다. 상부에는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좌측에 있는 개구부는 시멘트벽돌을 사용하였지만 이 개구부는 적벽돌을 사용한 것이 다르다.

계단실 서쪽 벽에는 서쪽으로 난 창문 3개가 있다. 출입구 상부에는 벽돌 아치인방이 있었는데 지금은 평아치로 되어 있고 그 사이는 적벽돌로 채워져 있다.

계단과 면한 북쪽 벽 우측에 명확하게 보이는 통줄눈이 있다. 동쪽 계단실 북쪽 벽과 같은 현상이다. 다만 다른 것은 이 부분 벽 두께이다. 동쪽 벽은 얇은 반면 이 벽은 다른 벽과 같은 두께로 되어 있어 면이 같고 황토몰탈을 사용하였다. 동쪽과 같이 애초 개구부였는지 아니면 계획변경으로 개구부가 막힌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동쪽 벽은 특이사항이 없다.



[도면 2-46] 2층 서쪽 계단실과 복도 내부 입면 전개도

⑨ 2층 황후침실

황후침실은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6,07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9,278㎜이다. 2개의 출입구와 7개의 개구부 흔적, 1개의 벽난로 흔적이 있다.

동쪽 벽에는 1개의 출입구, 3개의 개구부 흔적, 1개의 벽난로 흔적이 있다. 출입구는 1개의 개구부와 겹쳐 있다. 출입구는 좌측의 개구부와 겹쳐진다. 이 개구부는 적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되어 있다. 즉, 기존 개구부와 함께 그 우측까지 철거하고 그 중간에 출입구를 낸 것이다. 중앙에 개구부 흔적이 있는데 이곳에는 시멘트벽돌로 조적하였다. 상부에는 벽돌아치 흔적이 있다. 맨 우측 벽에는 개구부 흔적과 벽난로 흔적이 동시에 중첩되어 있다. 벽난로는 상부에 돌출된 벽 일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벽난로 벽에 개구부 흔적이 있다. 폭 1,500㎜인데 시멘트벽돌로 조적되어 있다. 상부에는 인방 흔적이 없다. 즉, 벽난로가 있었는데 여기를 철거하고 개구부를 내었다가 다시 막은 것 같다. 상부에는 구멍이 여러 개 있다. 모두 설비용 배관이 설치된 것이 아닌가 싶다.

서쪽 벽은 계단실과 서북1실과 면한 벽인데 서북1실과 통하는 개구부

흔적 2개가 있다. 하나는 적벽돌을 황토몰탈로 조적하고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으나 하나는 시멘트벽돌로 조적되어 있고 상부에 인방이 없다.

남쪽 벽은 복도에 면한 벽으로 복도 북쪽 벽과 같다. 1개의 출입구와 2개의 개구부 흔적이 있다. 복도 면과 다른 것은 콘크리트 인방이다. 복도 쪽은 짧지만 황후침실에서는 꽤 길게 보이고 있다. 좌측에 있는 개구부는 폭이 1,307㎜이고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시멘트벽돌로 조적되어 있다. 우측 개구부도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고 시멘트벽돌로 조적되어 있다. 상부에는 2개의 구멍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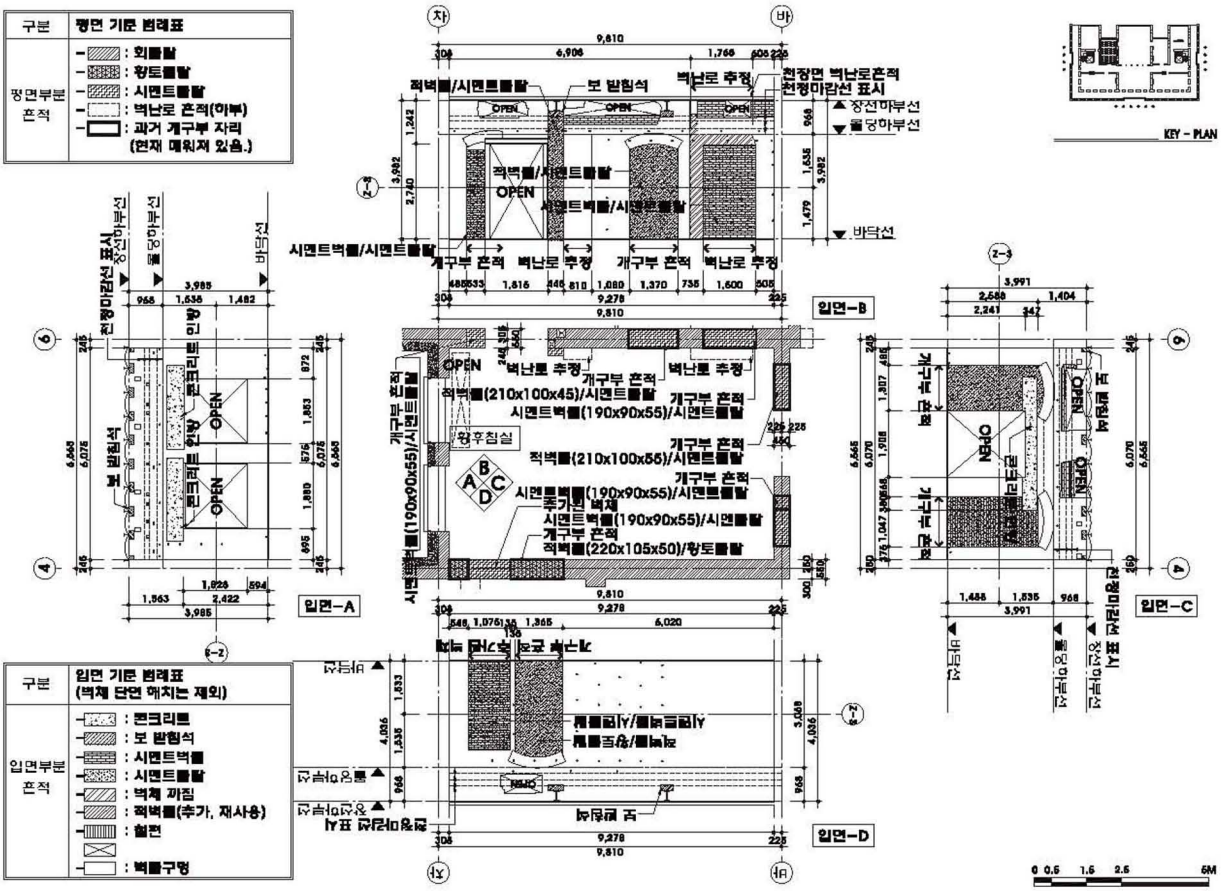
북쪽 벽에는 2개의 창문이 있다. 그런데 이 창문 구성이 다른 곳 창문 구성과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창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이다. 다른 곳에는 대부분 사선으로 모를 접고 있는데 여기서는 직각으로 되어 있다. 창 폭도 1층보다는 매우 넓은 편이다. 그리고 상부는 콘크리트 인방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 벽돌 아치인방인데 여기서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다. 아마도 시기를 달리해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 2-203] 2층 황후침실 동쪽 벽

[사진 2-204] 2층 황후침실 서쪽 벽

[사진 2-205] 2층 황후침실 남쪽 벽

[사진 2-206] 2층 황후침실 북쪽 벽



[도면 2-47] 2층 황후침실 내부 입면 전개도

⑩ 2층 황제침실

황제침실은 황후침실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6,07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9,275㎜이다. 2개의 출입구와 7개의 개구부 흔적, 1개의 벽난로 흔적이 있다.

동쪽 벽은 계단실 및 동북1실과 면한 벽인데 동북1실과 통하는 개구부 흔적 2개가 있다. 하나는 폭이 1,497㎜인데 적벽돌을 황토몰탈로 조적하고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하나는 조그만 개구부로 동북1실 서쪽 벽에 있는 조그만 개구부와 같은 개구부이다. 이 개구부도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서쪽 벽에는 1개의 출입구, 3개의 개구부 흔적, 1개의 벽난로 흔적이 있다. 출입구는 우측에 있는데 1개의 개구부와 겹쳐 있다. 우측의 개구부와 겹쳐진다. 이 개구부는 시멘트벽돌을 시멘트몰탈로 조적되어 있다. 즉, 기존 개구부와 함께 그 좌측까지 철거하고 그 중간에 출입구를 낸 것이다. 중앙에 개구부 흔적이 있는데 이곳에는 적벽돌을 황토몰탈로 조적하였다. 상부에는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맨 좌측 벽에는 개구부 흔적이 있다. 폭 1,500㎜인데 시멘트벽돌로 조적되어 있다. 벽난로 흔적은 중앙에서 약간 우측에 있는데 돌출된 부분은 철거되고 상부에만 돌출된 벽이 일부 남아 있다. 이 벽난로 흔적

우측으로 출입구가 중첩되어 있다. 상부에는 구멍이 여러 개 있다. 모두 설비용 배관이 설치된 것이 아닌가 싶다.

남쪽 벽은 복도에 면한 벽으로 복도 북쪽 벽과 같다. 1개의 출입구와 2개의 개구부 흔적이 있다. 복도 면과 다른 것은 콘크리트 인방이다. 복도 쪽은 짧지만 황제침실에서는 꽤 길게 보이고 있다. 좌측에 있는 개구부는 폭이 1,212㎜이고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시멘트벽돌로 조적되어 있다. 우측 개구부도 상부에 벽돌 아치인방이 있고 적벽돌로 조적되어 있다. 상부에는 2개의 구멍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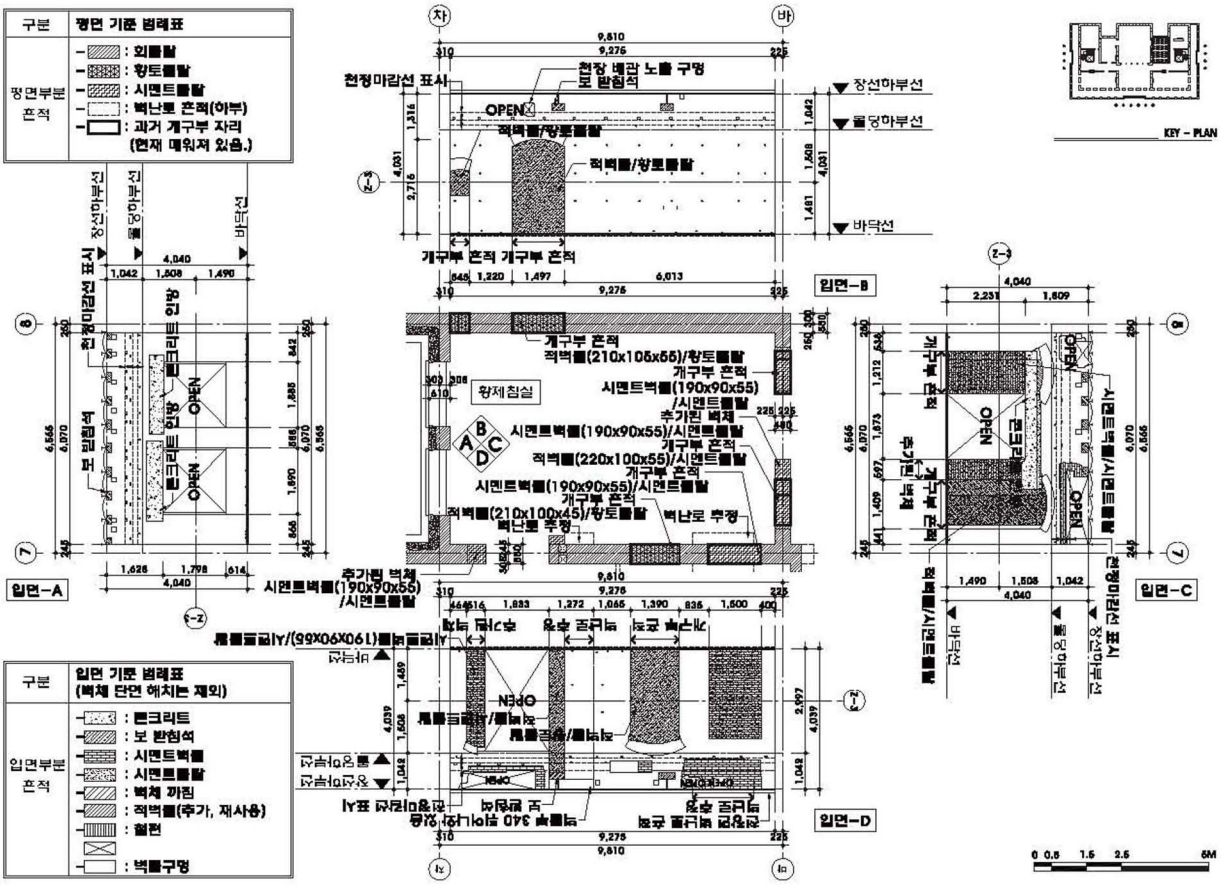
북쪽 벽에는 2개의 창문이 있다. 이 창문도 황후침실과 같은 현상이 있는데 다른 곳 창문 구성과 다르다. 창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이 직각으로 되어 있고 창 폭도 1층보다는 매우 넓은 편이다. 그리고 상부는 콘크리트 인방으로 되어 있다. 즉, 황제침실과 황후침실의 북쪽 벽은 분명히 시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진 2-207] 2층 황제침실 동쪽 벽

[사진 2-208] 2층 황제침실 서쪽 벽

[사진 2-209] 2층 황제침실 남쪽 벽

[사진 2-210] 2층 황제침실 북쪽 벽



[도면 2-48] 2층 황제침실 내부 입면 전개도

⑪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구 제8전시실, 모형전시실)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은 2층에서 가장 큰 방으로 1층 접견실과 같은 위치에 있고 규모와 구성이 거의 같다. 안목으로 동서방향 길이가 12,340㎜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14,305㎜이다. 사방으로 개구부와 출입구가 있다. 벽난로 흔적은 동쪽과 서쪽 벽에 각각 1개씩 총 2개가 확인되었다.

동쪽 벽에는 창문 1개, 출입구 1개, 개구부 흔적 2개, 벽난로 흔적 1개가 있다. 중앙에서 조금 좌측에는 현재 출입구가 있다. 상부에는 인방이 없고 출입구 좌측에는 시멘트벽돌로 일부가 조적되어 있다. 이 출입구 우측으로는 개구부 흔적이 있다. 이 개구부는 폭이 1,390㎜이고 상부는 벽돌 아치인방이 있다. 적벽돌을 황토몰탈로(→황토모르타르로) 조적하였다. 그 우측으로도 개구부 흔적이 있다. 상부에 인방이 없고 시멘트벽돌로 조적되어 있다. 맨 우측에 벽난로 흔적이 있다. 돌출된 벽을 철거한 흔적이 있는데 바로 이곳에 개구부 흔적이 중첩되어 있어 정확히 벽난로의 구체적 흔적은 없다. 이 벽 중앙에서 약간 우측으로 0.5B 두께로 된 칸막이벽이 철거된 흔적이 보이고 있다. 이 흔적은 서쪽 벽 같은 위치에서도 보이고 있는데 이 방을 구획했던 칸막이벽 흔적이 아니가 싶다. 벽 상부에는 3개의 구멍이 있다.

서쪽 벽은 동쪽 벽과 구성이 같다. 개구부의 위치와 구성 등이 똑같다. 이 벽에 있는 벽난로도 흔적만 있고 벽난로나 연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상부에는 3개의 구멍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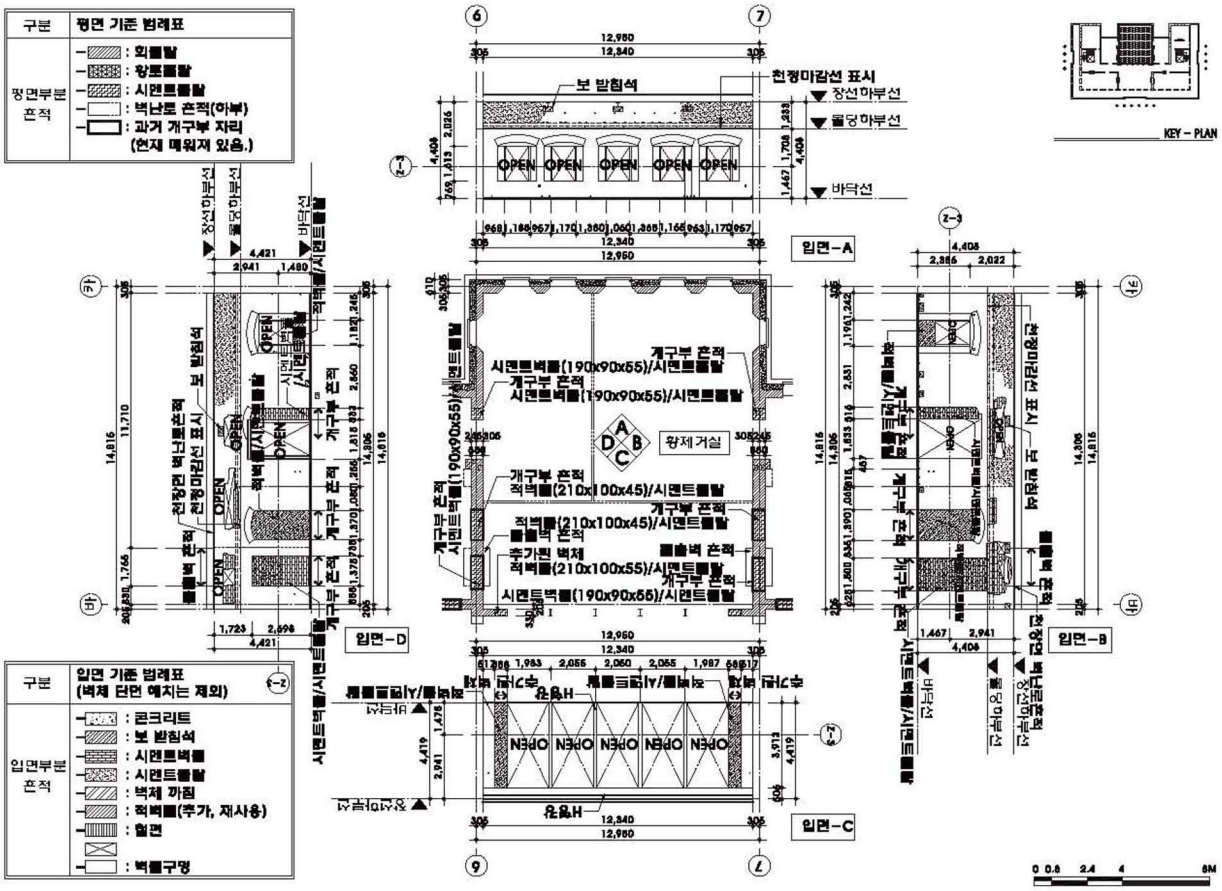
북쪽 벽은 특별한 사항이 없지만 중앙에서 약간 좌측에 동쪽 벽과 서쪽 벽에서 볼 수 있는 0.5B의 칸막이벽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은 동서를 연결하는 칸막이벽과 서로 직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남쪽 벽은 중앙홀과 연결되는데 벽은 없고 철골기둥만 6개가 있다.

그런데 이 방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바닥에서 약 280㎜ 위에 일정간격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보받침석이다. 보받침석의 크기는 약 120~180×350㎜ 정도 된다. 이 받침석은 동쪽 벽과 서쪽 벽에서만 확인되는데 개구부 등으로 인해 없어진 부분도 있지만 비교적 일정간격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받침석은 천장을 구성하고 있는 아치형철판 콘크리트 슬라브의 철골을 받치는 받침석과 그 크기나 형태가 같다. 이 두 가지로 볼 때 이 방은 원래 지금보다 최소 약 400㎜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석조전 보수·복원 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도면에서 계단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런 점으로 볼 때 이 방은 확실히 다른 방에 비해 바닥 높이가 높았던 것이다. 이 발견은 벽 마감 철거로 확인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이다.

[사진 2-211]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 동쪽 벽

[사진 2-212]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 동쪽 벽

[사진 2-213]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 동쪽 및 서쪽 벽 하부에 있는 철골빔 받침석



[도면 2-49]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 내부 입면 전개도

3. 석조전 구조 조사

1) 평면 구조

가. 조적 구조

• **석조전 조적 구조** : 석조전 구조는 적벽돌을 사용한 조적조이다. 그동안 석조전이란 명칭 때문에 석재로 조적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였다. 석재는 외부 최종 마감재일 뿐이다. 조적은 그 두께가 위치마다 다른데 0.5B에서 5.0B까지 있다. 단 4.5B는 없다.([표 2-2] 참조)

석조전에서 내력벽 기능을 하는 조적 두께는 기본적으로 최소 2.0B 이상이다. 물론 모든 벽이 같은 것은 아니고 위치에 따라 두께가 달라지고 같은 위치라도 층에 따라 다르다. 일부 벽두께는 애초 조적두께가 아니다. 0.5B가 그렇다. 왜냐하면 이 두께를 가진 벽은 지층 서남3실 칸막이벽에만 있고 이 벽은 아주 후대에 조적된 벽이기 때문이다. 또 1.0B, 1.5B도 일부는 애초에 조적된 벽이 아니다. 이 또한 내부가 변경되면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벽들이다.

석조전처럼 규모가 있고 경간이 길며 층수가 있는 조적조 건물은 기본적으로 벽 두께가 두꺼워야 한다. 또 상층보다 하층 벽 두께가 더 두꺼워야 한다. 그래서 지층 벽두께는 기본적으로 1층이나 2층보다 더 두껍다. 외벽의 경우 지층은 2.5B로 추정되는데 1층과 2층은 2.0B로 줄고 있다. 내벽은 지층이 3.5B인데 1층은 2.5B로 줄고 2층에서는 2.0B와 2.5B로 줄고 있다.

[표 2-2] 석조전 조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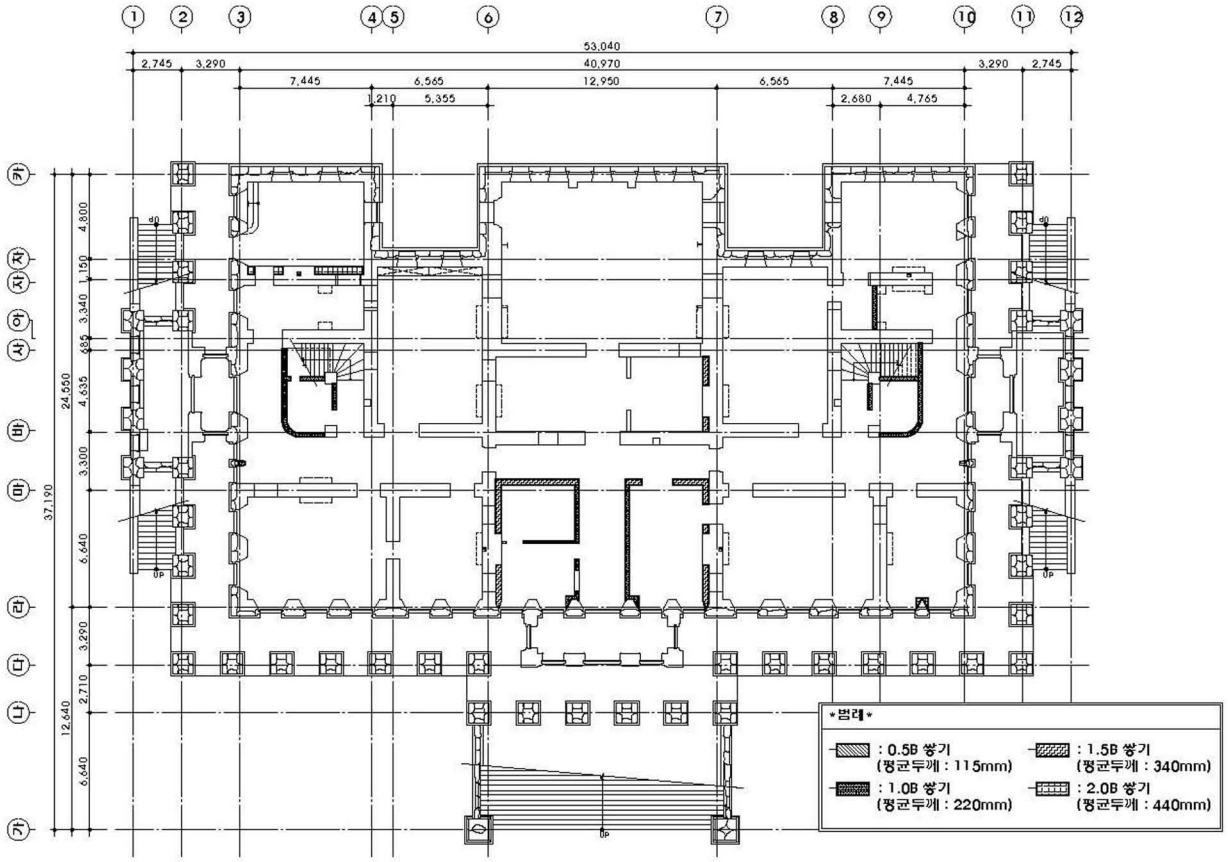
조적 두께	두께	층수 및 위치		
		지층	1층	2층
0.5 B	115㎜	서남3실	-	-
1.0 B	220㎜	서남3실, 계단실	방풍실	-
1.5 B	330~340㎜	서남3실, 수장고전실2	계단실	중앙홀
2.0 B	440~450㎜	서북1실	외벽 전체, 계단실	외벽 전체, 동서내부벽
2.5 B	545㎜	외벽 전체	내벽	남북내부벽, 계단실
3.0 B	650㎜	계단실 기둥	-	-
3.5 B	770㎜	내벽	-	-
4.0 B	875㎜	수장고(중앙) 측벽	-	-
5.0 B	1,110㎜	수장고(중앙) 측벽	-	-

• **지층 조적 구조** : 지층 조적은 0.5B에서 5.0B까지 있다. 다만 4.5B는 없다. 0.5B는 남쪽 중앙에 있는 서남3실 칸막이벽에만 사용하였고 그 외에는 없다. 1.0B의 경우는 서남3실과 동남3실 벽 일부와 계단실 벽에만 사용되었다. 1.5B는 서남3실과 동남3실 벽 일부에 사용되었다. 즉, 0.5B~1.5B는 후대에 내부 평면을 바꾸면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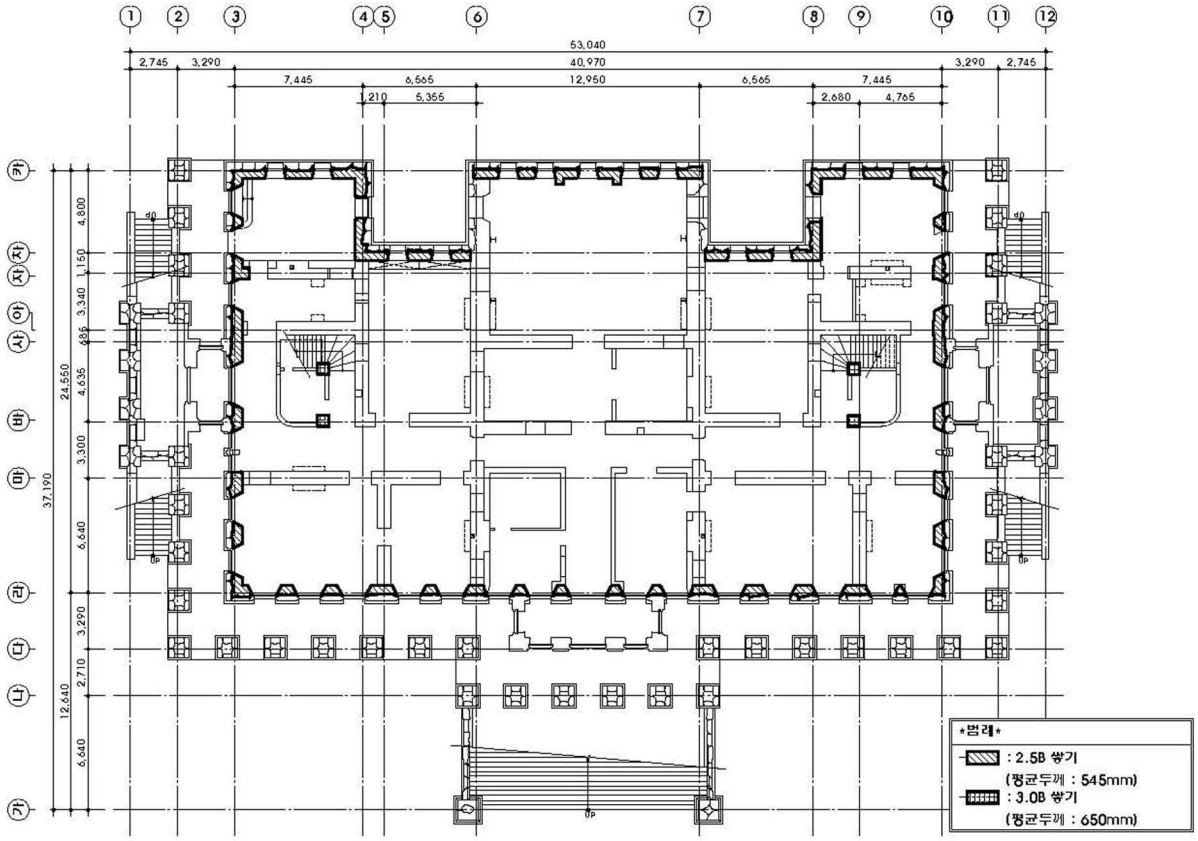
외벽은 모두 2.5B인 것으로 추정된다. 외부가 석재로 되어 있고 조적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단정할 수 없지만 외장석재 자체도 조적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어 2층까지 석재를 조적할 수 있는 두께 등을 감안할 때 외벽의 조적 두께는 2.5B일 가능성이 높다. 내벽은 일부구간만 빼고 거의 대부분 3.5B로 되어 있다. 그 일부 구간은 북쪽 중앙부분인 지층 수장고(중앙)의 남북방향 벽 일부이다. 이 구간은 4.0B와 5.0B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데 외벽이 면한 쪽은 4.0B 내부 쪽은 5.0B이다.

• **1층 조적 구조 :** 1층은 1.0B에서 2.5B까지 사용되고 있다. 주된 두께는 2.0B와 2.5B이다. 2.0B는 외벽에서 사용되었고 2.5B는 내벽에 사용되고 있다. 1.0B는 방풍실 외벽에만 사용되었고 1.5B는 접견실과 중앙홀 사이 벽 일부에만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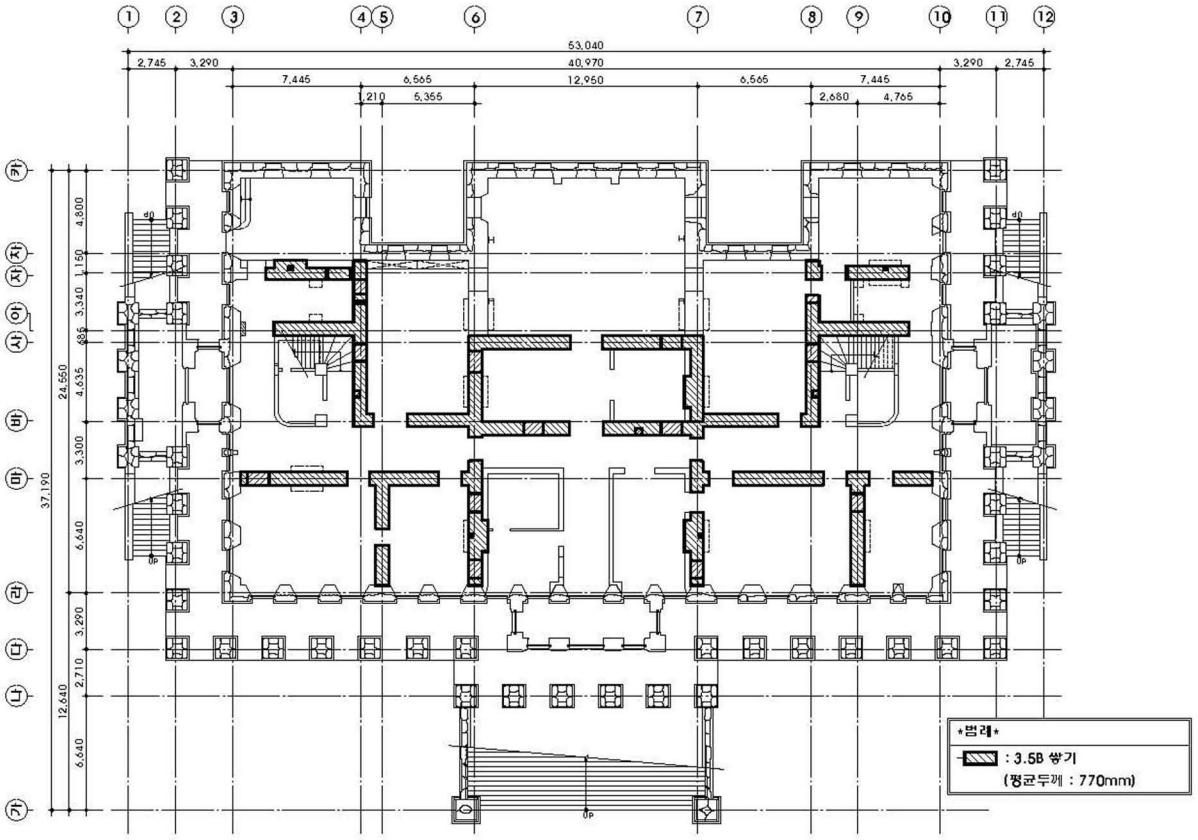
• **2층 조적 구조 :** 2층은 1.5B에서 2.5B까지 사용되고 있다. 주된 두께는 2.0B와 2.5B로 1층과 같다. 2.0B는 외벽 전체와 내벽 중 동서방향 벽에서 사용되었고 2.5B는 내벽 중 남북방향 벽에 사용되고 있다. 남북방향 벽이 동서방향 벽보다 두꺼운 것은 남북방향을 상부 바닥을 받치는 주된 구조로 본 것이 아닌가 싶다. 1.5B는 접견실과 중앙홀 사이 벽 일부에만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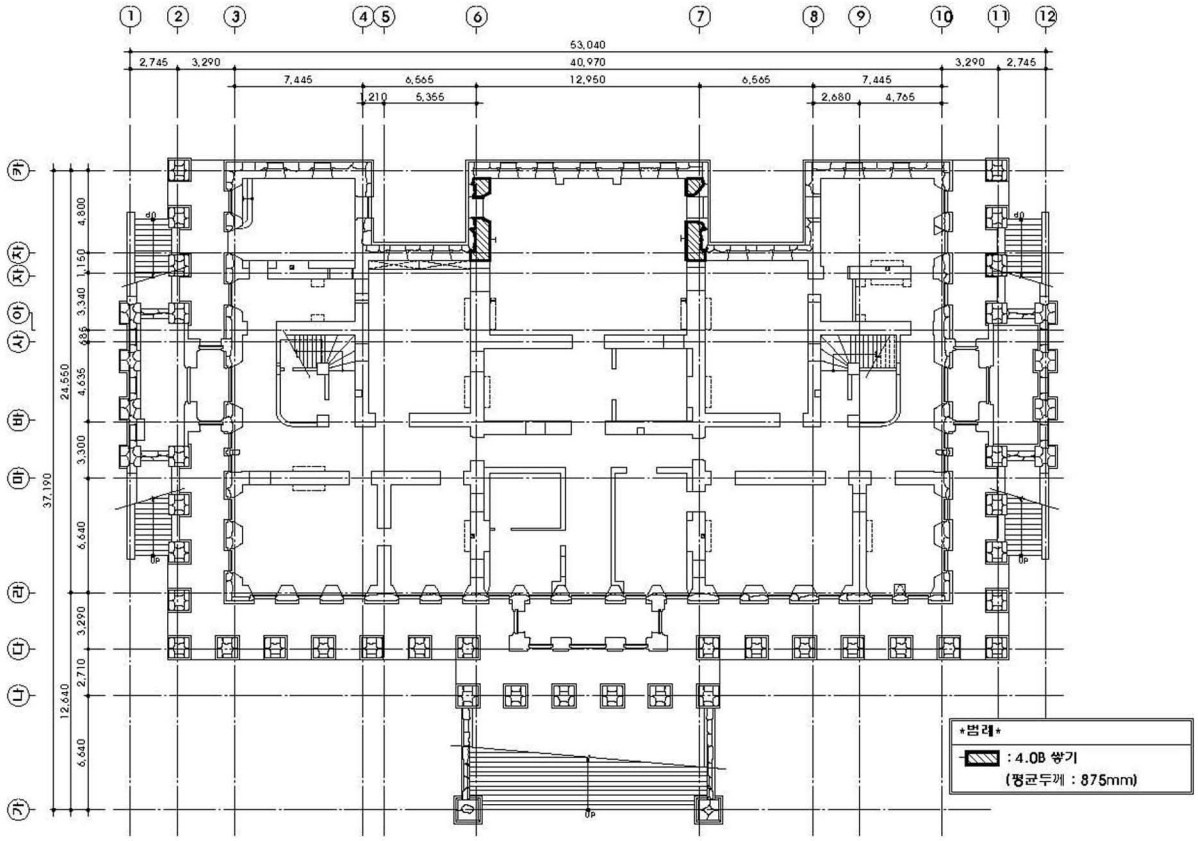
[도면 2-50] 지층 조적 구성도(0.5B-2.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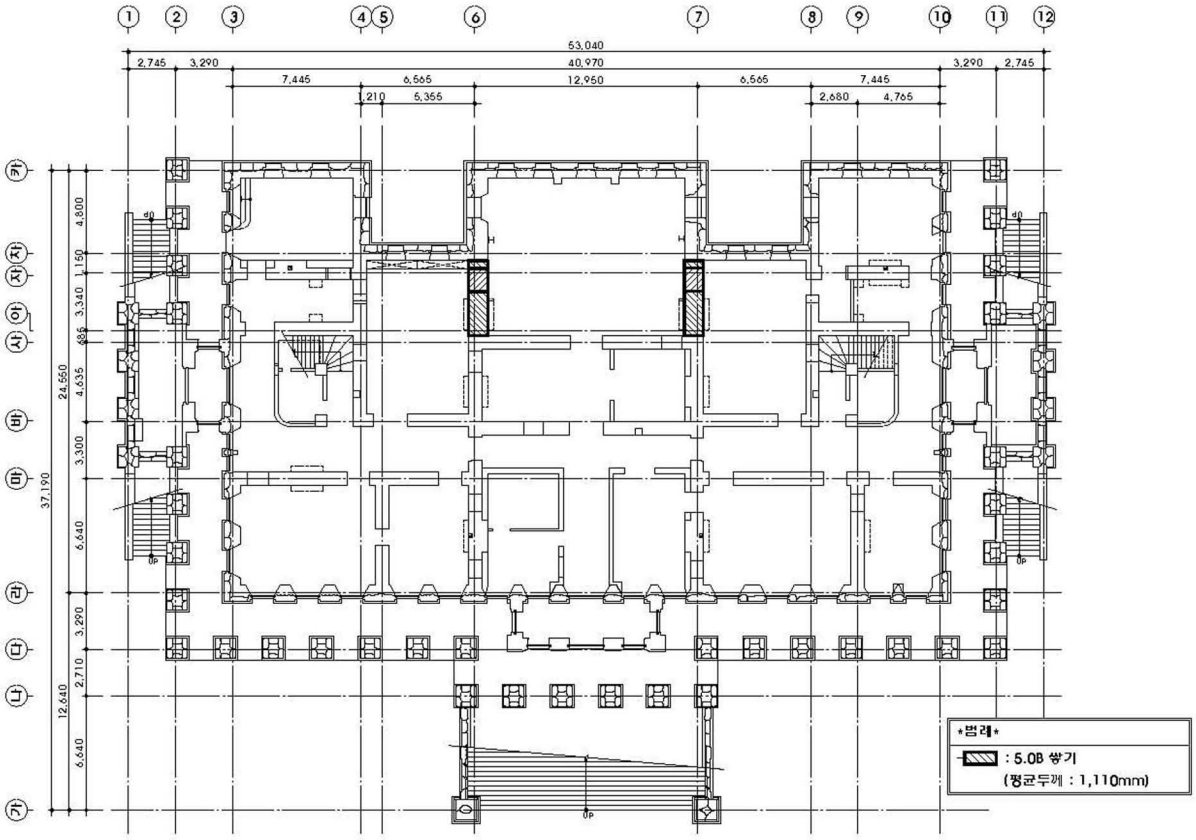
[도면2-51] 지층 조적 구성도(2.5B-3.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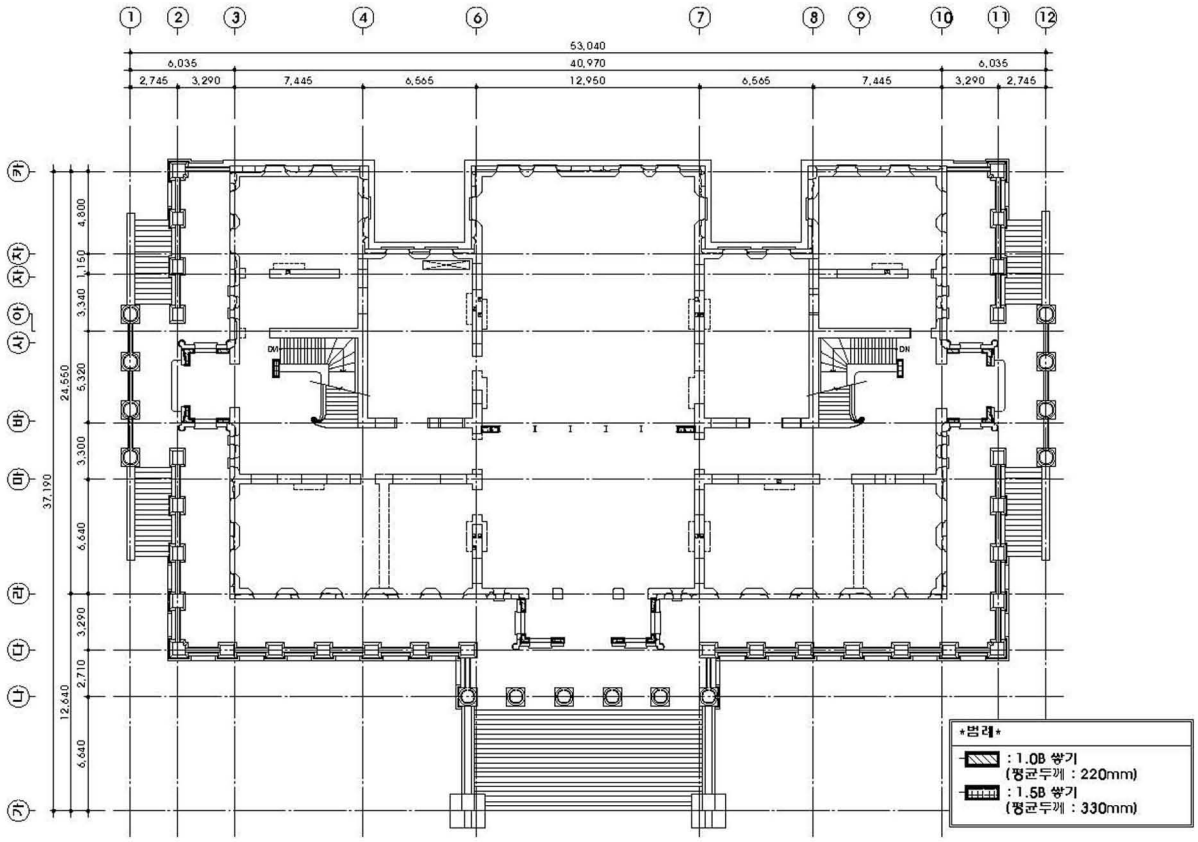
[도면2-52] 지층 조적 구성도(3.5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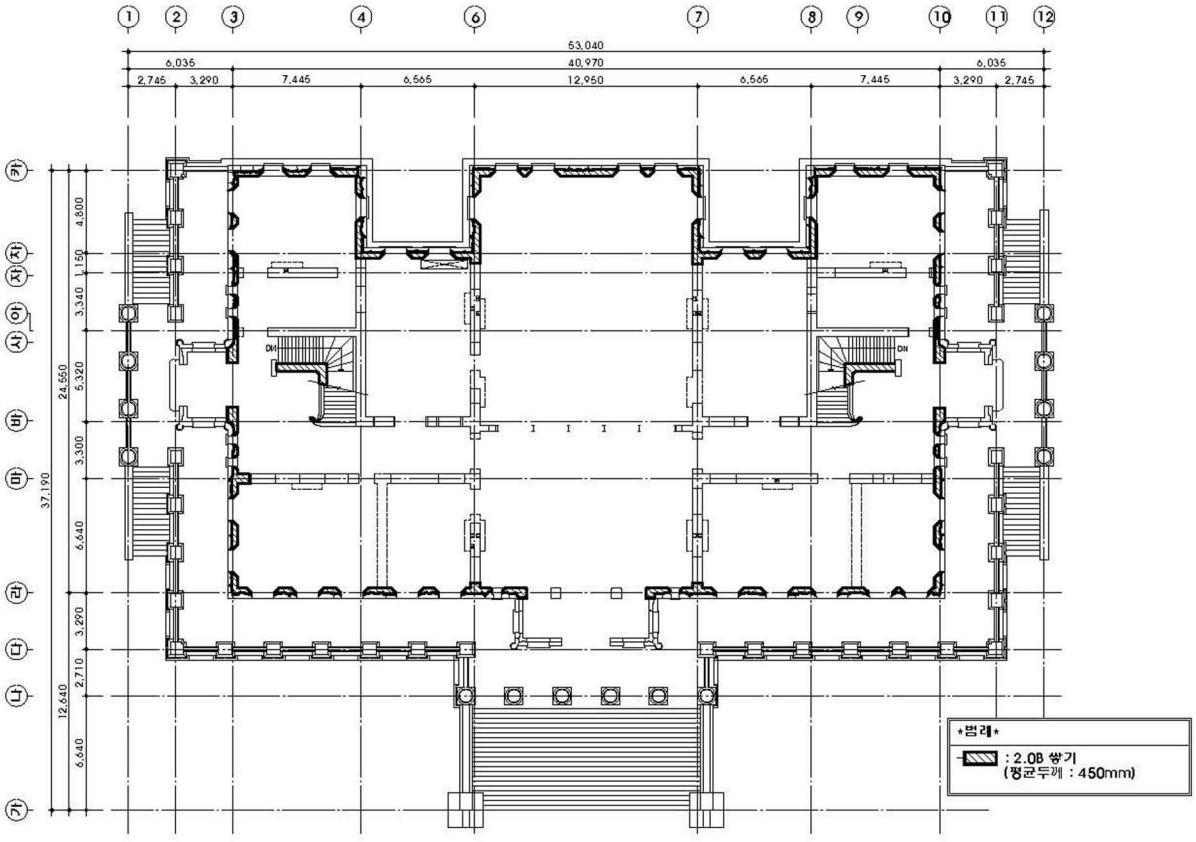
[도면 2-53] 지층 조적 구성도(4.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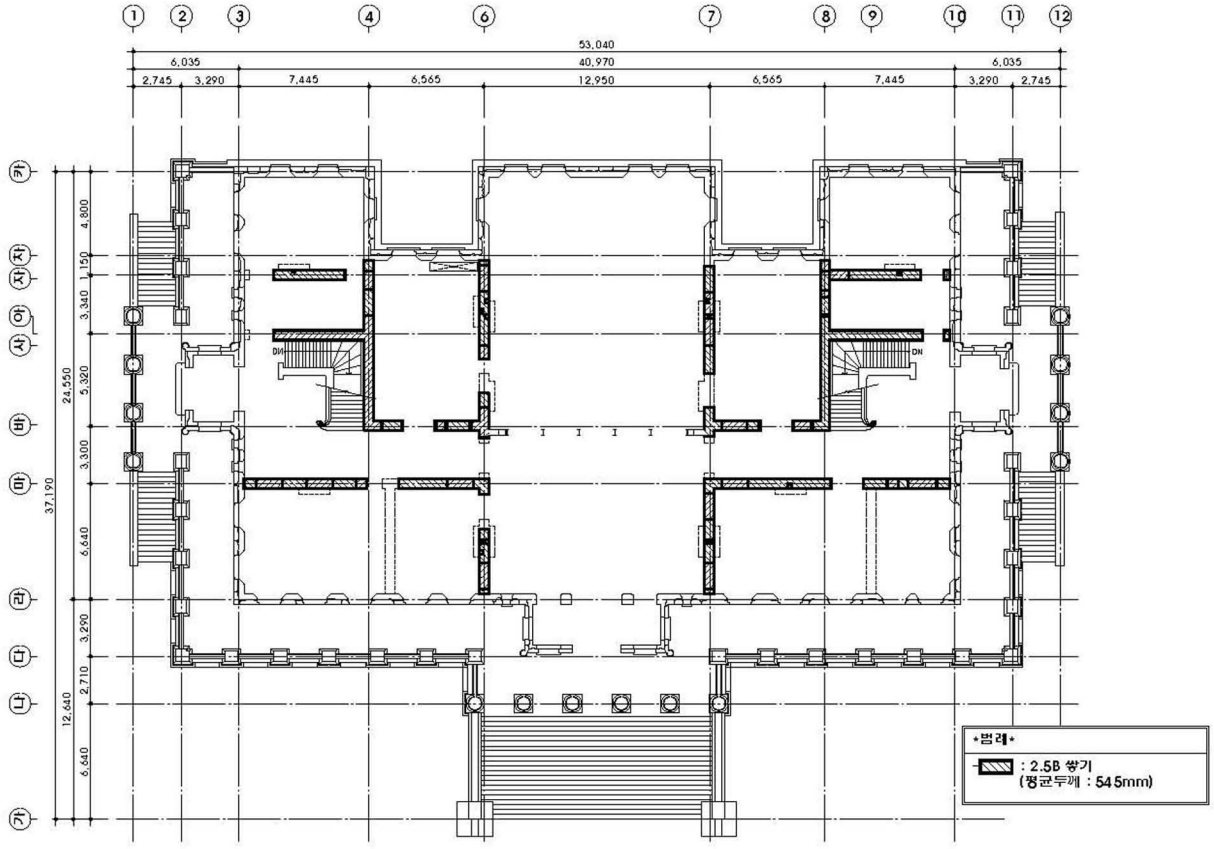
[도면 2-54] 지층 조적 구성도(5.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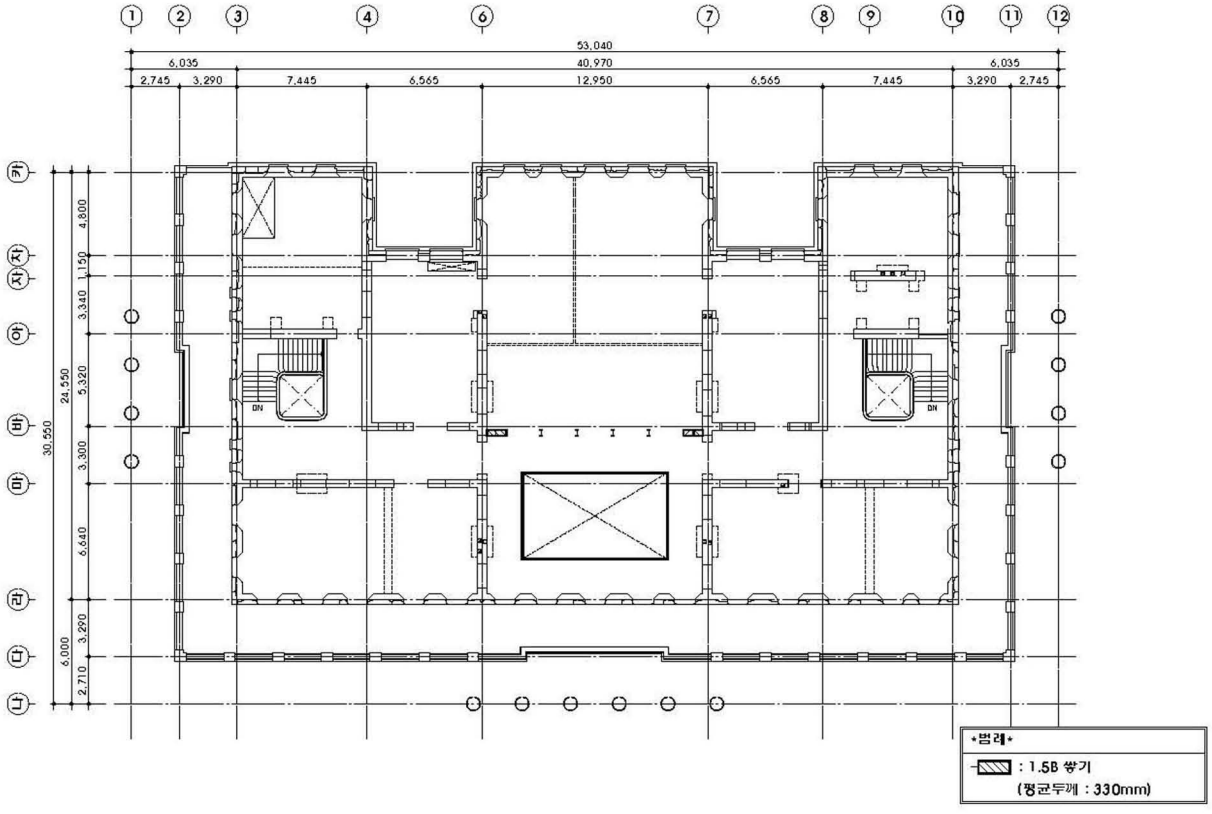
[도면 2-55] 1층 조적 구성도(1.0B,1.5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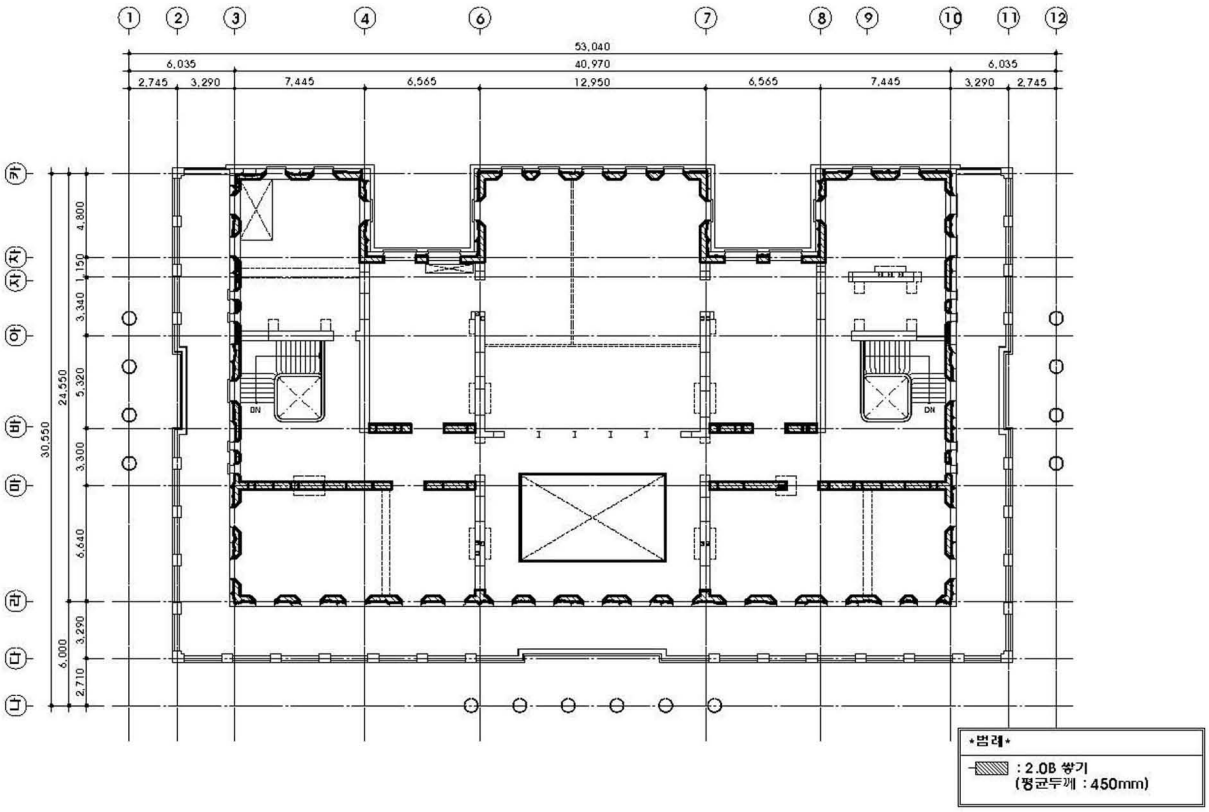
[도면 2-56] 1층 조적 구성도(2.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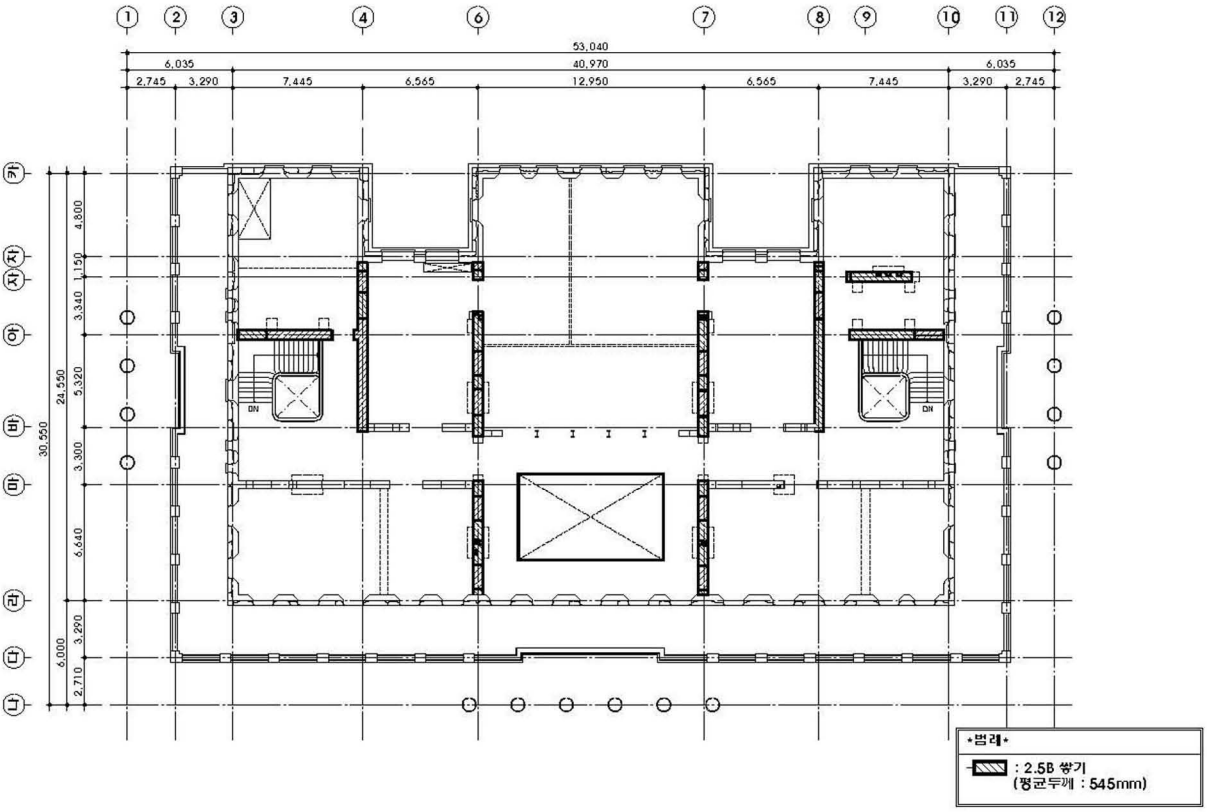
[도면 2-57] 1층 조적 구성도(2.5B)



[도면 2-58] 2층 조적 구성도(1.5B)



[도면 2-59] 2층 조적 구성도(2.0B)



[도면 2-60] 2층 조적 구성도(2.5B)

나. 몰탈 사용(회몰탈, 황토몰탈, 시멘트몰탈)

• **여러 종류의 몰탈 사용** : 석조전에 사용된 몰탈은 크게 세 종류이다. 회몰탈,[4] 황토몰탈, 시멘트몰탈이다. 여러 종류의 몰탈을 사용한 것이 흥미롭다. 처음에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마감을 해체하고 난 후 조사하는 와중에 확인되었다. 시멘트몰탈은 1987년 석조전을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용도 변경을 위한 공사하면서 사용된 몰탈이고 대부분 시멘트벽돌에 사용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다. 또 시기나 변경과정이 확실한 부분이다. 그러나 회몰탈과 황토몰탈은 다르다. 이런 몰탈은 꽤 오래전에 사용된 것이고 한 종류가 아닌 두 종류가 사용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처음 건축 시에는 한 종류의 몰탈만 사용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두 종류를 사용한 것은 시기를 달리해서 공사가 이루어졌거나 너무 오랜 공기로 인해 재료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생긴 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중명전에서 적벽돌을 회몰탈로 조적한 것이 확인되었다.

• **회몰탈** : 석조전에서는 기본적으로 회몰탈을 사용하였다. 거의 대부분 벽에서 사용되고 있다. 육안으로도 확인되는데 시멘트몰탈에 비해 흰색이 많고 강도가 조금 떨어진다.

• **황토몰탈** : 황토몰탈은 일부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색깔이 약간 누런 빛이 돌고 흙 성분이 많으며 강도는 회몰탈에 비해 약하다. 지층에서는 사용하지 않았고 1층에서는 일부에서 사용되었는데 주로 개구부 흔적이 있는 벽에 사용되었다. 접견실의 동쪽 벽과 서쪽 벽 중 상부에 아치 흔적에 있고 1층 소식당(동) 및 소식당(서)와 연결되는 부분과 1층 중앙홀의 동쪽 벽과 서쪽 벽 중 상부 아치, 대식당과 귀빈대기실로 연결되는 부분에 사용되었다. 또 서북1실과 소식당(서) 경계벽 중에서 작은 개구부 흔적이 있는 부분과 대칭해서 동쪽의 동북1실과 소식당(동) 경계벽 중 작은 개구부 흔적이 있는 곳에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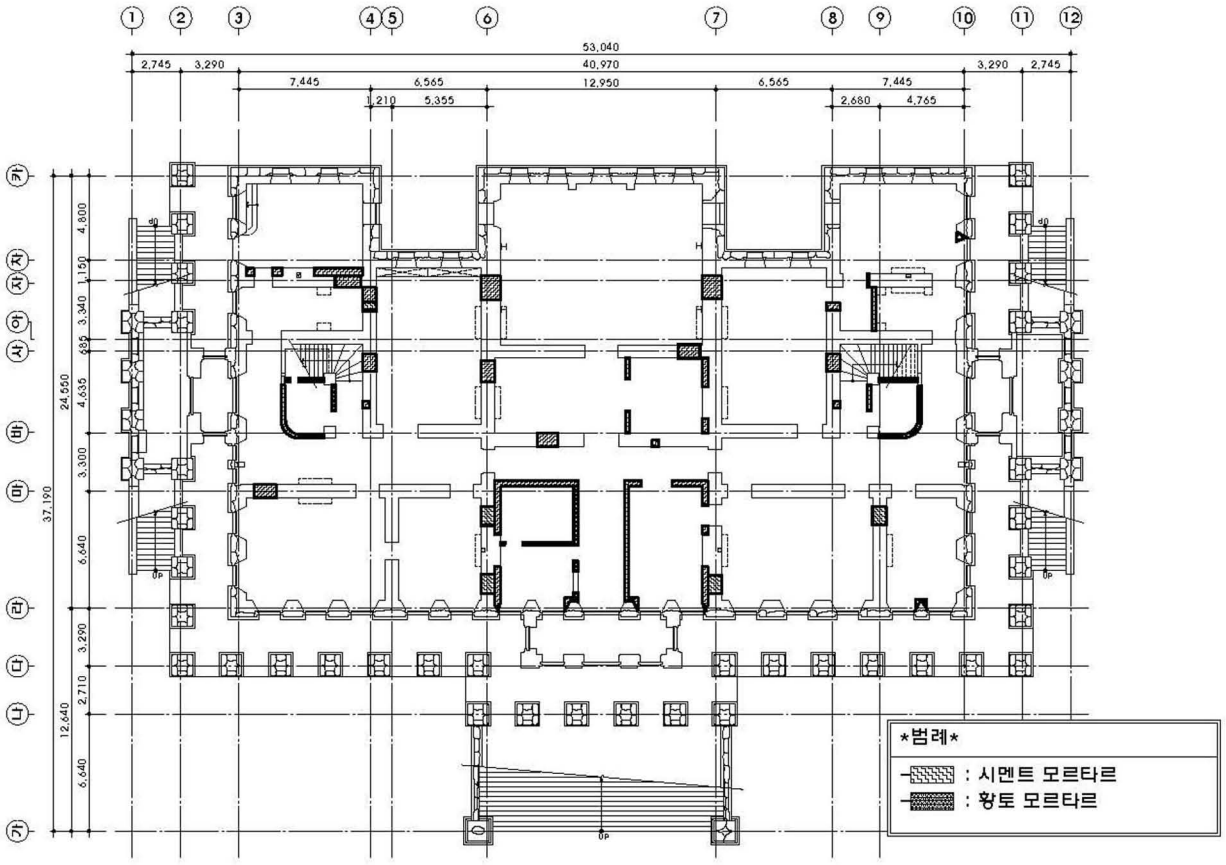
2층 경우도 아주 일부에만 사용되었고 그 위치도 거의 비슷하다. 중앙홀의 동서쪽 경계벽 부분과 동북1실과 서북1실의 작은 개구부 쪽에서 사용되었다. 다른 부분은 황제침실 동쪽 벽과 동북2실의 경계벽, 황후침실과 서북1실 경계벽, 동쪽계단실과 동북2실 경계벽, 서쪽 계단실과 서북1실 경계벽에 있는 개구부 흔적 부분이다. 이 개구부는 모두 상부에 아치가 있고 벽이 분리되었던 증거인 통줄눈이 보이는 곳이다.

1층과 2층에서 황토몰탈을 사용한 부분은 중앙홀을 중심으로 대칭되고 있고 모두 개구부가 있었던 흔적에서만 사용되고 있었다. 그 위치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데 1층과 2층에서 서로 약간 차이가 생기는 것은 나중에 용도 변경을 위한 공사를 하면서 벽을 철거하거나 폐쇄하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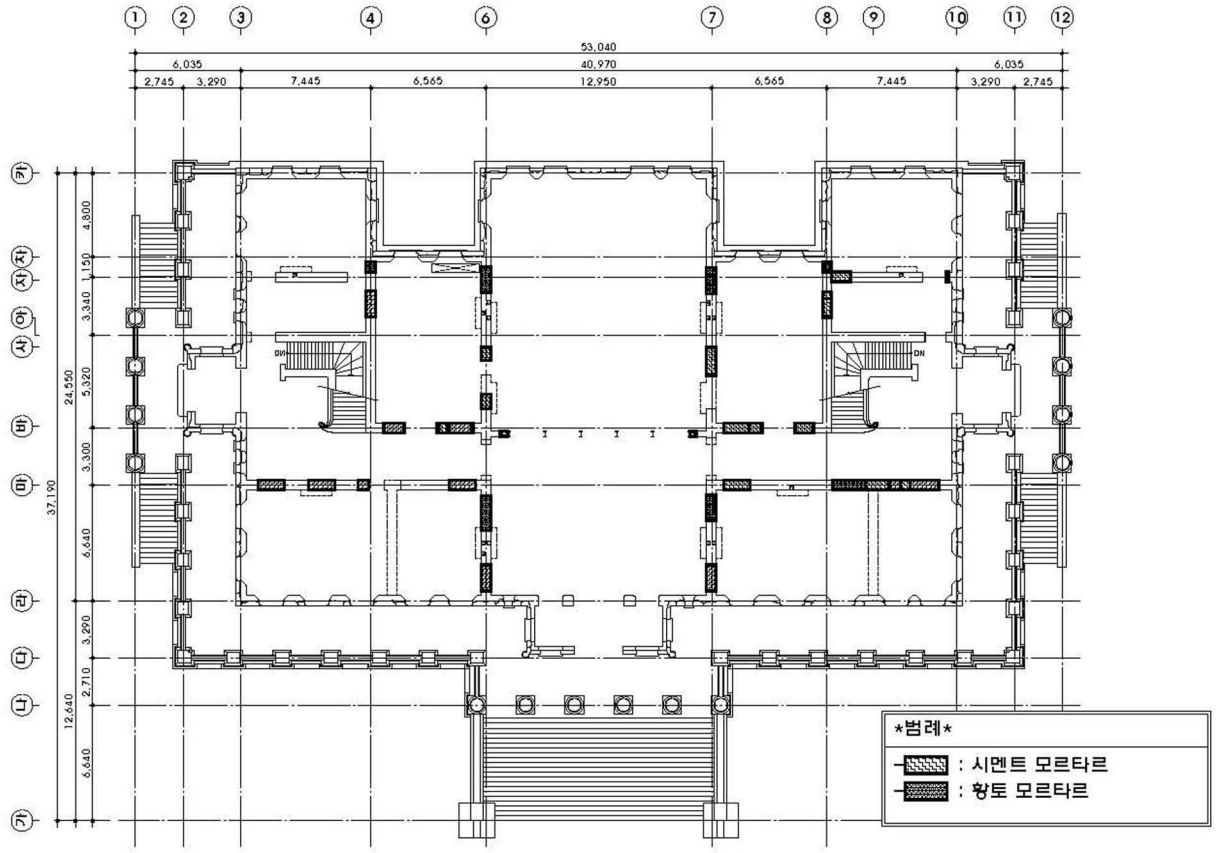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황토몰탈은 회몰탈보다는 후대에 사용된 것이고 사용된 부분도 극히 일부 개구부에서만 사용되었다. 추정하건대 황토몰탈은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공사 말미에 사용되었거나, 아니면 건축초기에는 모두 회몰탈로만 사용되었지만 건축이 끝나고 그 이후에 용도변경으로 인한 공사 때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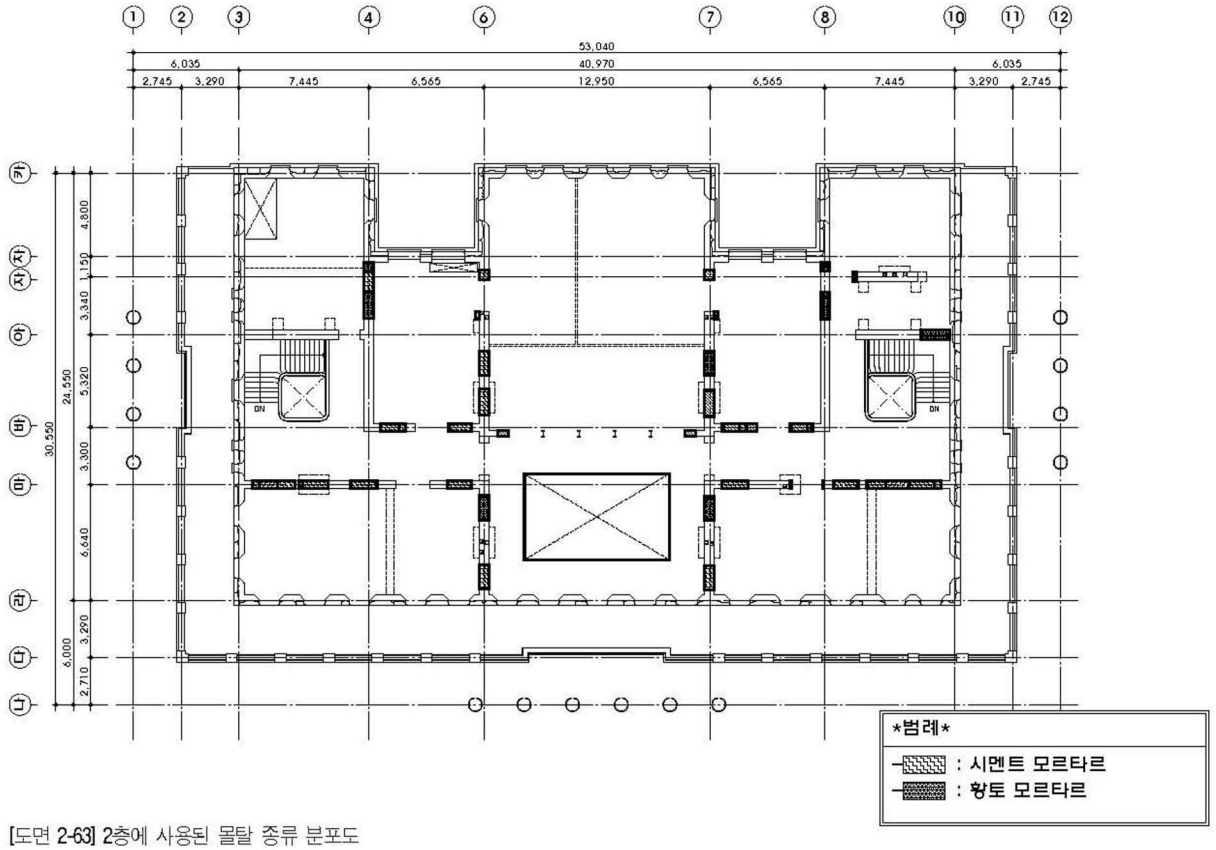
- **시멘트몰탈 :** 시멘트몰탈을 사용한 부분은 1987년 공사를 하면서 변경되었던 부분이다. 1층과 2층 모두 복도쪽 양측면벽과 1층 중앙홀 동·서쪽 벽, 접견실과 2층 황제서재 및 황후거실 동·서쪽 벽에서 사용되고 있다. 주로 개구부 폐쇄 또는 설치를 한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다.



[도면 2-61] 지층에 사용된 몰탈 종류 분포도



[도면 2-62] 1층에 사용된 몰탈 종류 분포도



[도면 2-63] 2층에 사용된 몰탈 종류 분포도

다. 벽돌 사용

• **벽돌 크기 :** 석조전에서 사용된 벽돌은 적벽돌과 시멘트벽돌이다. 시멘트벽돌은 해방 후에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일 뿐이고 주된 벽돌은 적벽돌이다. 적벽돌은 재래식벽돌을 사용하였다. 회몰탈을 사용한 적벽돌 약 1,100개를 임의로 추출해서 실측한 결과 두께는 평균 44.6㎜이고 폭은 98.1㎜, 길이는 208.8㎜이다. 평균치를 산정하다 보니 소수점이 생긴 것을 감안하면 벽돌 크기는 평균 45×98×209㎜가 된다. 두께가 조금 얇고 폭도 작으며 길이도 작은 편이다.

황토몰탈을 사용한 적벽돌은 약 140개를 임의로 추출해서 실측한 결과 두께는 평균 51.79㎜이고 폭은 104.88㎜, 길이는 218.55㎜이다. 소수점을 감안하면 벽돌 크기는 평균 52×105×219㎜가 된다. 이 크기는 회몰탈을 사용한 벽돌보다 큰 것이다. 즉, 몰탈 종류에 따라 벽돌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분명히 시기를 달리해서 조적했거나 그 외 다른 이유로 사용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근에 있는 중명전에서 사용한 벽돌 크기는 55×110×221~230㎜[5]이고 기타 건물에서 사용한 벽돌 크기를 보면 건물마다 차이가 있지만 두께는 55~60㎜이고 폭은 110~130㎜, 길이는 221~250㎜로 석조전에서 사용한 것보다 큰 편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적벽돌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1907년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였다.[6] 석조전의 건축시기와 규모 등으로 볼 때 대량의 벽돌을 국내에서 공급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석조전에서 사용된 벽돌은 중국에서 수입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5) 문화재청, 「덕수궁 중명전 보수·복원 보고서」, 2009, p130.

6) 문화재청, 「덕수궁 중명전 보수·복원 보고서」, 2009, p131.

7) 문화재청, 「덕수궁 중명전 보수·복원 보고서」, 2009, p131.

[표 2-3] 건물별 사용 벽돌 크기[7]

건물	시기	사용벽돌 규격	건물	시기	사용벽돌 규격
번사창	1884년	50×130×250	대한천일은행(광통관)	1909년	60.6×109×227
중명전	1897년 추정	55×110×221	창덕궁 제실박물관	1910	60.6×109×227
정관헌	1900년경	55×110×230	표준벽돌규격(표준)	1924년 이후	60×100×210
벨기에 영사관	1903	60×90×190	석조전(회몰탈)	1900년 이후	45×98×209
대한의원본관	1908년	55×115×227	석조전(회몰탈)	1900년 이후	52×105×219

• **벽돌쌓기 방법 :** 벽돌쌓기 방법은 영식쌓기, 프랑스식쌓기, 네덜란드식쌓기 방법이 있다. 석조전에 사용한 방법은 칠오토막을 쓴 네덜란드방식이다. 입면으로 볼 때 마구리쌓기로 한단 쌓은 후 그 위에 길이쌓기가 한단 올라가고 다시 마구리쌓기로 번갈아 올라가는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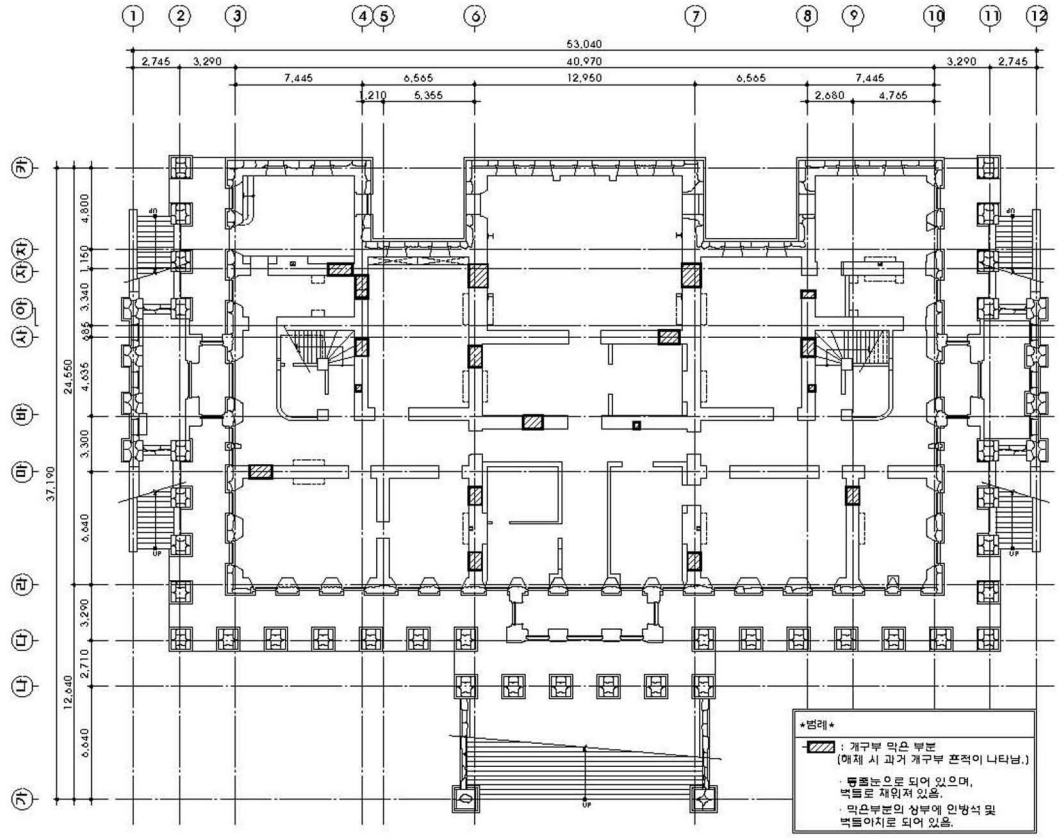
라. 평면 변화

• **개구부 변화 :** 석조전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변화가 개구부의 철거와 폐쇄다. 이는 동선에 변화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건축 이후 후대에 용도가 변하면서 동선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주로 실과 실, 복도와 실을 연결하는 개구부이다. 이 개구부 상부에는 대부분 벽돌 아치인방이 있고 통줄눈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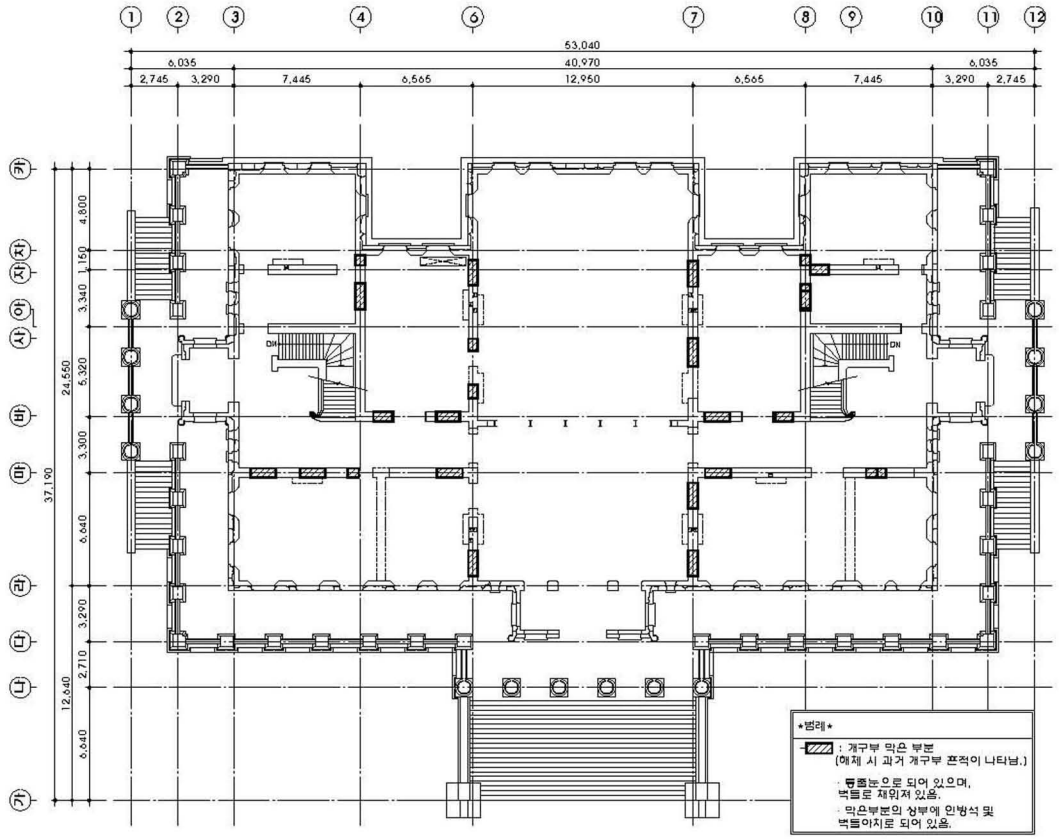
• **평면 변화 :** 개구부 변화와 더불어 칸막이벽의 철거와 축조로 인한 평면 변화도 있었다. 지층에서 칸막이벽이 철거된 부분은 서북2실 일부와 동북1실의 전실로 보이는 동북2실의 벽 일부이다. 두 실 모두 전실로 보이는 공간인데 벽 일부가 철거되었다. 사용상의 편의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축조된 부분은 1층 중앙홀 아랫부분인 지층 서남3실과 동남3실이 있는 관리사무실 공간이다. 이 부분 중 일부인 서남3실 부분이 시멘트벽돌로 칸막이벽이 조적되었다. 공간을 쪼개서 2개 방과 통로를 만들었다. 또 다른 곳은 계단실과 계단실벽이다. 계단이 애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석조전 관련 옛 도면들을 보면 지층에 계단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계단이 슬라브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 후대에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

1층에서 철거된 부분은 대식당과 귀빈대기실의 칸막이벽과 서북2실과 동북2실의 벽 일부이다. 대식당과 귀빈대기실은 원래 칸막이벽이 있었는데 이 벽을 철거한 것이다.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서북2실과 동북2실도 마찬가지이다. 이곳은 반원형볼트가 있었고 이 볼트가 끝나는 부분에 벽 일부가 있었는데 이 벽도 철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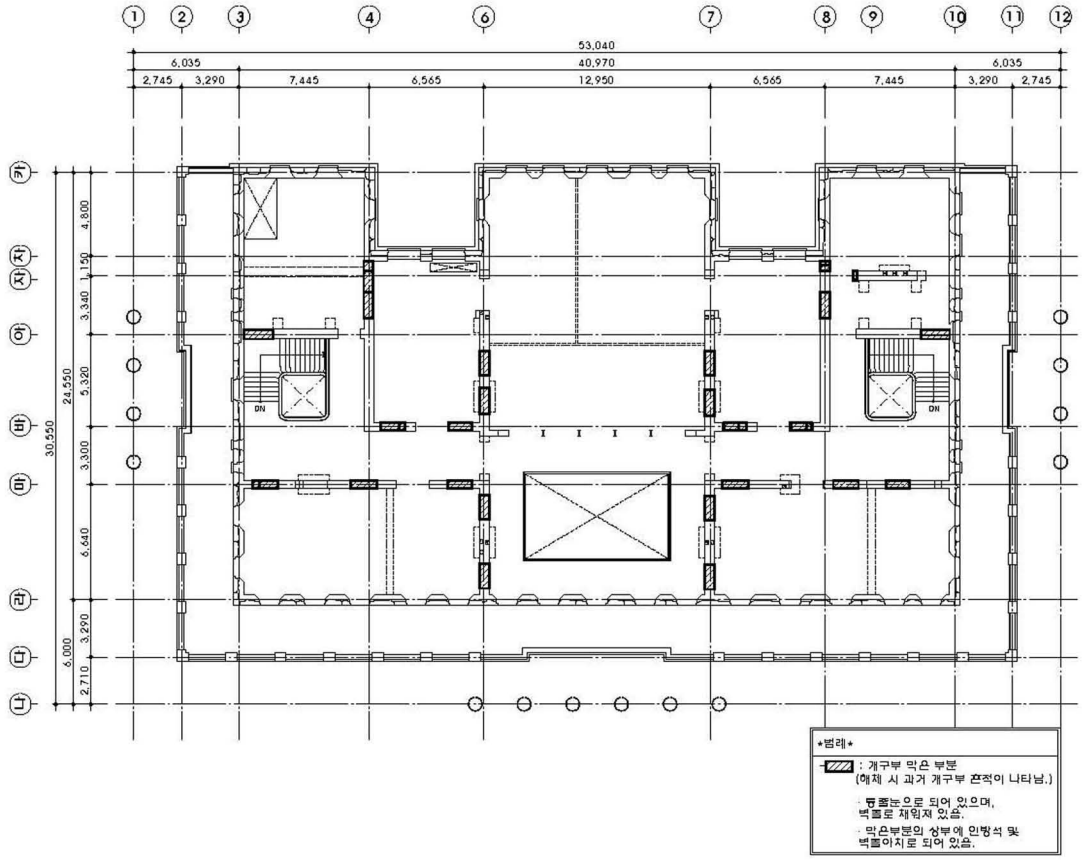
2층에서 철거된 부분도 1층과 거의 유사하다. 다른 것은 황제서재와 황후거실이 있는 큰방의 칸막이벽이다. 응접실과 시종실4 그리고 시종실1, 2, 3실의 칸막이벽이 철거되었다. 이 부분은 1층의 대식당 및 귀빈대기실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또 서북2실과 동북2실 부분도 1층과 같은 현상이 보이고 있다. 서북1실은 전실 자체를 아예 철거하였다. 황제서재와 황후거실 부분은 1층의 접견실과 같은 규모인데 2층에서는 큰 방을 여러 개로 나누어 작은 방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면 2-64] 지층 개구부 폐쇄 구분도



[도면 2-65] 1층 개구부 폐쇄 구분도



[도면 2-66] 2층 개구부 폐쇄 구분도

2) 단면 구조

• **층고** : 석조전은 총 3개 층으로 되어 있다. 지층 층고는 2,876㎜, 1층 층고는 4,964㎜이다. 2층 층고는 조금 애매하다. 층고는 일반적으로 하층 바닥에서 상층 바닥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그런데 2층 바닥높이는 확인되는데 옥상 바닥높이는 확인이 어려웠다. 옥상 바닥이 해체되지 않아서 바닥높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옥상 바닥이 그동안 방수 때문에 여러 차례 공사를 해서 바닥높이가 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 바닥 슬라브 두께 270㎜를 옥상 슬라브 두께로 보고 추정한다면 2층 층고는 4,286㎜가 된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다.

• **슬라브 구조** : 석조전 슬라브 구조는 조적벽 위에 I-Beam을 걸고 이 I-Beam에 아치형철판을 걸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 방식의 구조이다. I-Beam은 120×75×10×10㎜ 크기이고 간격은 480㎜부터 760㎜로 편차가 크지만 대략 700㎜ 전후가 된다. 이 방식으로 지층, 1층, 2층 바닥 슬라브가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방식으로만 슬라브를 구성할 경우 바닥 처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간에 H형 철골 거더를 벽에 걸쳐 대어 슬라브 I-Beam을 받게 되어 있다. 즉, H-Girder → I-Beam → 아치형 철판 → 콘크리트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사진 2-214] 1층 대식당 천장 구조

[사진 2-215] 1층 소식당(서) 천장 구조

[사진 2-216] 1층 접견실 천장 구조

[사진 2-217] 1층 소식당(동) 천장 구조

[사진 2-218] 1층 귀빈대기실 및 동남1실 천장 구조

[사진 2-219] 1층 동북2실 천장 구조

[사진 2-220] 1층 중앙홀 천장 구조

[사진 2-221] 1층 복도 아치형철판 콘크리트 슬라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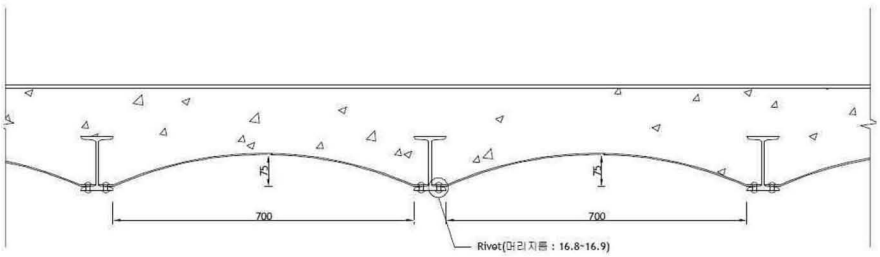
[사진 2-222] 2층 응접실 아치형철판 콘크리트 슬라브

[사진 2-223] 2층 황후침실 천장 구조

[사진 2-224] 2층 응접실 및 시종실4 천장 구조

[사진 2-225] I-Beam 밑에 있는 받침 석재

H-Girder나 I-Beam은 기둥이 아닌 조적벽 위에 걸치게 되어 있는데 바로 벽돌 위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받침용 석재(이하 보받침석)에 걸치게 되어 있다. 즉, 조적벽에 석재를 쌓고 그 위에 얹힌 것이다. 벽돌 위에 얹히지 않고 석재 위에 얹힌 것은 석재가 벽돌에 비해 강도가 높기 때문인 것 같다. H-Girder를 받는 석재는 일정한 크기로 된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대략 350×200㎜ 정도 되고 I-Beam을 받는 석재도 일정한 크기로 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250×100~170㎜ 정도 된다.



[그림 2-3] 석조전 바닥 슬라브 구조(덕수궁 석조전 구조안전진단. 2010.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H-Girder는 각 실에서 보통 짧은 방향인 단면방향으로 대략 3m 전후 간격으로 걸치고 그 직각방향으로 I-Beam을 걸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 실에서는 3m 간격보다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보강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의 칸막이벽을 철거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가 1층에서는 대식당과 귀빈대기실, 접견실에서 확인된다. 2층에서는 서북1실 일부 천장에서만 확인된다.

다만 2층의 시종실1, 2, 3실과 응접실에서는 조금 다른 구조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H-Girder 위에 I-Beam과 아치형철판을 얹히고 콘크리트를 타설했는데 여기서는 H-Girder와 I-Beam 사이에 또 다른 I-Beam하나가 더 설치되어 있다. 이중으로 된 것이다. 이 I-Beam은 그 크기가 120×75×10×10㎜인데 아치형철판을 받치는 장선개념의 I-Beam과 크기가 같다. 이 I-Beam은 애초에 설치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 남북방향으로 설치된 H-Girder의 보받침석 주변을 보면 벽돌 일부가 해체되었다가 재설치 된 흔적이 있고 받침석 바로 아래에도 벽돌이 재 설치된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또 H-Girder를 얹히기 위해 설치된 보받침석이 현재 설치된 남북방향의 직각방향인 동서방향 벽에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즉, 원래는 H-Girder가 동서방향으로 설치되었다가 후대에 남북방향으로 변경 설치된 것이다.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은 칸막이벽 철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칸막이벽을 철거하다 보니 동서방향 길이가 길어져 애초처럼 동서방향으로 H-Girder를 설치하면 슬라브 처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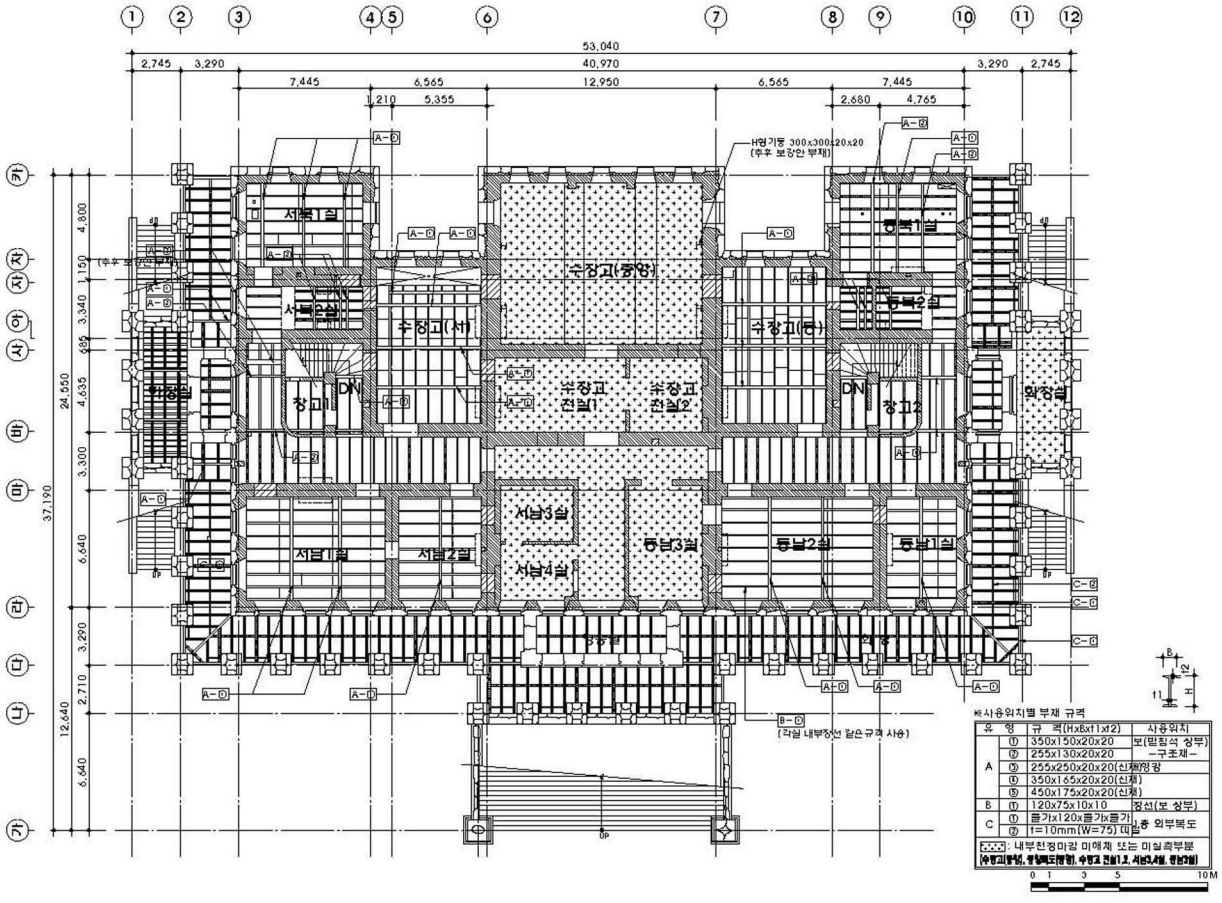
[사진 2-226] 2층 응접실 보받침석

[사진 2-227] 2층 응접실 보받침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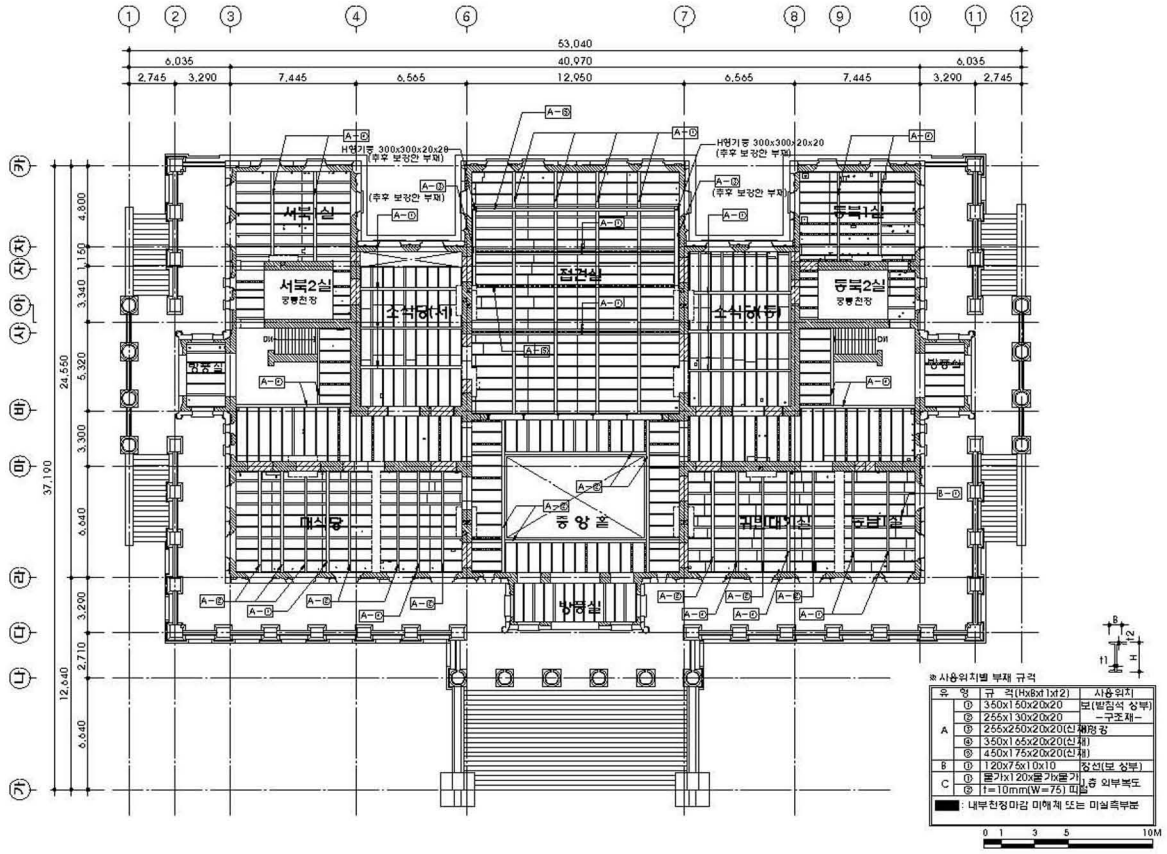
H-Girder는 그 크기가 5종류가 있는데 [표2-4]와 같다. H-Girder는 주로 ①, ②가 많이 사용되었다. H-Girder ①, ②는 지층, 1층, 2층 천장 모두에서 골고루 사용되었다. H-Girder ③은 신재로 1987년 공사 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지층 서쪽 계단실과 1층 접견실 천장에서만 일부 사용하였다. H-Girder ④는 1층 천장에서만 사용하였다. H-Girder ⑤는 1층 접견실 천장에서만 사용되었는데 1987년 공사를 하면서 보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즉, 애초에 H-Girder는 ①, ②만 사용되었다가 후대에 ③, ④, ⑤가 보강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표 2-4] 석조전에 사용된 H-Girder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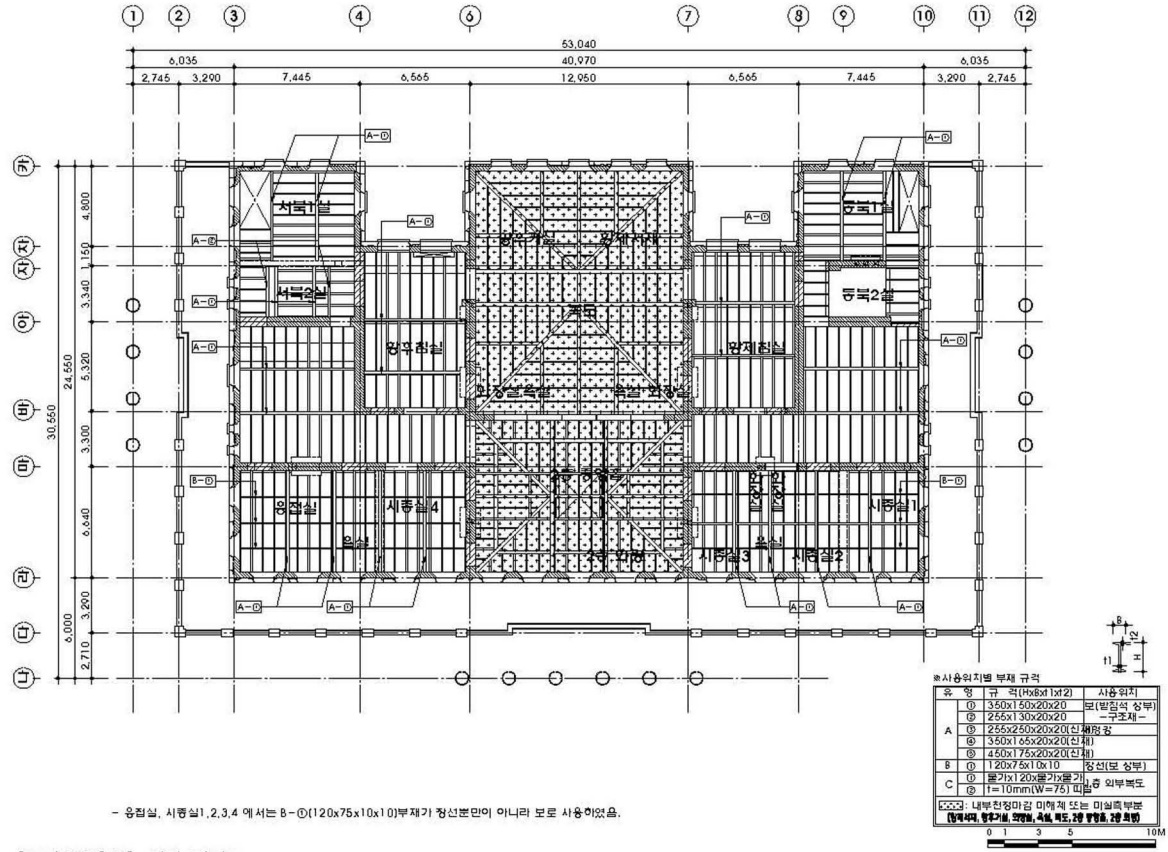
종류	규격(H×B×T1×T2)	비고	종류	규격(H×B×T1×T2)	비고
H-Girder ①	350×150×20×20	-	H-Girder ④	350×165×20×20	신재(후대)
H-Girder ②	255×130×20×20	-	H-Girder ⑤	450×175×20×20	신재(후대)
H-Girder ③	255×250×20×20	신재(후대)			



[도면 2-67] 지층 천장 평면도



[도면 2-68] 1층 천장 평면도



- 응접실, 시종실1,2,3,4 에서는 B-①(120x75x10x10)부재가 정선보만이 아니라 보로 사용하였음.

[도면 2-69] 2층 천장 평면도

3) 벽난로와 돌출벽

• **돌출벽 확인 :** 석조전 벽 마감을 해체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 중의 하나가 벽난로의 존재와 위치 확인이었다. 벽 마감을 해체하면서 벽난로와 관계된 뚜렷한 흔적이 나왔는데 바로 돌출된 벽이다. 이 돌출벽이 있는 부분에서만 벽난로가 나왔기 때문이다. 벽 마감이 철거되기 전에는 돌출된 벽이 있는지 몰랐으나 벽 마감이 철거된 후에 천장쪽 일부에 남아 있는 돌출 부분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천장쪽에 남아 있는 것은 일부분이고 거의 대부분 면바르게 철거되어 있었다. 철거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돌출벽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벽 모두가 철거로 벽돌이 깨진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돌출벽은 벽에서 1.5B 두께인 330㎜ 정도 돌출되어 있고 폭은 평균 1,815㎜ 정도 된다.

돌출벽은 지층에서는 10군데, 1층에서는 10군데, 2층에서는 9군데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층부터 2층까지의 돌출벽의 연결을 고려하면 지층, 1층, 2층 모두 11군데일 것으로 보인다. 지층의 경우 동쪽 복도에만 돌출벽이 없고 나머지는 각 실마다 돌출벽이 있는데 1층에는 이 부분에 돌출벽이 있다. 이런 경우 외에는 아래층에 돌출벽이 있으면 상부층에도 돌출벽이 있기 마련이다. 또 돌출벽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칸막이벽(1층 귀빈대기실과 동남1실 사이 벽)이 철거되었고 일부는 개구부 공사로 철거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각 층마다 11군데씩 있었을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 2-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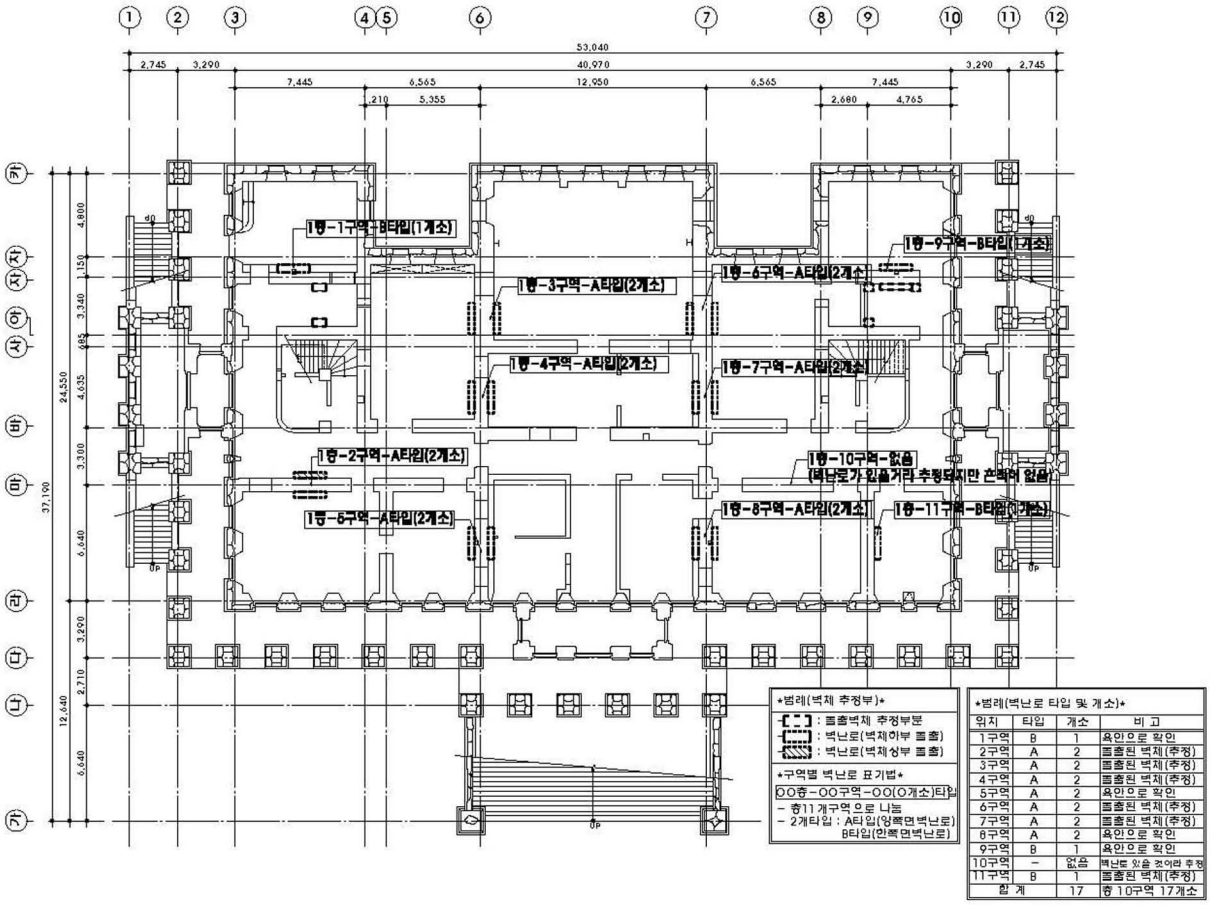
돌출벽은 벽을 두고 앞뒤로 있다. 다만 지층, 1층, 2층 모두 동북쪽 모서리 방과 서북쪽 모서리 방은 한쪽만 있다. 위치는 각 층마다 11군데이지만 벽을 두고 앞뒤로 돌출벽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각 층마다 20개씩 총 60개가 있는 셈이다. 66개가 아닌 60개로 보는 것은 지층, 1층, 2층 모두 동북쪽 모서리 방과 서북쪽 모서리 방은 벽 한쪽에만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추정 개수일 뿐이고 실제는 일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철거 당시 상황으로만 보면 돌출벽은 지층은 11군데 중 10군데에서 17개, 1층은 11군데 중 10군데에서 16개, 2층은 11군데 중 9군데에서 17개로 총 50개가 있다.

이 중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벽난로는 지층은 11군데 중 4군데에서 5개, 1층은 11군데 중 7군데에서 12개, 2층은 11군데 중 4군데에서 5개로 총 22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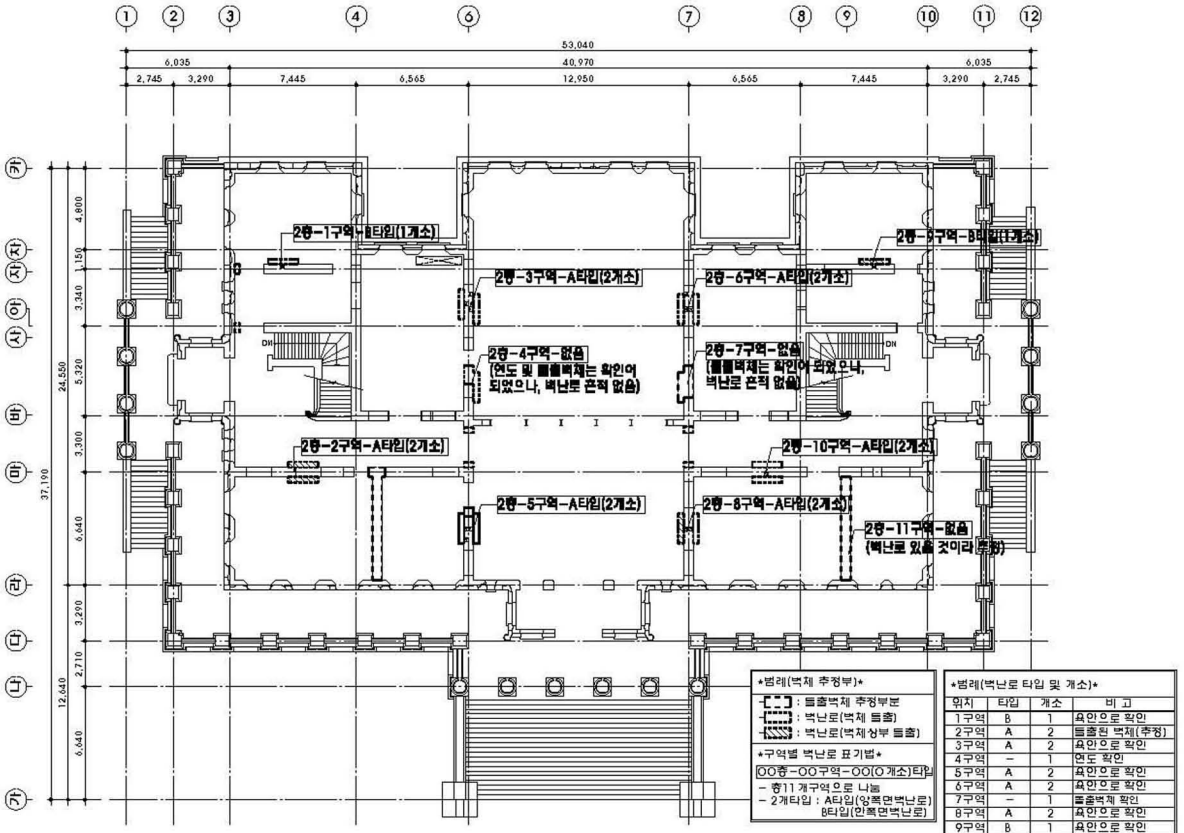
[표 2-5] 돌출벽과 벽난로 흔적

구분	지층 돌출벽			1층 돌출벽			2층 돌출벽		
	돌출벽 수	돌출벽	벽난로 수	돌출벽 수	돌출벽	벽난로 수	돌출벽 수	돌출벽	벽난로 수
1구역	1	●	육안 확인 가능(1개)	1	●	육안 확인 가능(1개)	-	-	벽난로가 있을 것으로 추정
2구역	2	○	돌출 벽체(추정)	2	○	돌출 벽체(추정)	2	○	돌출 벽체(추정)
3구역	2	○	돌출 벽체(추정)	2	●	육안 확인 가능(2개)	2	○	돌출 벽체(추정)
4구역	2	○	돌출 벽체(추정)	1	○	돌출 벽체(추정)	2	○	돌출 벽체(추정)
5구역	2	●	육안 확인 가능(1개)	2	●	육안 확인 가능(2개)	2	●	육안 확인 가능(1개)
6구역	2	○	돌출 벽체(추정)	2	●	육안 확인 가능(2개)	2	○	돌출 벽체(추정)
7구역	2	○	돌출 벽체(추정)	1	○	돌출 벽체(추정)	2	○	돌출 벽체(추정)
8구역	2	●	육안 확인 가능(2개)	2	●	육안 확인 가능(2개)	2	●	육안 확인 가능(1개)
9구역	1	●	육안 확인 가능(1개)	1	●	육안 확인 가능(1개)	1	●	육안 확인 가능(1개)
10구역	-	-	벽난로가 있을 것으로 추정	2	●	육안 확인 가능(2개)	2	●	육안 확인 가능(2개)
11구역	1	○	돌출 벽체(추정)	-	-	벽난로가 있을 것으로 추정	-	-	벽난로가 있을 것으로 추정
계	17		5개	16		12개	17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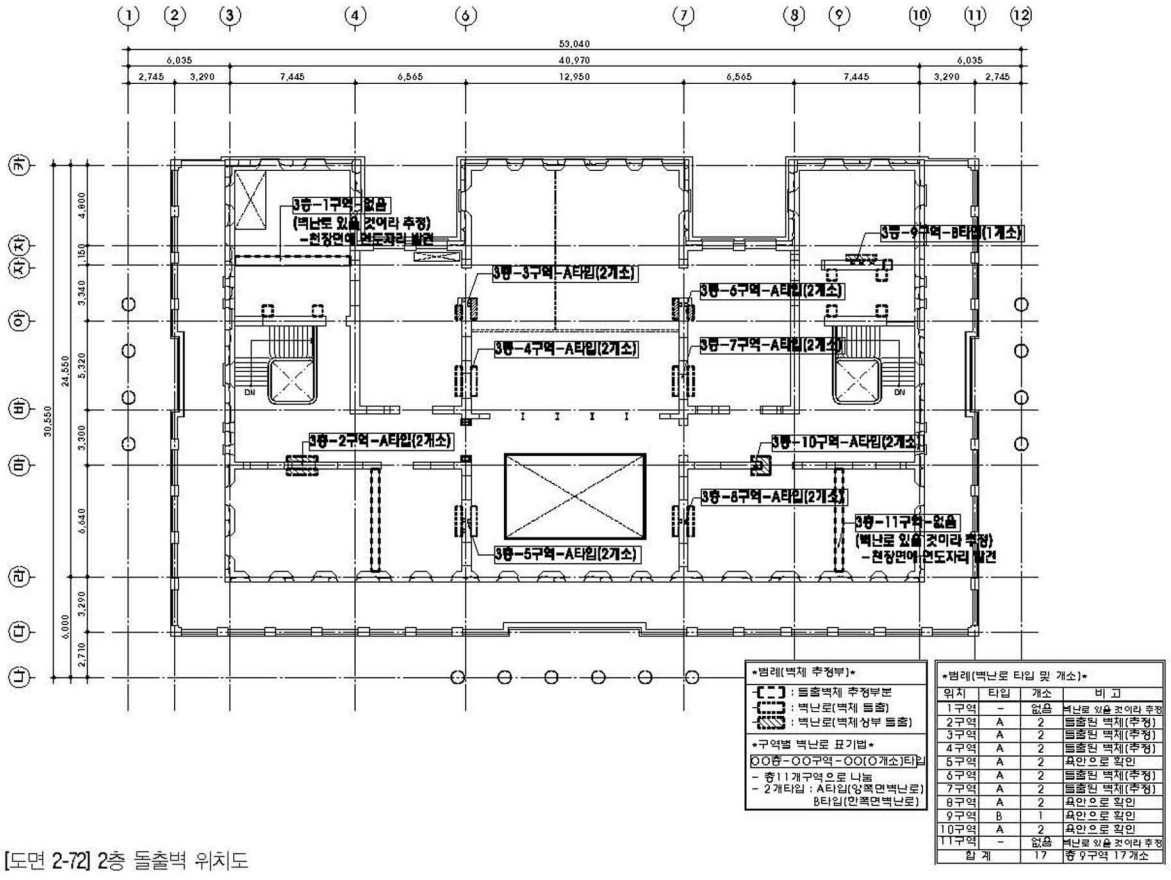
○ : 돌출벽, ● : 돌출벽 + 육안으로 확인된 벽난로



[도면 2-70] 지층 돌출벽 위치도



[도면 2-71] 1층 돌출벽 위치도



[도면 2-72] 2층 돌출벽 위치도

• **벽난로 확인** : 돌출벽과 함께 벽난로와 연도가 확인되었다. 돌출벽 모두에서 벽난로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는 돌출벽 상당수가 철거되어 있기 때문이다. 확인되는 벽난로는 벽 일부를 알코브로 파진 형태로 흔적이 나왔고 난로 위에는 굴뚝으로 연결되는 사각형 모양의 도기로 된 연도가 나왔다. 이 연도는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고 꺾여서 위로 올라가는 구성을 하고 있다. 벽난로는 벽돌로 메운 것이 대부분이었고 메우지 않은 것도 일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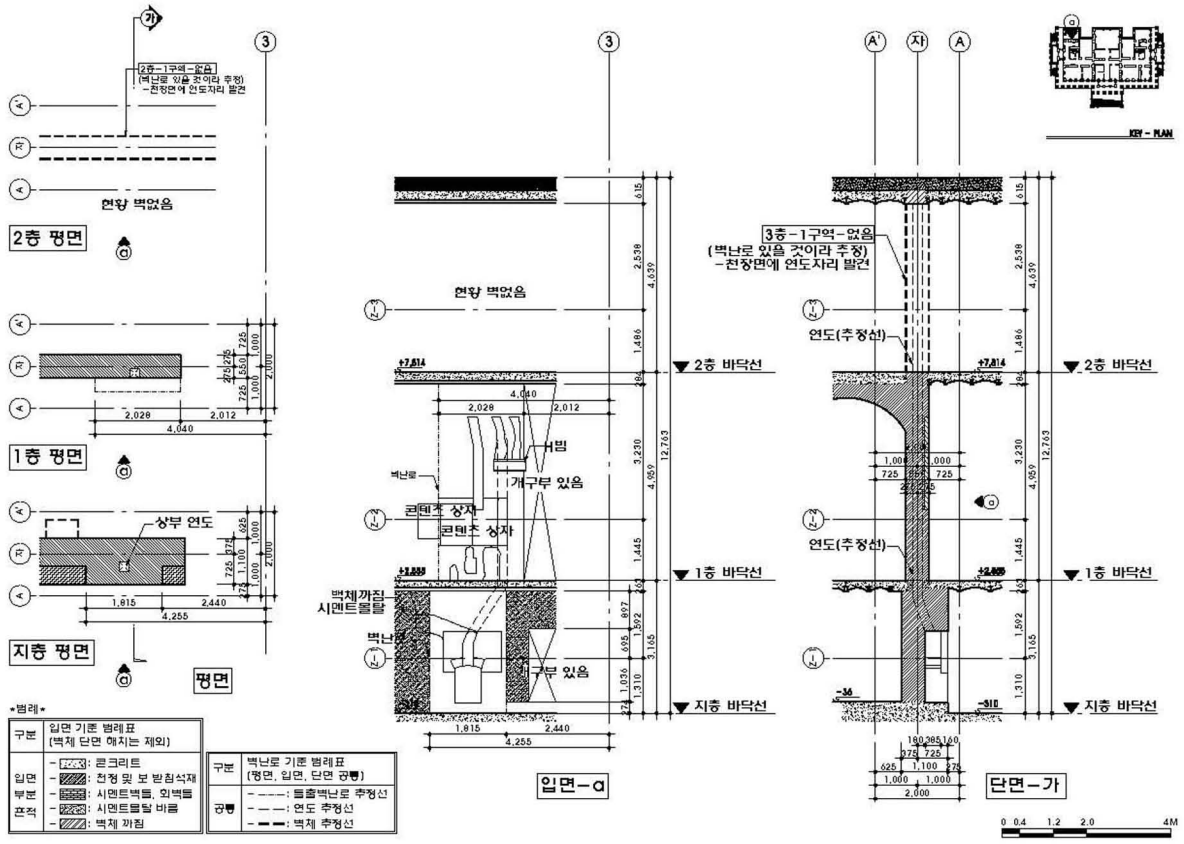
벽난로는 각 실마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층에서는 10군데 돌출벽 17개 중 5개가 확인되었다. 1층에서는 10군데 돌출벽 16개 중 12개가 확인되었다. 2층에서는 9군데 돌출벽 17개 중 5개가 확인되었다. 지층부터 2층까지 총 22개가 확인되었고 1층에서 가장 많이 벽난로를 확인하였다. 규격 확인이 가능한 벽난로를 정리하면 [표2-6]과 같다. 일부 일탈적인 크기의 벽난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경을 기준으로 폭은 650㎜ 전후이고 높이는 850㎜ 전후이다.

[표 2-6] 규격 확인 가능한 벽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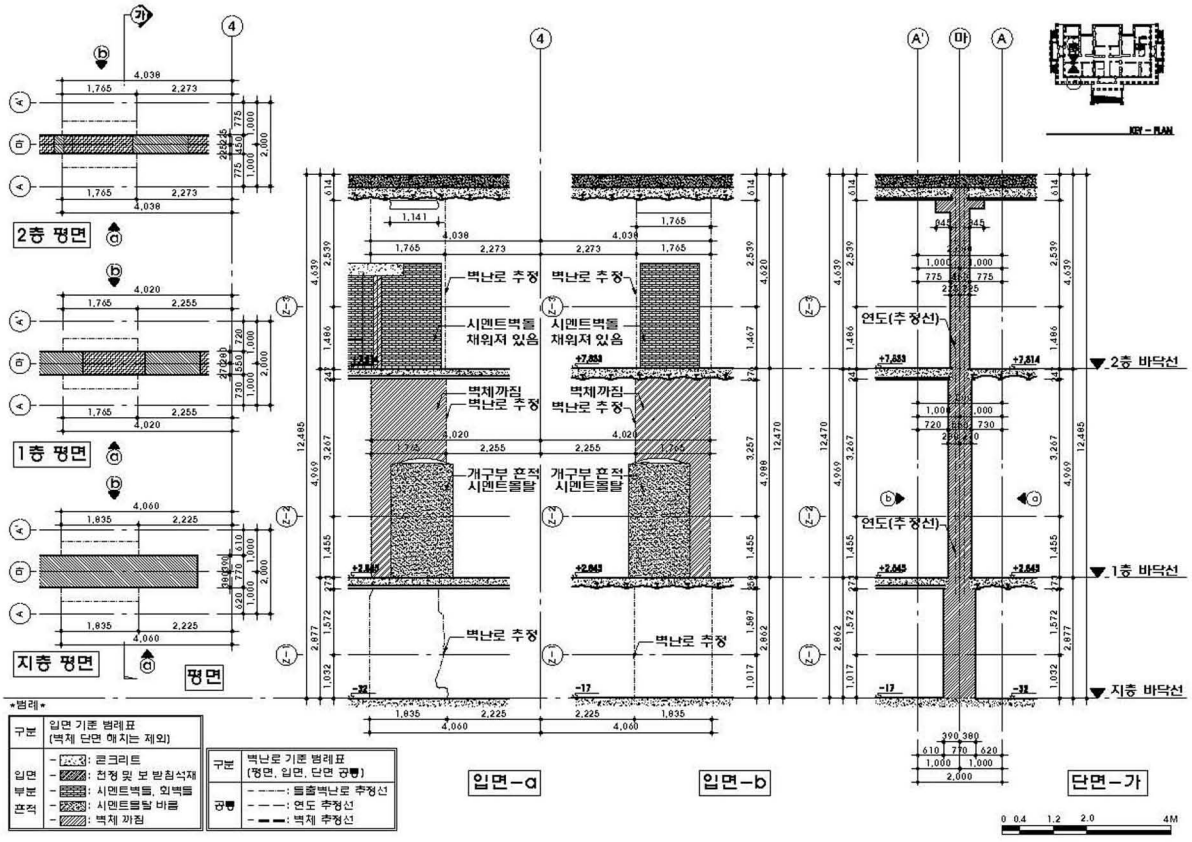
층	위치		폭(내경)	높이(내경)	비고
지층	8구역	동남3실	647	821	
	5구역	서남3, 4실, 동남3실	655	-	
	8구역	동남2실	650	710	
	1구역	서북1실	642	818	
	9구역	동북1실	640	675	
1층	3구역	소식당(서)	(865)	840	파손
	3,6구역	접견실	660	870	
	6구역	소식당(동)	932	1,285	
	8구역	귀빈대기실	(835)	(875)	파손
			1,085	875	
	5,8구역	중앙홀	645	838	
	9구역	동북1실	660	792	
2층	8구역	시종실2, 3실	695	-	
	3구역	응접실	634	-	

[사진 2-228] 지층 서북1실 벽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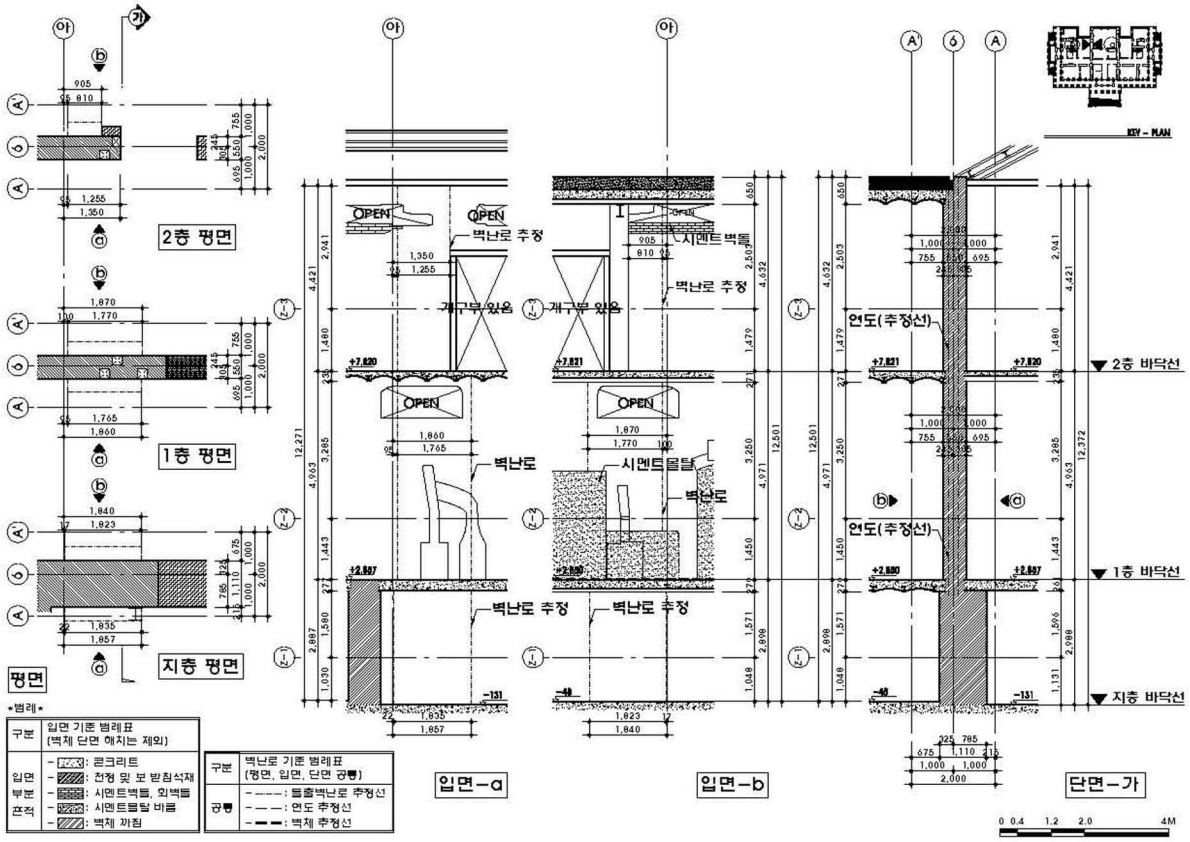
[사진 2-229] 1층 접견실 벽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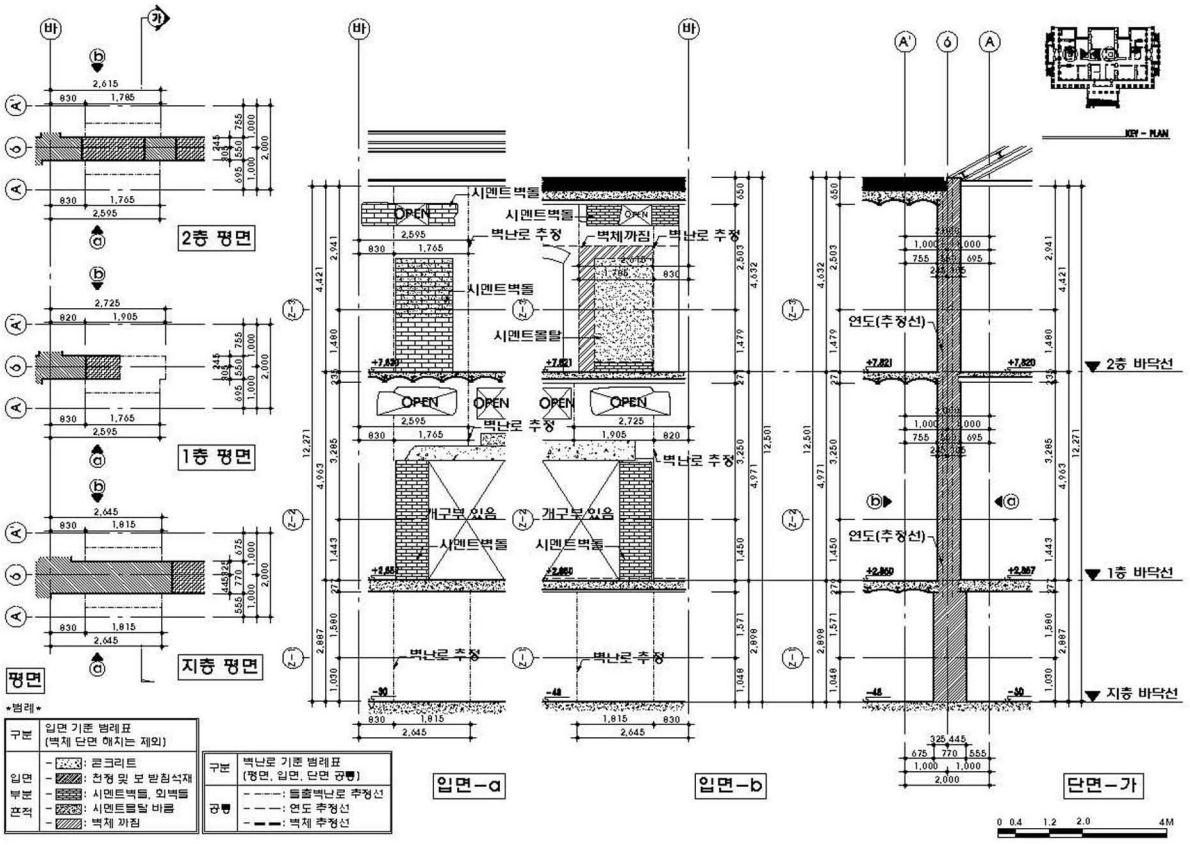
[도면 2-73] 1구역 벽난로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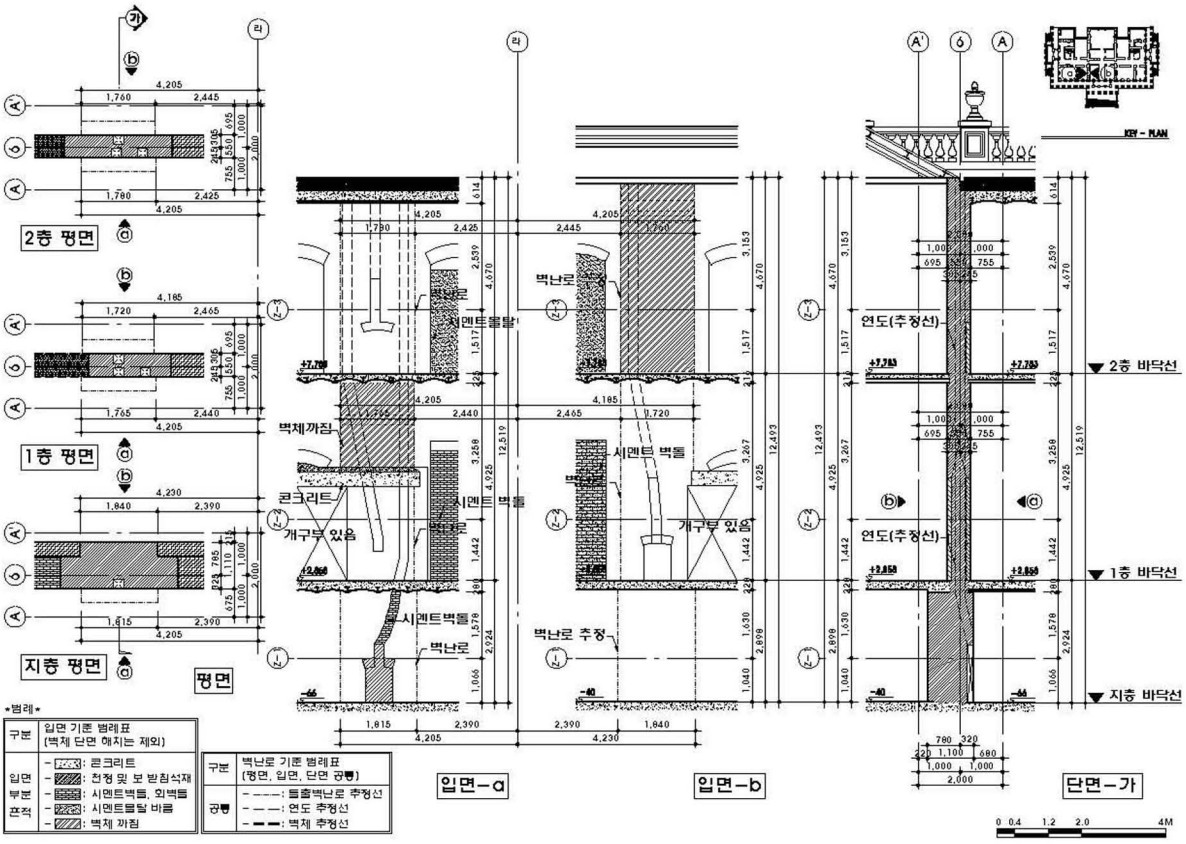
[도면 2-74] 2구역 벽난로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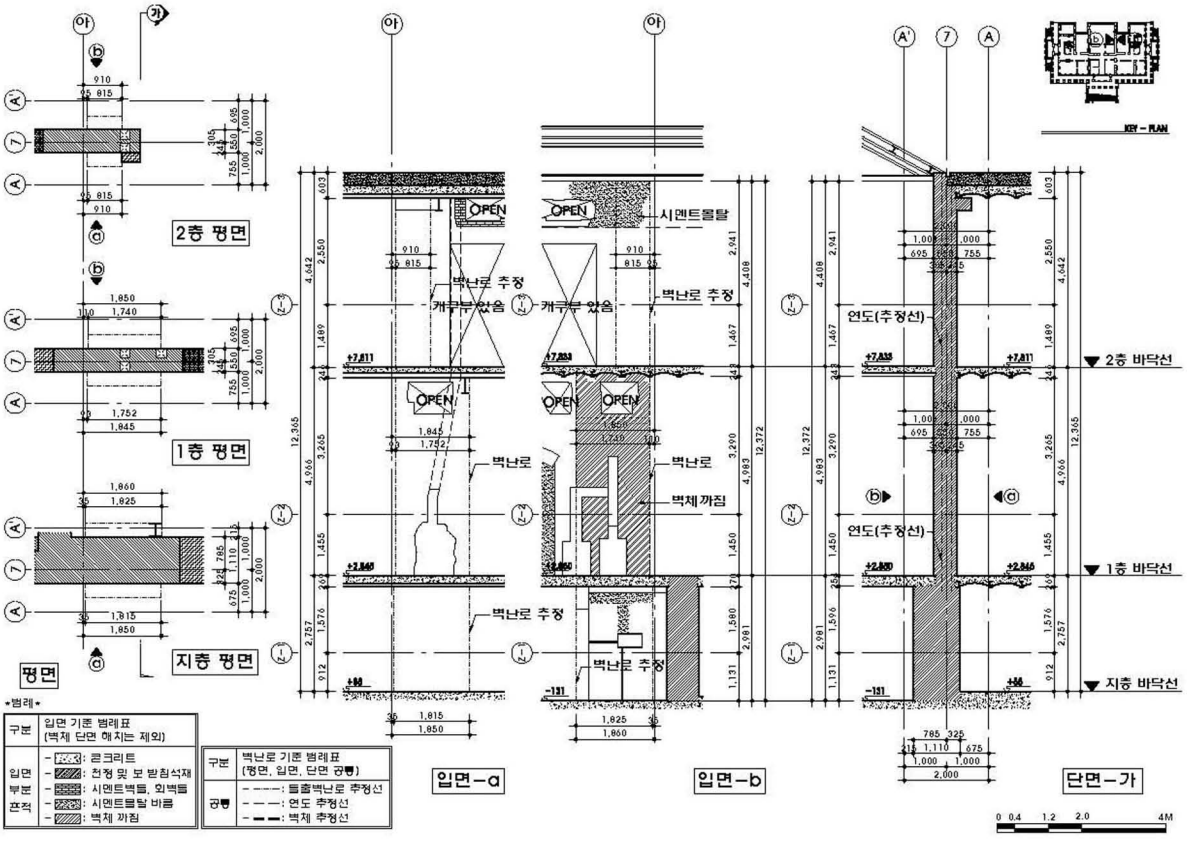
[도면 2-75] 3구역 벽난로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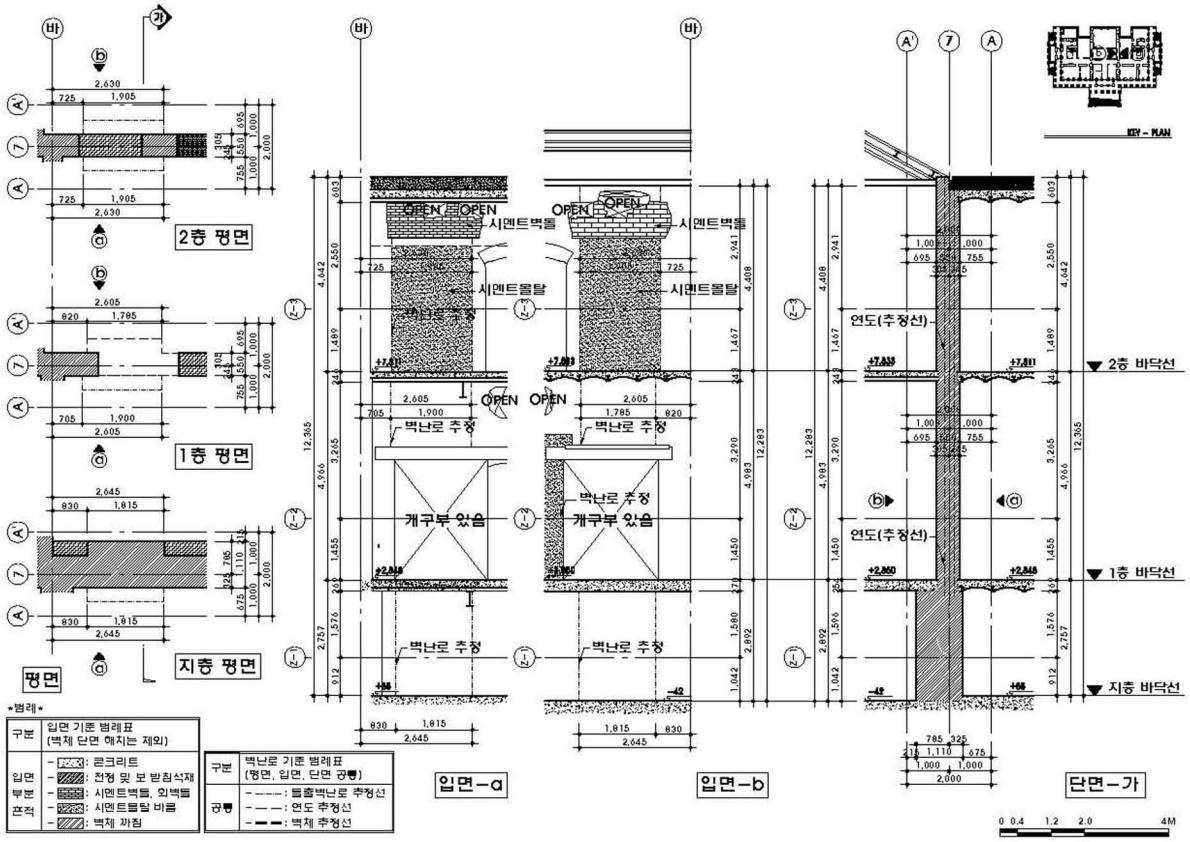
[도면 2-76] 4구역 벽난로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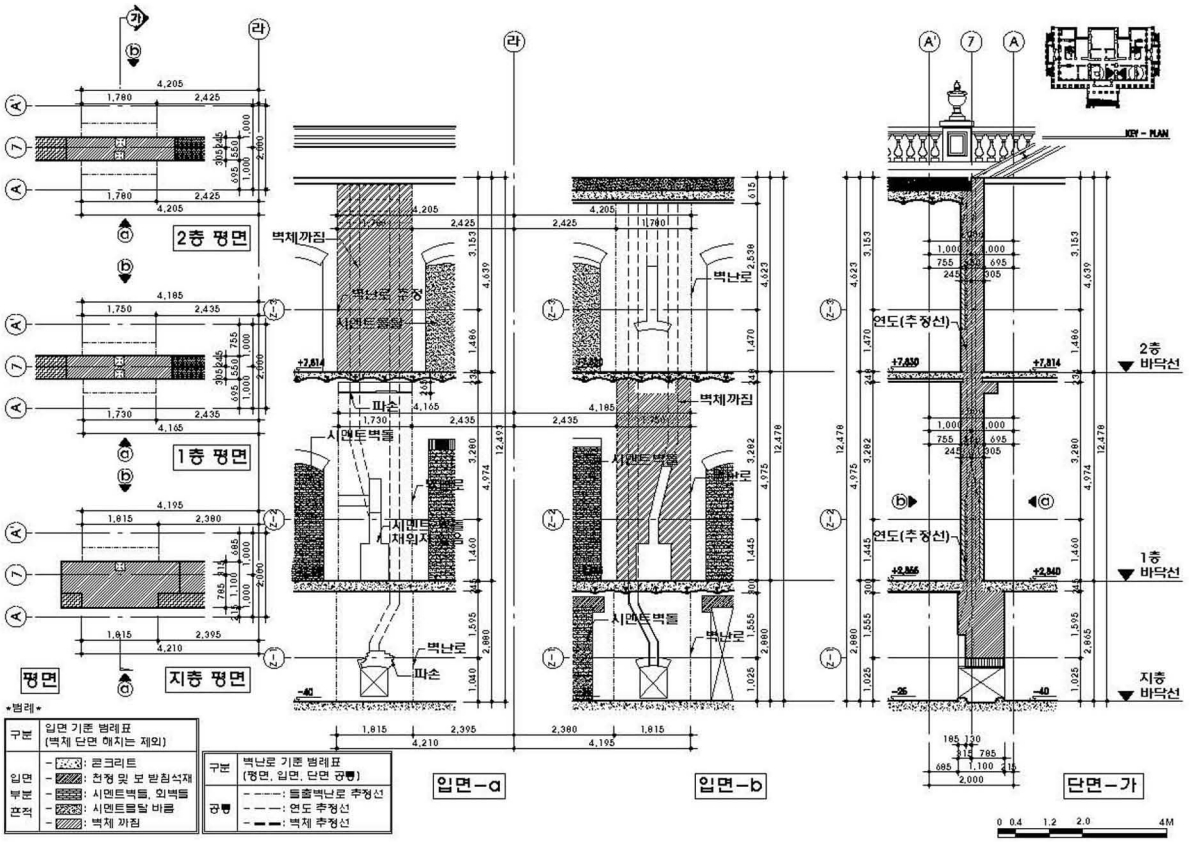
[도면 2-77] 5구역 벽난로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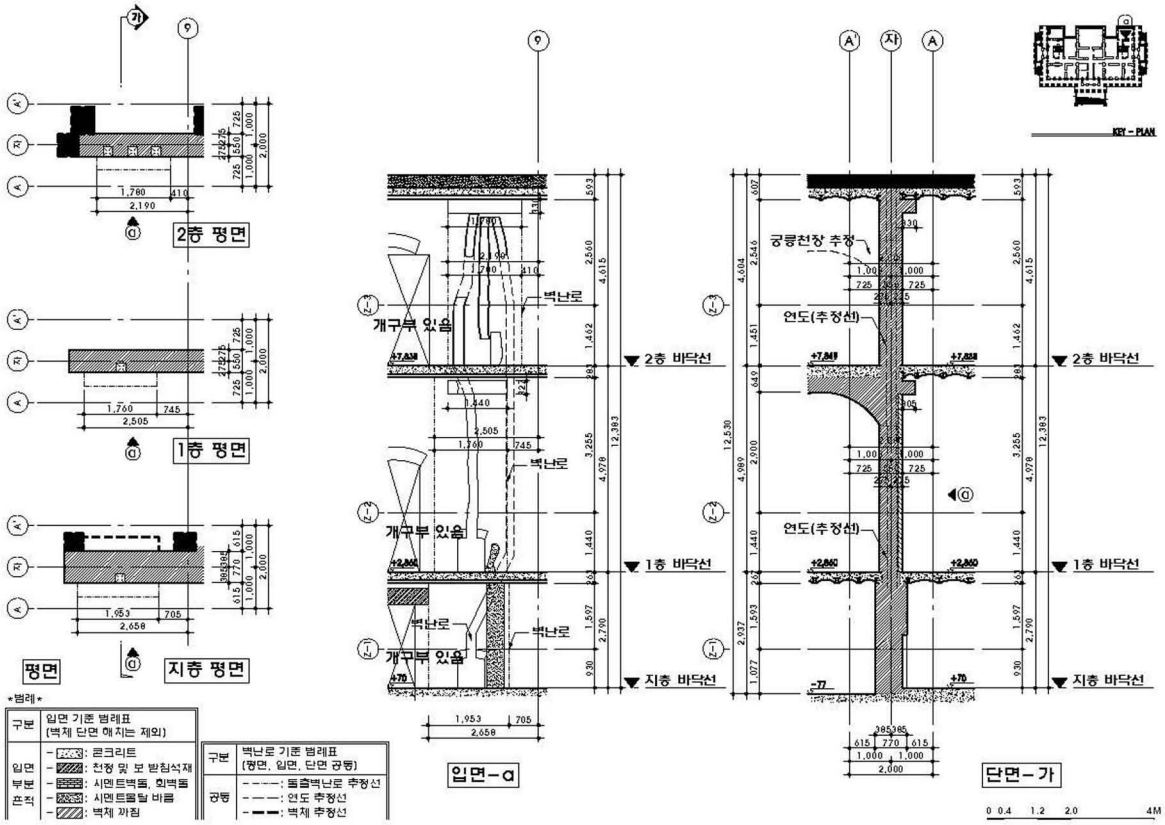
[도면 2-78] 6구역 벽난로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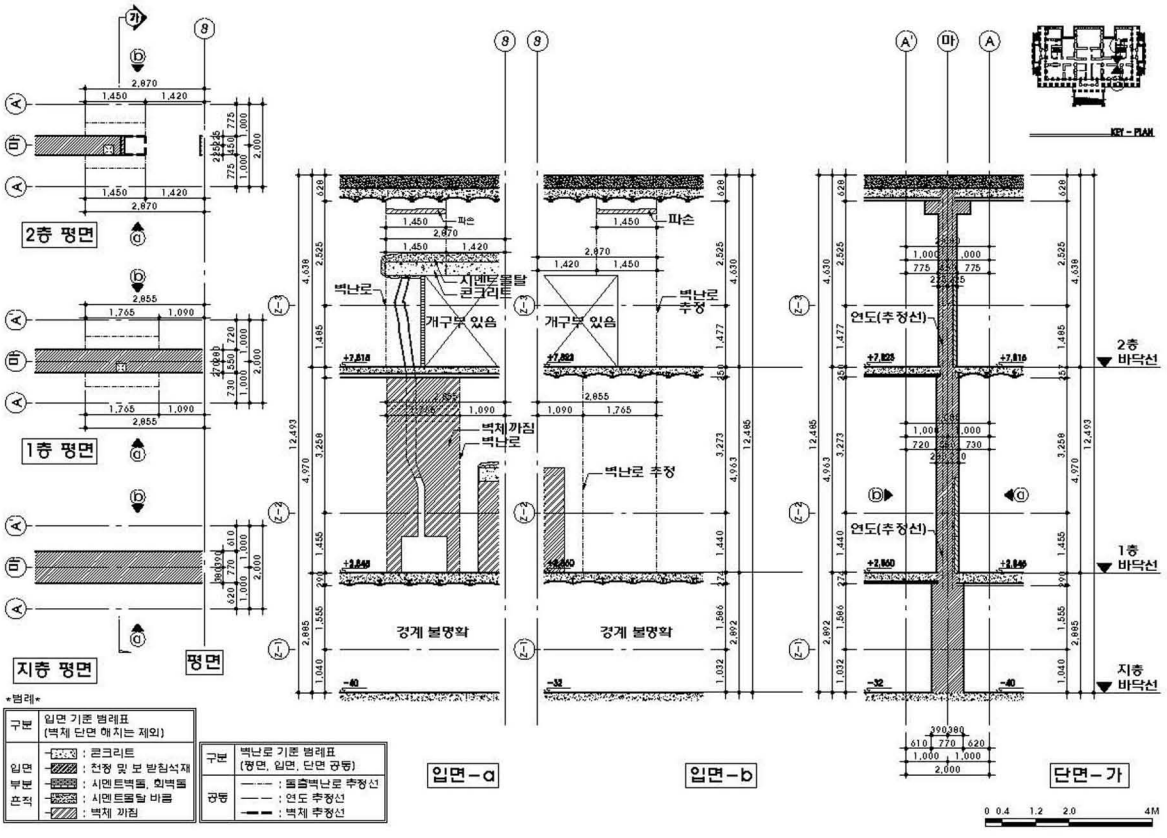
[도면 2-79] 7구역 벽난로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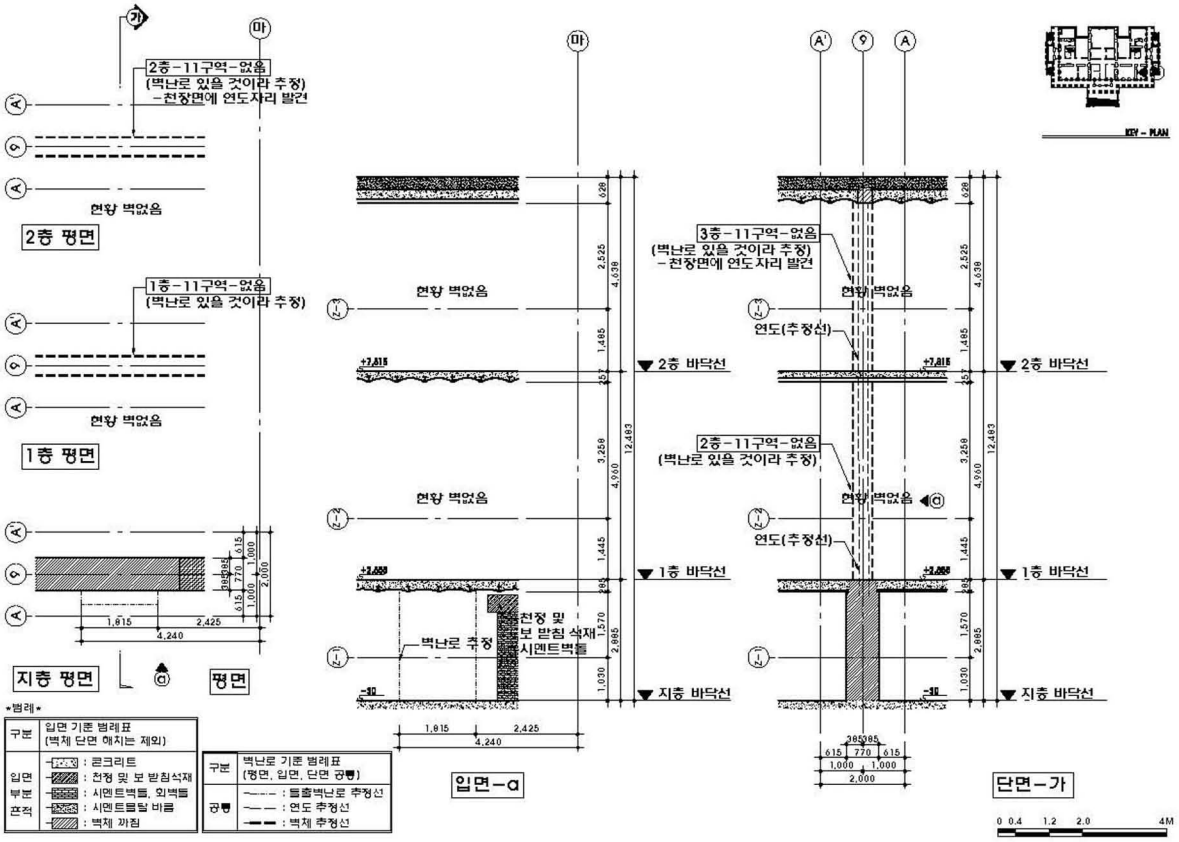
[도면 2-80] 8구역 벽난로 상세도



[도면 2-81] 9구역 벽난로 상세도



[도면 2-82] 10구역 벽난로 상세도



[도면 2-83] 11구역 벽난로 상세도

④ 부속물

① 나무벽돌

석조전 조적벽에는 나무벽돌이 일부 사용되고 있다. 이 나무벽돌은 원형으로 된 것과 각형으로 된 두 종류가 있는데 창문이나 출입구가 있는 개구부와 벽면에 있다. 개구부에 사용된 나무벽돌은 원형으로 된 것도 있지만 주로 각형으로 되어 있다. 창문을 설치하면서 생기는 벽 모서리에 있는데 각형으로 된 것은 벽돌처럼 직육면체이고 크기는 벽돌 크기와 같이 되어 있다. 즉, 적벽돌을 조적하면서 동일한 간격으로 나무벽돌을 적벽돌 대신하여 조적한 것이다. 원형으로 된 것은 모서리보다는 개구부 면에 주로 있다. 그 간격은 벽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벽돌 8장에서 10장 간격으로 약 400~500㎜ 간격으로 되어 있다.

벽면 중간 중간에 끼워져 있는 나무벽돌도 개구부 모서리에 있는 나무벽돌처럼 애초에 조적하면서 동일한 간격으로 조적한 것인데 이 나무벽돌도 원형과 각형 두 종류가 있다. 그 지름은 적벽돌 두께와 같은데 약 45㎜ 정도 된다. 그 간격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로가 약 600㎜ 전후이고 세로는 약 450㎜ 정도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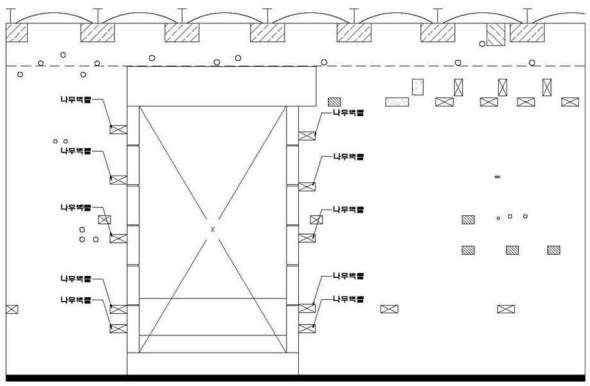
이 나무벽돌이 끼워진 정확한 이유는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지만 추정컨대 벽 마감처리를 위한 받침목일 가능성이 높다. 즉, 벽 최종마감이 목재이거나 플라스터 등일 경우 못질이나 철물 연결을 해야 하는데 이때 못질 등을 위한 받침목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지금처럼 콘크리트못이 당시에 없을 것이고 콘크리트못이 있었다 해도 소위 타카 같은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2-230] 개구부 벽에 있는 나무벽돌(원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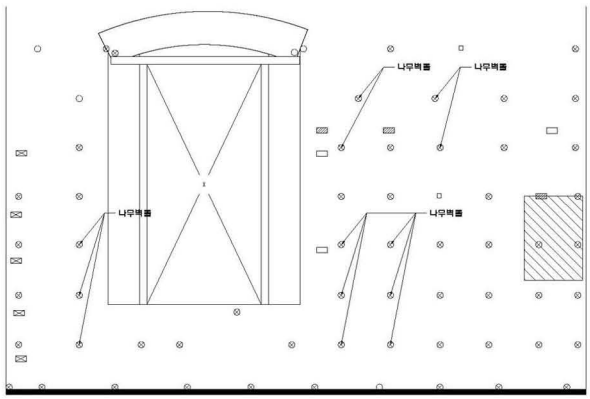
[사진 2-231] 개구부 벽에 있는 나무벽돌(각형)

[사진 2-232] 벽면에 있는 나무벽돌(원형)

[사진 2-233] 벽면에 있는 나무벽돌(각형)



[도면2-84] 개구부 벽에 있는 나무벽돌(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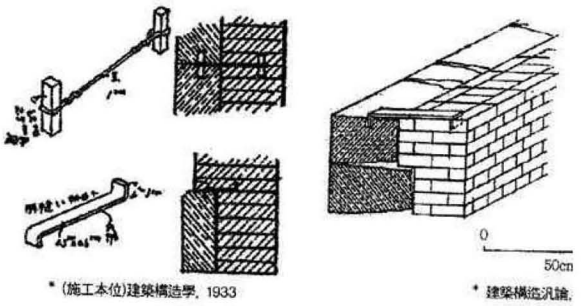


[도면2-85] 벽면에 있는 나무벽돌(원형)

② 철편

2층 조적벽 상부에는 두께 10㎜, 폭 50㎜ 정도 되는 철편이 군데군데 삐져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철편 몸체는 조적벽 줄눈 사이에 설치되어 있고 돌출된 부분은 'ㄱ' 자로 꺾여 아래로 향하게 되어 있다. 외벽을 해체하지 않아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철편의 용도는 일종의 긴결철물로 보인다. 즉, 외부 마감재인 석재가 이탈될 것을 우려해 이 철물 한쪽은 석재에 고정하고 한쪽은 조적벽에 설치하여 고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20세기초 건축구조물의 기술사』(김태영, 노선화, 박창범. 2011. 기문당)에서 그 사례를 도면화한 것이 있는데 [그림 2-4]와 같다. 이 도면을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석재와 조적벽을 연결한 것이 나온다. 한 가지는 철편을 이용해 연결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방법은 쇠줄을 각관과 연결해 석재와 조적벽 사이에 구멍을 파고 그 구멍에 각관을 묻어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석조전 경우는 철편을 사용해 고정시킨 방법으로 되어 있다.

[사진 2-234] 2층 조적벽 상부에 있는 철편



[그림 2-4] 『한국 20세기초 건축구조물의 기술사』 2011. 기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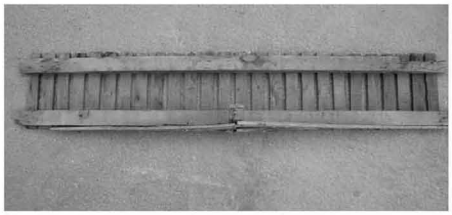
③ 띠장목 인방[8]

8) 띠장목 인방이란 일반 용어는 아니고 필자가 설명을 위해 만들어낸 용어이다.

1층과 2층 개구부 상부에는 띠장목 인방이 있다. 띠장목 인방은 소위 졸대라고 불리는 두께 12㎜, 폭 30㎜ 정도 되는 얇은 각재를 약 30×30㎜ 정도 되는 띠장에 못 박아 대고 개구부 상부에 인방처럼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 띠장목 인방은 수평으로 설치되는데 대부분 벽돌 아치인방이 설치되어 있는 바로 아래에 설치되어 있다. 벽돌 아치인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띠장목 인방이 또 설치된 것이 흥미롭다. 이는 벽돌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개구부 상부에 화강석과 같은 인방석을 설치하지 않고 벽돌로만 인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방을 아치형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개구부 상부를 수평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었는데 벽돌로만 인방을 설치하다보니 평아치로는 설치하지 못하고 일단 아치형으로 인방을 설치한 뒤 평아치를 만들기 위해 이 띠장목 인방을 설치하고 거기에 최종 마감을 한 것이다.

[사진 2-235] 개구부 상부에 설치된 띠장목 인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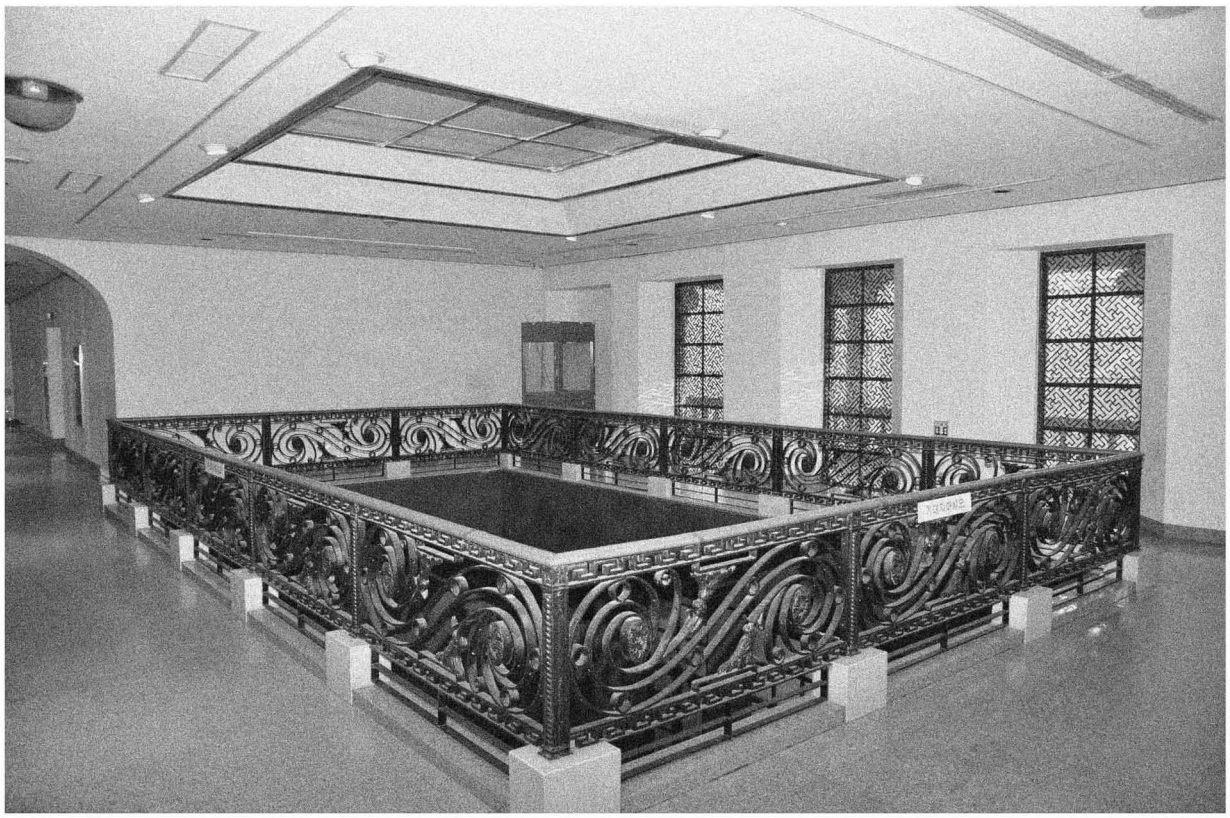
[사진 2-236] 해체된 띠장목 인방



[사진 2-237] 해체된 띠장목 인방

제 3 장

수리공사



제 3 장

수리공사

석조전 수리공사

처럼 공사 중에 자료를 발굴하고 분석해서 단계적으로 고증을 거치면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는 없는 것 같다. 공사를 위해 벽 마감을 해체했을 때 옛 석조전의 모습이 나타나 흥분을 주었고 수리공사를 하면서 자문위원, 문화재청, 시공자는 지속적으로 원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 재독학자에 의해 오래된 석조전 도면이 발굴되면서 원형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 덕수궁 석조전 수리공사 개요

석조전 수리공사는 2009년 10월 시작하여 2014년 05월 완료되었다. 애초 공사기간은 2012년 10월까지로 3년 예정이었으나 1년 7개월이 연장되어 총 4년 7개월이 소요되었다. 공사비도 애초에는 예정금액이 건축, 기계 포함해서 46억 9천만 원 정도였으나 119억으로 늘었다. 이처럼 공사기간이 늘고 공사비도 증액된 가장 큰 이유는 공사하는 도중에 원형복원과 관련된 중요한 흔적과 자료가 다수 발굴되어 완성도 높은 보수복원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공사 초기에 벽 마감재를 해체하면서 확인된 애초 석조전의 개구부 흔적과 벽난로와 그 흔적의 발견이다. 이미 알려진 도면에서는 명확하지 않았는데 벽 마감을 해체하면서 아주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개구부 흔적은 동선에 따른 평면의 구성을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매우 중요한 흔적이었다. 벽난로 또한 마찬가지였다. 난로가 있었다는 것은 각 실의 구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문화재청과 시공팀의 적극적인 노력이다. 시공팀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석조전 관련 사진과 문서를 많이 발굴해서 분석하여 평면의 구성을 확인하였고 이미 알려진 사진을 통해서는 투시도법 등을 이용해 비례를

찾아내 벽 마감 내장재의 디자인 구성을 완성해 냈다. 또 석조전과 관계가 많은 영국의 Maples & Co와 Crittall & Co의 각종 옛 자료와 카탈로그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는 관계전문가의 적극적인 자문이다. 근대 역사 및 근대건축 역사, 구조기술 등에 정통한 학자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은 복원공사와 관련된 각 분야에서 학문적인 근거와 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인 자문을 해 주었다.

넷째는 재독학자 김은주 박사가 일본 하마마츠시립도서관에서 발견한 석조전 도면이었다. 이 도면 발굴로 그동안 추정은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던 평면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노력으로 석조전 복원공사가 이루어졌다. 문화재 복원공사는 일반 건축처럼 단순히 의도된 설계와 시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조사와 연구가 결합된 설계와 시공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석조전 복원공사는 바로 조사와 연구가 결합된 설계와 시공에 의해 좋은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석조전 공사는 내부공사에 한정되어 있었다. 크게 건축공사와 기계공사로 구분되는데 건축공사는 원형을 찾아 변형된 내부 평면을 복원하고 사라진 내부마감을 복원하며 옛가구 등을 고증하여 복원 전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기계공사는 기존 배관을 철거하고 냉난방, 소화, 위생 및 급수·급탕공사 등이 주된 내용이다. 최종 공사금액은 건축이 11,050,946,000원이고 기계는 860,441,000원으로 총 11,911,387,000원이다.

건축공사의 주 공종은 가설공사, 철거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 및 타일공사, 방수 및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덕수궁관리소 이설공사, 정밀안전진단, 장식물제작설치공사, 주변정비공사이고 가구수리 및 가구 구입, 카펫 제작도 포함된다.

기계공사의 주 공종은 기존 배관 철거, 냉난방을 위한 배관 및 냉난방기 설치, 위생기구 설치, 급수·급탕 설치, 오·배수배관 설치, 소화배관 설치 등이다.

그 외에 준공수리보고서, 재료분석, 복원공사 중간자료집 발간, 실측 등도 있다.

2. 고증 자료

1) 개요

석조전 보수·복원공사를 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고증자료는 다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 조적벽체 자료 : 벽 마감 해체 후 확인된 조적벽체 흔적
- 사진 자료 : 유리원판 등의 사진
- 도면 자료 : 국가기록원,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등에 소장된 도면
- 문헌 자료 : 당시 신문과 잡지
- 영국의 Maples & Co와 Crittall & Co의 카탈로그

이들 다섯 가지 자료는 설계 당시에 이미 확보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공사 중간에 발견되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벽 마감재인 회몰탈을 해체한 후 확인된 조적벽체 흔적이었다. 이 흔적에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되었고 다른 자료가 발견되면서 보완할 수 있었다. 그 외 자료는 시공팀이 다수 발견했다. 시공팀은 관련 자료를 연구하듯이 찾아내었다. 또 전시를 담당한 전시팀도 관련 자료와 사진 등을 발견했고 이 공사에 자문을 해준 자문위원들도 학술적 접근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공사 중간에 일본 하마마츠시립도서관에서 오래된 석조전 도면이 발견됐다. 이 도면이 발견되기 전에 조적벽체 상황과 사진 등을 분석해 추정은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던 평면 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자의 이런 노력은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석조전이 대한제국기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사진 자료가 많이 있었고 당시 신문과 잡지, 도면, 관련회사 카탈로그 등이 있어 보수·복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런 자료 중 일부는 인터넷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 또 영국과 일본 등을 답사해 당시 근대건축의 유행 등을 분석해 석조전 보수·복원에 적용할 수 있었다. 이런 자료들을 모아 공사 중간 시점인 2011년 12월 『덕수궁석조전 본관 복원공사 자료집』이라는 책자를 문화재청에서 발간하였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자료가 발견된 부분은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이 보고서에 기록하였다.

2) 조적벽체 자료

석조전 보수·복원공사가 시작되는 2009년 겨울, 석조전 내부는 기존 전시시설이 가득 차 있었다. 보수·복원공사를 위해 이 전시시설과 전시용 마감재를 해체한 후 회몰탈로 마감된 조적벽체가 드러났다. 중명전의 경우, 회몰탈을 벗겨낸 결과 과거 조적벽체의 변화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원래 평면 형태를 아주 많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석조전도 회몰탈을 벗겨내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상황 파악을 위해 바닥 하부에서 약 50㎝ 정도만 벗겨냈다. 그 결과 곳곳에서 벽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흔적들이 나왔다. 개구부를 막은 통줄눈 흔적, 벽을 깎아낸 흔적, 벽을 해체한 흔적, 아치형철판 콘크리트 슬라브를 받는 보받침석 등이 나왔다. 이는 벽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에 좀 더 확실한 변화를 알고 보수·복원하기 위해서 회몰탈 모두를 벗겨내기로 결정하였다.

회몰탈을 모두 벗겨내 보니 변화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개구부의 위치와 크기, 벽의 변화 흔적, 보수 흔적, 벽난로의 위치, 벽돌의 종류와 크기, 몰탈의 종류와 변화, 동선의 흐름 등이 나타났다. 이런 흔적은 애초의 평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왜냐하면 조적조 건물의 구조적 특성상, 벽체 자체가 내력을 받는 구조재이기 때문에 변경 될 가능성이 매우 적어 처음 흔적이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부분적인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그 흔적들이 확인된 것이다.

조적벽체의 흔적을 찾아 당시의 공법과 재료, 평면 구성을 추정할 수 있었다. 특히 평면 구성을 추정하는데 벽난로의 위치와 벽체 해체 흔적 등이 결정적이었다. 나중에 발견된 도면과 비교해 본 결과 그동안 추정했던 평면이 발견된 도면과 상당 부분 동일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조적벽체 자체가 아주 좋은 고증 자료가 된 셈이다. 어찌 보면 사진이나 도면, 문헌자료보다도 더 중요한 자료가 된 셈이다. 그 결과 석조전 보수·복원공사는 보다 충실하게 끝날 수 있었다. 조적벽체의 흔적은 공사가 끝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측하여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정하고 이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3) 사진 자료

사진 자료(이하 고증사진)도 모든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진은 외부사진과 내부사진이 있다. 이중 내부사진이 이번 공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실 설계 당시에는 사진이 많지 않았지만 공사 중에 발견된 사진이 많아지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중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은 그간 확인되지 않았던 사항을 찾아내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 『궁·능관련유리원판도록』,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한말궁중관계사진첩』 사진 등의 경우 해상도가 매우 높아 확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확인하는데 유용했다. 벽체 구성과 디자인, 재료, 평면 확인 등에 도움이 되었다. 특히 벽체 구성 비례를 확인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진을 이용한 투시도 역기법[9](透視圖 逆技法. 이하 투시도 역기법) 활용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 이 사진들을 가지고 벽체 회몰탈을 벗겨 낸 후의 조적벽체 현황을 사진이 촬영된 위치와 비교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은 총 21개 출처에서 총 93장의 사진이 확보되었다. 이 사진들은 『덕수궁 석조전 본관 복원공사 자료집』(2011. 문화재청)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9) '투시도 역기법이란' 이란 용어는 없다. 필자가 설명을 위해 만들어낸 용어이다.
투시도법에 의해 나온 결과(도면이나 사진 등)를 투시도법 순서를 거꾸로 적용하여 평면의 크기나 입면의 크기 등을 추적하는 방법을 말한다.

[표 3-1] 덕수궁 사진 목록표

번호	출전, 소장	장수			촬영 시점	확인 시점	비고
		계	외부	내부			
1	The American Architect and Building News	1	1	-	1900. 05. 26	공사 중	안창모 제공
2	Wie ich den Koreanischen Kaiserhof Kam	1	1	-	1909	공사 중	전시팀
3	한말궁중관계사진첩(韓末宮中關係寫眞帖)	19	13	6	1918	공사 전	
4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4	3	11	1911. 20세기초	공사 중	
5	덕수궁사(德壽宮史)	2	1	1	20세기초	공사 전	
6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	8	1	7	1933	공사 전	
7	조선(朝鮮)	2	1	1	1934	공사 전	
8	『이왕가미술관요람』(李王家美術館要覽)	5	1	4	1938	공사 중	시공팀
9	유리원판/ 국립중앙박물관	8	6	2	-	공사 전	
10	궁·능관련유리원판도록/ 국립중앙박물관	12	-	12	1938	공사 전	
11	이왕가 덕수궁 진열 일본미술품 도록	3	-	3	-	공사 중	
12	사진첩(고종)	6	6	-	-	공사 전	
13	조선명승기	1	1	-	1910		
14	2012국립대구박물관특별전-근대를 향한 비상 대한제국	1	1	-	1902~1904 추정		
15	건축잡지(建築雜誌)	1	1	-	1905	공사 전	
16	선철연선 명소사적 미술대관(鮮鐵沿線 明所史蹟 美術大觀)	1	1	-	-	공사 전	
17	일본궁내청소장 창덕궁사진첩	2	2	-	1907~1910 추정	공사 전	
18	국사편찬위원회	2	2	-	-	공사 전	
19	LIFE지	1	-	1	1947. 05. 01	공사 중	시공팀
20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국가기록원	1	-	1	1948. 02. 20	공사 전	
21	The ILLUSTRATED LONDON NEWS	2	2	-	1950	공사 중	시공팀
	계	93	44	49			

4) 도면 자료

또 하나 중요한 자료가 도면이다. 도면은 트레이싱지로 된 것과 청사진으로 된 것이 있다. 다만 『궁·능관련유리원판도록』과 1940년 이왕가미술관 안내에 실린 도면은 책자에 수록된 도면이다. 도면 내용은 배치도와 평면도가 주된 내용이다. 큰 틀에서 거의 대동소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시기를 달리해서 작성되었고 도면 자체가 실시설계도라기보다 기본설계도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일부는 원본을 복사해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따른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있어 보수·복원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표 3-2] 덕수궁 관련 자료도면 목록표

번호	출전, 소장	도면명	지질	축척	장수	작성시점	확인 시점	비고
1	한국학중앙연구원	경운궁 중건 배치도	청사진	-	1	1907~1910 추정	공사 전	
		경운궁 각 건물 배치도	트레이싱지	1/600	1	1926~1927 추정		
		돈덕전 및 창고 배치도, 창고 평면도	트레이싱지	-	1	1910~1920 추정		
2	일본 하마마츠시립도서관	imperial Palace Seoul No6.	청사진	-	1	1899. 02. 20	공사 중	김은주 발견
		우측부분도, 문상세	청사진	-	1	1989. 02. 20		
		석조전 평면도	청사진	1/200	1	1933 추정		
		석조전 평면도	트레이싱지	1/200	1	1936 추정		
		덕수궁 미술관 설계(석조전 난방설비 1)	트레이싱지	1/200	1	1936. 07. 17		
		덕수궁 미술관 설계(석조전 난방설비 2)	청사진	1/200	1	1936. 07. 17		
3	한국학중앙연구원	덕수궁 석조전 유리지붕 변경도	트레이싱지	1/1~100	1	1933 추정	공사 전	
4	국가기록원	덕수궁 난방증설장치 설비도, 지층평면도	트레이싱지	1/100	1	-	공사 전	최길섭 확인
		덕수궁 석조전 일층평면도/방렬기증설공사	트레이싱지	1/100	1	-		
		덕수궁 석조전 이층평면도/방렬기증설공사 설계도	트레이싱지	1/100	1	-		
		덕수궁 석조전 지층평면도/난방주관취한증설공사 설계도-지하층(2)	트레이싱지	1/100	1	-		
		석조전 증기난방설치-지하층(3)	트레이싱지	1/100	1	-		
		석조전 증기난방설치-지하층(4)	트레이싱지	1/100	1	-		
		석조전 증기난방설치-지하층(5)	트레이싱지	1/100	1	-		
		덕수궁 급수급탕위생배수설계도-지하층	트레이싱지	1/100	1	-		
		덕수궁 급수급탕위생배수설계도-1층	트레이싱지	1/100	1	-		
		덕수궁급 수급탕위생배수설계도-2층	트레이싱지	1/100	1	-		
		덕수궁내지약도	트레이싱지	1/500	1	-		
		덕수궁 배치도	트레이싱지	-	1	-		
5	국립중앙박물관 『이왕가미술관요람』	신관평면일계도		-	1	1938.	공사 중	시공팀
		신관평면이계도		-	1	1938		
		신관평면삼계도		-	1	1938		
6	국립중앙박물관 『궁·능관련유리원판도록』	근대일본미술진열관		-	1	1938	공사 전	1층, 2층
7	쇼와15년 이왕가미술관안내	일본근대미술진열관			1	1940	공사 전	
				계	27			

설계 초기에는 근대일본미술진열관 도면 2장과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설비도면 12장만 있었다. 그런데 공사 중에 다수의 도면이 발견되었다. 가장

결정적인 도면이 일본 하마마츠시립도서관에 있는 도면이다. 이 도면은 석조전 평면도 중 가장 오래된 도면으로 추정된다. 1898년에 작성된 것이 2장이고 1933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면 1장, 1936년에 작성된 것은 3장으로 총 6장의 도면이다. 이 중 1933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면이 가장 중요했다. 지층, 1층, 2층 평면도만 있는데 청사진으로 되어 있다. 2층 평면도는 내부 간살이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었고 벽 회몰탈 마감 제거 후의 흔적과 비교할 때 거의 동일했다. 도면들이 서로 상이한 경우 이 도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였다. 평면도 중 가장 오래된 도면이었고 벽마감 회몰탈해체 뒤 확인된 흔적과 가장 유사했기 때문이다.

이 도면은 재독학자가 일본에서 발견하였다. 이 학자는 2009년 말, 2010년 초, 벽체 회몰탈 마감을 벗겨낼 때 즈음 여러 번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한 바 있다. 현장대리인과 공사관계자는 복원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있으니 참고 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협조를 부탁한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2011년 8월 19일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 도면은 평면구성과 관련해 그동안 추정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던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의 평면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자료 도면은 총 7개 출처에서 총 27장의 도면이 확보되었다. 이 도면들은 『덕수궁 석조전 본관 복원공사 자료집』(2011. 문화재청)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5) 문헌 자료

문헌 자료도 많이 도움이 되었다. 문헌 자료로는 잡지, 신문, 책, 카탈로그 등 총 9종류가 있다. 사진이나 도면에서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이나 배경, 실의 규모와 위치, 재료, 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유용했다. 공사 전에 확보된 자료와 공사 중에 발견된 자료도 있는데 특히 공사 중에 발견된 『매일신보』 기사는 실의 위치와 기능 등이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다른 자료와 함께 비교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했다.

석조전 공사에 참여한 Maples & Co와 Crittall & Co의 카탈로그와 홈페이지는 당시 가구와 기타 장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자료 확보가 안 된 부분의 복원에 도움이 되었다. 일부는 석조전에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여 자료로써의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두 회사의 자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직접 영국 현지를 방문해서 유사한 가구와 장식물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다. 그 결과 Maples & Co와 Crittall & Co 제품과 유사한 것들을 확보하고 수입해서 실제 석조전에 설치하기도 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3]과 같다.

[표 3-3] 덕수궁 관련 문헌 목록표

번호	출전, 소장	내용	일자	확인시점	비고
1	『매일신보』	석조전 준공기	1910. 12. 03	공사 전	
		今上陛下의 御聖德	1912. 08. 08	공사 중	시공팀
		德壽宮內의 春	1915. 04. 08	공사 중	
		어전의 수리와 제설비	1918. 01. 09	공사 중	
		환영 이왕세자전하	1918. 01. 13	공사 중	
		왕세제전하 어숙소된 석조전	1918. 01. 15	공사 중	
		양전하를 영접코자	1918. 11. 29	공사 중	
		세분뎐하께서 거쳐하실 덕수궁 석조전의 내부장식한 모양	1922. 04. 22	공사 중	
		질소하고 장엄한 석조전	1922. 04. 26	공사 중	전시팀
2	『건축잡지』(建築雜誌)	조선 덕수궁의 석조전	1910. 12(제288호)	공사 전	
3	『건축세계』(建築世界)	대한문 안에 경운궁 석조전 준공	1912. 01	공사 전	
4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	덕수궁 석조전과 기타	1933. 11	공사 전	
5	『덕수궁사』(德壽宮史)	석조전, 오오타 쇼고(小田省吾)	1938. 05	공사 전	
6	『이왕가미술관요람』	미술관건축개요/구관(석조전)	1938. 06. 05	공사 전	
7	대성건설회사	대성건설사사	1963. 01	공사 전	
8	거트루드 벨 아카이브	거트루드 마가렛 여사와 경운궁 전경	-	공사 중	시공팀
9	Maples & Co 카탈로그		1905. 1910년경	공사 중	
			계	27	

3. 평면 복원

1) 개요

• **개요** : 석조전 보수·복원공사에 있어서 평면 복원은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다. 벽 마감 회몰탈을 벗겨내고 난 후 더욱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실 설계 당시에 확보된 자료는 한계가 있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회몰탈이 제거되고 난 후에는 많이 차이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했다. 우선 벽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다. 벽체를 실측하고 도면화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과거 벽체의 구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지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했기에 현재 있는 그대로의 평면을 유지하기로 하여 마감 정도만 보수하는 공사를 하였다. 1층과 2층의 평면은 전면적인 복원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평면 복원은 조적 벽체 흔적과 사진, 도면, 문헌 등을 총 동원해 연구해 복원하였다.

• **복원 시점** : 문화재는 처음 생긴 이후, 오랜 시간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게 된다. 그 사이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애초의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보수 등의 필요성 때문에 형태나 재료, 기법 등이 바뀌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복원해야 할 것인가? 문화재 보수·복원에 있어서 항상 고민되는 문제가 이 부분이다.

덕수궁 석조전 복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복원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었다.

▌현재 발견된 사진 중 가장 오래된 1911년, 1918년 사진을 기준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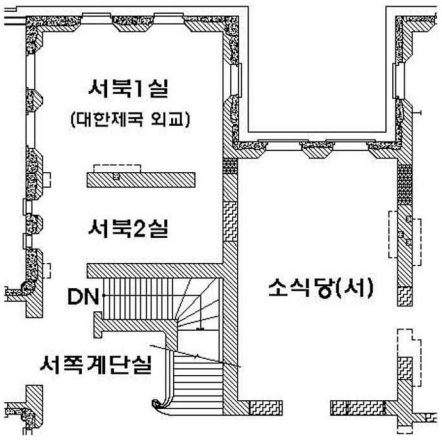
▌사진을 우선하되 1938년, 1945년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1933년 추정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이 공사 중에 발견된 후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이 우선적으로 적용됨)

사진은 '하정응 기증 영친왕 사진' (1911년), 『한말궁중관계사진첩』 (1918년) 사진을 기준으로 하였다. 현재 가장 오래된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사진인 1933년 사진이나 그 이후 사진은 이미 변경이 되고 난 후의 사진이어서 '기준' 보다는 '참고' 에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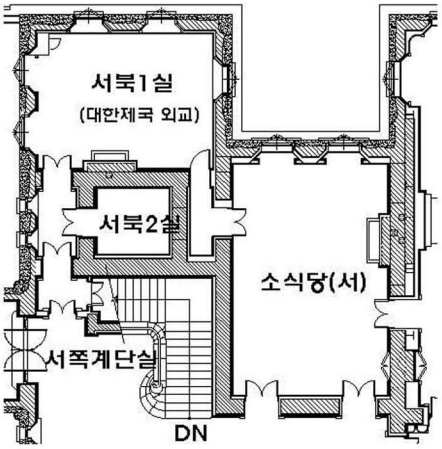
도면의 경우 처음에는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 도면과 1946~1947년경으로 추정되는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석조전 설비도면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공사 중에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이 발견되고 이 도면이 1933년과 1936년에 작도된 것으로 추정되어 이 도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했다.

2) 1층 평면 복원

가. 1층 서북1실 및 서북2실, 계단실, 소식당(서)



[도면 3-1] 공사 전 - 1층 서북1실 및 서북2실, 계단실, 소식당(서) 평면



[도면 3-2] 공사 후 - 1층 서북1실 및 서북2실, 계단실, 소식당(서) 평면

[표 3-4] 1층 서북1실 및 서북2실, 계단실, 소식당(서) 고증자료 비교표

실명	현재(공사 전)	고증자료 분석	보수 · 복원(공사 후)
서북1실	• 벽난로 없음(흔적 있음) • 2층 출입 계단 없음(흔적 있음)	• 벽난로 있음 • 2층 출입 계단 있음	• 벽난로 설치 • 2층 출입 계단 설치 안함
서북2실	• 날개벽 없음(흔적 있음) • 소식당(서)로 통하는 출입구 없음 (흔적 있음)	• 날개벽 있음 • 소식당(서)로 통하는 출입구 있음	• 날개벽 설치 • 소식당(서)로 통하는 출입구 설치
계단실	• 계단실 출입문 없음(흔적 없음)	• 계단실 출입문 있음	• 계단실 출입문 설치
소식당(서)	• 벽난로 없음(흔적 있음)	• 벽난로 있음	• 벽난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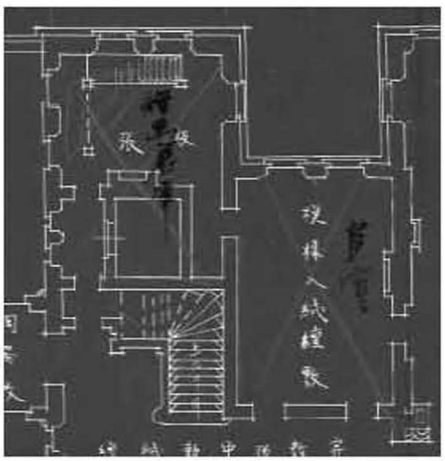
• **서북1실 :** 서북1실과 관련된 자료는 회몰탈이 제거된 조적벽체와 도면이 있다. 조적벽에서는 벽난로와 2층 출입 계단 흔적이 나왔다. 도면에서는 벽난로와 2층 출입 계단이 표시된 도면도 있었고 표시되지 않은 도면도 있었다. 그러나 도면 대부분에서 벽난로와 계단이 있어 초기에 벽난로와 계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다만 계단의 경우 1933년 도면과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 도면 그리고 1946~1947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기록원 소장 도면은 계단 형태가 서로 차이가 있다. 계단의 형태가 다른 것은 도면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1933년 또는 1938년 용도가 변경되면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서북2실 쪽 벽에 벽난로를 설치하였다. 다만 계단은 현실적인 복원 여건의 어려움으로 복원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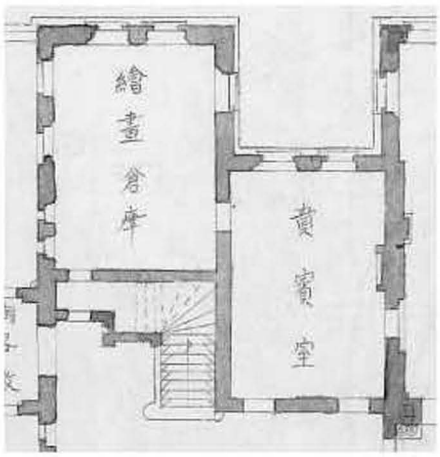
• **서북2실 :** 공사 전 서북2실은 벽 일부만 남아 있었고 상부는 반원형볼트로 되어 있었다.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에는 없지만 나머지 도면에 의하면 서북2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반원형볼트가 서북2실에만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1933년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과 1946~1947년 추정 국가기록원 도면을 참조해 서북2실을 복원했다. 공사 전에는 없던 서북2실 날개벽을 설치하고 반원형볼트를 그대로 복원했다. 소식당(서)와 연결되는 통로와 출입구 등도 복원했다.

• **계단실 :** 계단실에서 애초와 다른 점은 복도와 연결되는 출입문의 존재였다. 그동안 출입문 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출입문을 복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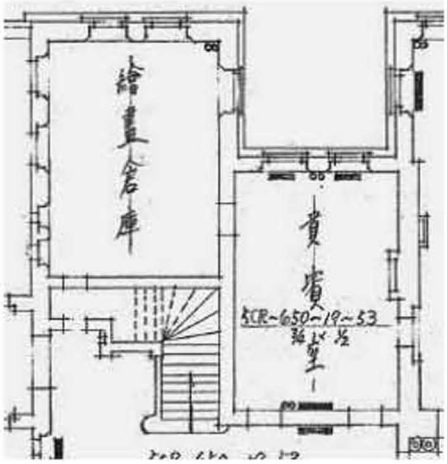
• **소식당(서)** : 소식당(서)는 앞서 언급한 『조선과 건축』, 『이왕가미술관요람』에 내부와 관련된 언급이 있다. 내부 마감이 오크목으로 되어 있고 귀빈실로 사용됐다는 내용이다. 한편 모든 도면에서 출입구 4개, 벽난로 1개가 표현되어 있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출입구를 4군데 두고 벽난로 1개를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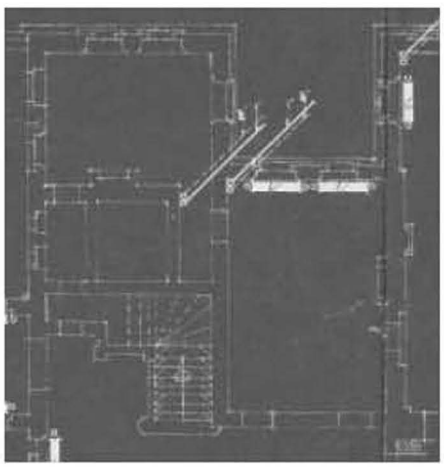
[그림 3-1] 1층 서북1실 및 서북2실, 계단실, 소식당(서)(하마마츠 도면. 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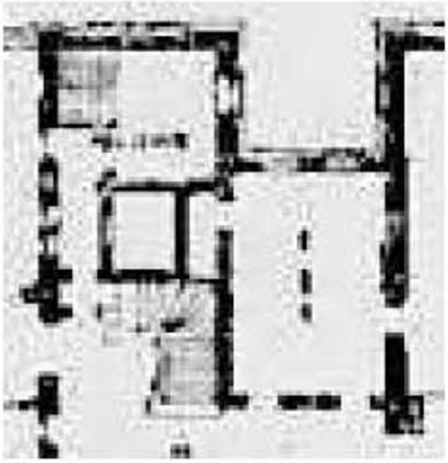
[그림 3-2] 1층 서북1실 및 서북2실, 계단실, 소식당(서)(하마마츠 도면.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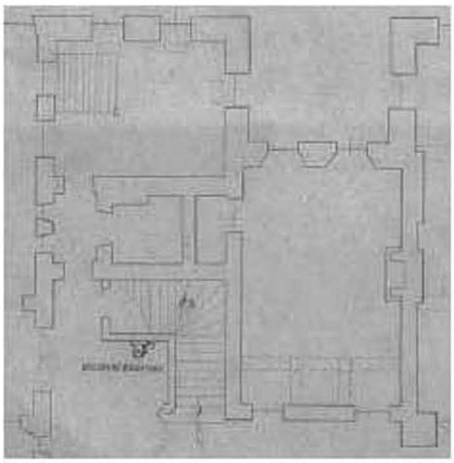
[그림 3-3] 1층 서북1실 및 서북2실, 계단실, 소식당(서)(하마마츠 도면. 1936.7.17)



[그림 3-4] 1층 서북1실 및 서북2실, 계단실, 소식당(서)(하마마츠 도면. 1936.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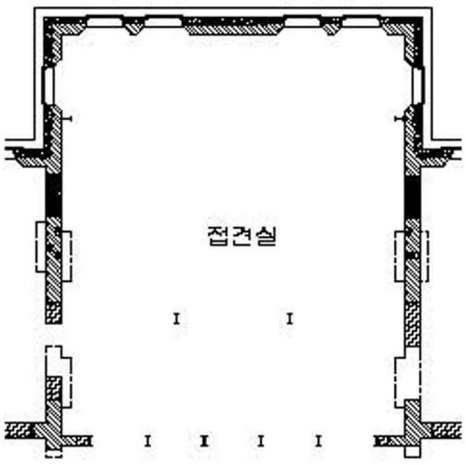


[그림 3-5] 1층 서북1실 및 서북2실, 계단실, 소식당
(서X『이왕가미술관요람』,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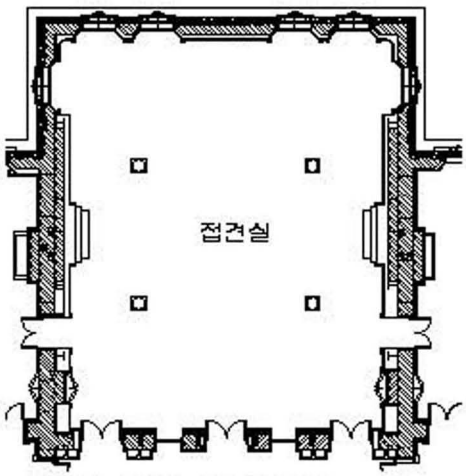


[그림 3-6] 1층 서북1실 및 서북2실, 계단실, 소식당
(서X국가기록원, 1946~1947 추정)

나. 1층 접견실



[도면3-3] 공사 전 - 1층 접견실 평면



[도면 3-4] 공사 후 - 1층 접견실 평면

[표 3-5] 1층 접견실 고증자료 비교표

실명	현재(공사 전)	고증자료 분석	보수·복원(공사 후)
접견실	• 벽난로 없음(흔적 2개 있음) • 소식당(동), 소식당(서) 연결 출입구 있음 • 내부에 철골 기둥 6개 있음	• 벽난로 2개 있음 • 소식당(동), 소식당(서) 연결 출입구 있음 • 내부에 기둥 없음	• 벽난로 2개 설치 • 소식당(동), 소식당(서) 연결 출입구 설치 • 내부에 기둥 4개 설치

공사 전의 1층 접견실은 동·서쪽 벽 중간에 벽난로 흔적이 각 1개씩 2개 있었고 출입구는 동·서쪽에 각 1개씩 2개, 남쪽에 칸막이벽과 그 벽 속에 철골기둥 6개가 있었다. 그리고 실 중간에 철골기둥이 2개, 동·서쪽 벽에 각각 2개씩 4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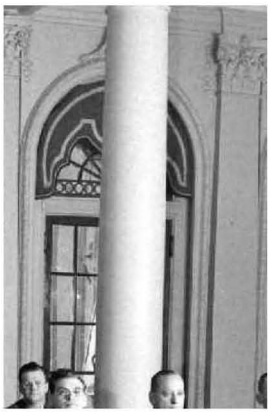
벽난로는 조적벽체와 사진, 도면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위치도 같다. 출

입구도 모두 같은 위치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만 기둥은 차이가 있었다. 공사 전 상황에서는 철골 기둥이 6개 있었다. 벽에 붙어 있는 것이 4개, 중간에 있는 것이 2개인데 이 철골기둥은 철골의 종류와 접합 방법의 차이로 볼 때 1954년 육군공병단이 공사할 때 설치된 것과 1987년에 추가 보강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1954년 설치된 기둥은 중간에 있는 2개 기둥으로 보이고 1987년 설치된 것은 벽에 있는 기둥 4개와 기존 보에 추가 보강 설치된 보이다.

그런데, 사진에는 철골기둥이 아닌 코린트주두를 가진 4개의 기둥이 있다.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조선과 건축』, '*Life* (1947)', '미소공동위원회(1948)' 사진에 의하면 접견실 내부에 4개의 기둥이 있다. 기둥의 종류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다. 최소 1947년까지는 접견실 내부에 코린트주두 기둥이 있었고 철골 기둥은 그 이후에 설치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1933, 1936), 『이왕가미술관요람』 수록 도면(1938)에는 기둥이 없다. 다시 말하면 같은 시기에 촬영된 사진에는 기둥이 있는데 도면에는 기둥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시간이 오래 지난 1946~1947년 국가기록원 도면에는 있다. 즉, 도면에서도 1947년까지는 기둥이 있었다는 것이 된다. 이는 도면 표현 방법의 차이로 보이는데, 기둥에 대한 의미를 크게 갖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1948년까지는 접견실 내부에 코린트주두 기둥 4개가 있었고 철골 기둥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으로 파손된 후 1954년 육군공병단이 보수하면서 철골 기둥을 세웠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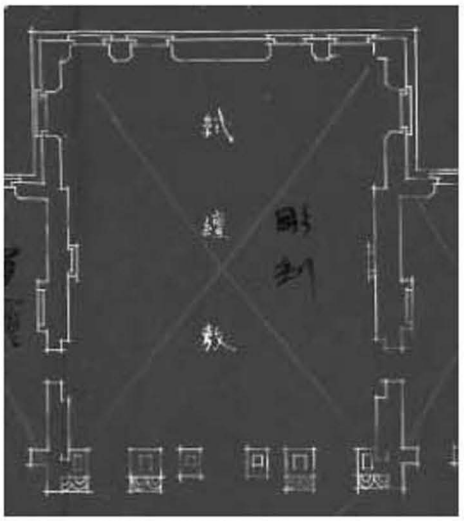
[사진 3-1] 접견실 내부에 기둥이 보인다.(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사진 3-2] 접견실 내부에 기둥이 보인다.(『조선과 건축』, 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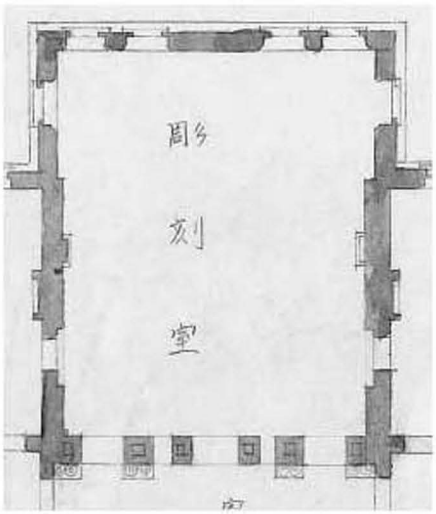


[사진 3-3] 접견실 내부에 기둥이 보인다.(Life, 1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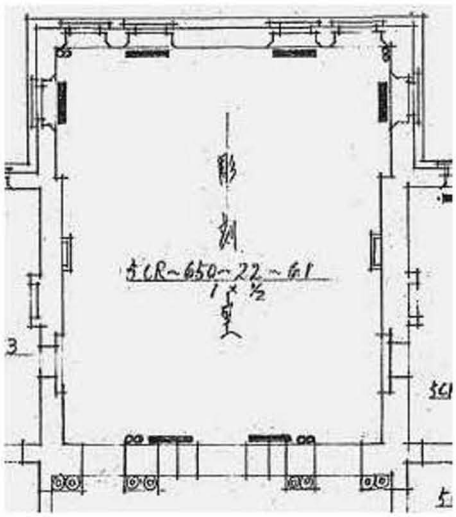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접견실에 벽난로 2개를 설치하고 출입구는 동·서쪽에 각 1개씩 2개를 설치했으며 내부에 코린트주두를 가진 기둥을 4개 설치·복원하였다. 다만 기존 철골 기둥은 구조적 문제를 감안하여 존치시키면서 추가로 동·서벽 쪽에 각각 2개씩 4개의 철골기둥을 추가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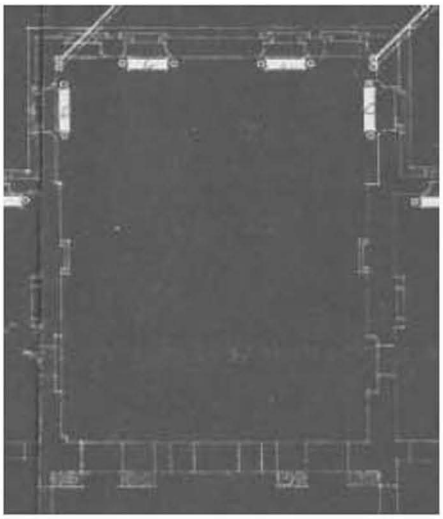
[그림 3-7] 1층 접견실(하마마츠 도면, 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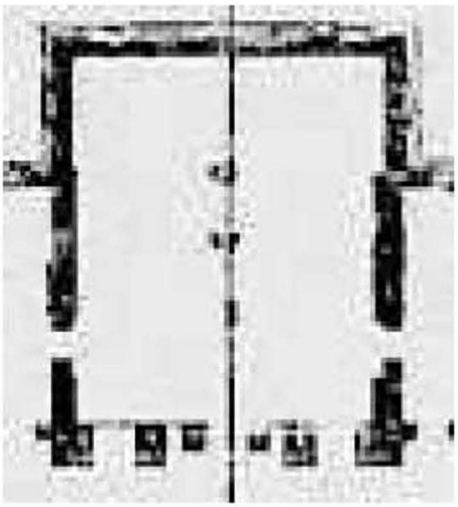
[그림 3-8] 1층 접견실(하마마츠 도면,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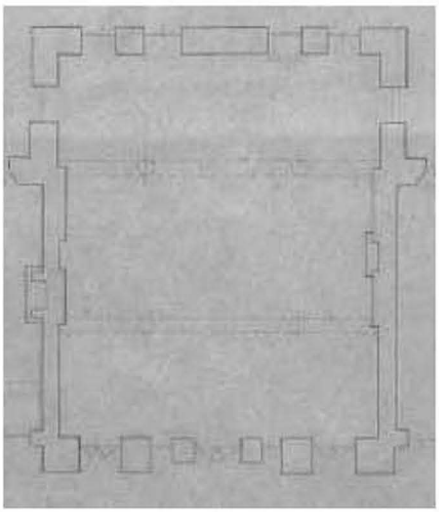
[그림 3-9] 1층 접견실(하마마츠 도면, 1936.7.17)



[그림 3-10] 1층 접견실(하마마츠 도면, 1936.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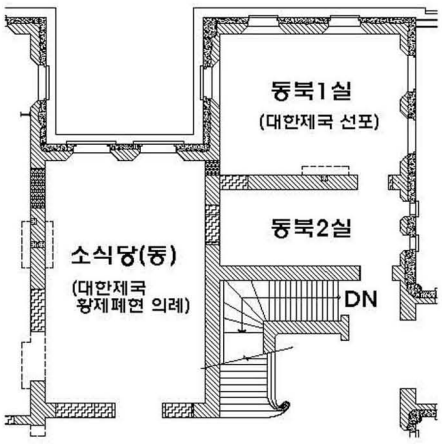


[그림 3-11] 1층 접견실(『이왕가미술관요람』,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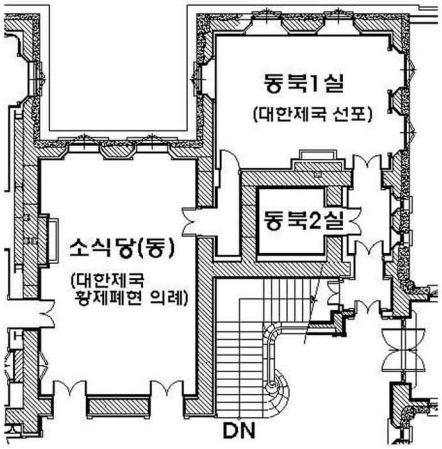


[그림 3-12] 1층 접견실(국가기록원, 1946~1947 추정)

다. 1층 동북1실 및 동북2실, 계단실, 소식당(동)



[도면 3-5] 공사 전 - 1층 동북1실 및 동북2실, 계단실, 소식당(동) 평면



[도면 3-6] 공사 후 - 1층 동북1실 및 동북2실, 계단실, 소식당(동) 평면

[표 3-6] 1층 동북1실 및 동북2실, 계단실, 소식당(동) 고증자료 비교표

실명	현재(공사 전)	고증자료 분석	보수·복원(공사 후)
동북1실	• 벽난로 없음(흔적 있음) • 2층 출입 계단 없음(흔적 있음)	• 벽난로 있음 • 2층 출입 계단 있음	• 벽난로 설치 • 2층 출입 계단 설치 안함
동북2실	• 날개벽 없음(흔적 있음) • 소식당(동)으로 통하는 출입구 없음(흔적 있음)	• 날개벽 있음 • 소식당(동)으로 통하는 출입구 있음	• 날개벽 설치 • 소식당(동)으로 통하는 출입구 설치
계단실	• 계단실 출입문 없음(흔적 없음)	• 계단실 출입문 있음	• 계단실 출입문 설치
소식당(동)	• 벽난로 없음(흔적 있음)	• 벽난로 있음	• 벽난로 설치

동북1실 및 동북2실, 계단실, 소식당(동)은 서쪽에 있는 서북1실 및 서북2실, 계단실, 소식당(서)과 대칭이다. 평면구성과 디테일이 거의 똑같다. 고증 자료인 조적벽과 사진, 도면을 분석한 결과도 같다. 그래서 서쪽과 같은 내용으로 복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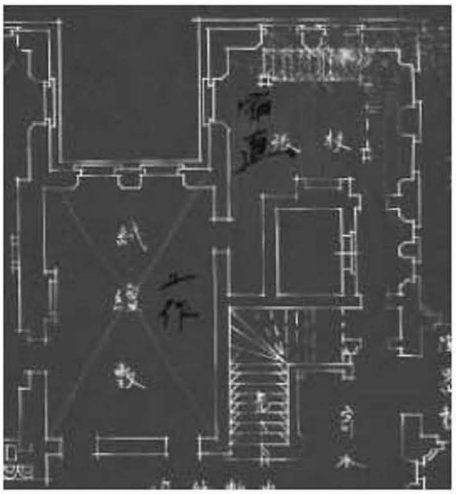
• **동북1실 :** 동북1실은 서북1실과 같은 평면구성을 하고 있다. 조적벽 흔적에서도 벽난로, 2층 출입 계단 흔적이 같은 상황으로 나왔다. 도면에서도 서북1실처럼 벽난로와 2층 출입 계단이 표시된 도면도 있었다. 다만 다른 것은 계단 경우이다.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 도면에는 계단이 없고 1946~1947년 작성된 도면에는 계단이 없으면서 오히려 화장실 변기가 표현되어 있다. 이 도면대로라면 최소 1938년에 계단이 없어지고 그 이후에 화장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 화장실은 공사 전에는 없었다.

계단이 없어지고 화장실이 설치되었지만 1938년 이전 도면과 조적벽체 흔적을 고려할 때 계단이 있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다만 계단은 현실적인 복원 여건의 어려움으로 복원하지 않았다.

• **동북2실 :** 동북1실도 서북1실과 상황이 같았다. 공사 전 동북1실은 동북2실 벽 일부만 남아 있었고 동북2실 상부는 반원형볼트로 되어 있었다. 1936년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에는 없었지만 또 다른 1936년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과 나머지 도면에 의하면 동북2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반원형볼트가 동북2실에만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동북2실을 복원했다. 공사 전에는 없던 동북2실 날개벽을 설치하고 반원형볼트를 그대로 복원했다. 소식당(동)과 연결되는 통로와 출입구 등도 복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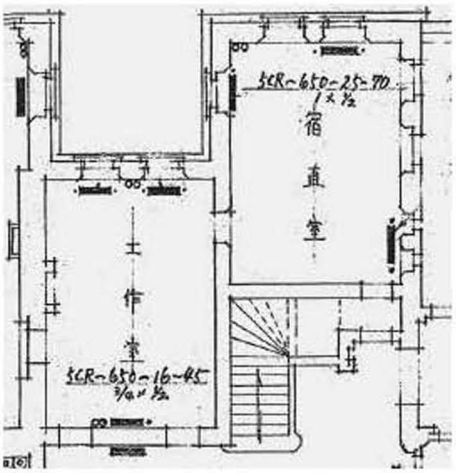
• **계단실 :** 계단실에서 애초와 다른 점은 동북1실 및 동북2실과 연결되는 출입문의 존재였다. 이 출입문을 복원했다.

• **소식당(동) :** 소식당(동)도 소식당(서)와 같은 상황이다. 모든 도면에서 출입구 4개, 벽난로 1개가 표현되어 있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출입구를 4군데 두고 벽난로 1개를 설치하여 복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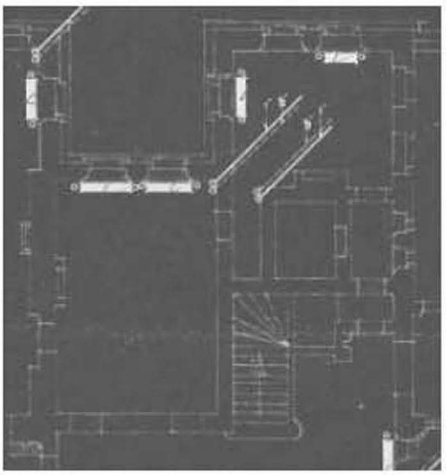


[그림 3-13] 1층 동북1실 및 동북2실, 계단실, 소식당(동)(하마마츠 도면. 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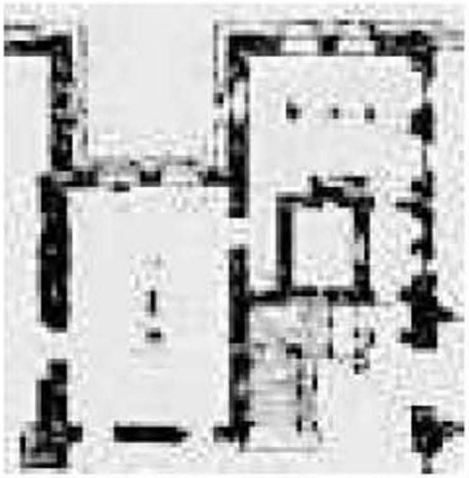
[그림 3-14] 1층 동북1실 및 동북2실, 계단실, 소식당(동)(하마마츠 도면.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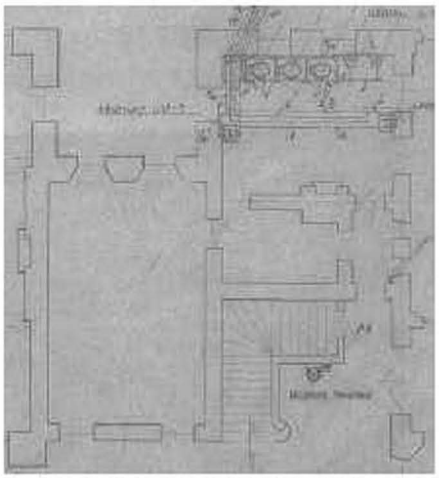
[그림 3-15] 1층 동북1실 및 동북2실, 계단실, 소식당(동)(하마마츠 도면. 1936.7.17)



[그림 3-16] 1층 동북1실 및 동북2실, 계단실, 소식당(동)(하마마츠 도면. 1936.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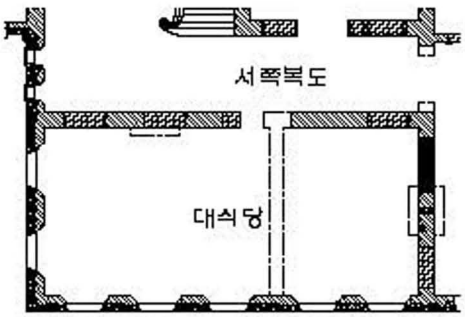


[그림 3-17] 1층 동북1실 및 동북2실, 계단실, 소식당 (동)(『이왕가미술관요람』,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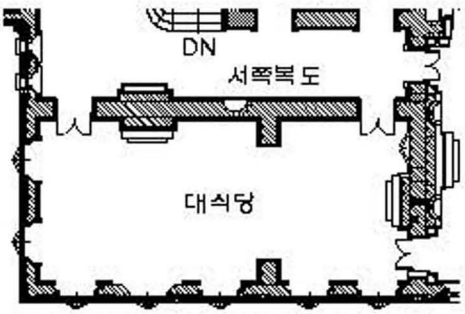


[그림 3-18] 1층 동북1실 및 동북2실, 계단실, 소식당 (동)(국가기록원, 1946~1947 추정)

라. 1층 대식당, 복도



[도면 3-7] 공사 전 - 1층 대식당, 복도 평면



[도면 3-8] 공사 후 - 1층 대식당, 복도 평면

[표 3-7] 1층 대식당, 복도 고증자료 비교표

실명	현재(공사 전)	고증자료 분석	보수·복원
대식당	• 벽난로 없음(흔적 2기 있음) • 출구 2기 있음(흔적 5기 있음) • 중간벽 철거 흔적 있음	• 벽난로 2기 있음 • 출구 3기 있음 • 중간벽 날개벽(1933년 도면 有, 그 외 도면無)	• 벽난로 2기 설치 • 출구 3기 설치 • 중간벽 날개벽 설치
복도	• 벽난로 없음(흔적 있음) • 벽감 없음(흔적 있음)	• 벽난로 있음 • 벽감 있음	• 벽난로 설치 • 벽감 설치

• **대식당 :** 조적벽체 흔적에는 벽난로 흔적이 2군데 있고 출구 흔적은 5개 있다. 또 중간에 벽이 있던 흔적이 있다. 도면을 살펴보면 벽난로는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과 1946~1947년 추정 국가기록원 도면을 제외한 모든 도면에 있다. 출구는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과 1946~1947년 추정 국가기록원 도면에는 2곳, 나머지 도면에는 3곳이 있다. 복도쪽 벽감은 모든 도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벽난로는 조적벽체 흔적과 도면을 분석해 볼 때 2군데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조적벽체에 그 흔적이 있고 시기가 앞선 도면 대부분에 벽난로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벽난로를 2군데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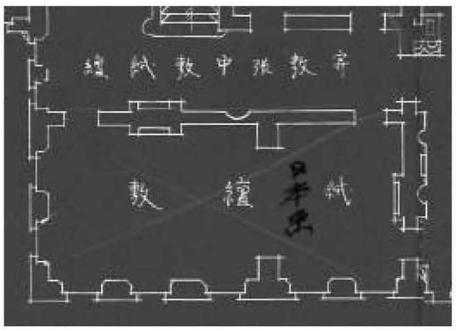
출구는 3군데 설치하였다. 조적벽체 흔적에는 5군데나 있지만 시기가 앞선 도면에는 모두 3군데에만 있었다. 조적벽체 흔적과 도면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처음 시공 시에는 출입구를 두려했으나 내부장식을 하면서 복도쪽 1군데는 벽감을 설치하기 위해 폐쇄하였고 중앙홀 쪽 1군데는 입면상 좌·우대칭을 구성하기 위해 폐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간에는 날개벽을 설치하였다. 조적벽체 흔적에 벽이 잘려나간 흔적이 있고 가장 오래된 도면인 1933년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에도 날개벽 흔적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시기가 가장 앞선 1918년에 촬영된 『한말궁중관계사진첩』 사진 중에 날개벽 흔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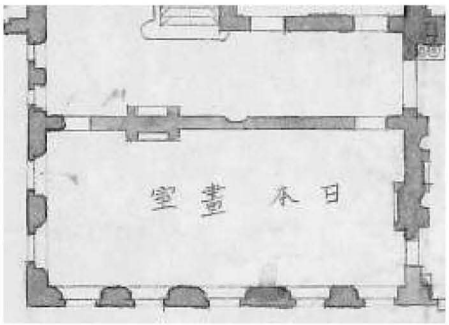
• **복도** : 복도에는 벽난로와 벽감을 설치하였다. 조적벽체 흔적에 벽난로 흔적과 벽감 흔적이 나왔고 모든 도면에서도 벽감이 나왔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이 일치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다.

[사진 3-4] 대식당 동쪽벽을 찍은 사진 - 좌·우에 중간 날개벽이 보인다.(『한말궁중관계사진첩』, 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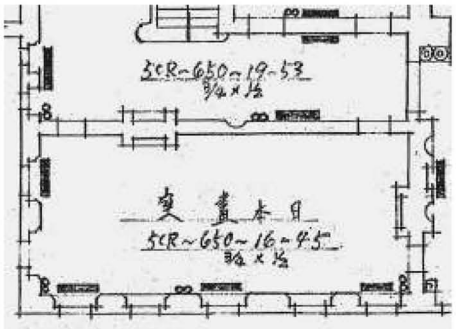
[사진 3-5] 벽난로와 벽감 흔적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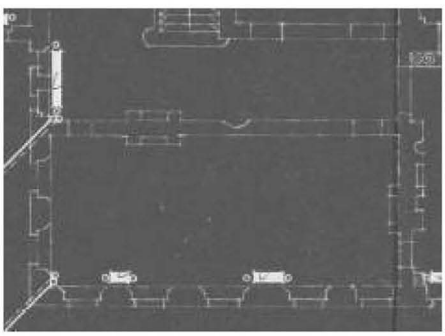
[그림 3-19] 1층 대식당, 복도(하마마츠 도면. 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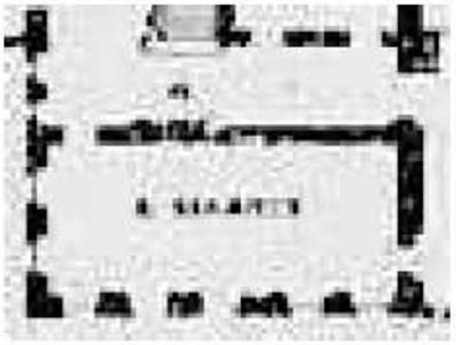
[그림 3-20] 1층 대식당, 복도(하마마츠 도면.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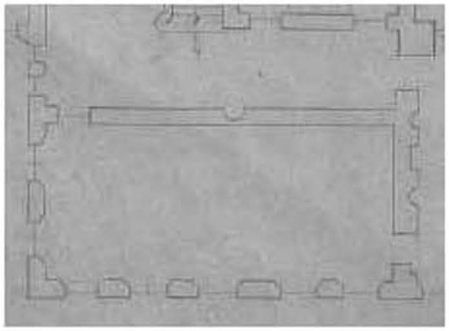
[그림 3-21] 1층 대식당, 복도(하마마츠 도면. 1936.7.17)



[그림 3-22] 1층 대식당, 복도(하마마츠 도면. 1936.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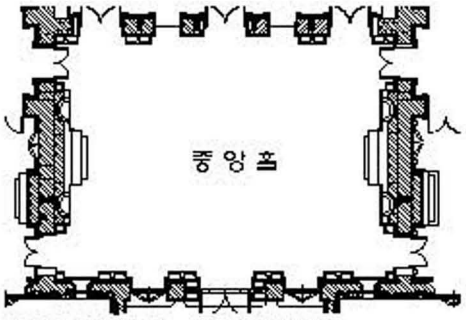
[그림 3-23] 1층 대식당, 복도 『이왕가미술관요람』, 1938)



[그림 3-24] 1층 대식당, 복도국가기록원, 1946~1947 추정)

마. 1층 중앙홀

[도면 3-9] 공사 전 - 1층 중앙홀 평면



[도면 3-10] 공사 후 - 1층 중앙홀 평면

[표 3-8] 1층 중앙홀 고증자료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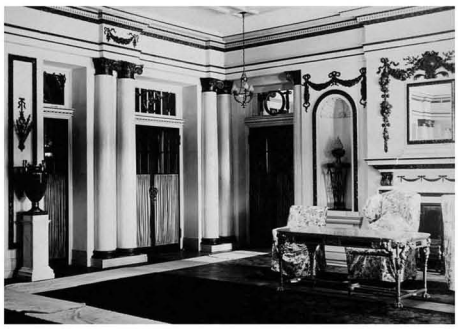
실명	현재(공사 전)	고증자료 분석	보수·복원(공사 후)
중앙홀	• 벽난로 있음(흔적 2개 있음) • 대식당 연결 출입구 있음 • 벽감 없음(흔적 없음)	• 벽난로 2개 있음 • 대식당, 귀빈대기실 연결 출입구 있음 • 벽감 있음(4개)	• 벽난로 2개 설치 • 대식당, 귀빈대기실 연결 출입구 설치 • 벽감 4개 설치

• **개요 :** 1층 중앙홀은 석조전의 로비로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고 고증사진도 상대적으로 많다. 고증사진 자료와 고증도면 자료는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지만 조적벽체 흔적과는 차이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사진과 도면을 기본으로 그 구성을 결정하였고 크기 등은 조적벽체 흔적을 참조하였다. 다만 벽감이나 벽난로의 크기 등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가지고 투시도 역기법을 이용하여 크기를 추산하였다.

• **벽난로 :** 중앙홀의 벽난로는 동쪽 벽과 서쪽 벽에만 있는데 조적벽체 흔적과 도면, 사진 모두에서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다만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위치에 차이가 있다. 조적벽체 흔적에서는 벽 중앙에서 남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도면이나 사진에서는 벽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사 초기에 혼란스러웠다. 도면과 사진이 벽체 흔적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구조체와 최종 마감과의 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애초 의도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석조전은 10년간에 걸쳐서 길게 공사를 한 건물이다. 공사 초기에는 설계도대로 구조체를 공사하였지만 최종 마감을 하면서 방향이 바뀌어 설계변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계획이 바뀌게 되어 구조체와 마감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 사진에서 보이는 상황은 최종 결과물이고 시기로 따지면 최소 1911년 상황으로써 준공 후 얼마 안 돼 촬영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벽난로는 사진과 도면, 조적벽체 흔적에서 나온 것과 같이 동쪽 벽과 서쪽 벽에 2개를 설치하였고 위치는 사진과 도면을 기준으로 벽 중앙에 설치하였다.

[사진 3-6] 1층 중앙홀 - 벽에 출입구 2개와 벽감 2개가 보인다.(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



[사진 3-7] 1층 중앙홀 - 벽에 출입구 1개와 벽감 1개가 보인다.(『한말궁중관계사진첩』. 1918)

[사진 3-8] 1층 중앙홀 - 벽에 출입구 2개와 벽감 2개가 보인다.(『조선과 건축』. 1933)

[사진 3-9] 1층 중앙홀 북쪽 벽(『한말궁중관계사진첩』. 1918)

• **출입구** : 출입구도 벽난로와 비슷한 상황이다. 조적벽체 흔적이 사진이나 도면과 다르다. 공사 전에는 서쪽 벽 1군데만 사용(복도 연결 통로 2군데는 제외, 이하 같음)하고 있었는데 조적벽체 흔적에서는 동쪽에 2군데, 서쪽에 2군데로 총 4군데가 나왔다. 사진과 도면에서는 동쪽에 1군데, 서쪽에 1군데로 총 2군데가 나왔다. 조적벽체 흔적보다 각각 1군데씩 적다.

다시 말하면 조적벽체 흔적에는 4군데의 출입구가 있었지만 사진이나 도면에서는 2군데만 있는 것이다. 조적벽체 흔적하고 다른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 또한 벽난로와 같다고 추정된다. 공사초기 의도된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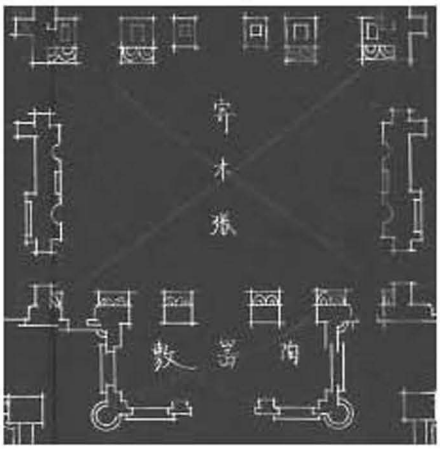
서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도면이나 사진을 보면 동쪽 벽과 서쪽 벽을 정면으로 볼 때 양 끝단에 출입구가 보이고 중앙에는 벽난로가 있는 모습이다. 즉, 대칭으로 구성된 모습인데 이는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볼 때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조적벽체 흔적에서는 출입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대칭이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만들어 놓은 출입구 하나를 폐쇄하고 입면상으로 볼 때 대칭이 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출입구는 사진과 도면같이 복도 연결 통로쪽 출입구와 대칭되게 남쪽 끝단에 출입구를 하나 두어 동쪽벽에 1 군데, 서쪽벽에 1군데로 총 2군데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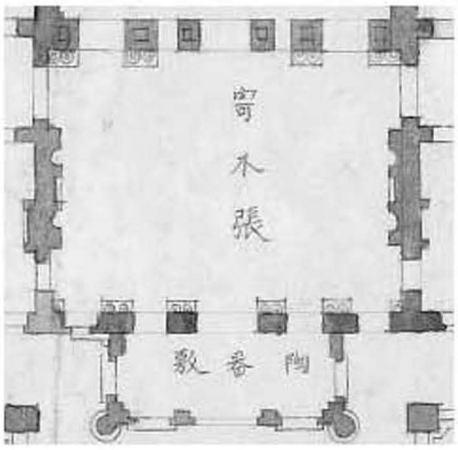
• **벽감** : 벽감도 출입구와 벽난로와 같은 상황인데 조금 다른 것은 조적벽체에는 흔적이 없고 도면과 사진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기본 벽두께보다 조금 돌출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즉, 기본 벽체를 파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기본 벽체는 그대로 두고 마감을 할 때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이 벽감은 동쪽 벽 2군데, 서쪽 벽 2군데로 총 4군데에 표현되어 있다.

사진과 도면, 그리고 앞서 언급한 신고전주의 스타일의 대칭적 상황을 고려할 때 출입구 위치와 벽난로 위치를 비교하면 벽감의 위치도 명확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동쪽 벽에 2군데, 서쪽 벽에 2군데에 벽감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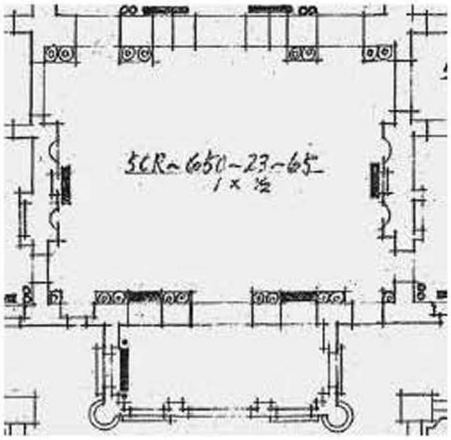
• **북쪽 벽** : 북쪽 벽은 사진과 모든 도면이 거의 일치했다. 다만 조적벽체가 많이 손실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고할 수 없었다. 출입구가 3곳, 창문이 2곳으로 되어 있고 출입구와 창문 사이에는 코린트주두를 가진 원형 기둥이 2개씩 4군데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 출입구의 크기와 위치, 기둥의 굵기 등은 사진을 이용한 투시도 역기법을 활용하여 비례치를 찾아내 복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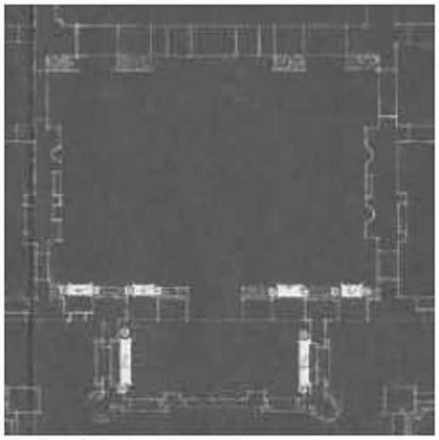
[그림 3-25] 1층 중앙홀(하마마츠 도면, 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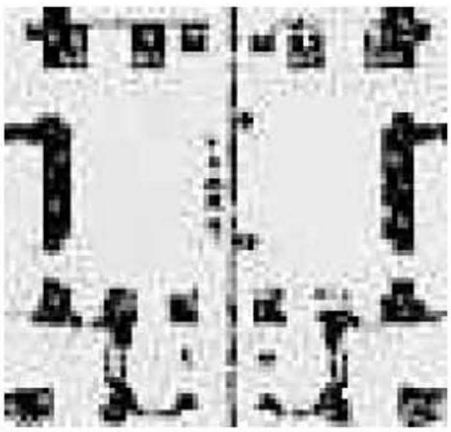
[그림 3-26] 1층 중앙홀(하마마츠 도면,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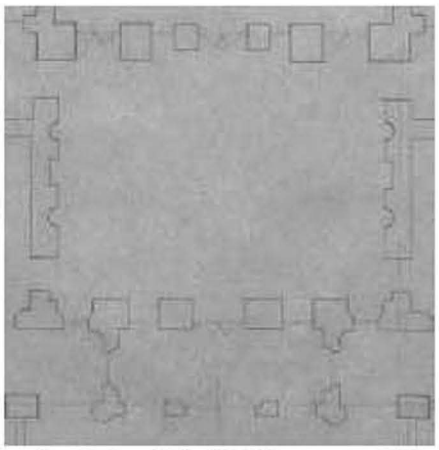
[그림 3-27] 1층 중앙홀(하마마츠 도면. 1936.7.17)



[그림 3-28] 1층 중앙홀(하마마츠 도면. 1936.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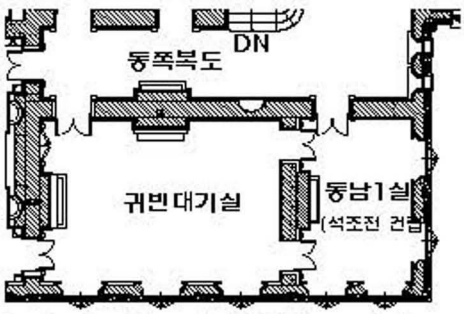
[그림 3-29] 1층 중앙홀(『아왕가미술관요람』. 1938)



[그림 3-30] 1층 중앙홀(국가기록원. 1946~1947 추정)

바. 1층 귀빈대기실, 동남1실, 복도

[도면 3-11] 공사 전 - 1층 귀빈대기실, 동남1실, 복도



[도면 3-12] 공사 후 - 1층 귀빈대기실, 동남1실, 복도

[표 3-9] 1층 귀빈대기실, 동남1실, 복도 고증자료 비교표

실명	현재(공사 전)	고증자료 분석	보수·복원(공사 후)
귀빈대기실	- 벽난로 없음(흔적 2기 있음) - 출구 1기 있음(흔적 5기 있음) - 실이 1실로 되어 있음	- 벽난로 3기 있음 - 출구 5기 있음 - 실이 2실로 되어 있음	- 벽난로 3기 설치 - 출구 5기 설치 - 실을 2실로 구획함
복도	- 벽난로 없음(흔적 있음) - 벽감 없음(흔적 있음)	- 벽난로 있음 - 벽감 있음	- 벽난로 설치 - 벽감 설치

• **귀빈대기실 구성** : 귀빈대기실과 관련된 자료는 조적벽체 흔적과 도면, 사진 2장이 있다. 이 실은 원래 2개 방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을 구획하는 흔적은 북쪽 벽과 남쪽 벽 조적벽체에서 나왔다. 천장에서도 확인되는데 아치형철판 콘크리트 슬라브를 구성하는 철골이 벽이 있었던 자리 바로 좌·우측에 설치된 것으로 볼 때 벽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도면에서도 확인되는데 1933년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에서 벽이 구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나머지 도면에서는 구획되어 있지 않았다. 구획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계획도면일 가능성(1936년 작성 도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미 보수를 한 후에 작성된 도면(1946~1947년 작성 도면) 일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도 있는데 1918년『한말궁중관계사진첩』의 귀빈대기실 동북쪽을 촬영한 사진이 있고 『이왕가 덕수궁 진열 미술품 도록』사진이 있다. 이 중 이왕가 덕수궁 진열 미술품 도록에 실린 사진은 서북쪽 방향을 찍은 사진인데 서쪽 벽의 남쪽에 있는 출입구가 보이고 그 출입구를 통해 중앙홀과 건너편 출구가 보인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여 조적벽체 흔적과 1933년 도면을 참고하여 귀빈대기실을 두 개의 실로 구획하였다.

[사진 3-10] 1층 귀빈대기실 천장 - 연접해 있는 철골 사이로 벽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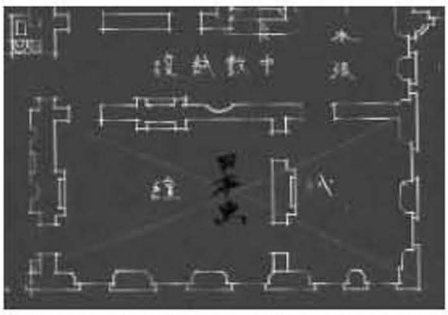
[사진 3-11] 귀빈대기실 동북쪽 방향 모습(『한말궁중관계사진첩』, 1918)

• **귀빈대기실 벽난로** : 조적벽체 흔적에는 벽난로가 2군데 있다. 북쪽 벽과 서쪽 벽에 있다. 도면을 살펴보면 벽난로는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과 1946~1947년 추정 국가기록원 도면을 제외한 모든 도면에 있다. 『한말궁중관계사진첩』에도 북쪽에 벽난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벽난로는 2군데에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조적벽체에 그 흔적이 있고 시기가 앞선 도면 대부분에 벽난로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벽난로를 2군데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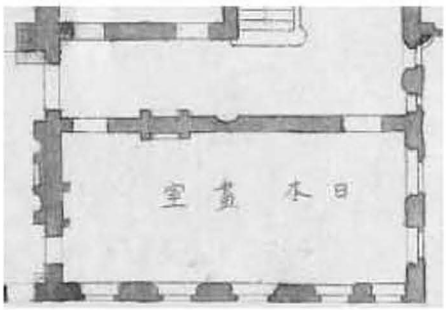
• **출구** : 조적벽체 흔적에 의하면 출구 흔적은 5군데가 있다. 북쪽 벽에 3군데, 서쪽 벽에 2군데 흔적이 있다. 서쪽 벽은 중앙홀의 동쪽 벽이다. 도면을 살펴보면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과 1946~1947년 추정 국가기록원 도면에는 2군데, 나머지 도면에는 3군데가 있다. 즉, 오래된 도면에는 3군데가 표

시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1층 대식당의 경우와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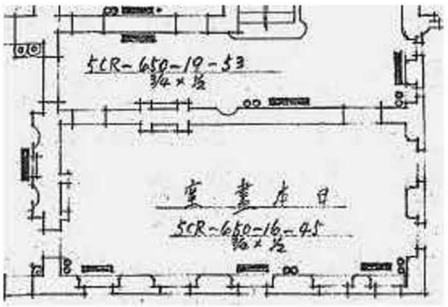
• **복도 :** 복도에는 벽난로와 벽감을 설치하였다. 조적벽체 흔적에 벽난로 흔적과 벽감 흔적이 나왔고 모든 도면에서도 벽감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상황이 일치했기에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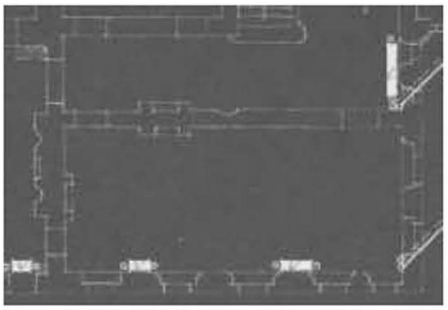
[그림 3-31] 1층 귀빈대기실, 동남1실, 복도(하마마츠 도면. 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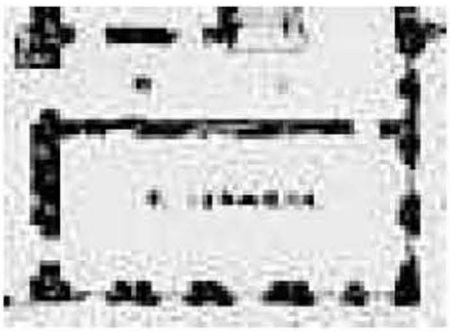
[그림 3-32] 1층 귀빈대기실, 동남1실, 복도(하마마츠 도면.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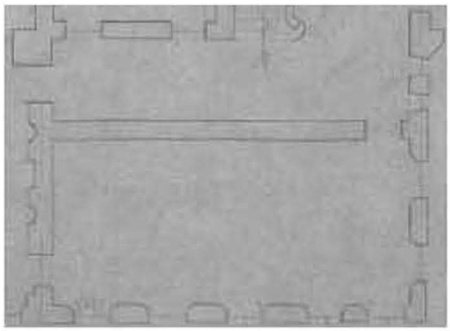
[그림 3-33] 1층 귀빈대기실, 동남1실, 복도(하마마츠 도면. 1936.7.17)



[그림 3-34] 1층 귀빈대기실, 동남1실, 복도(하마마츠 도면. 1936.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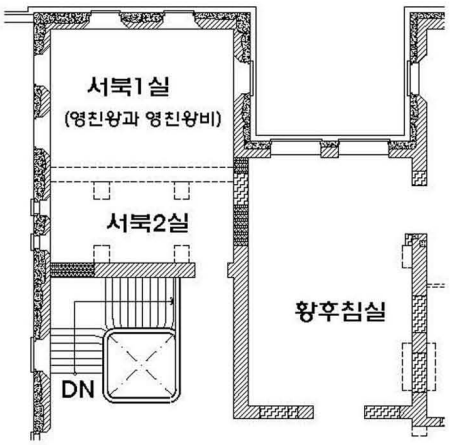
[그림 3-35] 1층 귀빈대기실, 동남1실, 복도(『이왕가미술관요람』.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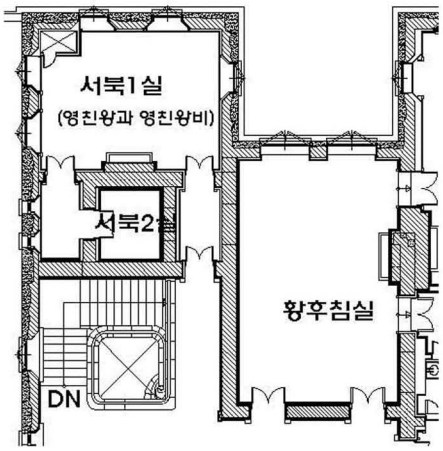
[그림 3-36] 1층 귀빈대기실, 동남1실, 복도(국가기록원. 1946~1947 추정)

3) 2층 평면 복원

가. 2층 서북1실 및 서북2실, 계단실, 황후침실



[도면 3-13] 공사 전 - 2층 서북1실 및 서북2실, 계단실, 황후침실 평면



[도면 3-14] 공사 후 - 2층 서북1실 및 서북2실, 계단실, 황후침실 평면

[표 3-10] 2층 서북1실 및 서북2실, 계단실, 황후침실 고증자료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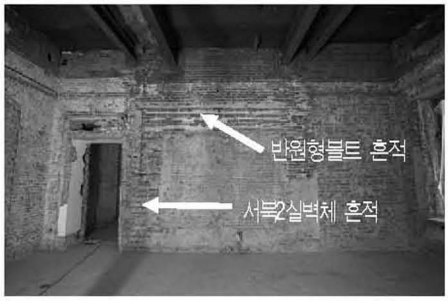
실명	현재(공사 전)	고증자료 분석	보수 · 복원(공사 후)
서북1실	• 벽난로 없음(흔적 있음) • 옥상 출입 계단 없음(흔적 있음) • 천창 있음 • 칸막이벽 없음	• 벽난로 있음 • 옥상 출입 계단 있음 • 천창 있음 • 칸막이벽 있음	• 벽난로 설치 • 옥상 출입 계단 설치 안함 • 천창 폐쇄 • 칸막이벽 설치 안함
서북2실	-	• 날개벽 있음	• 날개벽 설치
계단실	• 칸막이벽 없음	• 칸막이벽 있음	• 칸막이벽 설치 안함
황후침실	• 벽난로 없음(흔적 있음) • 외부에 발코니 없음(흔적 있음)	• 벽난로 있음 • 외부에 발코니 있음	• 벽난로 설치 • 외부 발코니 설치 안함

• **서북1실 :** 2층 서북1실은 1층 서북1실과 그 상황이 똑같다. 건립 당시에는 서북2실이 있고 1층으로 내려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지만 공사 전 상황은 서북2실이 없었고 계단도 없었다.

조적벽체 흔적에 의하면 1층 서북1실처럼 서북2실이 구획되어 있었던 흔적이 있다. 반원형볼트 흔적도 있고 도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시기가 떨어지는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과 1946~1947년 추정 국가기록원 도면에는 없지만 1933년, 1936년 하마마츠 도면에 의하면 서북2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에 서북2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벽과 반원형볼트를 설치하였다.

계단은 도면에 잘 표현되어 있지만 조적벽체에서는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만 천장 일부가 개방되어 있기는 하다. 과거 계단이 있던 자리인데 계단이 없어지면서 천장 슬라브를 설치하지 않고 천창을 설치해 개방시켜 둔 것이다. 또한 천창이 있는 부분으로 공조설비가 지나 갈 수밖에 없어 천창

을 막아 천장 마감을 하였다. 이 계단은 현실적인 복원 여건의 어려움으로 복원하지 않았다.



[사진 3-12] 2층 서북2실 흔적

[사진 3-13] 2층 서북2실 천창

• **서북2실 :** 서북2실이 있었던 흔적은 조적벽체에서도 있고 1933년, 1936년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에도 있는 것으로 볼 때 서북2실이 있었던 것은 분명했다. 이에 서북2실을 설치하였다. 이 서북2실은 1층 서북1실, 서북2실처럼 반원형볼트로 하였다. 출입구의 위치와 수 등도 도면에 근거하여 같은 위치에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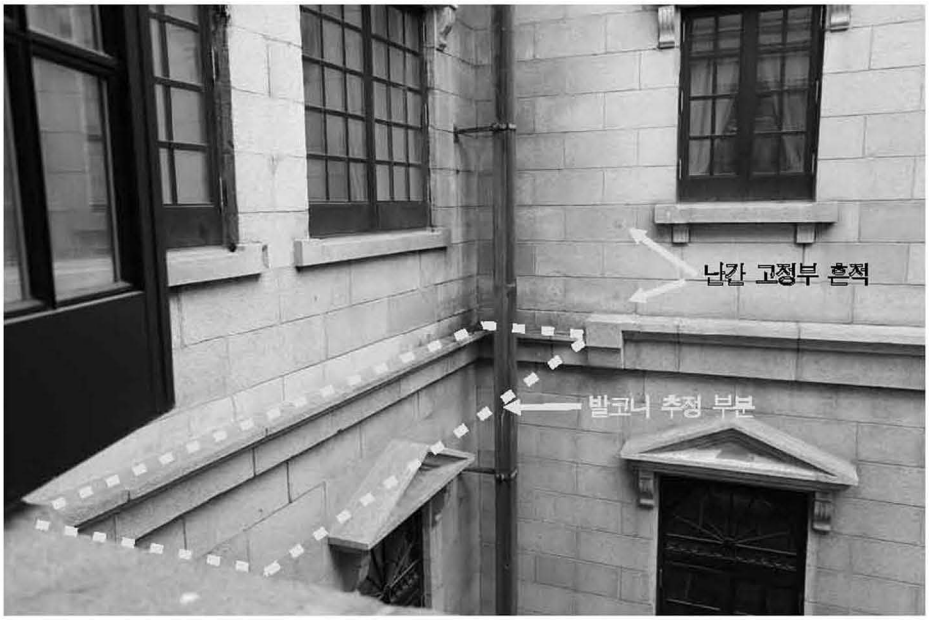
• **계단실 :** 계단실은 애초 건립 당시 상황과 같아 변화가 없다.

• **황후침실 :** 조적벽체 흔적에서는 벽난로 흔적과 출입구 흔적이 나왔다. 벽난로 추정 흔적은 동쪽 벽에서 확인되는데 돌출된 벽의 흔적이 2군데로 벽 중앙부분과 벽 남쪽에서 확인되었다. 이는 도면에서도 확인되었다. 시기가 떨어지는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과 1946~1947년 추정 국가기록원 도면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1933년, 1936년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에는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1층 소식당(서)가 바로 아래에 있는 실인데 이 소식당(서)의 남쪽 위치에 있는 같은 부분은 난로로 사용하지 않고 거울이 있는 가짜 출입구로 되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2층의 이 부분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벽난로를 중앙 한 곳에만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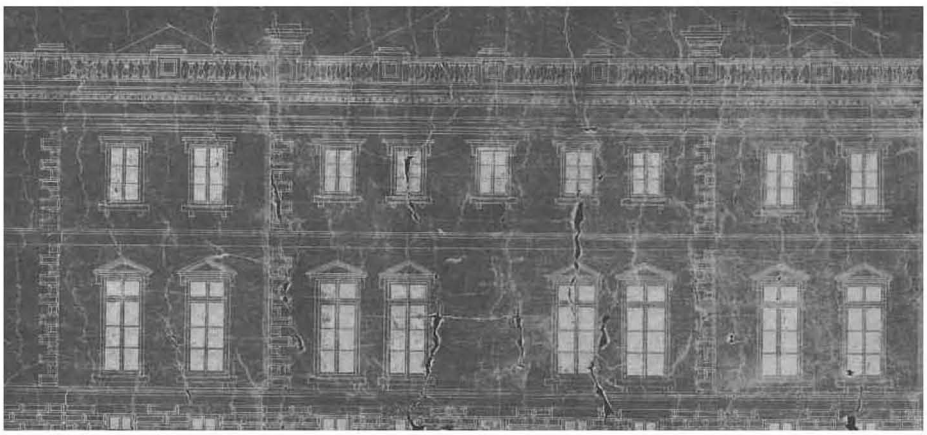
출입구는 조적벽체에서는 동쪽 벽에 2군데, 남쪽 벽에 2군데, 서쪽 벽에 1군데의 흔적이 있다. 도면을 살펴보면, 1933년, 1936년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에서는 동쪽 벽에 2군데, 남쪽 벽에 2군데만 출입구가 있고 서쪽 벽은 없다. 반면에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과 1946~1947년 추정 국가기록원 도면에는 동쪽 벽에 1군데, 서쪽 벽에 1군데만 있다. 남쪽 벽에는 없다. 즉, 도면이 서로 다른 셈이다. 이건 시기가 달라지면서 생긴 문제로 보인다. 즉, 애초에는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처럼 서쪽 벽에는 없고 동쪽에 2군데, 남쪽에 2군데 있었는데 1933년 이후 변경이 되면서 출입구의 수와 위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1933년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을 기준으로 동쪽 벽에 2군데, 남측 벽에 2군데의 출입구를 설치하였다.

• **황후침실 발코니** : 1933년, 1936년 하마마츠시립도서관 평면도에는 황후침실 북쪽 창문 밖인 외부에 발코니로 보이는 돌출된 선이 그려져 있다. 지금 현황에는 없는 이 부분이 이 도면에서만 확인된다. 1898년 2월 20일에 작성된 것으로 표시된 하딩 도면 중 배면도에서는 발코니로 보이는 표현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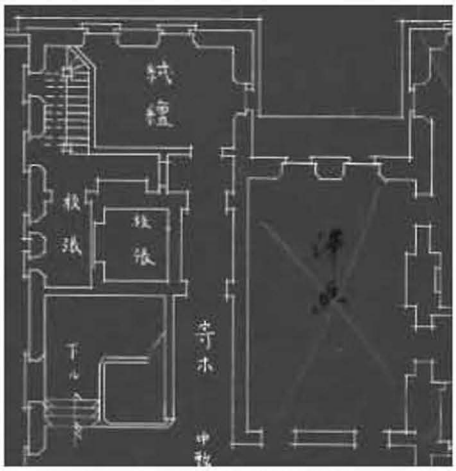
그런데 북쪽 벽 창문을 보면 다른 북쪽 벽에 있는 창문보다 크고, 외부를 살펴보면 돌출된 부분의 끝선 위치에 있는 양쪽 벽 부분에 석재 모양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그 상부에는 난간 등을 설치하면서 생긴 흔적이 있다. 돌출이 시작된 부분의 석재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 발코니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것이 언제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있었던 것인지 중간에 설치된 것인지가 불분명했다. 이에 복원공사 자문회의는 이 부분에 대한 복원을 이번 공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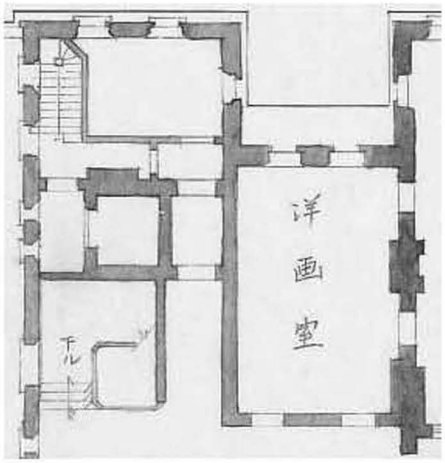
[사진 3-14] 2층 황후침실 배면 발코니 추정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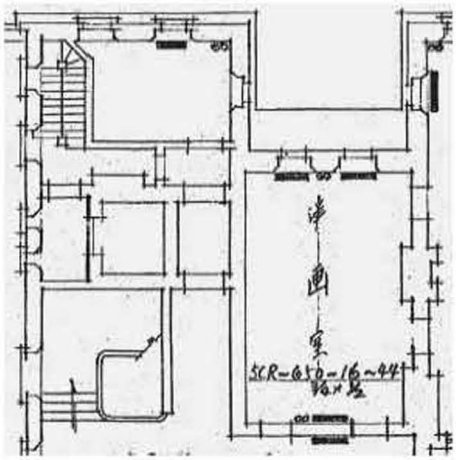
[그림 3-37] 석조전 배면도 - 발코니 흔적이 없다.(하마마츠시립도서관. 1898.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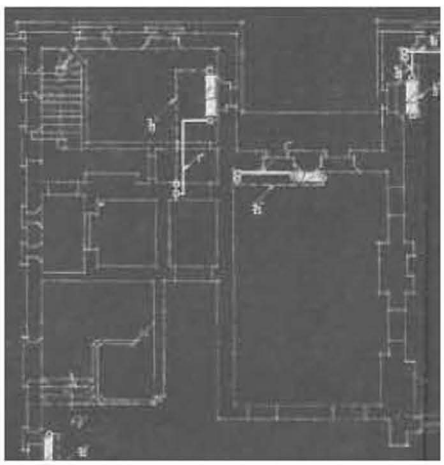
[그림 3-38] 2층 서북1실 및 서북2실, 계단실, 황후침실 (하마마츠 도면. 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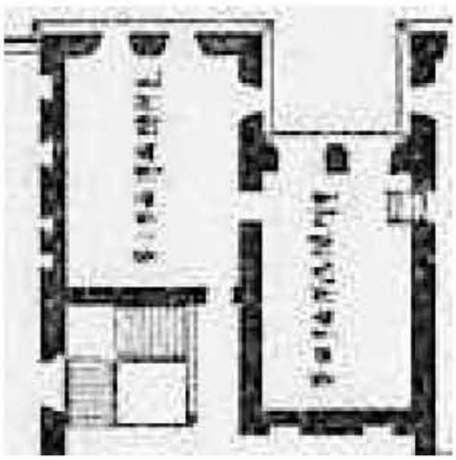
[그림 3-39] 2층 서북1실 및 서북2실, 계단실, 황후침실(하마마츠 도면.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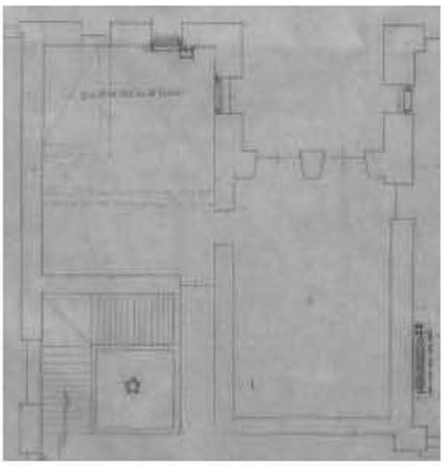
[그림 3-40] 2층 서북1실 및 서북2실, 계단실, 황후침실 (하마마츠 도면. 1936.7.17)



[그림 3-41] 2층 서북1실 및 서북2실, 계단실, 황후침실(하마마츠 도면. 1936.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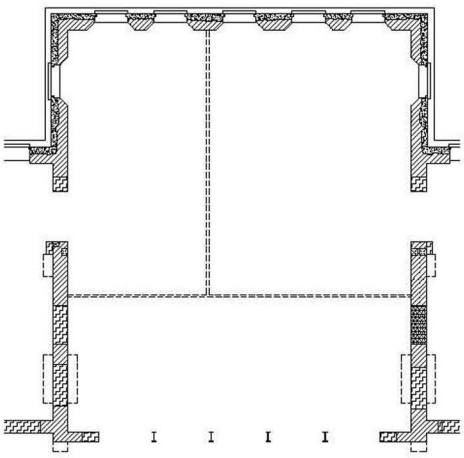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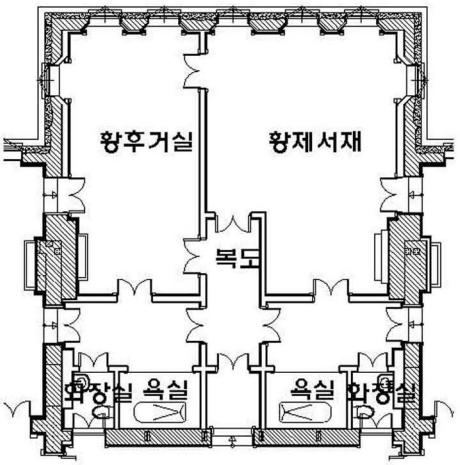
[그림 3-42] 2층 서북1실 및 서북2실, 계단실, 황후침실 (『이왕가미술관요람』. 1938)



[그림 3-43] 2층 서북1실 및 서북2실, 계단실, 황후침실(국가기록원. 1946~1947 추정)

나.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





[도면 3-15] 공사 전 -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 평면 [도면 3-16] 공사 후 -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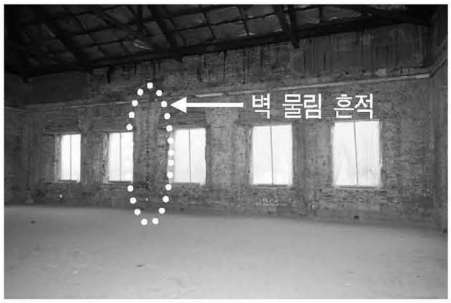
[표 3-11]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 고증자료 비교표

실명	현재(공사 전)	고증자료 분석	보수·복원(공사 후)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	• 벽난로 없음(흔적 2개 있음) • 출구 2개 있음 • 실이 1실로 되어 있음	• 벽난로 2개 있음 • 출구 5개 있음 • 실이 여러 개로 구획 되어 있음	• 벽난로 2개 설치 • 출구 5개 설치 • 실을 여러 개로 구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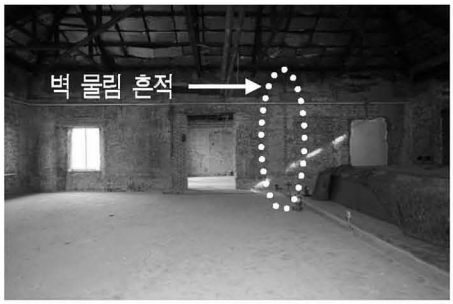
• **개요 :**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은 2층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이 공간은 거실 이외에도 전실과 욕실 등이 있었다. 벽난로는 2개가 있었고 출입구는 남쪽을 제외하고 동쪽 벽에 2군데, 서쪽 벽에 2군데 있었다. 애초에는 조적벽체의 흔적만을 가지고 실을 구획했지만 공사 도중에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이 발견되면서 그 도면에 내부 간살이가 잘 나와 있어 조적벽체 흔적과 동일하여 그 도면을 기준으로 실을 추가 구획하였다.

• **내부 간살이 :** 공사 초기에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 벽의 마감인 회몰탈을 벗겨낸 결과, 북쪽 벽과 동·서벽에 0.5B 두께로 된 벽이 물려 있던 흔적을 발견했다. 물려 있다고 추정된 부분의 벽돌은 천장에서 바닥까지 깨져 있었다. 이 흔적으로 과거에 조적벽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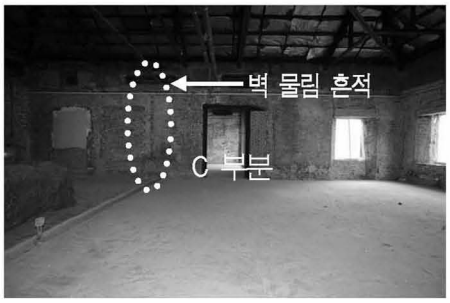
또 『한말궁중관계사진첩』 사진 중의 하나에서 황제서재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있었다. 이 사진은 1918년 1월 15일 『매일신보』에 실린 사진과 같은 사진인데 사진 설명에는 '御居室'로 표현하고 있다. 즉 황제서재를 의미한다. 이 사진은 남동쪽 모서리쪽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에 의하면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눈 동·서벽을 가로지르는 벽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벽 마감 회몰탈 제거 후 확인된 내용과 동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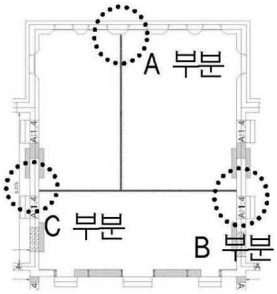
[사진 3-15]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 북쪽 벽 벽돌 물림 흔적



[사진 3-16]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 동쪽 벽 벽돌 물림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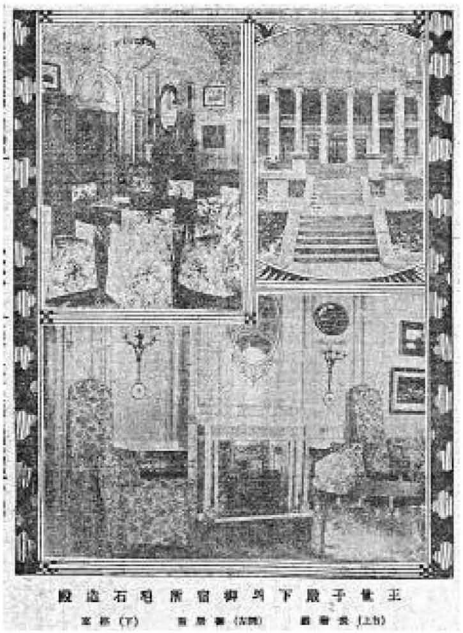


[사진 3-17]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 서쪽 벽 벽돌 물림 흔적



[도면 3-17] 벽 물림 흔적 위치

[사진 3-18] 황제서재 남쪽 벽이 오른쪽에 보인다.



[그림 3-44] 1918년 1월 15일 『매일신보』에 실린 사진

한편 1910년 발행된 『건축잡지』 제288호에 수록된 석조전 준공과 관련된 기사에 의하면 "……1층 접견실 120조, 대광문(홀)이 30조이고 2층 고종의 거실은 40조, 왕비의 거실 30조, 양전하의 침실 30조이다."[10] 라고 되어 있었다. 이 기사에 의하면 2층은 최소 3개실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벽 마감 회몰탈 제거 후 확인된 내용과 동일했다. 기사에 나온 면적도 환산해 보았다. '조'라는 단위는 다다미 1장의 면적을 말하는데 환산하면 1.66㎡ 정

10) 『덕수궁 석조전 본관 복원 공사자료집』 121p. 문화재청 2011,12

도 된다. 그렇다면 황제서재는 40조×1.66=66.4㎡이고 황후거실은 30조×1.66=49.8㎡이 된다. 실제 벽 칸막이로 구분된 황제서재 면적을 실측해보면 같은 크기로 나온다.

이런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2층 황제서재·황후거실을 3개의 실로 구획하기로 하고 시공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공사 후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이 발견되었다. 이 도면에 의하면 3개실로 구획한 것은 똑같이 맞았지만 3개실 중 남쪽 실은 더 많은 실로 구획되어 있었다. 남쪽 실이 많이 구획되었던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이미 남쪽 벽은 완전히 훼손되어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고 남쪽 실의 동·서쪽 벽도 훼손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도면은 1933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건설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시점이 애매했다. 즉, 애초부터 이 실들이 구획된 것인지 1933년 석조전 미술관으로 전용하면서 작성된 계획 도면인지가 불분명했다.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1922년 4월 26일 『매일신보』 기사가 발견되었다. 이 기사에는 실의 위치와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 .... 〈중간생략〉 .... 약 한길 되는 층계로 올라 정문으로 들어가니, 이곳은 56칸으로 이번 세자전하의 접견실의 앞 대청이오,.... 〈중간생략〉 ....그 좌우에는 약 7칸 응접실과 식당이 있는바.... 〈중간생략〉 .... 대청(大廳)으로부터 접견실로 들어가니.... 〈중간생략〉 .... 접견실의 넓이는 대청에 불과하나 아래에 융단(絨緞)을 깔려있고,.... 〈중간생략〉 ....방의 좌우에도 식당이 있다. 이로부터 2층으로 올라간 즉 접견실 바로 위가 두 전하의 거처인 두 방이 접하였는데, 동쪽은 세자전하의 거처이오, 서쪽은 동비전하의 거처하실 곳이며, 동쪽방은 동쪽편, 서쪽방은 서쪽편으로 각각 침실이 있고, **방의 입구되는 남쪽편으로는 각각 욕실과 서양식의 변소가 붙어있으며, 그 입구의 앞으로는 복도(廊下)가 통하였고**, 복도의 건너편으로는 동에서 서를 향하여 1, 2, 3, 4호실과 응접실이 있는데, 예전에는 1, 2, 3호실에 여관이 있고 4호실과 응접실에는 남자 시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자들은 2층에는 금물이오 제4호실은 폐전하의 거처라 하며, 1, 2, 3호실은 전부 여관 간호 등이 점령하며, 두 전하의 처소에는 어용(御用)이외에는 출입치 못한다고 하며, 세 전하의 처소가 다 접견실보다 더 나은 점은 없고, 단 정아(晶雅)하고 '談○' 뿐이며,.... 〈중간생략〉 ....지하실에는 주방창고 전기가스(電氣瓦斯)의 설치가 있는데, 지하실은 12칸으로 나누었으며, 1층은 7칸이오, 2층이 12칸이오, 총 평수는 425평 이라고 하며,.... 〈중간생략〉 .... 2층 전면의 노대(회랑)로 나오니 반칸 폭의 노대는 동서남 3면으로 통하였다. 수 걸음을 배회하면서 앞을 내려다 보니 도시의 한 면을 마주하고 있으며, 남산의 송백은 만년수를 축하하듯 ....."

이 기사에는 지층, 1층, 2층 각 실의 구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중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 남쪽 상황을 설명한 내용도 나왔다. 즉, 욕실과 변소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과 비교할 때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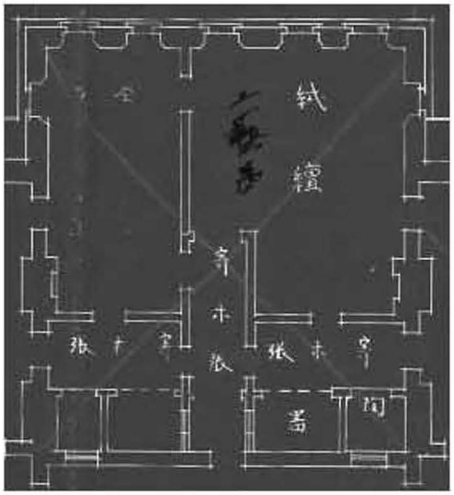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1918년 11월 29일자 『매일신보』에서도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 "....〈중간생략〉....이왕세자전하의 가례를 내년에 지내실 후에 비전하와 함께 조선에 나오실 때에는 덕수궁 석조전에서 묵으실 터인데 이왕직영선과에는 이태왕전하의 하명을 받들어 요사이 밤낮을 도와서 고치고 꾸미는 중인데 ....〈중간생략〉....**이층에는 큰방 두칸을 가운데에 만들고 오른편과 왼편에 주무시는 방과 책 보시는 방과 목욕하시는 방을 만들었고,** 석조전 앞 편에는 가까이 뫼시고 있는 관원들의 거쳐할 방 여섯 칸이 있으며, 아래층에는 접견실 즉 다른 사람을 접견하시는 방을 한 가운데에 만들고 식당과 여러 관원들의 모여 있는 방과 사무실이 있으며, 문 앞에는 돌층계이라 안과 바깥을 꾸민 것은 극진히 훌륭하고 미려하여 더 말할 것이 없거니와 이 꾸미는 물건은 모두 영국 런던 '메 - 블' 회사에서 가져온 것이며 지금 영선과 감독 아래에 서벽을 다시 바르고 전기등을 늘이며, 난방(暖房)을 꾸미며, 목욕방을 고치며 방안의 꾸민 물건을 일제히 새로해 고친다하니 장려하기가 짝이 없는 석조전은 더욱이 아름다울 것이요 두 전하의 눈을 황홀하시게 하겠더라."

이 기사 내용은 앞서 언급한 1922년 4월 26일 『매일신보』 기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즉,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이 방 2개로 구획되어 있고 그 좌우에 침실이 있다는 내용과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 앞쪽으로 목욕실이 있다는 내용이 거의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기사가 작성된 시점이 1918년과 1922년이고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 작성 추정 시기가 1933년임을 감안하면 최소한 1918년 이전 시점에 분명히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처럼 구획되어 있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다. 이에 이미 구획된 3개실 중 남쪽 실을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처럼 구획하는 추가 공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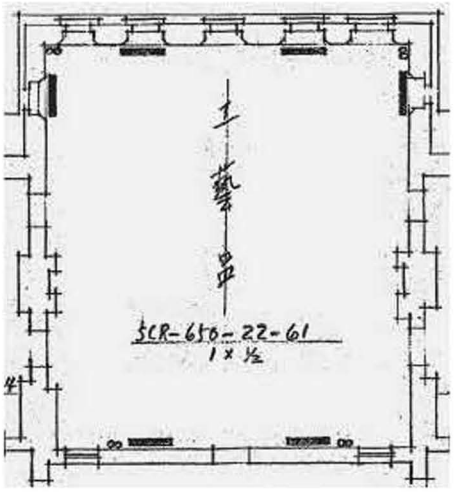
• **벽난로 :**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에는 벽난로가 동쪽 벽 1개, 서쪽 벽에 1개로 총 2개가 설치되었다. 조적벽체 흔적에서는 동쪽 벽과 서쪽 벽의 남쪽에 돌출벽 흔적이 있었고 중앙부분에도 돌출벽 흔적이 약간 있었는데 중앙부분은 워낙 많이 훼손돼서 이 돌출벽이 벽난로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천장에서 연도를 확인할 수 있어 중앙 부분에 확실하게 벽난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황제서재를 찍은 사진 중에 벽난로가 보인다. 이 벽난로가 중앙 부분에 있는 벽난로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벽난로는 동쪽 벽과 서쪽 벽에 각각 1개씩 총 2개를 설치하였다.

• **출입구 :** 공사 전에는 남쪽 벽을 제외하고 동쪽에 1군데, 서쪽에 1군데 있었다. 이를 동쪽 벽에 2군데, 서쪽 벽에 2군데 설치하였다. 각각 1군데씩 추가된 것이다. 조적벽체 흔적에서도 각각 2군데씩 있었고 시기가 빠른 1933년, 1936년 도면에서도 각각 2군데씩 있었다. 도면, 조적벽체 흔적이 동일하여 동쪽 벽에 2군데, 서쪽 벽에 2군데로 총 4군데에 출입구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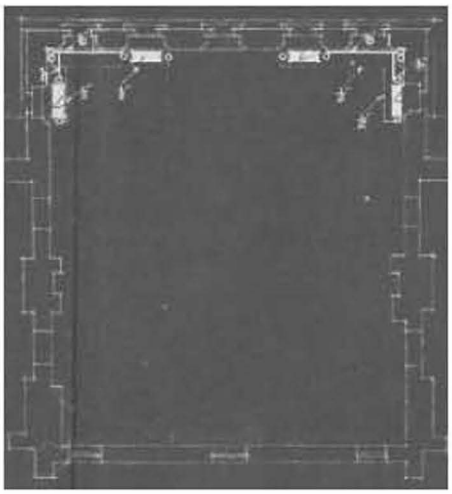


[그림 3-45]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하마마츠 도면. 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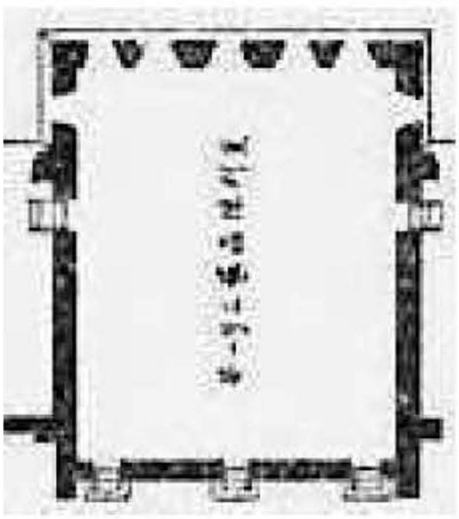
[그림 3-46]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하마마츠 도면.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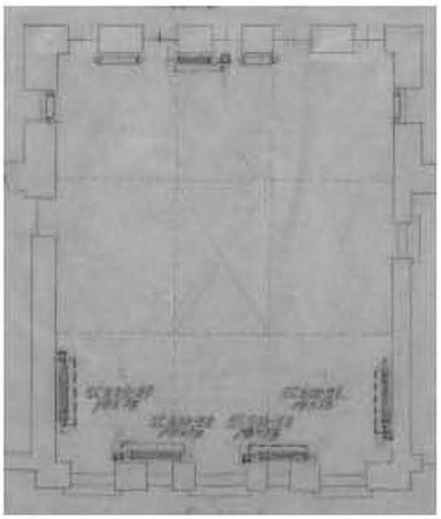
[그림 3-47]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하마마츠 도면. 1936.7.17)



[그림 3-48]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하마마츠 도면. 1936.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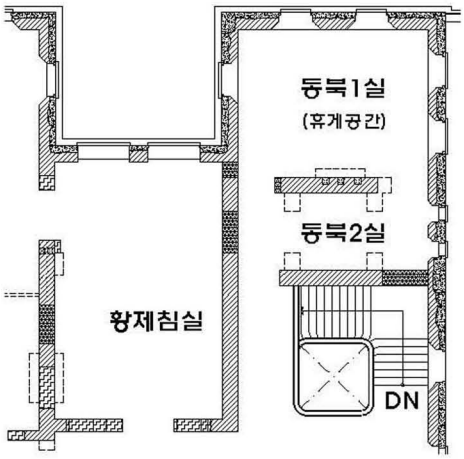


[그림 3-49]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이왕가미술관요람』.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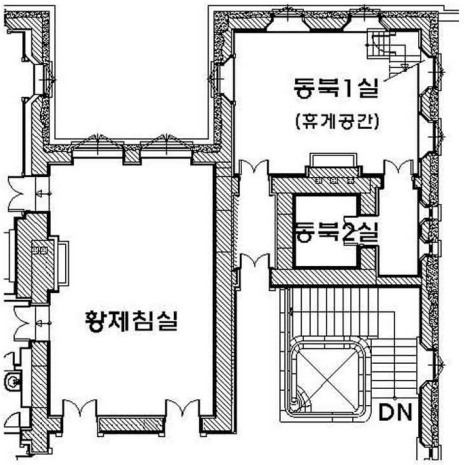


[그림 3-50]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욕실(국가기록원. 1946~1947 추정)

다. 2층 동북1실 및 동북2실, 계단실, 황제침실



[도면 3-18] 공사 전 - 2층 동북1실 및 동북2실, 계단실, 황제침실 평면



[도면 3-19] 공사 후 - 2층 동북1실 및 동북2실, 계단실, 황제침실 평면

[표 3-12] 2층 동북1실 및 동북2실, 계단실, 황제침실 고증자료 비교표

실명	현재(공사 전)	고증자료 분석	보수·복원(공사 후)
동북1실	• 벽난로 없음(흔적 있음) • 옥상 출입 계단 있음(흔적 있음) • 칸막이벽 없음 • 여자화장실로 사용함	• 벽난로 있음 • 2층 출입 계단 있음 • 칸막이벽 있음 • 화장실 없음(1946~1947년 이후 화장실사용)	• 벽난로 설치 • 2층 출입 계단 유지 • 칸막이벽 설치 안함 • 화장실 없앰
동북2실	• 남자화장실로 사용함	• 날개벽 있음	• 날개벽 설치
계단실	• 칸막이벽 없음	• 칸막이벽 있음	• 칸막이벽 설치 안함
황제침실	• 벽난로 없음(흔적 있음) • 외부에 발코니 없음(흔적 있음)	• 벽난로 있음 • 외부에 발코니 있음	• 벽난로 설치 • 외부 발코니 설치 안함

• **동북1실** : 2층 동북1실은 2층 서북1실과 건립 초기 상황은 똑같다. 다만 공사 바로 전 상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공사 전 상황은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동북2실 일부가 있었으며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시기가 빠른 1933년, 1936년 도면에 의하면 이 계단은 1층으로 내려가고 옥상으로도 올라가게 되어 있지만 현재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만 있다. 계단 벽은 각재 위에 졸대를 대고 회벽마감으로 되어 있었다. 이 계단은 현재 옥상으로 올라가는 유일한 계단이다. 이 계단을 현재 있는 그 상태로 보수하고 존치하였다.

동북1실 남쪽 벽, 동북2실의 북쪽 벽에는 벽난로가 있다. 시기가 빠른 도면에서도 벽난로가 표현되어 있었다. 이 벽난로를 복원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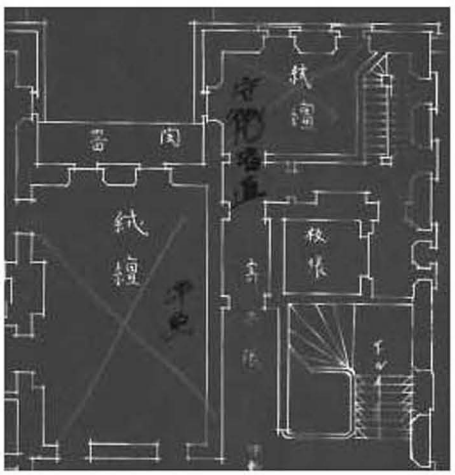
• **동북2실** : 동북2실은 남자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동북2실 벽과 반원형 볼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에 1933년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에 근거하여 동북2실벽을 복원하고 반원형볼트도 다시 설치하였다.

• **계단실** : 계단실은 애초 건립 당시 상황과 같아 변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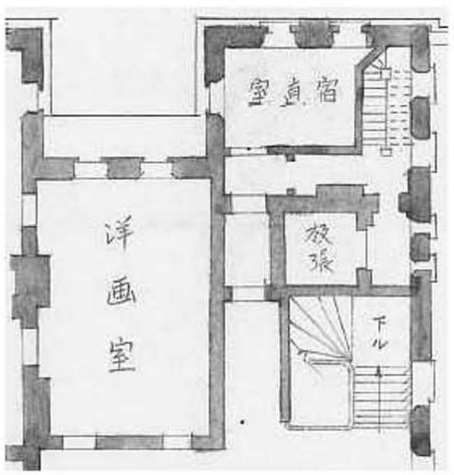
• **황제침실 :** 황제침실 또한 서쪽의 황후침실과 같은 상황이다. 조적벽체 마감을 해체한 후 나온 흔적에서 벽난로 흔적과 출입구 흔적이 나왔다. 벽난로 추정 흔적은 서쪽 벽에서 확인되는데 돌출된 벽 흔적이 2군데, 벽 중앙 부분과 벽 남쪽에서 확인되었고 도면에서도 확인되었다. 시기가 떨어지는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 과 1946~1947년 추정 국가기록원 도면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1933년, 1936년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에는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1층 소식당(동)이 바로 아래에 있는 실인데 이 소식당(동)의 남쪽 위치에 있는 같은 부분은 난로로 사용하지 않고 거울이 있는 가짜 출입구로 되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2층의 이 부분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벽난로를 중앙부분 한 곳에만 설치하였다.

출입구는 조적벽체에서는 서쪽 벽에 2군데, 남쪽 벽에 2군데, 동쪽 벽에 1군데의 흔적이 있다. 도면을 살펴보면, 1933년, 1936년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에서는 서쪽 벽에 2군데, 남쪽 벽에 2군데만 출입구가 있고 서쪽 벽은 없다. 반면에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 과 1946~1947년 추정 국가기록원 도면에는 서쪽 벽에 1군데, 남쪽 벽에 2군데만 있다. 동쪽 벽에는 출입구 흔적이 없다. 즉, 도면이 서로 다른 셈이다. 이전 황후침실과 마찬가지로 시기가 달라지면서 생긴 문제로 보인다. 즉, 애초에는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처럼 동쪽 벽에는 없고 서쪽에 2군데, 남쪽에 2군데 있었는데 1933년 이후 변경이 되면서 출입구의 수와 위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1933년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을 기준으로 서쪽 벽에 2군데, 남쪽 벽에2군데의 출입구를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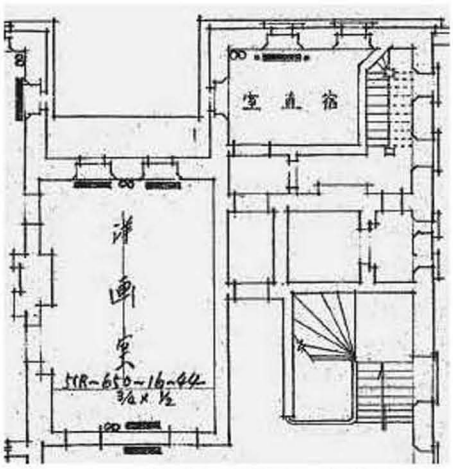
• **황제침실 발코니 :** 황후침실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에 이런 불분명한 상황을 단정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복원은 이번 공사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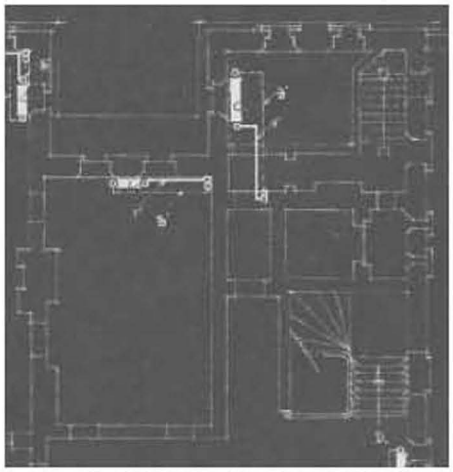
[그림 3-51] 2층 동북1실 및 동북2실, 계단실, 황제침실 (하마마츠 도면. 1933)



[그림 3-52] 2층 동북1실 및 동북2실, 계단실, 황제침실(하마마츠 도면.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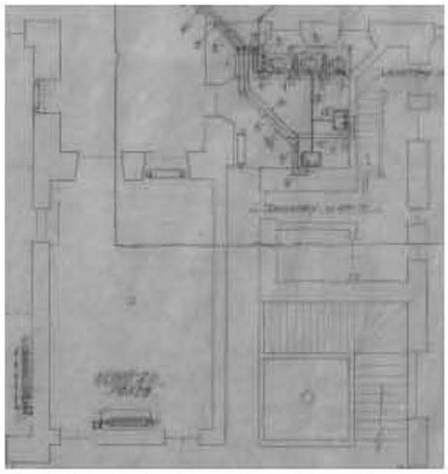


[그림 3-53] 2층 동북1실 및 동북2실, 계단실, 황제침실 (하마마츠 도면. 1936.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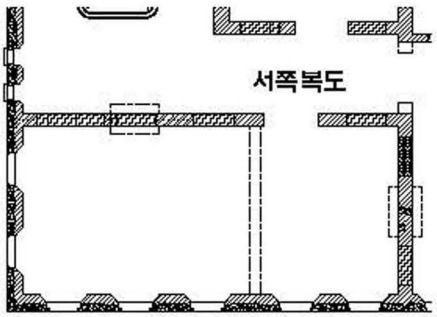
[그림 3-54] 2층 동북1실 및 동북2실, 계단실, 황제침실(하마마츠 도면. 1936.7.17)

[그림 3-55] 2층 동북1실 및 동북2실, 계단실, 황제침실 (『이왕가미술관요람』.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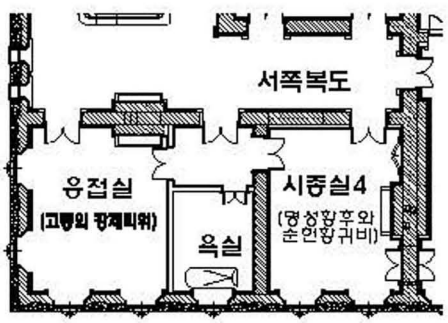


[그림 3-56] 2층 동북1실 및 동북2실, 계단실, 황제침실(국가기록원. 1946~1947 추정)

라. 2층 응접실, 시종실4, 욕실, 복도



[도면 3-20] 공사 전 - 2층 시종실4, 응접실, 욕실, 복도 평면



[도면 3-21] 공사 후 - 2층 시종실4, 응접실, 욕실, 복도 평면

[표 3-13] 2층 응접실, 욕실 고증자료 비교표

실명	현재(공사 전)	고증자료 분석	보수·복원(공사 후)
응접실	• 벽난로 없음(흔적 1기 있음)	• 벽난로 1기 있음 • 출구 1기 있음	• 벽난로 1기 설치 • 출구 1기 설치
욕실		• 출구 1기 있음	• 출구 1기 설치
시종실4	• 벽난로 없음(흔적 1기 있음) • 출구 1기 있음	• 벽난로 1기 있음 • 출구 1기 있음	• 벽난로 1기 설치 • 출구 1기 설치
복도	• 벽난로 없음(흔적 있음)	• 벽난로 1기 있음	• 벽난로 1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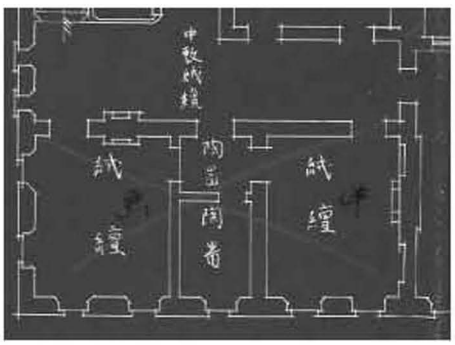
• **응접실, 시종실4, 욕실** : 조적벽체 흔적에는 벽난로 흔적이 2군데 있고 출구 흔적은 5군데 있다. 또 중간에 벽이 있던 흔적이 있다. 도면을 살펴보면 벽난로는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과 1946~1947년 추정 국가기록원 도면을 제외한 모든 도면에 있다. 출구는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과 1946~1947년 추정 국가기록원 도면에는 2군데, 나머지 도면에는 3군데가 있다.

벽난로는 조적벽체 흔적과 도면을 분석해 볼 때 2군데에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조적벽체에 그 흔적이 있고 시기가 앞선 도면 대부분에 벽난로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벽난로를 2군데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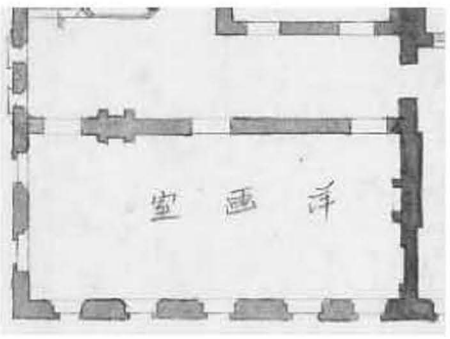
출구는 3군데 설치하였다. 조적벽체 흔적에는 5군데나 있지만 시기가 앞선 도면에는 모두 3군데에만 있기 때문이다.

중간에는 칸막이벽을 설치하였다. 조적벽체에 벽이 있었던 흔적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오래된 도면인 1933년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에 칸막이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욕실 등이 있어 좀 더 많이 간살이가 되어 있었다. 우선 조적벽체 흔적에서 확인된 칸막이벽을 벽돌로 조적하였다. 다만 나머지 욕실과 통로는 목재로 칸막이벽을 설치하였다. 왜냐하면 바로 아래층 1층 대식당에는 날개벽만 있었기 때문에 이 벽을 받아줄 내력벽이 없기 때문이었다. 즉, 조적벽 하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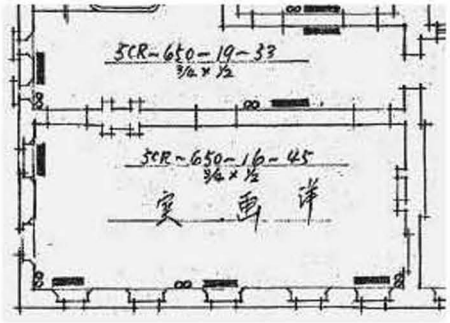
• **복도 :** 복도에는 벽난로를 설치하였다. 조적벽체에 벽난로가 나왔고 도면에서도 벽난로 흔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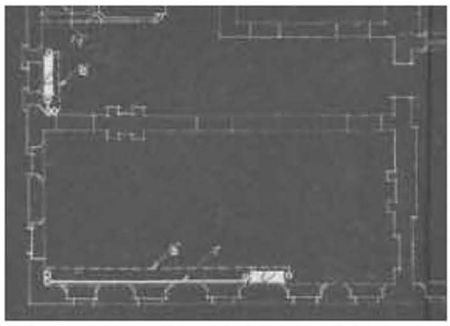
[그림 3-57] 2층 시종실4, 응접실, 욕실(하마마츠 도면. 1933)



[그림 3-58] 2층 시종실4, 응접실, 욕실(하마마츠 도면.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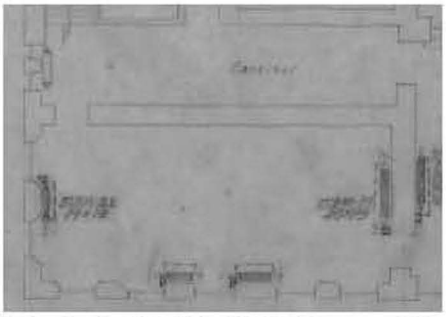


[그림 3-59] 2층 시종실4, 응접실, 욕실(히미마츠 도면. 1936.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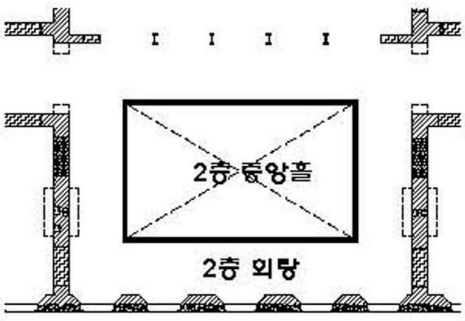
[그림 3-60] 2층 시종실4, 응접실, 욕실(히미마츠 도면. 1936.7.17)

[그림 3-61] 2층 시종실4, 응접실, 욕실(『이왕가미술관요람』: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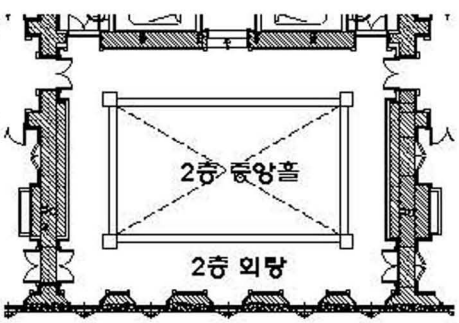


[그림 3-62] 2층 시종실4, 응접실, 욕실(국가기록원. 1946~1947 추정)

마. 2층 중앙홀



[도면 3-22] 공사 전 - 2층 중앙홀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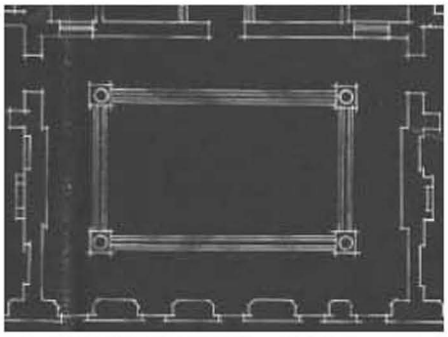


[도면 3-23] 공사 후 - 2층 중앙홀 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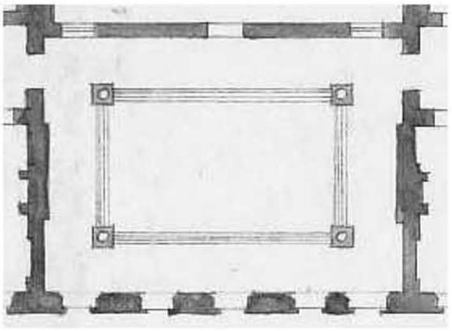
[표 3-14] 2층 중앙홀 고증자료 비교표

실명	현재(공사 전)	고증자료 분석	보수·복원(공사 후)
중앙홀	• 벽난로 없음 • 기둥 없음	• 벽난로 없음 • 기둥 있음(4기)	• 벽난로 설치 안함 • 기둥 4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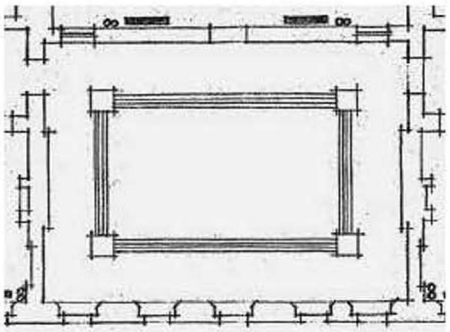
• **중앙홀** : 중앙홀은 평면상 특별한 부분이 없었다. 다만 현재는 없는 난간의 네모서리에 기둥이 있었다. 이 기둥은 사진과 도면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난간 모서리에 기둥을 4개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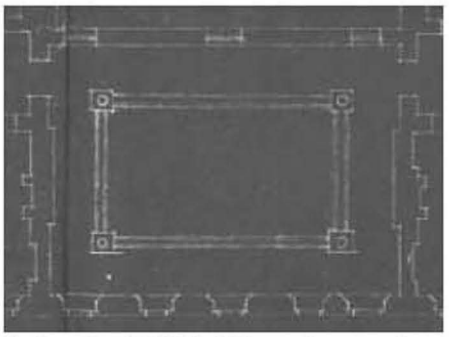
[그림 3-63] 2층 중앙홀(하마마츠 도면. 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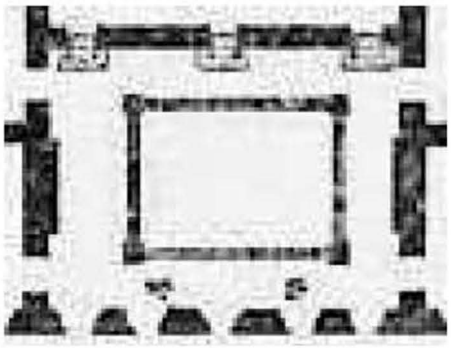
[그림 3-64] 2층 중앙홀(하마마츠 도면.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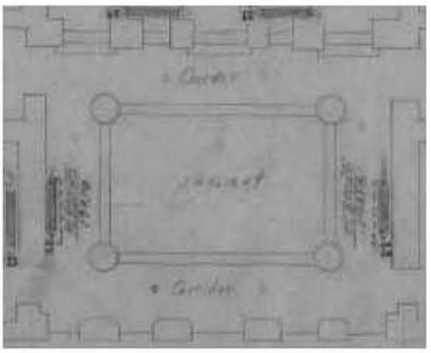
[그림 3-65] 2층 중앙홀(하마마츠 도면. 1936.7.17)



[그림 3-66] 2층 중앙홀(하마마츠 도면. 1936.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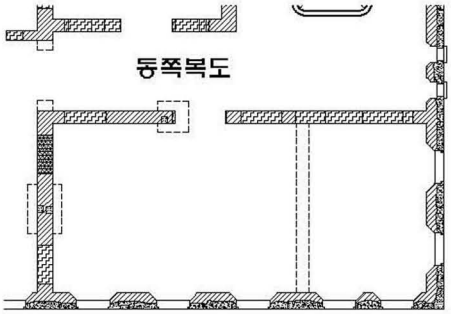


[그림 3-67] 2층 중앙홀(『이왕가미술관요람』. 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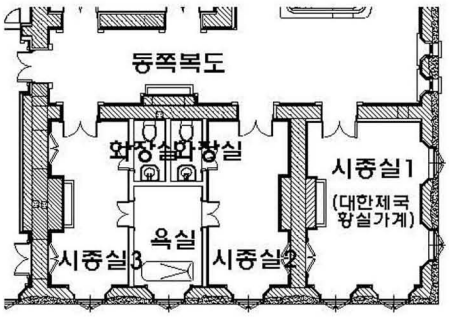


[그림 3-68] 2층 중앙홀(국가기록원. 1946~1947 추정)

바. 2층 시종실1, 2, 3호실



[도면 3-24] 공사 전 - 2층 시종실1,2,3호실 평면



[도면 3-25] 공사 후 - 2층 시종실1,2,3호실 평면

[표 3-15] 2층 시종실1, 2, 3호실 고증자료 비교표

실명	현재(공사 전)	고증자료 분석	보수 · 복원(공사 후)
시종실 1, 2, 3호	• 벽난로 없음(흔적 1개 있음) • 출구 1개 있음 • 실이 1실로 되어 있음	• 벽난로 2개 있음 • 출구 3개 있음 • 실이 3실로 되어 있음	• 벽난로 2개 설치 • 출구 3개 설치 • 실을 3실로 구획함
복도	• 벽난로 없음(흔적 있음)	• 벽난로 있음	• 벽난로 설치

• **시종실1, 2, 3호실 구성** : 시종실1, 2, 3호실과 관련된 자료는 조적벽체의 흔적과 도면이 있다. 이 실은 원래 두개 방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을 구획하는 흔적은 북쪽 벽과 남쪽 벽 조적벽체에서 나왔다. 천장에서도 확인되는데 아치형철판 콘크리트 슬라브가 벽이 있던 부분에서 단절되어 있다. 도면에서도 확인되는데 1933년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에서 벽이 구획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나머지 도면에서는 구획되어 있지 않았다. 나머지 도면에서 구획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계획도면일 가능성(1936년 작성 도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미 보수를 한 후에 작성된 도면(1946~1947년 작성 도면)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과 조적벽체 흔적을 근거로 조적벽체 흔적과 1933년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을 참고하여 시종실1, 2, 3을 두 개의 실로 구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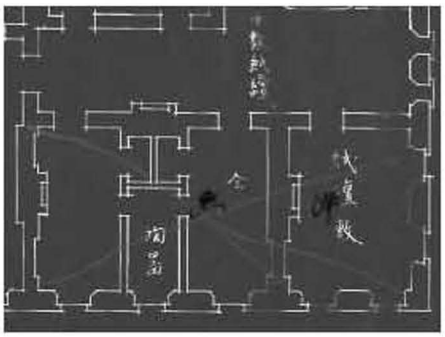
그런데 이 실 또한 서쪽에 있는 응접실과 같이 내부에 간살이가 많이 있었다. 1933년 도면에 의하면 많은 실로 쪼개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실도 도면대로 여러 실로 구획하였다. 조적벽체 흔적에서 확인된 부분은 벽돌로 조적하고 나머지는 목재로 칸막이벽을 설치했다.

• **시종실1, 2, 3 벽난로** : 조적벽체 흔적에는 벽난로 흔적이 2군데 있는데 북쪽 벽과 서쪽 벽에 있다. 도면을 살펴보면 벽난로는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과 1946~1947년 추정 국가기록원 도면을 제외한 모든 도면에 있다. 이처럼 벽난로는 2군데에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조적벽체에 그 흔적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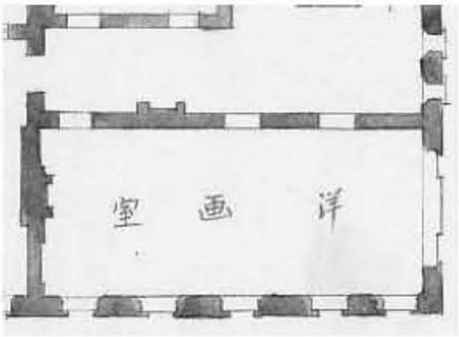
시기가 앞선 도면 대부분에 벽난로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벽난로를 2군데 설치하였다.

• **출입구 :** 조적벽체에는 출입구 흔적이 5군데가 있다. 북쪽 벽에 3군데, 서쪽 벽에 2군데 흔적이 있다. 2층 응접실과 시종실4의 경우와 똑같다. 응접실과 시종실4와 같은 이유로 출입구를 3군데만 설치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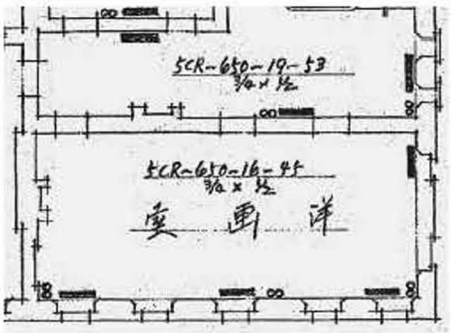
• **복도 :** 복도에는 벽난로를 설치하였다. 조적벽체에 벽난로 흔적이 나왔고 시기가 빠른 도면에서도 벽난로가 표시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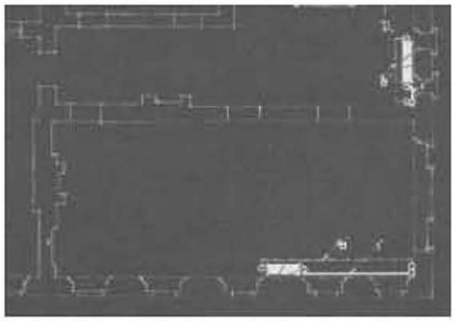
[그림 3-69] 2층 시종실1, 2, 3호실(하마마츠 도면. 1933)



[그림 3-70] 2층 시종실1, 2, 3호실(하마마츠 도면.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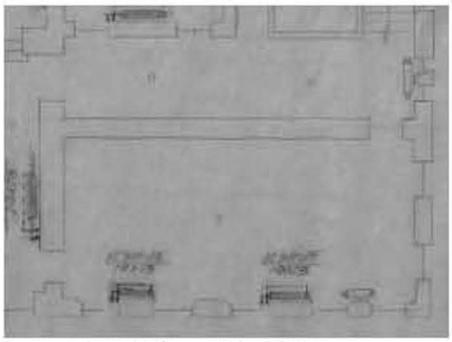


[그림 3-71] 2층 시종실1, 2, 3호실(하마마츠 도면. 1936.7.17)



[그림 3-72] 2층 시종실1, 2, 3호실(하마마츠 도면. 1936.7.17)

[그림 3-73] 2층 시종실1, 2, 3호실(『이왕가미술관요람』. 1933)



[그림 3-74] 2층 시종실1, 2, 3호실(국가기록원. 1946~1947 추정)

4. 가설공사

1) 가설울타리

석조전이 있는 덕수궁은 서울 도심지 내에 있어서 많은 관람객이 오가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공사장의 소음이나 먼지가 발생할 경우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였다. 가설울타리는 석조전 서쪽과 남쪽, 동쪽에 높이 3m 이상으로 설치하였다. 서쪽은 석조전과 덕수궁미술관을 연결하는 통로 하부쪽으로 설치하였고 남쪽은 석조전 앞마당을 자재 적치 및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한 상태에서 정원쪽으로 설치하였다. 동쪽은 준명당과 석조전 사이에 설치하였다. 북쪽은 수목이 우거지고 경사져 있어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됐다. 재료는 R.P.P판을 사용하였고 총길이는 145m이다. 출입을 위해 남서쪽 모서리와 북서쪽 모서리에 출입구를 두었다. 남서쪽 모서리 출입구는 자재 반입 등을 위한 출입구이고 북서쪽 모서리 출입구는 통행용 출입구이다.

[사진 3-19] 남쪽 가설울타리

[사진 3-20] 서쪽 가설울타리

2) 가설사무소와 창고

• **가설사무소** : 공사를 위한 대략의 상황을 파악한 후 우선적으로 가설사무소를 마련하였다. 가설사무소는 석조전 뒤쪽 여유 공간에 조립식으로 길게 설치하였다. 가설사무소를 설치하기 전에 우선 임시로 컨테이너를 사용하다가 조립식 가설사무소가 설치되고 난 후 이전하였다. 가설사무소는 106㎡ 규모로 만들었다. 가설사무소 안에는 사무소와 회의실을 만들었다. 석조전 동북쪽 모서리 쪽에도 감독관실과 전시팀이 사용하는 사무실을 만들었다.

• **가설창고** : 가설사무소 서쪽에 가설창고를 설치하였다. 사무소와 같이 조립식으로 만들었고 면적은 130㎡이다. 기계설비공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설창고 서쪽에 3×6m 컨테이너를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사진 3-21] 가설사무소

[사진 3-22] 가설창고

3) 가설비계

• **외부 가설비계 설치** : 석조전 외부에 가설비계를 설치하였다. 외부에 가설비계를 설치한 이유는 관람객에게 시각적 불편함을 주지 않고 실사디자인막을 걸기 위해서였다. 가설비계는 48.6㎜ 강관파이프를 이용하여 네 측면을 돌아가면서 설치하였다. 비계는 2층 처마 바로 밑까지 설치하였다. 박공 부분은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비계 위에는 안전발판을 설치하고 발판 위에는 적재물을 놓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서포트는 건물에 닿지 않도록 30㎝ 띄워서 평균 1.5m 간격으로 세우고 수평재를 1.5m 간격으로 질러댄 후 중간에 '×'형으로 가새를 대어 좌굴과 횡력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서포트를 세울 때 바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포트 바닥에 판재를 대고 설치하였다. 상부를 올라가기 위한 가설비계 다리는 폭을 0.9m로 하였다.

• **내부 가설비계 설치** : 내부에도 비계를 일부 설치하였다. 1층 중앙홀의 상부는 바닥이 없고 열려 있어 안전상의 이유와 내부 천장 및 배관 철거 등을 위해 비계를 설치하였다. 특히 2층 황제서재 · 황후거실 · 욕실과 홀 천장은 천장고가 높고 트러스가 있어 철거와 보수를 위해 높게 설치하였다.

[사진 3-23] 외부 가설비계 설치

[사진 3-24] 가설보호막 설치

4) 보호막과 실사디자인막

• **보호막 설치 :** 외부 비계 주위에는 보호막을 설치하였다. 비계 노출로 인한 관람객의 시각적 불편함을 막고 비산먼지를 막으며 안전을 위해 설치하였다. 보호막은 PVC코팅된 것을 석조전 네 측면을 돌아가면서 설치하였다.

• **실사디자인막 :** 석조전 건물 남쪽 정면에는 대형 실사디자인막 3장을 설치하였다. 남쪽에만 설치하였는데 남쪽이 덕수궁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좌측에는 덕수궁 전체 전경 속의 석조전 모습이 있는 실사를 걸었고 중앙에는 1910년경 석조전 고증사진 실사를 걸었다. 우측에는 "덕수궁 석조전(동관) 복원공사" 라는 공사명과 공사기간, 시행청명을 큰 글씨로 실사출력해 걸었다. 덕수궁 경내에서 보면 웅장하면서 보기 좋았다. 실사디자인막은 높이가 7m이고 길이는 좌측과 우측은 각각 17m, 중앙은 18m이다.

이 실사디자인막은 가설울타리에도 설치하였다. 가설울타리가 단색으로 되어 있어 밋밋하다보니 관람객들에게 너무 단순하고 건조하게 보일 우려가 있어 이 울타리에 시각적 효과를 높이면서 동시에 공사내용과 석조전 역사를 알 수 있도록 디자인한 디자인막을 설치한 것이다. 이 디자인막에는 석조전의 역사와 관련된 고증사진과 설명을 그려 놓았다. 건물에 걸린 것에 비해 소형이다. 높이 3m, 길이 50m 정도 된다.

[사진 3-25] 가설보호막 설치

[사진 3-26] 실사디자인막

[사진 3-27] 실사디자인막(서쪽)

[사진 3-28] 실사디자인막(중앙)

[사진 3-29] 가설울타리 디자인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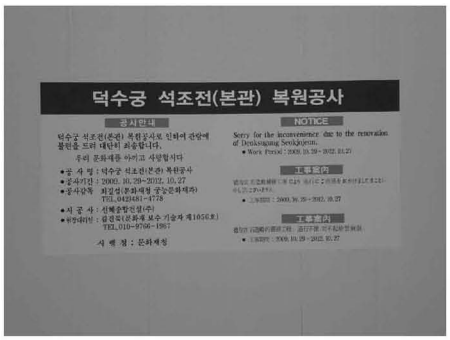
[사진 3-30] 가설울타리 디자인막

5) 안전시설

• **안전시설** : 공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공사장 주변에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였다. 안전시설물로는 공사안내판, 안전수칙판, 안전표시판, 건물관련 사진패널 등을 설치하였다.

• **공사안내판** : 공사안내판은 대형으로 설치하였다. 대형안내판은 관람객 통행이 많고 잘 보이는 가설울타리 남서쪽 출입구에 1개, 서쪽 가설울타리에 1개로 총 2개를 부착하여 설치하였다. 대형안내판은 1.2×1.8m 크기로 실사 출력하여 울타리에 붙였다. 이 안내판에는 공사 내용, 공사기간, 관계자 등을 우리말과 영어, 일어, 중국어로 간략하게 작성하였다.

[사진 3-31] 안전수칙판



[사진 3-32] 공사안내판

• **사진 패널** : 석조전의 고증사진과 연혁을 소개하는 패널 등을 가설울타리에 설치하였다. 이는 시민과 관람객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가설울타리에 총 8장을 부착하여 설치하였다. 사진 내용은 석조전 내부를 촬영한 과거 사진 등으로 평균 1.1×1.3m 크기의 패널이다. 알루미늄으로 틀을 짜고 플렉스에 사진을 출력한 시트를 붙였다.

[사진 3-33] 가설울타리의 사진 패널

[사진 3-34] 가설울타리의 사진 패널

• **안전수칙판 등** : 안전수칙판 등도 공사장 곳곳에 설치하였다. 안전수칙판은 안전 일반 수칙과 주의사항을 그린 그림, 공사안전일수 등을 기록하여 인부들이 주로 출입하는 입구 앞에 세워 놓았다. 각파이프로 틀을 짜고 그 위에 갈바늄강판을 붙인 후에 실사출력한 시트를 붙였다. 통행금지판은 관람객이 진입할 소지가 있는 곳에 놓았다. 그 외에도 공사 중임을 알리는 공사장 표시판, 접근금지판 등을 가설울타리 주변과 입구 주변에 설치하여 관람객의 접근을 막고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6) 덕수궁 관리사무소 이전 설치공사

• **개요** : 보수·복원공사 전의 석조전 1층 동남쪽 모서리 방은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공사를 위해서는 관리사무소를 이전해야 했다. 그래서 덕수궁 서북쪽 끝자락, 석조전 서북쪽의 공지로 임시 이전하였다. 이 공지 북쪽으로는 조립식 강당이 있는데 강당 남쪽에 공간 일부가 있어 이곳을 활용한 것이다. 바닥은 지면에서 약간 띄워 경량 철골로 베이스를 만들고 그 위에 합판을 깔고 바닥재를 마감하였다. 상부도 경량 철골의 조립식건물로 만들었다. 각관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경량철골트러스를 얹었다. 벽과 지붕은 샌드위치 패널로 막았다. 벽 마감은 석고보드에 페인트 마감을 하였고 천장은 텍스로 마감하였다. 면적은 198㎡이고 사무실, 관리소장실, 창고 등이 들어가 있다.

[사진 3-35] 덕수궁 관리사무소 이설

[사진 3-36] 덕수궁 관리사무소 이설

5. 철거공사

가. 내부 철거

보수·복원공사는 기존 전시용 벽체 철거부터 시작되었다. 공사 전에는 궁중유물전시관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때 사용된 전시대와 전시용 벽체가 남아 있어 공사를 위해서는 철거해야만 했다. 우선 독립형 전시대를 외부로 빼낸 후에 벽에 부착된 전시대와 벽체를 철거하였다. 벽체는 주로 C형강에 석고보드로 마감된 것이었는데 벽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철거하였다.

[사진 3-37] 부착형 전시대 철거

[사진 3-38] 부착형 전시대 철거

나. 마감 및 설비용 배관 철거

전시대를 철거한 후에 천장, 바닥 마감재를 철거하였다. 천장은 경량철골에 암면텍스 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모두 철거하였다. 천장 속에는 전기, 공조 설비용 각종배관 등이 있었는데 이것도 모두 철거하였다. 천장과 함께 바닥 마감재도 모두 철거하였다. 복도 바닥 마감재는 화강석, 전시실은 쪽매마루, 내부는 기포콘크리트, 아스타일 등으로 되어 있었는데 모두 철거하였다. 화장실의 변기와 타일 등도 모두 철거하였다.

[사진 3-39] 바닥 화강석 철거

[사진 3-40] 쪽매마루 철거

다. 창호 철거

창호도 철거하였다. 초기에는 내부창호만 철거하고 외부창호는 철거하지 않고 재사용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전의 석조전 외부창호가 고증사진과 비교할 때 많이 달라 자문회의(2차, 3차)를 거쳐 내·외부 창호 모두를 철거하고 원래 창호형태로 복원하기로 결정되어 모든 창호를 철거하게 되었다. 공사 전에 설치되어 있던 내부창호는 목재로 되어 있었고 외부창호는 철재로 되어 있었다. 이를 모두 철거하였다.

라. 벽 미장마감 해체

전시대, 전시벽체, 마감재를 철거하고 난 후 벽체 몰탈을 해체하였다. 몰탈 해체는 애초 예정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중명전 복원공사 때 좋은 사례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석조전에도 적용하기로 하였다.

석조전 벽 마감재를 해체한 후 확인된 가장 큰 흔적은 개구부 흔적이었다. 대부분 개구부가 막힌 흔적이 나왔다. 그 흔적은 세로 통줄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세로 통줄눈은 조적 시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또 벽돌 쌓기 방법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수평 줄눈이 맞지 않고 어긋나 있었다. 시기를 달리해서 조적하였기 때문이다. 또 벽난로와 그 흔적 일부도 나왔다. 벽난로와 그 흔적은 천장을 철거하고 나서 확인이 되었는데 상부에 돌출된 벽 흔적과 연도 흔적 등이 나왔다.

이런 흔적이 나오면서 좀 더 정확한 옛 흔적을 찾아 변형된 모습을 찾기 위해서 벽 전체의 마감을 해체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벽 전체 미장마감을 해체하였다. 해체 결과 일부 해체했을 때 보다 많은 흔적이 나왔다. 개구부의 전체 흔적과 벽난로와 연도의 흔적,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칸막이벽 흔적, 옛 공법을 알 수 있는 철물과 나무벽돌 흔적 등이 나왔다.

벽 미장마감 해체는 석조전 원형 복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과거에 추정하였지만 확인하지 못한 사실들을 미장 해체로 인해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는 의문점으로 남기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영향은 컸다.

[사진 3-41] 벽 미장마감 해체

[사진 3-42] 벽 미장마감 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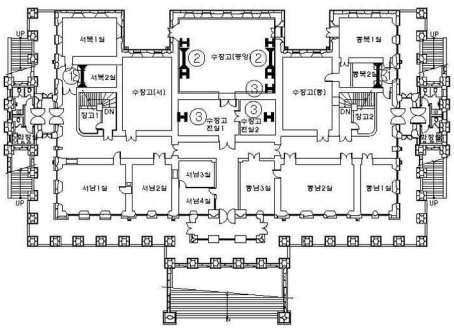
6. 보강공사

본격적인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시작된 공사가 있다. 보수·보강공사이다. 공사 전의 석조전은 부분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1층 접견실 천장에 설치된 철골빔이 취약했고, 일부 실의 벽체와 인방에 균열이 있었으며, 일부 슬라브는 뚫려 있는 등 안전 및 구조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본격적인 공사 전에 이 부분들에 대한 보수 및 보강공사를 먼저 했다. 이를 정리하면 철골보강, 벽체 균열 보수·보강, 슬라브 보강으로 구분된다.

1) 철골보강공사

지층 서북2실, 수장고전실1과 수장고전실2, 동북2실, 1층 접견실 일부 상부에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골로 보강하였다.

지층 서북2실은 서북1실의 전실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북쪽 벽과 남쪽 벽 일부는 벽이 두껍게 되어 있었고 서쪽으로 남쪽 벽과 북쪽 벽 일부가 돌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벽을 오래전에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상부 아치형철판이 절단되어 있고 남쪽 벽과 북쪽 벽 일부에 벽돌벽이 철거된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하마마츠 시립도서관에서 발견된 도면에도 벽이 돌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상부 아치형철판이 단절되어 있다 보니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여기에 [도면 3-26]처럼 ① 부재 철골로 보강하였다. 철골은 H-150×150×7×10 되는 크기를 사용하였다. 양쪽 조적벽 상부 일부를 파내어 이 구멍에 철골을 끼워 상부 슬라브를 받게 하였다. 지층 동북2실도 서북2실과 같은 상황이어서 서북2실과 같은 방법으로 철골로 보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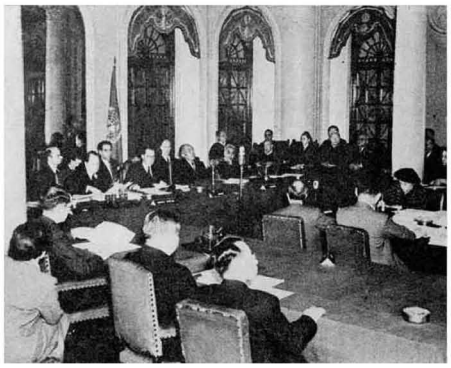


[도면 3-26] 지층 철골 보강 위치도

[사진 3-43] 지층 서북2실 천장 상황(아치철판이 단절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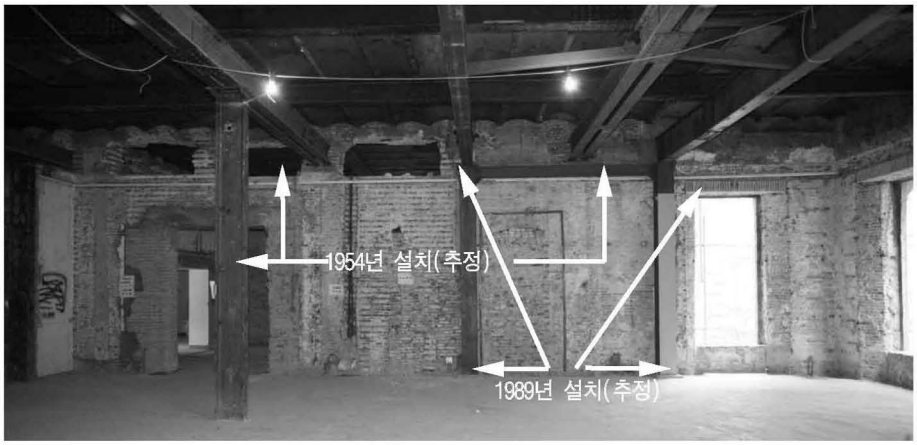
1층 접견실 상부도 공사 전에 일부를 철골로 보강하였다. 접견실 상부 슬라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접견실에는 이번 공사 전에 이미 철골로 보강된 부분이 있었다. 접견실 중앙에는 기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 기둥은 공사 전에 이미 없어진 상태였다. 이 기둥은 코린트주두를 가졌는데 1947년 5월 1일자 *LIFE*지 사진과 국가기록원에서 발견된 1948년 2월 20일자로 된 미소공동위원회 회의 사진 등에 의하면 최소 전쟁 전까지는 접견실 내부에 이 기둥이 있었다. 이 기둥이 장식물이 아닌 구조적인 기능을 했었다면 기둥이 없어지면서 구조를 보강했을 것이다.



[사진 3-44] 미소공동위원회, 1948년 2월 20일. 국가기록원 소장

[사진 3-45] *LIFE*, 1947년 5월 1일



[사진 3-46] 1층 접견실 철골 현황

사실 공사 전의 상황을 보면 동쪽 벽과 서쪽 벽에 각각 철골 기둥 2개씩 4개, 중앙에 2개로 총 6개가 있고 보는 총 4개가 있었다. 보 4개 중 3개는 기둥 위에 있는 것으로 보였고 1개는 기둥 없이 벽에 걸쳐 있었다. 이들 기둥과 보의 설치 시기와 규격은 [표 3-16]과 같다. 보는 두 시기에 걸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1954년 국군 공병단이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하나는 1987년 궁중유물전시관 사용을 위한 보수공사 때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1954년 설치한 보는 [도면 3-27]에서 표기된 ① 부재로 I-Beam 2개를 겹쳐서 조적벽에 걸쳐 있다. ① 부재는 2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1군데는 기둥이 없지만 또 다른 1군데는 기둥이 2개 있다. 이 보가 1954년 설치된 것으로 보는 이유는 당시 신문기사와 철골 상태 때문이다. 우선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1954년 8월 8일 『조선일보』 2면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국군 공병부대에서도 가장 고참부대로 알려진 제一二〇一 건설공병부대는 …… 지난 五월二十일부터는 덕수궁 안의 석조전(石造殿) 보수공사를 시작하여 六일 현재 四十「페센트」에 달하는 공사를 완료하고 있다. 총공사비 九천九백만환을 요하는 동 건물의 보수공사비는 공병대의 동원으로 二천만환을 삭감해서 완성하게 되었다 한다. …… 九·二八 수복 당시 공산군에 의하여 내부가 소실된 것을 금번 제一二〇一부대 예하 二〇九공병대 용사들이 본격적으로 복구시키게 되어 九월 말에는 완성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동 건물의 보수자재는 순국산품으로서 보수되게 되며 장차 박물관으로 사용하게 된다……"

한편 9·28 수복 후인 1950년 10월 14일자 영국 신문 *ILLUSTRATED LONDON NEWS*의 기사 중에 석조전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수록하고 설명한 기사가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Before leaving, the Communists set fire to most of the buildings in the city, ..."

[번역]

"....공산당은 철수하기 전에 도시안의 대부분 건물에 불을 질렀다...."

Having a meal outside a Palace: American G.I.s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who recaptured Seoul at the end of September.

DAMAGED IN THE BATTLE FOR THE CAPITAL BUT STILL STANDING: BUILDINGS IN SEOUL'S OFFICIAL QUARTER.

On September 28th. General MacArthur flew from Japan to Korea where he met Dr. Syngman Rhee,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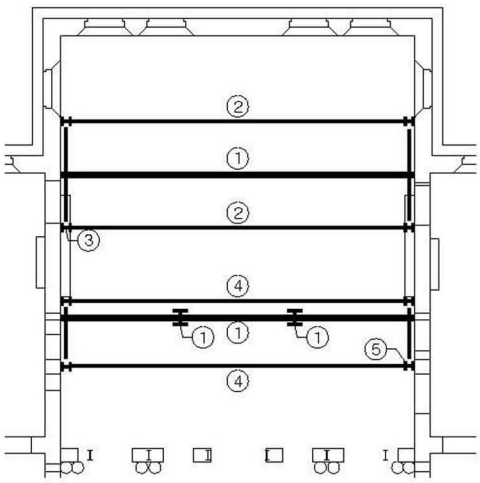
Rhee the seat of his Government. Before leaving, the Communists set fire to most of the buildings in the city, determined to complete the des-

[사진 3-47] *ILLUSTRATED LONDON NEWS*의 1950년 10월 14일 (석조전을 배경으로)

두 기사의 내용이 공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석조전이 불타고 일부가 파괴된 것을 고려할 때 이때 원래 있던 기둥이 없어지고 이 철골 기둥과 보가 내부 기둥이 없어진 곳의 보강을 위해 1954년 국군공병단이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1950년에 촬영된 [사진 3-47]을 보면 우측 파라펫 부분에 그을음이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2층 중앙의 창호가 유난히 밝은 것을 볼 수 있다. 밝은 것은 내부 천장이 파괴로 없어지면서 빛이 들어 왔기 때문이다. 즉, 2층 황제·황후 관련실 천장은 최소한 소멸되었고 2층 바닥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즉, 2층 바닥인 1층 천장에 문제가 생겨 바로 이때 보수하면서 철골로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철골의 상태를 봐도 그렇다. 철골은 재활용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철골은 리벳으로 접합되어 있는데 군데군데 먼저 사용했던 리벳 구멍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신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물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사진 3-48] 1954년 보수 보강된 철골보와 기둥



[도면 3-27] 1층 접견실 철골 보수 보강도

[표 3-16] 1층 접견실 철골 일람표

번호	규격	시기
①	2I-350×150×12×24	1954년 추정
②	I-500×200×10×16	1989년 추정
③	H-300×300×10×24	1989년 추정
④	H-588×300×12×20	2014년 보강
⑤	H-300×300×10×24	2014년 보강

② 부재는 1987년 궁중유물전시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를 할 때 설치된 부재로 보인다. 먼저 설치된 ① 부재에 대한 구조보강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쪽 벽과 서쪽 벽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③ 부재) 위에 보를 설치해 상부 아치형철판 콘크리트 슬라브를 받게 하였다. 이 기둥과 보는 공사 완료 후에도 존치시켰다.

④ 부재는 이번 공사에서 추가로 설치하여 보강한 철골이다. 애초 접견

실 중앙에 있던 기둥을 원형회복과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금회 공사에서 없앴는데, 이로 인해 상부 구조가 취약하게 되어 이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한 것이다. 기존 ① 부재를 중앙에 두고 좌·우로 ④ 부재인 철골보를 설치하였다. 이 보는 벽에 철골기둥(⑤ 부재)을 설치하고 이 위에 걸쳤다.

1층 접견실에 철골 기둥을 신설하여 설치하다 보니 바닥 슬라브에 펀칭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지층에 1층 철골기둥을 받을 수 있는 철골 기둥을 [도면 3-26]과 같이 ③ 부재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 기둥이 설치된 위치는 지층 수장고전실1과 수장고전실2이다. 기둥은 H-300×300×10×24로 총 3개가 1층 기둥열에 맞춰 설치되었다. 원래 4개가 설치되어야 하나 1개는 설치할 위치에 있는 슬라브가 취약하여 설치하기 어려웠다. 수장고(중앙)에는 [도면 3-26]의 ② 부재와 같이 1987년 설치된 철골기둥을 받기 위해 이미 철골기둥이 설치되어 있었다.

[사진 3-49] 추가 설치된 철골기둥과 베이스플레이트

[사진 3-50] 추가 설치된 철골기둥과 보

[사진 3-51] 지층 수장고(중앙)에 있는 철골 기둥(서쪽벽)

[사진 3-52] 지층 수장고(중앙)에 있는 철골 기둥(동쪽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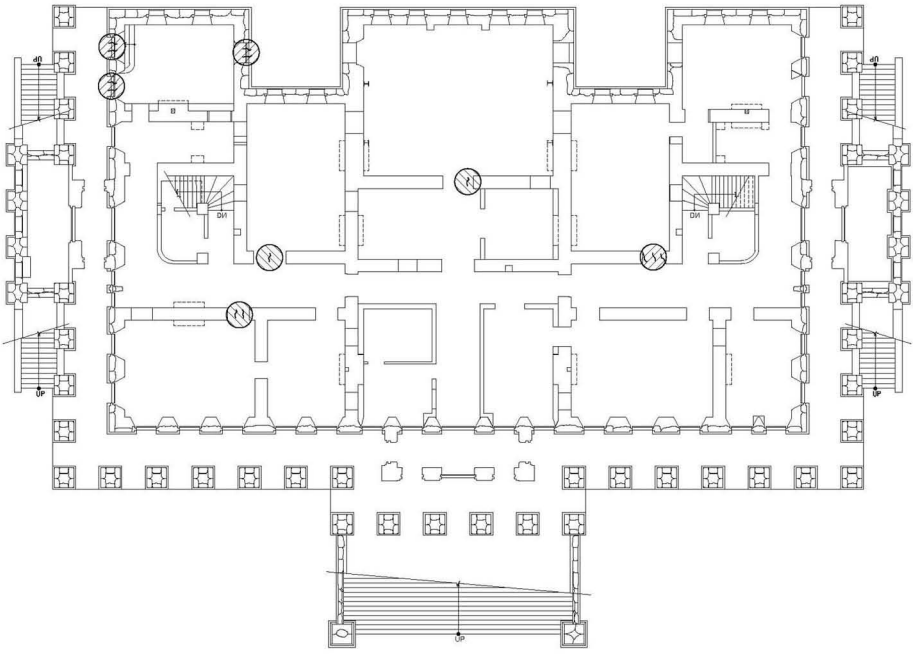
[사진 3-53] 금회공사로 지층 수장고전실1에 설치한 철골 기둥

[사진 3-54] 금회공사로 지층 수장고중앙에 추가 설치한 철골 기둥(오른쪽 기둥)

2) 벽체 균열 보수

석조전 벽, 인방에는 잔 균열이 많이 있었다. 건물이 조적조이고 건축된 지 10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특히 인방에서 균열 현상이 많았다. 대부분 화강석이었는데 상부 하중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에 이 균열을 보수하였다. 일단 균열부 조사를 하였다. 균열상태, 폭, 깊이 등을 조사하였는데 지층부터 2층까지 모두 있었다. 보수는 구조물의 일체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에폭시를 사용하였다. 우선 와이어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균열부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에폭시 주입 시 흘러나오지 않게 에폭시퍼티를 사용해 바탕작업을 하였다. 그 다음 주사기를 사용해 에폭시를 주입하였다. 주입은 저압식으로 하였다. 주입압력이 크면 균열이 확대되기 때문에 4kg/㎠의 압력을 기준으로 하였고 주사기에 고무줄을 매서 서서히 에폭시가 주입되도록 하였다. 주입은 약 48시간 정도 하였다. 다 주입이 된 후 주사기를 제거하고 청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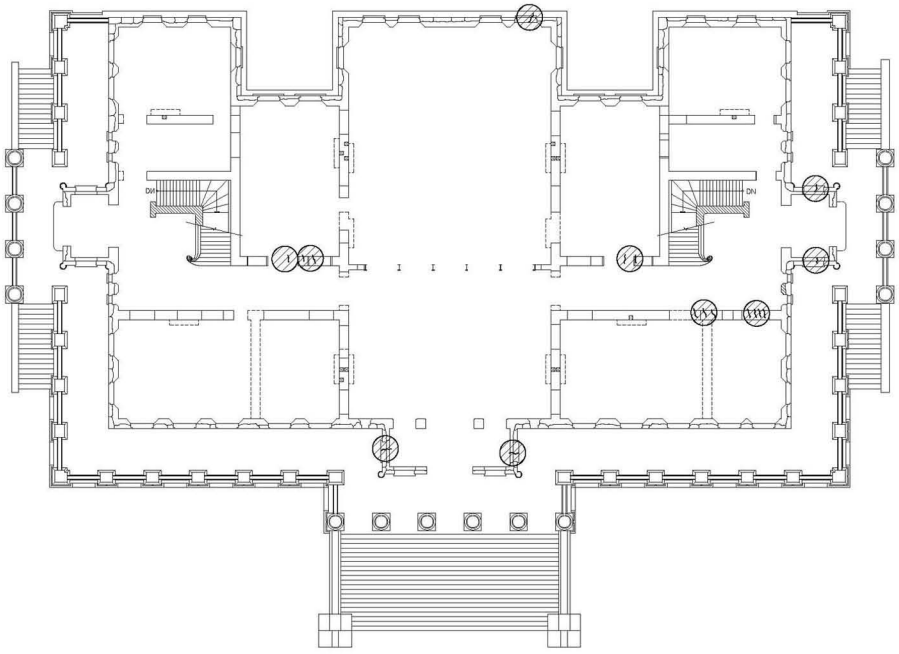
[도면 3-28] 지층 균열 보수 위치도

[사진 3-55] 인방 균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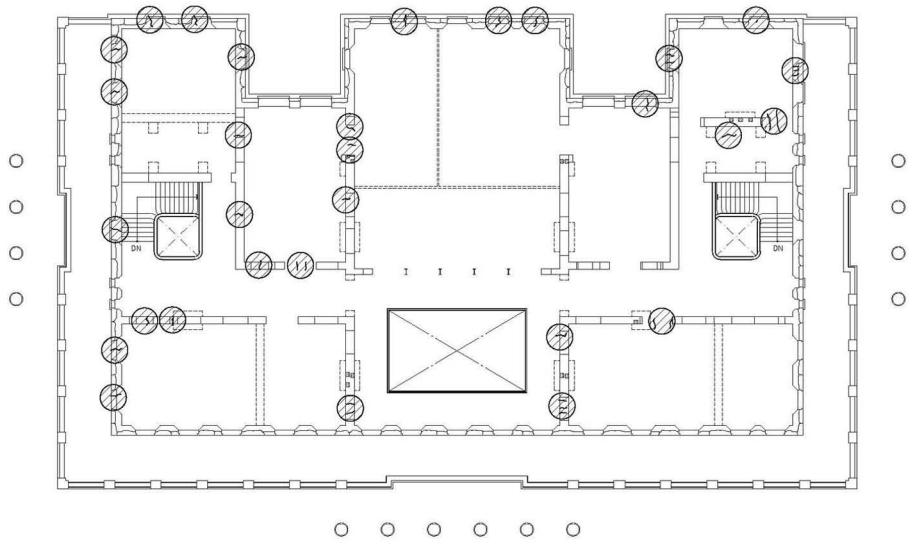
[사진 3-56] 에폭시 주입 전 바탕처리

[사진 3-57] 주사기로 에폭시 주입

[사진 3-58] 경화 후 주사기 제거



[도면 3-29] 1층 균열 보수 위치도



[도면 3-30] 2층 균열 보수 위치도

3) 아치형철판 콘크리트 슬라브 보수

지층과 1층, 2층의 같은 위치에 바닥 일부가 뚫려 있는 곳이 있다. 이 부분은 석조전 뒤쪽인 북쪽에 있는 지하 기계실과 연결되는 각종 배관이 지나가는 곳이다. 이른바 덕트 공간이다. 이 공간과 지하 기계실은 1987년 궁중유물전시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수공사를 할 때 만들어진 부분이다. 지층은 수장고(서)의 북쪽 벽이고 1층은 소식당(서)의 북쪽 벽, 2층은 황후침실 북쪽 벽이다.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아치형철판 콘크리트 슬라브를 폭 1,600㎜ 정도로 잘라내었는데 이 공간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금회 공사에서는 원래 기법대로 복원하기로 하였다. 그 기법은 I형강을 벽에 걸고 아치형철판을 형강에 끼워 리벳으로 고정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한 것이다. 같은 기법으로 공사하기 위해 우선 아치형철판 콘크리트 슬라브를 고정하는 I형강을 설치하였다. I형강은 기존 부재와 같은 I-120×75×10×10 규격을 사용하였다. 추가되는 I형강은 기존 I형강과 용접했다. I형강이 설치된 후 두께 4.5㎜ 아치형철판을 I형강에 용접하였다. 원형은 리벳접합이지만 가역성을 고려해 용접 접합을 택했다. 그 다음에 외이어메쉬를 깔고 무수축몰탈을 인력으로 타설하였다. 몰탈이 경화된 후 최종마감을 하였다.

[사진 3-59] 지층 수장고(서)의 덕트공간

[사진 3-60] 1층 소식당(서) 덕트공간

[사진 3-61] 2층 황후침실 덕트공간

[사진 3-62] I형강 용접 접합

[사진 3-63] 아치형철판 깔기

[사진 3-64] 아치형철판 용접하기

[사진 3-65] 아치형철판 용접하기

[사진 3-66] 무수축몰탈 설치

[사진 3-67] 마감하기

4) 슬라브 단면 보강 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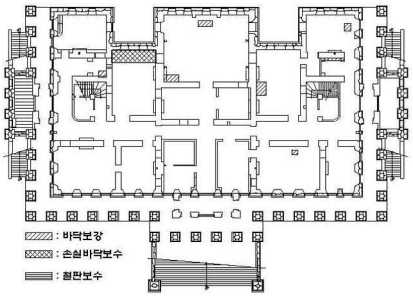
가. 슬라브 보수

석조전 각 층 바닥 일부가 파손되거나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 있었다. 이를 메우는 방법으로 보수하였다. 구멍이 작은 곳은 하부에 합판을 대고 무수축 몰탈로 메운 후 경화되면 합판을 제거하였다. 일부 바닥 마감이 손실된 것은 미장 마감하였다. 구멍이 큰 곳은 철근을 설치하였다. 기존 슬라브 단면에 드릴로 구멍을 낸 후 여기에 ∅9㎜ 앵커를 삽입하고 이 앵커에 9㎜ 철근을 용접하였다. 철근을 설치한 후 무수축몰탈을 타설하였다. 몰탈이 경화된 후 최종마감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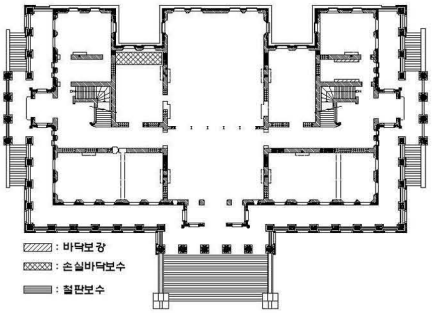
[사진 3-68] 단면 보강 사전 작업

[사진 3-69] 철근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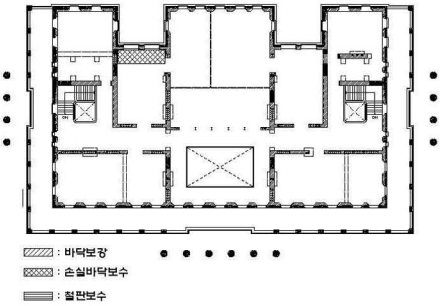
[사진 3-70] 단면 보강 후



[도면 3-31] 지층 바닥 보수 현황도



[도면 3-32] 1층 바닥 보수 현황도



[도면 3-33] 2층 바닥 보수 현황도

나. 철판 부식 보수

각 층 바닥을 구성하는 아치형철판 하부는 많이 부식되어 있었다. 그래서 부식된 부분을 긁어내고 다시 방청페인트칠을 하였다. 부식이 많이 돼서 공간이 생긴 부분은 에폭시를 주입하여 공간을 메우면서 일체화시킨 후 경화되면 방청페인트칠을 하였다. 노출된 모든 철판과 철골에도 방청페인트칠을 하였다.

[사진 3-71] 부식된 철판

[사진 3-72] 방청페인트 보수

5) 바닥 정리

가. 바닥 고르기

마감재를 해체하니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되었다. 쪽매마루가 설치된 전시실 등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화강석이 깔린 복도나 홀 등은 화강석에 붙은 몰탈까지 해체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다 보니 먼지가 발생하고 운반 등이 불편해서 분진 방지와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바닥고르기를 했다. 무수축몰탈을 바닥에 약 40㎜ 정도 타설해 바닥을 정리하였다.

[사진 3-73] 무수축몰탈 타설

[사진 3-74] 바닥 고르기 완료

나. 지층 방수공사

지층 바닥은 지면보다 같거나 조금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공사 중에 방수 문제가 발생하면 공사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본격적인 공사를 하기 전에 방수공사를 하였다. 방수는 지층 전체를 모두 다 하였고 2단계로 시행했다. 1단계는 시멘트액체방수이고 2번째 단계는 우레탄방수이다. 두 단계로 한 이유는 방수 성능의 차이 때문이었다. 시멘트액체방수는 모체가 깨지면 같이 깨져 방수 성능이 떨어지고 우레탄방수는 하부에서 물이 침투하면 부풀어 오르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 방수방법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 두 단계에 걸쳐 방수한 것이다. 우선 바닥 마감재를 해체한 위에 시멘트액체방수를 하였다. 시멘트액체방수가 경화된 후 그 위에 우레탄방수를 하였다.

[사진 3-75] 시멘트액체방수

[사진 3-76] 우레탄방수

7. 조적공사

1) 벽돌 수급

• **개요 :** 석조전 보수를 위해 보충된 적벽돌은 총 262,209매이고 중국 상하이[11]에서 수입된 적벽돌을 사용하였다. 석조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일반적인 적벽돌의 규격은 길이가 209㎜, 폭이 98㎜, 두께가 45㎜ 정도 된다. 이 규격은 당시 사용했던 일반적인 적벽돌보다 작은 편이다.[2장 3. 석조전 구조 조사 참조] 두께는 많이 얇고 폭도 작으며 길이도 작은 편이다. 특히 두께가 얇은 편인데 외형상 폭과 길이는 금방 인식이 안 되지만 두께는 바로 인식되었다.

11) 상하이는 국제도시 성격이 있다 보니 여러 유형의 외국 근대건축물이 있었고 이때 다양한 종류의 적벽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벽돌 사용 기준 :** 보수의 기본 원칙상 동일 규격, 색깔, 강도를 가진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려면 옛 벽돌을 중심으로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선 강도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 생산되는 적벽돌은 도기질 내지는 자기질 수준의 밀도와 강도를 가지고 있어 옛 벽돌에 비해 밀도와 강도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강도가 다른 재료를 사용해 조적하면 기존 조적벽의 내력과 새로 조적한 조적벽의 내력이 서로 달라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강도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해야 했다. 색깔도 현재 생산하는 적벽돌과 옛 적벽돌은 다르다. 지금은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지만 벽돌 굽는 온도와 재료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색깔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규격도 지금은 표준형이라 해서 규격화된 벽돌이 생산되고 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재 생산되는 벽돌을 사용할 수 없고 옛 벽돌을 사용해야 한다. 물론 주문 생산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은 문제였다. 일단 주문 매수가 일정량 이상이어야 하는데 석조전에 필요한 양은 그 양에 못 미쳤고 설령 필요량만 주문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생산 단가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강도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생산 시스템으로는 옛 강도에 맞춰 생산할 수 없었다. 지금은 매우 높은 강도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 **벽돌 구입과 사용 :** 이런 이유로 옛 벽돌을 수소문해서 찾았다. 국내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가장 큰 이유는 규격 때문인데 그 중에서 두께가 문제였다. 석조전에서 사용한 벽돌은 아주 얇은 편이어서 같은 두께를 가진 적벽돌을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국외에서 찾아보았다. 적벽돌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국에서 찾아보았는데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중국 상하이 근처에서 같은 규격의 적벽돌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물량이 약 10,000여장 밖에 없었다. 그래서 추가로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고 다만 두께만 다르고 길이와 폭이 같은 적벽돌을 겨우 찾을 수 있었다. 두께가 55㎜였다. 고민 끝에 두께를 줄이기 위해 커팅해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일단 소요량만큼 수입해서 국내에서 기계로 벽돌을 커팅해 사용하였다. 한편 철거 시 나온 기존 적벽돌 일부는 재사용하였으나 그 물량은 아주 미약하였다.

2) 회몰탈

• **기존 사용 몰탈 :** 석조전 조적공사에 사용된 몰탈은 회몰탈과 황토몰탈이다. 거의 대부분 회몰탈을 사용하였고 황토몰탈은 시기를 달리해서 약간 사용하였다. 보수·복원공사에도 회몰탈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원형복원 차원에서와 시멘트몰탈을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강도 차이로 인한 기존 조적벽과의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 **회몰탈 성분 분석 :** 지금은 회몰탈을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몰탈을 사용하다 보니 회몰탈 배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배합이나 시공을 해본 기능인들도 없었다. 그래서 일단 회몰탈에 대한 성분 분석을 했다. 배재대학교 김택남 교수에게 의뢰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덕수궁 석조전 몰탈 분석 보고서

1. 덕수궁 석조전 몰탈의 석회 함유량 분석

배재대학교 정보전자소재공학과 교수 김택남

2010. 6. 30

[상략]

4. 결론

(1) 용산 신학교의 몰탈과 비슷하게 덕수궁 석조전 회몰탈의 석회와 규사의 비는 1:4로 판단되었다. 즉 석회가(생석회 또는 소석회) 약 16.8-21.5 wt %함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덕수궁 석조전의 회몰탈 체가름 결과 규사입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1㎜-212㎛ 크기의 입자가 78.7 wt %로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3) 덕수궁 석조전의 황토몰탈의 경우 황토와 규사의 비는 체가름 결과 중 43㎛ 이하의 양을 황토로 추정한다면, 약 19.8 wt.% 의 황토가 함유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만일 이중 석회가 함유되어 있다면 그의 양은 8.8wt % 이하로 추정되나 이는 황토의 성분 중 어느 하나도 HCl과 반응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실험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43㎛ 이하의 양에 비하여 약 2배 정도가 미분말의 황토로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가정하면 황토의 양은 약 40wt %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즉 황토몰탈의 황토와 규사비는 1:4에서부터 5:4까지로 추정할 수 있는 넓은 범위에 있다고 현재로서는 판단된다. 이 결과를 명확하기 위하여 앞으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

(4) 황토몰탈의 체가름 결과 입자의 분포는 원효로 성당의 것과 비슷하며, 단

지 1㎜ 이상의 크기의 양이 작고, 1㎜-212㎛ 사이의 양이 51.42 wt %로 나타났다.

(5) 황토몰탈에 석회가 함유되어 있으며, 약 6.9 wt %-8.8 wt %정도 함유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 회몰탈은 석회와 규사의 비가 1 : 4 비율이며 황토몰탈은 석회가 약간 포함되어 있고 황토와 규사의 비는 1 : 4 ~ 5 : 4까지로 그 편차가 심한 편이었다. 황토몰탈은 1907년 내장공사 때 개구부를 막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어 새로 사용할 회몰탈 배합을 석회 : 규사 = 1 : 4로 하기로 하였다. 다만 개구부 상부의 아치쌓기 부분에는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1 : 3 가량으로 배합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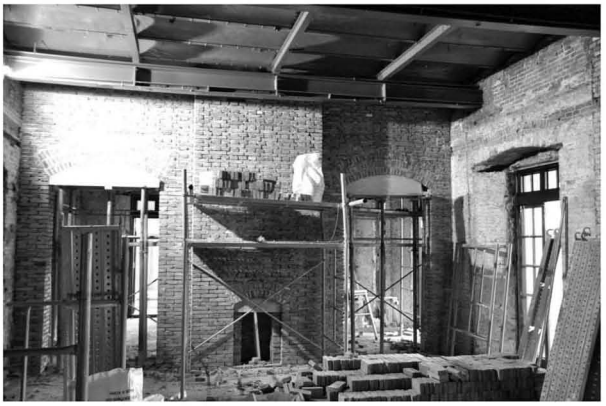
3) 조적쌓기

• **시험 시공 :** 확보된 적벽돌과 배합비가 결정된 회몰탈을 사용해 조적공사를 시작하였다. 조적공사는 대략 4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우선 1층 귀빈대기실 칸막이벽을 대상으로 시험 시공해 보았다. 시험 시공 결과 회몰탈이 시멘트몰탈보다 작업이 어려웠다. 회몰탈이 시멘트몰탈보다 유동성이 많이 부족해서 시멘트몰탈로 할 경우 한두 번 흙손질로 몰탈을 평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면 회몰탈은 여러 번 해야 평편하게 설치할 수 있었다. 또 반죽 후에 빠르게 건조돼서 사용량을 잘 조절해야만 했고 적벽돌이 물기를 즉시 흡수해 몰탈이 빠르게 굳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시멘트몰탈에 비해 1일 작업량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다행인 것은 회몰탈이 건조되면 기존 회몰탈과 색깔이 유사하게 나온 점이다. 시험 시공 결과 회몰탈을 사용하면 작업속도가 떨어지지만 기존 회몰탈과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조적공사 :** 시험 시공한 후 본격적인 조적공사를 하였다. 평면 고증 문제 등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결정이 완료된 곳부터 공사를 하였다. 원형이 보존된 벽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변형된 부분은 철거하고 새로 조적하였다. 변형된 부분은 시멘트벽돌로 쌓은 부분과 상부에 콘크리트 인방이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했다. 이런 부분은 함부로 철거하면 주변 벽체에 손상이 갈 수 있어 동바리 등으로 보강하면서 철거와 벽돌쌓기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훼손되었거나 사라진 개구부 상단은 인방 없이 아치로 쌓았다. 아치를 쌓기 위해서 기존에 잘 남아 있던 개구부 아치의 곡선을 1 : 1로 실측하여 합판과 미송각재로 아치형틀을 제작하여 아치를 축조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철거되어 사라진 벽난로 화구 아치 역시 남아있던 개구부 아치의 곡선을 현장 실측하여 같은 곡률로 조적하였다.

벽난로 벽체를 축조할 때 연도도 같이 설치하면서 축조하였다. 벽난로 중 1층 귀빈대기실과 2층 시종실1, 2, 3실 벽난로는 1층부터 2층과 옥상 굴뚝까지 연도를 만들어 실제 난로를 지필 수 있도록 했다. 벽난로 축조 시에는 기존에 남아 있던 연도 유구를 실측(250×250×600㎜)하여 구워 제작한 도기를 연도에 삽입하여 축조하였다.

[사진 3-77] 회몰탈로 벽돌쌓기



[사진 3-78] 완료된 벽돌쌓기

[사진 3-79] 복도 훼손벽체 벽돌쌓기

[사진 3-80] 완료된 복도 훼손벽체 벽돌쌓기

[사진 3-81] 아치거푸집과 아치쌓기

[사진 3-82] 벽난로 속 연도

8. 미장공사

• **개요** : 조적공사가 완료된 후 미장공사를 하였다. 석조전은 마감이 회벽바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왕가미술관요람』의 구조개요에는 영건 당시의 석조전 구조형식에 대한 기술이 있다. 그중 벽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칸막이벽은 벽돌벽에 회벽(플라스터)바름" 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내부마감재를 해체한 후 노출된 내부의 조적벽체에는 한국전쟁 당시로 추정되는 불탄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으며 그을음 안쪽에는 회벽을 바른 흔적이 나타나 "벽돌벽 위 회벽바름" 이라는 『이왕가미술관요람』의 기록을 뒷받침해주었다. 그래서 미장을 회벽으로 시공하기로 했다.

• **시공** : 회벽바르기는 성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배합하였다. 쌓기몰탈은 1 : 4 비율로 했지만 미장몰탈은 1 : 3비율로 했다. 미장임을 고려해 석회 비율을 높인 것이다. 회벽바르기는 초벌과 정벌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초벌은 약 15㎜ 두께로 바랐고, 바른 후에 정벌의 부착성을 높이기 위해 표면에 빗자루질을 하였다. 초벌 바름이 건조된 후 정벌바름하였다. 두께는 약 5㎜로 하였다.

초벌바름에는 해초를 섞지 않고 정벌바름에는 해초를 섞었다. 해초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인데 여기서는 미역을 사용했다. 정벌 반죽은 말린 해초 : 물 체적비율을 1 : 20 가량으로 혼합하여 하루 종일 끓여내 해초는 망에 걸러 버리고, 남은 걸쭉해진 물에 백모(종이-펄프) 수사를 1/10 가량의 체적으로 풀어 넣어 하룻밤을 지낸 후 백모수사가 물에 충분히 풀어지게 한 후, 그 물로 석회 : 고운규사를 1 : 0.5 가량으로 혼합하여 되게 반죽하였다. 반죽은 뚜껑을 덮어 1~2일 가량 시원한 곳에 보관하여 재료 간 결합이 잘 되도록 하여 숙성시킨 후 바르기에 사용하였다.

수사는 미장이 말랐을 때 갈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혼합하는 재료로써 표면 인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는 소위 삼끈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백모를 사용하였다. 백모는 펄프 같은 것인데 백모를 사용한 이유는 마감상태에서의 미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삼끈의 경우 미장이 마르면 삼끈이 노출되어 보이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백모 수사는 국내에 수요가 거의 없는 관계로 따로 생산하는 곳을 찾지 못하였으며, 독일산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사실 미장 초기 시험과정에서 정벌바름 후 건조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 몇 가지 상황이 확인되었는데 그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벌바름 건조가 덜 된 상태에서 바른 경우 - 초벌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정벌까지 균열이 발생.
2. 초벌바름의 마감이 울퉁불퉁하여 정벌두께가 두꺼워진 경우 - 정벌을 두껍게 바른 부분에 균열이 발생.

3. 해초 끓인 물이 부족하여 물을 혼입한 경우 - 재료 간 결합력이 미약하여 균열이 발생.

4. 백모 수사 혼입량이 부족한 경우 - 건조수축 제어력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

5. 질게 반죽된 경우 - 수분 증발하면서 균열 발생.

이런 현상이 발생하여 본격적인 미장공사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하였다. 이런 조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제어하니 폭, 높이 3m 이상의 매우 넓은 면적의 회 바름 표면에도 전혀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색상도 고민되어 시험 시공을 해보았다. 그 결과 석회는 고급품 소석회와 일반 소석회의 혼합비율에 따라 흰색의 발색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고급품 소석회만 사용할 경우는 건조되면서 눈이 부실정도의 흰색이 발색되었고, 일반 소석회의 혼합량에 따라 편안한 정도로 발색 조절이 가능하였다. 석조전에서는 적당한 발색을 위하여 보통품질의 소석회와 고급품의 소석회를 1 : 1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사진 3-83] 고급 소석회

[사진 3-84] 보통 소석회

[사진 3-85] 말린 해초(미역)

[사진 3-86] 해초 끓이기

[사진 3-87] 해초를 끓여 망에 거른 물(해초풀)

[사진 3-88] 해초거르기 망(메쉬망 사용)

[사진 3-89] 걸러낸 해초

[사진 3-90] 백모(종이) 수사

[사진 3-91] 백모(종이) 수사

[사진 3-92] 초벌 미장용 고운모래(체에 쳐서 사용)

[사진 3-93] 정벌 미장용 고운규사

[사진 3-94] 미장재료 혼합

[사진 3-95] 작업용으로 소분하여 현장 운반

[사진 3-96] 초벌 회벽바르기

[사진 3-97] 정벌 회벽바르기

[사진 3-98] 회벽바르기 완료

9. 수장공사

1) 개요

• **개요 :** 수장공사는 석조전 보수·복원공사의 평면 복원과 함께 가장 핵심되는 공사 중의 하나이다. 평면 복원은 큰 덩어리이기에 직접적으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최종 마감과 관련 있는 수장은 직접적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사진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아 당시의 화려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시공팀은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설계 시 확보하지 못했던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 자료와 근거 등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일본과 영국을 답사하기도 했으며 성과도 있었다.

• **고증 자료 :** 수장은 크게 벽과 바닥, 천장, 몰딩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부분에 대해 조사와 분석을 하였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사진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진에는 벽, 바닥, 천장, 몰딩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이 있었다. 두 번째는 각종 기록이었다. 당시의 건축잡지였던 『조선과 건축』, 그리고 『이왕가미술관요람』(1938), 『매일신보』, 『조선일보』가 도움이 되었다. 이 기록들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색깔, 재료 등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 도움이 되었다. 세 번째는 석조전 공사에 참여한 영국의 Maples & Co와 Crittall & Co의 카탈로그가 도움이 되었다. Maples & Co는 실내장식과 가구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고 Crittall & Co은 영국의 철제창호 전문 회사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데 창호와 철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오다쇼고(小田省吾)의 『덕수궁사』(1938)에는 "연관부설, 난로, 전등장치는 런던의 Crittall & Co에서, 내부장치 및 조도품은 런던의 Messrs Maples & Co에서 청부하였다" 고 기록되어 있으며, 『大成建設社史』(日, 1963)에 따르면 "관공사, 스토브, 전등공사는 영국의 크리탈 회사, 내부장식, 조도품은 영국의 메이플 회사가 청부(도급)받았다" 고 기록하고 있다. Maples & Co에서는 실내장식과 가구를 공급하였다는 것이 풍부한 자료로 밝혀졌으나, Crittall & Co에 대하여는 많은 자료가 나타나지 않았다.

Crittall & Co의 1893년, 1896년, 1911년, 1912년의 카탈로그 표지와 *WINDOW VISION* (Crittall History, 1989)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면, 금속창호와 함께 철재 제품을 종합 취급하는 회사였으며 석조전 영건 시기를 전후하여 철재창호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Crittall & Co는 고증기록 상에 나타난 연관부설, 난로(주물화구 부분으로 추정), 전등장치 외에 금속창호도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고증사진 상의 창호 상세와 Crittall & Co가 당시에 생산하였던 창호를 비교해 보면 상세가 매우 흡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장식물 중 유일하게 원형으로 남아 있는 계단 난간의 경우도 단조와 주물로 제작된 철재 제품인 점으로 미루어 Crittall & Co에서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Maples & Co가 제공하는 카탈로그에서 석조전 고증사진 상에 나타나는 가구, 몰딩의 모양과 똑같은 자료들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가구에서는 Maples & Co 라벨이 붙어 있는 가구 등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분명히 가구나 몰딩은 Maples & Co가 공급한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들 카탈로그가 복원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도면 작성 :** 수장공사가 중요한 작업이다 보니 사전 준비가 선행되어야 했다. 우선 고증사진에 보이는 벽과 천장, 바닥, 몰딩에 대한 도면 작업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시공팀에서 도면팀을 별도로 구성했다. 도면팀은 현장대리인 지휘아래 도면을 작성하였다. 이 팀은 매우 열정을 가지고 작업하였다. 이들은 사진에 보이는 각종 문양과 벽 구성 디자인을 도면으로 작성했다. 도면 작업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사진 해상도가 높지 않아 디테일을 확인하는 데 어려웠고 어쩌면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곡선의 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뒤져야 했다. 이렇게 작성된 도면을 바탕으로 복원공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工事の設計を命じたのは明治四十年（一九〇七年）であって、鉛管敷設、煖爐及び電燈装置はロンドンのクリッタル會社（Crittall & Co.）で、内部装置及び調度品はロンドンのメープル會社（Messrs Maple & Co.）で之を請負った。而して工事全部の竣成したのは、大倉土木組、管工事、ストーブ、電灯工事は英国のクリッタル会社、内部装飾、調度品は英国のメープル会社が請負っ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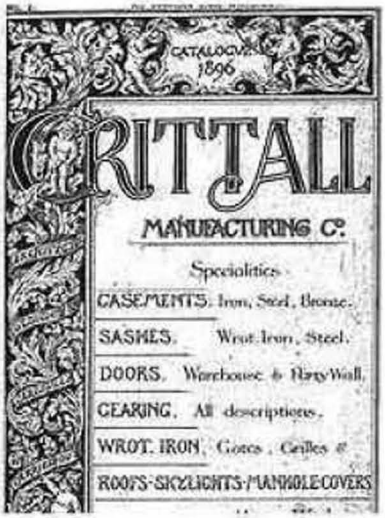
基礎工事は韓国技師の監督の下におこなわれ、主体建築

[그림 3-75] 오다쇼의 『덕수궁사』

[그림 3-76] 『大成建設社史』 日,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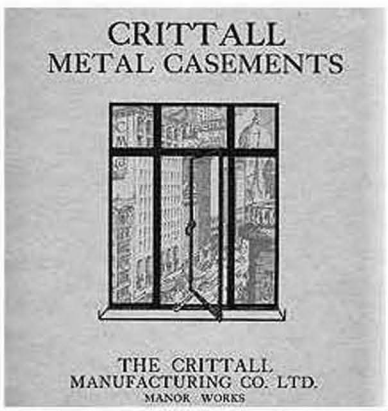
Crittall catalogue cover (1893)

[그림 3-77] 1893년 Crittall & Co 카탈로그



Crittall catalogue cover (1896)

[그림 3-78] 1896년 Crittall & Co 카탈로그



Crittall catalogue cover (1911)

[그림 3-79] 1911년 Crittall & Co 카탈로그

Crittall catalogue cover (1912)

[그림 3-80] 1912년 Crittall & Co 카탈로그

[그림 3-81] Maples & Co 카탈로그

[그림 3-82] Maples & Co 카탈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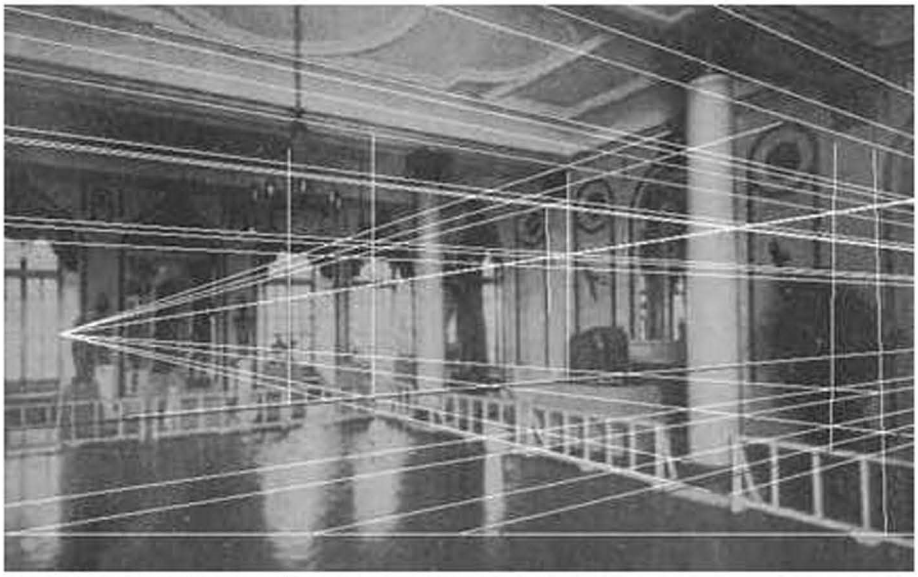
[그림 3-83] Maples & Co 카탈로그

2) 벽 수장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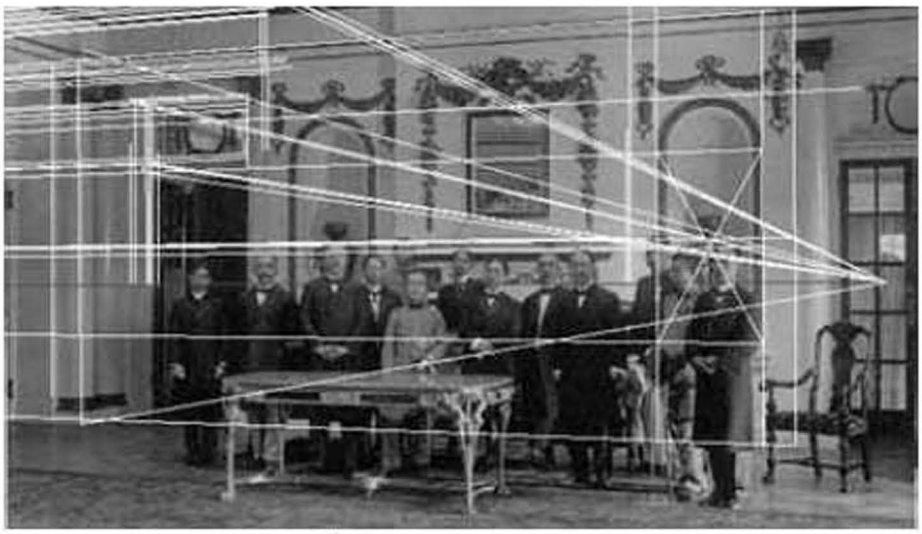
가. 개요

• **개요** : 수장공사 중 벽 공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각 실에 대한 벽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하고 분석해야 했다. 구성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된 재료, 재료의 색상 등도 조사하고 분석했다.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투시도 역기법을 이용해 도면을 작성하고 도면을 바탕으로 시공하였다.

• **투시도 역기법 활용** : 사진 상에 보이는 벽의 구성 디자인을 결정하기 위해 투시도법을 역으로 적용한 '투시도 역기법' 을 활용했다. 투시도는 소점이란 개념을 이용한 도법이고 투시도의 한 종류가 원근법이다. 그런데 사진은 원근법에 의한 결과물과 같은 것이어서 소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다만 사진과 투시도법이 다른 것은 소점이 2개냐 3개냐 라는 것이 다르고 렌즈가 기본적으로 왜곡을 전제한다는 점이 다르다. 사진은 기본적으로 3개의 소점이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반면에 투시도법은 소점의 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2소점으로 적용한다. 사진도 이런 소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사진을 투시도법에 의한 결과물로 보고 소점을 찾아내서 원하고자 하는 평면이나 입면의 규모 및 비례를 찾아내는 것이다. 물론 이런 방법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찾아낸 소점 위치나 눈높이 위치 등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차가 어느 정도 발생한다. 다만 비례관계나 규모 등은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고증사진을 깔고 투시도법을 역으로 적용해 분석하였다. 사진에 보이는 부분 중에 현장에서 비교 확인할 수 있는 천장고, 또는 출입구의 폭 같은 절대치수를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벽을 구성하고 디자인의 비례치를 추출해 내었다.



[사진 3-99] 투시도 역기법을 활용한 벽 구성의 비례 찾기 사례 1



[사진 3-100] 투시도 역기법을 활용한 벽 구성의 비례 찾기 사례 2

• 벽 마감재 선정 : 석조전 내부마감은 회벽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금회 공사에서는 회벽으로 최종 마감하지 않고 이중으로 마감하였다. 일단 조적벽 위에 애초대로 회벽으로 1차 마감하고 평균 50㎜ 정도 공간을 띄운 후 석고보드를 2겹 대고 그 위에 낙서방지용 수성페인트를 칠하여 최종 마감하였다.

원형복원 차원에서 보면 회벽으로만 최종마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다. 설비 때문이었다. 건축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설비 공법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회벽으로 마감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문제가 달랐다. 전기와 통신, 소방 등의 배관은 어느 정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애초 마감재인 회벽으로 마감하면 이들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적벽 일부를 깨서 파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 사실 석조전 내부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남아 있는 원형유구는 그나마 조적벽체뿐인데 이것을 파손한다는 것은 원

형복원 차원에서 또 다른 훼손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조적벽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설비배관에 따른 2차 훼손을 막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행위를 대비한 가역성도 고려해 조적벽과 공간을 띄워 석고보드로 마감 벽을 설치하고 그 공간에 설비배관을 설치하게 되었다. 합판이 아닌 석고보드를 사용한 것은 난연성 재료이기 때문이다.

• **오크목 마감 :** 석조전의 모든 실의 내부 최종마감은 석고보드로 하였다. 다만 1층 소식당(서)는 원목의 오크목을 최종마감재로 사용하였다. 이 소식당(서)만 오크목으로 설치하게 된 것은 문헌과 사진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2장 2 평면 복원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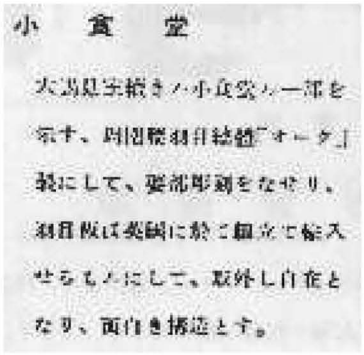
1933년 발행된 『조선과 건축』에는 소식당(서)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데 해당 사진의 설명에는 "대접견실에 딸린 소식당(서)의 일부를 나타내었다. 주요판벽은 모두 「오크」로 되어있다. 판벽은 영국에서 조립하여 수입한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1938년『이왕가미술관요람』의 내부 개요에는 "현재 귀빈실로 보존하고 있는 방은 영국식의 목재벽을 갖고 있다" 고 기록되어 있으며, 2004년 발행된『궁·능관련유리원판도록』에는 1938년 근대일본미술진열관의 도면이 실려 있는데, 해당 도면을 보면 1층 접견실 서쪽 방이 귀빈실로 되어 있었다.

[그림 3-84] 『이왕가미술관요람』

기존 마감재를 해체한 후 노출된 조적벽체를 실측한 자료와 투시도 역기법을 사용하여 고증사진과 비교한 결과, 1층 접견실 서쪽 방이 사진 상에 나타난 개구부 위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진 인화과정에서 좌우가 뒤바뀌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견실 동쪽 방도 검토하였으나 개구부 위치가 사진과는 다르게 되어 있어, 오크목재로 장식된 소식당(서)는 1층 접견실 서쪽의 방인 것으로 확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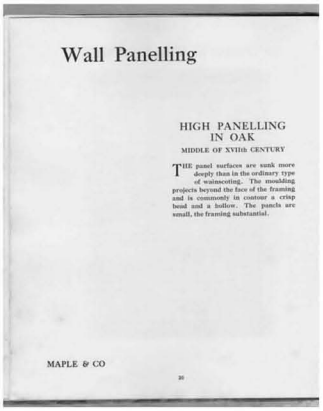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소식당(서)는 분명히 오크목으로 마감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이왕가미술관요람』에서 언급한 회벽마감은 대부분의 실이 회벽으로 마감되었다는 것이고, 다만 일부인 소식당(서)는 오크목으로 마감된 것이었다. 물론 소식당(서) 이외에 다른 실도 오크목으로 마감되었을 수도 있으나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소식당(서)만 오크목을 최종마감재로 선정하였다.

[그림 3-85] 소식당(서)에서 서북1실 쪽으로 찍은 사진(『조선과 건축』 1933. 11)



[그림 3-86] 『조선과 건축』의 소식당(서) 내부 설명문

[그림 3-87] 당시 Maples & Co 카탈로그의 오크목재 판벽 실내장식 소개



[그림 3-88] Maples & Co 카탈로그

나. 시공

• **바탕 정리용 각재 설치** : 회벽으로 1차 마감한 벽 위에 석고보드를 설치하기 위한 바탕각재를 설치하였다. 조적벽이다 보니 면이 울퉁불퉁한 것을 고려해 바탕각재는 이중으로 설치하였다. 첫 번째 각재는 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바탕각재이고 두 번째 각재는 첫 번째 각재위에 추가로 덧대 석고보드를 받기 위한 바탕각재이다. 각재가 설치되면 공간이 형성되는데 이 공간을 이용해 설비 배관이 설치되었다. 각재는 30×30㎜ 크기의 것을 사용하였고 각재 간격은 가로방향은 평균 300㎜, 세로방향은 평균 900㎜ 간격으로 하였다.

• **석고보드 설치** : 바탕각재를 설치한 후 두께 9.5㎜ 석고보드를 사용해 2겹으로 설치하였다.

[사진 3-101] 조적벽 위 회벽 초벌바르기

[사진 3-102] 조적벽 위 회벽 정벌바르기

[사진 3-103] 회벽 위 배관 설치

[사진 3-104] 배관 위 바탕각재 설치

[사진 3-105] 배관 위 바탕각재 설치

[사진 3-106] 석고보드 설치

[사진 3-107] 석고보드 위 퍼티 및 샌딩

[사진 3-108] 벽 도장 작업

• **낙서방지용 페인트 :** 석고보드가 설치된 후 오염 등을 막기 위해 낙서방지용 페인트칠을 하였다. 각 실 벽체의 도장색은 기본적으로 백색으로 하였다. 다만 실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고증사진에서 보이는 음영을 고려해 색상에 차이를 두었다. 1층 중앙홀과 소식당(동),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은 밝은 황색계열로 결정하였고 남쪽에 위치한 대식당, 귀빈대기실은 햇빛에 의해 밝게 비치므로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좀 더 어두운 황색계열로 결정하였다.

• **오크목 판벽 설치 :** 소식당(서)는 오크목을 최종 마감재로 사용하였다. 오크목은 참나무인데 예로부터 가구, 주택, 바닥재 등 주택이나 건물 내·외장재로 사용했고 다양한 적용성을 특징으로 하며 고급 소재로 탄력강도가 좋고 고전적인 분위기가 돋보인다. 참나무는 어떤 장소에 시공해도 특유의 아름다움으로 실내 분위기 가치를 높여주는 좋은 소재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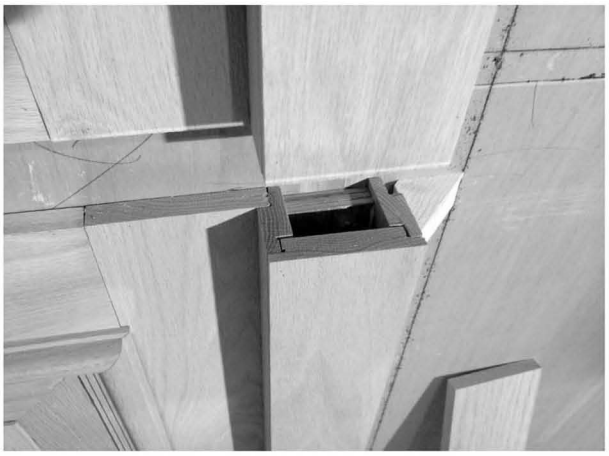
오크목 설치를 위해 경험 있는 목수를 수소문 하였으나 국내에서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영국에서 목조 문화재 복원에 종사하는 현지 엔지니어를 찾아 그 엔지니어의 구두 기술자문을 받았다. 구성된 목수팀은 캐나다와 독일에서 팀버프레임[12] 기술을 들여와 목조주택 건축현업에 종사 중인 국내 기술자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12) 유럽, 미국 등지의 전통적인 짐짓기 방식으로 동양의 목구조 건축과는 비슷하면서 다른 방식이다.
굵은 목재를 치목, 조립하여 골조를 이룬다. 일명 중목구조라고도 한다.

오크목재 판벽 설치는 건식공법과 습식공법이 있다. 습식공법은 회벽에 바로 설치하는 것이고 건식공법은 바탕재를 이용해 설치하는 방법이다. 이번 공사에서는 건식공법을 사용하였다. 석고보드용 바탕각재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조적벽체에 30×30㎜ 미송각재를 300㎜ 간격으로 고정한 후 그 위에 12㎜ 내수합판을 2매 부착하고 방염·방충처리하여 바탕면을 설치하였다. 석고보드가 아닌 합판을 사용한 것은 석고보드가 오크목을 설치하기에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이었다. 오크목은 두께 9㎜에서 40㎜까지 되는 것을 사용하였다.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판벽에 요철이 많고 몰딩의 두께가 다양했기 때문이다.

고증사진 상에서 보이는 디자인을 도면화하여 오크목 판재와 몰딩을 공장제작하여 반입하였다. 합판 바탕면에 오크목 판재와 몰딩을 목공본드를 사용하여 부착하고 다시 소위 '헤어타카(Hair Tacker)'로 고정하였다. 건조수축을 감안하여 각 몰딩의 감춰진 접촉면에 2㎜ 가량의 이격거리를 두고 판재를 설치하였다. 설치 완료된 오크목재 판벽에는 천연오일스테인을 도장하였다.

[사진 3-109] 오크목재 부착용 바탕면 설치



[사진 3-110] 바탕면에 오크목재 부착

[사진 3-111] 오크목재 부착

[사진 3-112] 오크목재 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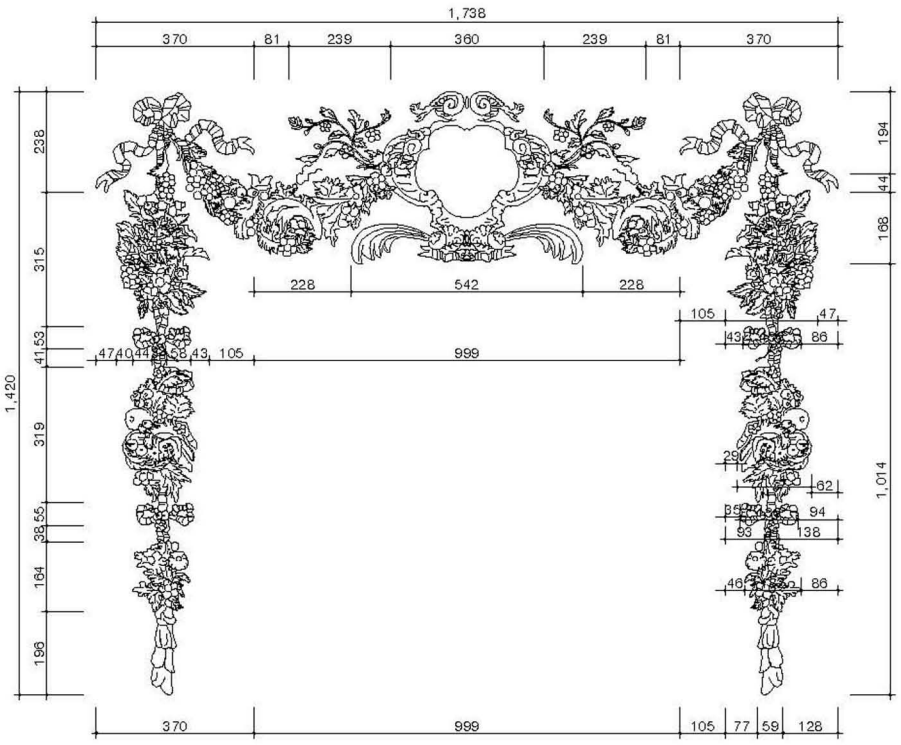
3) 몰딩공사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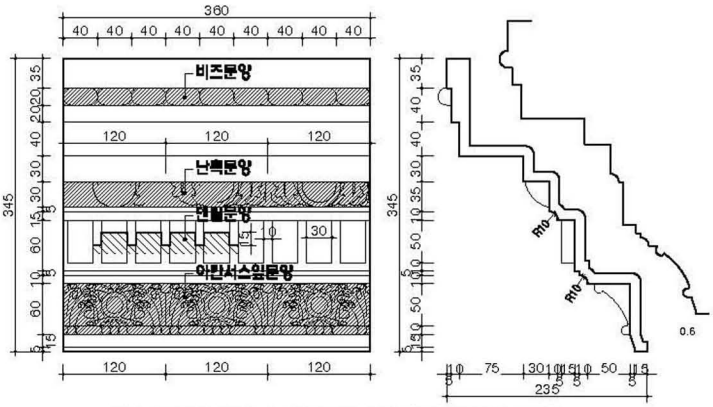
• **개요** : 벽 수장공사와 더불어 가장 어려운 공사가 몰딩공사였다. 몰딩의 전체 구성은 고증사진을 참조하면 큰 틀에서는 알 수 있었지만 문제는 구성보다는 디테일이었다. 왜냐하면 사진 상으로 디테일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물론 최대한 확대해서 검토하였지만 사진 해상도가 떨어져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문양의 모양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그 문양의 구체적인 크기와 곡률의 정도 등은 사진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고증사진에서 확인된 문양과 국내의 사례, 석조전 수장공사를 담당한 Maples & Co의 카탈로그와 영국 현지를 답사해 확인된 Maples & Co의 시공사례 등을 통해 문양과 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사진을 투시도 역기법으로 추적해 비례와 크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문양과 크기를 결정하고 도면화 작업을 한 후 시공하였다.

• **문양 종류** : 고증사진을 분석한 결과 석조전에 사용된 문양은 크게 볼 때 11가지 정도였다. 물론 그 외에도 복합적인 문양도 있었다. 이들 문양은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서로 혼합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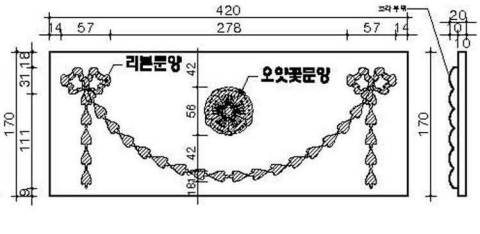
아칸서스 잎 문양이나 월계수 잎 문양은 말 그대로 해당 잎 모양을 조각한 것이고 난촉문양은 계란과 창을 교대로 형상화한 문양이다. 비즈(Beads) 문양은 구슬모양의 문양이고 리본문양은 과일과 넝쿨이 어우러져 전체가 마치 리본처럼 보이는 문양이다. 선형문양은 직선과 곡선이 서로 단순한 선 형태로 된 것이고 덴틸(Dentil)은 마치 이빨이 나란히 보이는 모습의 문양이다. 이화문양은 오얏꽃을 형상화한 문양이다. 그 외에 1700년대에 영국에서 대유행하였던 Adams Classic Style(당시 영국의 건축가였던 Robert Adam이 설계, 시공하였던 세장한 모양의 장식 몰딩을 주로 사용한 실내장식 스타일)의 실내장식 몰딩도 있었다. 주두는 1층 접견실은 코린트식주두, 1층과 2층 중앙홀은 이오니아식주두로 되어 있었으며, 고증사진이 뚜렷하여 재현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었다. 1층 홀의 이오니아식주두는 상세가 불분명하여 2층 중앙홀의 주두를 준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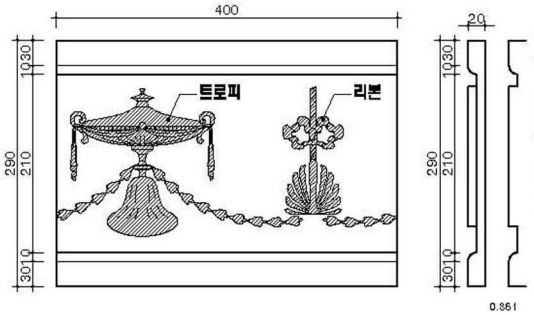
[도면 3-34] 1층 중앙홀 벽 장식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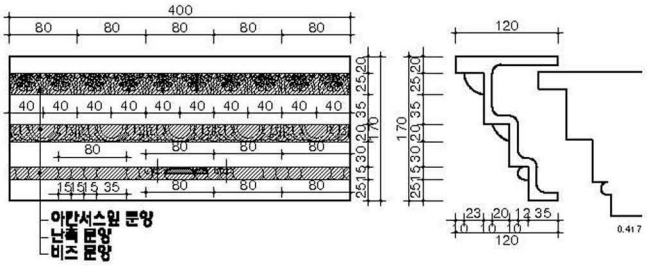
1층 중앙홀 비즈,난촉,덴틸,아칸서스잎문양 몰딩



1층 귀빈대기실등 아담스 클래식 문양 몰딩
(등남1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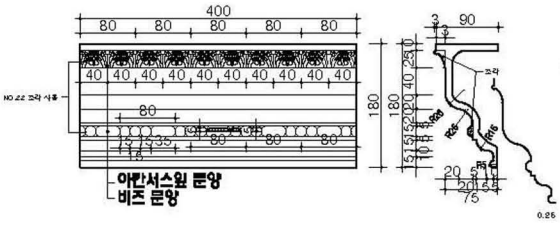


1층 귀빈대기실등 아담스 클래식 문양 몰딩
(등남1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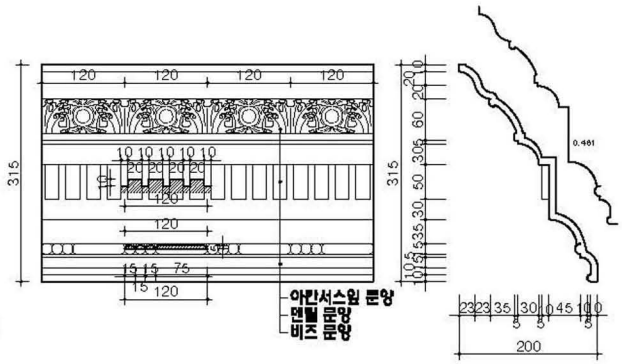


1층 접견실 아칸서스잎, 난촌, 비즈문양 몰딩
(1층 등북1실 전실, 복도, 소식당(등), 서북1실 전실,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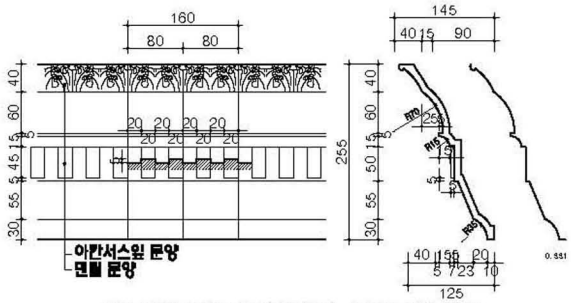
[도면 3-35] 1층 몰딩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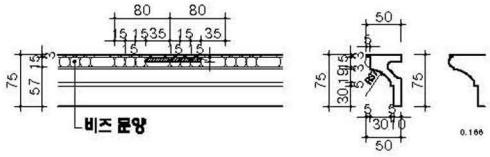
2층 중앙홀 아칸서스잎, 비즈문양 몰딩



2층 중앙홀 아칸서스잎, 덴틸, 비즈문양 몰딩



2층 황제거실 아칸서스잎, 덴틸문양 몰딩
(왕후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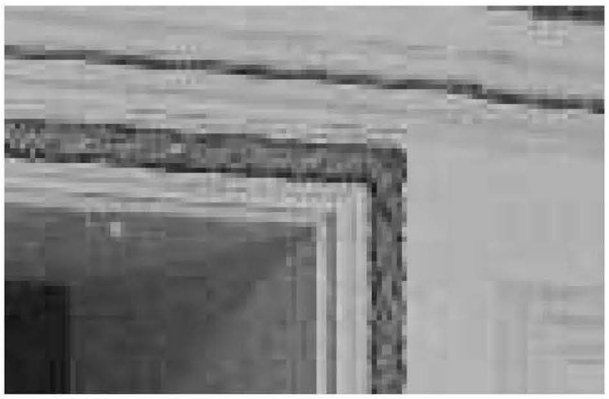


2층 황제거실 비즈문양 몰딩
(왕후거실)

[도면 3-36] 2층 몰딩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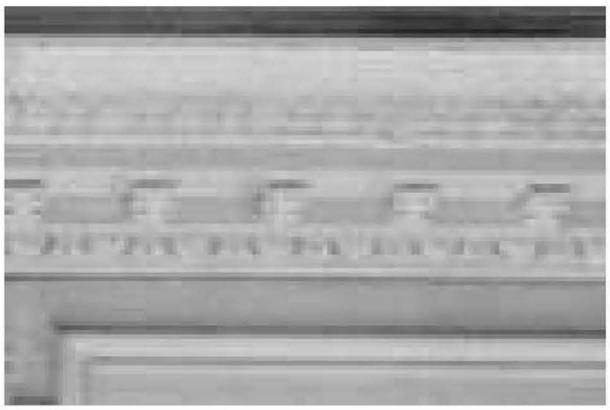
[사진 3-113] 석조전 아칸서스 잎 문양(『한말궁중관계사진첩』-복원 전)

[사진 3-114] 석조전 아칸서스 잎 문양(복원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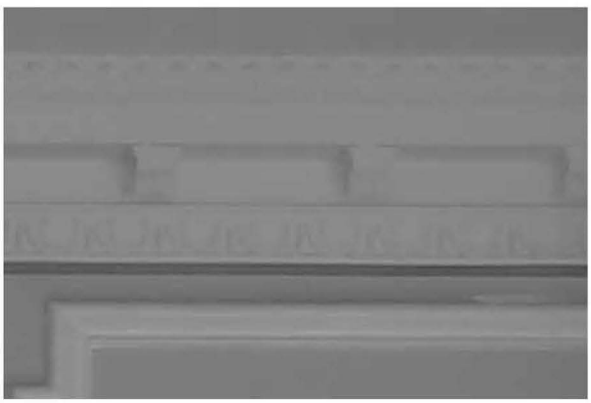


[사진 3-115] 석조전 월계수 잎 문양(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복원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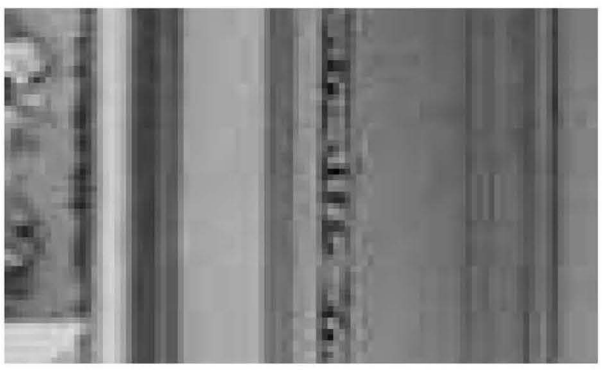
[사진 3-116] 석조전 월계수 잎 문양(복원 후)



[사진 3-117] 석조전 난촉(Egg & Dart) 문양(『한말궁중관계사진첩』-복원 전)



[사진 3-118] 석조전 난촉(Egg & Dart) 문양(복원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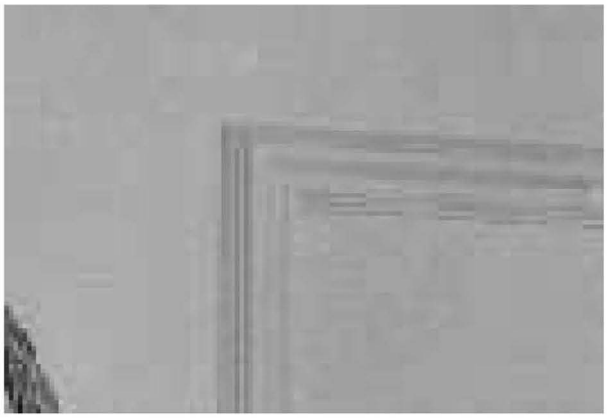


[사진 3-119] 석조전 비즈(Beads) 문양(『한말궁중관계사진첩』-복원 전)

[사진 3-120] 석조전 비즈(Beads) 문양(복원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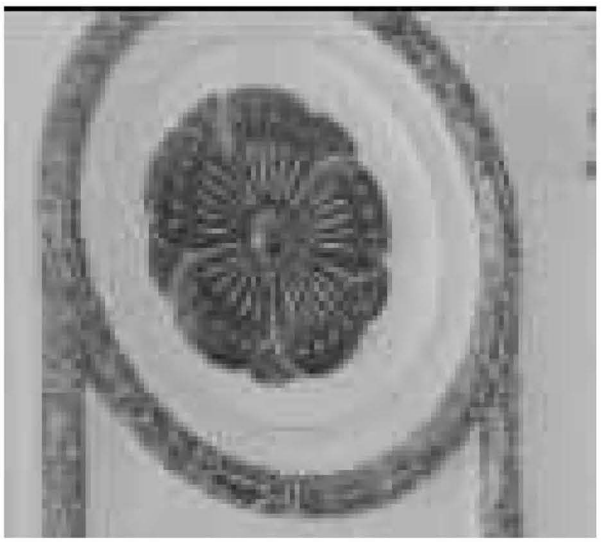
[사진 3-121] 석조전 리본 문양(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복원 전)

[사진 3-122] 석조전 리본 문양(복원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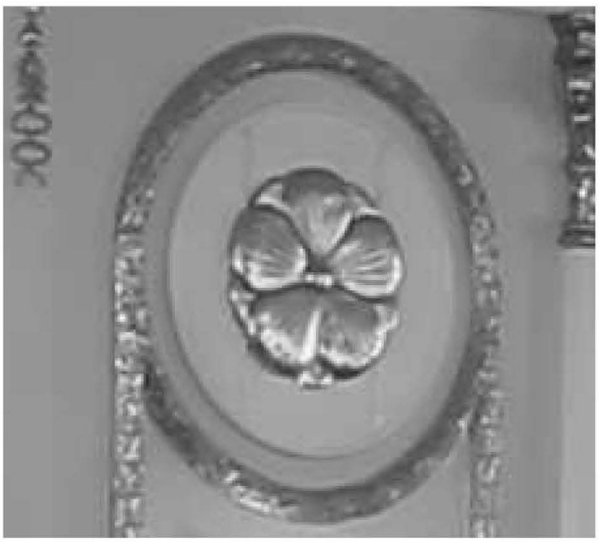


[사진 3-123] 석조전 선형 문양(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복원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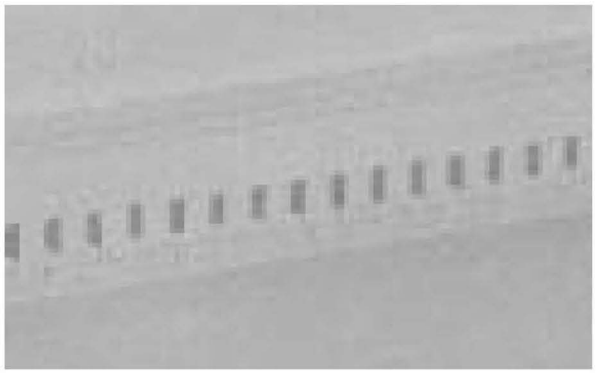
[사진 3-124] 석조전 선형 문양(복원 후)



[사진 3-125] 석조전 이화 문양(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복원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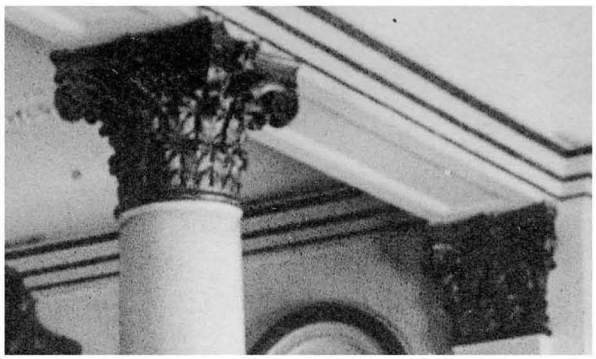


[사진 3-126] 석조전 이화 문양(복원 후)



[사진 3-127] 석조전 덴틸 문양(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복원 전)

[사진 3-128] 석조전 덴틸 문양(복원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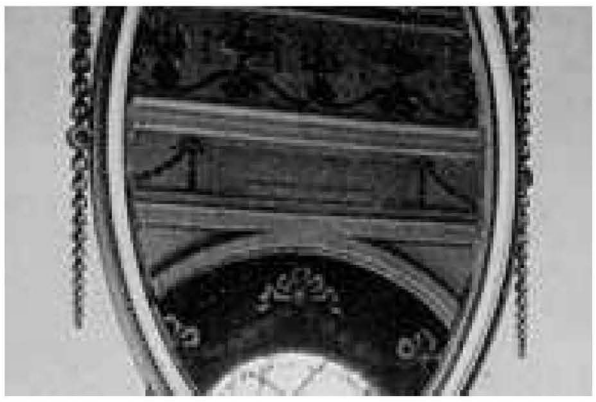


[사진 3-129] 석조전 코린트 문양(이왕가 덕수궁 진열 일본미술품 도록-복원 전)

[사진 3-130] 석조전 코린트 문양(복원 후)

[사진 3-131] 석조전 이오니아 문양(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복원 전)

[사진 3-132] 석조전 이오니아 문양(복원 후)



[사진 3-133] 석조전 Adams Classic Style 문양(『한말궁중관계사진첩』-복원 전)

[사진 3-134] 석조전 Adams Classic Style 문양(복원 후)

나.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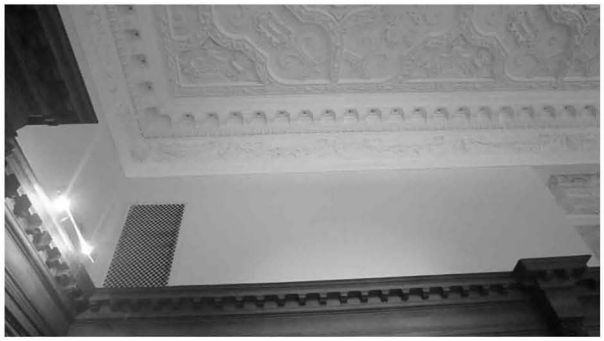
• **재료** : 문양 결정도 문제지만 몰딩을 구성하는 재료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도 문제였다. 몰딩은 미장방식과 석고방식, 목조각 방식 등이 있는데 고증자료 조사 결과 석고(plaster)로 제작한 것으로 나타나 석고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1938년 『이왕가 미술관 요람』에는 "구 궁전으로 사용할 당시는 대부분 석고 조각벽"으로 기록하고 있고, 석조전의 실내장식을 담당한 회사인 영국의 Maples & Co의 당시 카탈로그 『Wall Panelling and Parquet Floors』에는 다수의 Plaster Work이 소개되고 있다. 1905년의 카탈로그에 Maples & Co에서 실내장식을 한 것으로 소개된 Great Central Hotel London은 현재 the Landmark London Hotel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지 조사 결과 객실은 리모델링되었으나 대소연회장 및 홀 등은 당시의 실내장식이 보존되고 있었고 대연회장, 소연회장 1개소, 홀 장식물의 소재는 석고몰딩(다른 소연회장 1개소는 석조전 소식당(서)과 같은 오크 판넬(Oak Panel) 벽체+석고몰딩 장식)이었다. 기타 석조전 건립 시기 전후의 영국 건축물 실내 몰딩장식을 현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 석고조각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pencer House, Apsley House, Somerset House, AA School, Hamton Court Palas 內 Georgian Apartment 등)

[그림 3-89] 『이왕가미술관요람』

[그림 3-90] 석조전 인테리어를 담당한 Maples & Co 카탈로그 표지, 1905

[그림 3-91] Maples & Co에서 실내장식을 한 것으로 소개된 Great Central Hotel, London(現 the Landmark London Hotel)



[사진 3-135] 랜드마크 런던호텔 소연회장 실내장식(오크패널 벽체 + 석고몰딩장식)

[사진 3-136] 랜드마크 런던호텔 계단실 홀 석고몰딩 장식

• **석고몰딩 제작** : 석고몰딩 제작은 고증사진 상에 나타난 형태에 따라 재현하였다. 석고몰딩의 특성상 외형 위주로 제작되었다. 영국 현지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즉, 틀을 제작하고 여기에 석고를 부어 찍어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당시 시대 상황과 맞물린다. 실내장식을 담당한 Maples & Co는 당시 산업혁명 이후 수공업에서 공장생산으로 변모하던 흐름을 따랐던 다국적 회사로, 이전 시기의 다양한 실내장식 스타일을 카탈로그로 만들어 고객들에게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주문에 따라 제품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다. Maples & Co의 장식물 중 석고몰딩은 원본을 제작한 후 틀을 떠내 반복하여 생산하는 시스템이었으며, 이는 석조전 고증사진의 1층 중앙홀 벽난로벽 장식 몰딩이 Maples & Co 카탈로그 상의 장식 몰딩과 일치하는 것을 보아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작은 우선 작도된 도면과 사진을 참고하여 목재 또는 석고로 조각하였다. 제작된 목각이나 석고조각을 바탕으로 형틀을 제작하고 이 형틀에 석고를 부어 석고몰딩을 만들었다.

• **시공** : 공장에서 만들어진 석고몰딩 설치를 위해 몰딩이 설치될 부분에 설치용 목재틀을 먼저 설치하였다. 규격에 맞게 작은 각재와 판재들을 적절히 못 박아 설치하고 이 목재틀에 석고몰딩을 본드와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벽체와 천장에 부착하였다. 부착된 몰딩이 서로 만나는 부분에는 틈새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 틈새는 같은 재질인 석고를 사용하여 메웠다. 다 메운 몰딩에는 최종 마감으로 페인트칠 또는 금박처리 하였다. 그 외에도 추가적인 장식물을 부착하였다. 일테면 아칸서스 문양을 조각한 덴틸형 장식물이 그런 것이다. 이런 장식물도 본드와 타커(Tacker) 등을 이용해 부착하였다.

[사진 3-137] 목형 제작(조각)

[사진 3-138] 목형 수정 및 형틀 제작

[사진 3-139] 석고몰딩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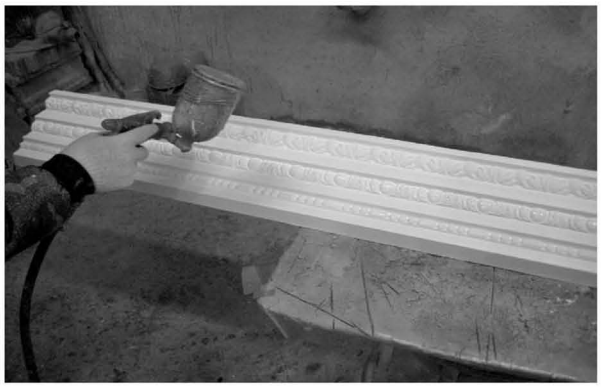
[사진 3-140] 바탕목재틀 부착

[사진 3-141] 바탕목재틀 위 몰딩 부착

[사진 3-142] 틈새 메우기(석고실란트)

[사진 3-143] 추가부착용 장식물(Plaster Ornament)

[사진 3-144] 장식물 부착



[사진 3-145] 금박 부착 전처리

[사진 3-146] 금박 부착

[사진 3-147] 몰딩장식 완료

• **1층 접견실 내부기둥 설치공사** : 애초 1층 접견실에는 4개의 기둥이 있었다. 이미 각종 자료에 그 증거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내부기둥이 없어진 상태였다. 이를 이번 공사에서 다시 설치하였다. 애초 기둥은 구조적 내력을 가진 기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재설치되는 기둥은 구조적 내력이 없는 기둥으로 설치하였다. 왜냐하면 접견실 상부는 이미 기둥 없이도 상부 슬라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골 보강이 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기둥을 세우기 전에 기둥 크기를 먼저 산정했다. 기둥 크기는 투시도 역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했다. 지름은 하부가 340㎜이고 상부는 290㎜로 민흘림을 주었다. 기둥은 주좌, 기둥, 주두의 3개 조각으로 만들었다. 재료는 섬유

강화 석고로 만들었다. 우선 주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코린트식주두를 설치했다. 주두는 반씩 만들어 에폭시본드로 접합하였다. 그 사이에 내부가 빈 기둥을 끼우고 에폭시본드로 접합하여 설치하였다. 설치된 기둥에는 퍼티처리하고 페인트마감을 하였다. 주좌와 주두는 금박처리하였다.

[사진 3-148] 주좌 및 주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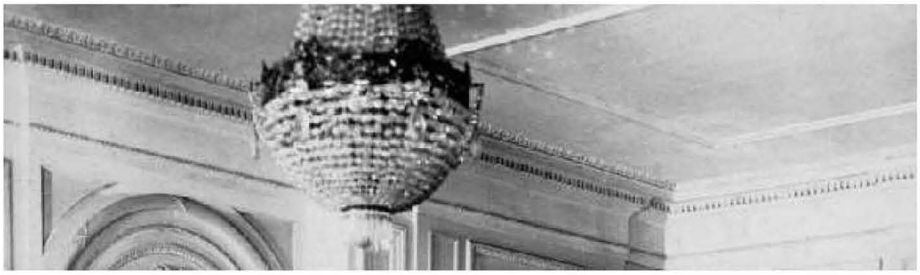
[사진 3-149] 내부기둥 완성

4) 천장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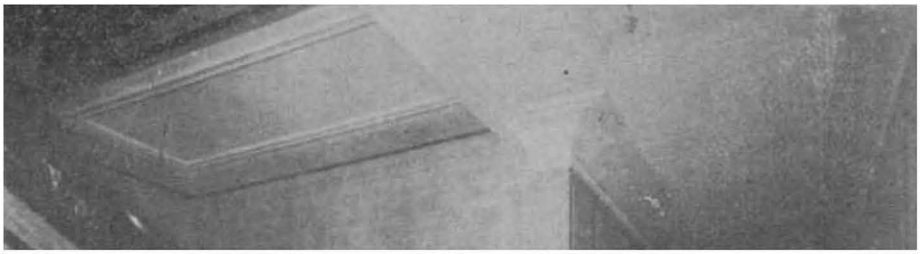
• **개요** : 1층과 2층 천장은 석고보드로 마감하였다. 회랑과 일부 사진을 빼고 천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다. 사진에 의하면 천장 끝에만 몰딩이 있는 곳과 중앙에도 있는 곳이 있었다. 중앙에 있는 곳은 1층 접견실이었다. 재료와 구성에 관해서는 자료가 없었다.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몰딩 등을 설치하기보다는 추후 자료가 발굴되면 그때 보수하는 것을 좋겠다는 판단 하에 1층 접견실만 빼고 모두 장식 없이 마감하기로 하였다.

[사진 3-150] 천장무늬가 민무늬이다.(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

[사진 3-151] 천장무늬가 민무늬이다.(『한말궁중관계사진첩』. 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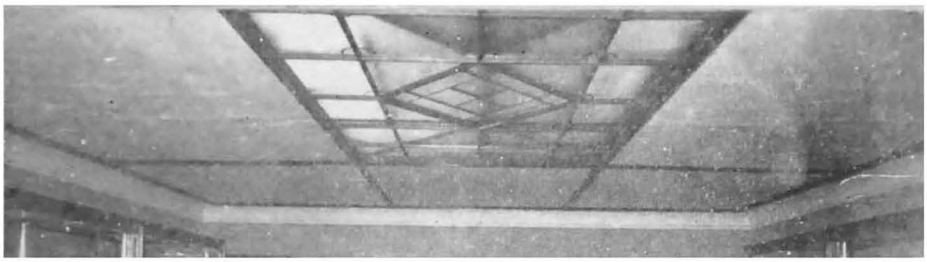


[사진 3-152] 천장무늬가 민무늬이다.(『한말궁중관계사진첩』. 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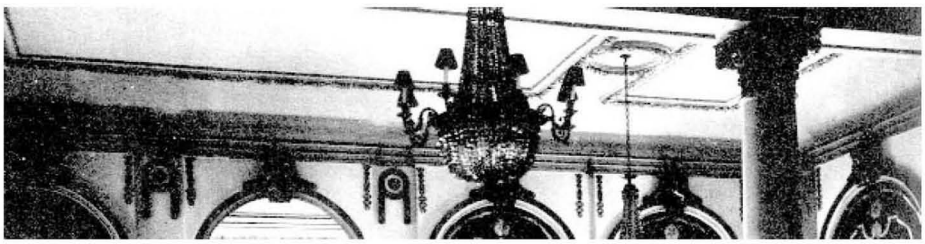


[사진 3-153] 1층 계단실 천장무늬가 민무늬이다.(『조선과 건축』. 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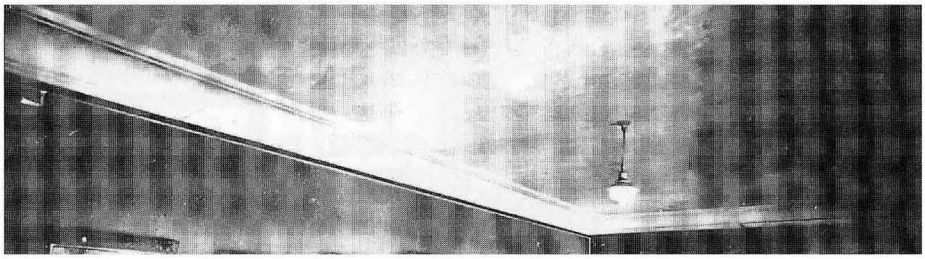
[사진 3-154] 1층 접견실 천장 중앙에 선형 몰딩이 있다.(『조선과 건축』. 1933)



[사진 3-155] 2층 천장에 유리 천창이 보인다.(『조선과 건축』. 1933)



[사진 3-156] 1층 접견실 천장 중앙에 선형 몰딩이 있다.(『덕수궁사』. 1938)



[사진 3-157] 천장무늬가 민무늬이다.(궁·능관련유리원판도록. 1938)

• **시공 :** 1층과 2층 천장은 경량철골천장틀에 30×30㎜ 각재를 300㎜ 간격으로 부착하여 보강한 후 9.5㎜ 석고보드 2매를 붙였다. 경량철골천장틀에 우선 나사못을 사용하여 석고보드 1매를 부착한 후, 두 번째는 목공본드와 타카핀으로 고정하였다. 전등이 설치될 위치에는 별도로 행거핀을 추가 설치한 후 목재틀로 보강하고 합판을 덧대어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천장과 벽체가 만나는 부위에는 석고 크라운 몰딩이 설치되는데 300㎜ 폭의 합판을 천장 석고보드에 부착하여 몰딩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층 천장은 경량철골천장틀에 9.5㎜ 석고보드 1매를 부착하고 그 아래는 용도가 사무실과 전시실임을 감안해 불연성과 흡음성이 좋은 9㎜ 미네랄울 흡음천장판을 부착하였다. 천장판과 구조체 바닥 사이 공간에는 소방, 전기, 통신, 공조 등의 각종 설비 배관들이 들어가 있는 관계로 설비 점검 상 필요한 부위에는 450×450㎜ 크기의 점검구를 설치하여 천장 내부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천장재의 붙임 완료 후에는 전체 면에 퍼티바르기를 하고 뿜칠 수성페인트 도장을 3회하여 마감하였다.

그런데 이미 천장공사가 종료된 후에 천장 재료와 공법을 알 수 있는 사진이 발견됐다. 천장에 사용된 재료 파악이 가능한 사진은 영친왕사진 중 하나였다. 2층 회랑에서 찍은 사진인데 천장의 회바름이 탈락되고 바탕으로 사용된 목재 졸대가 드러난 사진이었다. 자료가 발견된 부분은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이 보고서에 기록하였다.

[사진 3-158] 천장이 탈락된 모습이 보인다. (하정웅 기증 영친왕사진. 1911)

[사진 3-159] 탈락된 바탕에 목재졸대가 보인다.

[사진 3-160] 경량철골천장틀에 목재틀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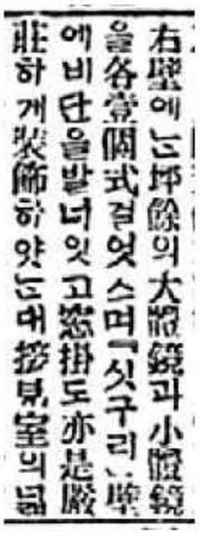
[사진 3-161] 천장틀에 석고보드 2매 부착

10. 도장공사

가. 개요

• **개요 :** 수장공사가 마무리 된 후 도장공사를 했다. 도장공사 또한 어려움이 있었다. 과연 색상이 무엇이고 재료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 때문이었다. 고증사진들은 모두 흑백사진이어서 고증사진만으로는 내부의 색상을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색상을 추적하였다. 색상이 흑백으로 변했을 때의 농도를 연구하여 추적하였고 과거 Maples & Co의 카탈로그와 영국 현지에서 확인한 시공 사례 등도 참조하였다. 그러는 와중에 색상과 재료를 추적할 수 있는 신문자료와 유물 등이 확인되면서 색상에 대한 연구가 급진전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색상을 결정하였는데 그 색상은 황색과 백색이다. 여기서 백색은 색상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서 사용했는데 나중에 색상이 확인되면 재도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택한 색상이다. 재료는 직물벽지와 금박, 페인트를 사용하였다.

• **색상 및 재료 선정 :** 1972년 3월 23일자 『조선일보』 기사에는 "당초 이 궁의 황제 접견실은 황제의 색깔인 황금색으로만 되어 있었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1972년은 석조전 내부가 미술관으로 전용된 1933년도의 시점으로부터 40년 가량이 흐른 시점으로 내부가 변형되기 이전의 실내장식을 목격한 생존자가 존재하기에 충분한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었으나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 후 시공을 하면서도 지속적인 자료조사를 하던 차에 1911년도 영친왕 접견실 사진에 등장하는 가리개(병풍)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대한제국 황실유물로 소장, 전시 중임이 확인되었다. 전시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가리개는 황색의 바탕천에 금색실로 자수가 되어 있었다. 이로써 기사에 등장하는 황제의 색깔인 황금색으로 장식되었다는 문구가 신빙성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전시 중인 스탠드 조명 1점이 석조전 중앙홀과 접견실 사진에 나타나는 스탠드 조명등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는데, 조명등은 황동 소재로 만들어져 있었다. 또 1922년 4월 26일 『매일신보』 기사에는 "싯구리벽(회벽)에 비단을 발랐고..." 라는 접견실 설명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右壁에는坤餘의大姿鏡과小姿鏡
을各壹個式걸엇스며『싯구리』벽
에비단을발너잇고窓掛도亦是嚴
莊하게裝飾하얏는데接見室의넓

[그림 3-92] 『매일신보』, 1922년 4월 26일

한편, 1938년 『이왕가미술관요람』에 '금박 및 페인트 도장' 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영국 현지 조사 때에도 석조전 유사양식의 현지 건축물 조사 결과 내부벽체에 대부분 유색(파스텔톤)페인트 도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유색페인트 도장 중 황색 도장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진 도장색깔이었던 점도 확인하였다. 황색의 페인트 도장으로 조사된 곳은 Hamton

Court Palace의 Georgian Apartment, Apsley House, the Landmark Hotel London 계단홀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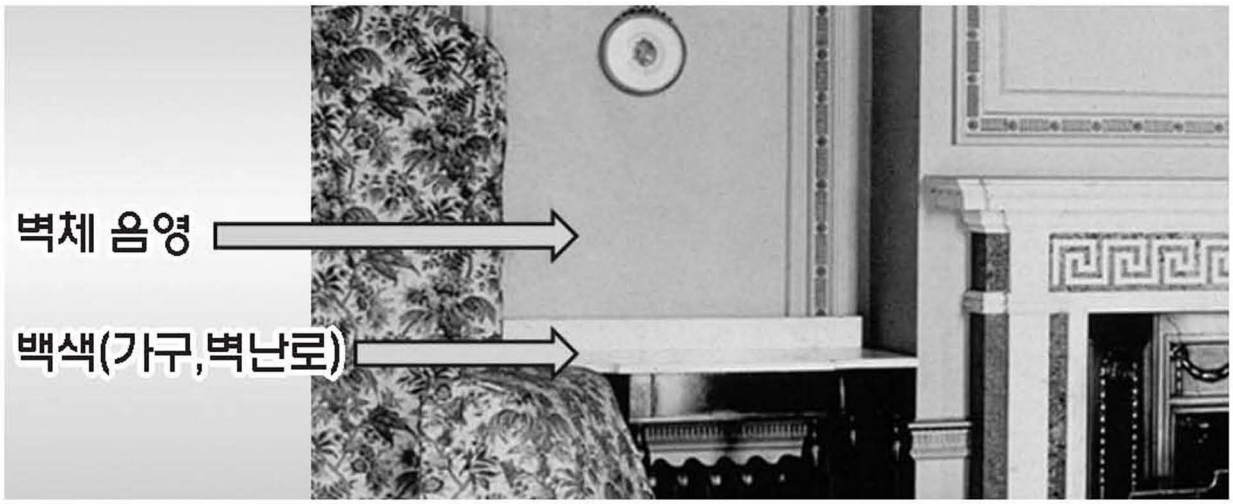
이처럼 신문자료와 유물, 영국의 사례 등을 참조한 것 외에도 색상이 흑백사진으로 촬영될 때 보이는 농도 등도 비교해 보았다. 이런 방법은 완벽하지 않지만 비교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사실 조명 설치 유무나 빛의 각도, 렌즈의 밝기 등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상대적인 비교는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비교해 본 결과 황색과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색이 아닌 유색도장을 선정한 이유 중에는, 흑백 고증사진 상의 벽체의 흑백 농도가 순백색을 띄는 대리석 좌대, 가구의 대리석 상판, 벽난로 대리석보다 진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감안되었고, 영국 현지조사 건축물의 유색페인트 도장 벽체면의 사진을 흑백변환하여 석조전 고증사진과 비교 검토한 결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색상을 결정하였다. 색상은 중요 실은 황색으로 하였다. 이 황색은 결과적으로 1층 접견실과 대식당, 소식당(서), 귀빈대기실, 중앙홀, 2층 황제서재 및 황후거실과 침실에서만 적용하였다. 자료는 1층 접견실 것만 있었지만 2층 황제서재 및 황후거실과 침실도 그 위계 상 같은 선상에 있다고 판단되어 2층 황제서재 및 황후거실과 침실도 황색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재료는 직물벽지와 페인트를 사용하였는데 직물벽지는 1층 접견실과 2층 황제 및 황후침실에서만 적용하고 1층 대식당, 귀빈대기실, 중앙홀은 황색 페인트를 사용하였다. 1층 접견실과 2층 황제 및 황후침실에서만 직물벽지를 사용한 것은 앞서 언급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고 다만 대식당, 귀빈대기실, 중앙홀도 고증사진이 있었고 그 사진에 의한 흑백사진 농도로 볼 때 직물벽지는 아니지만 색상은 황색계열일 가능성이 있어 페인트칠로 마감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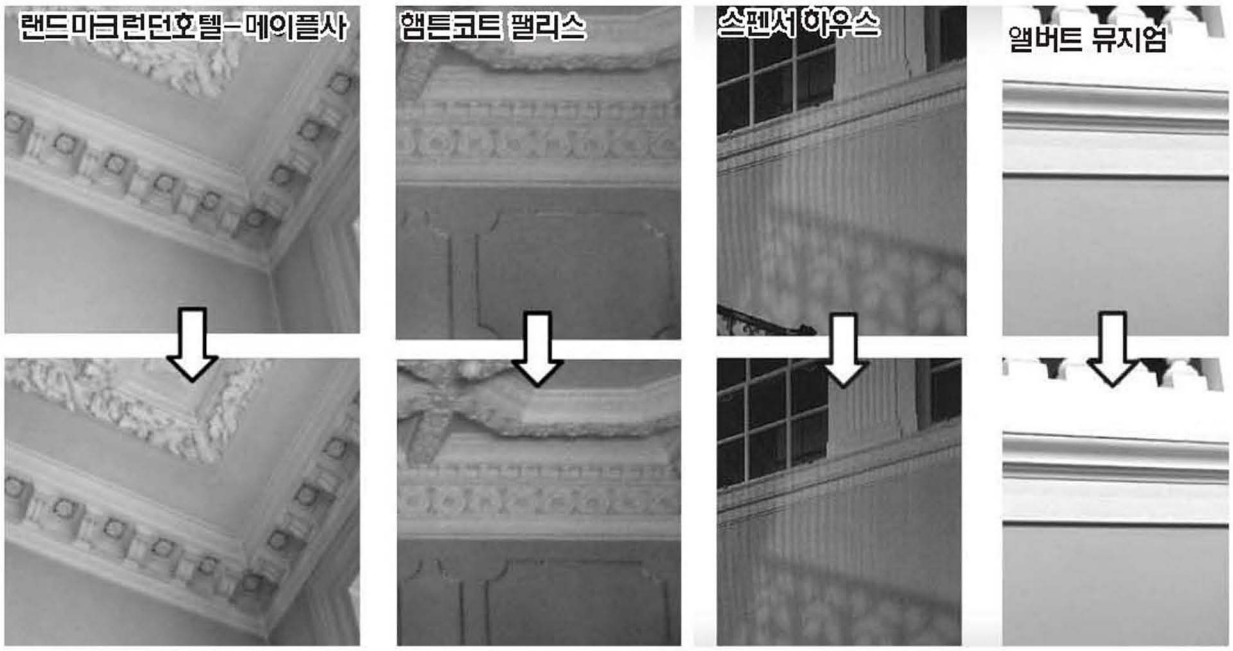
나머지 벽은 백색을 선정하였다. 색상이 백색이지만 백색이 애초 색깔이었기 때문에 선정한 것이 아니라 색상을 결정할 수 없어 부득이 선택한 색이다. 그래서 고증사진이 없는 실과 천장 면은 색상에 대한 어떤 선택 없이 마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백색으로 도장하게 되었다.

[사진 3-162] 고증사진에 보이는 가리개(황색 바탕에 금색 자수로 되어 있다)

[사진 3-163] 1층 접견실 벽체에 나타난 음영(『한말궁중관계사진첩』, 1918)



[사진 3-164] 1층 귀빈대기실 벽체에 나타난 음영(『한말궁중관계사진첩』, 1918)



[사진 3-165] 영국 답사 건물(Maples & Co 시공 건물) 장식 비교 및 흑백과 컬러 비교

나. 시공

• **시공** : 직물벽지를 구하기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직물도배지를 수소문해 보았으나 무늬나 패턴이 들어가 있고 색상이 맞지 않아 동대문 원단가게에 의뢰해 제작하였다. 원단에 연황색계열의 색으로 염색을 하고 피치가공(복숭아 털같은 부드러운 느낌의 가공)으로 부드러운 효과를 주며 종이배접을 했다. 배접은 경기도 하남에 있는 배접공장에 의뢰하여 방염처리와 배접을 하였다. 직물벽지는 바탕 면인 석고보드 위에 발랐다.

페인트 작업은 바탕 면을 퍼티바름하면서 시작하였다. 퍼티가 완료된 후 바탕 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샌딩 작업을 하였다. 샌딩 작업이 완료된 후 페인트 도장하였다. 천장 면에는 수성페인트 3회 뿜칠하거나 롤러칠하였다. 벽체는 낙서방지용페인트 2회 뿜칠하거나 롤러칠하였고, 몰딩과 장식은 3회 붓칠하였다. 고증사진 상으로 확인된 몰딩, 조각은 금박(가금)하였다.

[사진 3-166] 직물벽지 바르기

[사진 3-167] 천장 면 퍼티 작업

[사진 3-168] 천장 면 샌딩 작업

[사진 3-169] 천장 면 페인트 뿜칠

[사진 3-170] 벽체 퍼티 작업

[사진 3-171] 벽체 페인트 작업

11. 대리석공사

1) 복도, 벽, 바닥 대리석공사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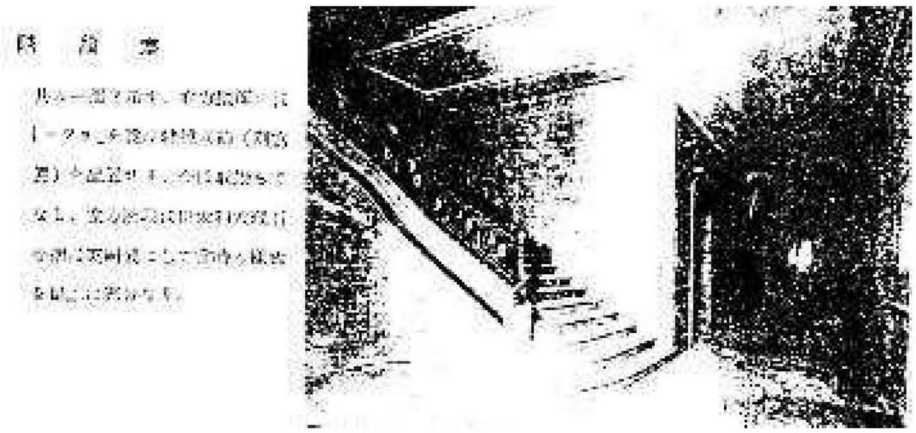
• **개요 :** 석조전의 각 실은 비단벽지, 오크목, 페인트로 마감하였지만 복도와 계단실의 벽은 대리석으로 마감하였다. 사진 상에 보이는 흔적과 문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대리석은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대리석은 기본적으로 건식공법으로 부착하였다.

• **재료 선정 :** 복도와 계단의 벽 재료는 애초에는 페인트 마감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시공팀이 현장과 고증사진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페인트나 미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석재로 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부 문헌에서도 미장이 아닌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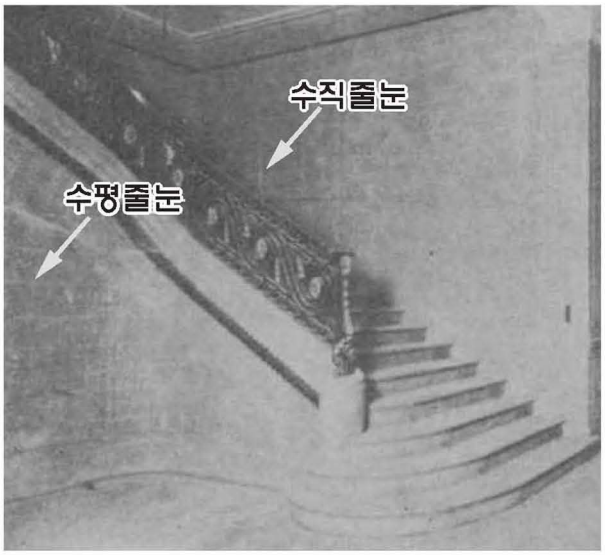
고증사진 중 1938년 이왕가 미술관으로 사용할 당시의 석조전 내부 사진과 조명 등의 사진이 수록된『조선과 건축』에 있는 계단실 사진 옆에 있는 설명에는 "……계단은 이태리대리석(伊太利大理石), 난간은 영국제로서 당시 양식을 그리워하기에 충분하다." 라고 되어 있었다. 또 1920년 5월 15일자『매일신보』 기사에는 석조전 내부를 묘사한 글이 일부 수록되어 있는데 "……찬란한 옥돌의 층층대……" 라는 표현과 "……눈이 부시어 볼 수 없던 금난간……" 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다.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과 건축』에 수록된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단벽에 수평과 수직으로 줄눈이 등간격으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하정웅 씨가 기증한 영친왕 사진 중에 복도 벽 일부가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벽에 수평으로 줄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줄눈이 있다는 것은 판석을 붙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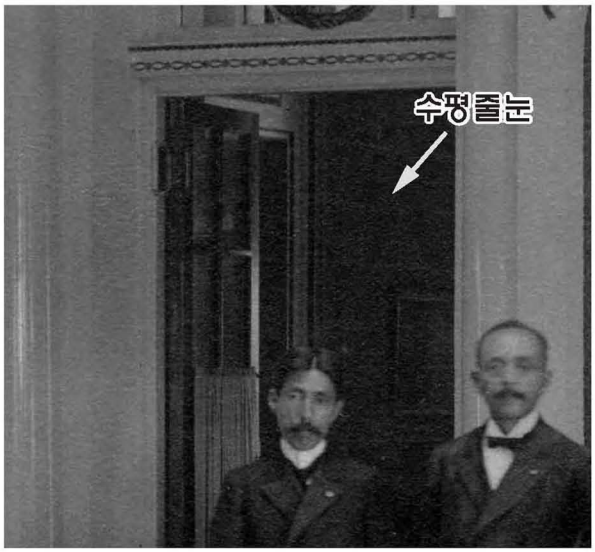
또한 동시대 유럽 건축물(英 Victoria & Albert Museum, 佛 Paris 건축물 다수)을 비교 검토한 결과, 해당 시기 건축물의 복도와 계단실 벽체가 대부분 유사하게 베이지색 계열의 석재를 사용하여 유사한 줄눈 모양으로 설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사진과 문헌 자료를 비교 종합한 결과 복도와 계단 벽 및 계단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복도 벽과 계단 벽 및 바닥 마감재료는 대리석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3-93] 1933년 『조선과 건축』에 수록된 계단실 사진과 캡션 설명



[사진 3-172] 『조선과 건축』에 수록된 사진의 계단실 벽에 수직줄눈과 수평줄눈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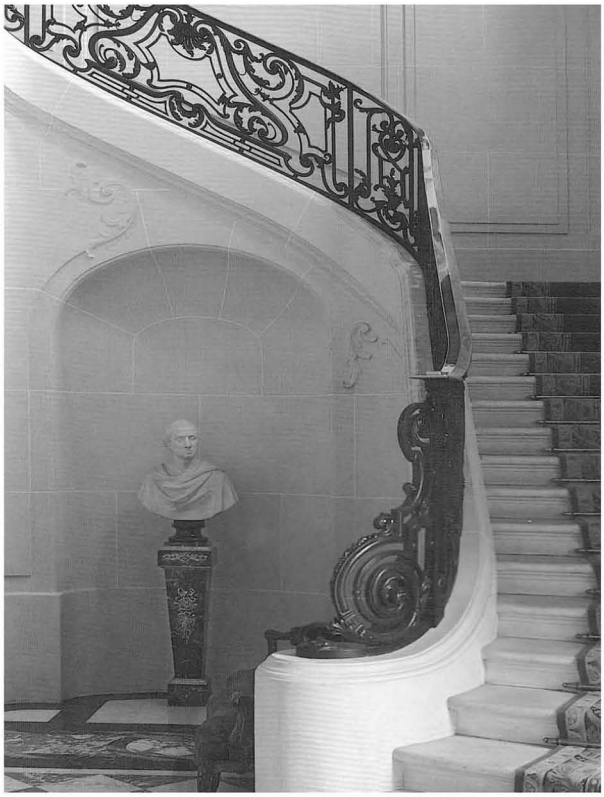
[사진 3-173] 하정웅 씨가 기증한 사진에 복도 벽의 수평줄눈이 보인다.

나. 시공

• **재료 확보** : 사용된 재료가 석재임은 분명한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느냐가 문제였지만 결론은 쉽게 내려졌다. 일반 잡지가 아닌 당시 건축 잡지인 『조선과 건축』에 '이태리대리석'이라는 문구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대리석'이라고 사용했던 용어가 외국산의 미려한 석재를 일반화한 통칭임을 감안한다 해도 분명히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한 화강석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대리석을 마감재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유행하고 일반적이었던 대리석 종류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 와중에 시공팀에서 2010년 발간된 『Historic Houses of Paris』라는 책자를 찾아내었다. 이 책자 중에 19세기 말 20세기 초 파리에 소재하고 있는 고급주택과 대사관의 내부 사진이 있다. 그 사진을 보면 대부분 석조전의 분위기와 상당부분 일치하였다. 특히 당시 대부분 건물들에 사용된 대리석의 질감과 색상이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유행이었던 것이다. 석조전 내부장

식을 담당했던 Maples & Co는 영국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고 다국적 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산업을 이용해 대량생산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재료 또한 동일 계열의 것을 사용했을 것이다. 동시대 유럽 건축물(英 Victoria & Albert Museum, 佛 Paris 건축물 다수)을 비교 검토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해당시기 건축물의 복도와 계단실 벽체가 대부분 유사하게 연한 황토색 계열의 석재를 사용하여 유사한 줄눈 모양으로 설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보면 석조전에 사용된 대리석 또한 당시 유행했던 대리석의 질감과 색상의 것을 사용했을 것이다.



[사진 3-174] 『Historic Houses Of Paris』, Paris 소재 건물 계단실 (1838, 現 미국 대사관저)

[사진 3-175] 英 Victoria & Albert Museum 입구 홀 벽체

[사진 3-176] 『Historic Houses Of Paris』 Paris 소재 건물 계단실 (1907, 現 칠레 대사관저)

한편 책자에 의하면 벽에 사용된 대리석과 바닥에 사용된 대리석의 느낌이 달랐다. 벽은 무광이면서 그 질감은 부드럽고 무늬 없는 미려한 느낌이었고 색상은 파스텔톤이고 연한 황토색이었다. 바닥은 유광이면서 진한 황토색에 가까웠다. 아마도 바닥은 광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강도 때문에 다른 종류의 대리석을 사용한 것으로 보였다. 이에 벽은 무광의 연한 황토색을 사용하기로 했고 바닥은 유광이면서 벽보다 조금 진한 색으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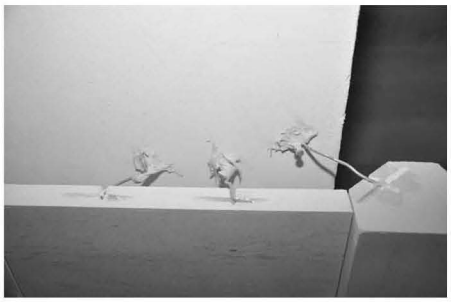
이런 대리석을 일차적으로 국내에서 찾아보았으나 확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국내 수입상을 통해 외국산을 찾아보았다. 우선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찾아보았다. 가장 적당한 것은 이탈리아산 보티치노였다. 보티치노는 바닥에

적당하였다. 색상이 좀 진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벽에 적당한 것도 찾아보았다. 그러나 이탈리아산에서 찾기 어려웠다. 결무늬가 많았고 결이 없더라도 입자가 굵어 적당하지 않았다. 찾은 것은 포르투갈 산 모카크림이었다. 모카크림은 결이 없고 입자가 가늘어 파스텔톤 느낌을 주고 있었다. 이에 벽 대리석은 포르투갈 산 모카크림, 바닥은 이탈리아산 보티치노로 결정하였고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 **시공 :** 벽에 부착하는 대리석은 건식공법으로 부착하였다. 예전에는 습식공법과 건식공법 둘 다 사용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건식공법을 사용했다. 유구로 남은 원형 조적벽체의 추가훼손을 막고, 조적벽체 표면에 각종 설비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배관 공간 확보를 위해서였다. 대리석을 설치하기 위해 우선 시멘트못을 벽에 박았다. 그리고 설비배관을 위해 대리석을 벽면에서 약 40㎜ 띄웠다. 이 못에 황동선을 묶은 후 이 황동선을 대리석에 미리 파놓은 홈에 끼운 후 석재용 에폭시로 고정시켰다.

벽에 설치한 대리석 한 개의 크기는 300×600㎜로 하였다. 이 크기로 결정한 것은 외부 석재 크기를 참조하였다. 벽면용 대리석 두께는 30㎜로 하였고 걸레받이나 손스침은 50㎜ 두께로 하였다. 수직줄눈은 막힌 줄눈으로 하였고 줄눈 간격은 약 3㎜를 기준으로 하였다.

바닥에 사용한 대리석은 습식공법을 사용했다. 바닥에 부착용 시멘트몰탈을 깔고 그 위에 대리석을 설치하였다. 계단 바닥에 설치한 단바닥재 대리석은 두께 60㎜를 사용하고 몰딩은 10㎜로 하였다. 챌판은 30㎜ 두께로 하였다. 단바닥과 챌판 길이는 900㎜로 하였다.



[사진 3-177] 벽과 대리석 연결 황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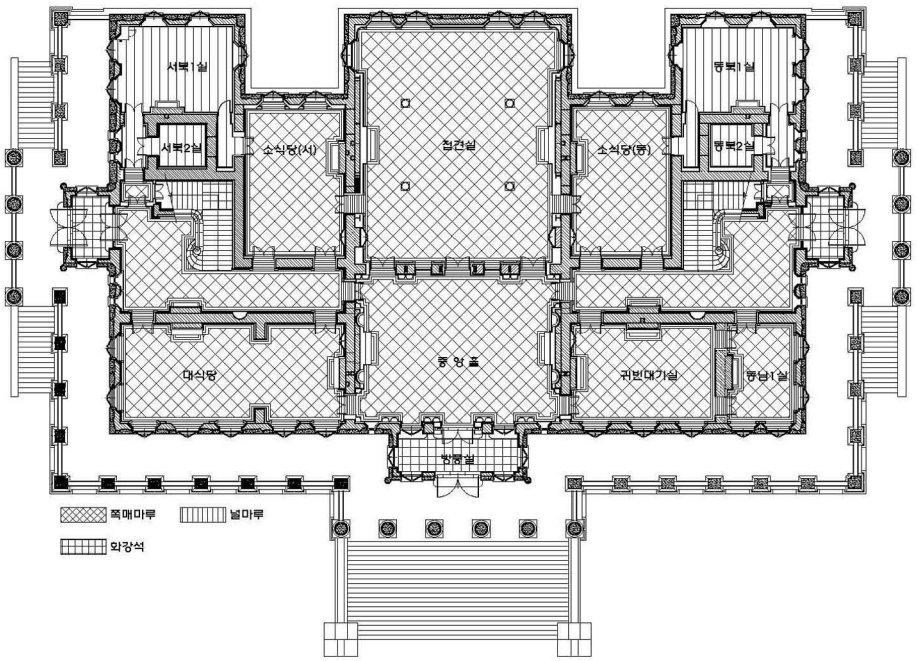
[사진 3-178] 대리석과 벽 사이 설비 배관

[사진 3-179] 완료된 벽 대리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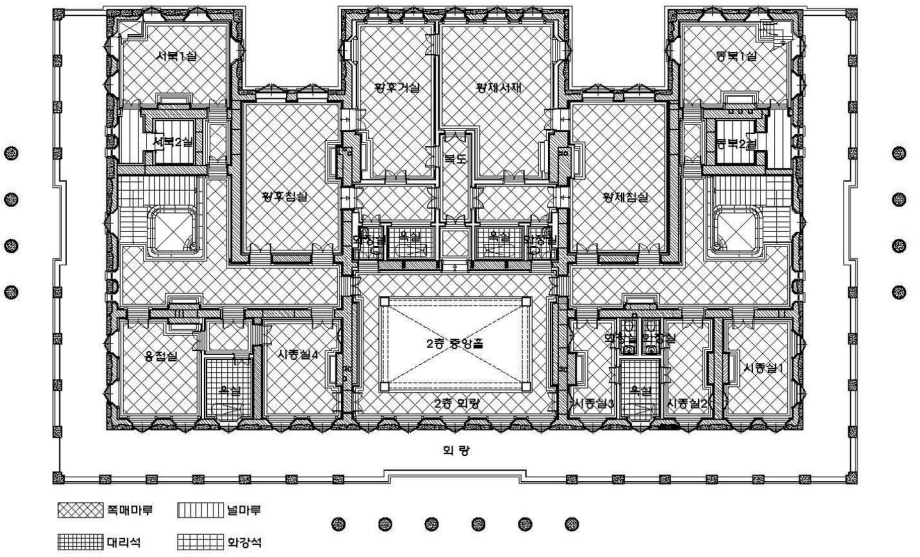
[사진 3-180] 완료된 출입구 대리석 몰딩

[사진 3-181] 계단 대리석 설치

[사진 3-182] 복도, 계단실 대리석 설치 완료



[도면 3-37] 1층 바닥 마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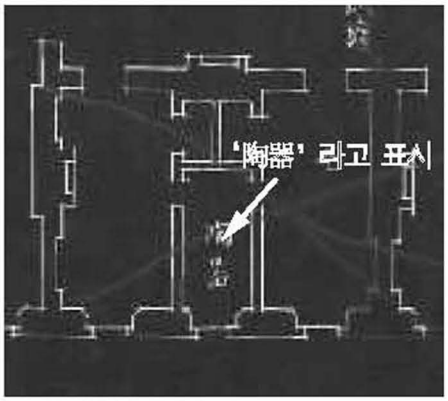
[도면 3-38] 2층 바닥 마감도

2) 화장실 바닥 대리석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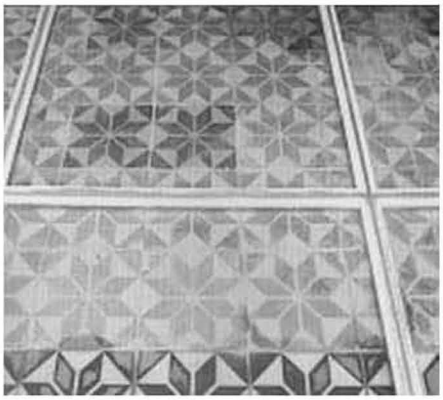
• **재료 선정 :** 대리석을 바닥에 깐 부분은 계단바닥과 욕실 및 화장실 바닥, 내부 창대석이다. 화장실 바닥에도 대리석을 깔았다. 1933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하마마츠시립도서관 소장 석조전평면도' 에는 각 층의 실별 바닥 마감재가 표기되어 있으며, 욕실과 화장실 바닥은 '陶器(도기)' 로 기재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도기를 흙을 구워 만든 제품을 말한다면 타일을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석조전 건립 시기의 국내 양식건축물이나 실내장식에 사용된 타일류와 대리석류 등 욕실과 화장실에 사용가능한 자재를 놓고 비교 검토하였다.

덕수궁 중명전 출입구와 복도 바닥의 경우 문양타일이고 덕홍전 귀빈실 입구 바닥과 정관헌 입구 바닥도 문양타일이다. 창덕궁 대조전 욕실 바닥은 옥타곤 문양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국내 사례에 의하면 타일과 대리석 두 종류가 있고 문양이 복잡한 것은 타일류이고 간단한 것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다. 문제는 욕실과 화장실의 모습이 실린 고증사진, 마감재의 문양 등과 관련한 고증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도기' 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리석을 도기로 볼 수도 있는 문제였다.

그런데 타일은 주로 외부 쪽에 있고 대리석은 내부에 있는 점과 대조전이 궁궐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창덕궁 대조전 욕실에 사용된 대리석 자재와 문양을 차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문양은 석조전의 실내장식 양식인 조지안 스타일(Georgian Style)의 바닥 마감 문양인데 옥타곤(Octagon) 문양이라 하여 유럽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문양이고 국내에도 사용돼 남아 있는 문양인 점을 감안하였다. 문양은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백색과 녹색으로 구성되고 면적이 큰 부분은 백색으로, 작은 부분은 녹색으로 하였다. 백색 부분의 모서리를 사각으로 만들고 그로 인해 생긴 작은 사각형에 녹색을 배치하였다. 백색대리석은 '비앙코' , 녹색대리석은 '그린마블' 을 사용하여 설치하였다. 화장실에 사용한 대리석의 크기는 300×300㎜이고 두께는 20㎜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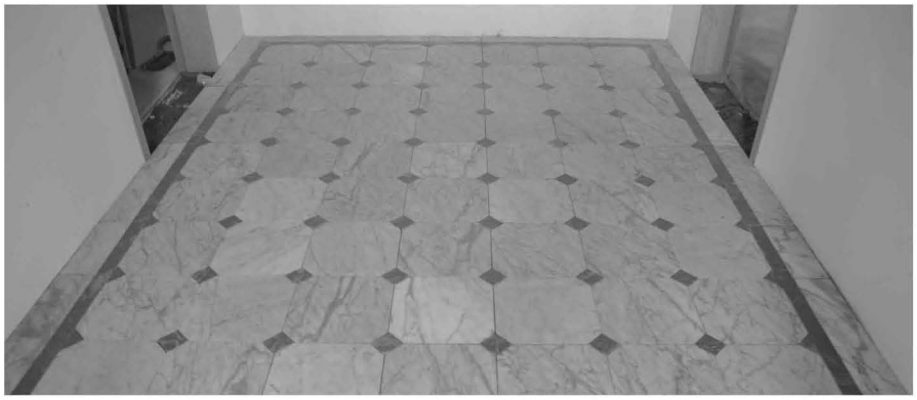


[그림 3-94] 하마마츠도서관 소장 석조전 1층 평면도 1933


[사진 3-183] 중명전 현관 입구 바닥타일

[사진 3-184] 덕홍전 귀빈실, 정관헌 바닥타일

[사진 3-185] 창덕궁 대조전 욕실 바닥(옥타곤 문양)대리석



[사진 3-187] 설치 완료된 화장실 바닥 대리석

• **창대석 설치** : 내부 창대석도 대리석을 설치하였다. 이 창대석은 비앙코라는 백색의 대리석으로, 두께는 2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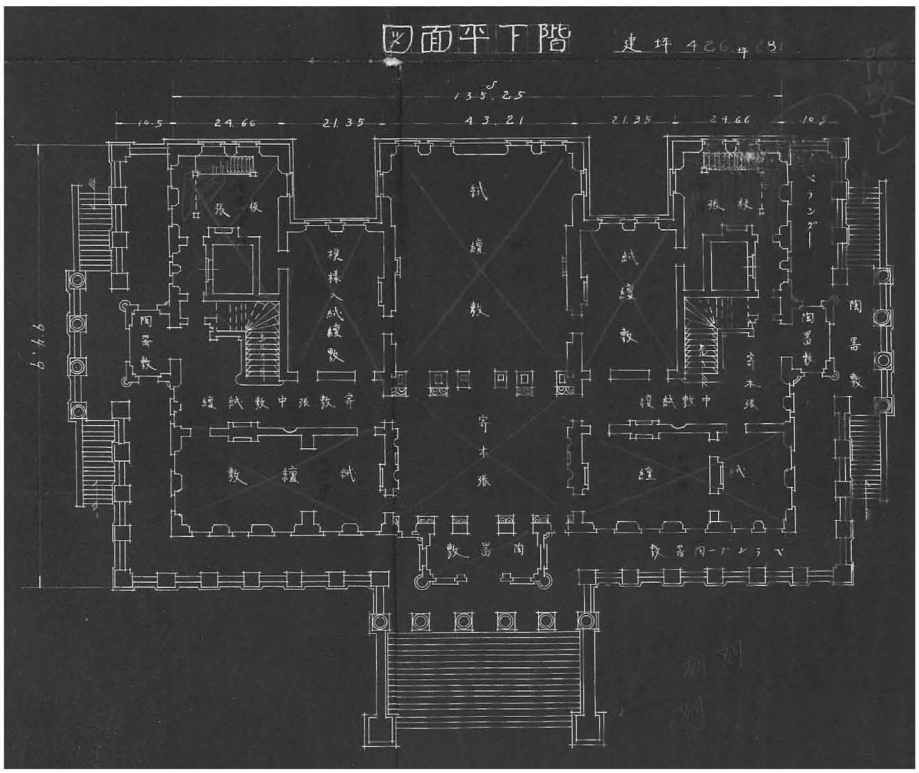
[사진 3-186] 설치 완료된 창대석 대리석

12. 바닥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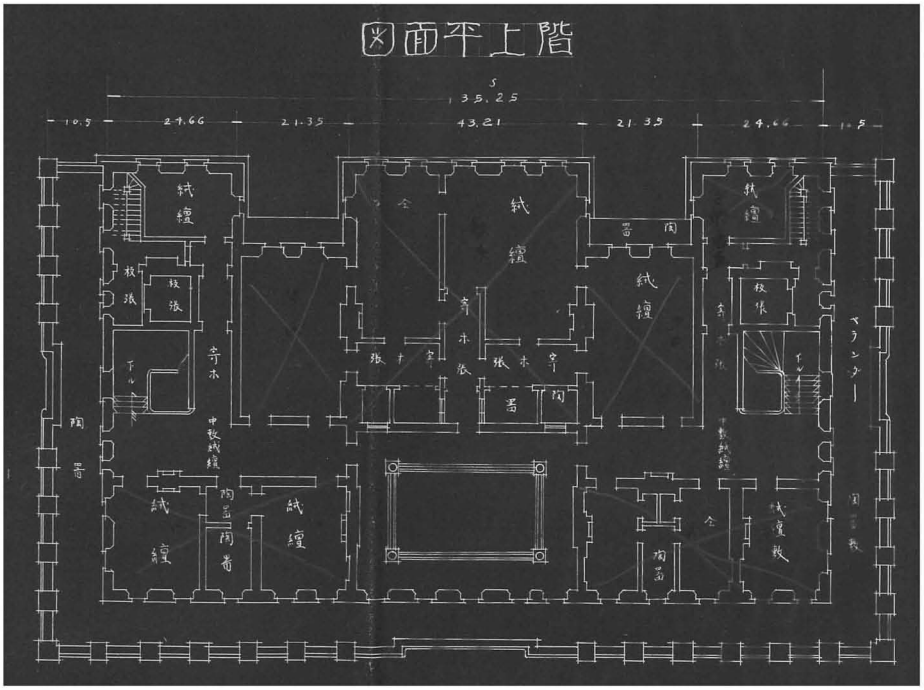
1) 1층, 2층 바닥 마루공사

• **개요 :** 석조전 1층과 2층 바닥은 욕실과 화장실을 제외하고 모두 마루로 마감하였다. 마루는 쪽매마루와 널마루를 사용하였다. 마루로 마감한 것은 하마마츠시립도서관에서 발견된 1933년 제작된 도면을 근거로 하였다. 마루모양과 색상은 고증사진과 Maples & Co의 카탈로그를 참조하여 결정하였다.

• **재료 선정 :** 하마마츠시립도서관 소장 석조전 평면도에 바닥마감재가 표시되어 있다. 표기된 바닥마감재는 '板張(판장 - 널마루)', '絨緞(융단 - 카펫)', '寄木張 中敷絨緞(기목장 중부융단 - 쪽매마루에 카펫)', '陶器(도기 - 타일)', '模様入絨緞(모양입융단 - 장식카펫)', '土間(토간 - 흙바닥, 지면)' 으로써, 도면 상의 재료 표기 내용과 고증사진 상에 보이는 재료의 내용이 상당부분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실별로 해당 재료를 적용하여 설치하였다.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마루이다. 마루는 쪽매마루와 널마루 두 종류를 사용하였다. 널마루는 하마마츠시립도서관에 표시된 것처럼 1층 서북1실, 서북2실과 동북1실, 동북2실 그리고 2층 서북2실 및 동북2실에 깔았고 나머지는 쪽매마루를 깔았다. 쪽매마루를 깐 부분 중 벽 쪽에는 쪽매마루 마감의 완결성을 위해 2줄로 널마루를 깔았다.



[그림 3-95] 하마마츠시립도서관 소장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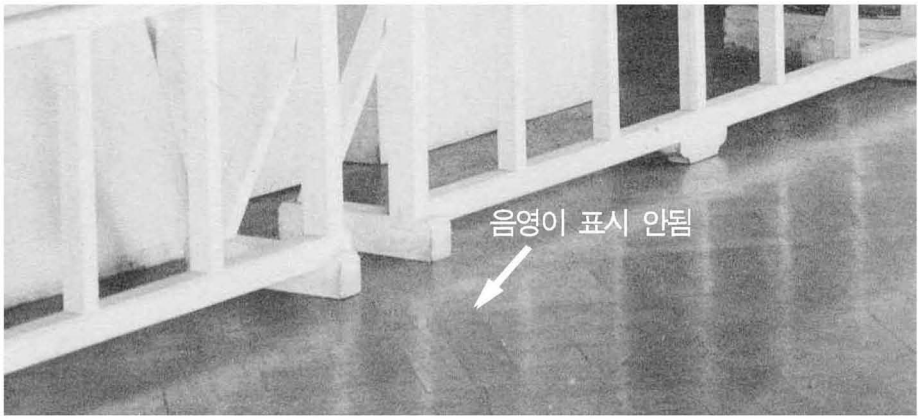


[그림 3-96] 하마마츠시립도서관 소장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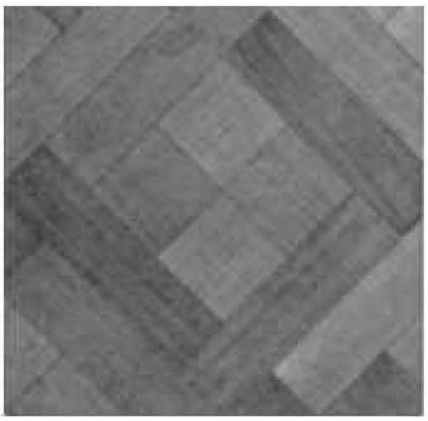
• **쪽매마루 패턴** : 널마루는 특별한 문양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쪽매마루는 문양이 있어 고민되었다. 쪽매마루로 표기된 실들의 쪽매마루 패턴은 고증사진 상에 보이는 패턴 중 인식이 가능한 사진을 바탕으로 Maples & Co의 당시 카탈로그 『Wall panelling & Parquet floors』(1905년경)에 수록된 마루(parquet floor)의 패턴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Maples & Co 당시 카탈로그의 오크목재로 구성된 패턴이 고증사진 상의 패턴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오크목재를 사용하여 동일한 패턴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였다.

쪽매마루의 문양은 크게 두 종류이지만 세분하면 세 종류가 사용되었다. 하나는 고증사진 상에 확인되는 문양이고 또 하나는 창덕궁 대조전에 있는 문양과 같은 문양이다. 고증사진 상에서 확인된 문양은 다시 두 종류가 있는데 문양 자체는 동일하지만 음영을 둔 것과 음영을 두지 않은 것이 있다. 결과적으로 3개 패턴을 사용하였다. 고증사진 상에서 보이는 1층 중앙홀의 경우, 음영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반면, 1층 접견실에 깔린 마루는 음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덕궁 대조전에 설치된 쪽매 문양은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과 황제침실, 황후침실에 적용하였다. 2층 거실과 황제침실, 황후침실의 경우 고증사진에 쪽매마루 패턴이 보이는 것이 없었으나, 위계를 감안하여 창덕궁 대조전에 설치되어 있는 쪽매마루 패턴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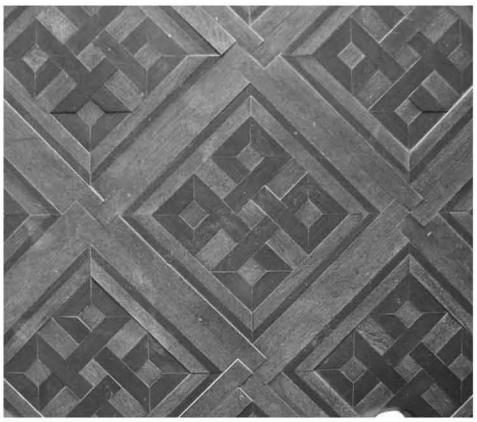
[사진 3-188] 1층 중앙홀 마루패턴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년) - 바닥 마루에 음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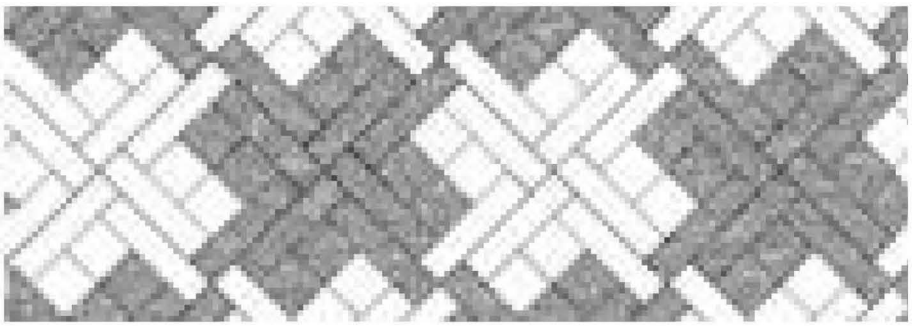
[사진 3-189] 1층 접견실 마루패턴 (이왕가 덕수궁 진열 일본미술품 도록, 1945년 이전 추정)



[그림 3-97] Maples & Co 카탈로그, 1905년경 parquet floor 패턴



[사진 3-190] 창덕궁 대조전 마루패턴



[그림 3-98] 결정된 음영이 있는 쪽매마루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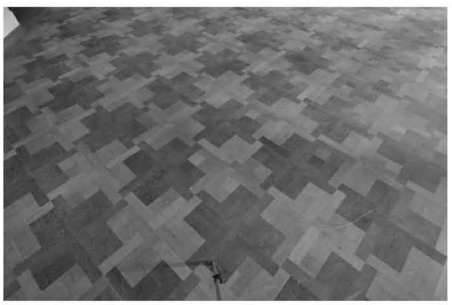
• **시공** : 마루 재료는 Maples & Co의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표면 마감을 오크목으로 하였다. 두께 11㎜ 고급 합판에 두께 4㎜ 오크목을 본드로 부착해 제작하고 제작된 마루를 현장에 들여와 설치하였다. 설치는 바닥에 전달되는 하중을 줄이기 위해 건식공법으로 하였다. 우선 30×30㎜ 각재와 합판을 이용해 바닥 수평을 잡고 그 위에 다시 30×30㎜ 각재를 300×300㎜ 간격으로 설치한 후 그 위에 바탕재로 두께 12㎜ 내수합판 2겹을 못 박아 깔았다. 이 합판 위에 사전 제작된 마루를 본드로 붙였다. 마루와 마루는 제혀쪽매로 하였다. 쪽매마루는 한 개의 크기를 350×350㎜로 제작하였고 널마루는 폭 120㎜로 제작하였다. 마루를 다 설치한 후 파손이나 긁힘을 방지하기 위해 중보행용 코팅제를 도포하였다. 한편 마루 내부의 통풍을 위해 창문 하부 쪽에 두께 3㎜ 황동판으로 만든 지름 130㎜ 통풍구를 설치하였다.

[사진 3-191] 수평 조절용 각재 설치

[사진 3-192] 바탕 각재 위 합판 설치

[사진 3-193] 합판 위 마루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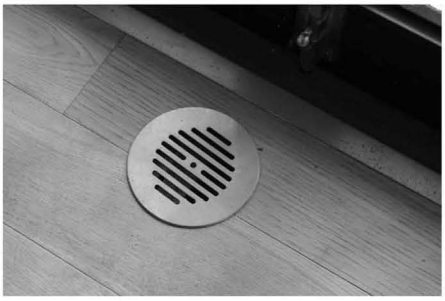
[사진 3-194] 쪽매마루 문양 1(대조전 문양)



[사진 3-195] 쪽매마루 문양 2(음영)

[사진 3-196] 쪽매마루 문양 3

[사진 3-197] 널마루



[사진 3-198] 환기구

2) 지층 바닥공사

• **시공** : 1, 2층은 바닥 마감을 마루로 하였지만 지층은 각 실과 복도 모두 디럭스타일로 하였다. 하마마츠시립도서관 소장 도면에 의하면 일부 시멘트로 된 부분도 있고 마름모형 전돌(四半瓦敷)도 있지만 주된 바닥 마감재는 널마루(板張)이다. 그런데 지층은 공사 초기부터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바닥 마감을 공사 전에 사용하였던 아스타일로 하려 했으나 아스타일은 석면 성분이 있어 사용할 수 없어서 아스타일과 유사한 디럭스타일을 사용하기로 했다. 디럭스타일은 바탕 면에 본드로 접착하였다.

[사진 3-199] 지층 바닥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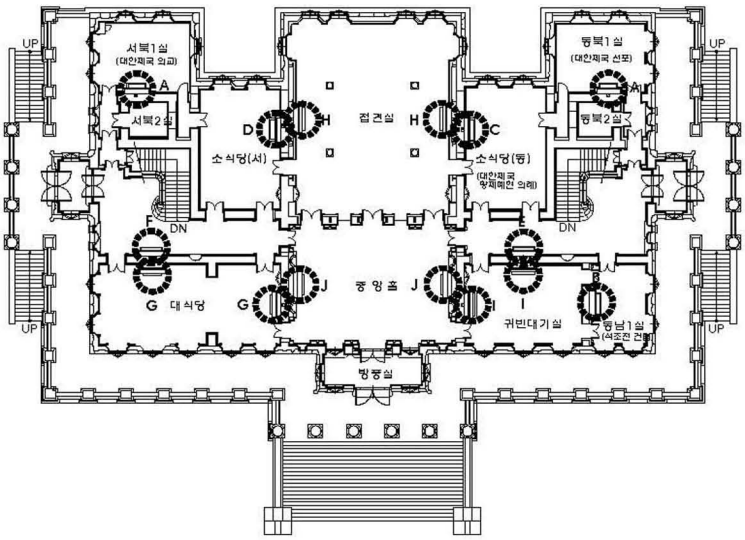
[사진 3-200] 지층 바닥공사

13. 벽난로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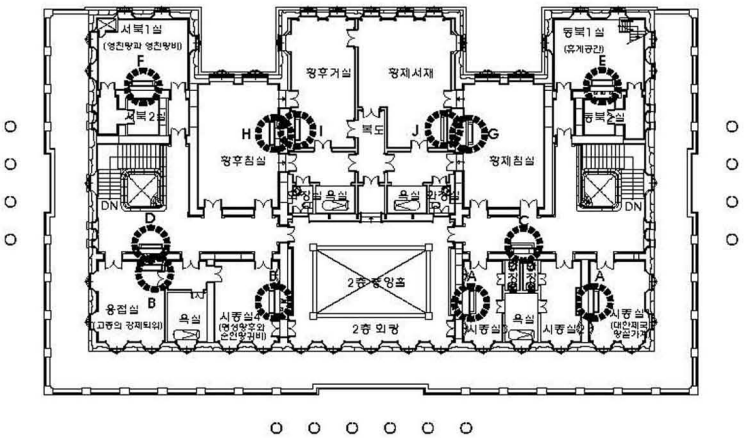
• **개요 :** 석조전의 내부 마감을 해체한 결과 벽난로와 그 흔적이 나왔다. 지층에 4군데에서 벽난로가 5개, 1층에 7군데에서 12개, 2층에 4군데에서 5개가 있었다. 이 중 금번 공사에서는 1층 8개소, 2층 1개소로 총 9개소는 벽난로를 제작하였고 그 외 18기는 기성품으로 설치하였고 2기는 회몰탈로 미장만 하였다.[2장. 3.석조전 구조 조사. 3)벽난로와 돌출벽 참조]

[표 3-17] 벽난로 발견 개수와 재현 및 기성품 설치 개수

층	발견		재현		기성품	기타
	군데	개소	멘틀(Mantel)	화구		
지층	4	5	-	-	(2기)	회미장마감
1층	7	12	접견실 2기, 중앙홀 2기, 귀빈대기실 2기, 대식당 2기	(귀빈대기실 2기)	7기	-
2층	4	5	황제서재 1기	-	11기	-
계	-	22	9기	2기	18기	



[도면 3-39] 1층 벽난로 안내도



[도면 3-40] 2층 벽난로 안내도

• **고증 :** 벽난로는 고증사진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문헌 일부에서 재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관련된 문헌인 『이왕가미술관요람』에는 '로코코식 대리석 난로' 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대리석에 대하여는 『조선과 건축』에서 계단사진 설명에 '이태리 대리석' 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Maples & Co의 당시 카탈로그『Wall panelling & Parquet floors』의 벽난로 설명에는 Marble이라는 단어가 다수 등장한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 벽난로의 외부장식인 소위 '멘틀' 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말궁중관계사진첩』,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등 고증사진을 살펴보면 여러 디자인의 벽난로가 나온다.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디자인이 나온다. 또 Maples & Co 카탈로그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진이 많이 있었다. 또 영국 런던 소재 AA School을 현지조사 할 때, Adams Classic 실내장식으로 된 고증사진 상의 1층 귀빈대기실 벽난로와 매우 흡사한 형태의 대리석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벽난로는 백색의 비앙코와 진녹색의 그린마블로 제작되어 있었다.

종합적으로 고증사진 상의 질감과 관련문헌, 현지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대리석(이탈리아산)을 재료로 선택하였고, 백색은 비앙코, 적색은 로즈베로나, 녹색은 그린마블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사진 3-201] 『한말궁중관계사진첩』. 1918

[사진 3-202] 『한말궁중관계사진첩』. 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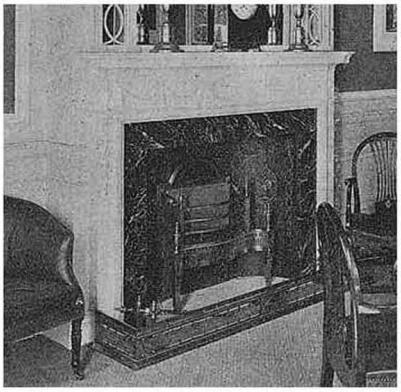
[사진 3-203] 『한말궁중관계사진첩』. 1918

[사진 3-204] 『한말궁중관계사진첩』. 1918

[사진 3-205]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

[사진 3-206]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

[사진 3-207] 『이왕가 덕수궁 진열 일본미술품 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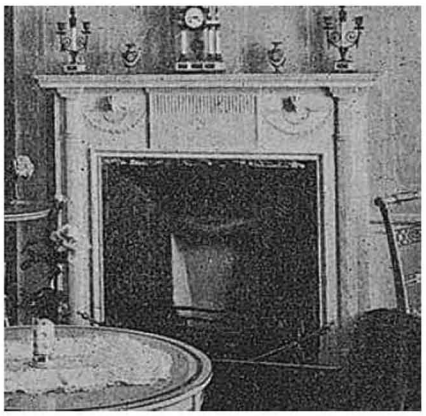


[사진 3-208] Maples & Co 카탈로그. 1910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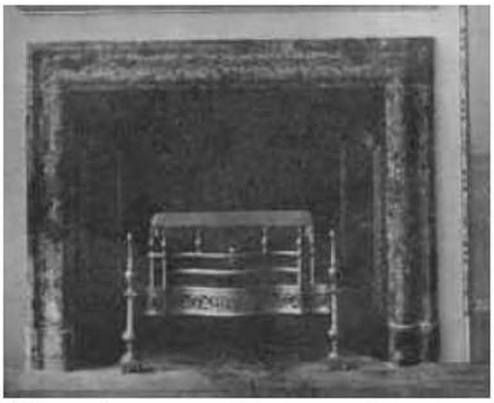
[사진 3-209] Maples & Co 카탈로그. 1910년경

[사진 3-210] Maples & Co 카탈로그. 1910년경

[사진 3-211] Maples & Co 카탈로그. 1910년경



[사진 3-212] Maples & Co 카탈로그. 1910년경



[사진 3-213] Maples & Co 카탈로그 1910년경

[사진 3-214] Maples & Co 카탈로그 1910년경

• **시공 :** 벽난로는 두 방향으로 제작 설치하였다. 하나는 고증사진 상에 보이는 벽난로를 제작하는 것이었고 나머지는 기성품 설치였다. 고증사진 상에 나오는 벽난로 재현은 문제없지만, 사진에 없는 벽난로는 임의적으로 디자인하여 설치해야 하고 그럴 경우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이 없는 벽난로는 기성품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컬러도 백색으로만 하게 되었다.

재현된 벽난로가 설치된 실은 1층은 접견실 2기, 중앙홀 2기, 귀빈대기실 2기, 대식당 2기이며 2층은 황제서재 1기로서 총 9개소에 재현 설치되었다. 재현을 담당한 석공팀은 구 목포일본영사관 보수 시 대리석 벽난로 복제 및 복원작업을 담당하였던 석공들로서 고증사진을 바탕으로 최대한 사진에 근접하여 현장에서 수작업하여 재현하였다.

고증사진 상에 나오는 벽난로를 설치하기 위해 우선 도면작업을 하였다. 도면은 투시도 역기법을 사용하여 벽난로의 높이와 폭을 산정하고 비례에 의해 세부수치를 찾아냈다. 이렇게 작성된 도면을 가지고 벽난로의 외부인 소위 '멘틀(Mantel)' 을 제작하였다. 멘틀을 구성하는 대리석은 사전에 디자인에 따라 커팅 또는 부착 등의 방법으로 조각하여 판 단위로 제작하였고 대리석판과 대리석판은 석재용 에폭시로 접합하였다.

화구는 1개를 제외하고 모두 현장에서 철판을 접어 단순한 형태로 하였다. 주문 제작된 화구는 1층 귀빈대기실 벽난로이다. 이 벽난로는 고증사진 상에 주물화구의 형태 및 문양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다. 화구는 목형으로 본을 만들고 이 목형으로 금형을 제작하고 주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2개소를 재현 설치하였다. 화구와 같은 철제는 주물시 많이 수축되기 때문에, 일반 황동 주물업체가 제작하기에는 정밀도가 떨어져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주물업체에 의뢰해서 제작하였다.

1층 귀빈대기실 벽난로는 상징성을 고려해 실제 불을 지필 수 있도록 하였다. 연도를 굴뚝까지 연결하여 실제 불을 지피면 옥상에 있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머지 벽난로는 불을 지필 수 없게 되어

있다. 만약 모든 벽난로에 불을 지필 수 있도록 한다면 연도를 연결해야 하는데 기존 연도를 해체하고 새롭게 설치하게 되면 조적벽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게 된다. 그나마 유일하게 원형이 유지되는 것이 조적벽인데, 이 조적벽을 해체한다는 것은 2차 훼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벽난로는 굴뚝까지 연결할 수 없었고 다만 벽난로를 설치하면서 이미 없어진 연도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연도 일부만 복원하였다. 1층 귀빈대기실 벽난로가 가능했던 이유는 없어진 벽을 새롭게 조적하면서 벽난로를 새로 만들 수 있었고 바로 위 2층 부분도 기존 벽체를 훼손하지 않고 벽난로와 연도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성품을 설치한 곳은 기존 마감재 해체 후 남아 있던 조적벽체에 벽난로와 연도 유구는 있으나 고증사진이 없어 재현이 불가능한 나머지 실들로 Maples & Co의 당시 카탈로그에 실린 사진 상의 벽난로들과 가능한 유사한 기성품 대리석 벽난로를 선별하여 20기를 설치하였다.

[사진 3-215] 1층 귀빈대기실 벽난로 - 제작 중

[사진 3-216] 1층 귀빈대기실 벽난로 - 설치 중

[사진 3-217] 1층 대식당 벽난로

[사진 3-218] 1층 중앙홀 벽난로

[사진 3-219] 1층 귀빈대기실 벽난로

[사진 3-220] 1층 동남1실 벽난로

[사진 3-221] 1층 동북1실 벽난로

[사진 3-222] 1층 소식당(서) 벽난로

[사진 3-223] 1층 소식당(동) 벽난로

[사진 3-224] 1층 접견실 벽난로

[사진 3-225] 1층 서쪽 복도 벽난로

[사진 3-226] 1층 서북1실 벽난로

[사진 3-227] 2층 응접실 벽난로

[사진 3-228] 2층 시종실3 벽난로

[사진 3-229] 2층 황제침실 벽난로

[사진 3-230] 2층 황제서재 벽난로

[사진 3-231] 2층 황후거실 벽난로

[사진 3-232] 2층 황후침실 벽난로

[사진 3-233] 2층 서북1실 벽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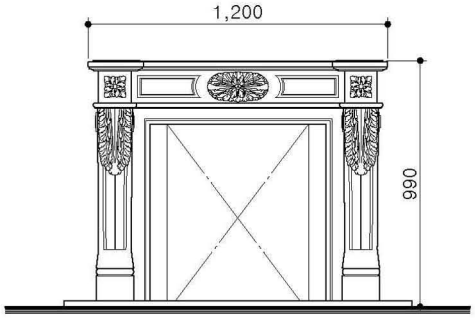
[사진 3-234] 2층 서쪽 복도 벽난로

[사진 3-235] 2층 시종실1 벽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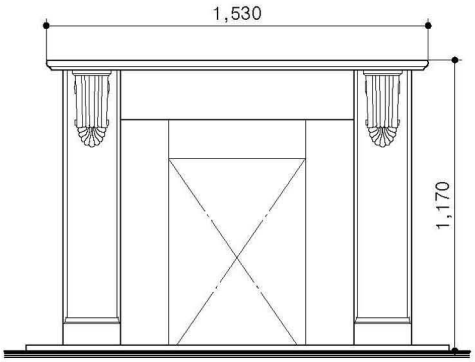
[사진 3-236] 2층 시종실2 벽난로

[사진 3-237] 지층 동남2실 벽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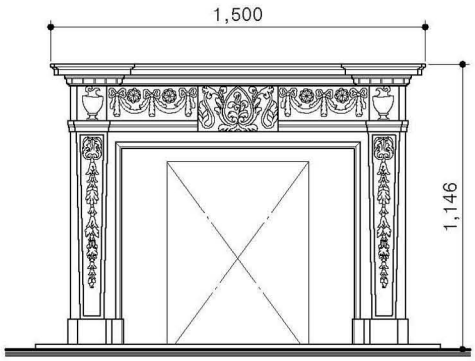
[사진 3-238] 지층 동남1실 벽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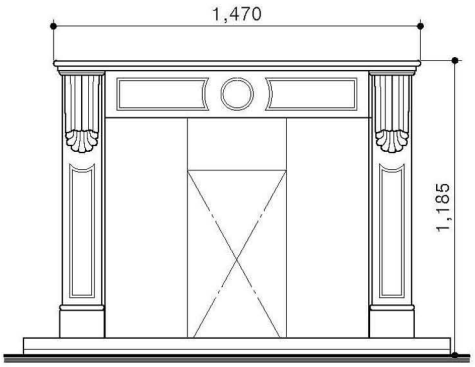
1층 동북1실,서북1실 벽난로 입면도(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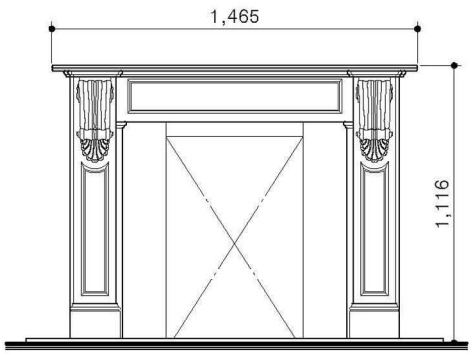
1층 동남1실 벽난로 입면도(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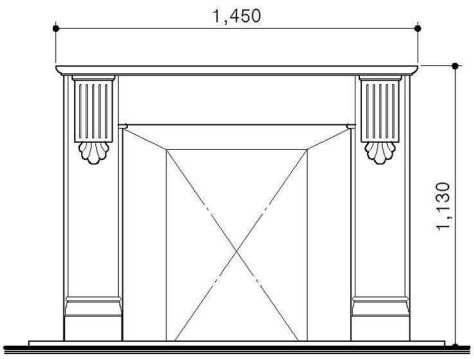
1층 소식당(동) 벽난로 입면도(C형)



1층 소식당(서) 벽난로 입면도(D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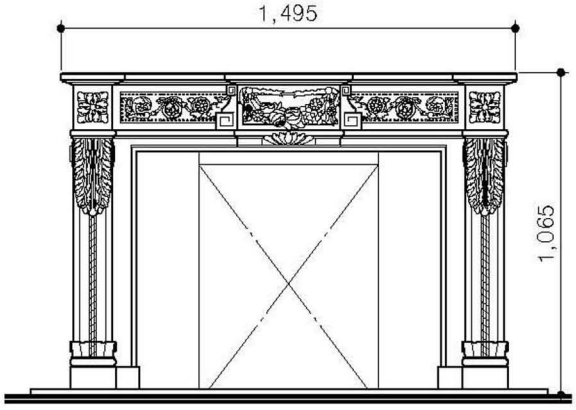


1층 동쪽 복도 벽난로 입면도(E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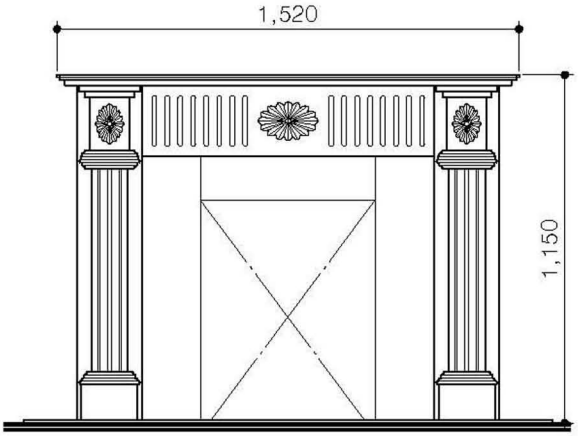


1층 서쪽 복도 벽난로 입면도(F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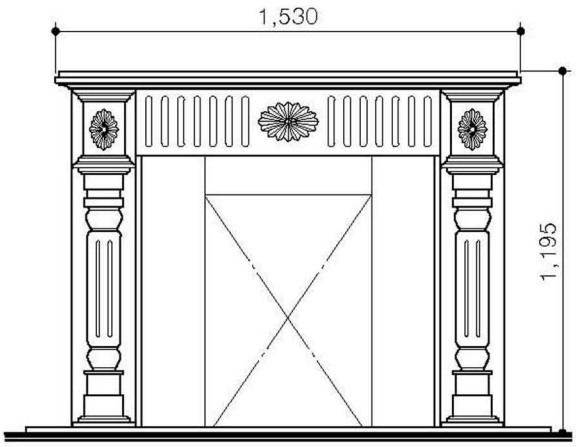
[도면 3-41] 1층 벽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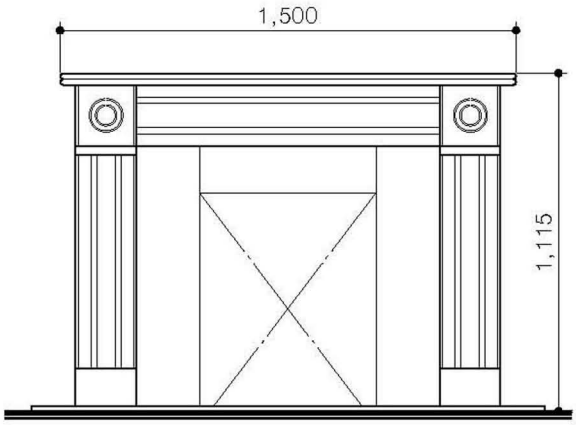
2층 시종실1,3 벽난로 입면도(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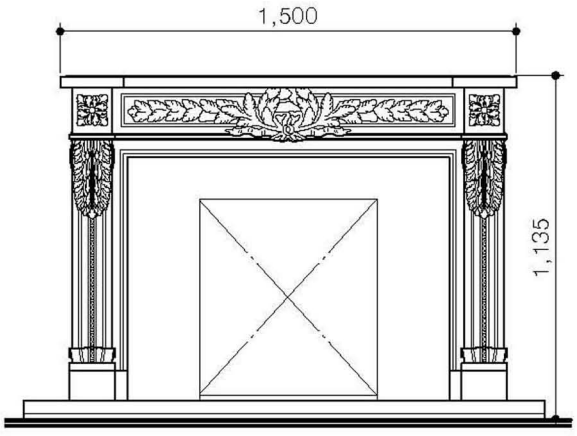
2층 시종실4, 응접실 벽난로 입면도(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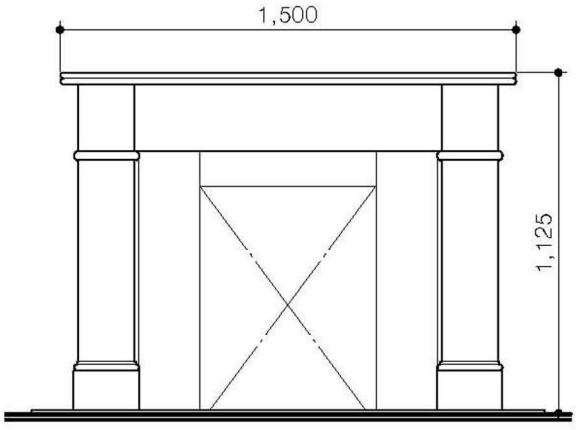
2층 동쪽 복도 벽난로 입면도(C형)



2층 서쪽 복도 벽난로 입면도(D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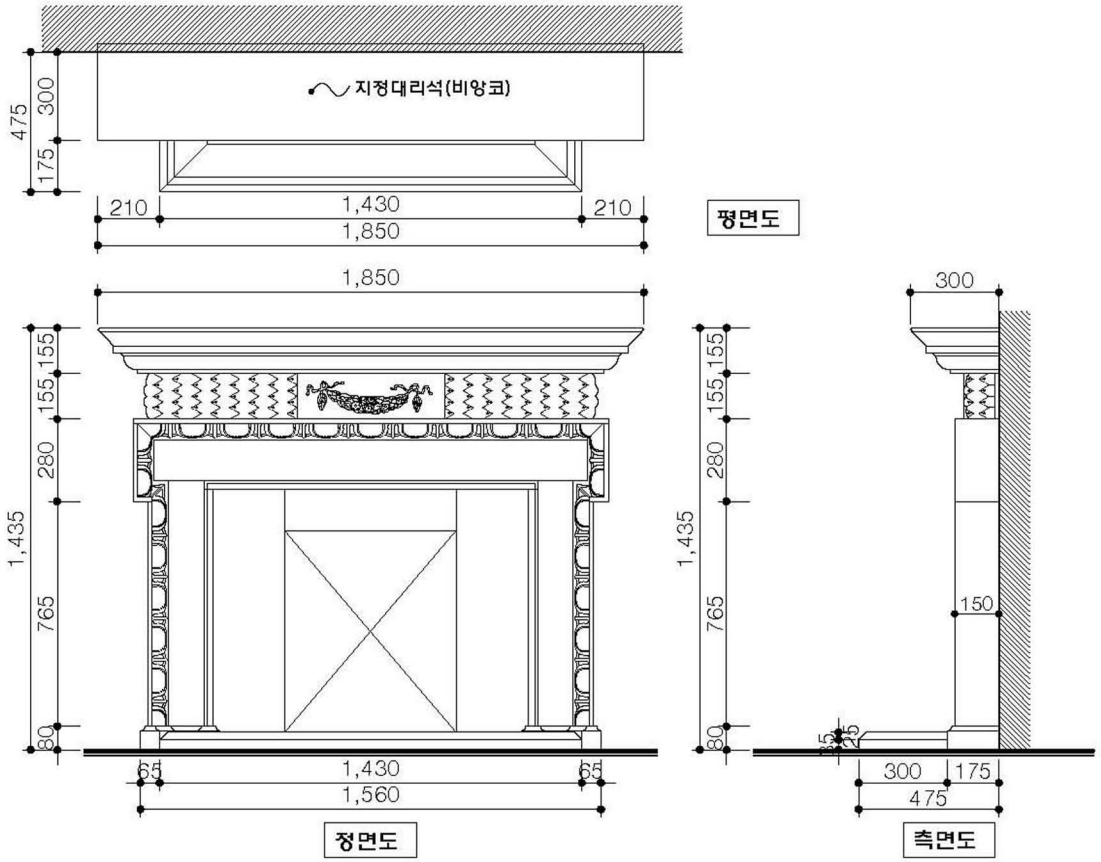


2층 동북1실 벽난로 입면도(E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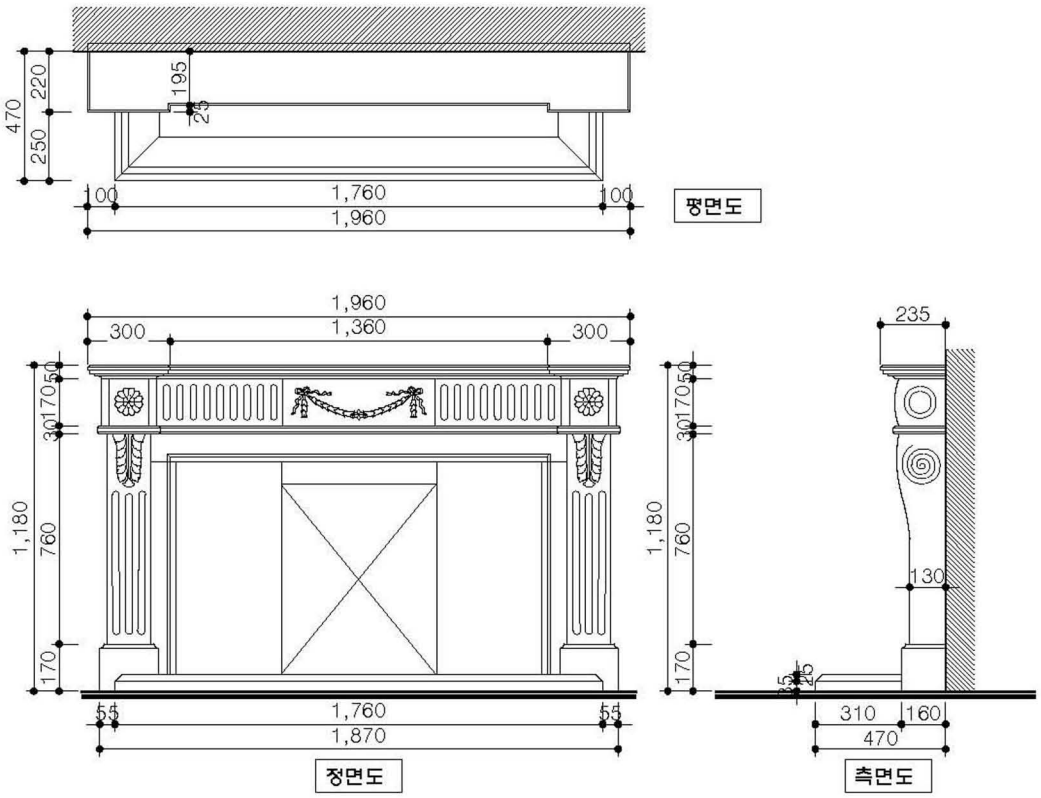


2층 서북1실 벽난로 입면도(F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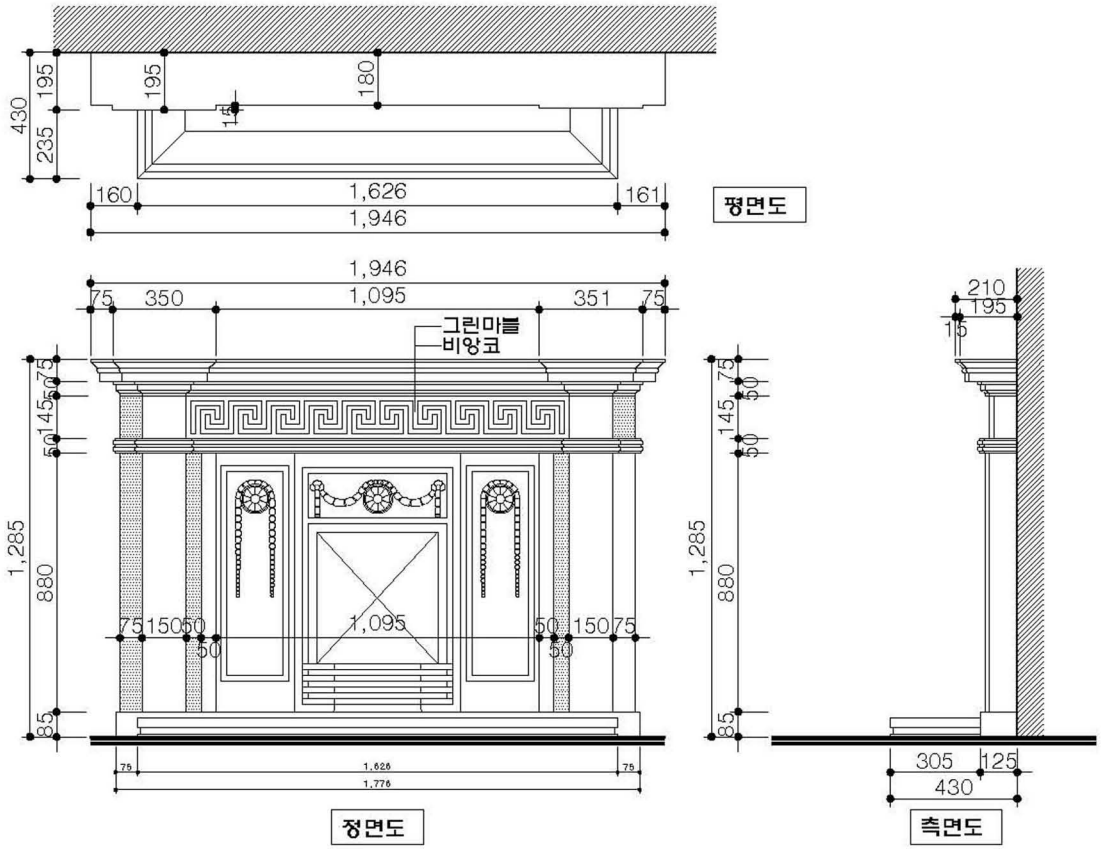
[도면 3-42] 2층 벽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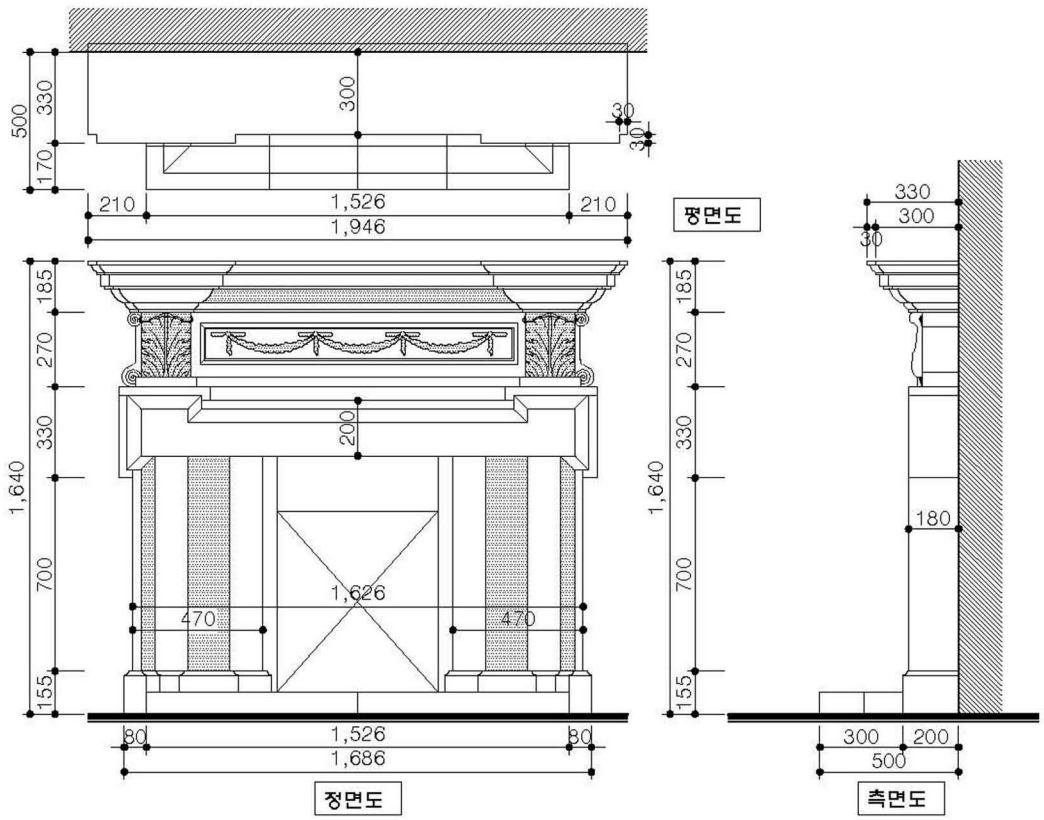
[도면 3-43] 1층 대식당 벽난로 상세도



[도면 3-44] 1층 접견실 벽난로 상세도



[도면 3-45] 1층 귀빈대기실 벽난로 상세도



[도면 3-46] 1층 중앙홀 벽난로 상세도

14. 창호공사

석조전 지층 수장고용 철재문 4개를 제외한 모든 창호와 1층, 2층의 창호는 모두 교체되었다. 기존에는 철재와 컬러알루미늄,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오크목과 철재로 된 창호로 총 291개를 교체하였다. 고증사진에 의하면 애초 창호는 철재와 목재로 되어 있었다. 철재창호는 외부창호이고 목재창호는 내부창호에서 사용되었다.

[표 3-18] 석조전 창호 교체 수

층수	위치	목재		철재		황동	기타	비교체	계
		판문	살창	문	창	문	문	문	
지층	외부	-	-	10	50	-	-	-	89+4
	내부	19	1	5	-	-	4	4(수장고)	
1층	외부	-	-	18	32	3	-	-	101
	내부	22	21	5	-	-	-	-	
2층	외부	-	-	19	31	-	-	-	101+6
	내부	35	15	-	-	-	1+6(문틀)	-	
계		76	37	57	113	3	5+6	-	291+10

1) 내부창호

• **창호 선정** : 고증사진에 의하면 내부창호는 판문과 창살문의 2가지 형식의 목재창호로 설치되어 있었다. 그 중 창살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창살문의 경우는 다시 2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유리를 사용한 것과 또 하나는 일부 거울을 사용한 것으로 나눠진다. 유리 대신에 거울을 사용한 위치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1층 대식당, 귀빈대기실, 접견실, 2층 시종실3과 시종실4로 Georgian Style의 특징인 벽면 구성 상 좌우 대칭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식용 가짜문(헛문)을 설치한 경우이고 둘째는 1층 접견실, 중앙홀로 유리를 사용할 경우 뒷면의 내부마감이 노출되어 이를 막기 위한 경우로 분석되었다.

[사진 3-239] 『한말궁중관계사진첩』. 1918. - 거울살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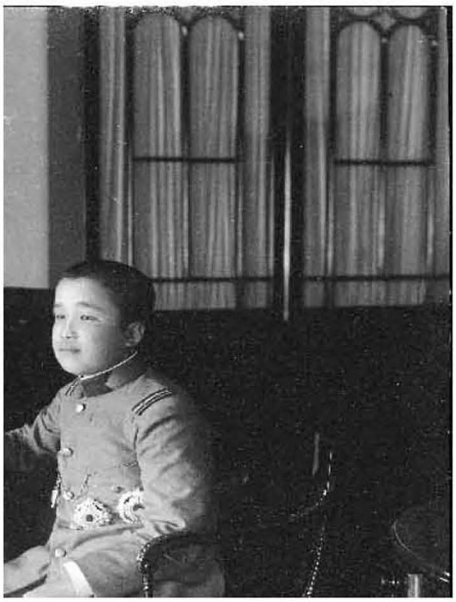
[사진 3-240] 『한말궁중관계사진첩』. 1918. - 유리살창문

[사진 3-241] 『한말궁중관계사진첩』. 1918. - 유리살창문

[사진 3-242]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 - 유리살창문

[사진 3-243]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 - 유리살창문

[사진 3-244]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 - 유리살창문



[사진 3-245]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 - 유리살창문

[사진 3-246] 『한말궁중관계사진첩』. 1918. - 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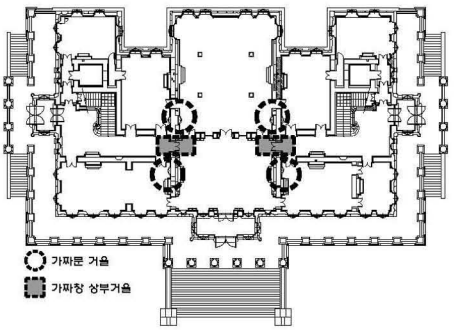
[사진 3-247] 『한말궁중관계사진첩』. 1918. - 유리살창문

[사진 3-248] 국가기록원. 1948. - 유리살창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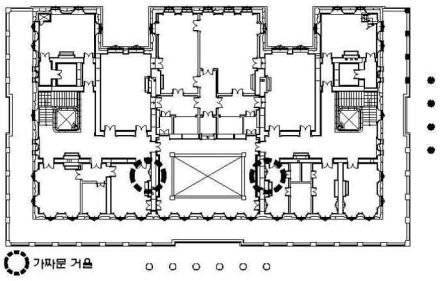
[사진 3-249]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 - 문 상부 고정창에는 거울을 사용했고 하부 여닫이문 창살에는 유리를 사용하고 자유 정첩을 사용했다.

[사진 3-250] 『한말궁중관계사진첩』. 1918. - 장식용 가짜문에 거울을 사용했고 좌측에 열린 판문이 일부 보이고 레버손잡이 사용했다.

[사진 3-251]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 - 유리를 사용한 창살문과 고정손잡이가 보인다.



[도면 3-47] 1층 거울문 위치도



[도면 3-48] 2층 거울문 위치도

• **시공** : 창호의 형태와 치수는 고증사진 상에 나타난 창호의 형태를 바탕으로 마감재 해체 후 드러난 개구부 치수를 감안, 도면을 작성하여 공장제작하여 반입 설치하였다. 재료는 마루와 소식당(서) 벽체장식에 오크목재를 사용한 점을 고려해 창호용 목재도 오크목재로 선정하여 제작 설치하였다. 두께는 40㎜로 하였다.

창호철물은 고증사진에 일부 보이는 것이 있어 유사한 형태의 기성품을 선정하였다. 철물은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웠다. 예전 것을 구하기 어려웠고 비슷한 것을 구한다 해도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과연 석조전에 사용된 창호철물이 국내산이란 보장이 없었다. 고증사진 상에 나오는 창호철물의 종류와 당시 기술로 볼 때 국내산을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외국산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고정식 손잡이는 영국 답사 시에 구입한 영국의 A&H BRASS사의 것을 사용하였고 레버식 손잡이와 자재문의 자유경첩은 독일 HÄFELE 제품을 수입하여 설치하였다. HÄFELE 제품은 내구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여닫이문의 경첩은 국내산을 사용하였다. 영국의 A&H BRASS에서는 그 외 Slide Bolt와 Classic Style 전기스위치도 수입하여 설치하였다. 고증사진 상 거울을 사용한 위치에는 동일하게 거울을 사용하여 창호를 설치하였다.

[사진 3-252] 오크 목재창호 제작 반입

[사진 3-253] 오크 목재창호 설치 완료

2) 외부창호

• **창호 선정** : 기존 외부 출입구는 스테인리스문이고 그 외 외부창호는 알루미늄 고정창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고증사진에 의하면 철재로 되어 있고 고정창이 아닌 여닫이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미술관으로 전용되면서 접견실을 제외한 모든 외부창호에 변형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하정웅이 기증한 영친왕 사진에 의하면, 2층 회랑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금속창호로 보이는 출입문이 회랑 쪽으로 열린 모습이 보이며, 공사 진행 중 추가 발견된 영친왕 사진에도 해당 창호가 열려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1층 창문이 열려 있는 모습도 있는데 석조전의 당초 용도가 거주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개방형 창호를 설치한 것은 당연하다.

한편, 1938년 오다쇼코(小田省吾)의 『덕수궁사』, 1963년『大成建設社史』, Crittall & Co의 1893년, 1896년, 1911년, 1912년의 카탈로그 표지와 『*WINDOW VISION(Crittall History)*』(1989)의 내용 등으로 볼 때 석조전 외부창호는 Crittall & Co가 공사했을 가능성이 높고 창호도 철재로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외부창호 재료는 철재로 하고 여닫이로 결정하였다.[3장. 9. 수장공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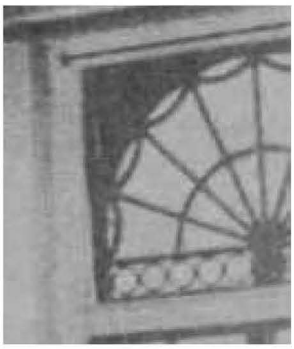
한편, 1911년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과 1933년『조선과 건축』, 1947년 *LIFE*지 사진을 보면 외부창호 상부가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아치형 장식창이 있었던 것이 보인다. 아마 이후 전시관으로 운영되면서 전체적으로 창호가 교체되어 창호 디자인이 변경 되면서 고정창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1층 출입문과 관련된 고증사진을 살펴보면 다른 창과 약간 다른 면을 확인할 수 있다. 문 밑의 궁판 부분은 다른 창호와 달리 색상이 연하다는 느낌이 있고 얼룩얼룩 거린다는 느낌이 있다. 황동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부식되면서 청녹색으로 변하게 된다. 이때 기존 황색과 섞이게 되는데 이때 얼룩거리는 느낌이 생긴다. 한편 일본이나 영국의 근대건축물 경우, 주 출입구는 동계열로 되어 있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점을 종합한 결과 1층 출입문은 황동으로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황동으로 마감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진 3-254]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 - 2층 회랑 쪽으로 열린 창문이 보인다.

[사진 3-255]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 - 2층 회랑 쪽으로 열린 창문의 커튼과 철물이 보인다.

[사진 3-256]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 - 창 상부에 아치형 창살이 보인다.



[사진 3-257] 『조선과 건축』. 1933. - 창 상부에 아치형 창살이 보인다.

[사진 3-258] 1947년 *LIFE*지 - 창 상부에 아치형 창살이 보인다.

[사진 3-259] 2009년 당시 - 아치형 창살이 없다.

[사진 3-260] 1911년.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에서 보이는 1층 출입문 하부

• **시공** : 각 층 외부 창호의 틀 재료는 철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창호 구조는 당시 Crittall & Co의 창호단면을 일부 참고하였다. 창호문틀 두께는 50㎜로 하였고 폭은 150㎜로 하였다. 다만 주출입구 문틀은 문이 너무 커서 문틀 두께를 100㎜로 하였다. 철문 울거미는 두께를 30㎜로 하였고 폭은 창호 크기에 따라 50㎜, 70㎜로 하였다. 다만 주출입구 철문 울거미는 두께를 70㎜, 폭은 90㎜를 사용하였다. 철재 창호 마감은 흑색 락커칠하고 열처리하였다.

창호 철물 중에서 중요한 것이 손잡이와 잠금장치이다. 잠금장치는 영국 A&H BRASS사의 슬라이드볼트(Slide Bolt)를 사용하였다. 일본과 영국 답사 결과 잠금장치는 크게 두 종류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는데 슬라이드볼트와 크레모네볼트(Cremone Bolt)이다. 그런데 석조전에 어떤 것이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어 이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슬라이드볼트를 사용하였다. 손잡이는 레버식 손잡이로 하였는데 잠금장치는 없는 장식용으로 황동으로 주물 · 제작 설치하였다.

이 손잡이와 잠금장치가 설치 완료된 후에 사진이 몇 장 발견되었다. 이 사진에 창호철물이 자세히 나온 부분이 있었다. 이 사진에 의하면 잠금장치 겸 손잡이로 크레모네볼트(Cremone Bolt)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크레모네볼트로 설치하려 했으나 이미 설치된 손잡이가 간섭이 되어 설치가 곤란했고, 손잡이를 제거할 경우 설치 시 생긴 나사구멍이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일단 레버식 손잡이와 슬라이드볼트를 유지하고 추후 보수공사가 이루어질 때 교체하기로 하였다.

[사진 3-261] 슬라이드볼트 설치

현관문은 황동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중앙현관의 궁판 몰딩은 고증사진 상의 형태를 도면화한 후 별도로 황동주물로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유리는 당시에는 맑은 유리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단열성능을 위하여 16㎜ 페어글라스를 사용하였다.

[사진 3-262] 아치형태 장식 창문 제작 설치

[사진 3-263] 중앙현관 창호 제작 설치

15. 2층 황제서재 · 황후거실 · 욕실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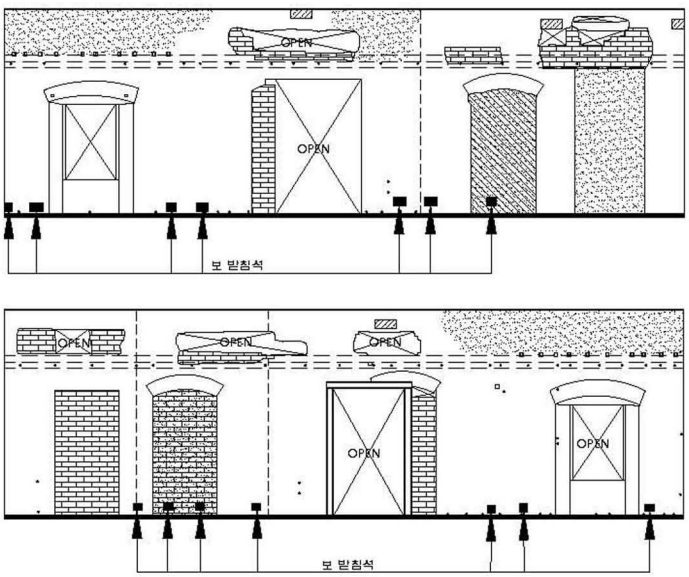
1) 바닥공사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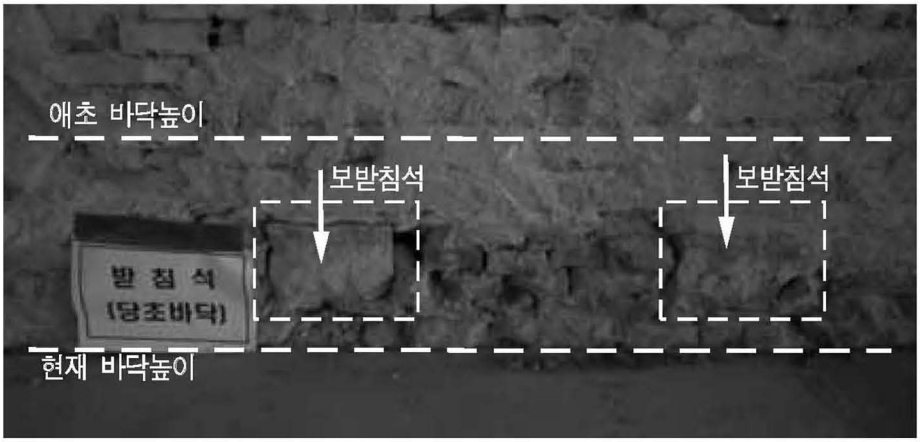
• **개요 :** 2층 황제서재 · 황후거실 · 욕실은 공사 전 바닥보다 400㎜ 높게 설치하였다. 바닥 높이가 높아진 이유는 공사 초기 벽체마감 해체 후 발견된 흔적과 고증사진을 분석한 결과, 2층 황제서재 · 황후거실 · 욕실 부분만 바닥이 높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를 원래대로 400㎜ 정도 높게 설치하려면 슬라브를 철거하고 다시 재설치해야 한다. 이럴 경우 건물 구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 슬라브를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바닥을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

• **바닥 높이 변경 흔적 발견 :** 공사 초기에 2층 황제서재 · 황후거실 · 욕실 벽 마감 회몰탈을 해체하는 와중에 동쪽 벽과 서쪽 벽 하부에서 특이한 흔적을 발견했다. 석재로 된 보받침석이었다. 석조전에서는 아치형철판 콘크리트 슬라브를 구성하기 위해 I-Beam을 조적벽에 걸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바로 벽돌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화강석으로 된 보받침석을 벽돌과 같이 쌓고 이 위에 걸치게 되어 있었다. 즉, I-Beam 설치용 보강재가 보받침석인 것이다. 벽돌은 깨질 가능성이 높아 화강석을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 보받침석은 벽 하부쪽에 대략 660㎜ 정도의 등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원래 바닥이 지금 바닥보다 높았을 것이라는 반증이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유독 이곳에서만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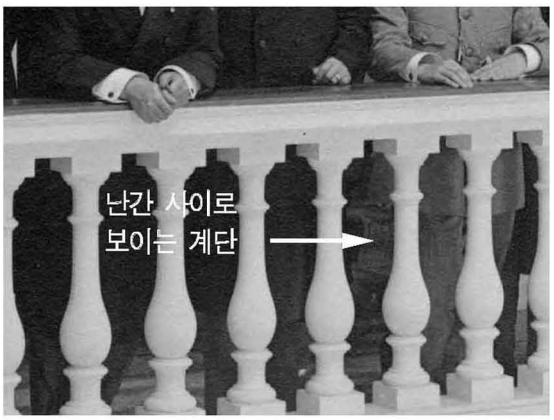


[도면 3-49] 보받침석 위치도



[사진 3-264] 벽마감 해체 후 발견된 2층 황제서재・황후거실・욕실 보받침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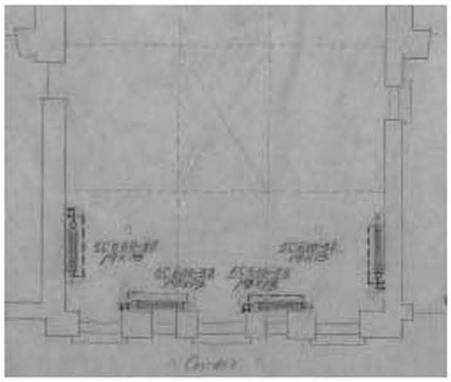
• **고증사진 검토** : 그러나 이 사실만 가지고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고증사진을 확인해 보았다.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중에 2층 홀에서 난간을 앞에 두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에서 2가지가 확인되었다. 하나는 난간 사이에 희미하게 보이는 계단이고 또 하나는 사람 머리 높이에서 보이는 문 손잡이였다. 난간 사이에서 보이는 계단은 두 단 정도가 보였다. 사람 머리 높이에서 보이는 문손잡이는 계단을 올라서 잡을 수 있는 정도였다. 이로써 2층 황제서재・황후거실・욕실 바닥은 복도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갈 만큼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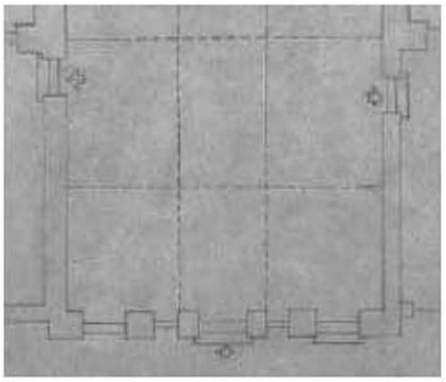
[사진 3-265]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 - 난간 사이로 계단이 보인다.

[사진 3-266]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 - 방문 손잡이 높이

• **도면 검토** : 한편 다른 도면에는 없지만 국가기록원에서 발견된 도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2층 황제서재・황후거실・욕실 출입구에 계단이 표시된 것이 있었다. 이는 분명히 계단이 있을 정도로 바닥 높이가 높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 2층 바닥 높이를 복도보다 높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림 3-99] 방열기 증설공사 설계도. 2층 평면도. 국가기록원. - 계단이 보인다.



[그림 3-100] 급수급탕위생배수설계도 2층 평면도. 국가기록원. - 계단이 보인다.

나. 시공

• **개요** : 2층 황제서재 · 황후거실 · 욕실 바닥 높이를 원래대로 올리기로 결정했지만 문제가 있었다. 기존에 있었던 바닥 처리 문제였다. 애초대로 하려면 바닥을 해체하고 다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 해체로 인해 기존 조적벽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틈새를 메워야 하며 바닥 설치를 위해 조적벽 일부를 철거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해체하기보다는 기존 바닥을 존치하고 추가로 바닥을 올려 설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 **시공** : 바닥 높이를 높이는 기본 공법은 건식공법으로 하기로 했고 목재를 이용하기로 했다. 목재로 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합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우선 몰탈로 바닥고르기를 하였다. 고르기 된 바닥에 두께 120㎜, 춤 240㎜ 되는 목재를 1,200㎜ 간격으로 세워서 멍에를 설치하였다. 이 멍에와 바닥사이에는 방진 패드를 설치하였다. 설치된 멍에 위에 직교하여 두께 60㎜, 춤 210㎜되는 장선을 400㎜ 간격으로 깔았다. 멍에와 장선은 턱맞춤하였다. 장선이 설치된 후에 장선의 비틀림을 막기 위해 두께 60㎜, 춤 120㎜되는 소위 '블로킹' 이라는 부재를 장선과 장선 사이, 멍에 바로 위에 같은 방향으로 설치하여 흔들림이 없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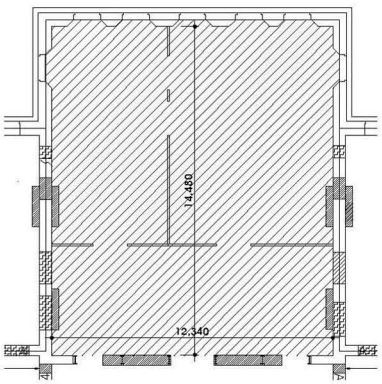
장선 위에 두께 12㎜ 합판을 목공용 본드와 나사로 고정하고 그 위에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 방습지를 포설하였다. 방습지 위에 다시 두께 12㎜ 합판을 설치하였다. 계단도 목재로 제작하였다. 두께 60㎜ 되는 옆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두께 60㎜되는 챌판과 디딤판을 설치하였다. 목재는 목재 부식과 건조수축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북미산 방부목으로 사용하였다.

[사진 3-267] 멍에와 장선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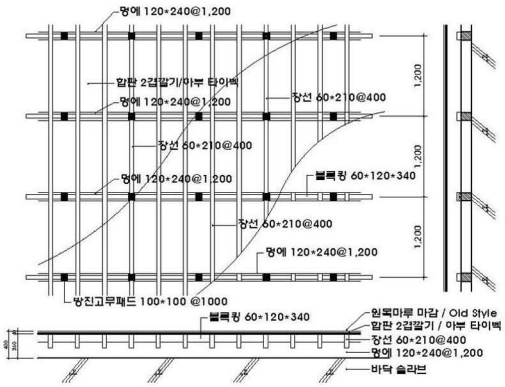
[사진 3-268] 완료된 멍에와 장선

[사진 3-269] 장선 위 합판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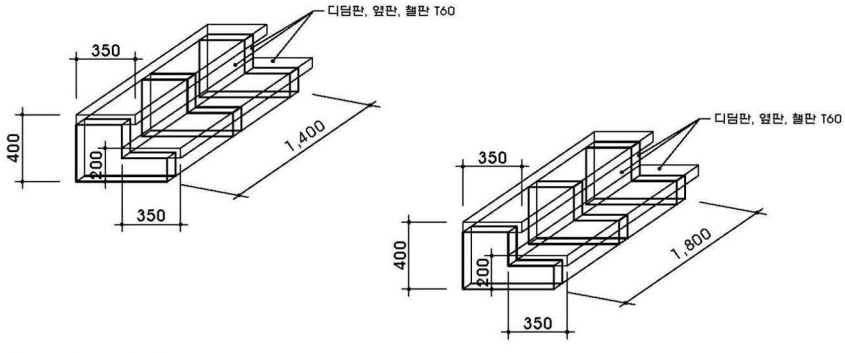
[사진 3-270] 합판 위 방습지와 합판설치



[도면 3-50] 2층 황제서재 · 황후거실 · 욕실 바닥설치공사



[도면 3-51] 바닥 설치 상세도



[도면 3-52] 계단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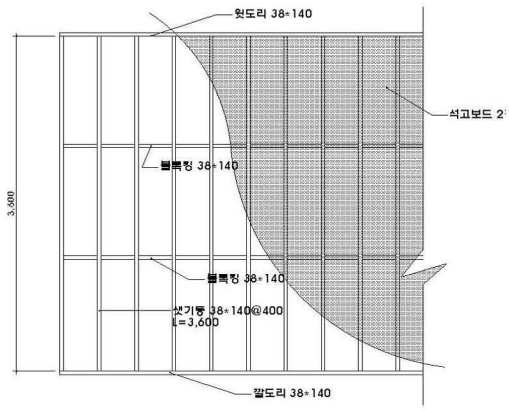
2) 칸막이공사

• **개요** : 2층 황제서재・황후거실・욕실에 칸막이벽공사를 하였다. 벽 마감 회 몰탈을 벗겨 낸 후 확인된 벽체의 벽돌 물림 흔적과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에서 확인된 칸막이벽 흔적, 『조선과 건축』에 기록된 황제서재・황후거실・욕실의 규모, 그리고 하마마츠시립도서관 소장 도면을 참조하여 목재로 칸막이벽을 설치하였다.[3장. 2 평면복원. 3)2층 평면복원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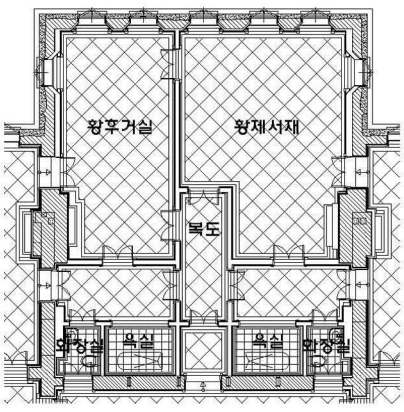
• **시공** : 애초 벽체는 벽돌로 된 조적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공은 목재로 하였다. 목재로 한 이유는 하부구조에 대한 하중 증가 부담 때문이었다. 하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재구조틀을 사용하여 설치하였다. 목재는 2″ ×6″ 목조건축 구조용 북미산 건조목을 사용하였다. 목재구조틀을 설치하기 위해 기설치 완료한 목상 바닥 위에 38×140㎜(2″ ×6″) 깔도리를 설치하였다. 깔도리에 같은 크기 부재로 샛기둥을 400㎜ 간격으로 세우고 샛기둥 사이에 기둥이 고정되도록 같은 크기의 부재를 재단하여 끼워 넣어 고정하였다. 천장과 만나는 부분에는 같은 크기의 부재로 윗도리를 설치하였다. 목재 간 고정은 나사를 사용하였다. 설치된 바탕 구조틀 위에 두께 9.5㎜ 석고보드 2매를 목재용 본드와 나사를 사용하여 부착하였다. 전기, 통신 등 설비용 배관은 목재구조틀 내부에 설치하였다. 황제서재와 황후거실 전실에 추가 구획된 부분은 마감재인 타일 부착을 위하여 내수합판을 부착하였다.

[사진 3-271] 칸막이벽 목재구조틀 설치

[사진 3-272] 완료된 칸막이벽



[도면 3-53] 2층 칸막이벽 상세도



[도면 3-54] 완료된 2층 황제서재・황후거실・욕실 평면도

16. 2층 중앙홀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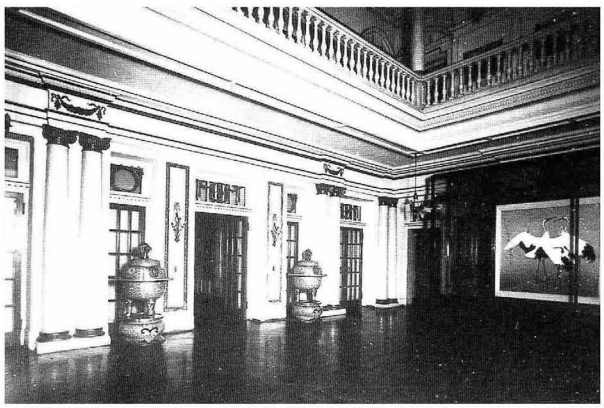
1) 난간공사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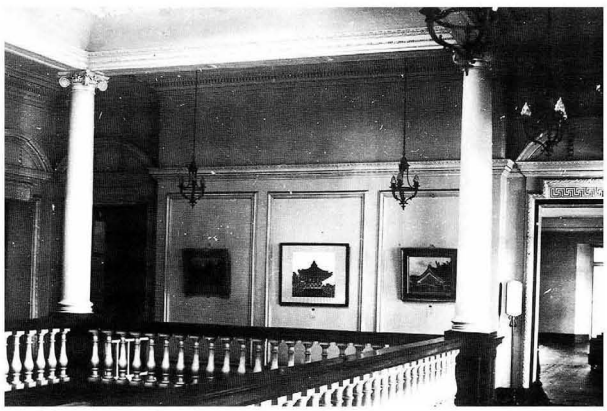
• **개요** : 1층 중앙홀 상부, 2층 중앙홀에는 난간이 있다. 1층 상부, 2층 바닥 일부가 뚫려 있기 때문이다. 공사 전 이 난간은 철재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고증사진 자료를 보면 호리병모양의 동자주형 난간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철재 난간을 철거하고 동자주형 난간으로 교체 설치하였다. 더불어 애초 설치되어 있던 기둥도 복원하였다.

• **사진 분석** : 2층 중앙홀 난간 구성을 알 수 있는 사진은 1층 중앙홀에서 올려다보며 찍은 1933년 『조선과 건축』 사진과 1934년 『조선』, 1938년도의 『궁·능관련유리원판도록』 사진이 있고, 2층에서 찍은 사진은 1911년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이 있다. 2층에서 찍은 사진 중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은 출판물에 수록된 것이라 해상도가 상당히 좋지 않았고, 『궁·능관련유리원판도록』 사진의 형태가 잘 나와 있어 참고할 만하였다. 이 사진에 의하면 해당 사진에서 동자주는 백색계열이었으나 손스침은 검은색계열로 보였다. 그러나 재료나 모양을 명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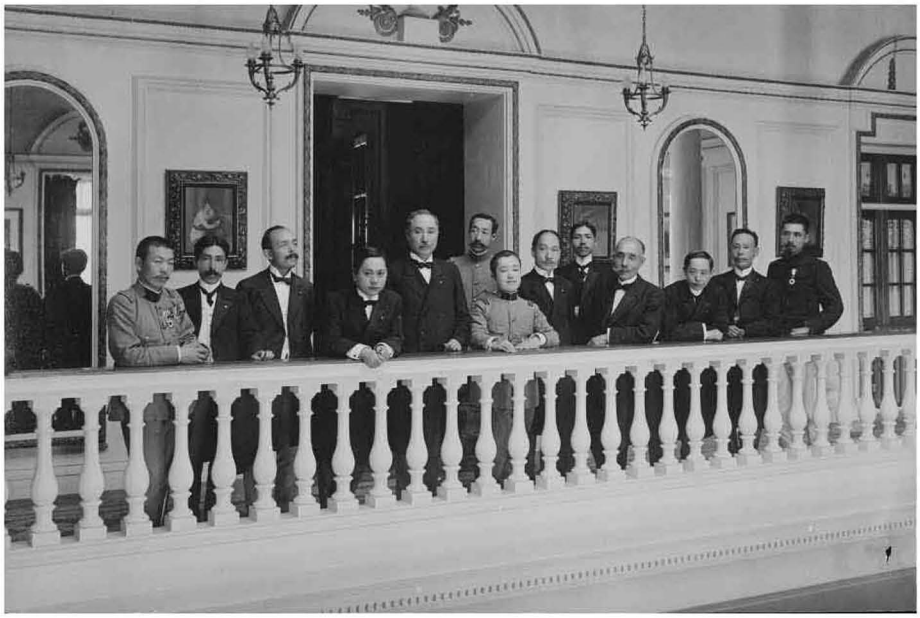
그런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영친왕 사진 출판물 수록본의 원본이 발견되었다. 원본의 해상도는 양호한 상태였다. 이 사진으로 보면 동자주와 손스침이 모두 흰색계열로 나타나 있었다. 1938년 『궁·능관련유리원판도록』 사진과 차이가 있었다. 사진 촬영년도로 볼 때 1938년도 사진의 검은색 계열 손스침은 일제강점기 미술관 전용 시에 도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사진 3-273] 1938년 『궁·능관련유리원판도록』 속의 난간



[사진 3-274] 1938년 『궁·능관련유리원판도록』 속의 난간



[사진 3-275]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속의 난간. 1911.

난간의 재질에 대하여는 사진 상으로 판별이 곤란하였고, 기록 또한 찾을 수 없어 영국의 English Heritage 재단에 복원공사 전·후 사정과 함께 난간의 재질에 관한 질의를 메일로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다. 대리석의 경우와 목재 위 도장, 2가지 경우를 놓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견이 있었으나 자문회의에서 목재 위 도장으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흰색 비앙코 계열 대리석에 나타나는 회색 음영이 사진 상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손스침에 도장하여 보수하는 일은 통상적으로 대리석 난간에는 행해지지 않고 목재 난간에서 행해지는 일이라는 점이 감안되었다. 다만, 난간 동자주의 받침 부분만은 관람객들의 신발이 닿는 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비앙코 대리석으로 설치하여 마모와 오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시공

• **개요 :** 공사를 위해 기존 난간을 철거하였다. 동자주와 손스침 등은 사진을 준용하여 설치하였다. 투시도 역기법을 이용해 난간 높이를 산출했는데 그 높이가 낮은 편이었다. 난간은 2층에 있었고 층고가 4m가 넘어 관람객이나 어린이들의 추락 등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고예방을 위하여 난간높이는 1.15m로 하였다. 또 동자주와 동자주 사이로 어린이의 머리가 통과할 수 없는 간격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동자주의 개수는 사진과 동일하게 하였다. 동자주는 동쪽과 서쪽 각각 22개씩 44개이고 남쪽과 북쪽은 각각 38개씩 76개이다. 난간 동서방향 길이는 동자주를 기준으로 8,367㎜이고 남북방향 길이는 5,023㎜이다.

난간 모서리에 있는 기둥도 복원하였다. 고증사진 상에 있는 기둥을 복원한 것인데 이 기둥은 장식 기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1층에는 이를 받아주는 기둥이 없기 때문이다. 기둥은 배흘림으로 되어 있고 상부는 이오니아주두로 되어 있다.

• **난간 시공 :** 기존 철재 난간을 철거하고 난 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H빔 구조물 측면에 50×50㎜ 철재파이프를 용접하여 설치하였다. 이 파이프를 바탕으로 석고로 성형한 마감용 석고판 몰딩을 난간 하부 벽에 설치하였다. 몰딩은 사진에 나와 있는 대로 선형과 덴틸형으로 하였다. 후레싱 폭이 넓어 3개로 나누어 결합시켰다.

난간동자를 설치하기 전에 우선 H빔 위에 100×100㎜ 철재 각파이프를 용접하였다. 이 각파이프는 동자난간을 설치하기 위한 바탕재 역할을 하는데 이 각 파이프에 지름 22㎜ 철재 원형파이프를 동자 수만큼 용접하여 설치하여 동자를 끼울 수 있게 하였다. 동자를 끼워 설치한 후에 동자 위에 목재로 만든 손스침을 설치하였다. 손스침은 동자와 긴결성을 높이고 손스침의 이탈이나 변형을 막기 위해 동자 위, 손스침 하부에 두께 5㎜, 폭 38㎜되는 평철 2개를 설치하였다. 평철과 손스침은 나사로 연결하였다. 또 손스침과 동자의 연결 또한 난간 하부처럼 지름 22㎜ 철재 원형파이프를 설치하여 끼웠다. 손스침은 폭 280㎜이고 두께는 150㎜이다.

목재수종은 흰색 페인트 도장을 하는 점을 감안하여, 오크목재와 물성 및 목재의 결이 유사하나 경제성을 가지는 물푸레나무(Ash Wood)로 선정하여 제작하였다. 난간 하부 걸레받이는 두께 30㎜ 비앙코 대리석 판석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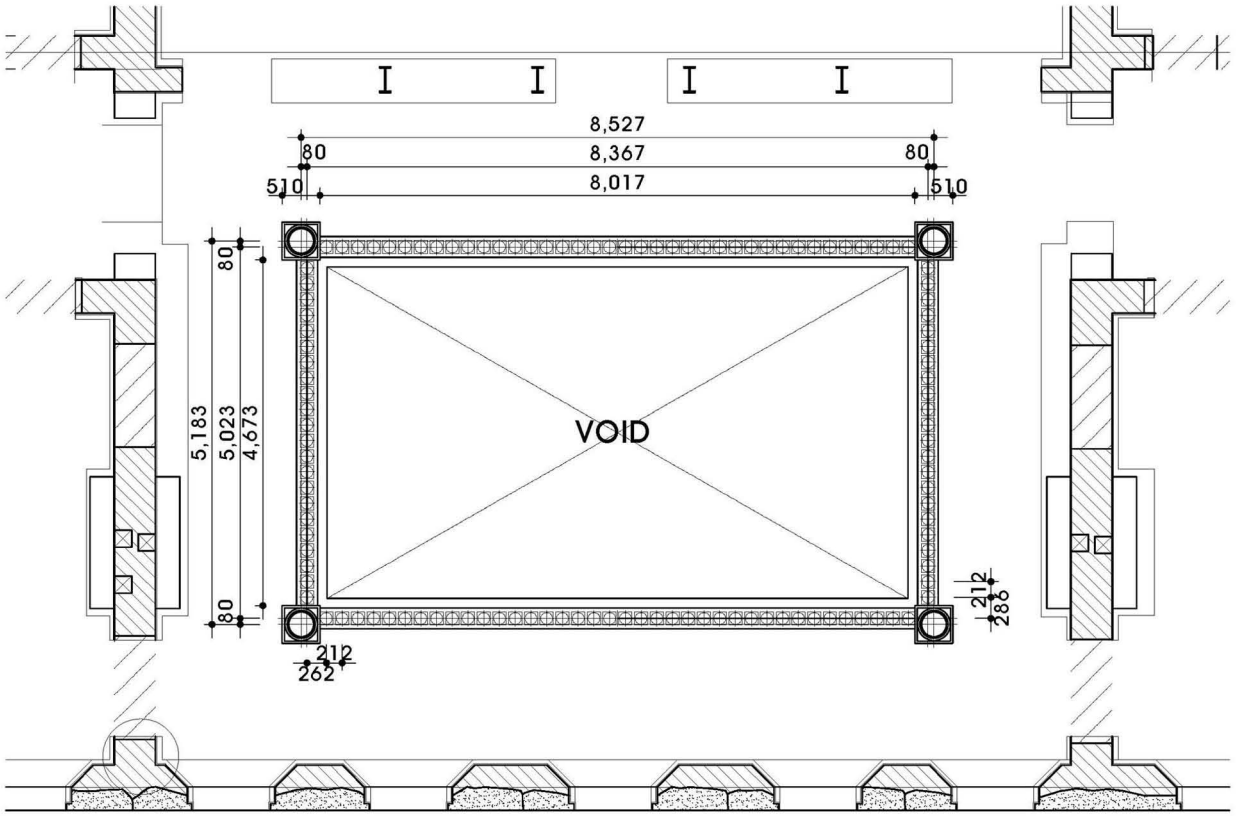
• **난간 기둥 시공 :** 난간 모서리에 있는 기둥은 철재 각파이프로 틀을 짜고 그 틀에 오크목과 석고를 붙여 완성하였다. 하부는 사각형이고 상부는 원형으로 하였다. 바탕이 되는 틀은 50×50㎜ 철재 각 파이프를 용접하여 직육면체로 만들었다. 사각형으로 된 하부 쪽은 사면에 두께 20㎜인 오크목을 붙였다. 원형의 상부는 석고로 성형하여 만들었는데 반원통형으로 석고 성형된 판 2개를 접합하였다. 바탕틀과 석고 사이에 각재를 대고 나사못으로 연결하였다. 접합부 흔적을 없애기 위해 석고 퍼티를 하였고 상부에 있는 이오니아주두 또한 석고성형하여 설치하였다. 이 성형판을 바탕틀에 나사못으로 연결하였다. 석고와 오크목에는 백색으로 도장하였다. 기둥 하부 사각형 받침대는 기본 크기가 450×450㎜이고 상부 원형 부분의 지름은 하부가 340㎜이며 상부 지름은 290㎜로 배흘림을 주었다. 기둥 크기는 투시도 역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사진 3-276] 난간 설치 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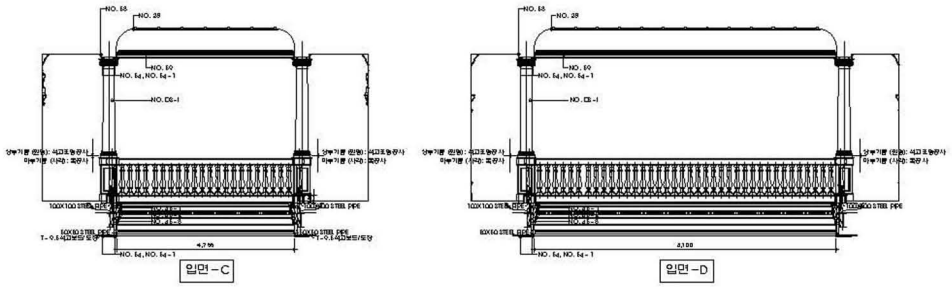
[사진 3-277] 난간동자 설치

[사진 3-278] 손스침 하부 평철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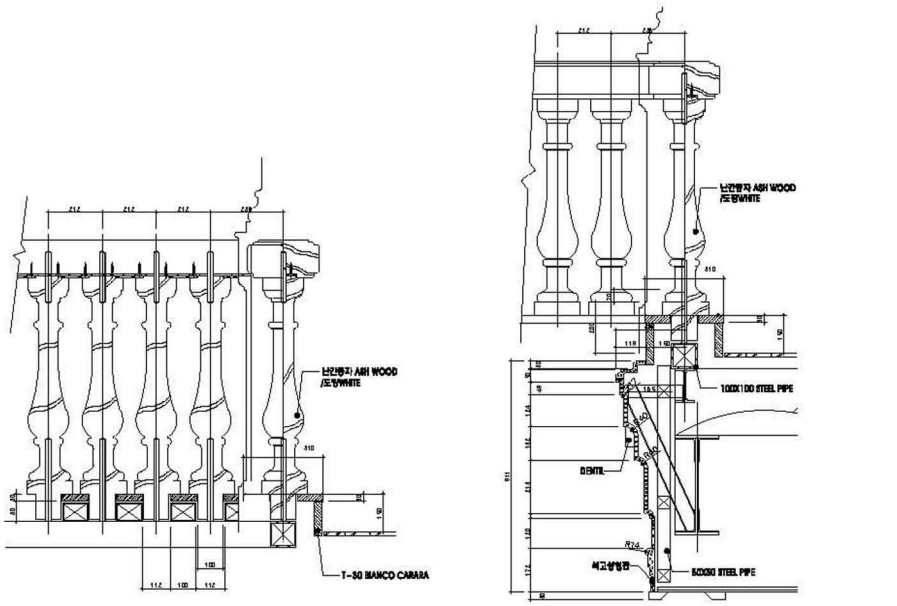
[사진 3-279] 완료된 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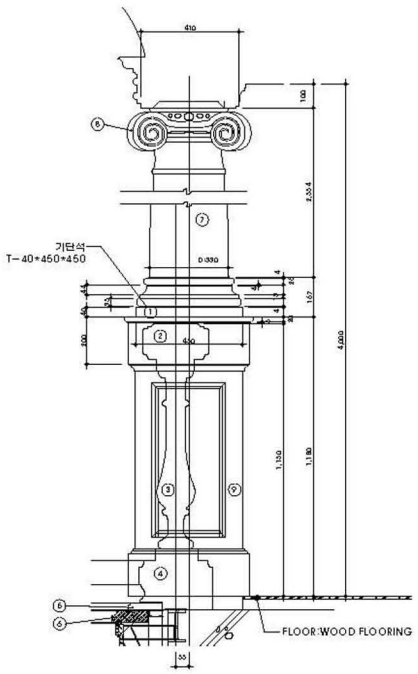
[도면 3-55] 2층 중앙홀 난간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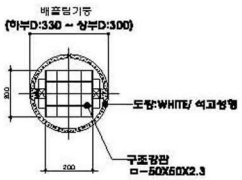
[도면 3-56] 2층 중앙홀 난간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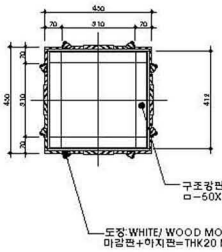
[도면 3-57] 2층 중앙홀 난간 상세도



2층 중앙홀 난간 기둥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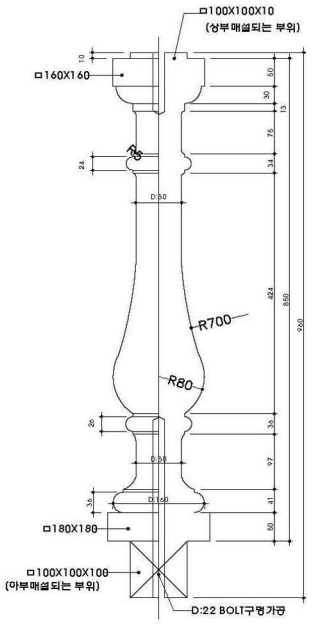


2층 중앙홀 난간 기둥 하단부 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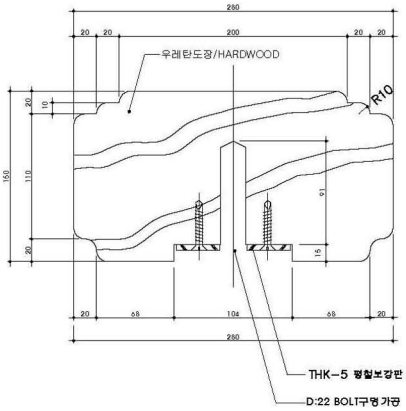


2층 중앙홀 난간 기둥 하단부 상세도2

[도면 3-58] 2층 중앙홀 기둥 상세도



2층 중앙홀 난간 동자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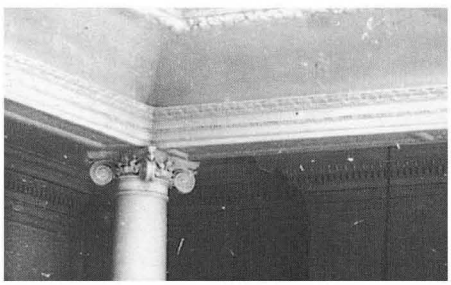
2층 중앙홀 난간 손스침 상세도

[도면 3-59] 난간동자 손스침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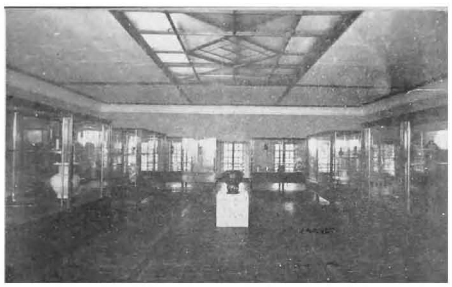
2) 천창공사

• **개요 :** 2층 중앙홀 천장에 천창을 설치하였다. 천창은 철재 각파이프를 수평으로 설치하고 에칭 처리된 강화유리를 설치하여 내부 트러스 구조가 보이지는 않으면서 빛은 투과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료 분석 :** 2층 중앙홀 천장과 관련된 자료는 사진과 도면이 있다. 사진으로는 1938년도 『궁·능관련유리원판도록』에 수록된 2층 중앙홀 사진이 있다.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상부의 천창 몰딩장식 일부와 빛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이 빛은 박공으로 된 지붕을 통해 내려오는 빛으로 보인다.



[사진 3-280] 2층 중앙홀 천창 사진(『궁·능 관련유리원판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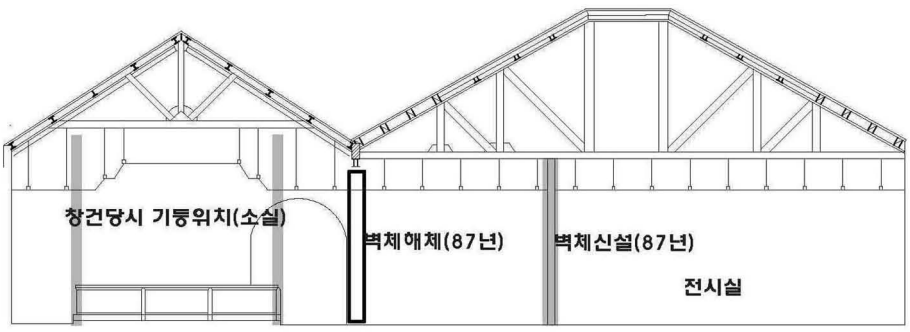


[사진 3-281] 2층 황제서재·황후거실·욕실 천장에 유리로 된 천창이 있다.(『조선과 건축』, 1933. 11)

도면으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 중인 1933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덕수궁석조전유리지붕변경도(德壽宮石造展硝子屋根変更図)」가 있다. 이 도면에 의하면 2층 중앙홀 상부(남쪽 박공지붕)와 황제서재·황후거실·욕실 상부(북쪽 박공지붕)에 유리로 된 천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도면의 명칭이 '유리지붕변경도'이다. 즉, 애초에 유리지붕이 아니었는데 유리지붕으로 바꾸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유리지붕이었는데 모양이나 형태를 바꾸기 위한 도면이었는지 불분명하였다. 분명한 것은 남쪽 박공지붕과 북쪽 박공지붕에 유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황제서재·황후거실·욕실 천장은 수평으로 유리 천창이 있는 것은 분명했다.[사진 3-284 참조] 그러나 남쪽 박공지붕은 박공지붕에만 유리를 사용한 것인지 황제서재·황후거실·욕실처럼 수평으로도 천창을 설치한 것인지는 불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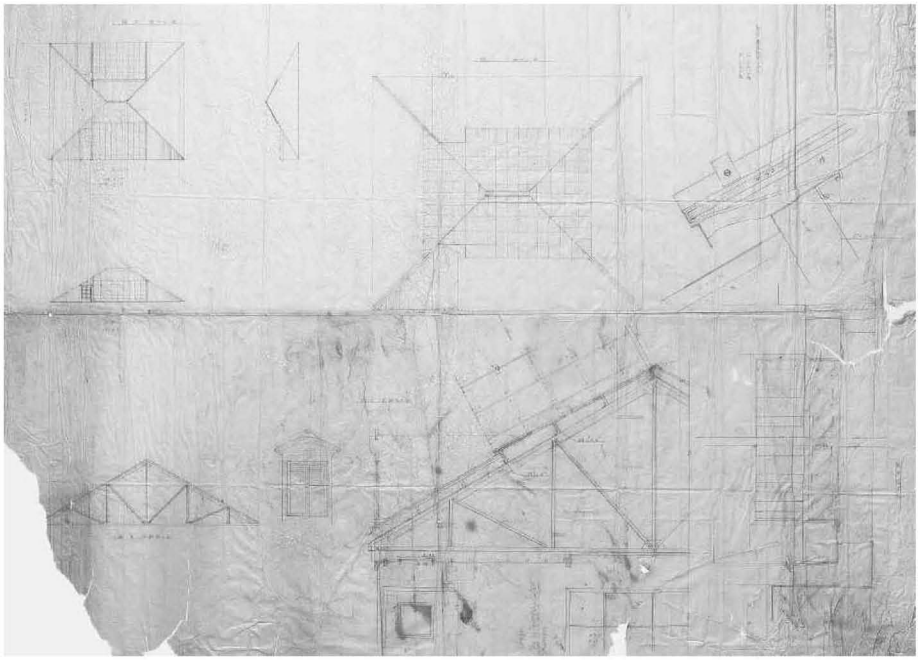
이런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리천창을 설치하기로 했다.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였다. 우선 북쪽 박공지붕에 유리천창을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많았다. 북쪽 박공지붕은 현재 유리로 된 부분이 없는데 유리 천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부 트러스에 대한 전면적인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부수적인 문제가 많았다. 부재 교체, 트러스 시스템 변경, 그로 인한 조적벽체의 훼손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부터 트러스 시스템에 대한 문제까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북쪽 박공지붕은 현재 있는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남쪽 박공지붕은 현재 유리천창 일부가 있다. 유리천창은 박공이 모이는 부분에 있었다. 그런데 한국학중앙연구원 도면에는 지금과 달리 박공지붕 처마 쪽의 남북방향으로만 일부 있었다. 이를 애초 형태대로 조정하기에는 황제서재·황후거실·욕실처럼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지금 유리천창 부문을 그대로 존치하고, 다만 상부 트러스가 보이지 않고 빛을 투과시키는 방법인 과거 황제서재·황후거실·욕실 천장에 있던 유리천창처럼 수평으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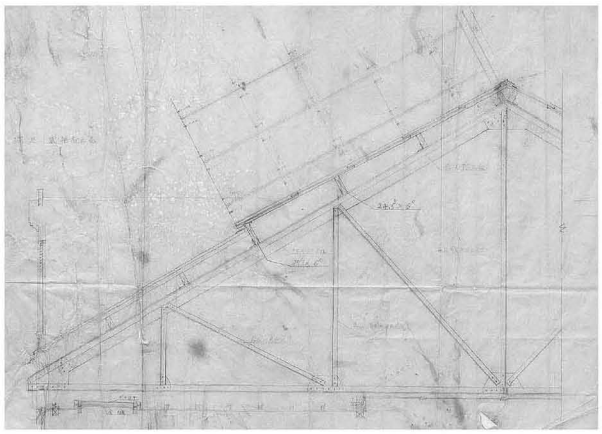


[도면 3-60] 석조전의 2층 종단면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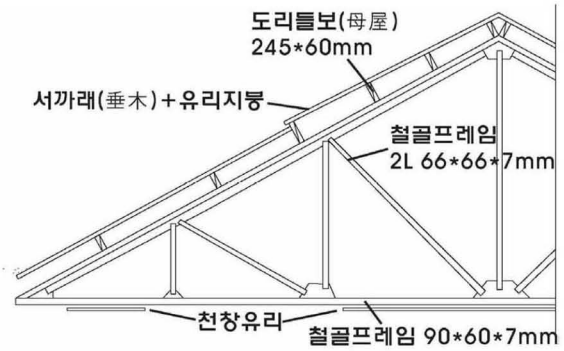
13), 14) 강성원, 대한건축학회, 덕수궁 석조전의 원형 추정과 기술사적 의의. 2008.4



[그림 3-101] 석조전 유리지붕 변경도(한국학중앙연구원. 1933)



[그림 3-102] 석조전 유리지붕 변경도(한국학중앙연구원. 1933) - 상세



[도면 3-61] 석조전 유리지붕 상세도[14]

• **시공** : 고증사진 상에 나타난 부분을 토대로 현황에 맞추어 7,240×3,910㎜ 크기로 수평천창을 설치하였다. 천창의 둘레 부분은 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반원형태로 테두리를 설치하고 위에 석고 몰딩을 부착하여 장식하였다. 천창의 격자는 영국 현지 조사와 일본의 근대건축물 조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천창의 구조틀 재료는 철재 각파이프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기능을 하는 동시에 의장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주 구조틀은 100×100㎜ 각파이프를 사용하였다. 이 각파이프는 상부의 트러스 구조물에 50×50㎜ 각파이프로 용접하여 설치하였다. 내부의 창 격자는 50×100㎜ 각파이프로 600×650㎜ 간격으로 용접하였다. 창 격자와 격자가 만나는 부분에는 황동주물 장식을 제

작·부착하여 장식하였다. 철재 각파이프는 최종적으로 백색으로 도장하였다. 이 철재 각파이프에 유리를 설치했다. 유리는 상부에 올라가 작업할 경우 밟아도 파손되지 않도록 12㎜ 강화유리를 사용하였고 에칭(포그)처리하여 내부의 트러스 구조부재가 하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천창 상부에는 빛의 투과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전동식 블라인드를 설치하였다.

[사진 3-282] 천장 철재 구조틀 설치

[사진 3-283] 주물장식 및 에칭 강화유리 설치

[사진 3-284] 백색 라카 도장

[사진 3-285] 천창 설치 완료

17. 벽감(Niche)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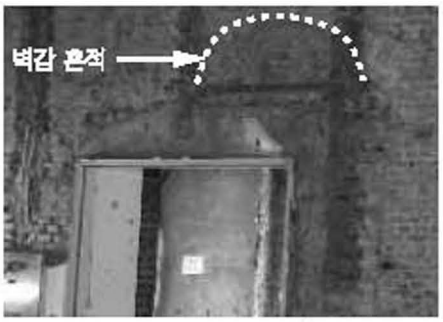
1) 개요

• **개요 :** 석조전 1층 복도 남쪽 벽과 중앙홀 동·서쪽 벽에는 소위 'Niche'라는 벽감이 있다. 벽감은 벽의 일부를 파내어 알코브를 두고 그 안에 장식물 등을 두는 장식적 공간을 말한다. 복도 남쪽 벽에는 2개, 중앙홀 동·서쪽 벽에는 각각 2개씩 4개로 총 6개가 있다. 벽체 마감 해체 후 확인된 벽감 흔적과 고증사진, 도면, 문헌에 나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벽감을 복원했다.

• **벽감 자료 :** 벽체 마감을 해체한 후 확인된 사항 중에서 벽감에 대한 것도 있었다. 실제 벽감 내부 벽은 벽돌로 채워져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확인 못했을 정도인데 다행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벽감 특징 중의 하나인 벽감 상부의 반원형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 흔적은 1층 서쪽 복도의 남쪽 벽) 일부와 동쪽 복도 남쪽 벽 일부에 벽감 상부 일부만 남아 있었다. 반원형 흔적 하부는 이미 개구부가 개설되면서 훼손된 상태였는데 다행히 상부는 남아 있었다.

특이한 것은 마감재 해체 후 드러난 조적벽체의 벽감 흔적이었다. 애초부터 아치형상이나 반원형으로 벽감 상부를 구축한 것이 아니었고 설치된 개구부 아치를 파내어 회바름한 흔적이 남아 있다는 점이었다. 애초 구조체 축조 시에 구축된 아치 개구부를 폐쇄한 곳이 다른 위치에서 다수 발견되었고, 해당 위치의 조적몰탈은 동일하게 황토색 몰탈이었는데, 그 몰탈이 개구부 아치를 파낸 벽감 흔적 하부의 개구부 폐쇄면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영건 당시, Lovell이 실내장식을 할 때 입면 상 대칭을 만들기 위하여 개구부 위치 조정을 한 것과 함께 벽감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일부 도면에도 표현된 것이 있었다. 일본 하마마츠시립도서관에 있는 1933년 석조전 1층평면도와 1936년 1층평면도, 1936년 7월 난방설비용 1층평면도 2종, 연도가 불분명한 국가기록원의 급수급탕위생배수 1층평면도와 방열기증설공사용 1층평면도에 벽감이 표현되어 있다. 총 6종류 도면에 벽감이 표현되어 있는데 복도 벽에만 벽감이 표시된 것이 있고 중앙홀에도 표시된 것도 있다. 이들 도면에 의하면 분명히 복도와 중앙홀에 벽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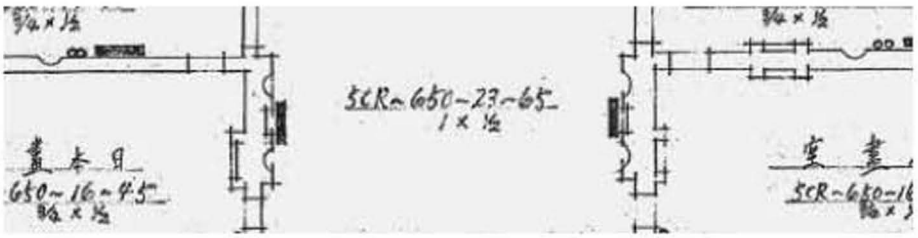


[사진 3-286] 1층 서쪽 복도 벽감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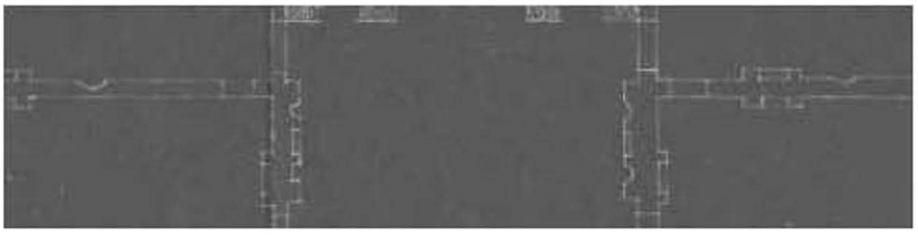
[사진 3-287] 1층 동쪽 복도 벽감 흔적

[그림 3-103] 석조전 1층평면도의 벽감. (1933년. 하마마츠시립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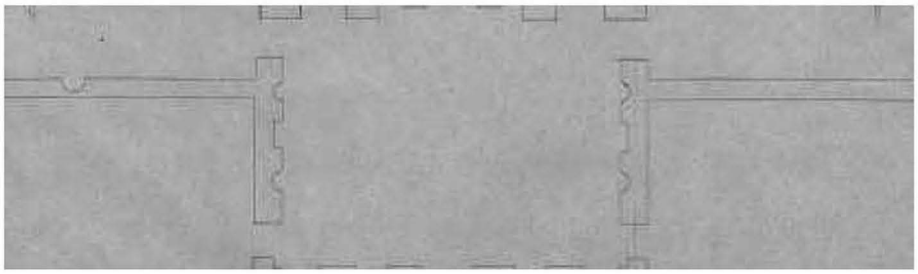
[그림 3-104] 석조전 1층평면도의 벽감. (1936년. 하마마츠시립도서관)



[그림 3-105] 석조전 난방설비1 1층평면도의 벽감. (1936년 7월 17일. 하마마츠시립도서관)



[그림 3-106] 석조전 난방설비2 1층평면도의 벽감. (1936년 7월 17일. 하마마츠시립도서관)



[그림 3-107] 덕수궁급수급탕위생배수설계도. 석조전 1층평면도의 벽감(국가기록원)

[그림 3-108] 방열기증설공사. 석조전 1층평면도의 벽감(국가기록원)

또 문헌에도 벽감에 대한 자료가 있다. 1933년도의 『조선과 건축』에는 서쪽 계단 앞에 벽감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설명과 벽감사진이 등장한다. 사진에도 나타나는데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1911년), 『한말궁중관계사진첩』(1918년), 『조선과 건축』(1933년)에 중앙홀에 있는 벽감이 보인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벽감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階　段　室

其の一部を示す、右方壁面には「ニッチ」を設け特種電飾（別寫眞）を配置せり、今は取毀ちてなし、左方階段は伊太利大理石手摺は英國製にして當時の樣式を偲ぶに充分なり。

[그림 3-109] 서쪽 계단 앞에 벽감이 있다는 설명(『조선과 건축』, 1933)

[사진 3-288] 인물 뒤에 벽감 2개가 보인다(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

[사진 3-289] 벽감 1개가 보인다.(『한말궁중관계사진첩』, 1918)

[사진 3-290] 벽감 2개가 보인다.(『조선과 건축』, 1933)

2) 시공

• **시공 개요** : 기존 마감재를 해체하고 당초의 벽체가 노출되었을 때 복도에 있는 계단 앞쪽에 문헌 내용과 같이 벽감이 있었던 흔적이 일부 발견되었다. 1층 중앙홀은 벽체 훼손이 심한 상태여서 원형을 알 수 없는 상태였으나, 이후 발견된 1933년 도면으로 볼 때 벽감이 있었던 것은 확실했다. 벽감의 위치와 크기는 중앙홀의 동쪽 벽감 사진을 투시도 역기법 환산을 통해 찾을 수 있었다. 사진에 의하면 벽감의 장식은 로코코풍의 조개문양으로 되어 있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중앙홀 4개, 복도 2개, 총 6개소에 벽감을 설치하였다.

• **시공** : 벽감은 2가지 재료를 사용하였다. 복도 쪽에 있는 벽감 2개는 복도 벽체 마감재질과 동일하게 대리석으로 설치하였고 중앙홀에 있는 벽감 4개는 석고로 제작하였다. 적벽돌쌓기 바탕에 회바름을 한 후, 로코코풍 조개문양의 석고조각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도장 마감하였다.

벽감 내에는 조명장식을 하였다는『조선과 건축』의 내용과 중앙홀 벽감 내 스탠드 조명의 사진이 남아 있는데, 공사 진행 기간 중 국립고궁박물관에 대한제국황실유물로 전시 중인 스탠드 조명이 석조전 고증사진 상의 스탠드 조명기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스탠드 조명기와 동일하게 복제하여 설치하였다.

[사진 3-291] 개구부 아치를 파내어 설치한 벽감 흔적 (상부 반원부분)

[사진 3-292] 벽감 흔적(상부 일부분), 사라진 하부벽 감부위 조적 재설치 중(1층 서쪽복도)

[사진 3-293] 조적벽면 회바르기

[사진 3-294] 석고조각 벽감설치 완료

[사진 3-295] 대리석 벽감설치 완료

18. 옥상공사

1) 굴뚝공사

가. 개요

• **개요** : 석조전 고증사진을 보면 옥상 위로 굴뚝이 보인다. 벽난로가 있었기 때문에 굴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사진첩(1907~1910)과 학습원대학소장 한국사진첩(1910),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1911)에서 굴뚝이 보인다. 그러나 1933년 『조선과 건축』에 있는 석조전 정면사진에는 굴뚝이 안 보인다. 지금은 없는 굴뚝이다. 1938년 이왕가미술관으로 전용하면서 옥상의 굴뚝이 철거된 것이다. 그래서 굴뚝을 복원하였다. 굴뚝은 벽난로의 위치에 맞게 설치하였고 총 11개가 설치되었다.

• **자료 분석** : 고증사진에 의하면 굴뚝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진들을 자세히 보면 굴뚝의 형태가 옥상 파라펫 부분의 몰딩 형태와 같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동일한 형상으로 11개의 굴뚝을 제작 설치하였다.

1910년 12월 『건축잡지』에 의하면 석조전 외부에 사용된 석재는 동대문 밖 영풍정의 채석장에서 채석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이곳의 석재는 생산이 중단된 지 오래 되어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포천석 중 석조전 화강석의 석재와 가장 유사한 석재를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11개의 굴뚝 중 1층 귀빈대기실 동쪽 벽(동남1실 서쪽 벽) 벽난로 위치의 굴뚝 1개소는 1층 귀빈대기실에서 벽난로에 불을 지피면 굴뚝으로 연기가 실제로 배출되도록 하였다. 원래 1층 귀빈대기실에는 중간에 벽이 있고 이 벽에 벽난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상태였다. 이 조적벽을 복원하면서 벽난로를 원래대로 복원하였고 동시에 훼손된 연도를 1층에서부터 2층을 통해 옥상까지 모두 매립하여 굴뚝까지 연결하였다. 나머지 위치의 굴뚝은, 다소 훼손되었지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조적벽체와 파손되었지만 그대로 남아 있는 연도가 있는 관계로, 이 원형벽체와 연도의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하여 굴뚝까지 새로운 연도를 연결하지 않고 굴뚝만 설치하였다.

[사진 3-296] 옥상 위에 굴뚝이 보인다. (일본 궁내청 소장 창덕궁 사진첩, 1907-1910)

[사진 3-297] 옥상 위에 굴뚝이 보인다. (한국사진첩 통감부. 학습원대학소장. 1910)

[사진 3-298] 옥상 위 굴뚝 모양이 옥상 파라펫 형태와 같다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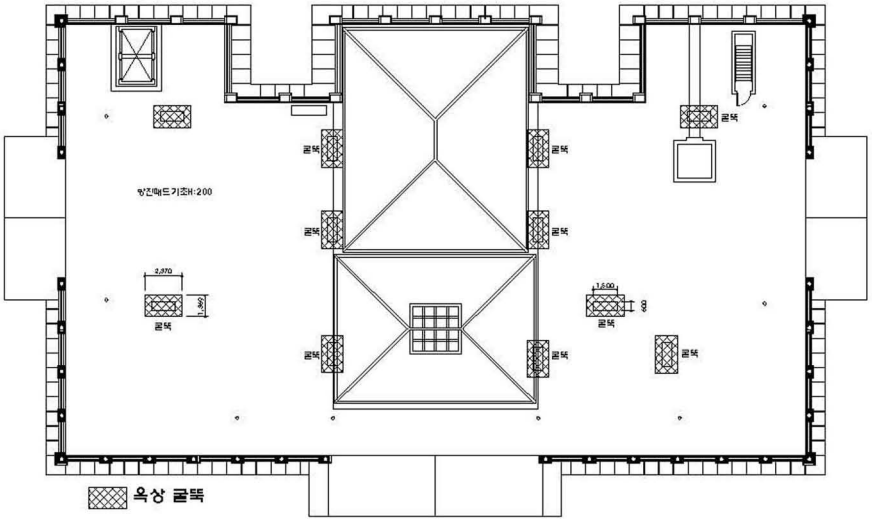
[사진 3-299] 옥상 위에 굴뚝이 보이지 않는다. (『조선과 건축』. 1933)

나.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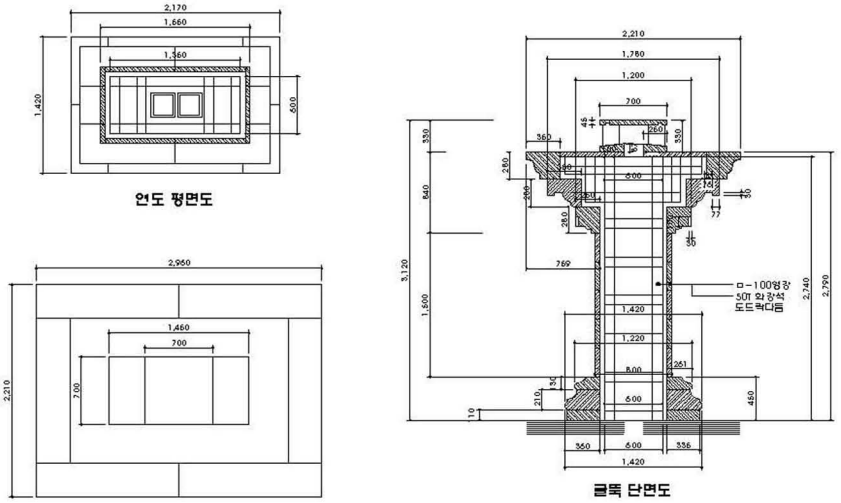
• **시공 :** 굴뚝은 직사각형이고 기단부, 축부, 지붕부로 구분된다. 기단부 평면 크기는 1,420×2,120㎜이고 축부는 800×1,350㎜, 옥개부는 2,210×2,960㎜이다. 높이는 기단부가 450㎜, 축부는 1,500㎜, 옥개부는 1,170㎜로 전체 높이가 3,120㎜이다. 굴뚝의 크기는 투시도 역기법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굴뚝 석재의 설치는 건식공법으로 하였다. 굴뚝 설치에 따른 옥상 하중의 증가 때문이었다. 화강석의 굴뚝이 설치되면 하부에 집중하중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중 부담을 덜기 위하여 경량으로 설치 가능한 건식공법을 선택하였다. 건식공법은 철재 각파이프에 석재를 고정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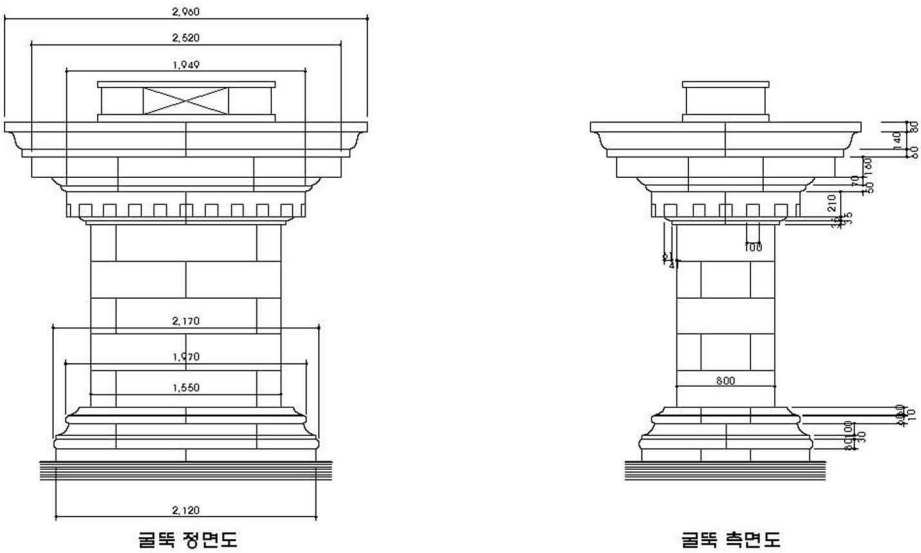
우선 석재를 고정하기 위한 철재틀을 단변 600㎜, 장변 1,350㎜, 높이 2,740㎜로 설치했다. 100×100㎜ 철재 각파이프를 굴뚝 모양과 크기에 맞게 틀을 짜서 바닥에 고정했다. 고정된 철재틀에 고정철물로 석재를 연결하였다. 굴뚝 기단부는 석조전 열주 초석모양을 참조해 같은 모양으로 몰딩하였고 3단으로 구성하였다. 축부는 두께 50㎜ 판석을 5단으로 구성했다. 옥개부는 옥상 파라펫과 같은 모양으로 몰딩하였고 3단으로 구성하였다. 덴틸문양도 넣었다. 맨 위에는 석재로 된 연가를 설치했다.



[도면 3-62] 옥상 굴뚝 위치도



[도면 3-63] 굴뚝 평면도와 단면도



[도면 3-64] 굴뚝 입면도

[사진 3-300] 철재틀에 화강석 설치

[사진 3-301] 석재 고정

[사진 3-302] 굴뚝 상부 철재틀

[사진 3-303] 굴뚝 상부 장식부 설치

[사진 3-304] 설치 완료 된 굴뚝

2) 방수공사

• **개요** : 기존 마감재 해체 전, 2층 천장에서 누수가 진행되어 있었다. 누수로 인해 천장 텍스가 오염되고 탈락이 발생된 상태였다. 마감재 해체 후에도 계속 관찰한 결과 누수는 우천 시와 우천 후 수일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천 후에도 수일간 물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볼 때 빗물이 방수층 내로 스며들어 침투해 있다가 비가 그친 후에도 계속 누수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존에 설치된 옥상 방수층은 시트방수였는데, 시트방수층의 일반적인 특성이 방수층의 파손 등에 의하여 빗물이 침투할 경우 방수층 내에 흘러들어가 고여 있다가 비가 그친 후에도 누수현상을 보인다. 현장에서 관찰된 누수현상과 일치하였다. 또한 건물 중앙의 트러스 경사지붕 둘레에 틈이 벌어진 채로 트러스가 노출되어 있어, 바람을 동반한 우천 시에 누수가 발생되는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방수공사를 다시하기로 하였다.

[사진 3-305] 2층 누수 현황

• **시공** : 방수공법은 방수성능이 우수하고 추후에 방수층 파손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 가능한 우레탄 도막방수로 선정하였다. 새 방수를 위하여 기존의 시트방수층을 해체하였다. 해체 후 나타난 바탕몰탈면의 균열 부위에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여 1차 보수하였다. 균열부 보수 후에는 바닥면을 그라인딩과 샌딩 처리하여 면 정리를 실시하였다. 면 정리 후 우레탄 도막방수 하도, 중도, 상도로 3회 도막 도포를 하였다.

건물 중앙부 트러스 부위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공사도 동시에 시행했다. 누수되는 기존의 박공지붕 동판마감 위에 12㎜ 내수합판을 깔고 그 위에 방수시트를 깔았다. 다시 방수시트 위에 0.5㎜ 동판을 거멀접기하여 추가로 설치하였다. 박공지붕 둘레에 빗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위는 시트를 부착한 뒤에 그 위에 도막방수하여 차단하였다.

[사진 3-306] 기존 방수층 해체

[사진 3-307] 에폭시 주입 균열 보수

[사진 3-308] 바닥 그라인딩 및 샌딩, 청소

[사진 3-309] 방수 하도

[사진 3-310] 방수 중도

[사진 3-311] 방수 상도(코팅)

[사진 3-312] 박공지붕 위 합판 설치

[사진 3-313] 방수시트 설치

[사진 3-314] 동판 설치

[사진 3-315] 박공지붕 동판 설치 완료

19. 욕조, 변기, 세면기 및 방열기 설치공사

석조전에는 욕조, 변기, 세면기 및 방열기(라디에이터)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욕조, 변기, 세면기 및 방열기를 설치하였다. 고증사진상에서 확인되는 것은 방열기뿐이고 나머지는 자료가 없어 방열기는 사진과 유사한 제품을 설치하였고 그 외는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유사한 제품을 수입하여 설치하였다. 이들 제품은 상징성을 고려해 실제 사용하지 않고 전시용으로만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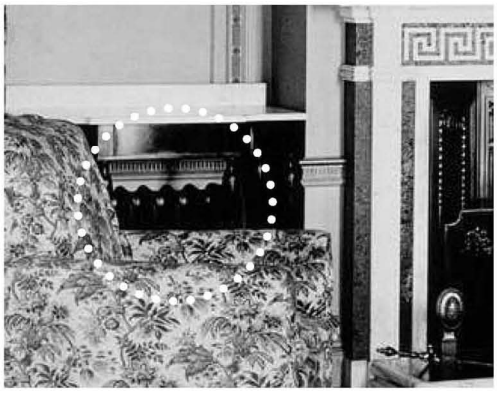
1) 방열기 설치

• **방열기 자료 분석 :** 고증사진에 욕실, 변기, 세면기 사진은 없지만 방열기 사진은 있다. 『한말궁중관계사진첩』에 1층 접견실 북쪽 벽에 2개와 1층 귀빈대기실 북쪽 벽에 1개, 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에 2층 중앙홀 북쪽 벽에 1개가 보인다. 이를 1936년 작성된 하마마츠시립도서관 설비도면과 비교하면 1층 접견실은 그 위치가 맞지만 1층 귀빈대기실과 2층 중앙홀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하건대 1933년 보수 과정에서 기존 위치를 유지한 곳도 있지만 철거한 곳도 있지 않았나 싶다. 외부에 면한 창호 하부와 벽난로 좌우에 설치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방열기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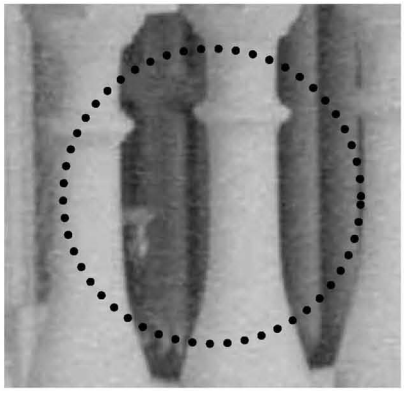
방열기의 존재 유무는 사진으로 분명히 확인되었다. 문제는 설치위치와 개수, 설치방법이었다. 설치 위치는 하마마츠시립도서관 도면에 나와 있는 것으로 모두 할 경우 불확실성이 있었다. 1918년 이전 사진에는 있지만 1936년 도면에는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즉, 하마마츠 도면은 1936년 작성된 것이고 새롭게 방열기를 설치하기 위한 도면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진 상에 나와 있는 위치 중 1층 접견실과 귀빈대기실에만 각각 2개씩 총 4개를 설치했다. 2층 중앙홀 복도에는 통행에 방해되고 파손될 것을 우려해 설치하지 않았다.

• **방열기 선택 및 설치 :** 석조전에 사용된 방열기는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었다. 그래서 Maples & Co 제품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이 회사는 폐업된 상황이었고 중고라도 구입하려 했으나 결국 구입할 수 없었다. 이에 유사한 형태의 방열기를 수소문 한 결과 영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영국에서 수입하여 사진 상의 위치에 설치하였다. 방열기는 배관 연결 및 증기난방 기능이 작동하도록 배관하지는 않았으며 욕조, 변기, 세면대와 같이 전시용 기능만을 갖추도록 하였다.

[사진 3-316] 고전 방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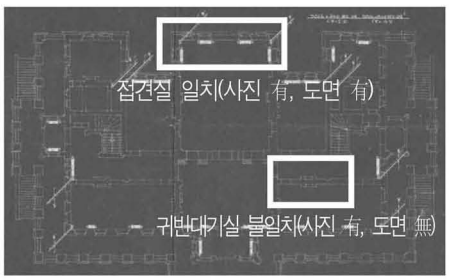


[사진 3-317] 1층 귀빈대기실 의자 뒤 방열기.(『한말궁중관계사진첩』, 1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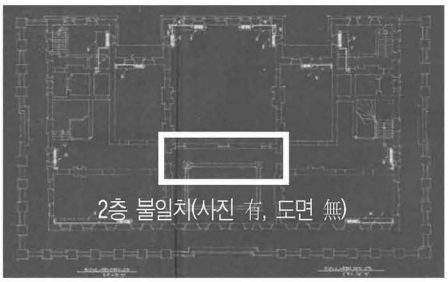


[사진 3-318] 2층 중앙홀 난간 뒤 방열기(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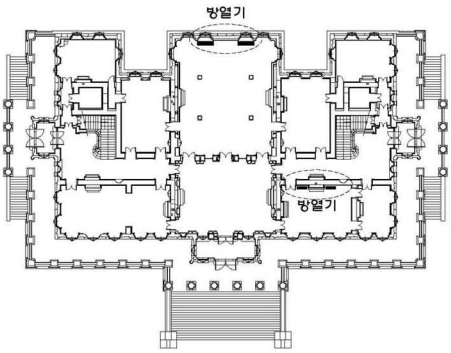
[사진 3-319] 1층 접견실 북쪽 벽 가구 밑에 방열기가 보인다.(『한말궁중관계사진첩』. 1918)



[그림 3-110] 1층 사진과 도면 비교



[그림 3-111] 2층 사진과 도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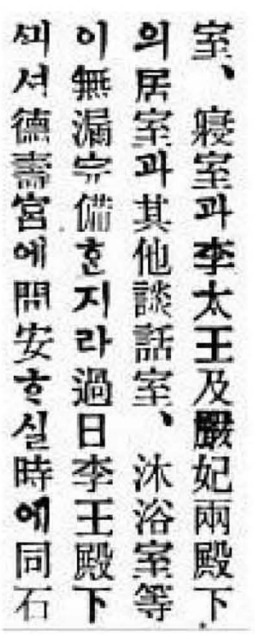
[도면 3-65] 방열기 위치도

[사진 3-320] 1층 귀빈대기실에 설치된 방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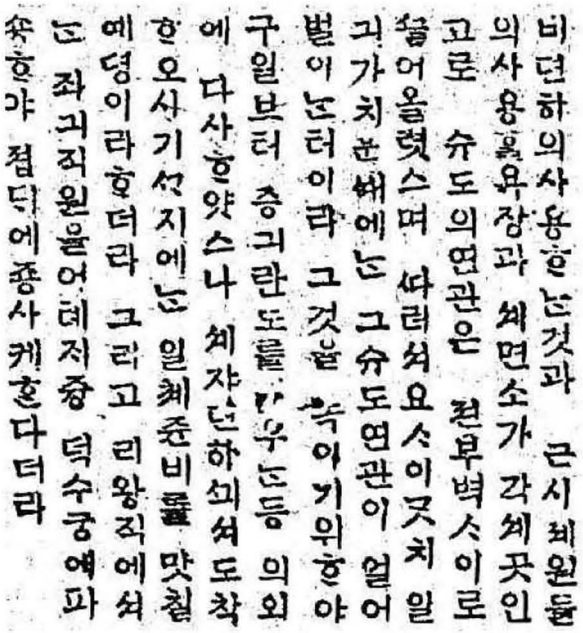
2) 욕조, 변기, 세면기 설치

• **자료 분석** : 욕조, 변기, 세면기에 대한 사진은 없지만 『매일신보』에 이런 시설물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1910년 12월 3일자 『매일신보』 '석조전 준공기' 에는 ".……전하의 거실과 기타 담화실, 목욕실 등이 빠짐없이 완비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1918년 1월 9일자에는 '어전의 수리와 제설비' 에는 "……욕장 및 세면소가 각 3곳인데, 수도의 연관을 새로이 추가하고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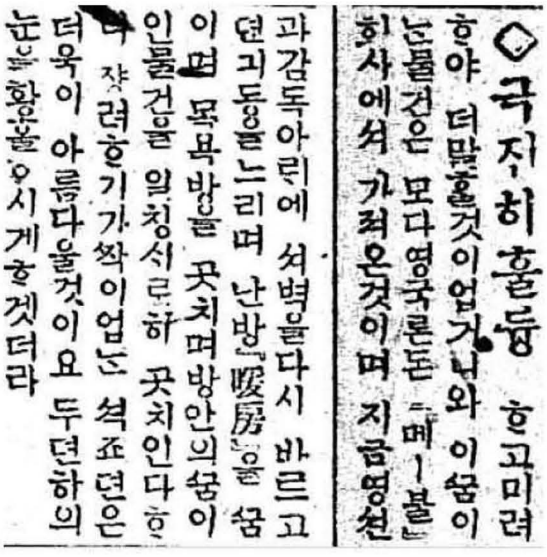
연관이 얼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증기난로를 보완했다……” 라는 내용으로 목욕탕과 세면소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동년 11월 29일자 기사에는 “…… 이 꾸미는 물건은 모두 영국 런던 「메-블」 회사에서 가져온 것이며…… 〈중간 생략〉 …… 목욕방을 고치며 방안의 꾸민 물건을 일제히 새로 고친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 1922년 4월 26일자 기사에는 “……방의 입구되는 남쪽 편으로는 각각 욕실과 서양식의 변소가 붙어있으며, 그 입구의 앞으로는 복도가 통하였고……” 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런 기사 내용으로 볼 때 욕실과 서양식 변소가 분명히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해당기사는 위치까지 정확히 서술하고 있다. 이에 욕실, 변기, 세면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방열기와 같은 이유로 사용은 할 수 없고 전시용 기능만 가지는 것으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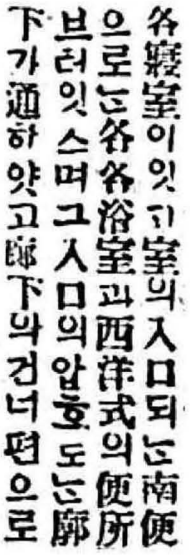
[그림 3-112] 1910년 12월 3일 『매일신보』



[그림 3-113] 1918년 1월 9일 『매일신보』



[그림 3-114] 1918년 11월 29일 『매일신보』



[그림 3-115] 1922년 4월 26일 『매일신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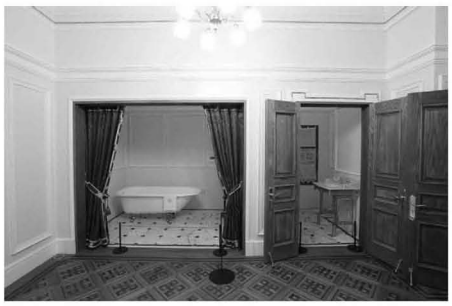
• **욕조, 변기, 세면기 선택 및 설치** : 사진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설치할 수 없었다. 욕조의 경우 창덕궁 대조전 욕실에 욕조가 있는데 이 욕조는 법랑을 입힌 주물 제품이었다. 그런데 이 욕조는 Maples & Co의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욕조와 동일한 것이었다. 이에 Maples & Co 제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Maples & Co의 영건 당시 욕실, 화장실, 세면실 용품 카탈로그를 확보하였다. 해당 카탈로그의 욕조 등의 물품 형태는 Maples & Co의 1904년도의 신문광고 사진과도 동일하였다. 해당 카탈로그를 참조하여 유사한 양식의 욕조와 서양식 변기, 세면대를 영국에서 수입하여 설치하였다. 모두 2층에만 설치하였는데 황제서재・황후거실・욕실 남쪽에 있는 욕실과 세면실에 욕조 2개, 세면기 2개, 변기 2개를 설치하고 시종실4와 응접실 사이 욕실에 욕조 1개, 시종실 2, 3호실 사이 욕실에 욕조 1개, 세면기 2개, 변기 2개를 설치하였다.

[사진 3-321] 창덕궁 대조전에 있는 법랑 입힌 주물 욕조

[그림 3-116] Maples & Co 카탈로그 욕조

[그림 3-117] 1904년 Maples & Co 욕실제품 광고

[그림 3-118] 1905년경 Maples & Co 카탈로그의 세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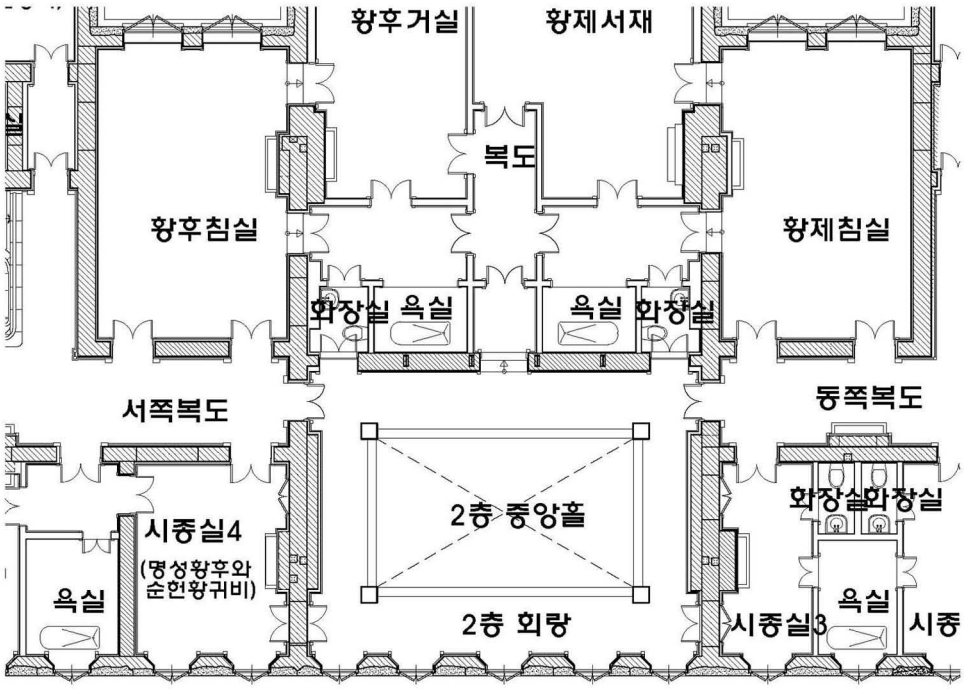
[사진 3-322] 2층 황후 욕실과 세면실

[사진 3-323] 2층 황후 욕실

[사진 3-324] 2층 시종실3 세면기

[사진 3-325] 2층 시종실3 변기

[사진 3-326] 2층 시종실3 욕실



[도면 3-66] 2층 화장실 위치도

20. 장식물 설치공사

1) 가구 설치공사

• **개요 :** 이번 공사를 통해 고증사진 상에 보이는 각종 가구 등도 전시하게 되었다. 전시된 가구는 고증사진 상에 보이는 가구와 똑같은 석조전 건립 당시 입고가구(이하 입고가구), 같은 모양으로 주문제작한 가구(이하 주문제작가구), 영국에서 직접 수입한 유사한 모양의 가구(이하 수입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입고가구는 41개, 주문제작가구는 6개, 수입가구는 86개로 총 133개 가구가 설치되었다.

• **고증 :** 석조전 가구와 관련된 고증자료는 사진이 가장 핵심적이었다. 그 외 문헌에서도 일부 언급되어 있다. 고증사진을 보면 각종 가구가 보인다. 의자, 책상, 식탁, 각종 테이블 등 다양하다. 고증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침대 등도 있었을 것이다. 이 고증사진을 바탕으로 입고가구를 확인했고 가구수입 및 주문제작도 할 수 있었다.

사진 외에도 각종 문헌에서도 가구에 대한 언급이 있다. 『매일신보』 1918년 11월 29자를 보면 "…… 앞에는 돌층계이라 안과 바깥을 꾸민 것은 극진히 훌륭하고 미려하여 더 말할 것이 없거니와 이 꾸미는 물건은 모두 영국 런던 '메-블' 회사에서 가져온 것……" 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조선과 건축』 1933년 11월호에 보면 "……가구는 특히 신중히 고려한 것이기에 지금도 훌륭합니다. 또한 지금 신축한 도쿄저택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긴 일부는 총독부 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1938년 5월 『덕수궁사』에 의하면 "……내부장치 및 조도품(調度品, 생활용품)은 런던의 메-블회사(Messrs Maples & Co)에서 청부하였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 기사들에 의하면 석조전의 가구는 Maples & Co의 가구가 납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구들은 대체적으로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경 제작된 에드워드 스타일[15]로 추정되었다. 원탁자 등 일부는 리젠시(Regency) 스타일, 쉐라톤(Sheraton) 스타일로 추정된 것도 있었다. 주요 재료는 새틴우드 띠장(satinwood banded)을 붙인 마호가니(mahogany)이며 그 외에 대리석, 유리, 거울, 채색화, 금박 등이었다.

15) Edwardian: 영국 왕 에드워드 7세 시대 스타일(Edward Ⅶ, 1901~10, 1890년대로부터 제1차 세계대전 발발(1914)까지 포함하는 것이 통례. 1998, 한국사전연구사

• **석조전 건립 당시 입고가구 :** 입고가구는 국립고궁박물관, 창덕궁 희정당에 있었다. 입고가구를 찾기 위해 창덕궁 희정당과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된 물품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증사진에 있는 가구와 똑같은 가구들이 확인되었다. 이 가구들을 자세히 보니 가구 밑부분 등에 스탬프 등으로 표시된 글자가 있었다. 식탁에는 "PRIVATE DINNING ROOM", 의자에는 "DINNING ROOM", "HIS MAJESTY' PRIVATE DINNING ROOM" 등으로 표시되어 있

었다. 이 문구는 가구가 위치했던 곳을 적은 것이었고 황제서재와 황후거실의 사진 등에서도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식기테이블에 "PRIVATE DINNING ROOM", 원탁테이블에 "EMPEROR'S LIBRARY", 책장에 "EMPEROR'S LIBRARY" 타원테이블과 책상에 "EMPRESS'S BOUDOIR" 세면대와 옷장에 "EMPEROR'S BEDROOM", "EMPRESS'S BEDROOM" 등의 문구가 있었다. 확인된 가구들은 창덕궁과 국립고궁박물관의 협조로 수리하여 석조전으로 옮겨올 수 있었다.

• **입고가구 수리** : 이 가구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되어 자립이 불가능한 가구도 있었고 부속이 결실된 가구, 상판이 손상된 것도 있었다. 그렇지만 수리를 하면 원형의 복원이 가능한 상태여서 사진 등 고증자료에 근거해 수리하여 전시하였다.

수리는 원형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한 원본의 제작 기법과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수리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파손 유형은 부재가 유실된 것, 부러진 것, 구멍이나 흠집이 난 것, 판이 들떠 있는 것, 오염된 것, 그림이나 문양이 훼손된 것, 가죽이 훼손된 것, 부속이 손실된 것 등 다양했다. 부재가 유실된 것은 같은 재료인 마호가니로 제작 연결하였다. 우선 애초 모양 그대로 제작하고 그 위에 동질의 무늬목을 접착제로 붙인 후 스테인 칠하고 접착제와 나사못으로 연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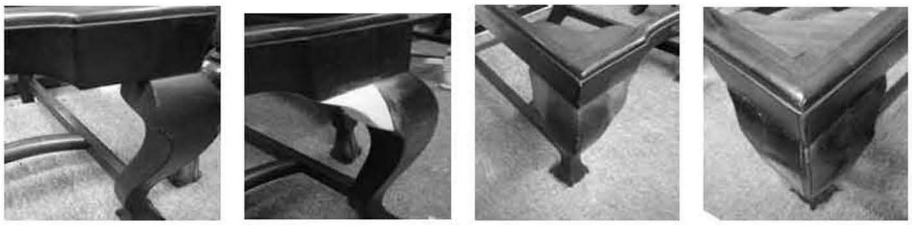
▌소식당(서) 협탁 수리

[사진 3-327] 소식당(서) 협탁 수리

부분적으로 구멍이 나거나 손실된 부분은 그 상황에 따라 같은 재질인 마호가니를 사용하여 애초 모양대로 제작하거나 또는 석고로 채운 후에 샌딩 처리하고 스테인 칠해 완료하였다. 부러진 것은 일단 분리하여 접착제로 부착

하였고 공극이 생긴 부분은 석고로 메운 후 샌딩 처리하고 스테인 칠해 완료하였다. 표면이 지저분한 것은 리무버(액상의 표면 제거제)를 이용하여 얼룩진 부분을 제거하고 스테인 칠해 완료하였다.

▮ 접견실 의자 수리



다리 부분 유실 | 부조각 제작 | 샌딩 및 스테인 | 수리 완료

[사진 3-328] 접견실 의자 수리

▮ 황제서재 원탁 수리

부러진 상판 | 본드 접착 | 리무버로 표면 제거 | 수리 완료

[사진 3-329] 황제서재 원탁 수리

가구 중에는 상감기법으로 된 것도 있었다. 몰딩을 구성하기 위해 무늬목과 무늬목 사이에 인레이(가느다란 띠)를 끼운 것인데 이 인레이가 떨어진 것도 있고 상감의 무늬목이 파손된 것도 있었다. 인레이가 떨어진 것은 같은 재질의 인레이를 끼우고 리무버로 표면을 제거하고 스테인 칠해 완료하였다. 판이 파손된 것은 석고로 메운 후 샌딩하고 스테인칠해 완료하였다. 대리석이 오염된 것은 약제로 오염을 제거하였다. 부속품이 없는 것도 있었다. 이 부속품은 키박스, 경첩, 손잡이, 바퀴 등인데 다행히 아직도 영국에서 유통되고 있어 수입해 사용하였다.

상감 바탕 파손 | 석고 메움 | 샌딩 후 스테인

[사진 3-330] 상감 수리

• **가구 구입(수입가구)** : 고증사진에는 등장하나 현존하지 않는 가구는 국내외 여건상 옛 기법으로 제작하기에 무리가 있어 엔틱제품을 구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총 86점을 구입하였다. 석조전 가구는 영국 Maples & Co 카탈로그에 등장하는 가구가 대부분이므로 석조전 고증사진과 Maples & Co 카탈로그의 가구를 비교하여 형태를 선택하였다. 구입을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로, 석조전 건립 당시 가구를 납품한 Maples & Co 고가구 중 고증사진, 카탈로그와 동일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둘째로, 1900년대 영국 및 유럽에서 제작된 가구 중 형태와 재료, 제작기법 등이 석조전 관련 가구와 유사한 가구를 구매한다.

셋째로, 가구제작 시기는 차이가 있으나, 석조전 관련 가구와 형태 및 재료, 제작기법 등이 유사한 가구를 구매한다

구입을 위해 Maples & Co가 있었던 영국을 방문하였다. 맨체스터, 프레스톤 볼턴, 링컨, 뉴어크, 헴스웰, 런던, 첼시 지역의 가구 골동품점 등을 방문하였다. 우선 현지 영국 가구 컬렉터와 연결하여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였다 상황 파악을 한 후 국내 수입가구 전문업체와 계약해 3차례의 조사를 거쳐 구매하였다. 수시로 열리는 엔틱가구 쇼장을 찾아 시기와 형태가 유사한 가구를 구매하기도 하였다.

[그림 3-119] 영국 방문 지역

• **가구 제작(주문제작가구)** : 수입하기로 한 것 중 6점은 유사한 모양의 가구를 찾을 수 없어 따로 제작하게 되었다. 협탁 3개와 1인 안락의자 3개이다. 협탁은 1개가 입고가구 중에 원형 가구가 있어 동일하게 제작하여 전시하였다.

소파는 총 22개가 있는데 이 중 19개는 영국에서 구매하고 3개를 제작하였다. 구매한 소파는 대부분 바퀴가 달린 다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리 형태에 따라 시대를 구별하고 있었고 보통 2개가 한 세트로 유통되고 있었다. 그런데 19개 소파 중 16개는 세트로 구매가 가능했고 3개는 세트로 구매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3개 소파를 세트로 구성하기 위해 다리는 살리고 다리 위 등받이 모양을 각각 1개씩 총 3개를 제작하여 3개의 세트를 구성하였다. 제작한 소파는 황제침실에 1세트, 황후침실에 1세트, 황후거실에 세트를 전시하였다. 일부 의자에 나오는 패브릭(소파 천)은 현재 국내에서 찾을 수 없어 기성 패브릭 중 황실에 어울리는 것으로 골라 천갈이를 하였다.

석조전에 배치한 가구는 다음과 같다.

① 중앙홀 가구

[표 3-19] 중앙홀 가구

구분	복원사진	고증사진 (고증자료, 참고자료)	유물사진 (수리 전)	수량	비고
1				1	창덕궁 희정당 이전, 수리 다리 제작, 조각 보수, 금박 보수, 대리석 오염 제거
2			-	1	영국(Hemswell cliff) 사진,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3			-	1	영국(Hemswell cliff) 사진,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가죽보수

② 1층 접견실 가구

[표 3-20] 1층 접견실 가구

구분	복원사진	고증사진 (고증자료, 참고자료)	유물사진 (수리 전)	수량	비고
4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상부 이화문 상감 무늬목, 인레이, 하부 수리
5			-	3	영국(Newak-on-Trent) 유물,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6			-	2	영국(Warwick) 등받이 제작, 천갈이, 다리 재사용
7			-	12	영국(Warwick) 등받이 제작, 천갈이, 다리 재사용
8				6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천갈이
9			-	4	영국(Near hartwell Northants) 유물 유사제품 구매 천갈이
10			-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대리석 오염 제거
11			-	1	국립고궁박물관 유물 복제

③ 귀빈 귀빈대기실 가구

[표 3-21] 귀빈 귀빈대기실 가구

구분	복원사진	고증사진 (고증자료, 참고자료)	유물사진 (수리 전)	수량	비고
12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케인 교체, 인레이 보수, 천갈이 명문 : RECEPTION ROOM
13		-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보수, 키박스 보수 명문 : RECEPTION ROOM
14			-	1	영국(London)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15				4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천갈이
16			-	2	영국(Warwick) 등받이 제작, 가죽교체, 다리 재사용
17			-	1	영국(Wakefield west yorkshire)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18			-	2	국립고궁박물관 유물 복제

④ 대식당 가구

[표 3-22] 대식당 가구

구분	복원사진	고증사진 (고증자료, 참고자료)	유물사진 (수리 전)	수량	비고
19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키박스 교체, 손잡이 수리
20			-	1	영국(Droxford Hampshire) 유물 유사제품 구매
21			-	3	영국(Preston, Lancashire) 카탈로그 유사제품구매 인출형 식탁
22		-		3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천갈이 명문 : DINING ROOM
23			-	14	유물 유사제품 구매 천갈이

⑤ 소식당(서) 가구

[표 3-23] 소식당(서) 가구

구분	복원사진	고증사진(고증자료,참고자료)	유물사진(수리 전)	수량	비고
24		-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명문 : PRIVATE DINING ROOM
25			-	1	영국(Hemswell cliff) 카탈로그 유사제품구매 인출형식탁
26		-		2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천갈이 명문 : PRIVATE DINING ROOM
27			-	8	영국(yarding Tonbridge) 유물 유사제품 구매 천갈이
28		-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다리 제작, 서작 제작, 경첩, 손잡이 교체 명문 : PRIVATE DINING ROOM

⑥ 황제서재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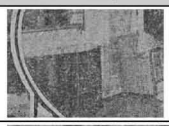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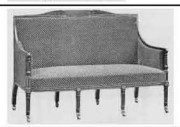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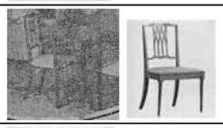
[표 3-24] 황제서재 가구

구분	복원사진	고증사진(고증자료,참고자료)	유물사진(수리 전)	수량	비고
29		-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명문 : EMPEROR'S LIBRARY
30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손잡이, 키박스, 바퀴 보수 명문 : EMPEROR'S LIBRARY
31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키박스 교체
32		-		1	창덕궁 희정당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키박스 교체 명문 : EMPEROR'S LIBRARY
33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34			-	1	영국(wedmore)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뷰로데스크(피아노책상)
35			-	1	영국(North watchet west somerset)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가죽 교체

36			-	6	영국(North watchet west somerset)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가죽 교체
37			-	2	영국(Warwick)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등받이 제작, 가죽 교체, 다리 재사용

⑦ 황후거실 가구

[표 3-25] 황후거실 가구

구분	복원사진	고증사진 (고증자료, 참고자료)	유물사진 (수리 전)	수량	비고
38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손잡이 보수
39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그림복원 명문 : EMPERESS'S BOUDOIR
40		-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41		-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보수, 손잡이교체, 서랍과 유실부위 제작, 상판가죽 제작 명문 : EMPERESS'S BOUDOIR
42			-	1	영국(Salford Manchester)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43			-	1	영국(Bermondsy London)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천갈이
44			-	1	영국(Arundel west sussex)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천갈이
45			-	4	영국(Preston, Lancashire)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천갈이
46			-	1	영국(Preston, Lancashire)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천갈이
47			-	2	영국(Warwick)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등받이 제작, 가죽 교체, 다리 재사용, 1개 다리복제 후 제작

⑧ 황제침실 가구

[표 3-26] 황제침실 가구

구분	복원사진	고증사진 (고증자료, 참고자료)	유물사진 (수리 전)	수량	비고
48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대리석 오염 제거, 다리 제작, 바퀴 제작 황제 욕실에 배치 명문 : BEDROOM 3
49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대리석 오염 제거 황후 욕실에 배치
50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대리석 오염 제거, 손잡이 보수 명문 : …OR'S BEDROOM
51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명문 : BEDROOM4
52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키박스 교체 명문 : EMPEROR'S BEDROOM
53				1	영국(stratford upon avon warwick shire)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매트리스 국내설치
54				2	영국(somerset)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55				1	영국(somerset)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천갈이
56				1	영국(Salford Manchester)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57				2	영국(Warwick)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등받이 제작, 가죽 교체, 다리 재사용, 1개 다리 복제 후 제작

⑨ 황후침실 가구

[표 3-27] 황후침실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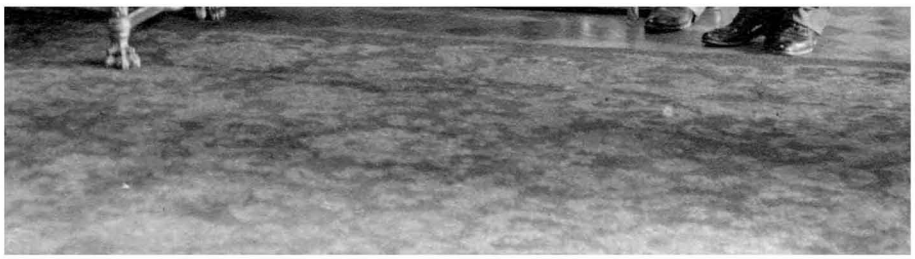
구분	복원사진	고증사진 (고증자료, 참고자료)	유물사진 (수리전)	수량	비고
58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경대 제작, 손잡이 보수
59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명문 : EMPEROR'S BEDROOM
60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키박스, 손잡이 보수 명문 : EMPEROR'S BEDROOM
61				1	국립고궁박물관 이전, 수리 무늬목, 인레이, 파손부위 수리 명문 : EMPEROR'S BEDROOM
62				1	영국(stratford upon avon warwick shire)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63				2	영국(somerset)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64				1	영국(Salford Manchester)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65				2	영국(somerset)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천갈이
66				2	영국(Warwick) 카탈로그 유사제품 구매 등받이 제작, 가죽 교체, 다리 재사용, 1개 다리 복제 후 제작

2) 카펫 설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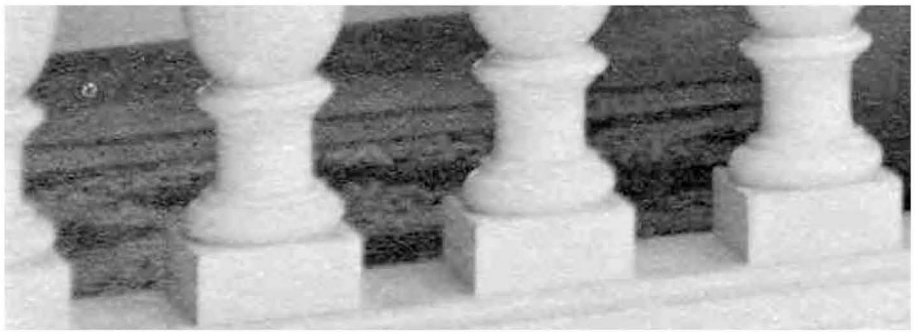
• **개요** : 석조전 고증사진을 보면 바닥에 깔려있는 카펫문양이 잘 보인다. 1층 중앙홀, 접견실, 귀빈대기실, 황제서재, 2층 중앙홀에서 확인된다. 이 사진들을 확대 분석하고 당시 유행하던 패턴들을 연구해서 문양을 결정하였다. 문양은 총 4종류이고 카펫이 설치된 부분은 1층 접견실, 2층 황제침실, 황후침실, 황제서재, 황후거실, 동쪽 계단, 서쪽 계단이다. 이 중 황후거실과 황제서재는 패턴은 같으나 색을 달리해서 사용하였다. 중앙홀과 복도에도 애초 카펫이 깔려

있었으나 관람객 통행량이 많아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외되었다.

카펫의 문양을 선택한 후에 문양의 크기를 결정하였다. 문양 크기는 사진에서 보이는 두발 사이 간격과 신발크기 그리고 의자다리 간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고 주문제작하여 설치했다.



[사진 3-331] 1층 중앙홀 카펫 문양(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



[사진 3-332] 2층 중앙홀 복도 카펫 문양(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

[사진 3-333] 1층 접견실 카펫 문양(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

[사진 3-334] 2층 황제서재 카펫 문양(하정웅 기증 영친왕 사진. 1911)

[사진 3-335] 1층 접견실 카펫 문양(LIFE. 1947)

• **카펫 문양과 설치 :** 접견실의 패턴은 빅토리아시대에 유행하던 패턴으로 확인되었다. 의자와 보폭으로 패턴사이즈를 결정하였다. 사진이 흑백이어서 컬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자문을 받아 컬러는 보르도 레드컬러(자주색 계열)를 주조색으로 하고 빅토리아시대에 대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황제서재의 패턴은 빅토리아시대 오뷔송오지패턴으로 확인되었다. 이 또한 의자 사이즈와 두발 사이의 보폭넓이를 분석하여 패턴의 사이즈를 설정하였다. 황실의 이미지를 고려해 골드, 베이지를 주조색으로 하고 바탕부분은 3~4도의 컬러 실을 섞어서 제작하여 사진에 보이는 스트라이프 느낌을 표현하였다. 황후거실은 사진 자료가 없어 위계를 고려해 황제서재의 패턴에 주조색을 달리하여 제작하였다.

침실용 카펫은 고증 자료가 없었다. 접견실과 거실용 카펫과 이질감이 나지 않으면서 황실의 침실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빅토리아 시대의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하되 주조색을 황제침실은 골드컬러로, 황후침실은 보르도 레드컬러로 하였다.

계단에 깔린 카펫에 대한 자료는 없었다. 계단의 카펫은 적자주색 단일색상에 보더장식(테두리 장식)을 넣었다.

카펫의 소재는 뉴질랜드산 울 100%로 핸드터프티드(수제식)방식으로 제직하였다. 카펫의 두께(파일의 높이)는 8㎜로 하였고 카펫의 중량은 4.5kg/㎡이다. 카펫은 마룻바닥에 접착제 없이 깔았다. 다만 계단은 간접접착식으로 설치했다. 계단에 요철이 있다 보니 두꺼운 카펫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접착제를 사용하거나 철물을 사용해야 한다. 이 두 경우 모두 계단 대리석에 상처가 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고민 끝에 공업용 랩을 계단에 깔고 랩 위에 본드를 발라 카펫을 접착하였다. 나중에 보수를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사진 3-336] 제직 공정

[사진 3-337] 카펫 제직 공정

[사진 3-338] 1층 접견실 카펫 문양

[사진 3-339]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카펫 문양

[사진 3-340] 황제침실 카펫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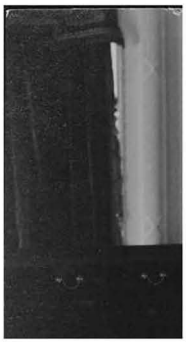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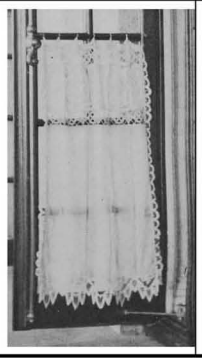
[사진 3-341] 황후침실 카펫 문양

3) 커튼 설치공사

• **개요 :** 석조전 고증사진을 보면 각종 커튼이 보인다. 사진에 보이는 커튼은 형태를 기준으로 볼 때 크게 총 3종류이다. 커튼 상부에서 주름을 잡아 바닥까지 내린 테일로드(Tailored)커튼, 상부는 개방하고 하부에만 커튼이 있는 카페(Cafe)커튼, 상하로 접어 올리는 로만쉐이드(Roman Shade)커튼이다.

이들 커튼은 사진을 최대한 분석해 원형 그대로 복원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만 사진이 흑백이고 선명도가 높지 않아 컬러, 소재, 문양 등을 그대로 복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 사용하였던 문양과 색상, 소재 등을 참조해 복원하였다. 3가지 형태 커튼은 다시 색상, 문양, 소재 등에 따라 다시 14가지로 분류되었고 총 131개의 커튼이 설치되었다. 커튼은 주문제작하였다.

[표 3-28] 고증사진에 나온 커튼 종류

Tailored Curtain(테일로드커튼)			Roman Shade Curtain (로만쉐이드커튼)	Cafe Curtain(카페커튼)	
곡선형바란스	사각형바란스	無바란스		Battenberg lace (바텐버그레이스)	Accordion (아코디온)
1층접견실, 귀빈대기실	2층 황제서재	2층 홀 복도	방풍실 외부	2층 회랑	중앙홀
					

• **커튼 제작 및 설치** : 테일로드커튼은 다시 3가지로 구분된다. 커튼 상부에 커튼박스처럼 설치되는 바란스 모양으로 구분한 것인데 바란스가 곡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과 사각형으로 된 것, 바란스가 아예 없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곡선형바란스의 테일로드커튼은 1층 접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에는 중앙 상부에 큰 이화문이 있으며 테두리 띠에서 이화문양을 확인할 수 있다. 패턴은 다마스크패턴을 볼 수 있으나 정확한 문양은 알 수 없고 비례를 통해 문양간격이 약 350㎜ 정도인 것만 확인되었다. 정확한 문양을 알 수 없어 당시 유행했거나 일반적인 문양을 참조했는데 황제실과 어울리는 빅토리아 시대 문양을 조합해 직조하였다. 커튼의 바란스와 테두리, 커튼 고리에 있는 문양은 반짝임이 없는 무거운 톤의 천을 사용해 아플리케기법(천을 잘라 오려 붙이는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이 커튼은 접견실에 설치하였다.

곡선형바란스 중 귀빈대기실 거울에 비치는 창문 상부의 반원형바란스는 확대하여 문양을 도안하였다. 다만 보이지 않는 부분의 마무리는 고전주의 양식문양집을 참고하여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커튼은 1층 소식당(동,서)과 귀빈대기실에 설치하였다.

사각형바란스는 영친왕이 나오는 황제서재 사진에 희미하게 보이는 커튼이다. 이 커튼 상부의 명암을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접견실 커튼 바란스와 달리 사각형의 커튼박스에 바란스를 부착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희미하게 문양이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정확한 문양을 확인할 수 없어 상징적으로 이화문을 넣는 것으로 하였다. 이 커튼은 바란스를 사각형으로 하였고 2층 황제침실과 황후침실, 황제서재와 황후거실에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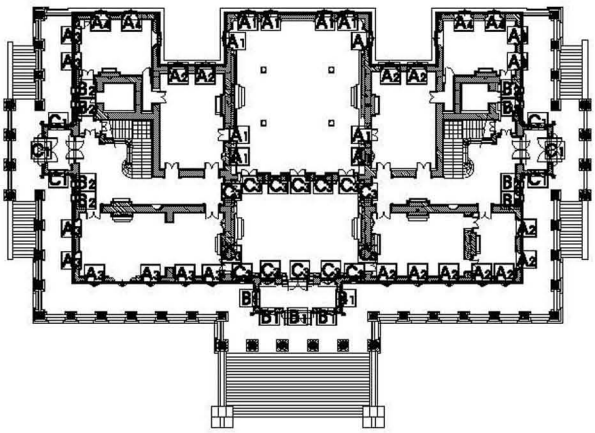
바란스가 없는 테일로드커튼은 사진 상에서 문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커튼은 막에 스트라이프 무늬만 넣었고 1층과 2층 동북1실과 서부1실, 2층 응접실 등에 설치하였다.

테일로드커튼 막의 문양은 다마스크패턴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구체적인 문양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접견실과 소식당(동, 서), 귀빈대기실, 황제·황후실의 문양은 다마스크패턴 문양을 사용하고 나머지 대식당과 기타 전시실로 사용되는 실의 문양은 확인할 수 없어 실 분위기에 맞는 민트그린과 골드 색상을 스트라이프로 직조하고 바란스는 귀빈대기실의 문양을 준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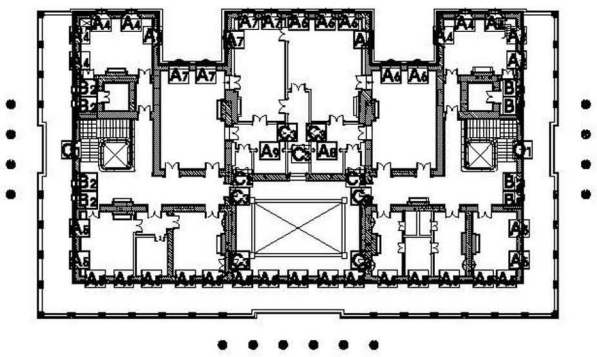
카페커튼은 상부는 노출시키고 하부에만 있는 커튼이다. 카페커튼 중 커튼 막 주변에 레이스가 달려 있는 바텐버그레이스커튼은 사진을 확대해서 문양을 확인하였고 이 문양과 거의 유사한 아사면 60수 핸들자수 커튼을 제작 설치하였다. 이 커튼은 1층과 2층 방풍실과 출입구, 2층 중앙홀 좌·우측 출입구에 설치하였다.

카페커튼 중 아코디온커튼은 사진을 확대해 본 결과 문양이 없었다. 칼라는 흑백사진이어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 백색계열인 것으로 보여 백색의 아사면(삼베로 만든 면) 60수로 평직하여 제작하였다. 바텐버그레이스커튼과 아코디언커튼은 동으로 된 봉을 설치해 걸었다.

로만쉐이드커튼은 바텐버그레이스커튼과 혼용해 사용하였다. 중앙부 이하는 바텐버그레이스커튼으로 되어 있고 상부는 로만쉐이드커튼으로 되어 있다. 로만쉐이드커튼 문양은 바텐버그레이스문양으로 하였다.



[도면 3-67] 1층 커튼 키플랜



[도면 3-68] 2층 커튼 키플랜

[표 3-29] 커튼 설치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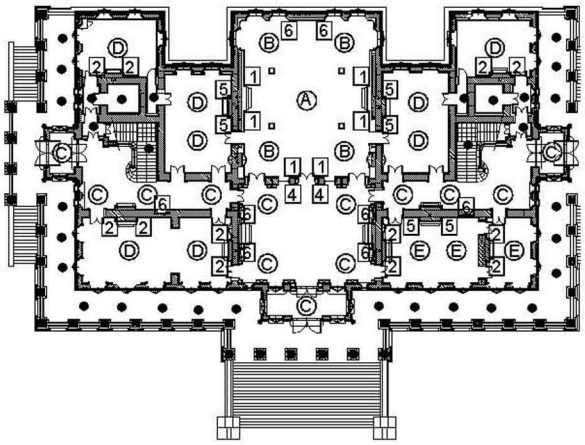
구분	테일로드커튼(77개소)				
	곡선형 바란스			무 바란스	
	A1	A2	A3	A4	A5
사진					
직조방식	주자직	주자직	주자직	주자직	주자직
색상	적자주색	적자주색	민트그린	민트그린	민트그린
특징	다마스크 패턴/이화문	다마스크 패턴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	스트라이프
위치	1층 접견실(10)	1층 소식당(동,서)(4), 귀빈대기실(7)	1층 동북1실, 서북1실(4) 대식당(6)	1층 동북1실, 서북1실(4) 2층 동북1실, 서북1실(10)	2층 응접실,4호실(7), 시종실1,2,3호실(7) 중앙홀(5)
구분	사각형 바란스				
	A6	A7	A8	A9	
사진					
직조방식	주자직	주자직	주자직	주자직	
색상	황금색	적자주색	황금색	적자주색	
특징	다마스크 패턴/이화문	다마스크 패턴/이화문	다마스크 패턴	다마스크 패턴	
위치	2층 황제서재(4), 황제침실(2)	2층 황후거실(3), 황후침실(2)	2층 황제 욕실(1)	2층 황후 욕실(1)	
구분	로만쉐이드커튼(23개소)		카페커튼(31개소)		
			바덴버그 레이스		아코디온
	B1	B2	C1	C2	C3
사진					
직조방식	핸들자수	핸들자수	핸들자수	핸들자수	평직
색상	백아이보리	백아이보리	백아이보리	백아이보리	백아이보리
특징	레이스 장식	레이스 장식	레이스 장식	레이스 장식	아코디언 주름
위치	1층 남쪽 방풍실(5)	1층 동 · 서쪽 복도(4+4) 중앙홀(2) 2층 동 · 서쪽복도(4+4)	1층 동 · 서쪽 방풍실(3+3) 2층 동 · 서쪽 출입구(1+1)	2층 중앙홀 좌우측 출입구(2)	1층 중앙홀(12) 동 · 서쪽 방풍실(2) 2층 중앙홀(4), 황제서재, 황후거실 복도(3)

4) 등기구 설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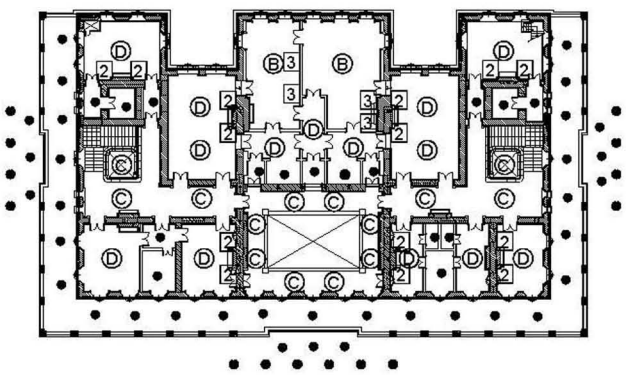
• **개요** : 석조전 고증사진을 보면 수많은 등기구가 보인다. 고증사진에서 확인되는 등기구는 1층 접견실, 중앙홀, 대식당, 2층 중앙홀, 황제서재, 황후거실의 등과 1층 귀빈대기실 벽부등, 소식당(동,서) 펜던트, 회랑 직부등으로 일부 희미한 사진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고증사진에 있는 모양을 재현할 수 있었다. 이 등기구 등을 모두 사진과 동일하게 주문 제작하여 설치했다. 등기구는 샹들리에, 펜던트, 벽부등, 입식등, 직부등으로 5개 타입이며 총 12종류이다. 샹들리에 7개, 펜던트 49개, 벽부등 44개, 입식등 8개, 직부등 99개로 총 207개이다. 등기구 수와 종류를 정리하면 [표3-30]과 같다.

• **등기구 제작** : 접견실과 중앙홀의 입식등은 국립고궁박물관에 실물이 있었다. 이에 이 등기구를 실측하여 제작하였고 나머지 등은 사진에서 비례를 찾아 제작하였다. 고증사진이 없는 방은 1층 동북1실과 서북1실과 복도, 현관, 2층 소식당(동, 서)의 펜던트와 직부등(벽난로 좌우), 중앙홀의 펜던트를 준용하였다. Maples & Co 카탈로그에 나오는 등기구는 고증사진에서 보이는 사진과는 다른 디자인인 것으로 볼 때 석조전에 애초 설치된 등기구는 Crittall & Co의 전등으로 추정된다. 벽부등 일부와 펜던트 일부에서 보이는 횃불모양의 유리덮개는 현재도 유통되는 형태였다. 꽃봉오리모양의 유리덮개는 막혀 있는 형태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등갓은 원형의 등갓과 반원형의 등갓이 고증사진에서 확인된다. 샹들리에의 상부 크리스털 사이에는 백색과 흑색의 사기(흙을 구워 만든 것)를 교차하여 늘어뜨린 것으로 보이는 4줄의 장식이 보인다.

등기구를 제작하기 위해 우선 진흙을 뭉쳐 조각을 한 후 틀을 만들고 이 틀에 황동 주물을 부어 만드는 방식으로 몸통과 가지를 나누어 만든 후에 용접하여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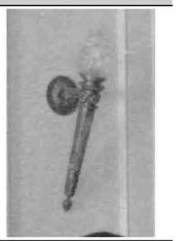


[도면 3-69] 1층 등기구 키플랜



[도면 3-70] 2층 등기구 키플랜

[표 3-30] 등기구 제작설치 분류표

구분	샹들리에 1- Ⓐ	샹들리에 2- Ⓑ	펜던트 1- Ⓒ	펜던트 2- Ⓓ	펜던트 3- Ⓔ	벽부등 1- ①1
고증사진						
재현사진						
위치, 수량	접견실 - 1	접견실 - 4 황제서재 - 1 황후거실 - 1	중앙홀 - 4 2층홀 - 8 현관 - 3 복도, 계단실 - 12	대식당 - 2 소식당(동,서) - 4 1층 동북1실과 서북1실 - 2 황제침실 - 2 황후침실 - 2 2층 남쪽 방 - 5 2층 동북1실과 서북1실 - 2	귀빈대기실 - 3	접견실 - 6
비고	주등 12구 보조등 6구 사기구슬장식	주등 12구 사기구슬장식	주등 3구 횃불모양 유리덮개	꽃봉오리모양 유리덮개	반원형 등갓	횃불모양 유리덮개

구분	벽부등 2- ①2	벽부등 3- ①3	벽부등 4- ①4	벽부등 5- ①5	입식등- ①6	직부등- ●
고증사진						
재현사진						
위치, 수량	각 실 벽난로 좌우 1층 - 12 2층 - 14	황제서재 - 2 황후거실 - 2	중앙홀 - 2	귀빈대기실 - 2 소식당(동,서) - 4	접견실 - 2 중앙홀 - 4 1층 복도 - 2	지층 회랑 - 17 1층 회랑 - 22 2층 회랑 - 34 1,2층 내부 - 26
비고	꽃봉오리모양 유리덮개	원형 등갓	촛대구 3구 등갓 없음	반원형 등갓	횃불모양 유리덮개 국립고궁박물관실물재현	투명유리덮개

5) 벽 장식물 설치공사

가. 거울

• **개요** : 거울과 장식물에 대한 자료는 석조전 고증사진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거울은 실제 사용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장식을 위한 것도 있는 것 같다. 거울 설치 위치가 벽난로 위에 있어 사람 눈높이보다 높기 때문이다. 거울은 주문제작해서 설치한 것과 기성품을 설치한 것이 있다.

• **주문제작** : 주문제작한 거울은 총 6개로 1층 귀빈대기실에 2개, 귀빈대기실 우측 방에 1개, 대식당 1개, 2층 황제서재 1개, 황후거실 1개이다. 귀빈대기실 2개와 황제서재에 1개는 목재로 틀을 만들었는데 사진에 나와 있는 문양을 최대한 살려 조각해 금박을 입혀 설치하였다. 특히 귀빈대기실 거울은 사진이 선명한 편이어서 그 문양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하였다. 다만 황제서재에 있는 거울은 선명도가 떨어져 당시 유행하던 문양을 차용해서 조각하였다. 귀빈대기실 우측 방과 소식당(동)에도 각각 1개씩 총 2개의 주문제작한 거울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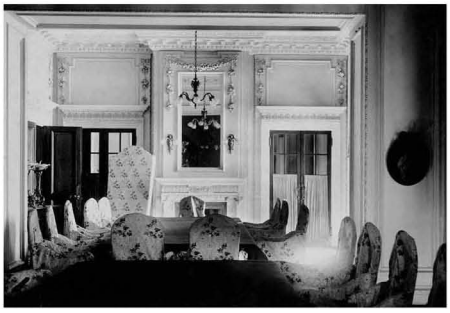
• **기타 거울** : 그 외 설치된 거울은 16개이다. 1층 대식당에 설치한 2개의 거울은 흰색의 단순형태로 기성제품이 없어 별도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중앙홀의 2개는 기성제품에 거울받침과 테두리를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소식당(서)의 사진에 나오는 벽면거울은 벽면 몰딩 크기에 맞게 기성제품 중에서 골라 제작하였다. 1층 접견실 거울 3개는 좌우 벽난로 위에 2개와 북쪽 벽면 중앙에 1개로 크기가 큰 거울인데 거울테두리는 석고몰딩으로 제작하여 거울 부착 후 몰딩을 돌려 설치하였다. 그 외 사진 자료가 없어 복원하지 않고 전시시설로 쓰이는 실과 황제, 황후침실의 거울은 기성제품 중에서 750×850㎜의 크기로 엔틱스타일의 거울을 설치하였다.

[사진 3-342] 1층 귀빈대기실 거울(복원 전)

[사진 3-343] 1층 귀빈대기실 거울(복원 후)

[사진 3-344] 2층 황제서재 거울(복원 전)

[사진 3-345] 2층 황제서재 거울(복원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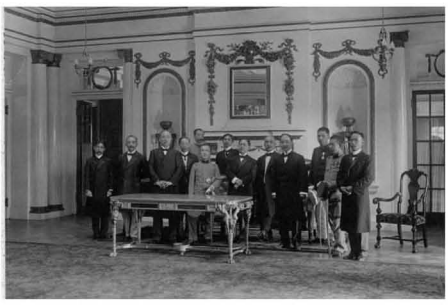


[사진 3-346] 1층 대식당 거울(복원 전)

[사진 3-347] 1층 대식당 거울(복원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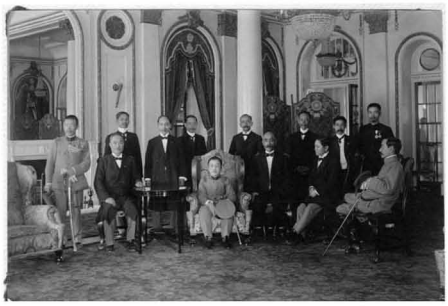
[사진 3-348] 1층 접견실 거울(복원 전)

[사진 3-349] 1층 접견실 거울(복원 후)



[사진 3-350] 1층 중앙홀 거울(복원 전)

[사진 3-351] 1층 중앙홀 거울(복원 후)



[사진 3-352] 1층 접견실 거울(복원 전)

[사진 3-353] 1층 접견실 거울(복원 후)

나. 장식물

1층 중앙홀 4면과 중앙홀과 면하는 접견실 남측 창호 상부, 방풍실 북측 창호 상부에는 거울 위에 장식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 장식물을 사진에 보이는 형태로 목재를 조각해서 형틀을 제작하고 황동 주물을 부어 만든 뒤 금박을 입혀 설치하였다. 그 모양은 2가지 타입이고 종류로는 6종류가 된다.

[사진 3-354] 1층 중앙홀 장식물 1

[사진 3-355] 1층 중앙홀 장식물 2

[사진 3-356] 1층 중앙홀 장식물 3

[사진 3-357] 1층 중앙홀 장식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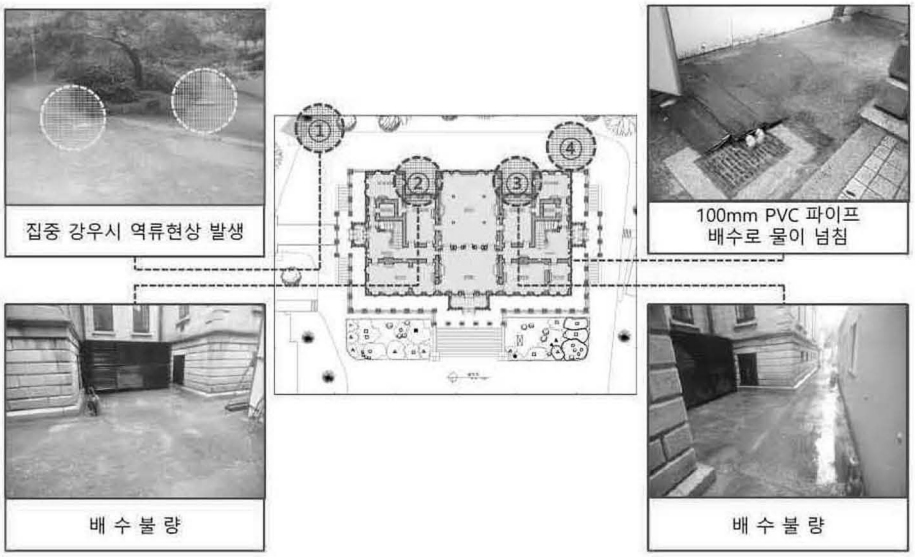
[사진 3-358] 1층 중앙홀 장식물 5

[사진 3-359] 1층 중앙홀 장식물 6

21. 기타공사

1) 외부 지반 정비 및 배수공사

• **개요** : 석조전 외부 바닥은 애초 지반보다 약 100~150㎜ 정도 높아져 있었다. 세월이 흘러 토사가 축적된 것이다. 석조전 북측의 배면은 주변 지형이 높아 우수가 배면 쪽으로 흘러 토사가 축적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다 보니 배면 쪽은 배수에 문제가 많았다. 이에 자문회의(17차)를 통해 지반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배수를 위한 공사도 같이 하였다. 지반을 낮추다 보니 그동안 묻혀 있던 석조전 지대석과 좌우측면 북측 계단이 일부 노출되어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지반공사는 남측 정면을 제외한 나머지 삼면에서만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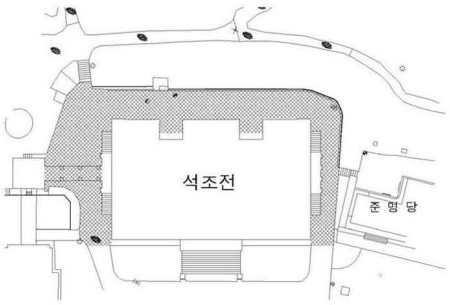


[그림 3-120] 석조전 주변 배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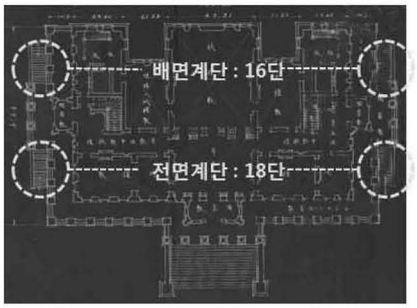
• **외부 지반 정비공사** : 기존 포장은 경화마사토 포장으로 되어 있었다. 이 포장을 약 250㎜ 정도 걷어내었다. 면적은 995㎡이다. 포장을 걷어낸 결과 좌·우측면인 동측과 서측에 묻혀 있었던 북측 계단의 맨 밑단이 드러났다. 또 지대석이 기존보다 100~150㎜ 정도 더 드러나게 되었다. 하마마츠 시립도서관 도면에는 배면 쪽은 16단, 정면 쪽은 18단의 계단이 표시되어 있으나 계단은 모두 18단으로 이는 작도 상의 단순 실수로 보인다. 외부지반 정비공사로 지반 높이가 낮아지면서 묻혀있던 북쪽방향 계단과 지대석이 노출되었다.

새로 설치하는 포장은 기존 포장과 같이 경화마사토 포장으로 하였다. 경화마사토 포장은 세척마사에 친환경 파우더를 섞어 강도를 높이고 안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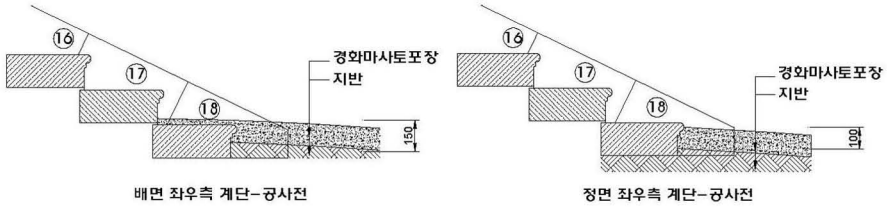
첨가하여 흙과 유사한 색으로 만든 뒤 150㎜ 두께로 고르게 펴고 롤러로 다진 후 비닐포장으로 급격한 수분증발을 막아 경화시켰다. 시멘트포장보다 물을 적게 섞어 롤러로 다지는 건식공법으로 산책로나 공원 등에 많이 쓰이는 포장 공법이다.



[도면 3-71] 지반공사 범위



[그림 3-121] 하마마츠 도면에 표기된 계단



[도면 3-72] 공사 전 좌·우측 계단 상황

[사진 3-360] 경화마사토 포장공사 중

[사진 3-361] 경화마사토 포장공사 완료 후

[사진 3-362] 배면 포장공사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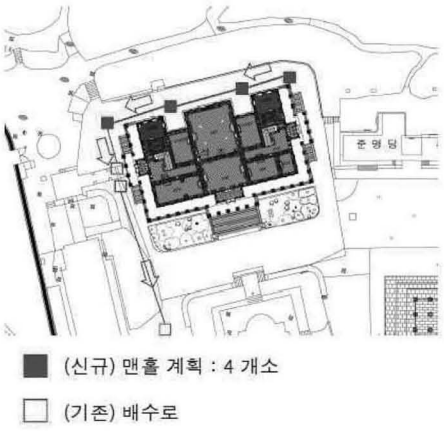
[사진 3-363] 배면 포장공사 후

[사진 3-364] 서쪽 북측 계단(공사 전)

[사진 3-365] 서쪽 북측 계단(공사 후)

• **배수로공사** : 지반정비와 더불어 배수로공사도 하였다. 배면의 경우 물매가 거의 없었다. 배면 석축 하부에 배수로와 맨홀이 1개소가 있는데 지름 100㎜ 정도여서 배수가 원활치 못했다. 이러다 보니 집중호우 시 물이 원활하게 배수되지 못하고 역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면에 맨홀 4개를 신설하였다. 물매도 맨홀방향으로 잡았고 배수관도 100㎜에서 200㎜로 키워 배수를 원활하게 하였다. 또 PVC 배관을 이중벽관으로 바꿔 상부의 토압과 이동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배수관은 덕수궁 미술관 연결통로 하부에 있는 기존 맨홀과 연결하였다.



[도면 3-73] 배수 계통

[사진 3-366] 노출된 기존 오지관

[사진 3-367] 신설된 이중벽 배수관

• **석조전 기초 확인** : 배수로공사를 위한 터파기를 하는 와중에 석조전의 기초가 확인되었다. 확인 결과 두께는 약 600㎜ 정도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기초를 설치하고 그 위에 지대석을 설치한 후 석조전 건물을 올렸음을 알 수 있었다. 콘크리트 기초 밑으로는 양질의 마사토로 된 견고한 지반이 있었다. 이 지반에서 배수용 오지관이 나왔다. 오지관은 석조전 벽에서 약 1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지면에서 1.2m 하부에 있었고 지름은 약 200㎜ 정도였다.

보존 상태는 양호했다. 석조전 선홈통에서 나오는 우수가 이 오지관을 통해 배수되도록 되어 있는데 오지관이 오니로 막혀 있어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신설되는 배수관에 연결하여 배수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오지관은 그 위치에 그대로 묻어 두었다. 신설되는 배수관 때문에 제거되는 일부 오지관은 지층 수장고에 보관하였다.

[사진 3-368] 노출된 콘크리트 기초

• **선홈통공사 :** 석조전 2층 회랑에는 벽에 설치된 선홈통이 있다. 옥상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받아 외부로 배수하는데 이 선홈통의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누수된 우수는 2층 회랑 바닥에 설치된 판석 하부로 흘렀고 다시 슬라브를 구성하고 있는 철골을 타고 흘러 1층 회랑 석기둥 벽면을 녹물로 오염시켰다. 이를 보수하는 공사를 하였다.

우선 선홈통의 연결부위를 코킹으로 막아 우수를 차단하였다. 그래도 누수될 것을 우려해 2층 바닥 판석을 들어내어 바닥에 우레탄방수를 하고 그 위에 배수판을 설치해 회랑 외부 쪽에 길게 옆으로 난 배수구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만들었다. 또 석기둥 하부 주위와 배수구 주변에는 방수시트를 부착하고 에폭시로 코팅하였다. 그 위로는 원래 판석을 깔았다.

[사진 3-369] 선홈통을 통해 누수된 2층 회랑 바닥

[사진 3-370] 누수된 우수로 녹물 오염된 1층 석기둥

[사진 3-371] 기둥 주위에 방수시트를 깔고 에폭시 코팅

[사진 3-372] 우레탄방수와 배수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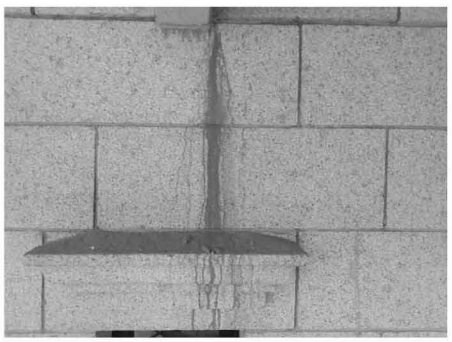
16) 덕수궁 석조전보수공사 중 외벽 보존처리공사 결과보고서 요약 정리함

2) 외벽 보존처리공사[16)]

• **현황** : 석조전 외벽은 석재로 되어 있다. 석재는 다른 재질에 비해 내구성이 있다. 그러나 석재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환경에 따른 풍화 등의 문제가 생긴다. 덕수궁 석조전 외벽에는 다양한 형태의 오염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먼지에 의한 오염, 철녹에 의한 오염, 페인트 및 시멘트 등에 의한 오염 등이 있고 그 외에도 균열, 입상분해 및 탈락과 같은 물리적인 훼손도 관찰되고 있었다.

먼지에 의한 오염은 석조전 외벽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외벽 상부의 물길을 따라 흑색으로 변색되어 나타나고 있다. 철녹에 의한 오염은 2층 외벽에서 주로 관찰되며 석조전 내부로 수분이 침투하여 건축자재의 부식을 일으켜 밖으로 용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진 3-373] 먼지에 의한 오염



[사진 3-374] 철녹에 의한 오염

• **세척** : 우선 메스 및 모터툴을 이용하여 외벽 표면에 있는 페인트 및 시멘트 자국을 제거하는 건식 세척을 1차적으로 실시하였다. 페인트 자국과 같이 국소부위에 나타나는 오염물은 메스를 이용하였으며, 표면에 넓게 분포하는 시멘트 자국 및 백화에 의한 오염은 모터툴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차 건식 세척이 끝난 후 습식 세척을 이용하였다. 습식 세척은 물과 부드러운 솔을 이용하였으며 부분적으로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였다. 작업 중에

는 석재를 충분히 건조시켜 석조 조각면에 대한 표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석재 표면의 명암 변화나 분말화 정도를 확인,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작업을 진행하여 세척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석조물 표면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였다. 고압세척기의 사용은 석조전의 배면과 같이 석재의 풍화가 적어 고압 분사를 했을 때 큰 손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에서 적용하였으며, 고압세척 후에도 남아 있는 오염물은 솔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습식 세척으로도 제거가 되지 않는 철녹은 옥살산을 이용한 화학적 세척인 습포법을 이용하여 제거하였다. 옥살산 농도는 예비테스트를 거쳐 세척 효과가 가장 뛰어난 3%를 선정하였다. 습포법의 적용은 철녹흔이 나타나는 외벽 기둥과 외부 장식이며 습포법 적용, 세척 후 잔류 약품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물을 뿌려 중화시켜 주었다.

[사진 3-375] 모터툴을 이용한 백화 제거

[사진 3-376] 외벽의 습식세척

[사진 3-377] 옥살산을 이용한 습포법

• **수지처리 :** 덕수궁 석조전 우측면 기둥에는 균열이 관찰되고 있으며, 옥상 동자주와 정면 및 좌·우측면 계단에서 부분적인 부재 파손이 나타났다. 이를 보수하는 방법으로 수지처리를 수행하였다. 보존처리에 사용한 수지는 접합강도를 충족하면서 비교적 황변현상이 적은 저점도 에폭시수지(L-30)이다. L-30은 현재까지 석조문화재 보수에 적용된 사례 등을 참고해 보았을 때 색상변화가 적고 물성이 좋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이다.

균열부위의 수지처리는 균열 사이로 수분이 침투되지 않도록 균열 틈새를 메워 주는 작업을 하였으며, 또한 충진 과정에서 사용한 석분은 동종 석재를 선택하여 암석의 입도분포와 유사한 입자크기로 만든 후 수지와 함께 처리하였다

[사진 3-378] 동자주 보존처리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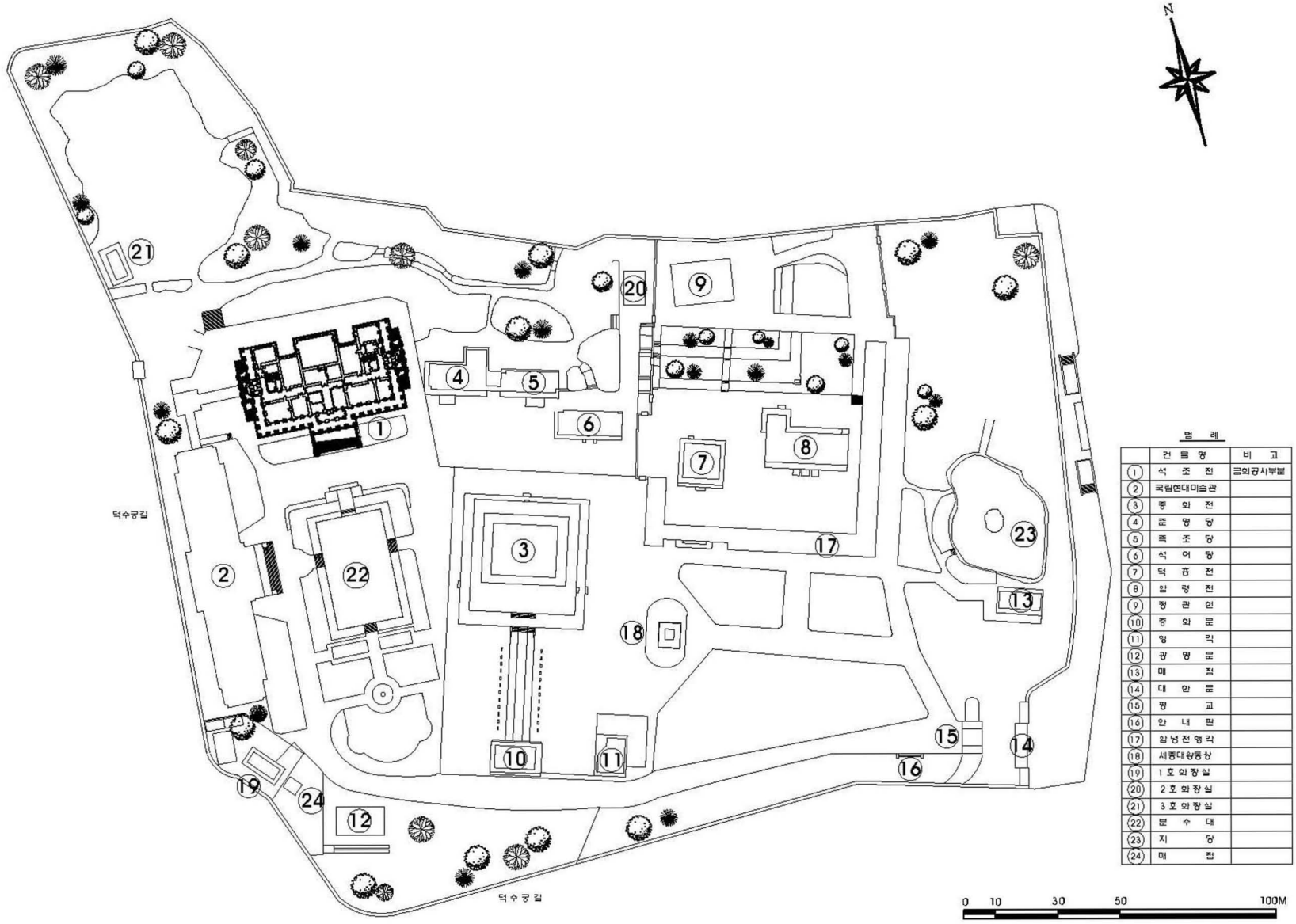
[사진 3-379] 동자주 보존처리 후

• **강화 처리 :** 덕수궁 석조전의 지층은 다른 부분에 비하여 습기가 많아 입상분해가 더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에 이 부분에 대한 강화처리를 수행하였다. 석조전에 사용된 강화제는 암석의 강화처리 효과에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에틸실리케이트 계열인 Wacker 사의 SILES BS 100(이하 OH 10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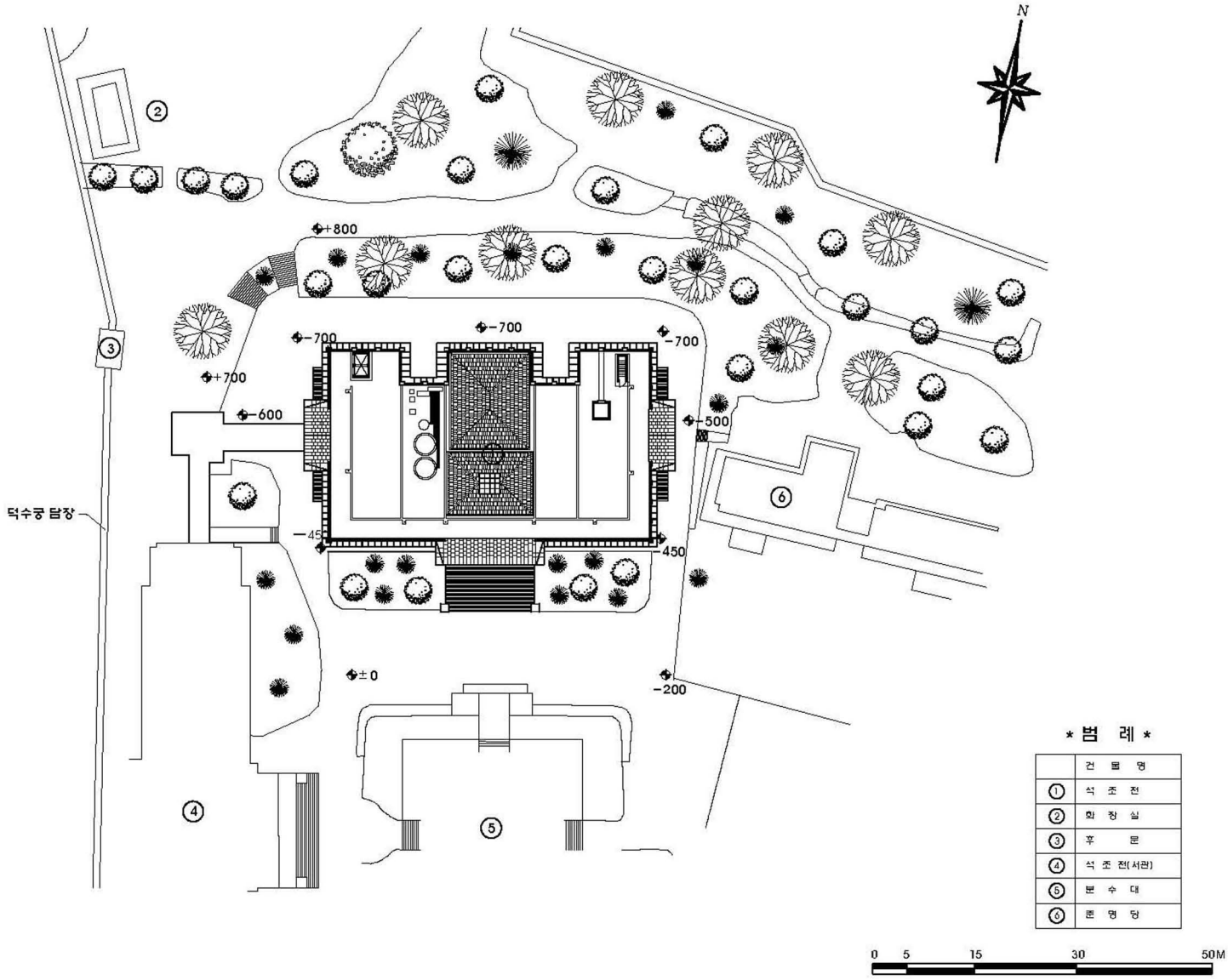
OH 100의 Ethyl silicate 함량은 거의 100%로 25° C에서 밀도가 약 0.99g/㎤ 이며, 무색에서 흐린 노란색의 액체이다. 반응에 따른 부산물은 Ethanol로 물에 용해되거나 섞이지 않는다. 강화제는 습기가 많은 날 적용을 하면 표면에 하얀 분말이 고형되어 암석의 내부에 충분한 침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공사에서는 석조전의 세척이 완료된 후 충분한 건조과정을 거쳤으며, 일주일 정도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을 선정하여 강화제를 도포하였다.

• **줄눈공사 :** 덕수궁 석조전의 정면 및 좌우측 계단의 줄눈은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줄눈이 훼손된 계단은 미관상 좋지 않았으며, 강우 시 비가 계단 내부로 스며들어 계단과 이어진 석조전 지층 부분에 습기가 많이 생겨 입상분해가 더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에 이번 공사에서 줄눈공사를 다시 실시하였다. 줄눈공사는 기존의 줄눈을 전부 제거한 후 다시 줄눈을 넣었다.

제 4 장
도면


N
덕수궁길
덕수궁길
범 례
건 물 명
비 고
① 석 조 전
금회공사부분
② 국립현대미술관
③ 중 화 전
④ 준 명 당
⑤ 흑 조 당
⑥ 석 어 당
⑦ 덕 흥 전
⑧ 함 령 전
⑨ 정 관 헌
⑩ 중 화 문
⑪ 영 각
⑫ 광 명 문
⑬ 매 점
⑭ 대 한 문
⑮ 평 교
⑯ 안 내 판
⑰ 함녕전영각
⑱ 세종대왕동상
⑲ 1호화장실
⑳ 2호화장실
㉑ 3호화장실
㉒ 분 수 대
㉓ 지 당
㉔ 매 점
0 10 30 50 100M

덕수궁 전체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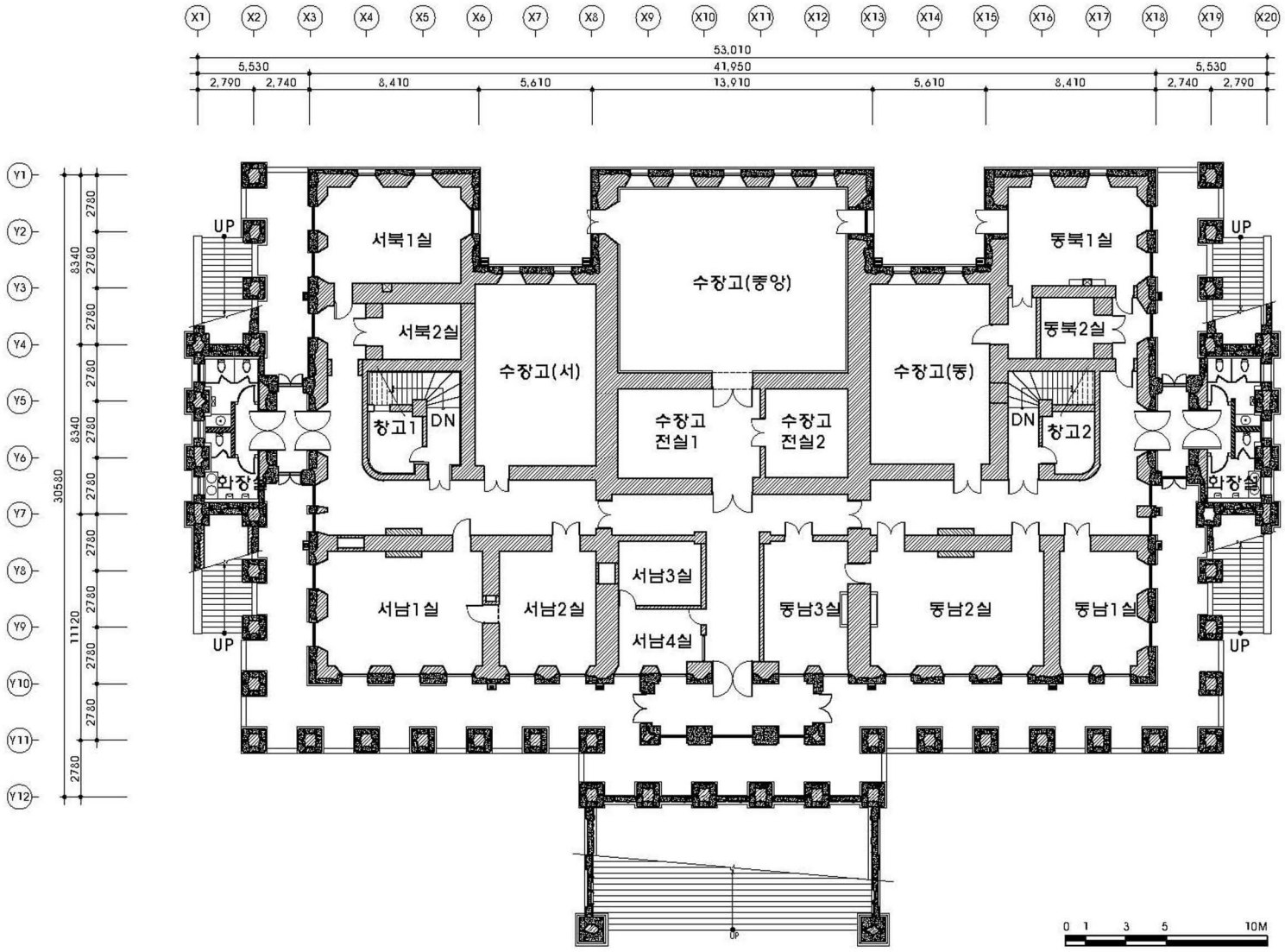


* 범 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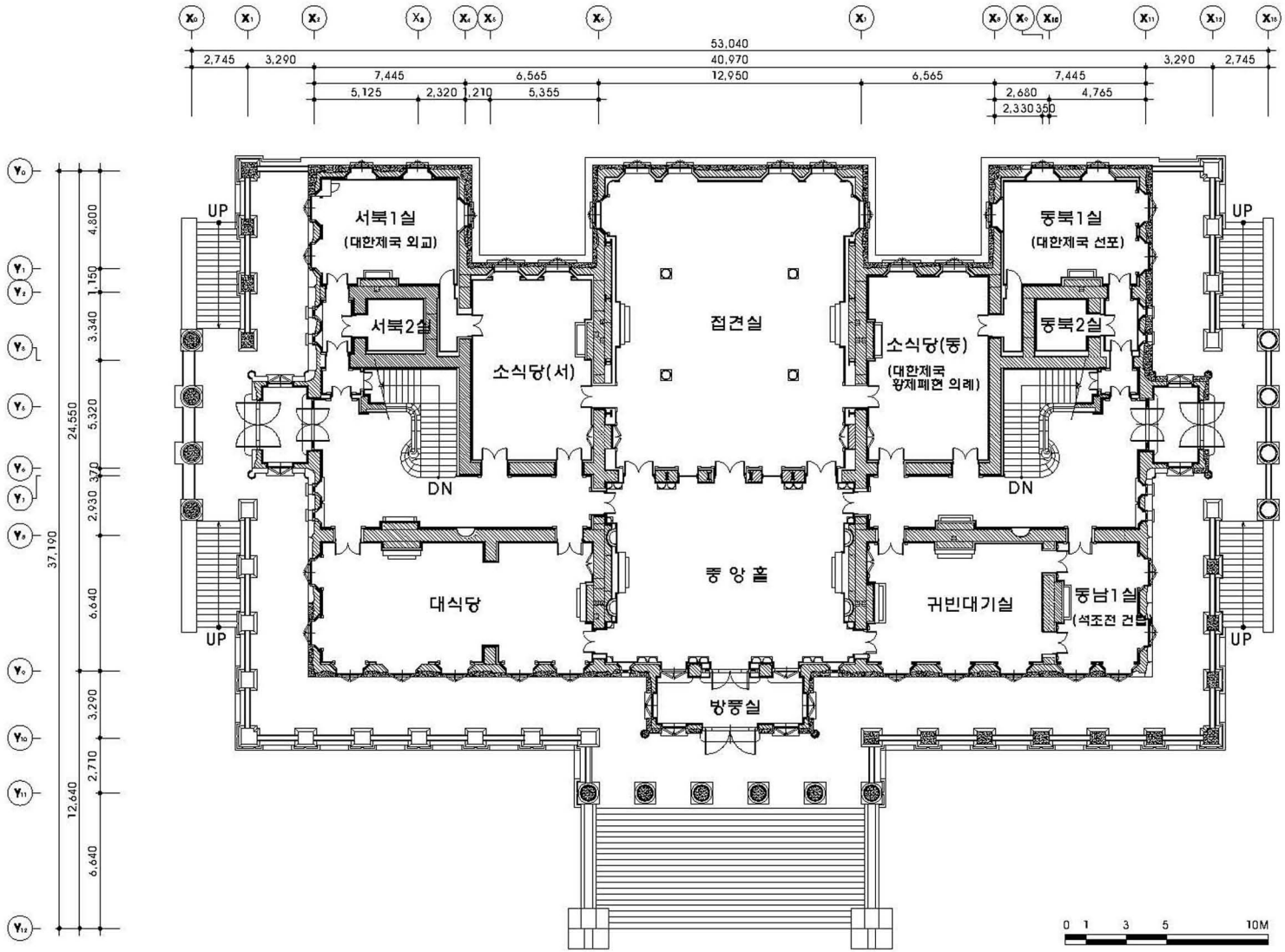
	건 물 명
①	석 조 전
②	화 장 실
③	후 문
④	석 조 전(서관)
⑤	분 수 대
⑥	분 명 당

0 5 15 30 5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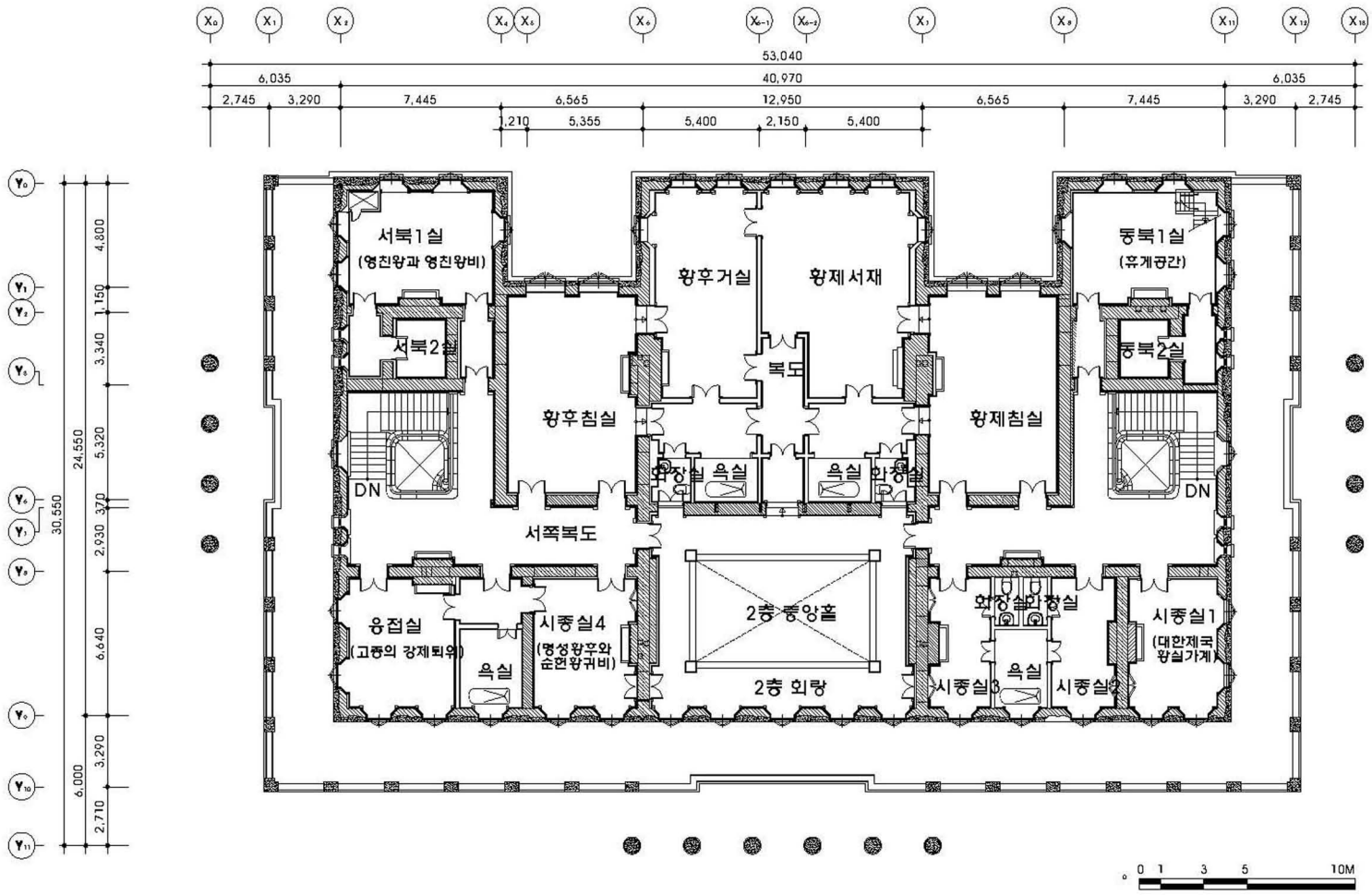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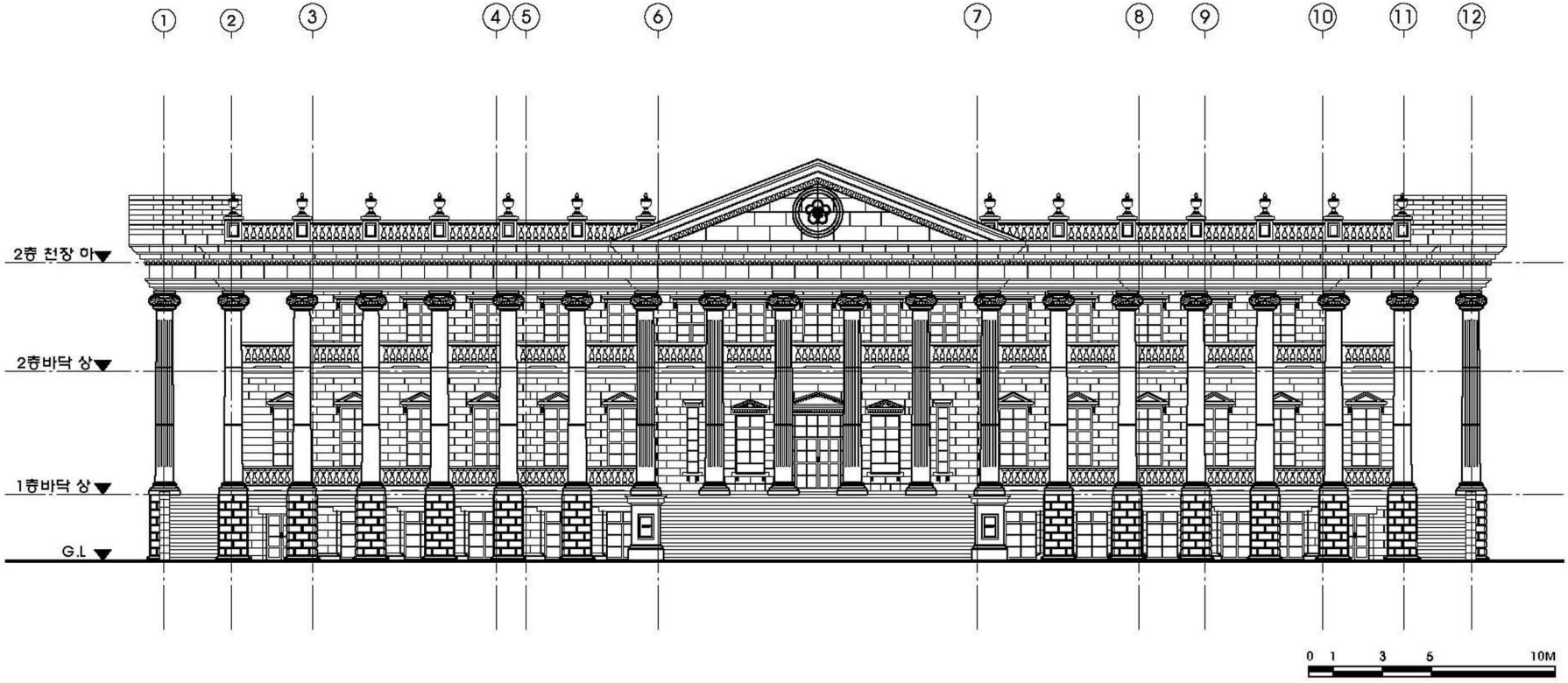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지층 평면도(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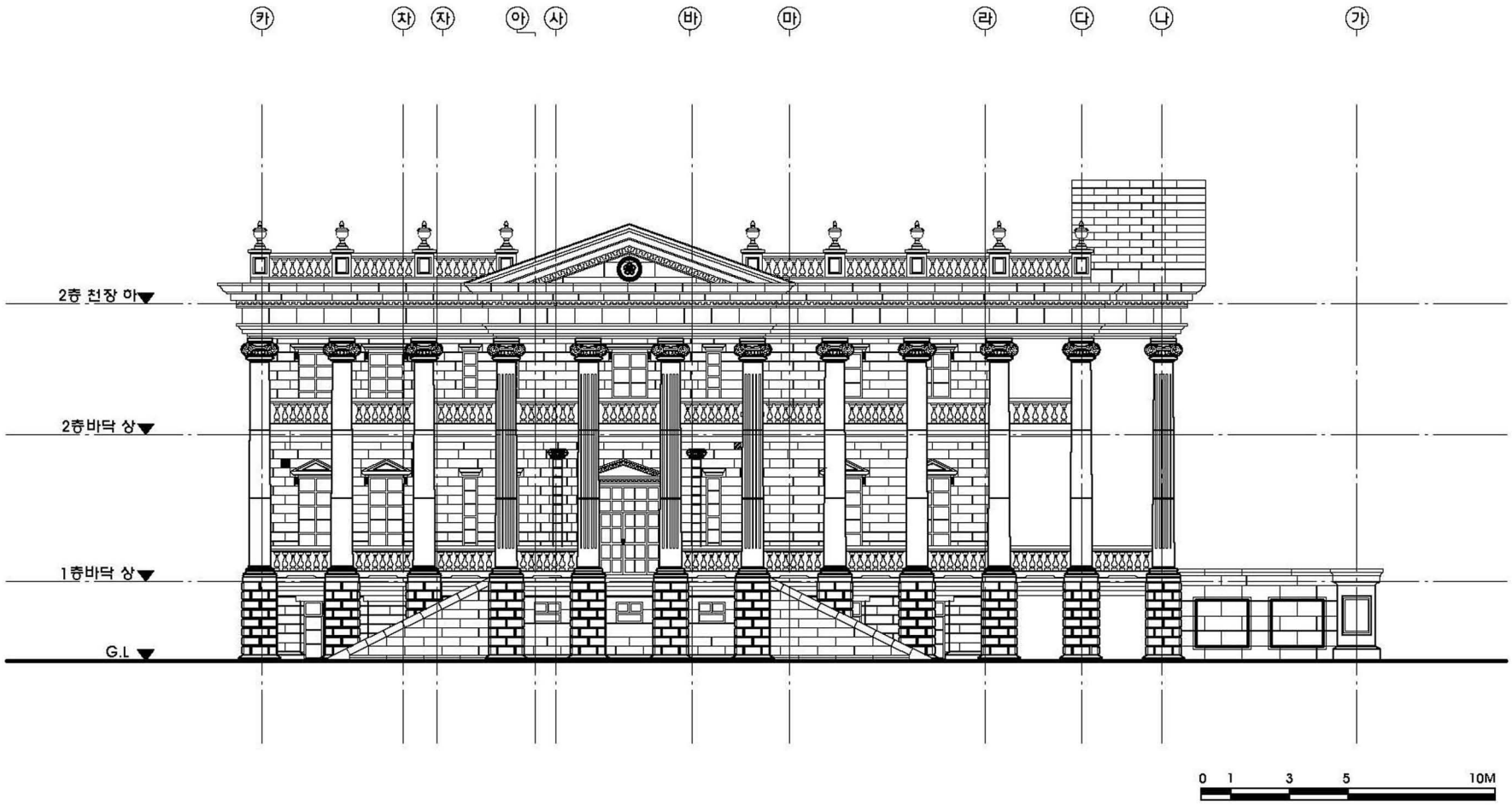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1층 평면도(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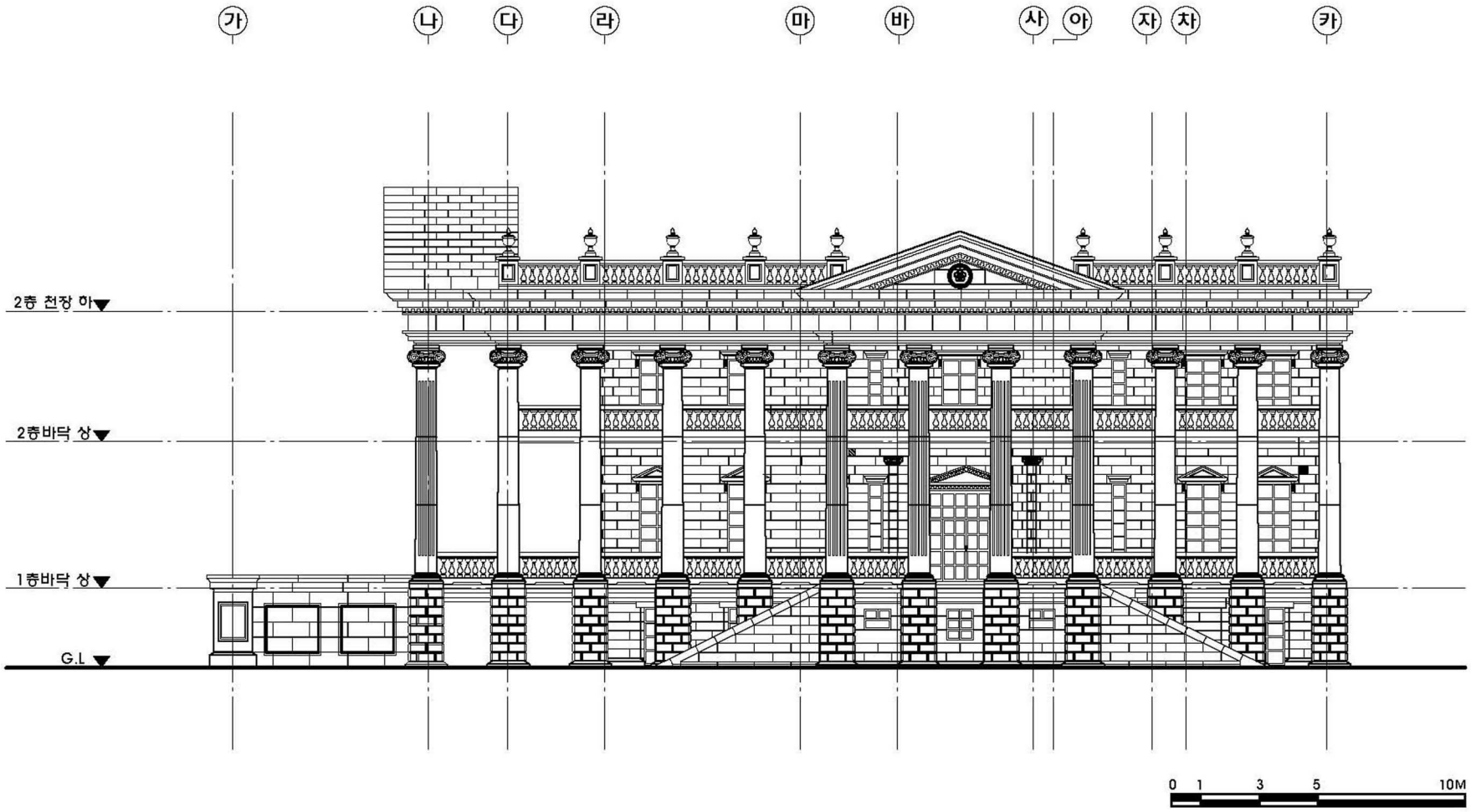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평면도(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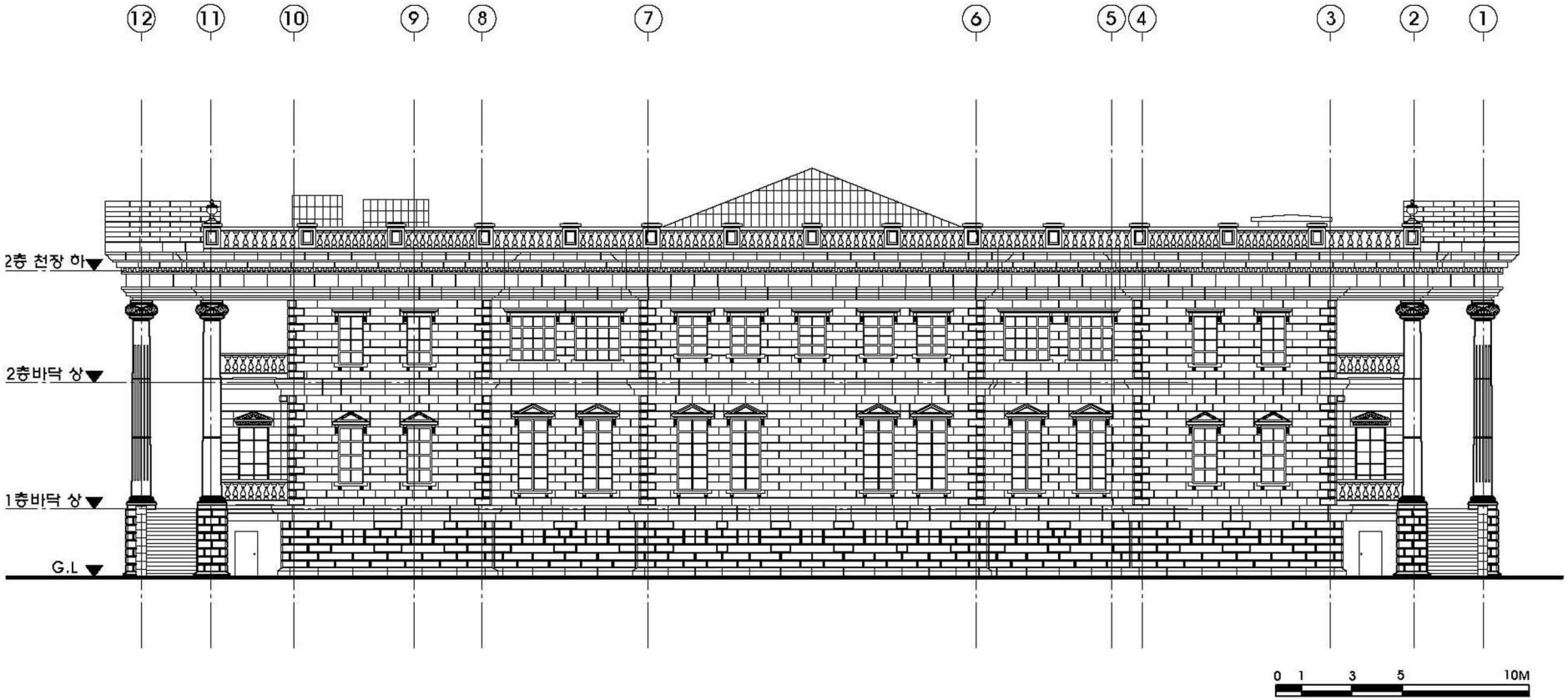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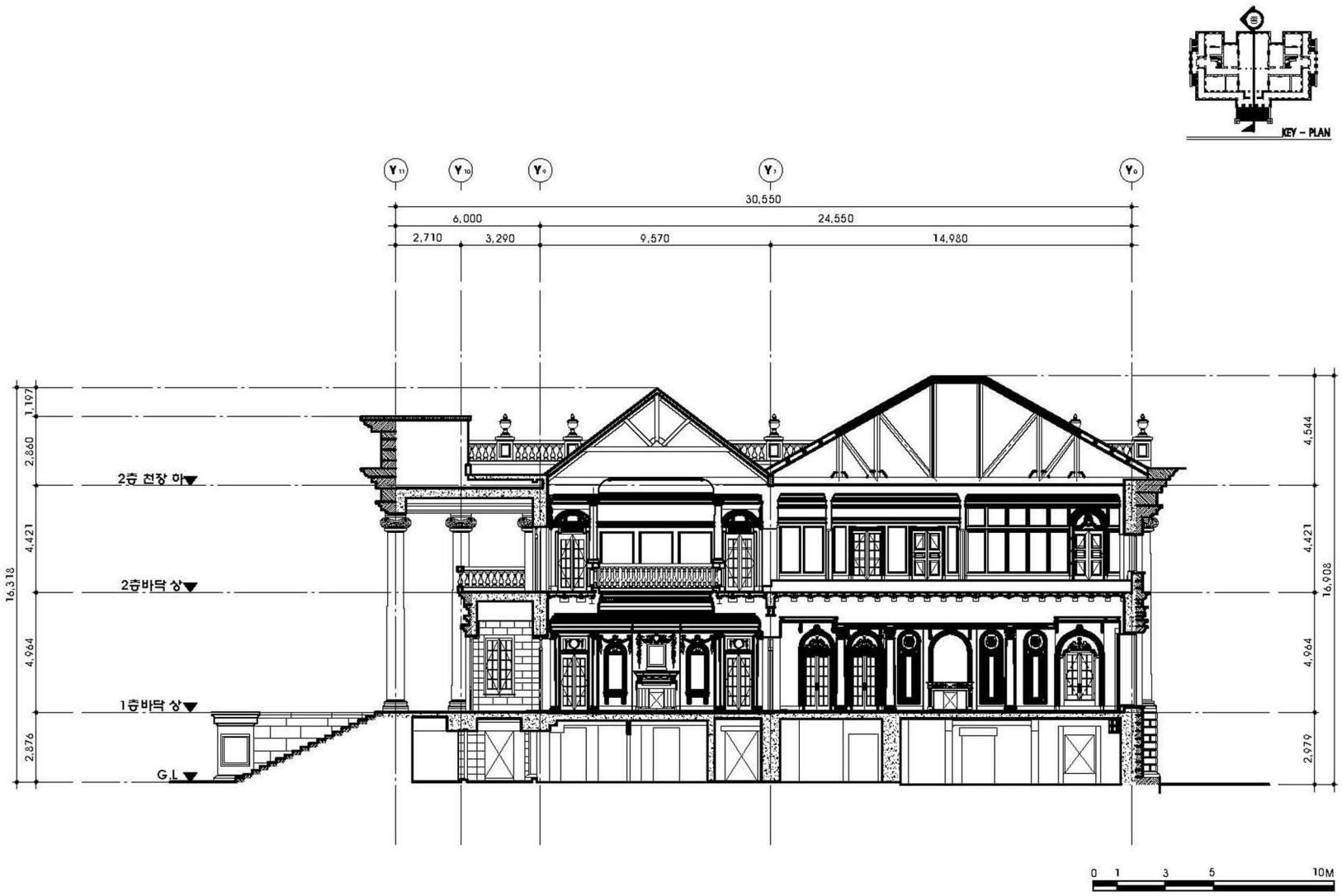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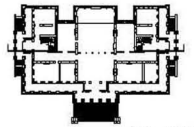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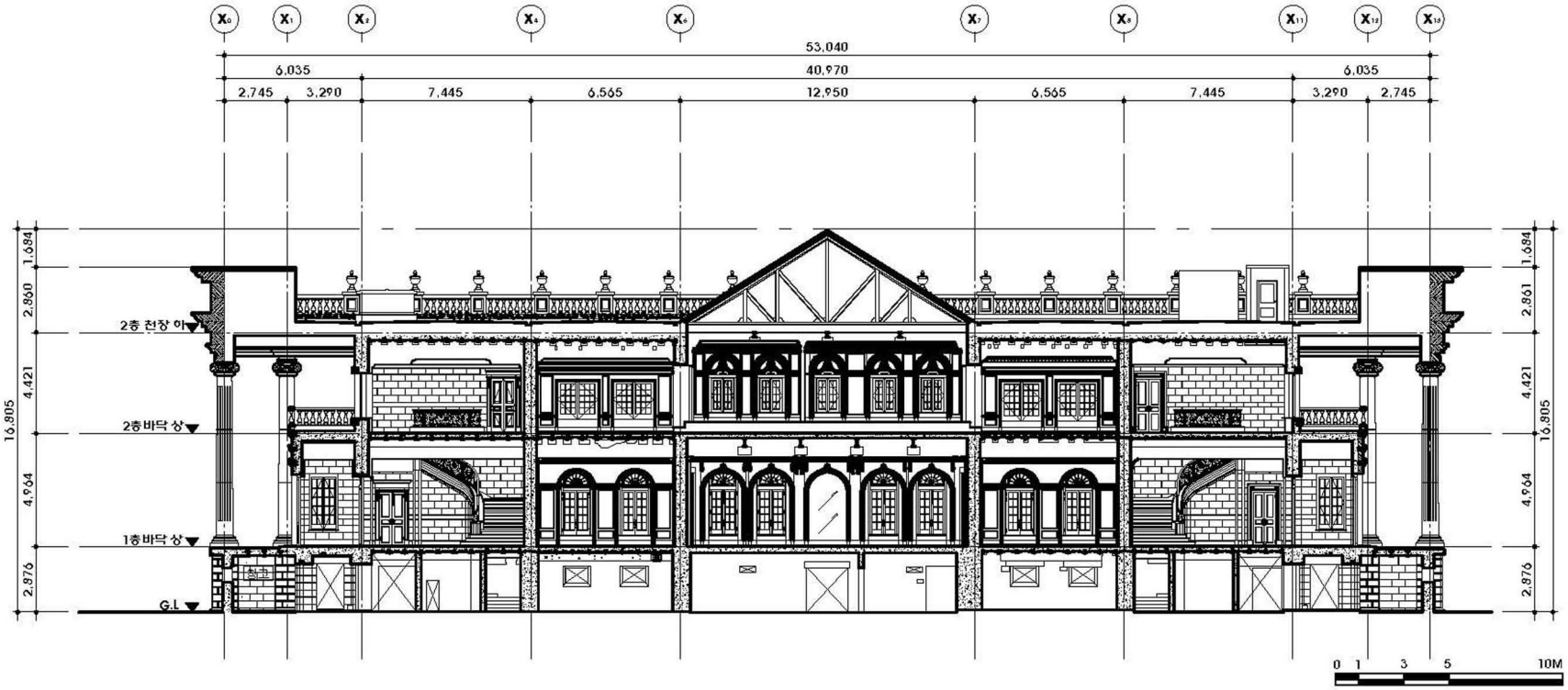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배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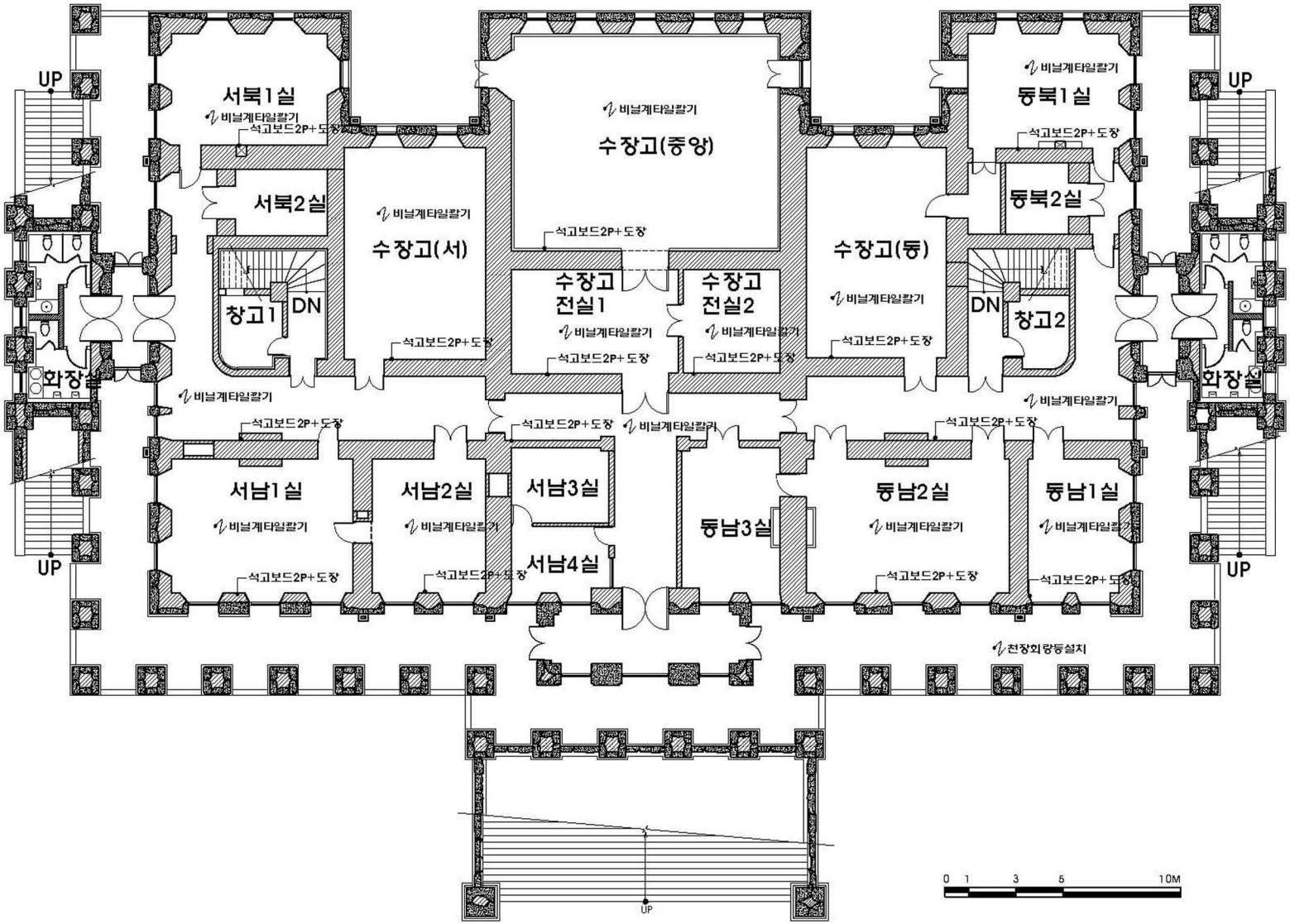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종단면도(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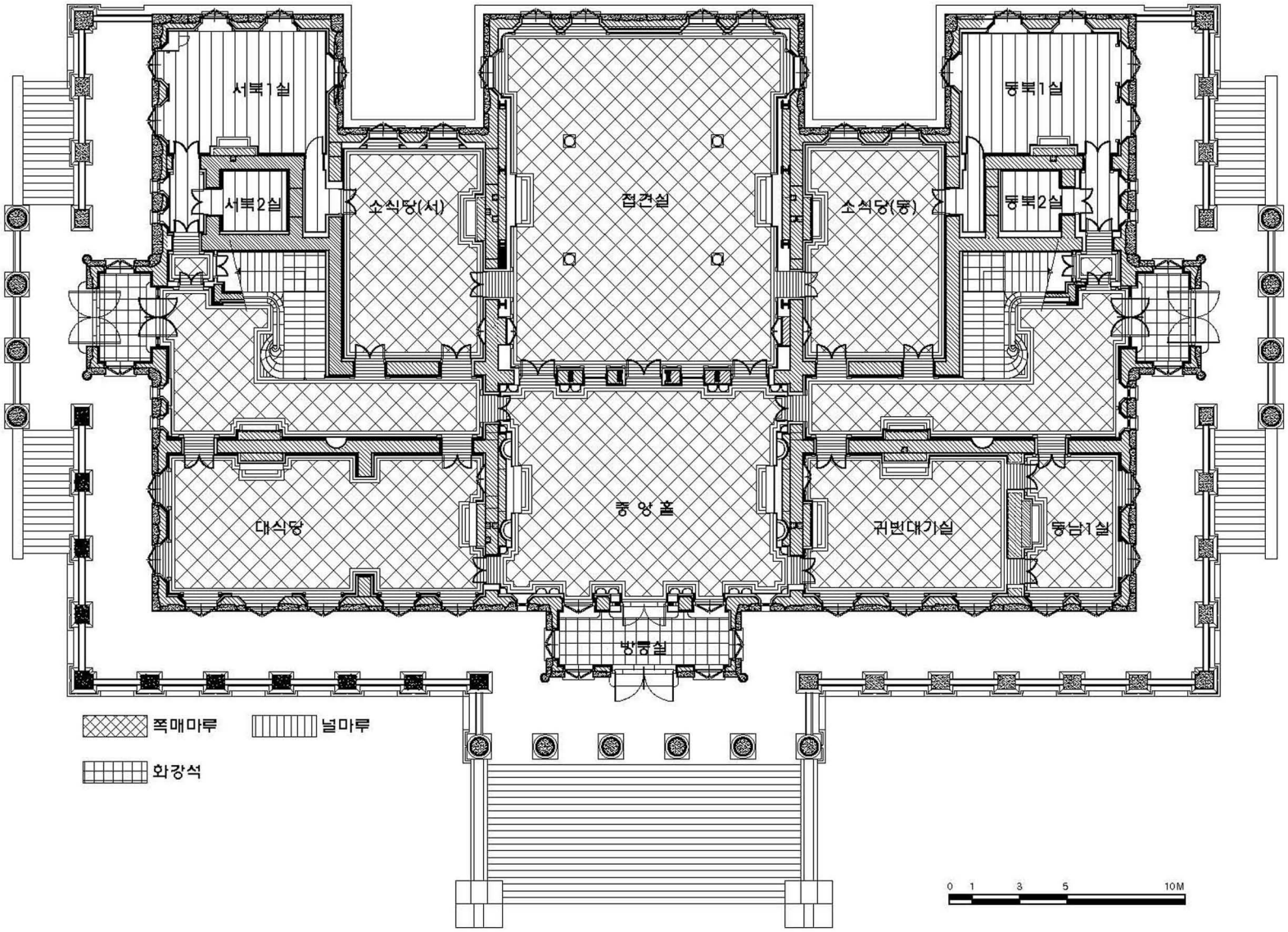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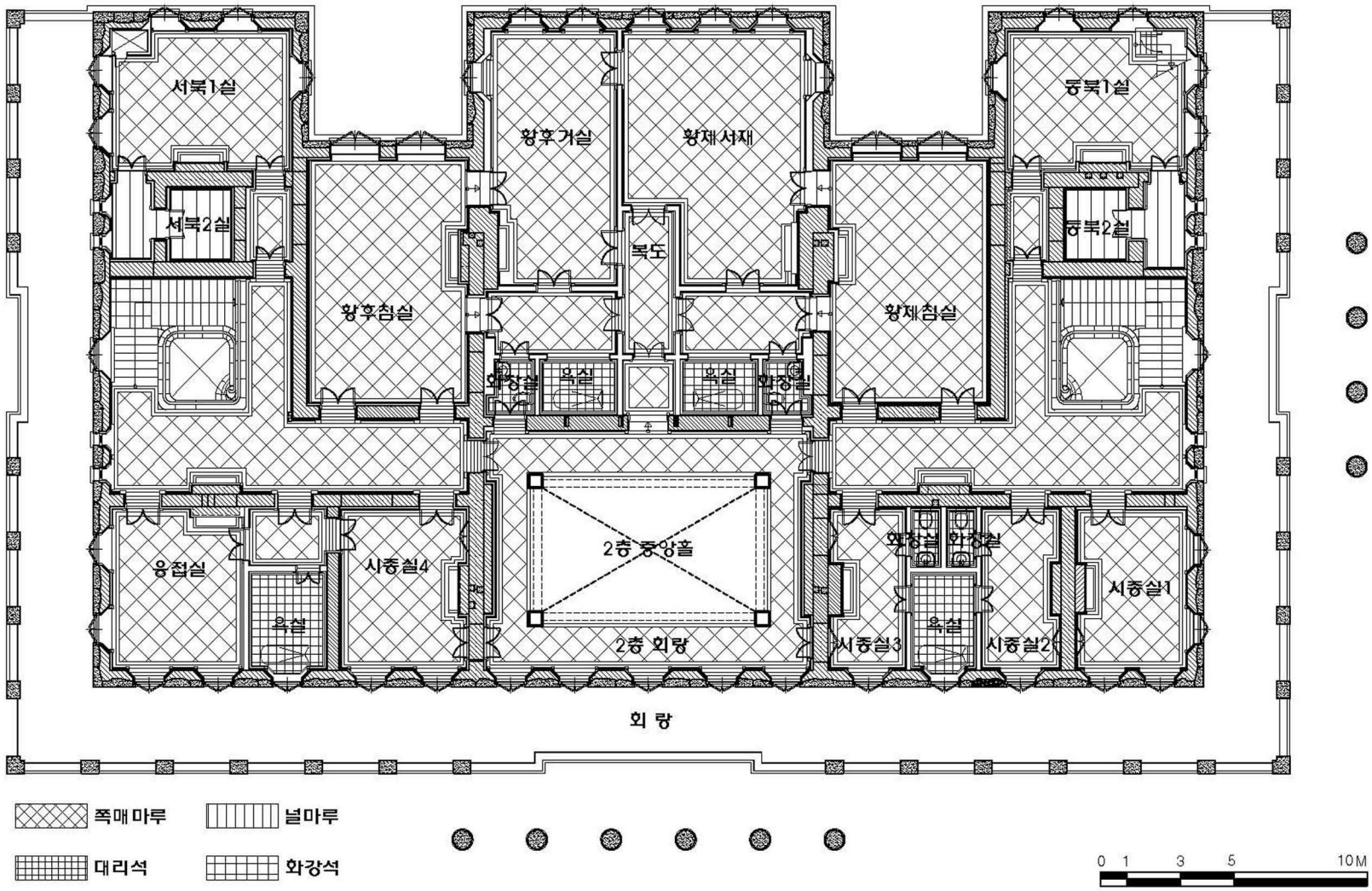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횡단면도(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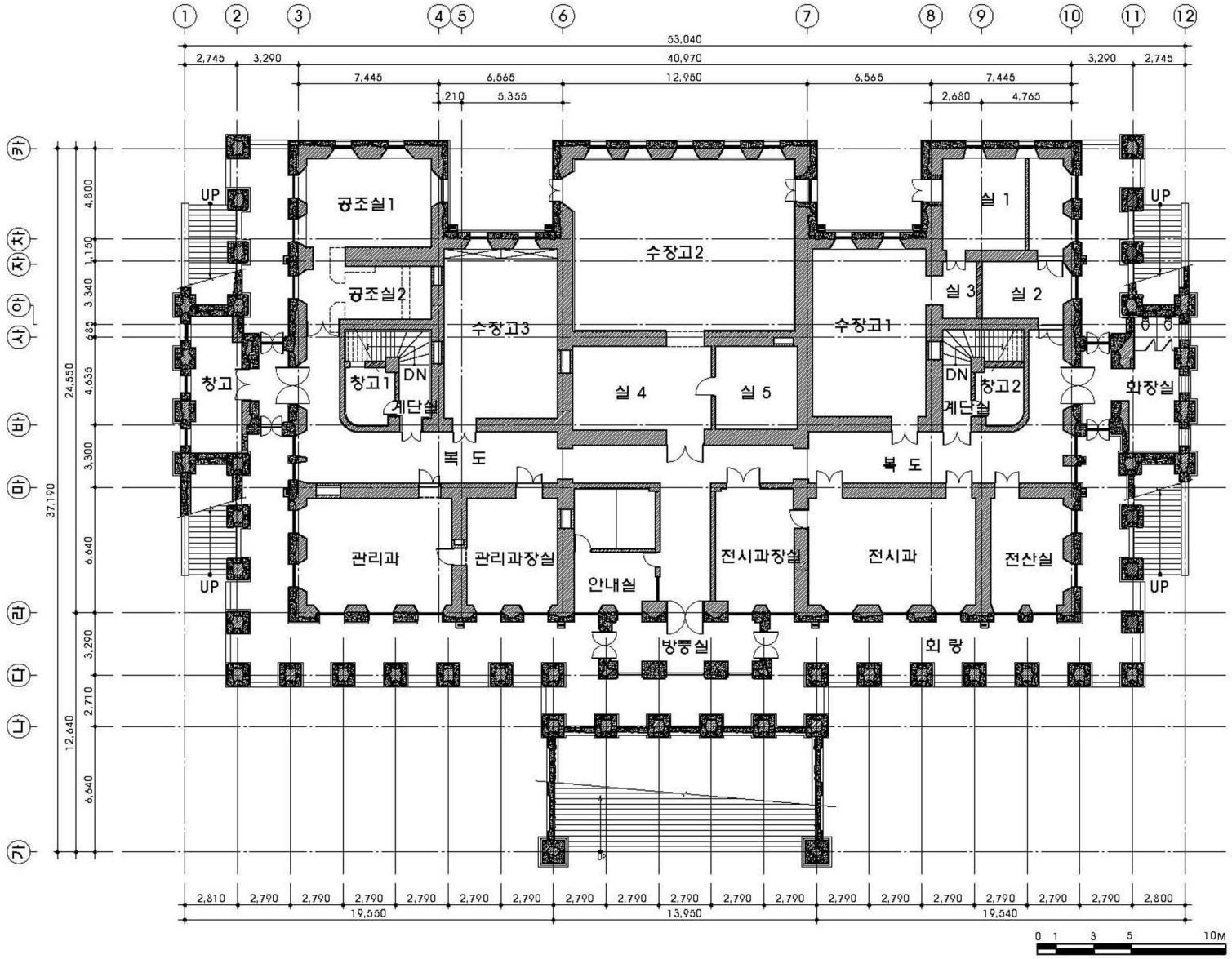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지층 바닥 마감도(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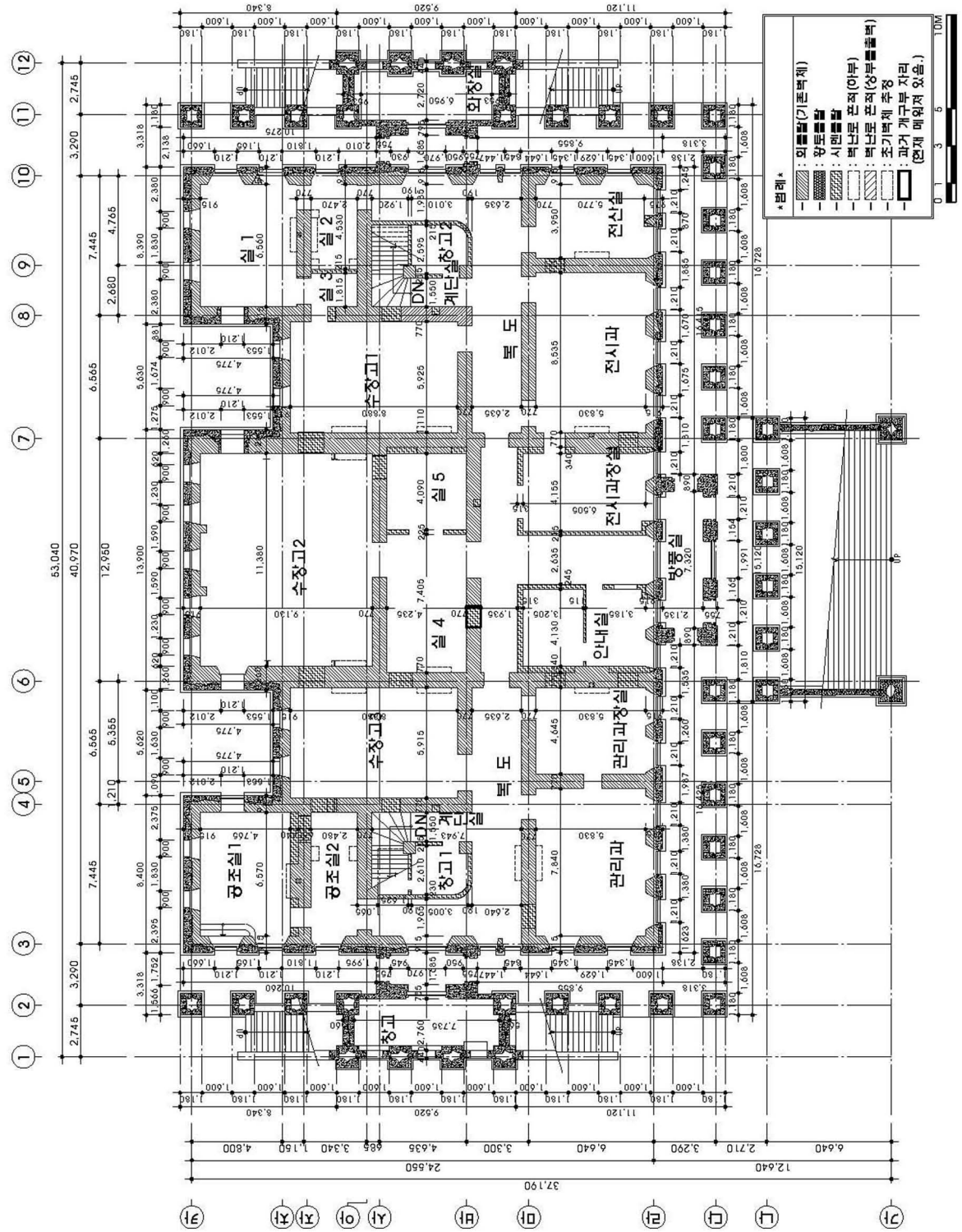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1층 바닥 마감도(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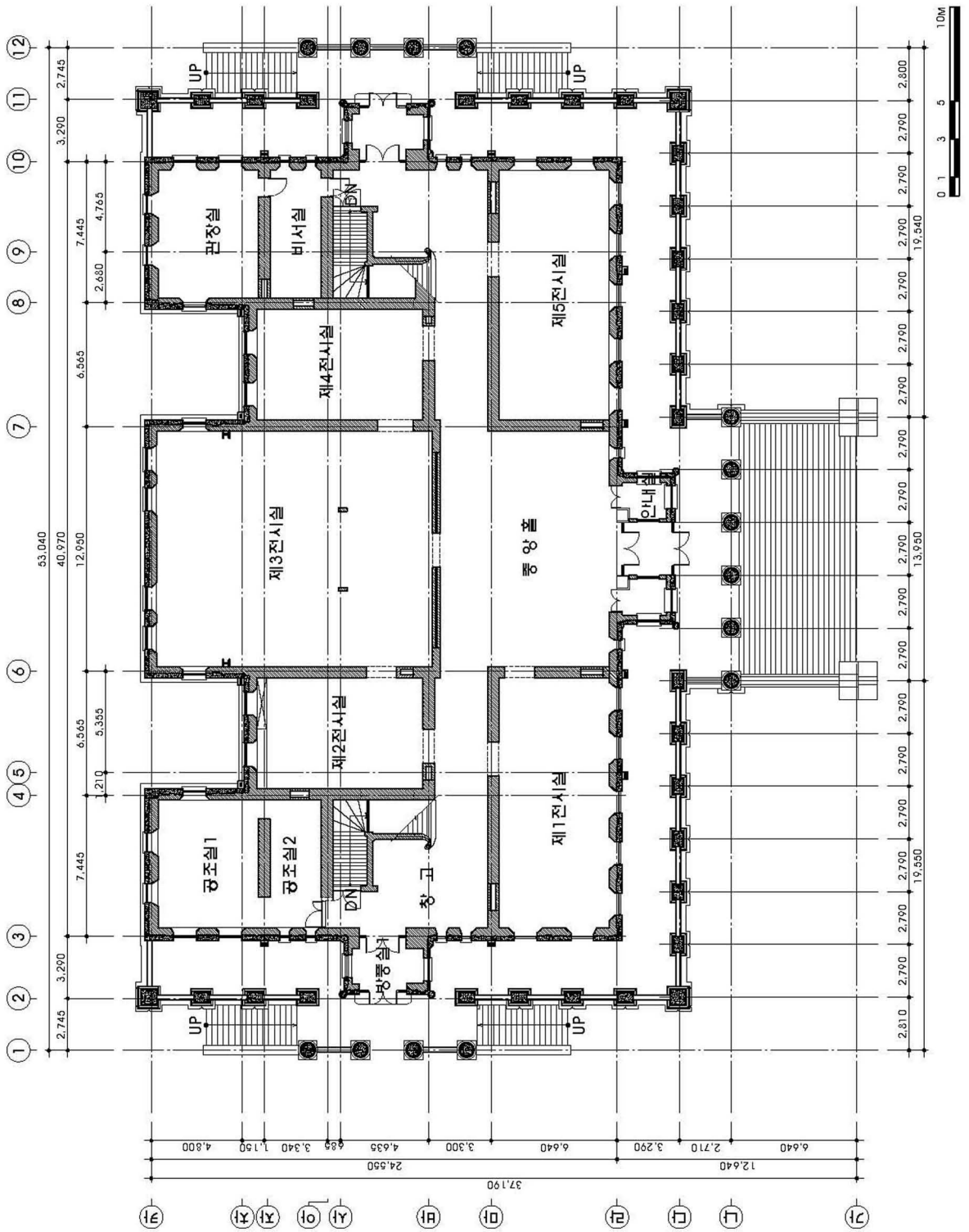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바닥마감도(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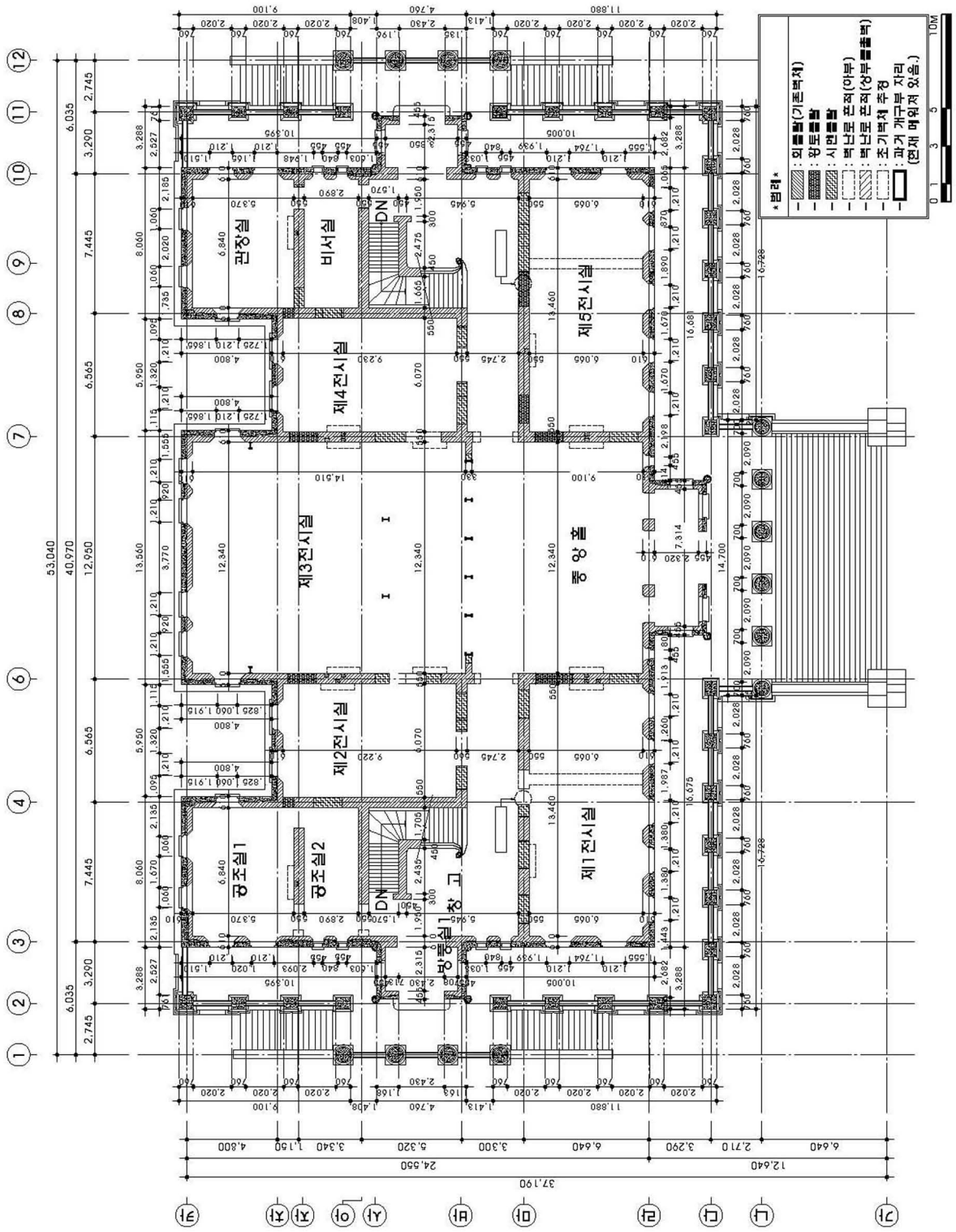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지층 평면도(해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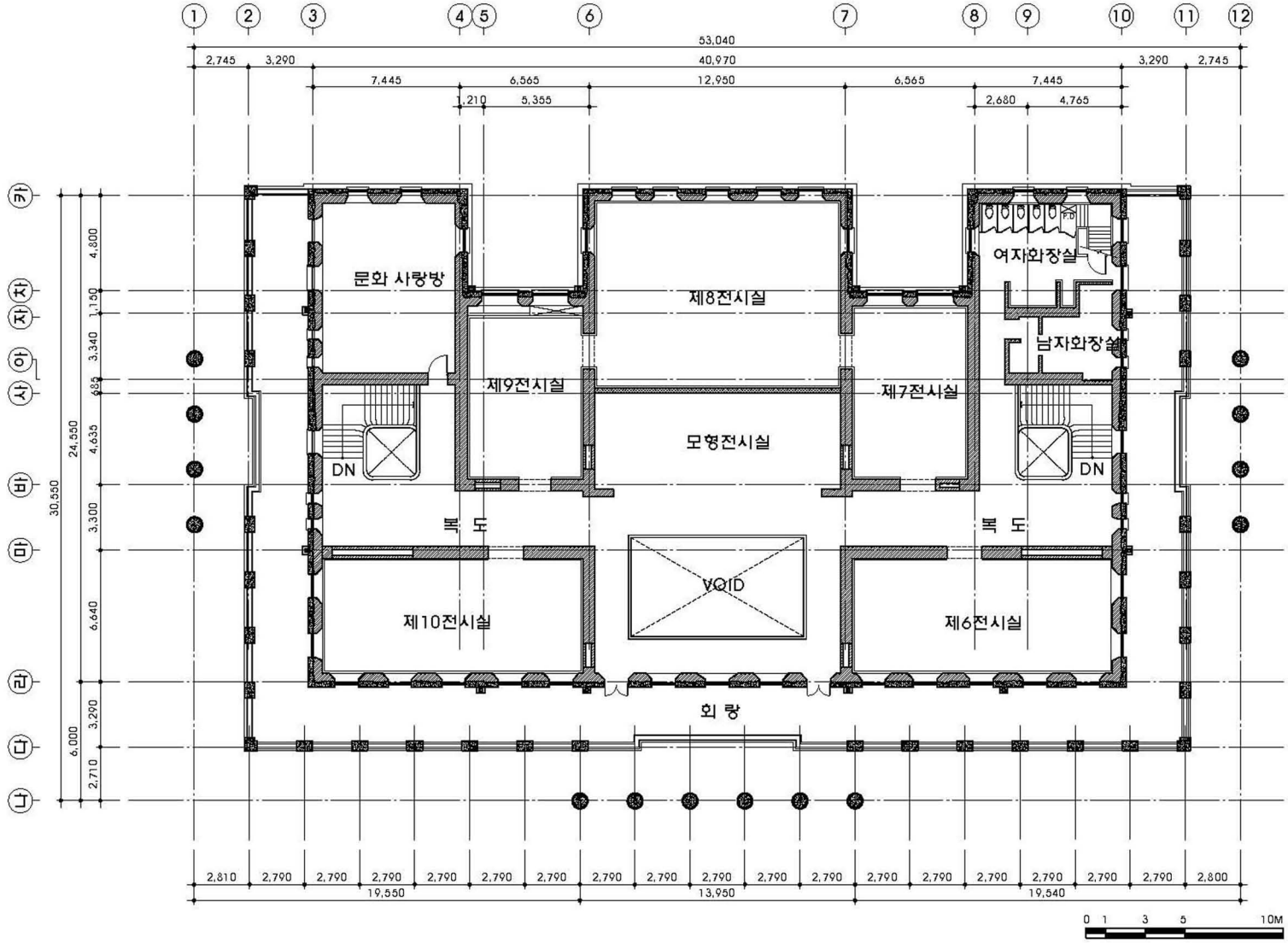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지층 평면도(해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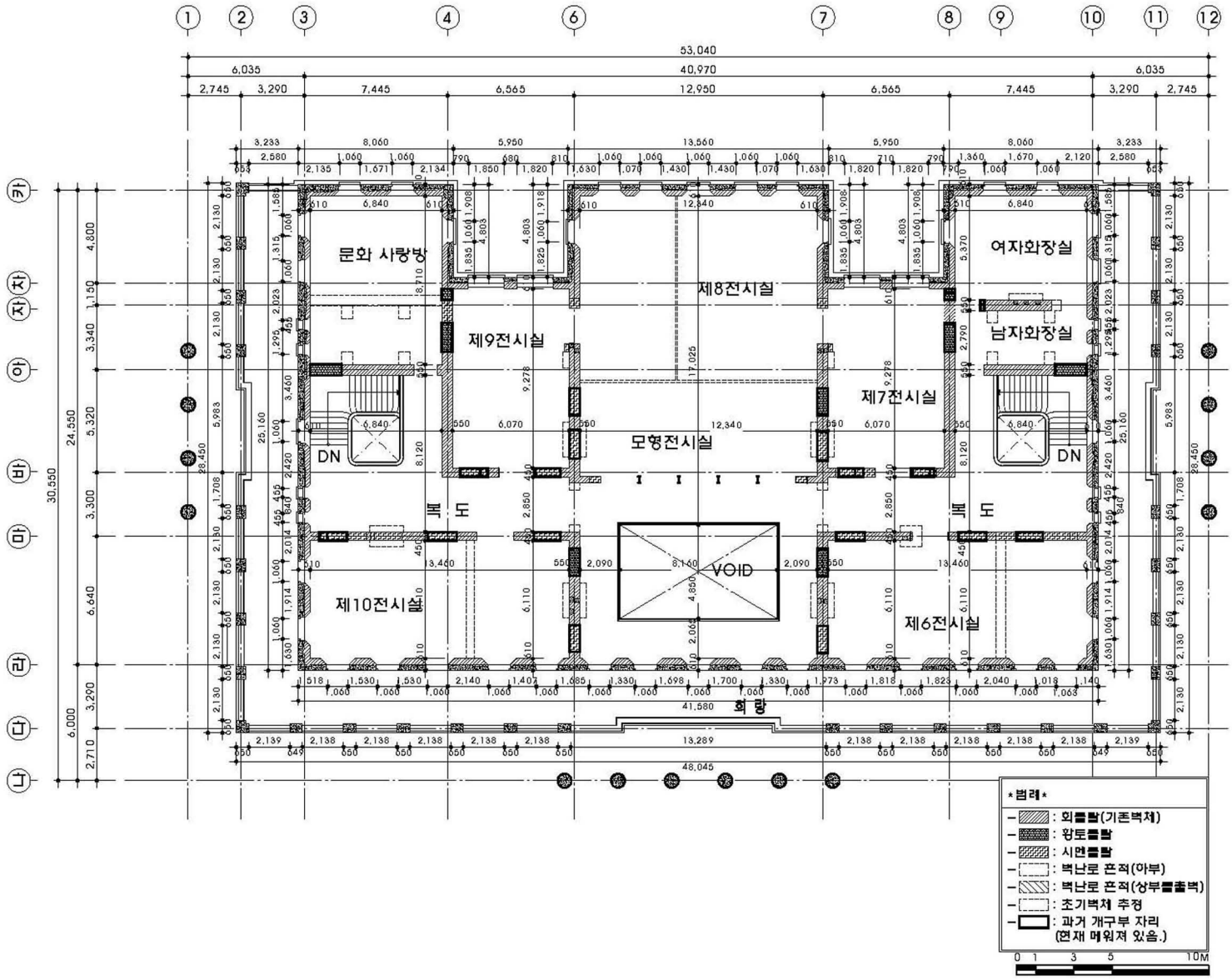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1층 평면도(해체전)
관장실
비서실
제4전시실
제5전시실
제3전시실
중앙홀
안내실
제2전시실
공조실1
공조실2
창고
창고실
제1전시실
UP
DN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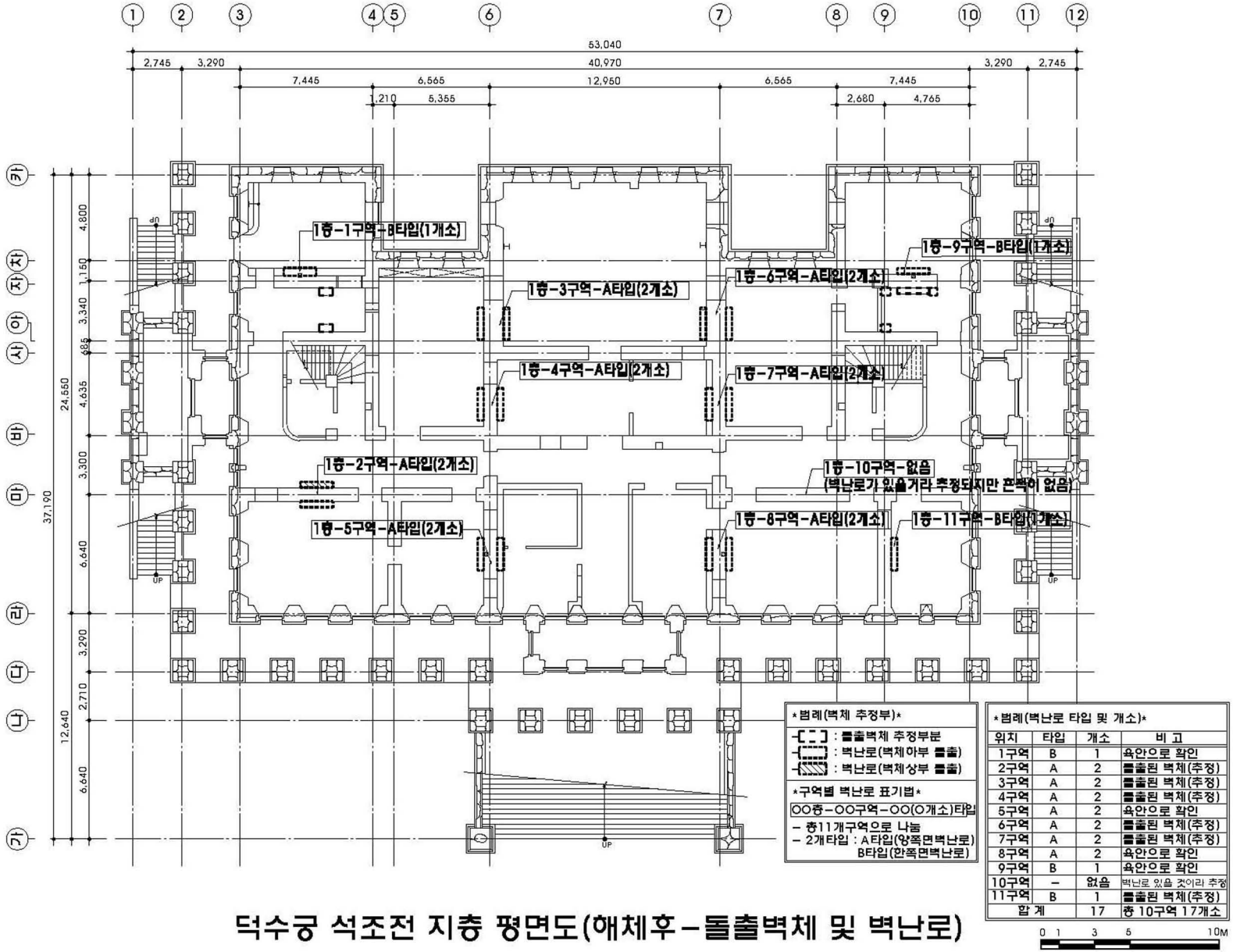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1층 평면도(해체후)



덕수궁 석조전 2층 평면도(해체전)



덕수궁 석조전 2층 평면도(해체후)



범례(벽체 추정부)

: 돌출벽체 추정부분
: 벽난로(벽체하부 돌출)
: 벽난로(벽체상부 돌출)

구역별 벽난로 표기법

○○층-○○구역-○○(○개소)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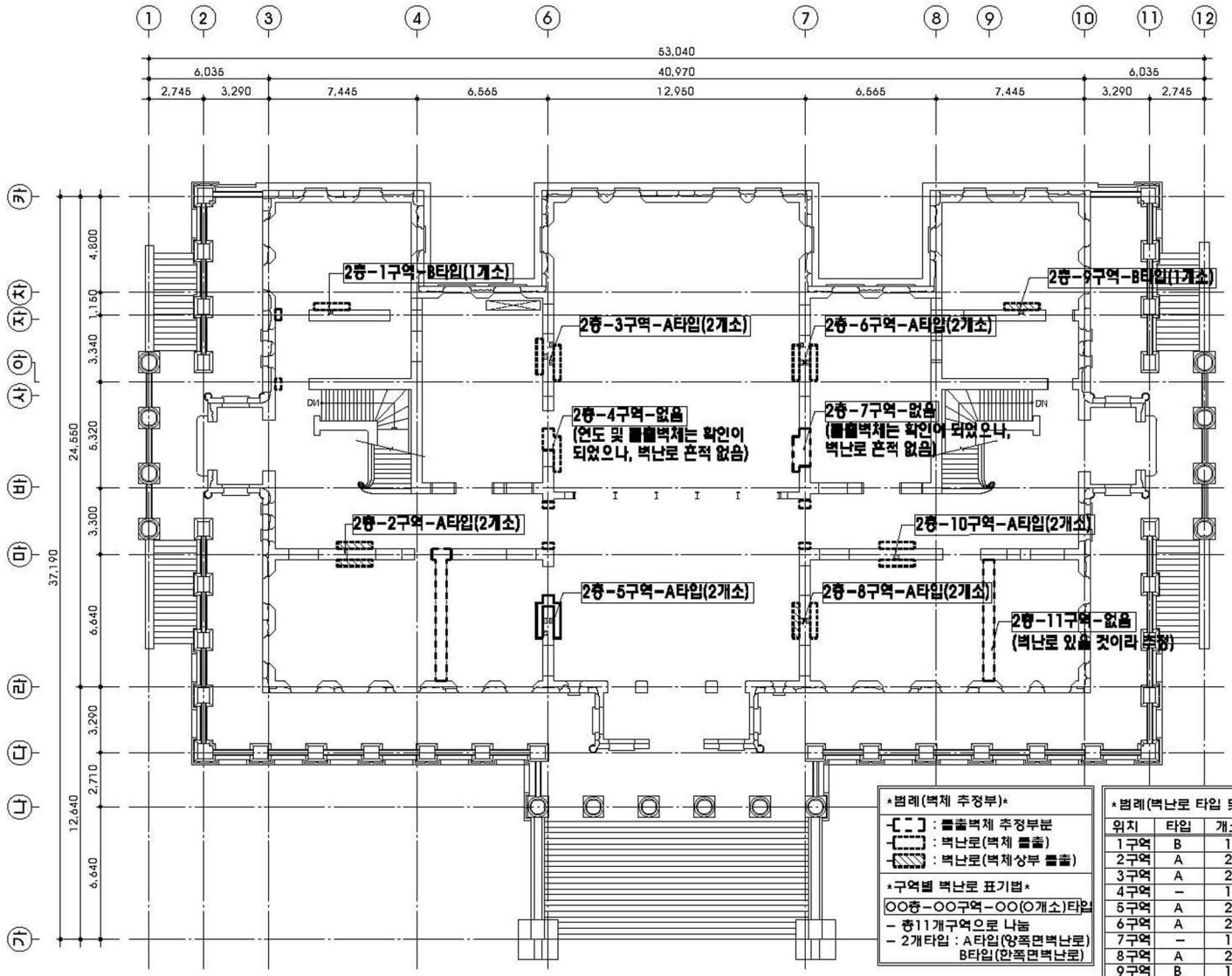
- 층11개구역으로 나눔
- 2개타입 : A타입(앙쪽면벽난로)
  B타입(한쪽면벽난로)

범례(벽난로 타입 및 개소)

위치	타입	개소	비 고
1구역	B	1	육안으로 확인
2구역	A	2	돌출된 벽체(추정)
3구역	A	2	돌출된 벽체(추정)
4구역	A	2	돌출된 벽체(추정)
5구역	A	2	육안으로 확인
6구역	A	2	돌출된 벽체(추정)
7구역	A	2	돌출된 벽체(추정)
8구역	A	2	육안으로 확인
9구역	B	1	육안으로 확인
10구역	-	없음	벽난로 있을 것이라 추정
11구역	B	1	돌출된 벽체(추정)
합 계		17	층 10구역 17개소

0 1 3 5 10M

덕수궁 석조전 지층 평면도(해체후-돌출벽체 및 벽난로)



범례(벽체 추정부)

- : 돌출벽체 추정부분
- : 벽난로(벽체 돌출)
- : 벽난로(벽체상부 돌출)

구역별 벽난로 표기법

○○층-○○구역-○○(○개소)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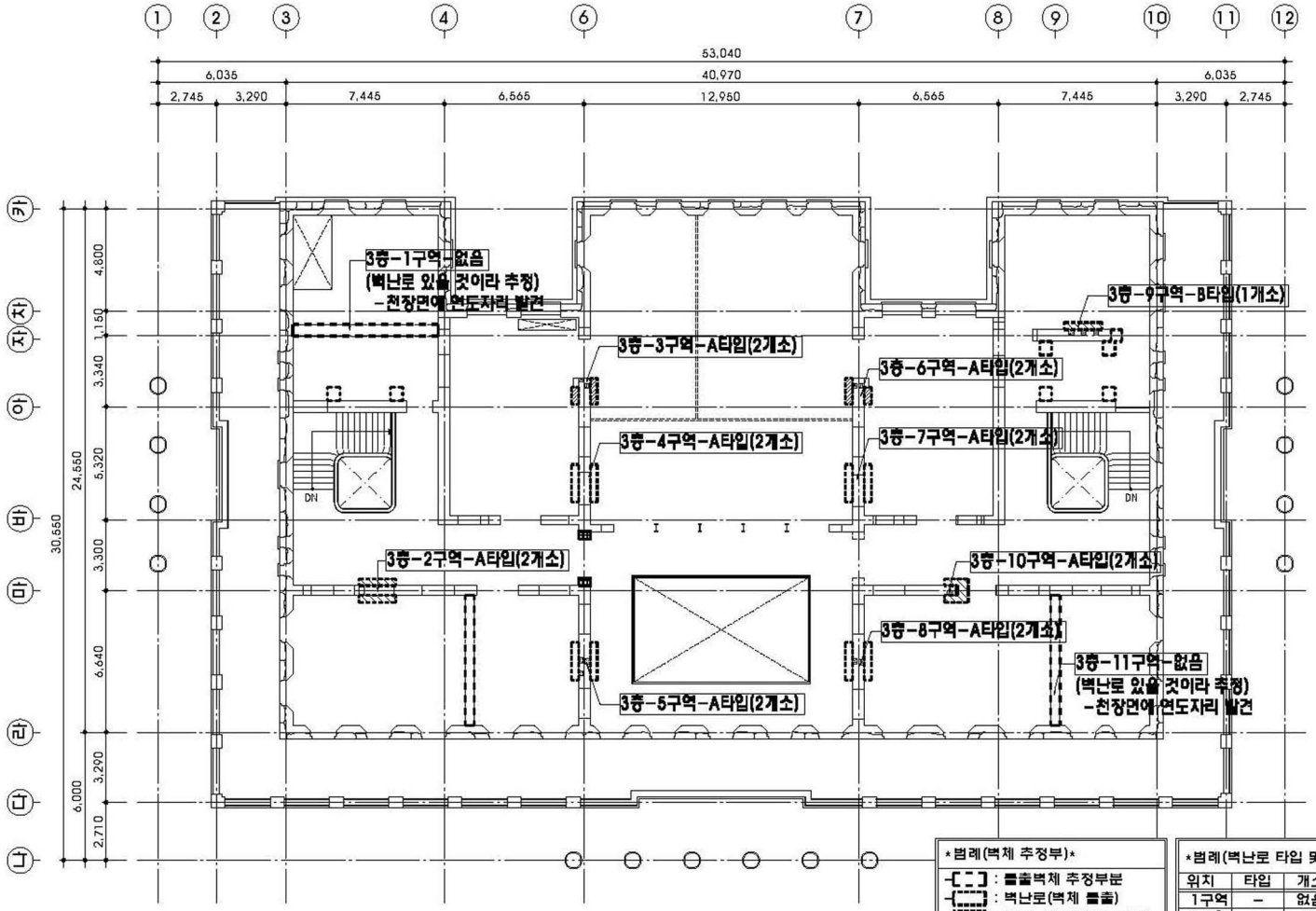
- 층11개구역으로 나눔
- 2개타입 : A타입(양쪽면벽난로)
  B타입(한쪽면벽난로)

범례(벽난로 타입 및 개소)

위치	타입	개소	비 고
1구역	B	1	육안으로 확인
2구역	A	2	돌출된 벽체(추정)
3구역	A	2	육안으로 확인
4구역	–	1	연도 확인
5구역	A	2	육안으로 확인
6구역	A	2	육안으로 확인
7구역	–	1	돌출벽체 확인
8구역	A	2	육안으로 확인
9구역	B	1	육안으로 확인
10구역	A	2	육안으로 확인
11구역	–	없음	벽난로 있을 것이라 추정
합 계		16	총 8구역 16개소

0 1 3 5 10M

덕수궁 석조전 1층 평면도(해체후-돌출벽체 및 벽난로)



범례(벽체 추정부)

- : 돌출벽체 추정부분
- : 벽난로(벽체 돌출)
- : 벽난로(벽체상부 돌출)

구역별 벽난로 표기법

○○층-○○구역-○○(○개소)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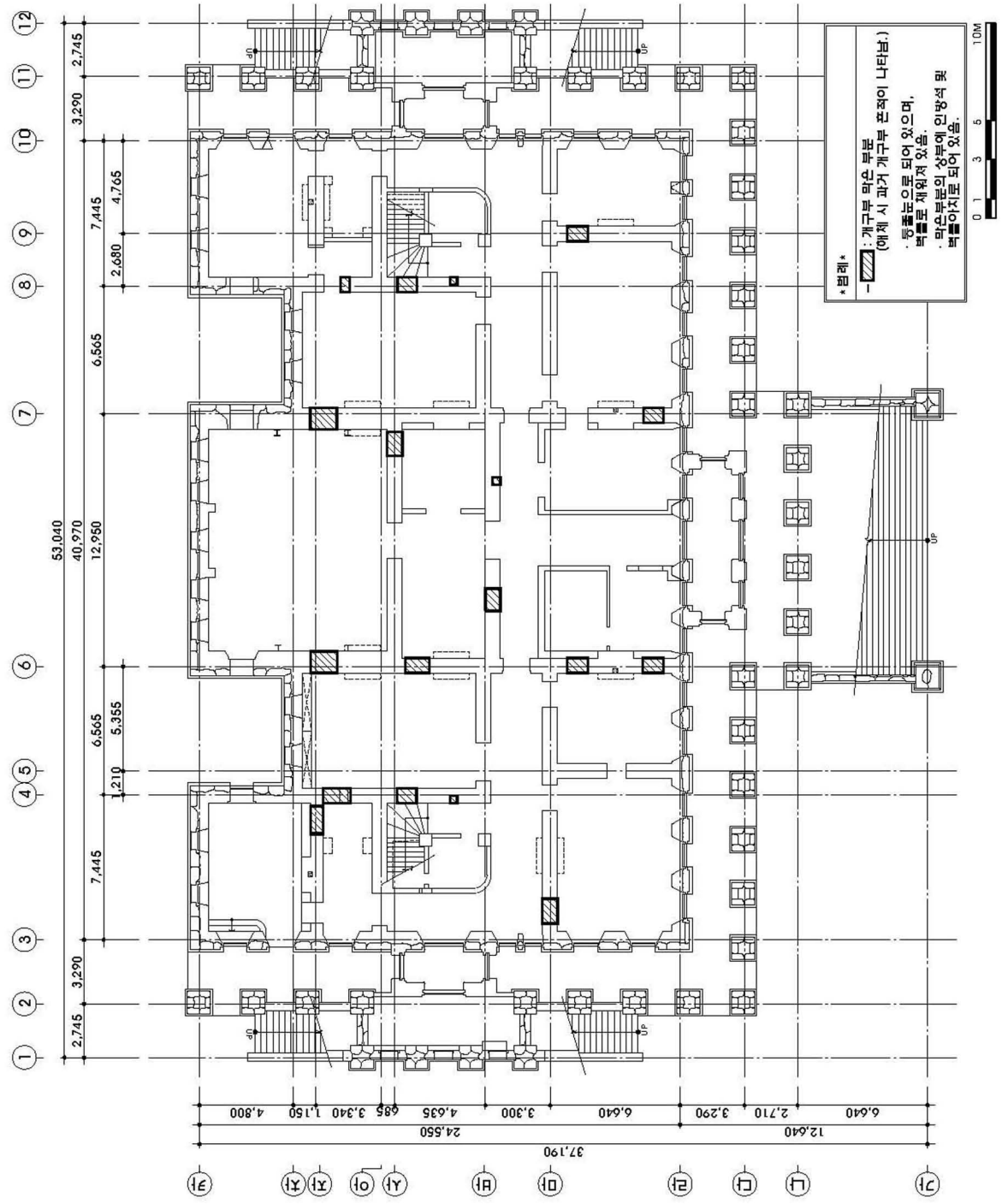
- 층11개구역으로 나눔
- 2개타입 : A타입(양쪽면벽난로)
  B타입(한쪽면벽난로)

범례(벽난로 타입 및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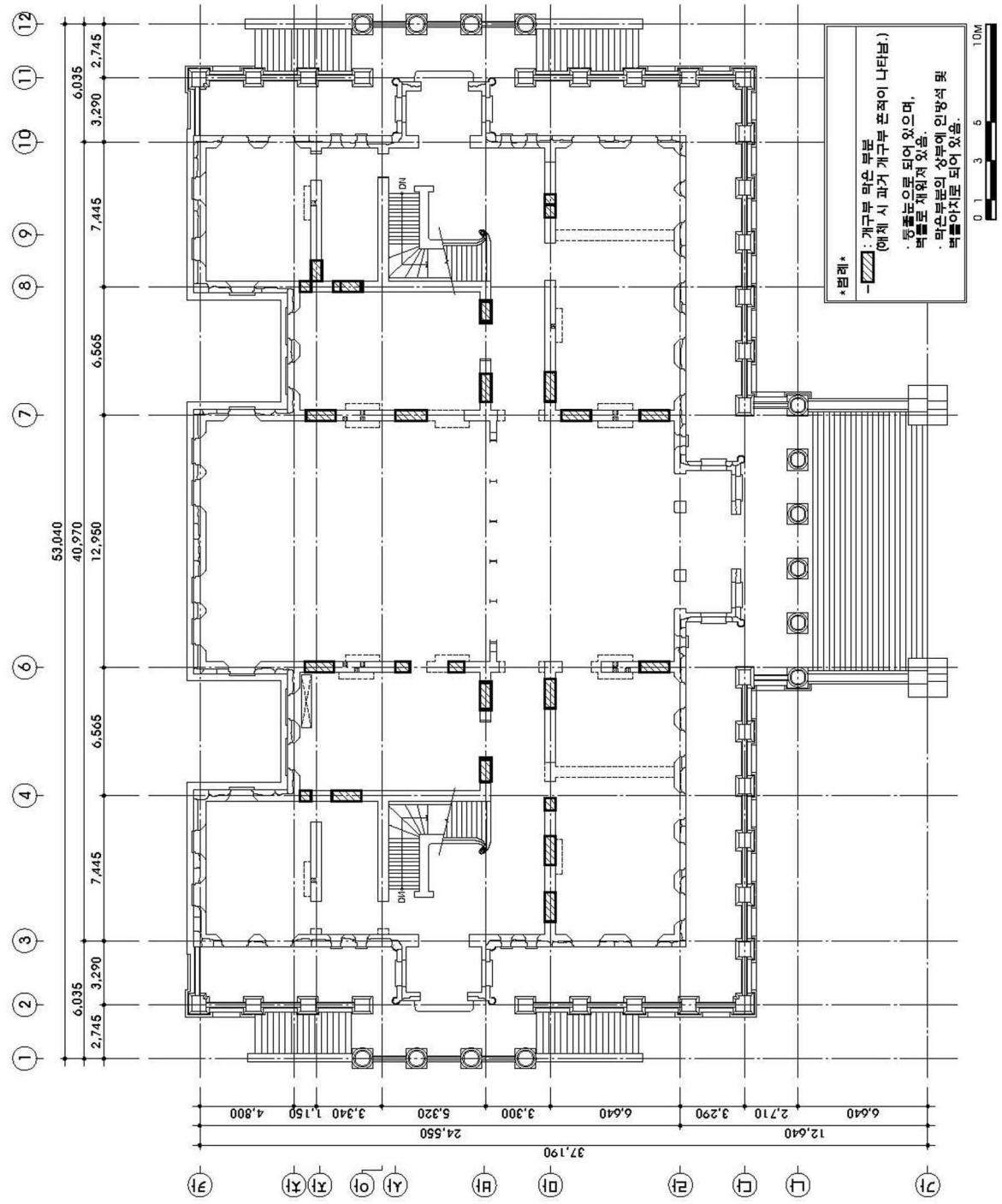
위치	타입	개소	비 고
1구역	–	없음	벽난로 있을 것이라 추정
2구역	A	2	돌출된 벽체(추정)
3구역	A	2	돌출된 벽체(추정)
4구역	A	2	돌출된 벽체(추정)
5구역	A	2	육안으로 확인
6구역	A	2	돌출된 벽체(추정)
7구역	A	2	돌출된 벽체(추정)
8구역	A	2	육안으로 확인
9구역	B	1	육안으로 확인
10구역	A	2	육안으로 확인
11구역	–	없음	벽난로 있을 것이라 추정
합 계		17	총 9구역 17개소

0 1 3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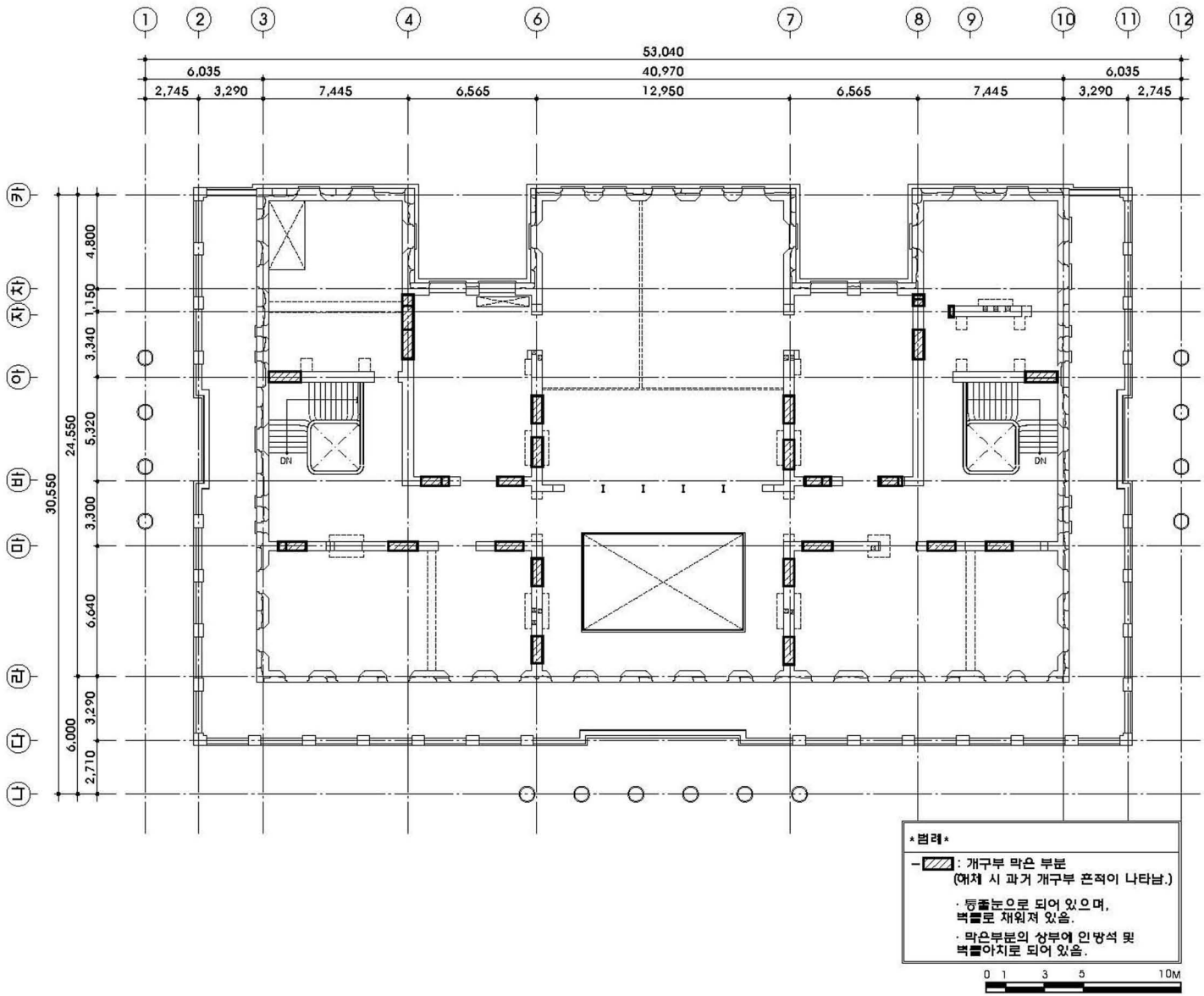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평면도(해체후-돌출벽체 및 벽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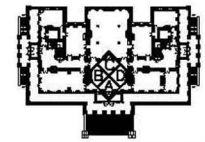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지층 벽체 영건시기 이후 추가 조적 위치(개구부 폐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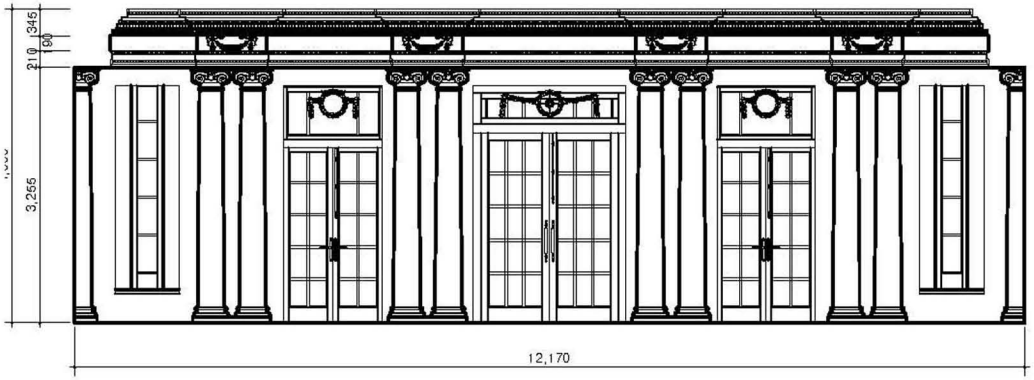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1층 벽체 영건시기 이후 추가 조작 위치(개구부 폐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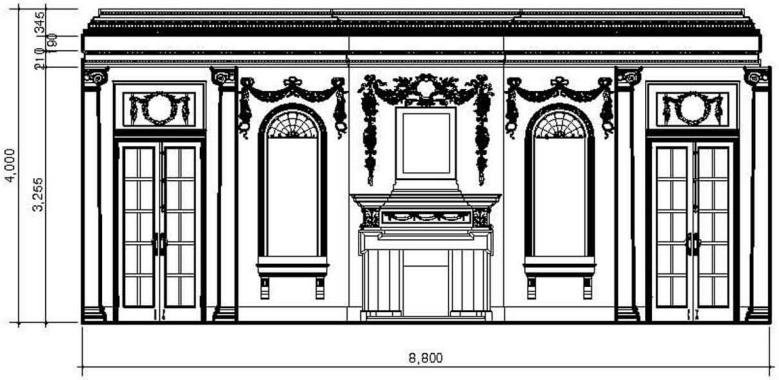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벽체 영건시기 이후 추가 조적 위치(개구부 폐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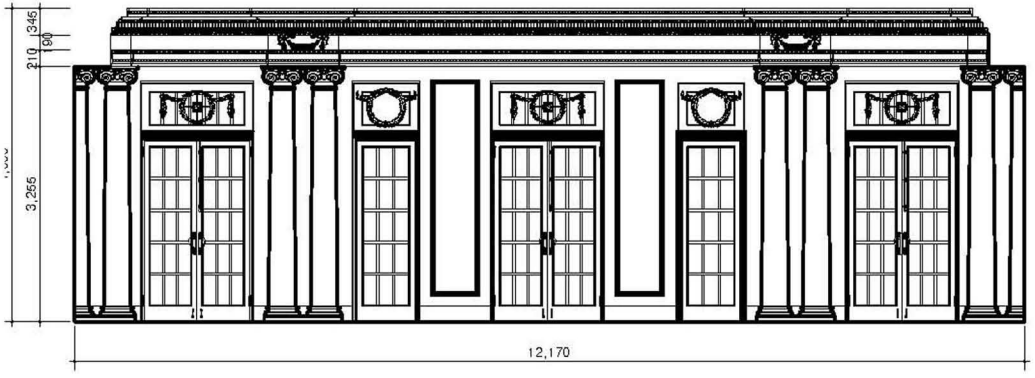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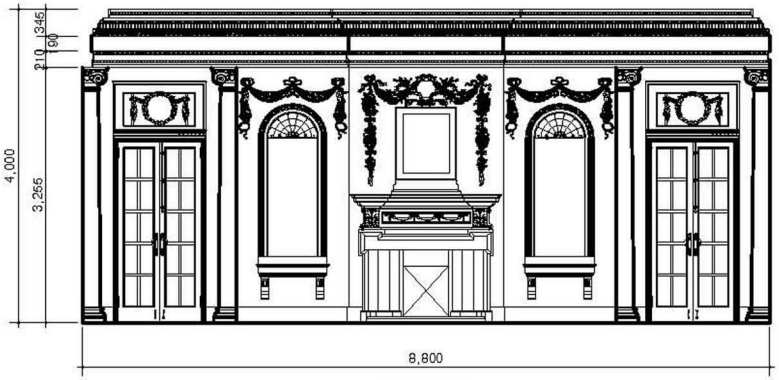
입면-A



입면-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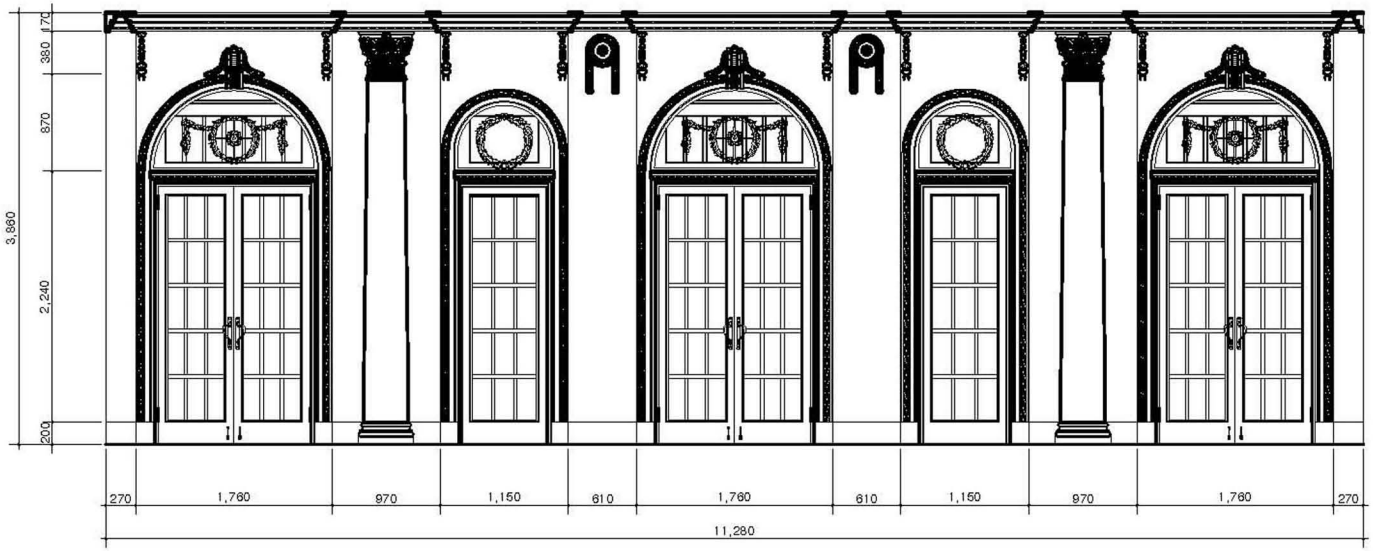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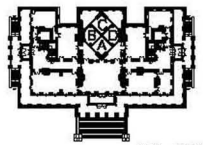
입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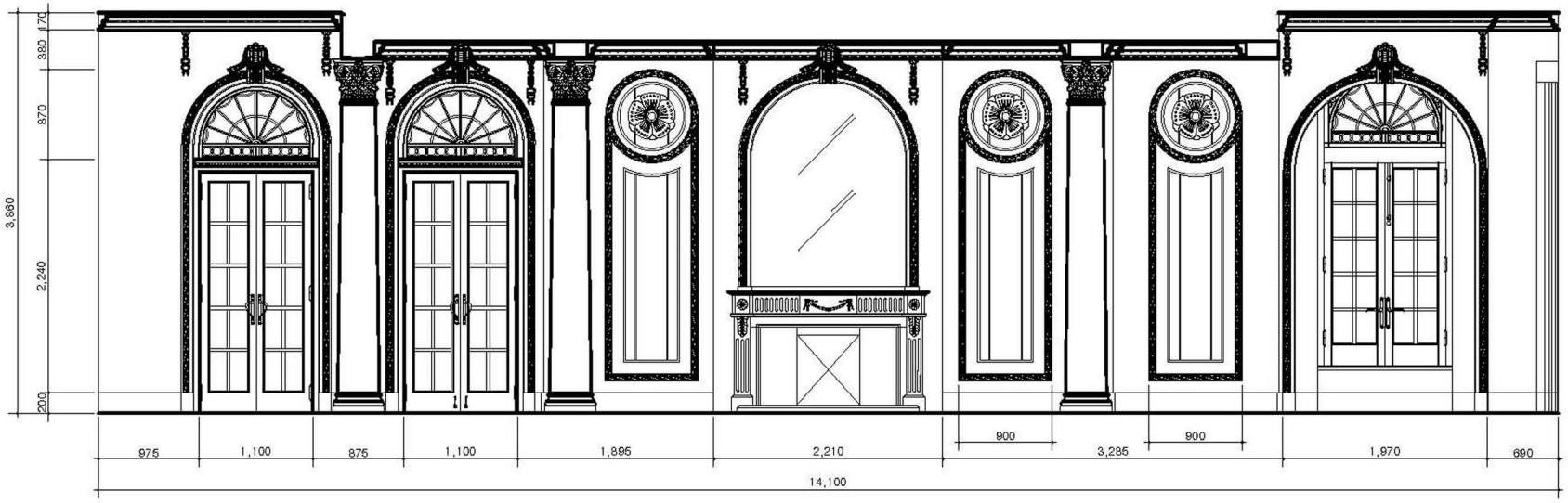
입면-D

덕수궁 석조전 1층 중앙홀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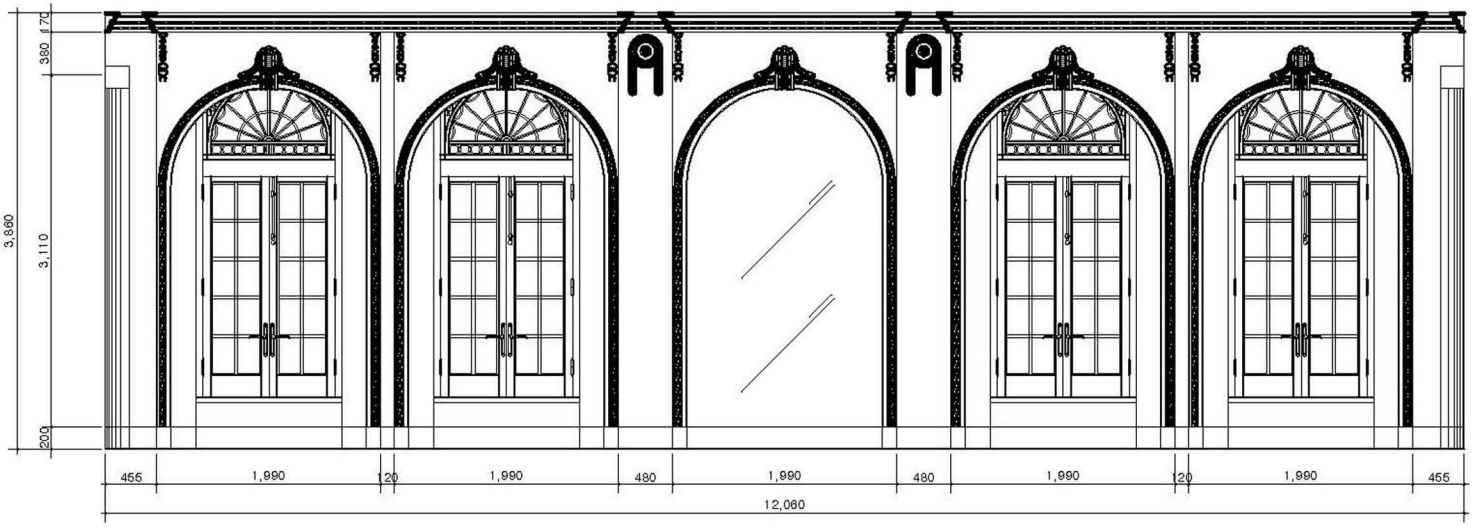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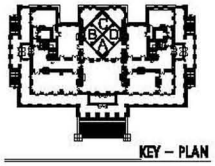
입면-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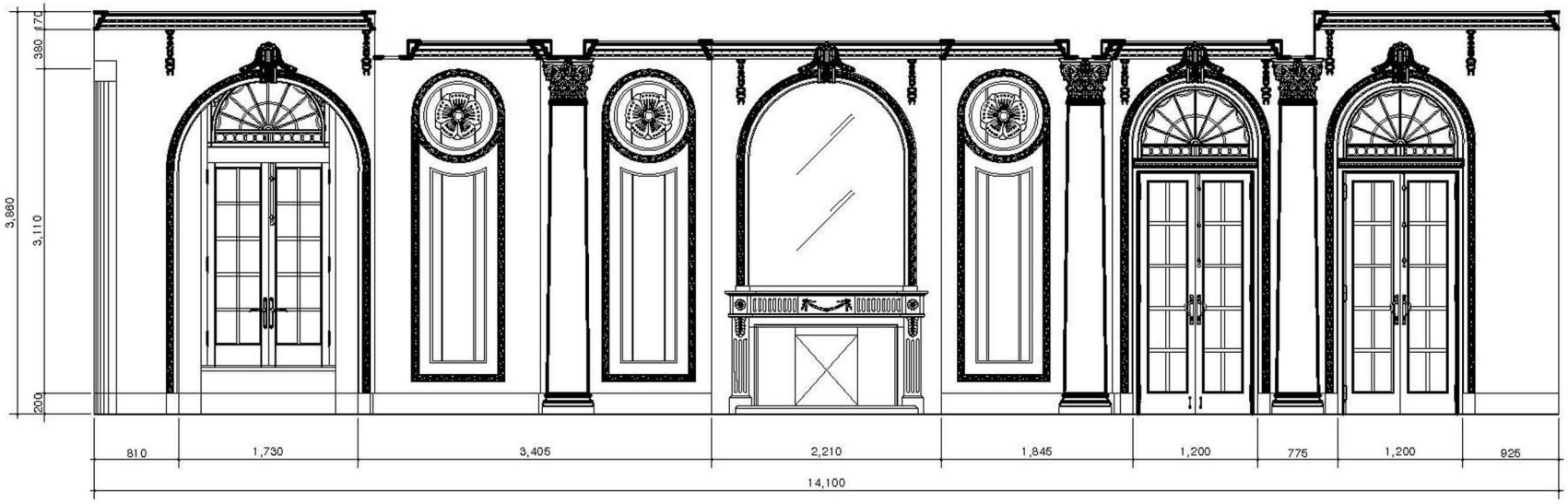
입면-B

덕수궁 석조전 1층 접견실 몰딩 입면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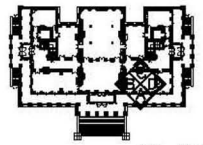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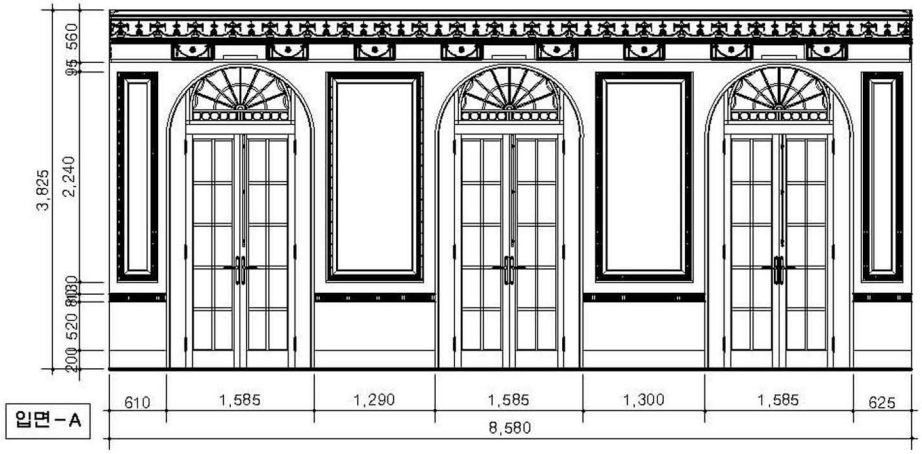
입면-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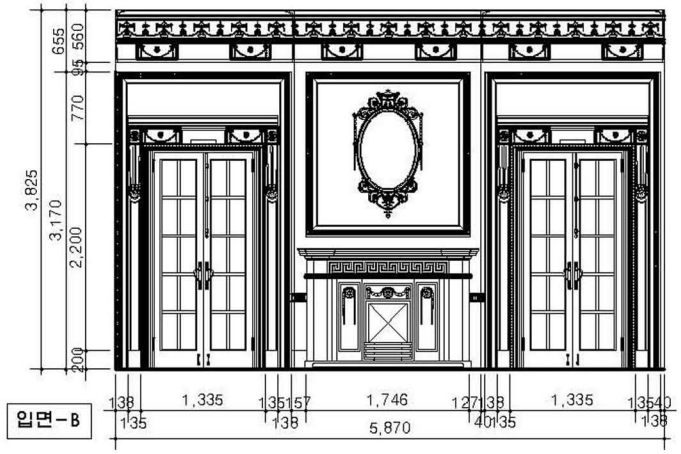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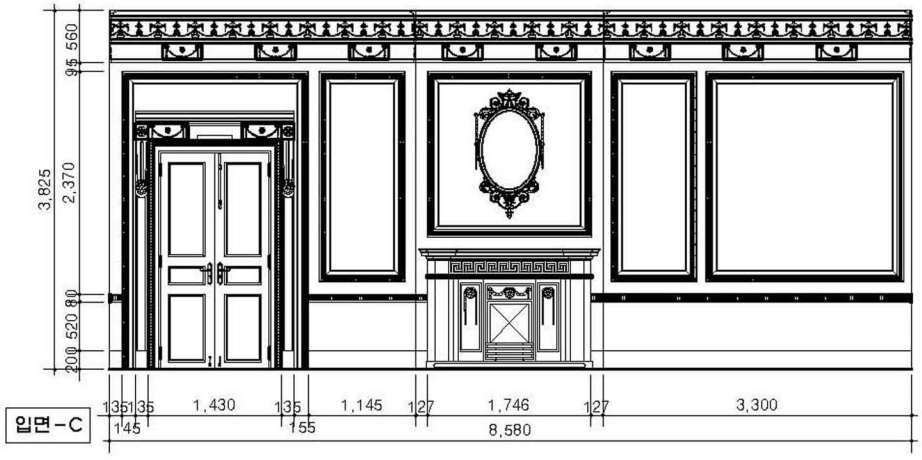
입면-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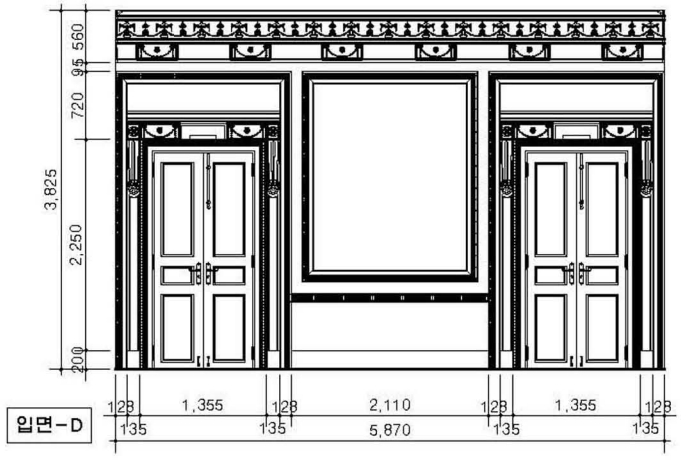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1층 접견실 몰딩 입면도2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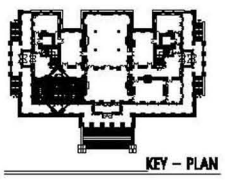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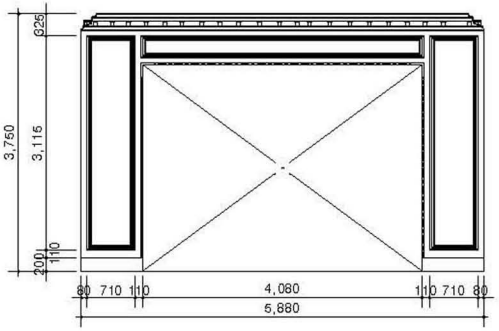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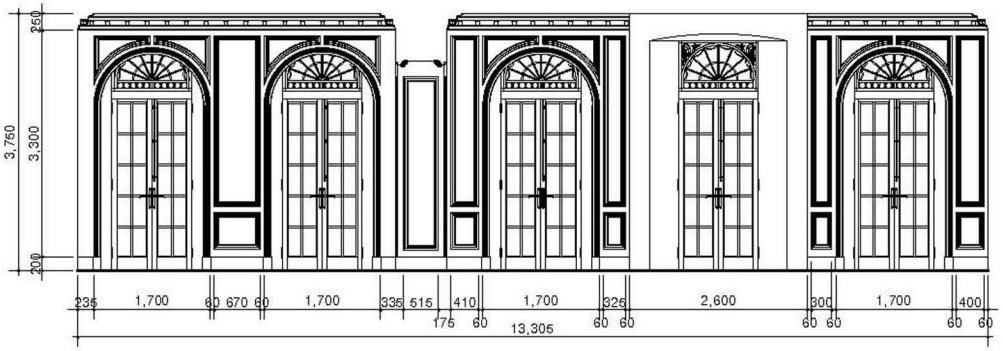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1층 귀빈대기실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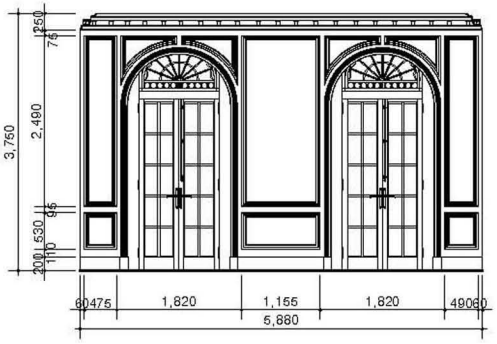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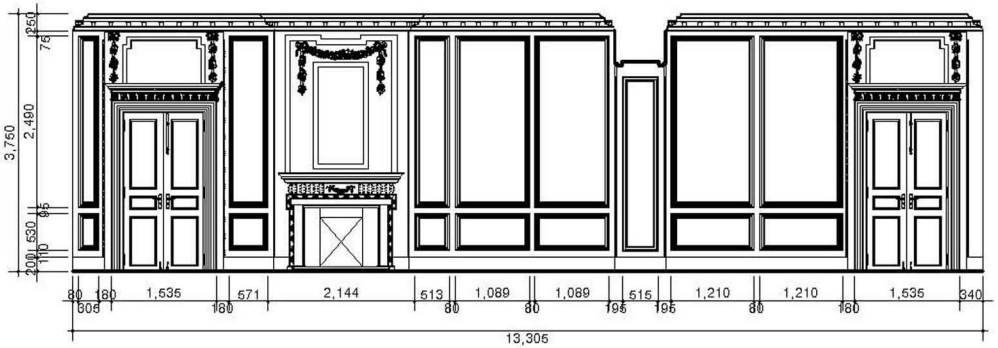
1층 대식당 몰딩입면도-중간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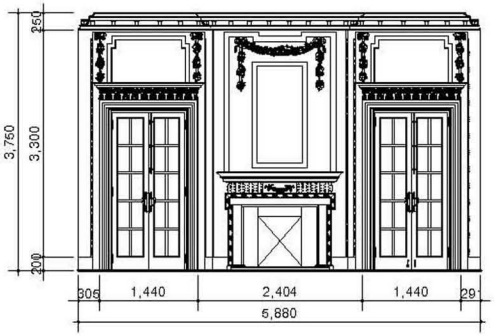
입면-A



입면-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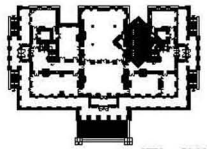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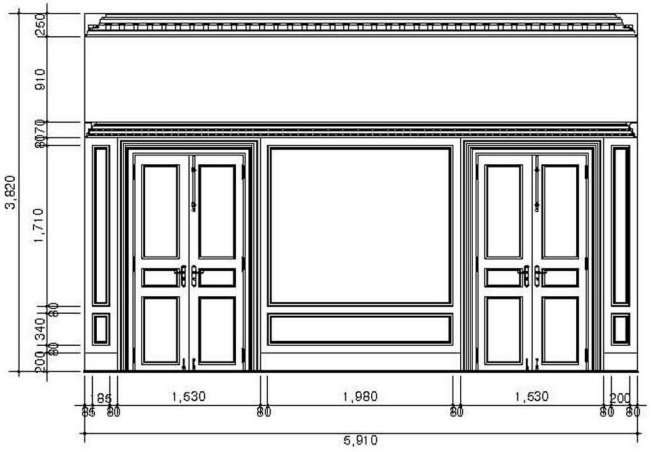
입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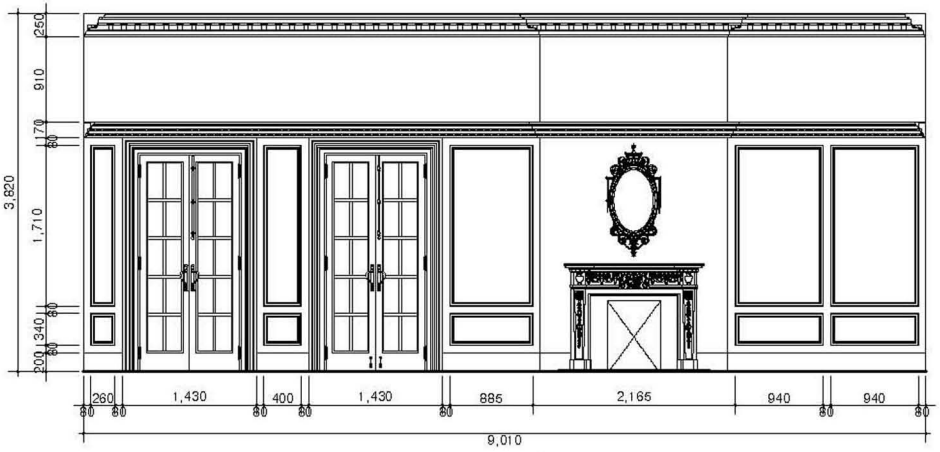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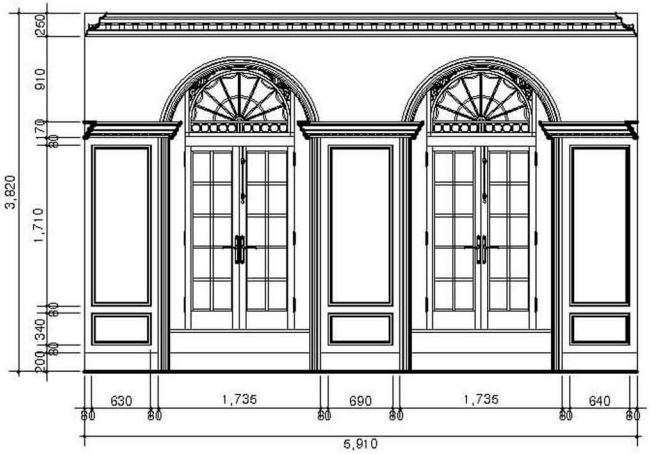
입면-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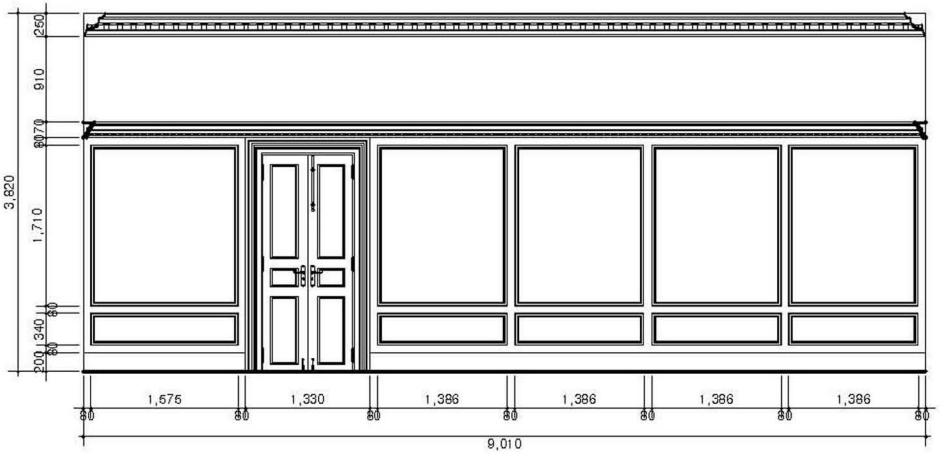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1층 대식당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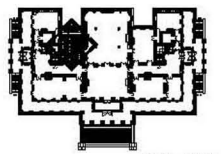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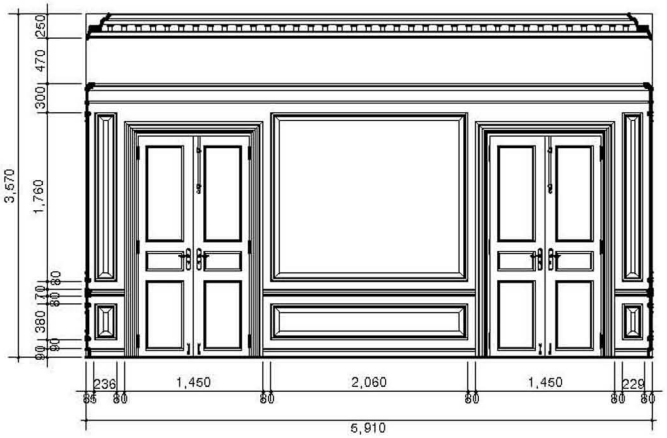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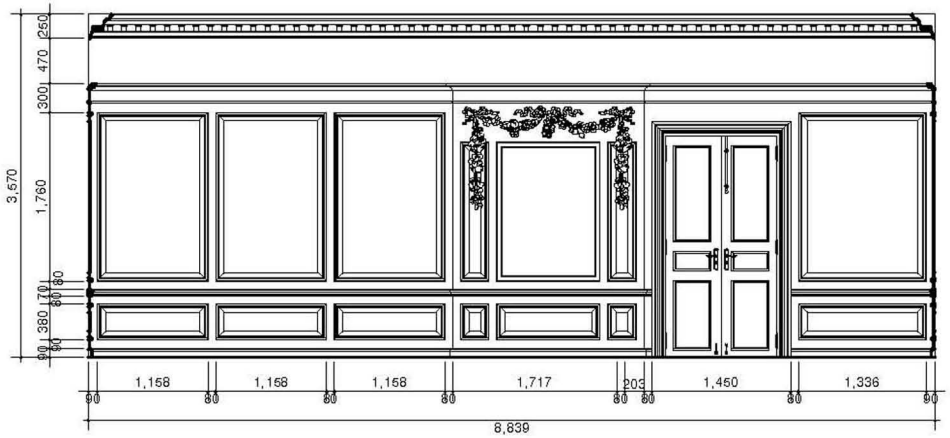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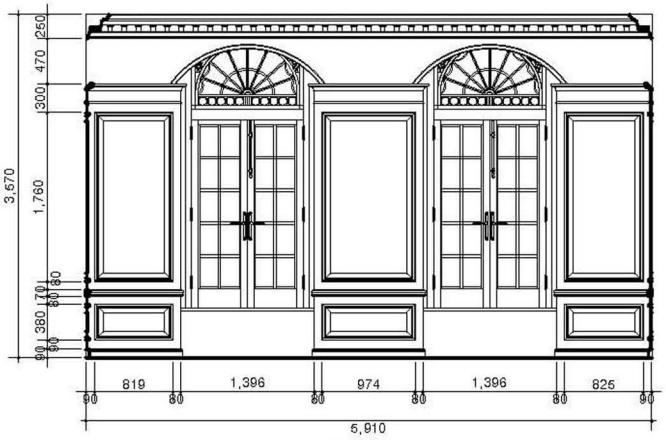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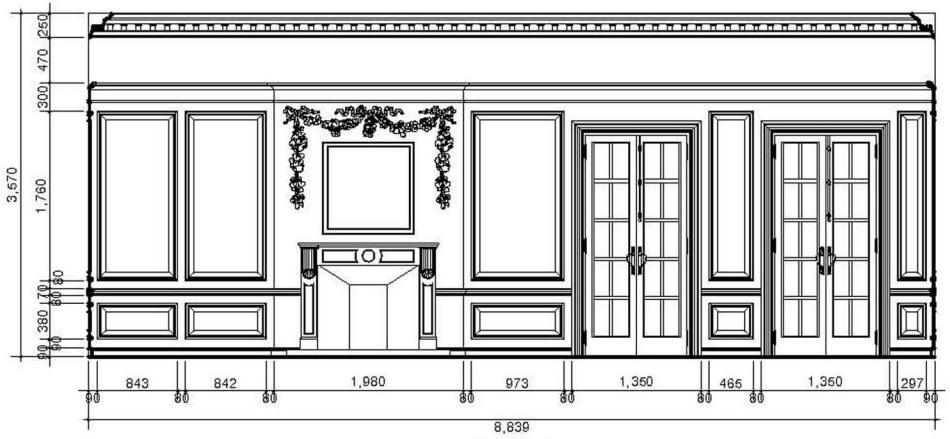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1층 소식당(동)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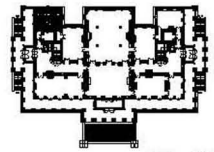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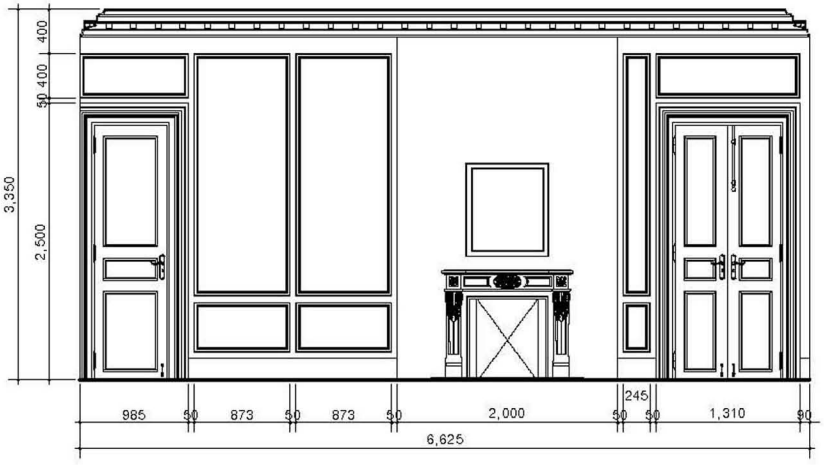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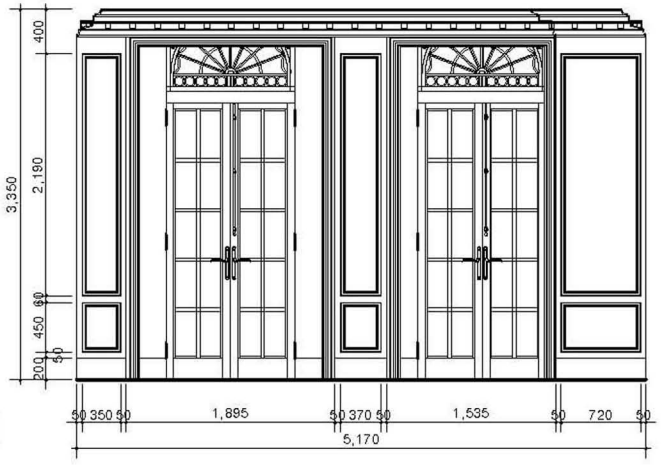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1층 소식당(서)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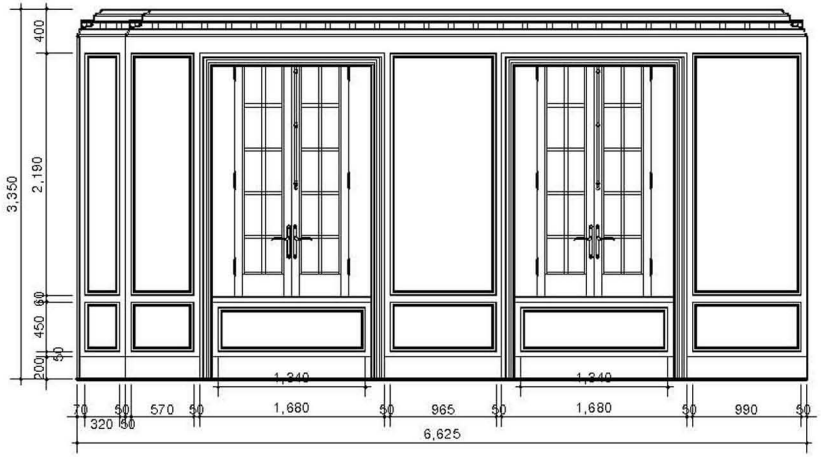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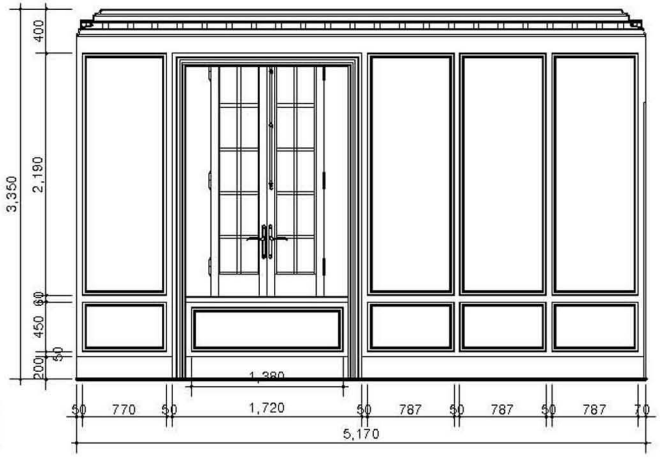
입면-A



입면-B



입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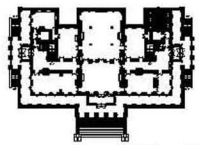
입면-D

덕수궁 석조전 1층 서북1실 몰딩 입면도

덕수궁 석조전 1층 서북1실 복도 및 전실 몰딩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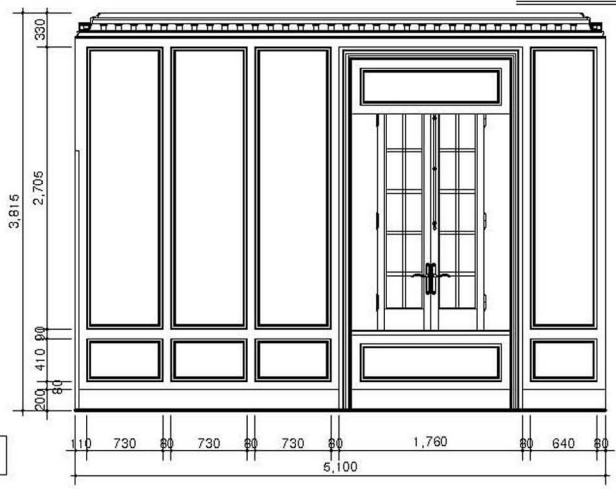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1층 서북2실,동북2실 몰딩 입면도

덕수궁 석조전 1층 동북1실 복도 및 접실 몰딩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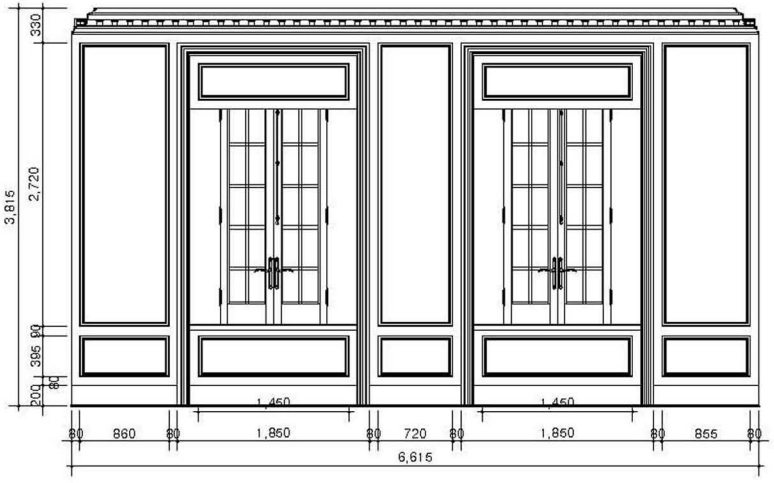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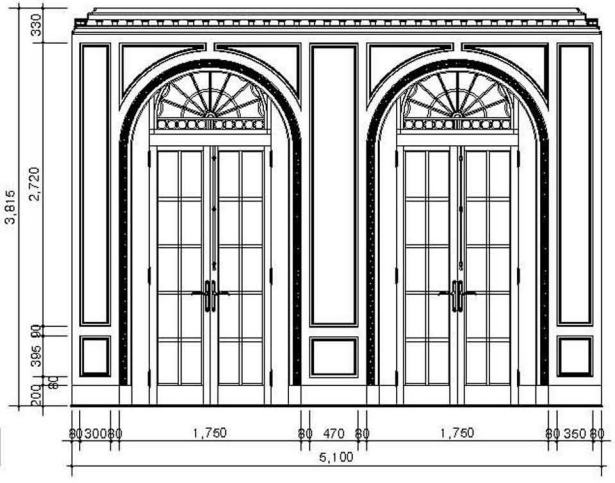
입면-A



입면-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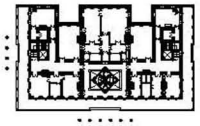
입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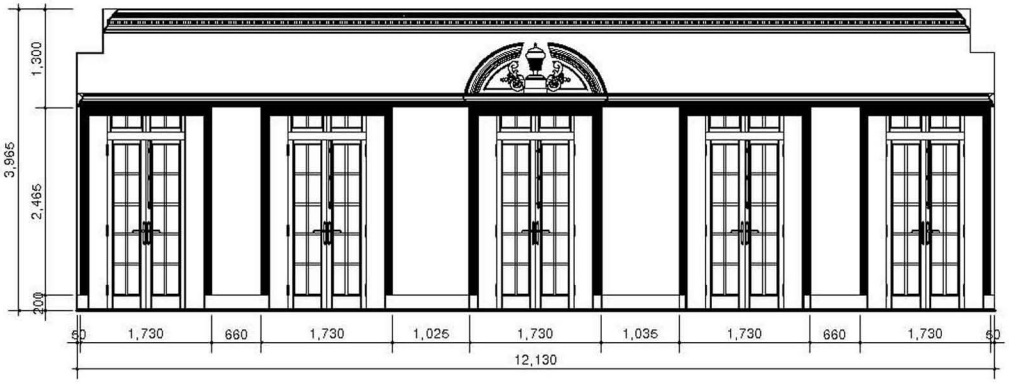
입면-D

덕수궁 석조전 1층 동북1실 몰딩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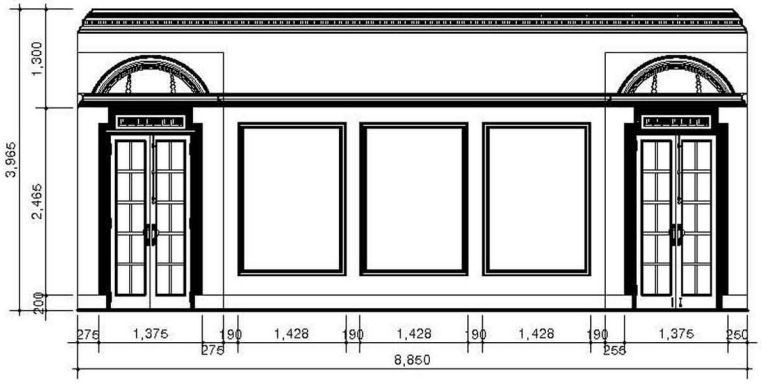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1층 동남1실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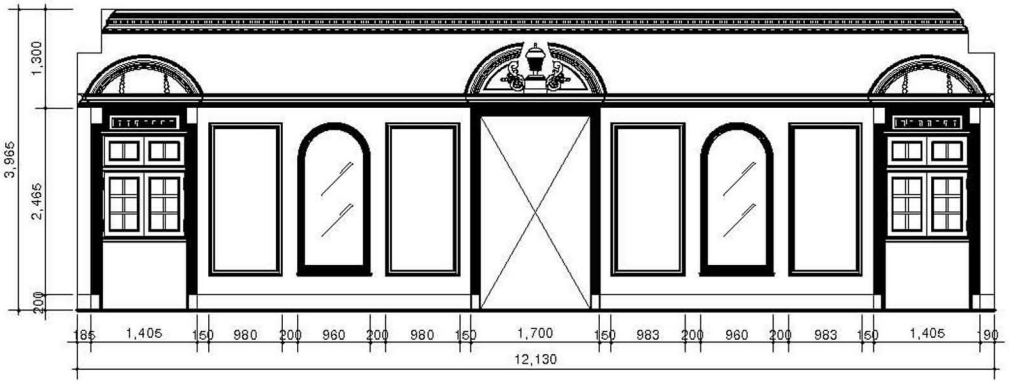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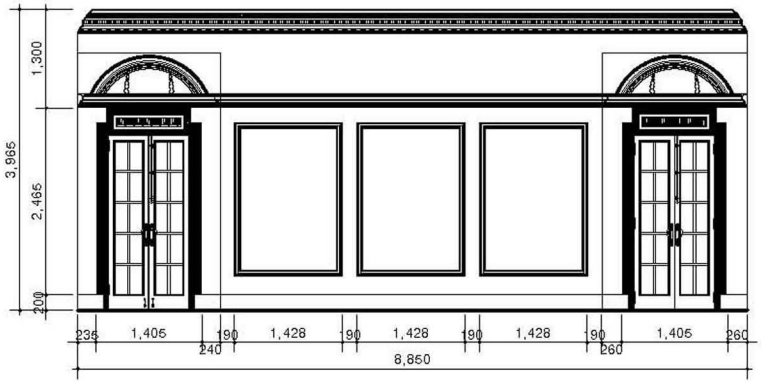
입면-A



입면-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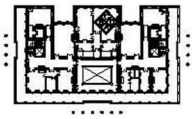


입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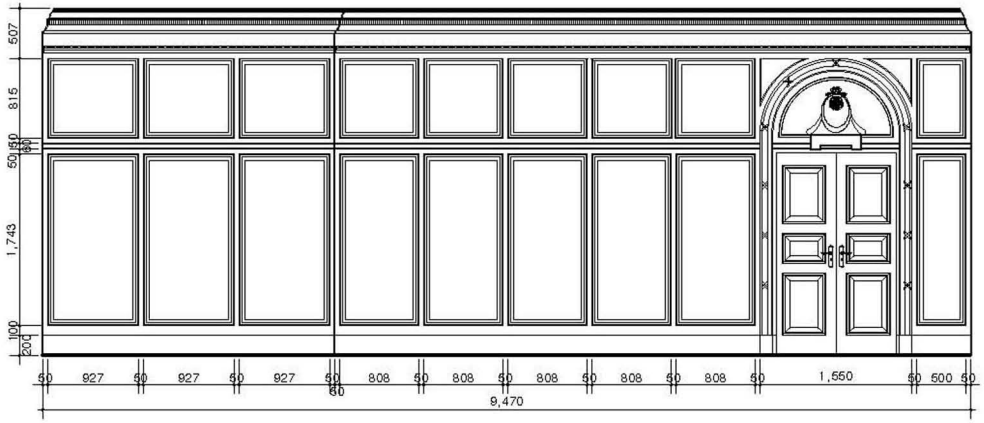
입면-D

덕수궁 석조전 2층 중앙홀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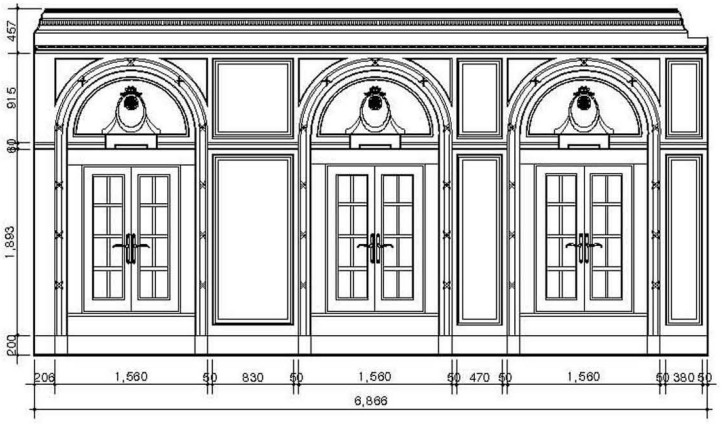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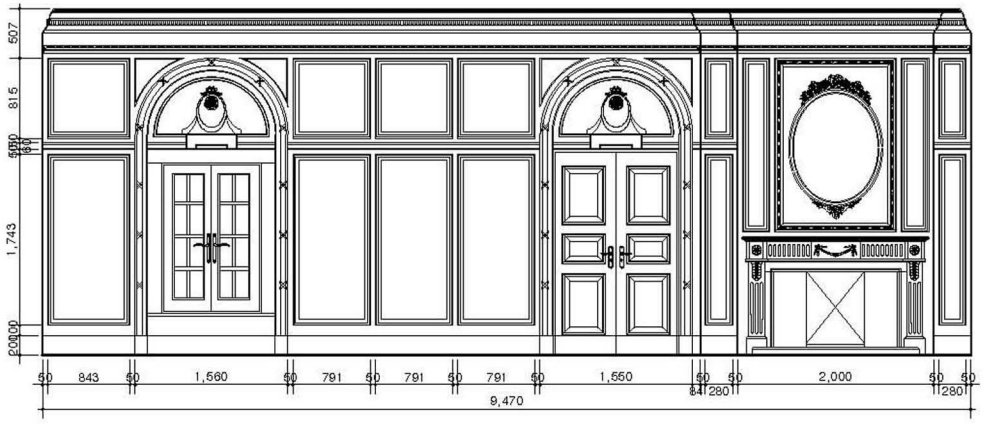
입면-A



입면-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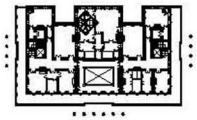


입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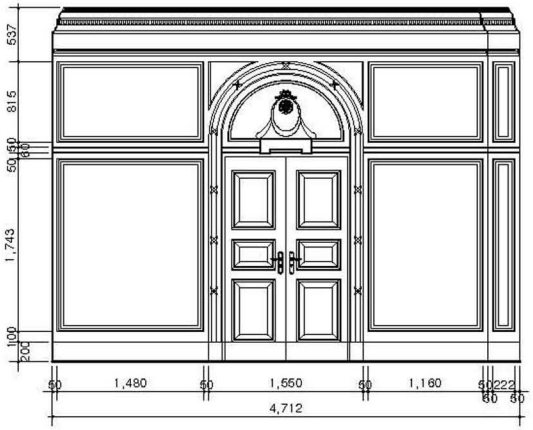


입면-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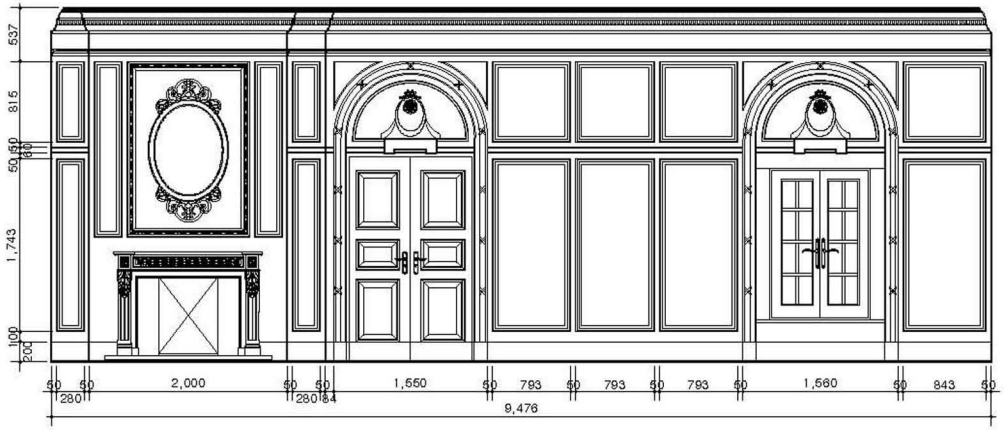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황제서재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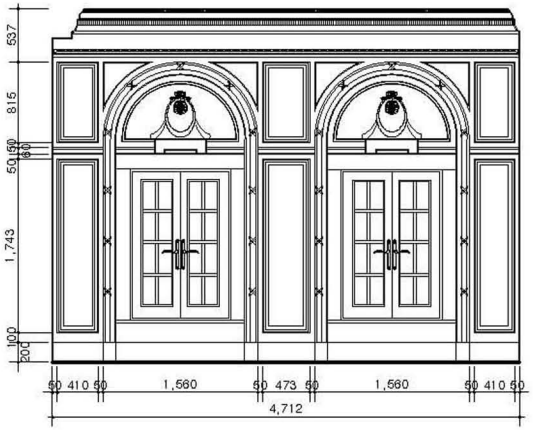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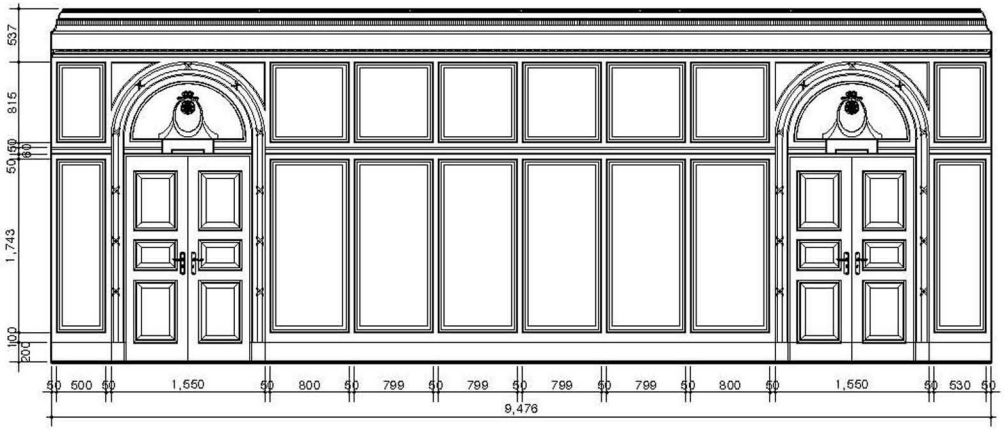
입면-A



입면-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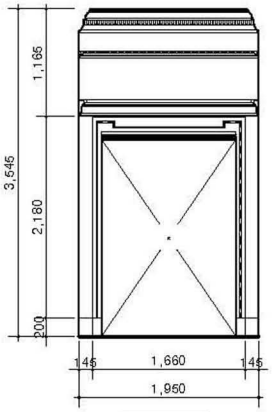


입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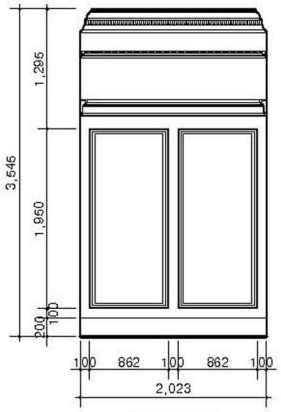


입면-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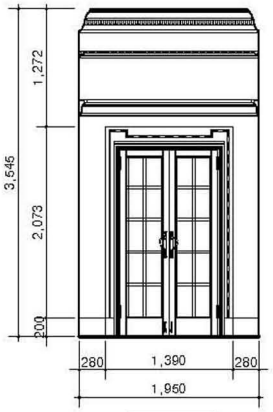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황후거실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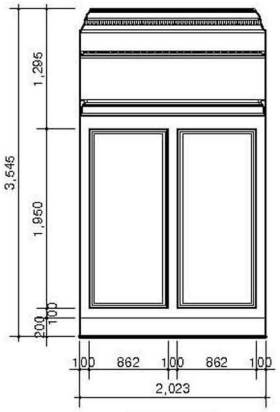
입면-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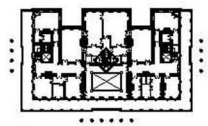
입면-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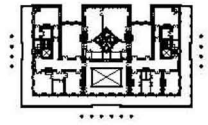
입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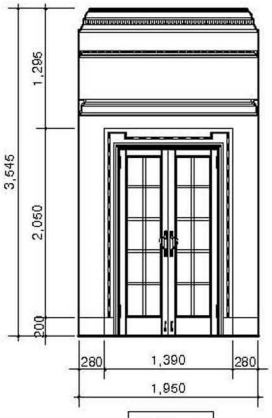


입면-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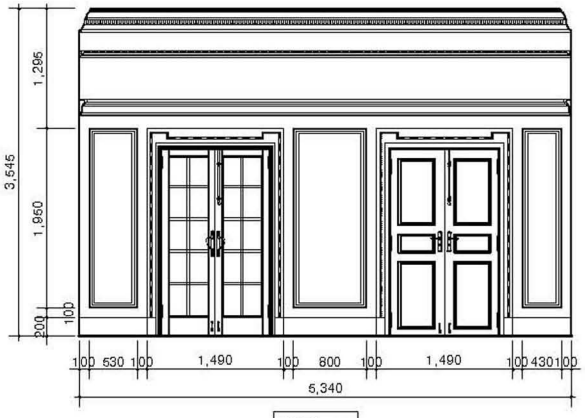

KEY - PLAN

덕수궁 석조전 2층 황제서재 전실1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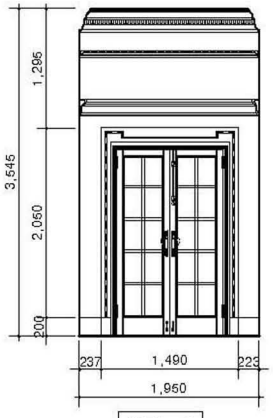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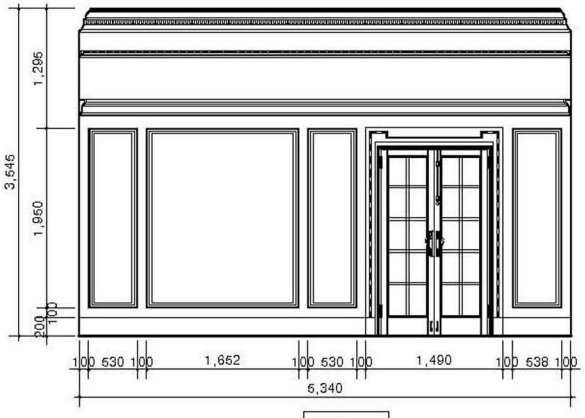
입면-A



입면-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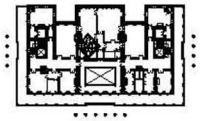


입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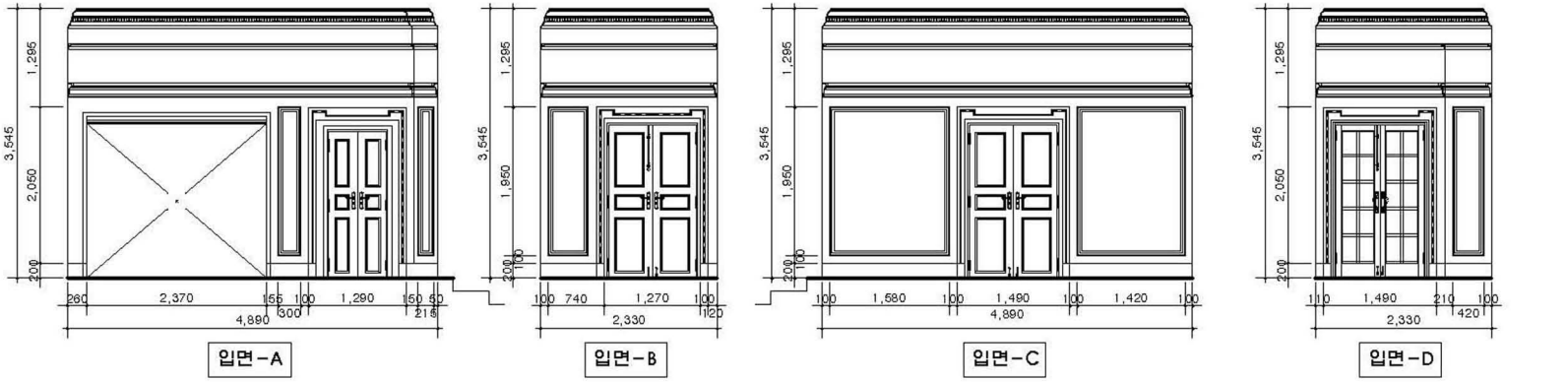


입면-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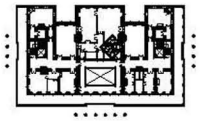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황제서재 전실2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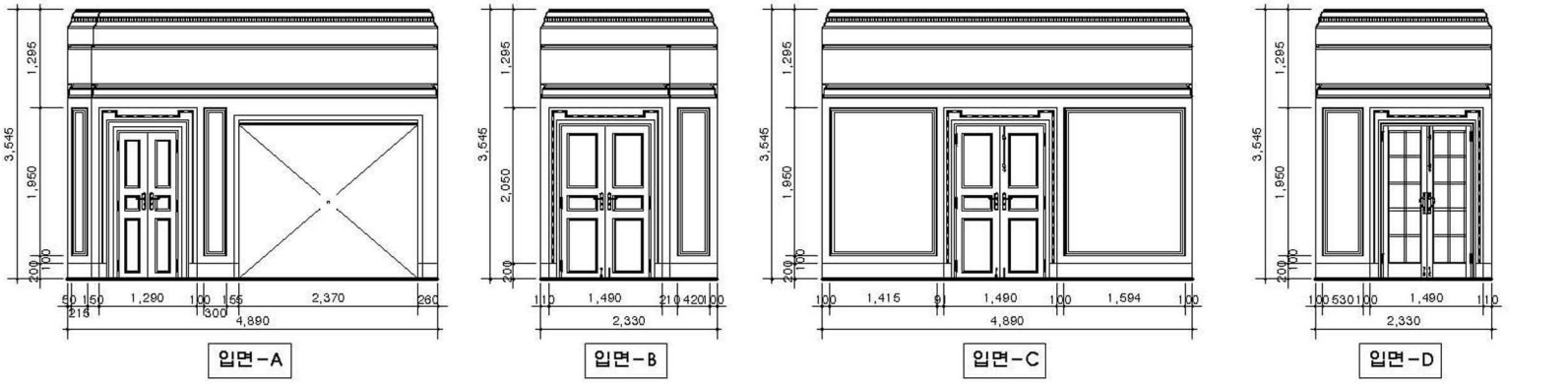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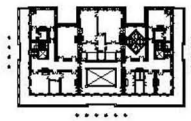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황후거실 전실 복도(서쪽)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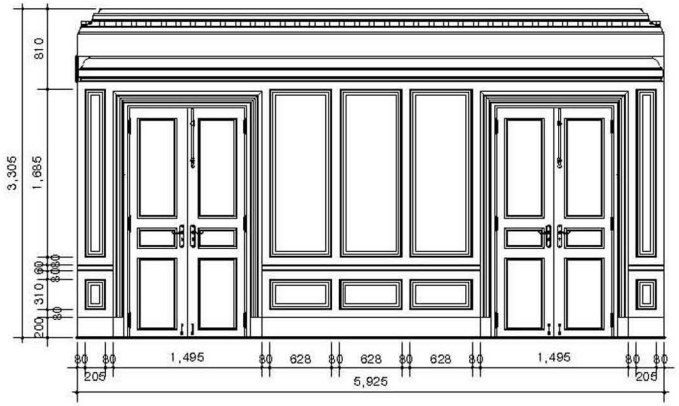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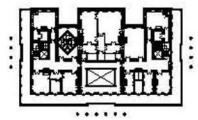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황후거실 전실 복도(동쪽)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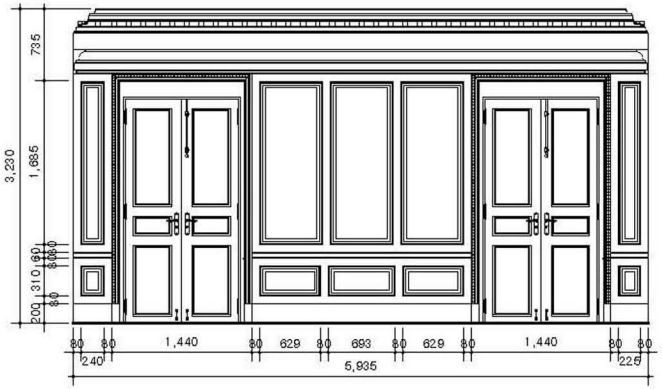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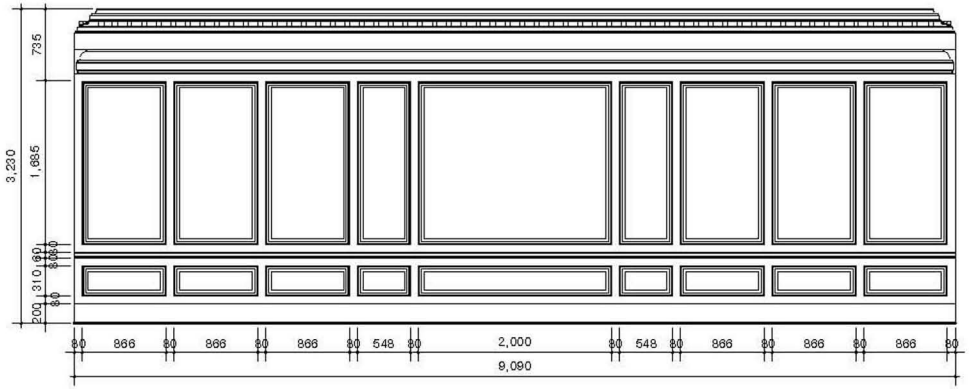

3,305
810
1,685
310
200
80
80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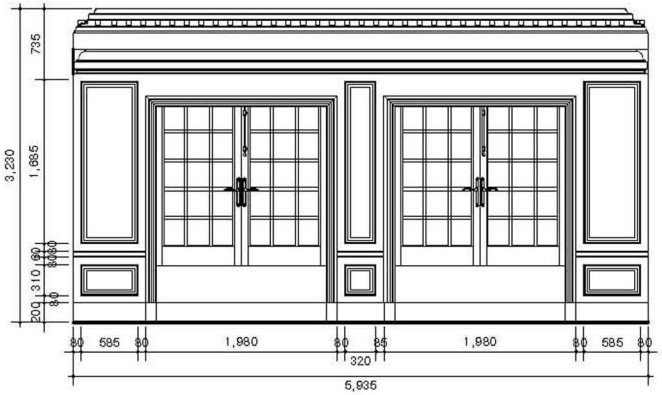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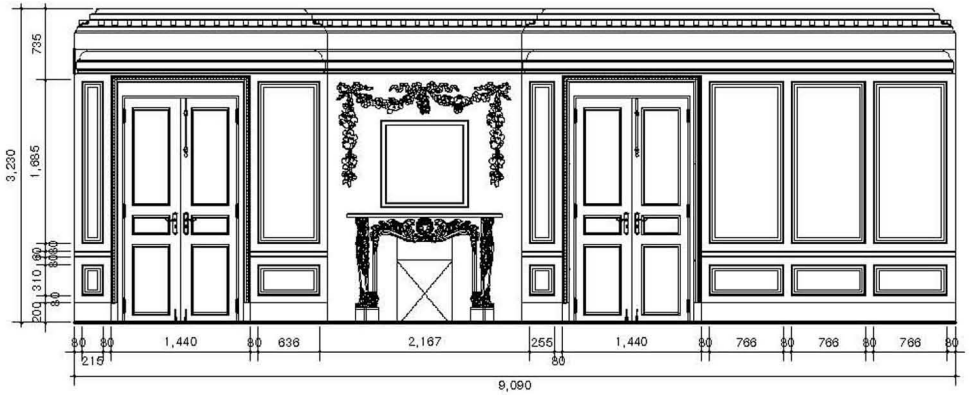
입면-A



입면-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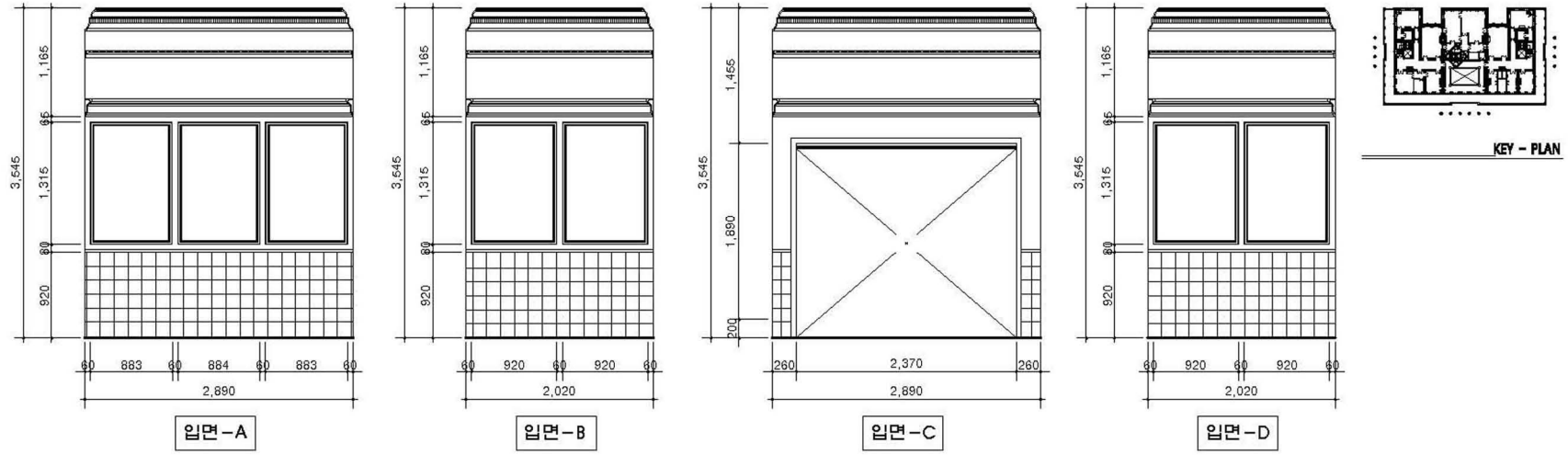


입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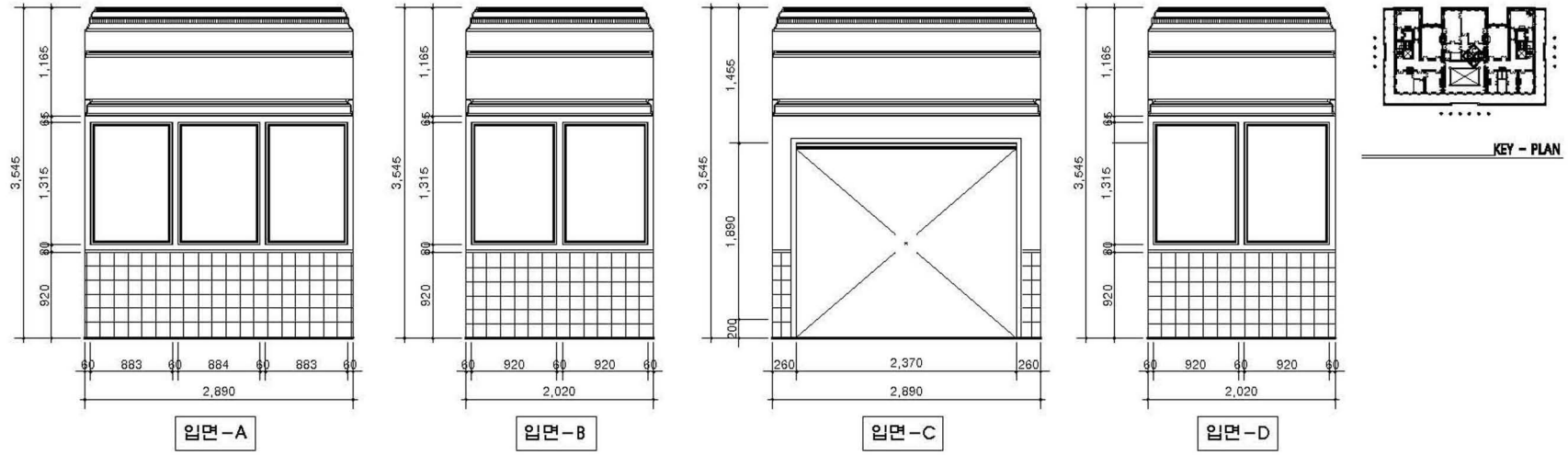


입면-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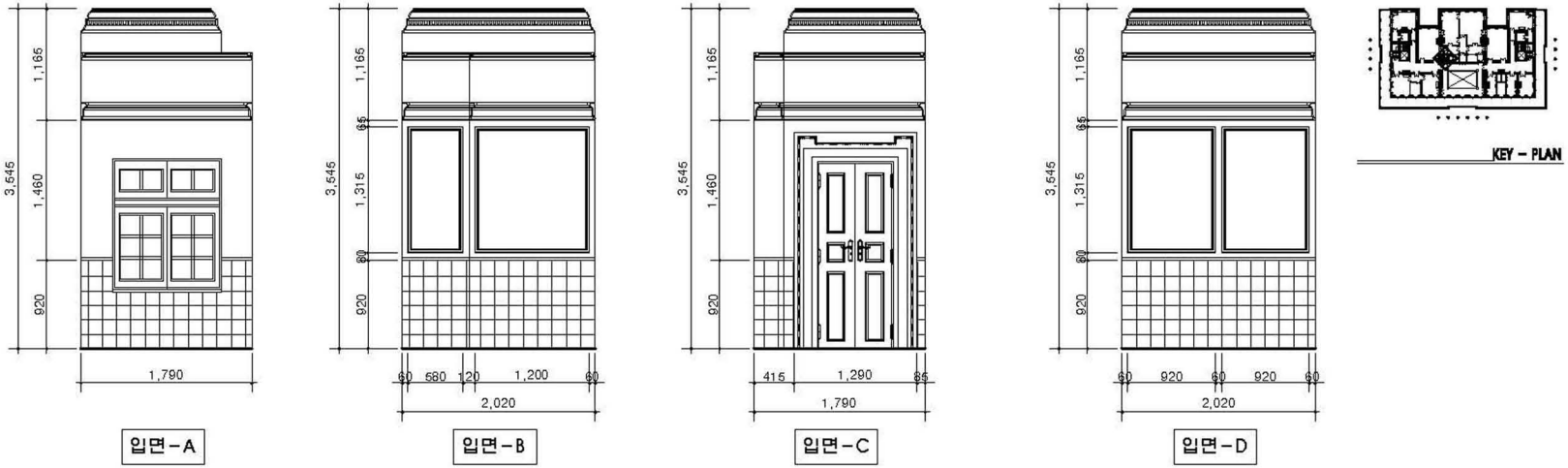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황후 침실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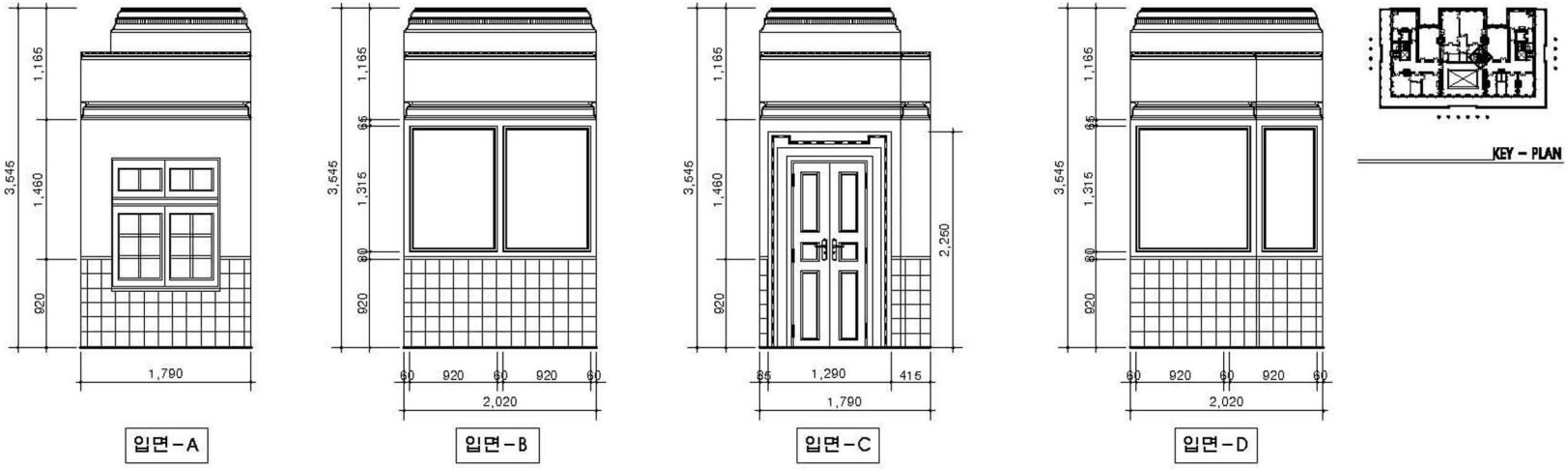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황후 욕실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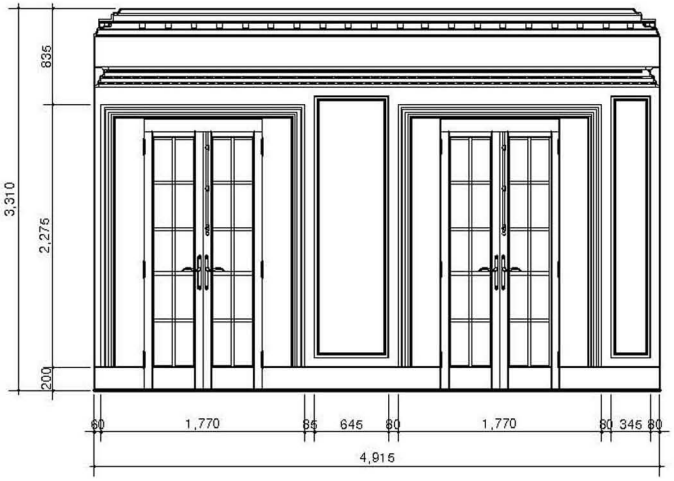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황제 욕실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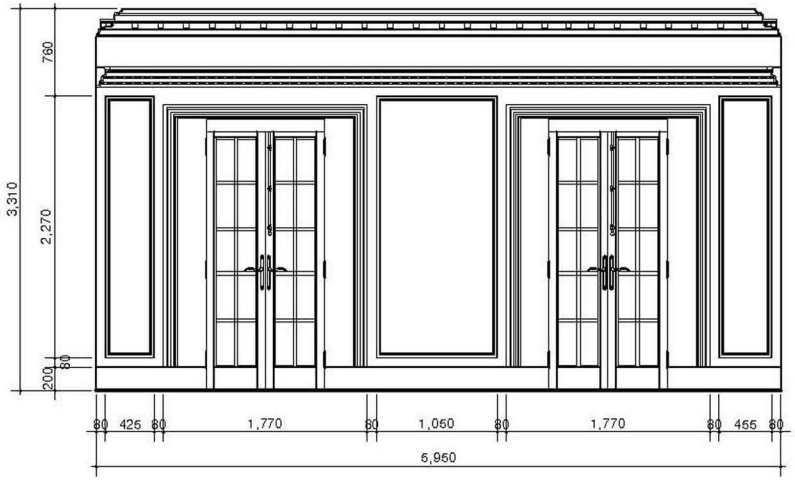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황후 화장실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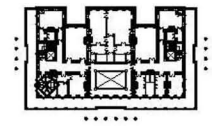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황제 화장실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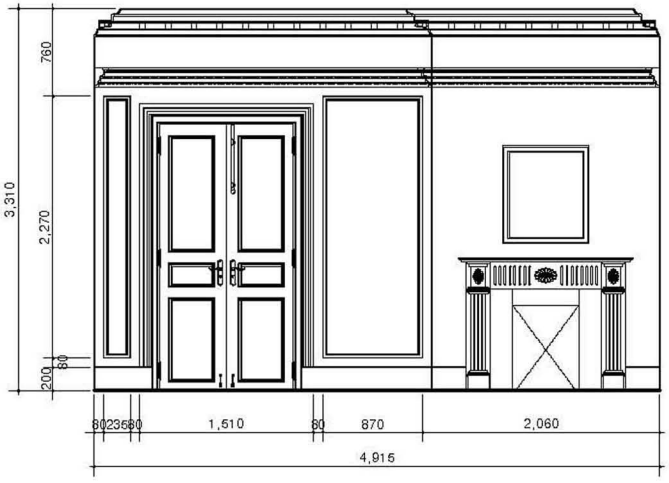
입면-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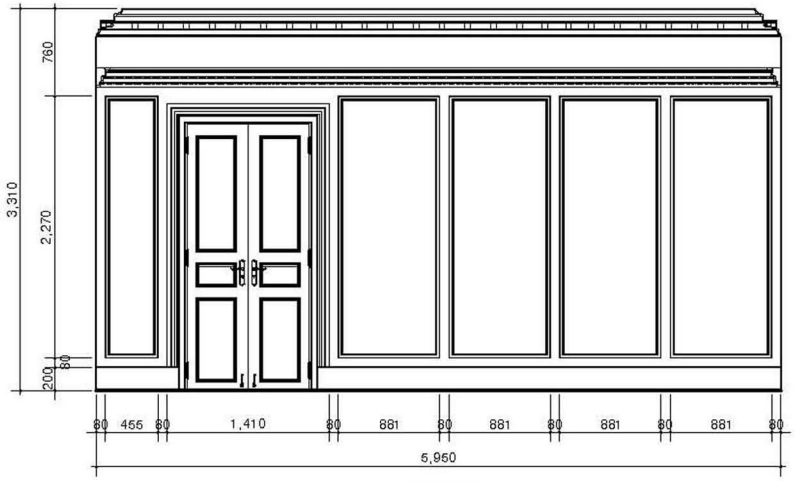
입면-B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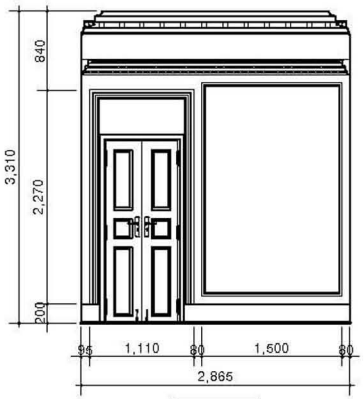


입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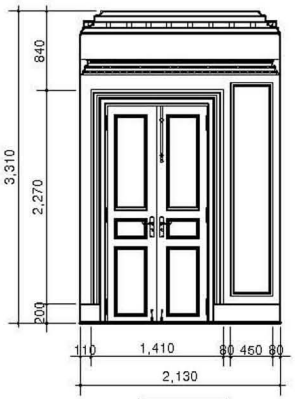


입면-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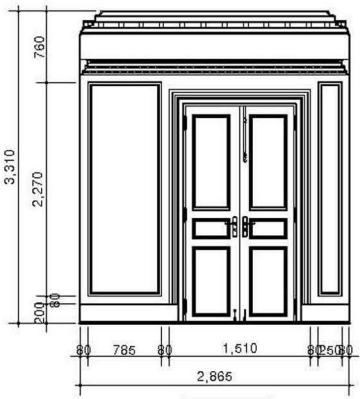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응접실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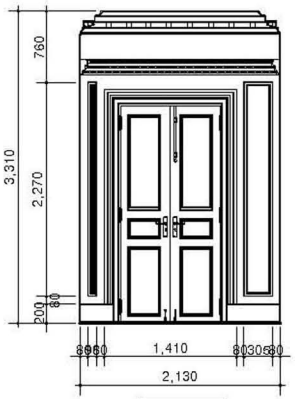
입면-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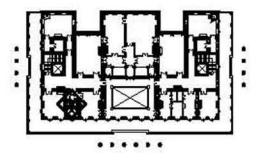
입면-B



입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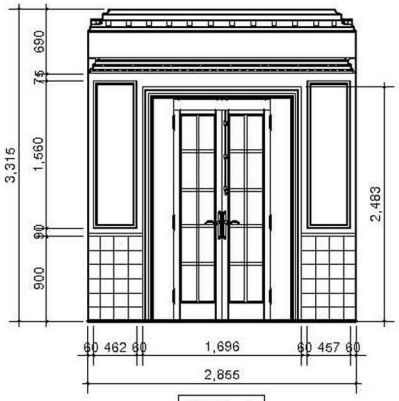


입면-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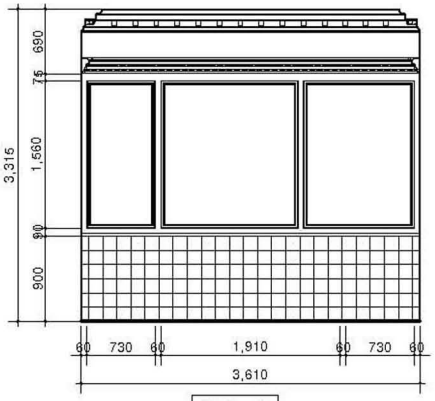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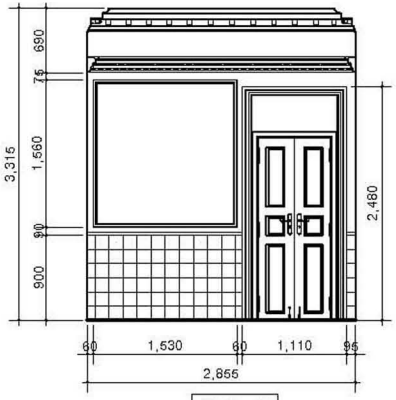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응접실 전실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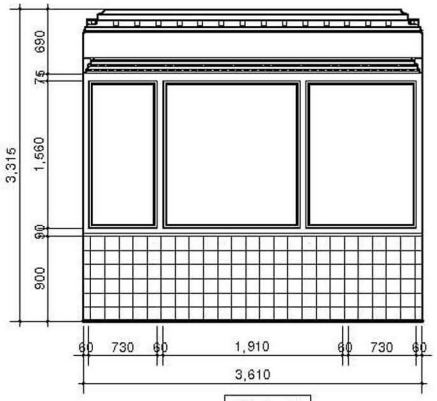
입면-A



입면-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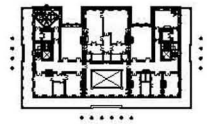


입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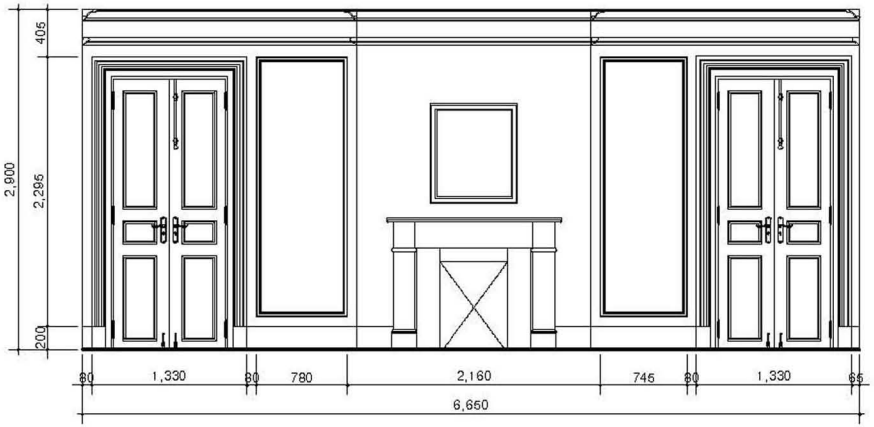


입면-D

덕수궁 석조전 2층 응접실 욕실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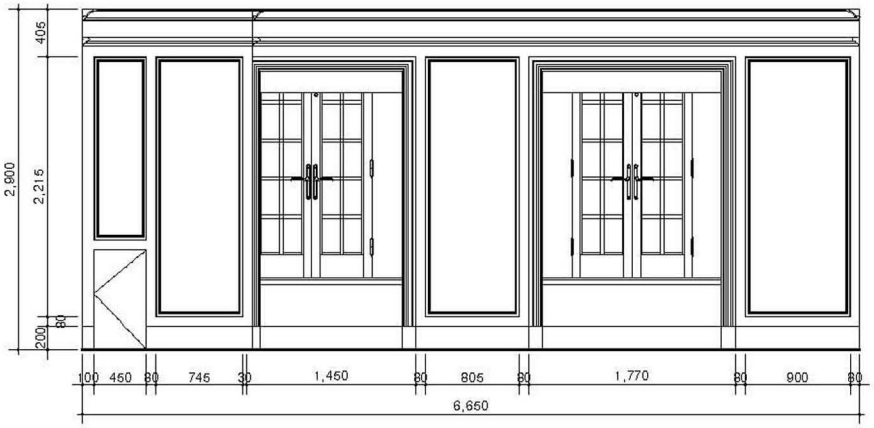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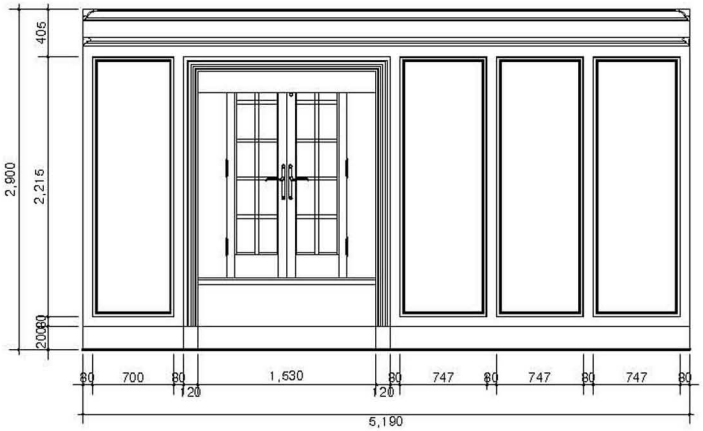


입면-A

입면-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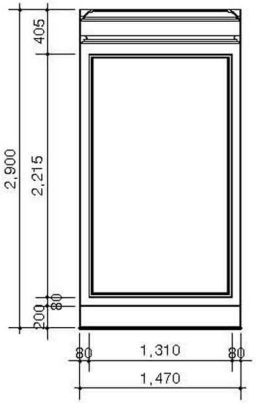


입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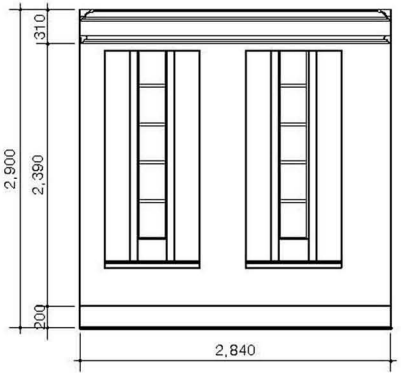


입면-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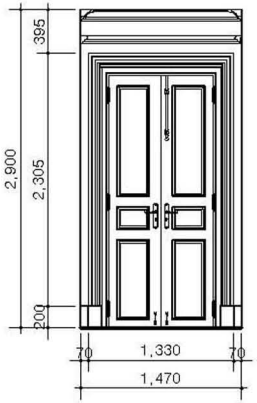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서북1실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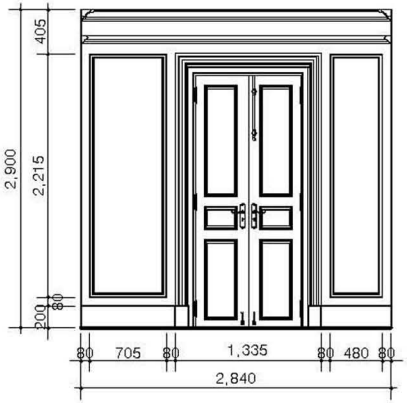
입면-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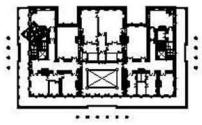
입면-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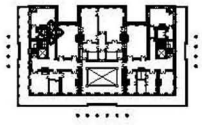
입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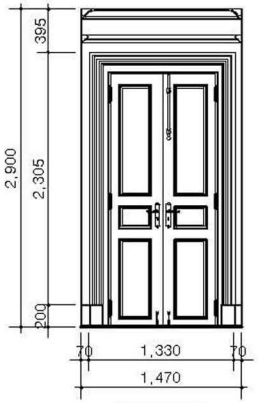
입면-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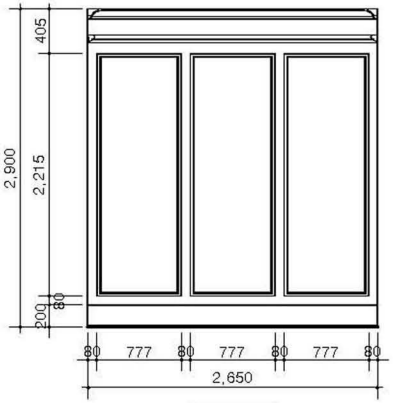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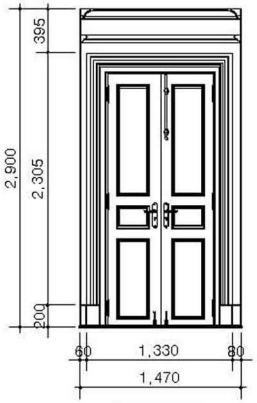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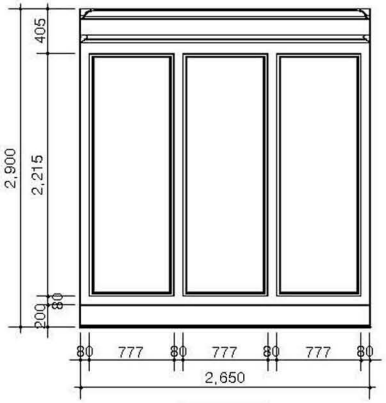
입면-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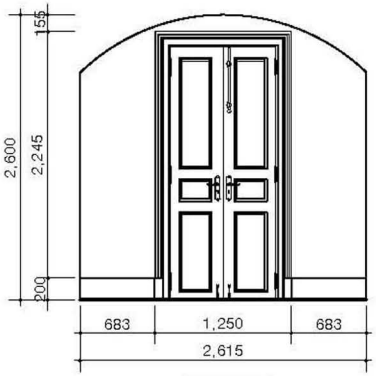
입면-B



입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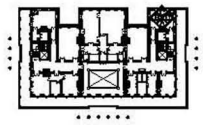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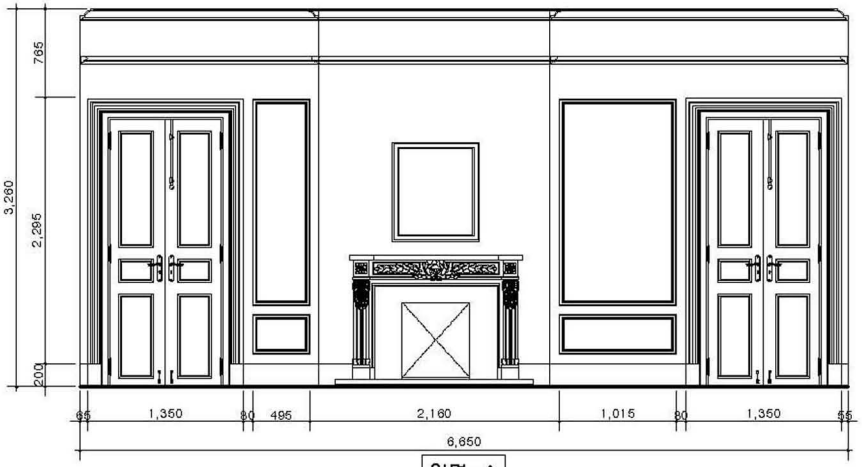
입면-D



내부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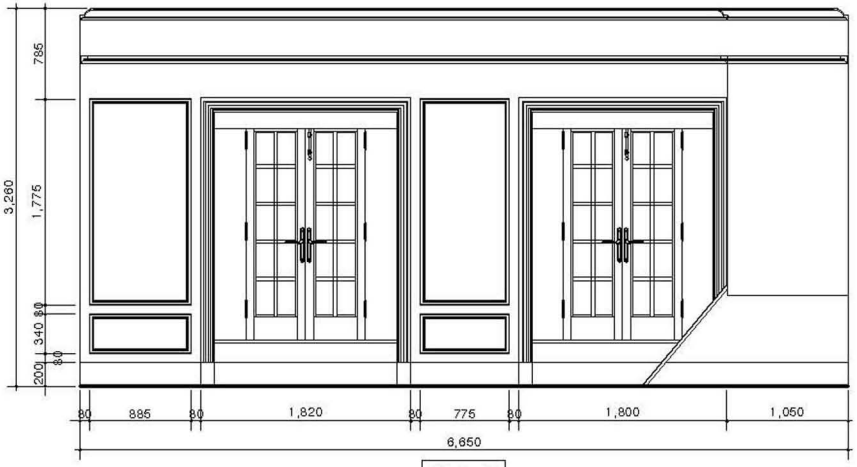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서북2실 복도 및 전실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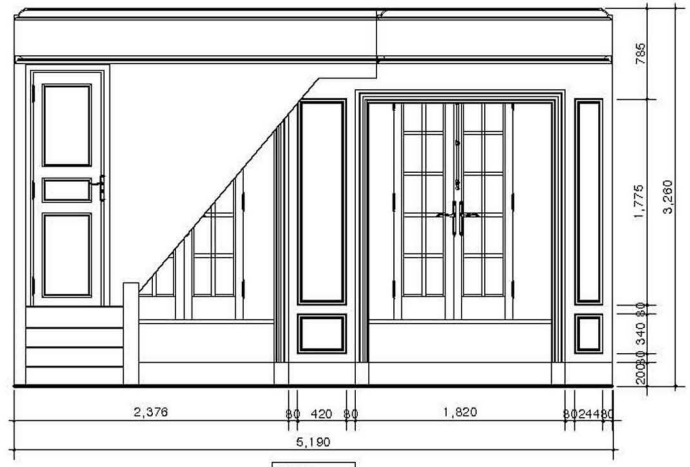


입면-A

입면-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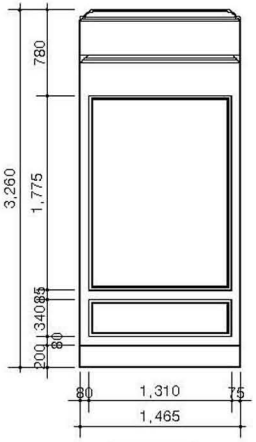


입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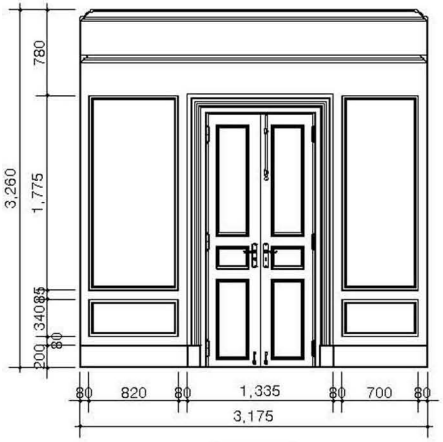


입면-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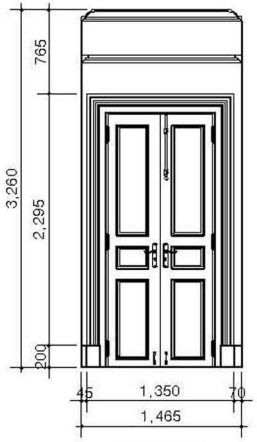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동북1실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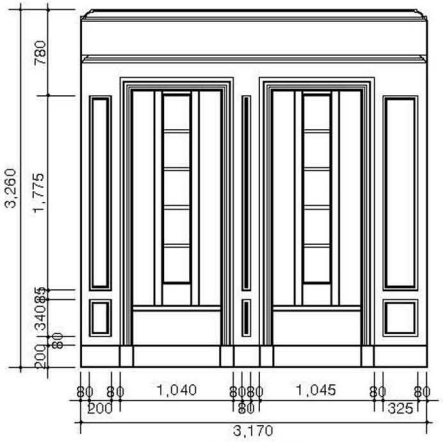
입면-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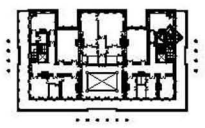
입면-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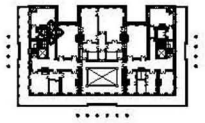
입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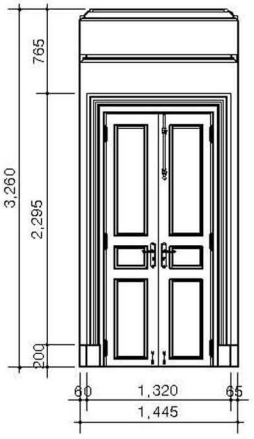
입면-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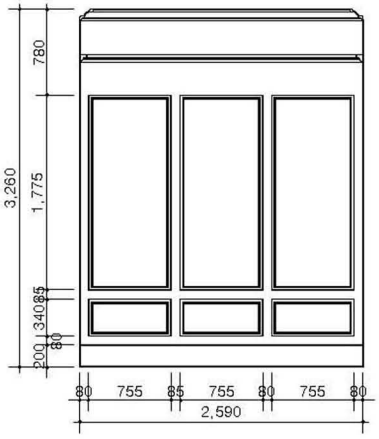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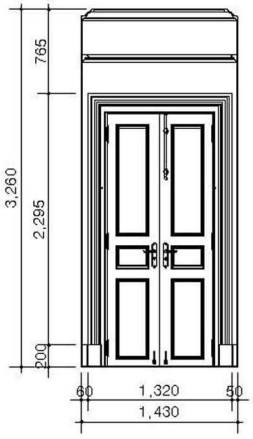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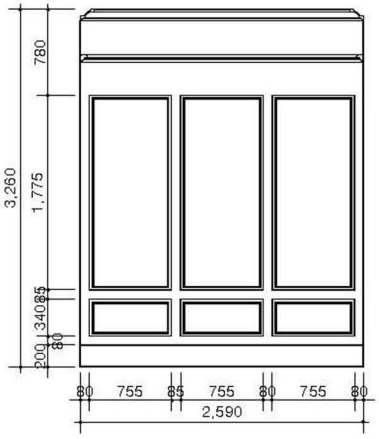
입면-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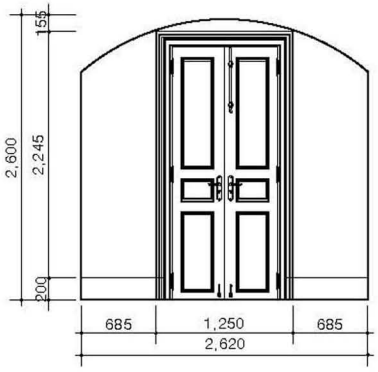
입면-B



입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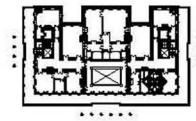
입면-D



내부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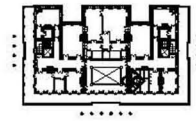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동북2실 복도 및 전실 몰딩입면도

덕수궁 석조전 2층 시종실1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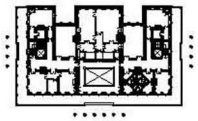
KEY - PLAN

덕수궁 석조전 2층 시종실2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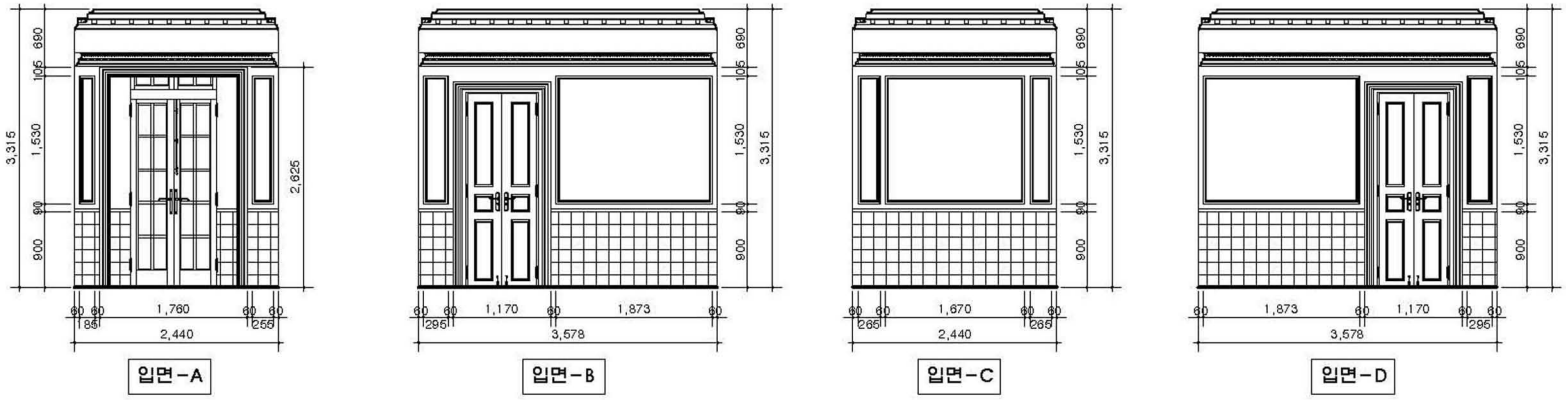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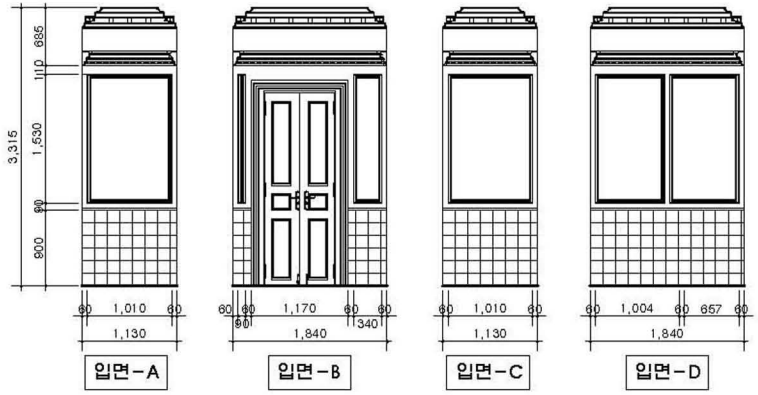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시종실3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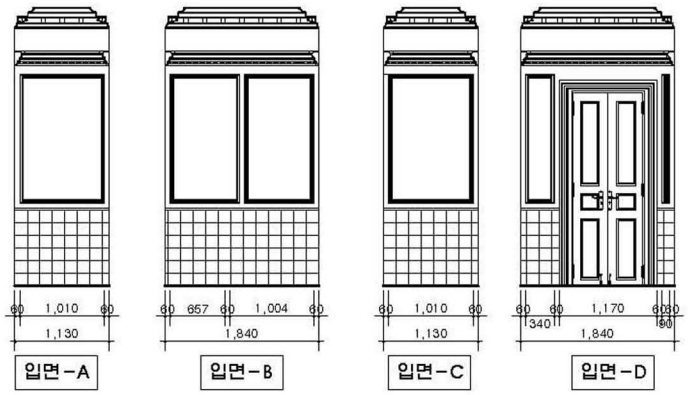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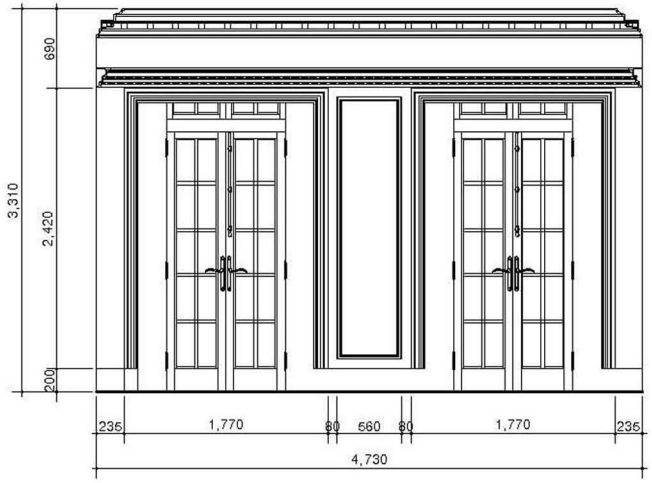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시종실2,3 욕실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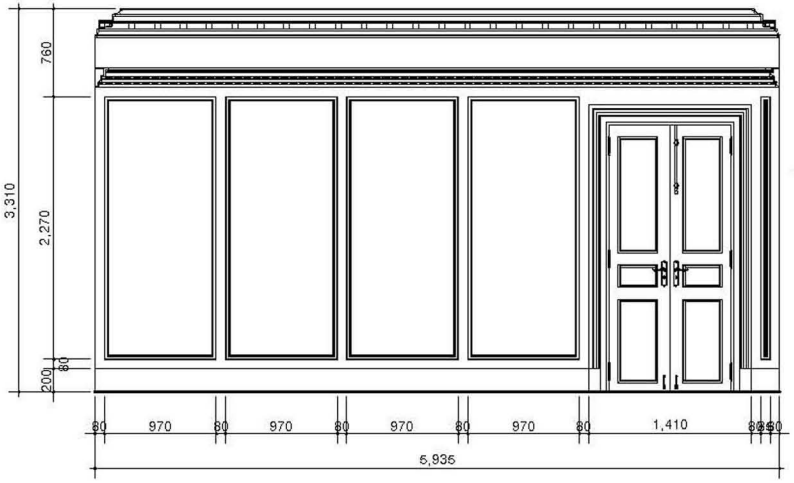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시종실3 화장실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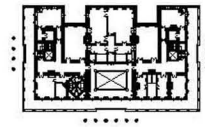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시종실2 화장실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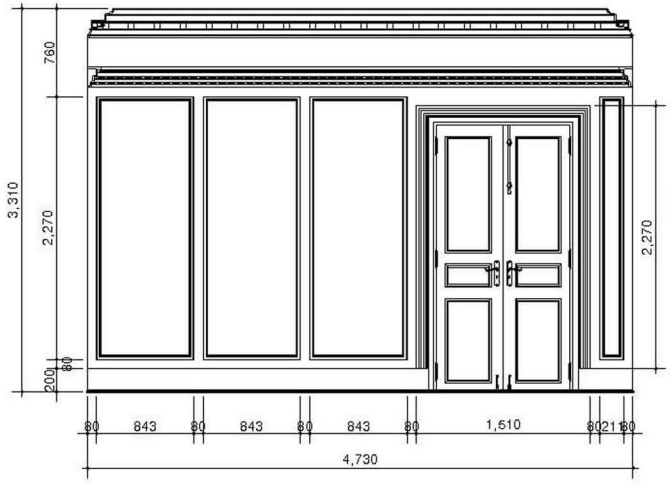


입면-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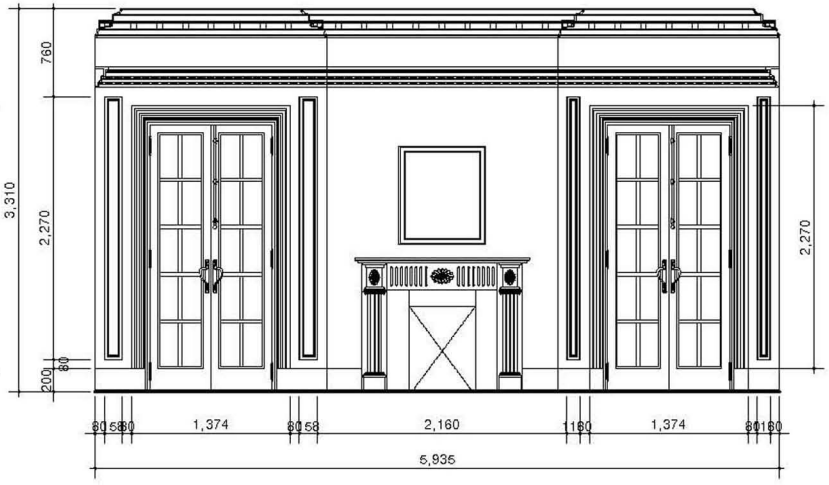


입면-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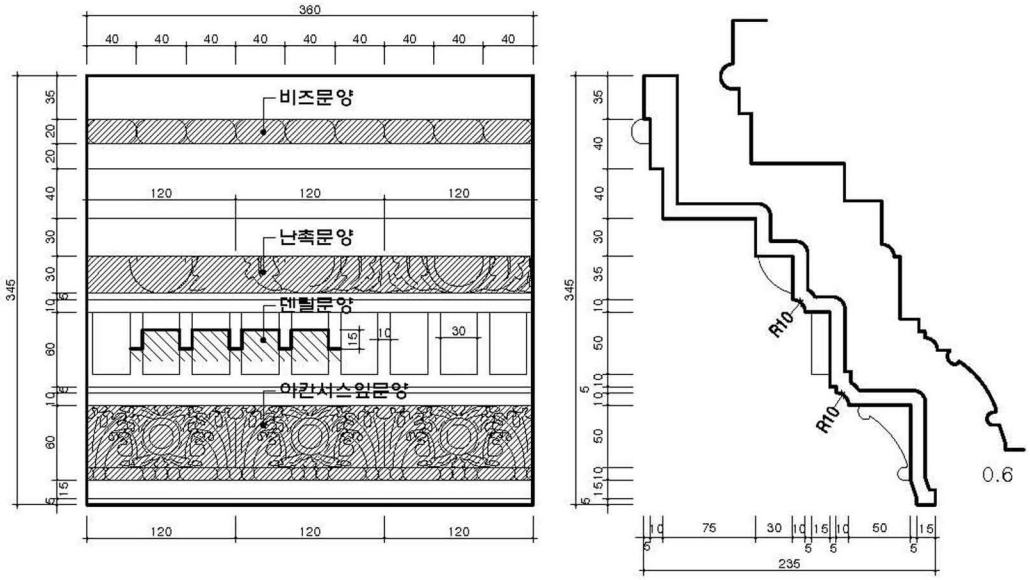


입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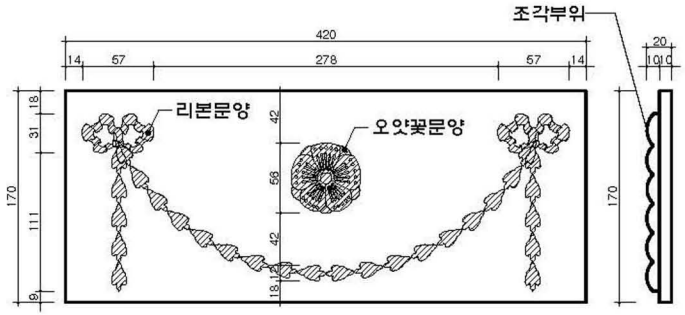


입면-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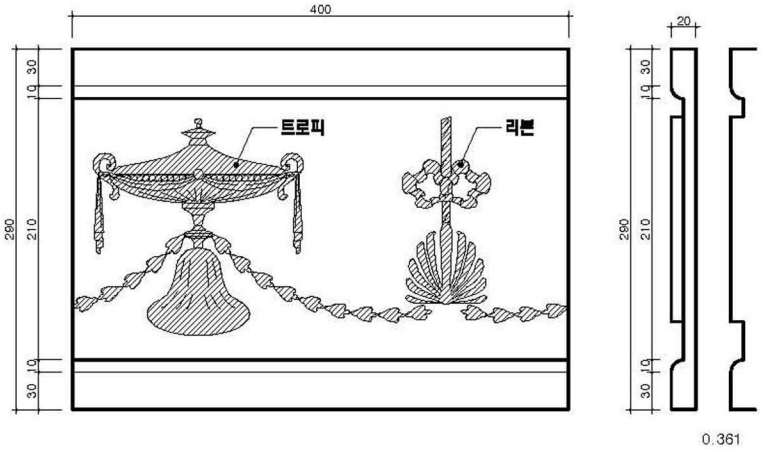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2층 시종실4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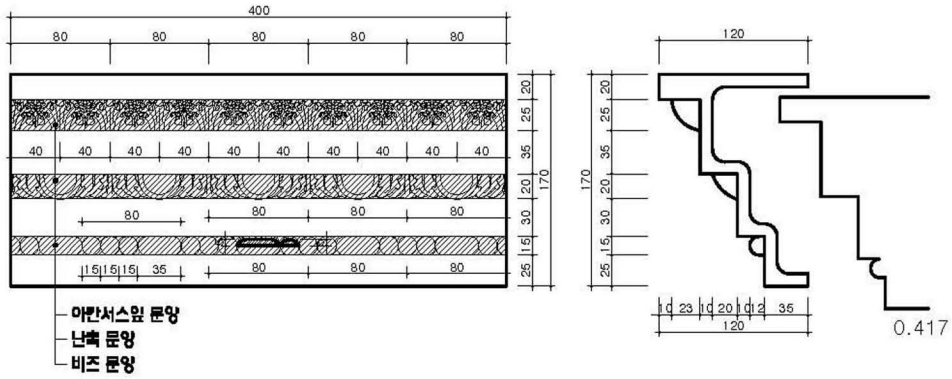
1층 중앙홀 비즈,난촉,덴틸,아칸서스잎문양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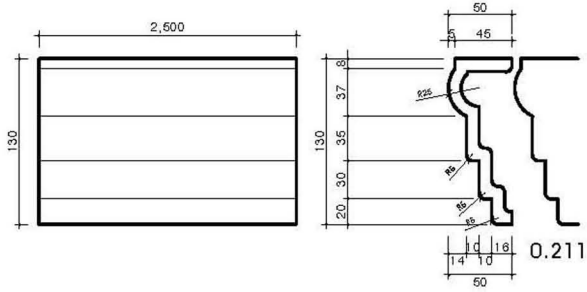
1층 동남1실등 아담스클래식문양 몰딩
(귀빈대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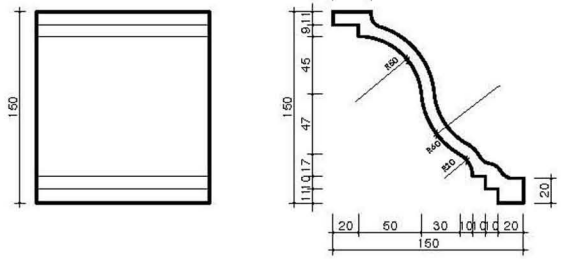
1층 귀빈대기실등 아담스 클래식 문양 몰딩
(동남1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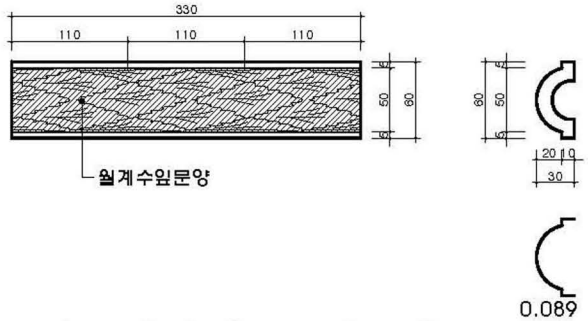
1층 접견실 아칸서스잎, 난촌, 비즈문양 몰딩
(1층 동북1실 전실, 복도, 소식당(동), 서북1실 전실,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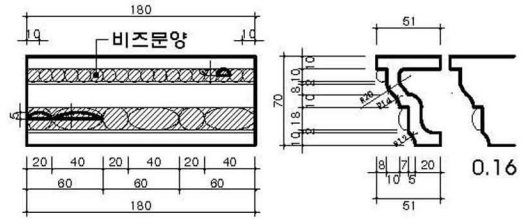
1층 대식당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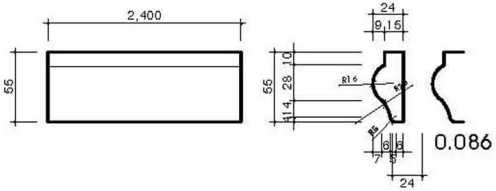
2층 서쪽계단실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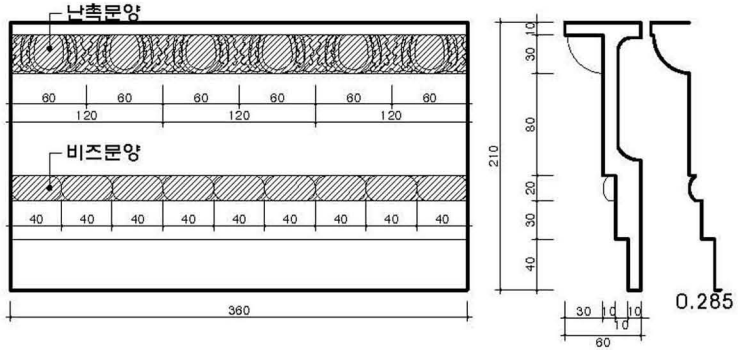
1층 중앙홀 월계수잎문양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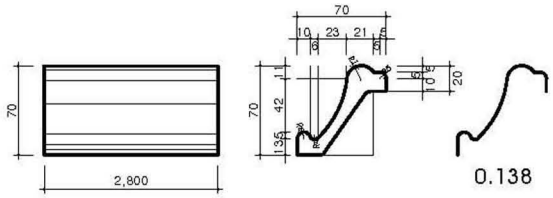
1층 중앙홀 비즈문양 몰딩
(접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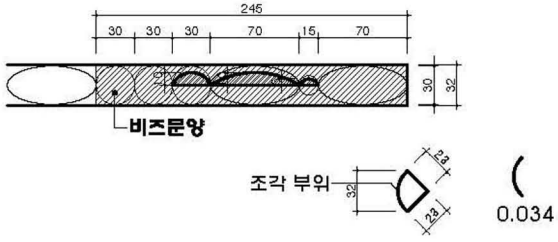
1층 중앙홀 몰딩
(접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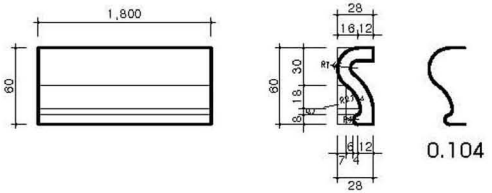
1층 중앙홀 난촉, 비즈문양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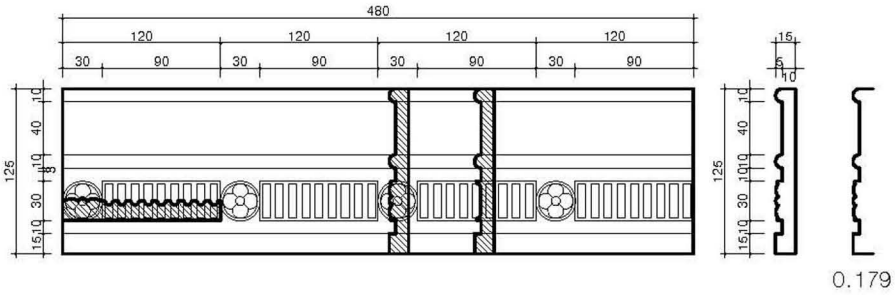
1층 대식당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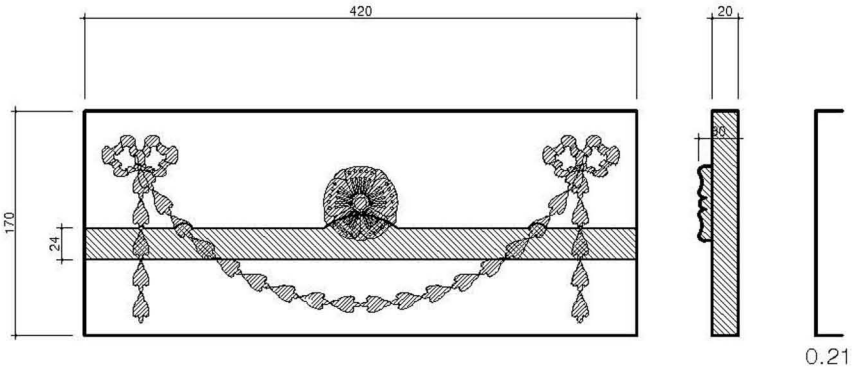
1층 대식당 비즈문양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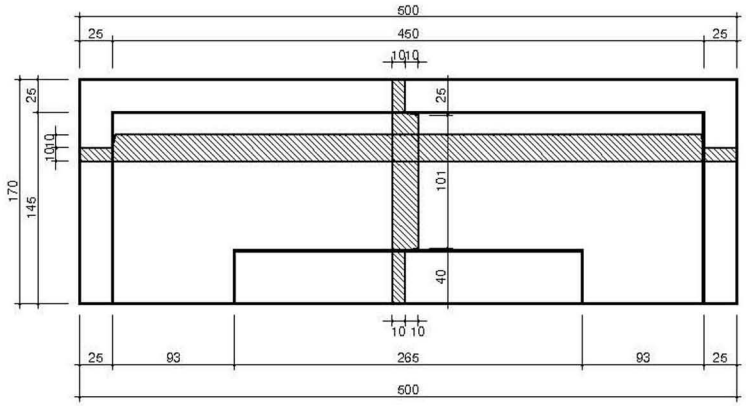
1층 대식당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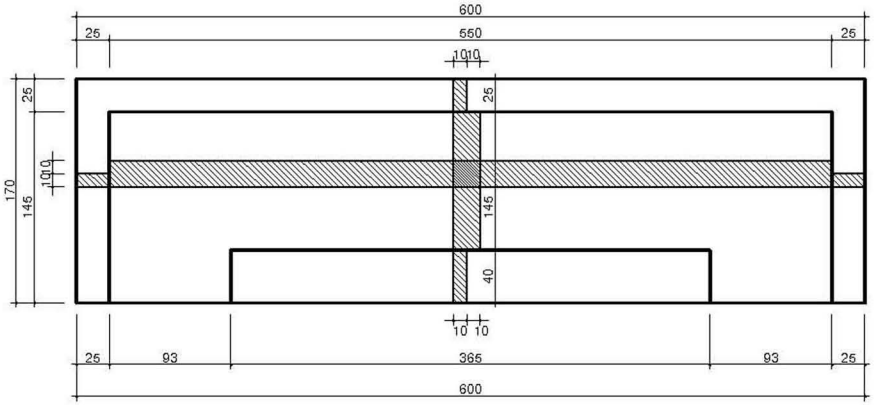
1층 귀빈대기실등 몰딩
(동남1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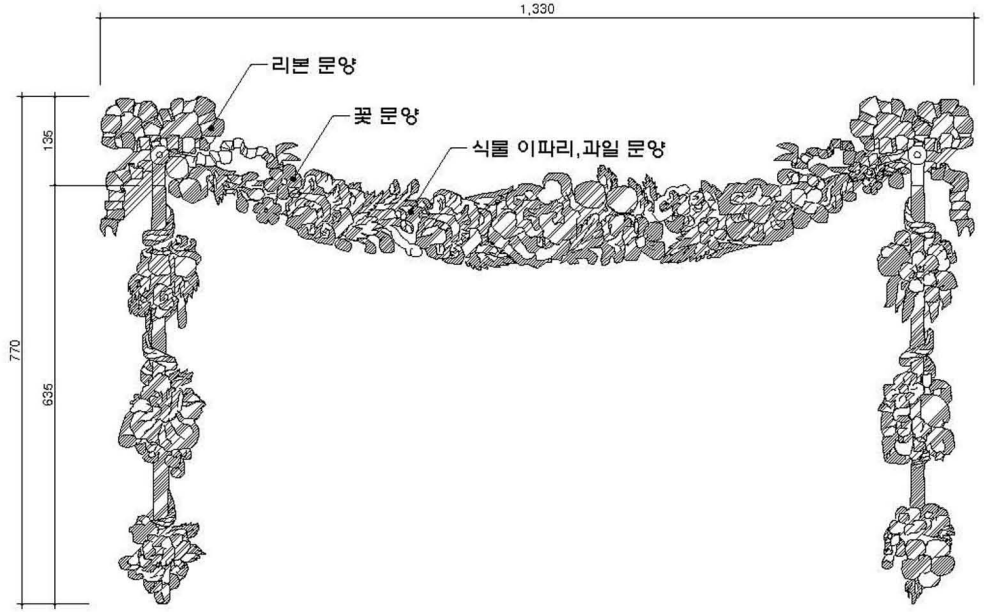
1층 귀빈대기실등 아담스 클래식 문양 몰딩
(동남1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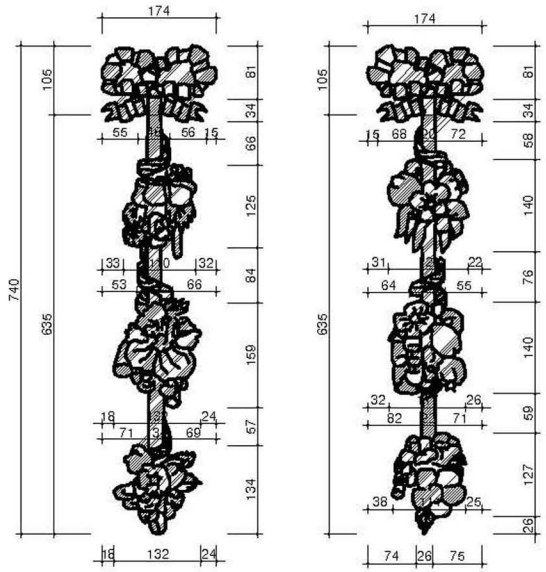
1층 귀빈대기실등 몰딩
(동남1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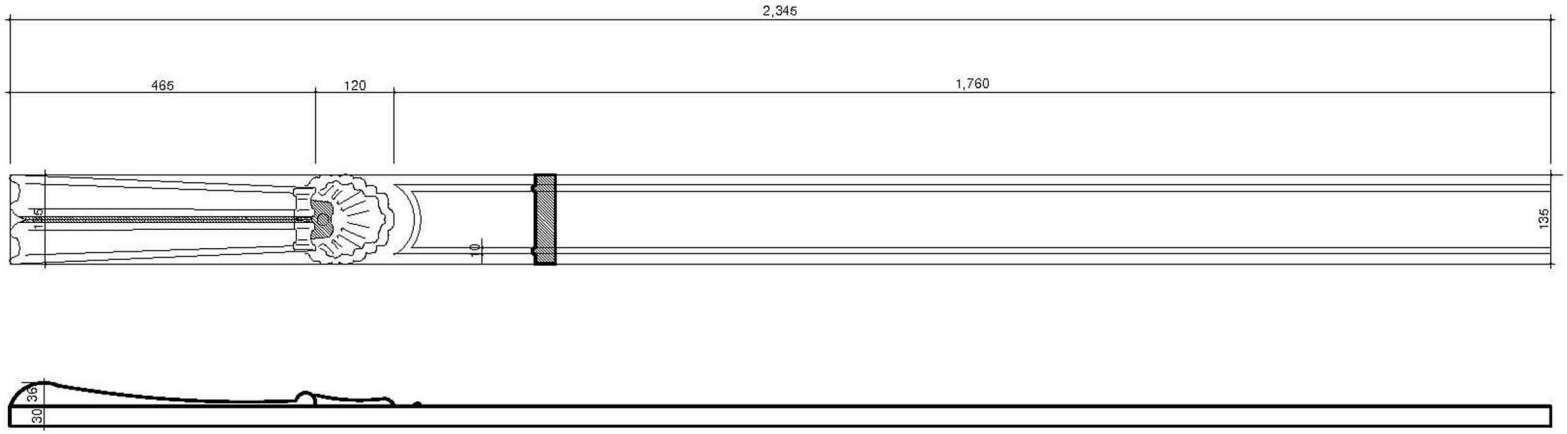
1층 귀빈대기실등 몰딩
(동남1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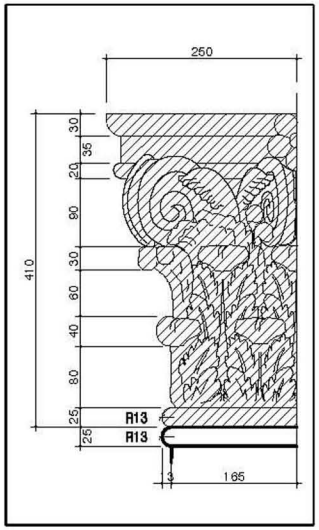
1층 대식당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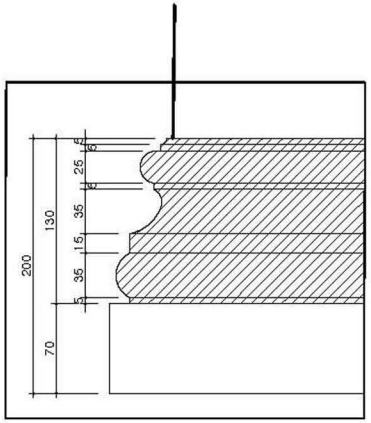
1층 대식당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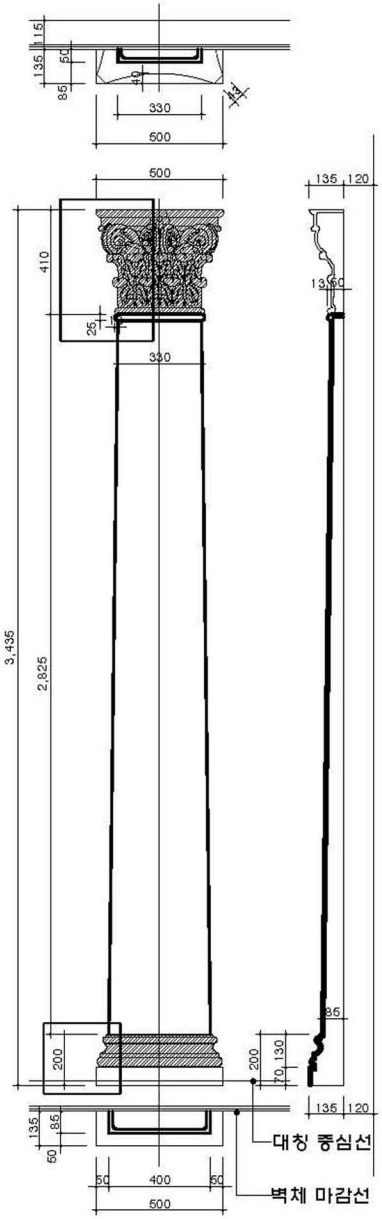
1층 귀빈대기실등 몰딩
(동남1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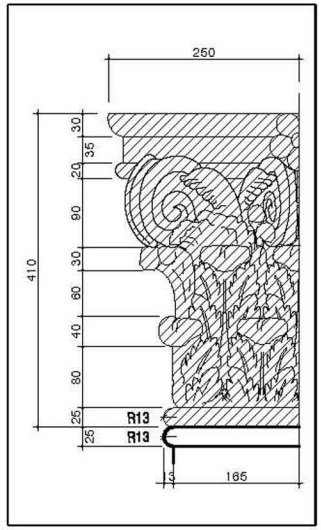


코린트 사각 반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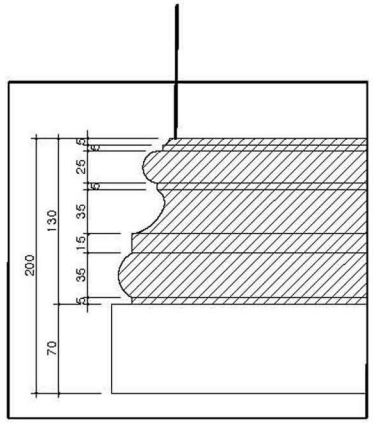


1층 접견실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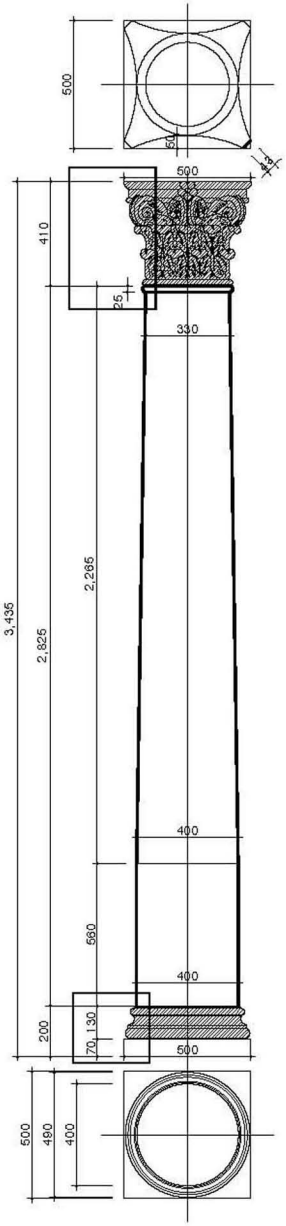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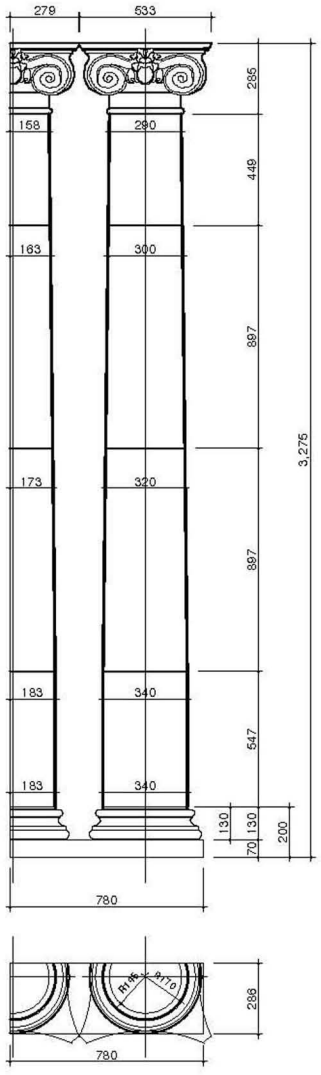


원형 기둥 (코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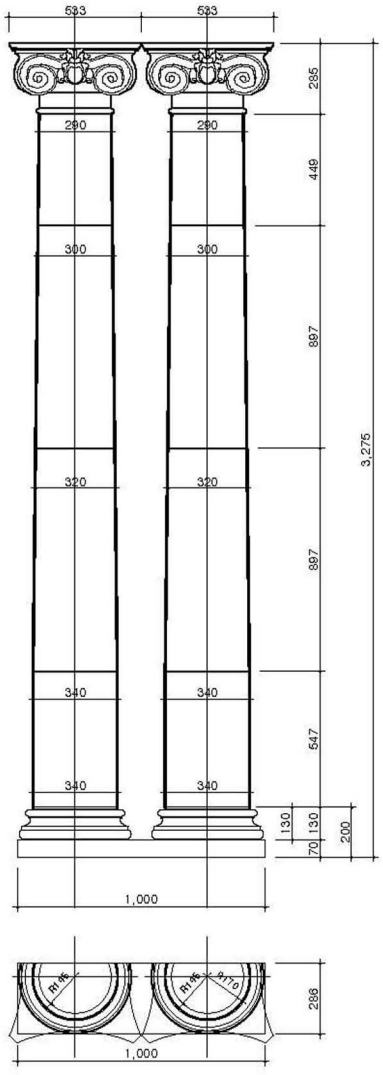


1층 접견실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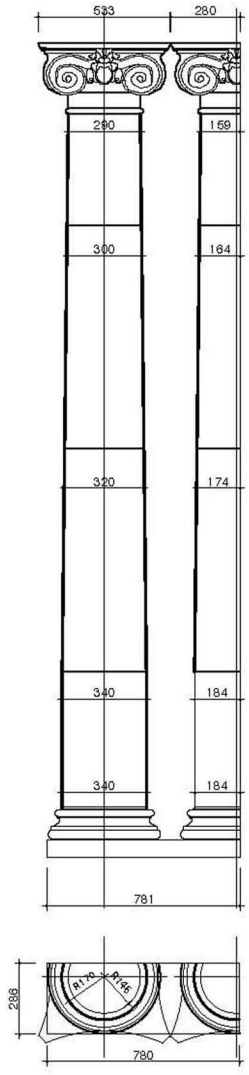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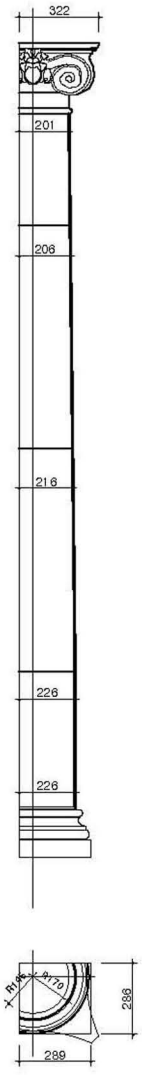
1 SET.



6 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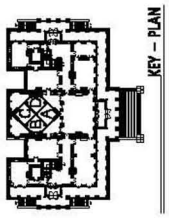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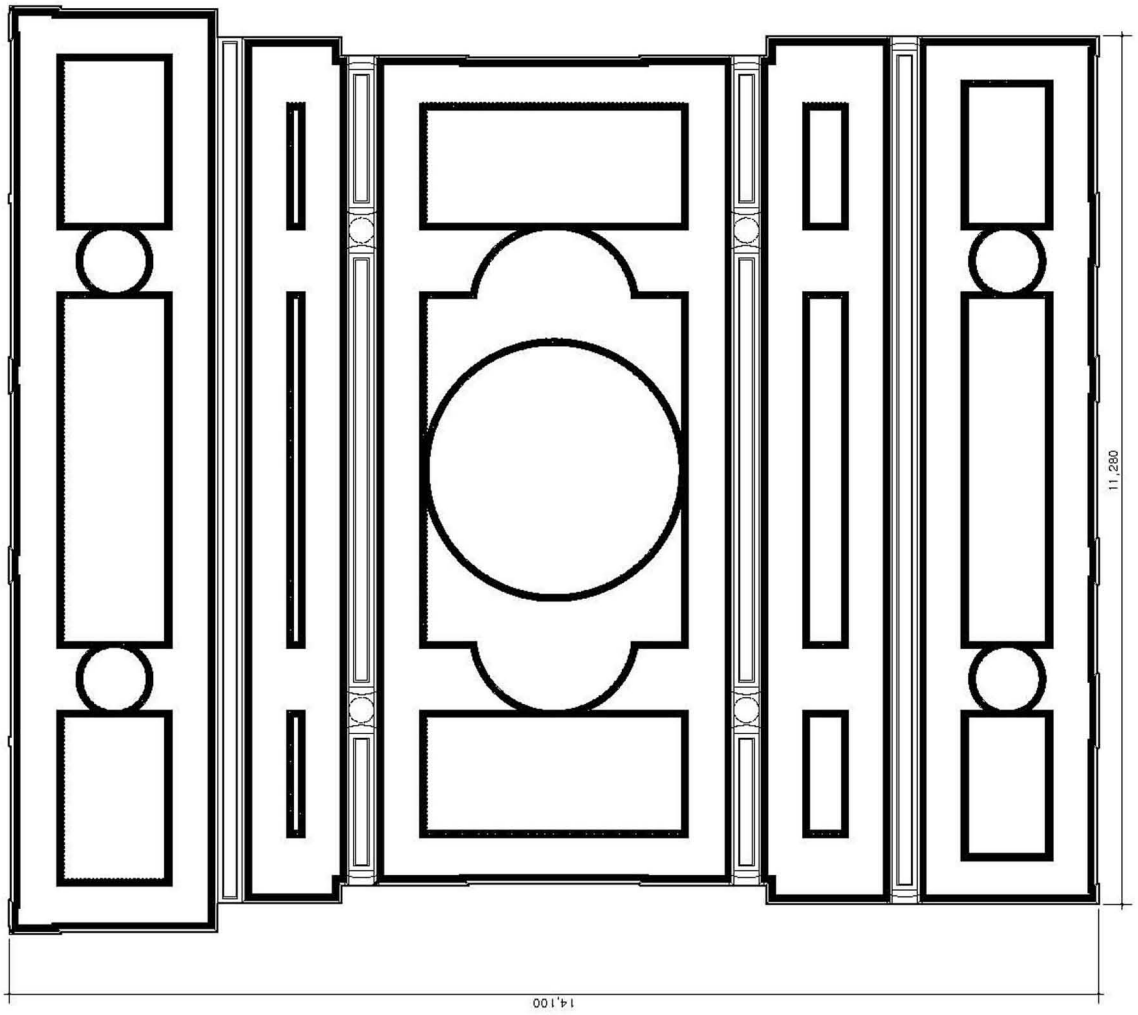
1 S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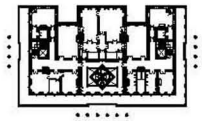
6 SET.

1층 접견실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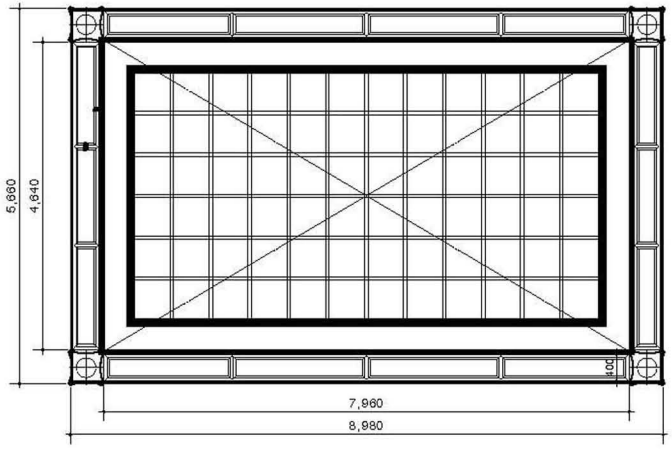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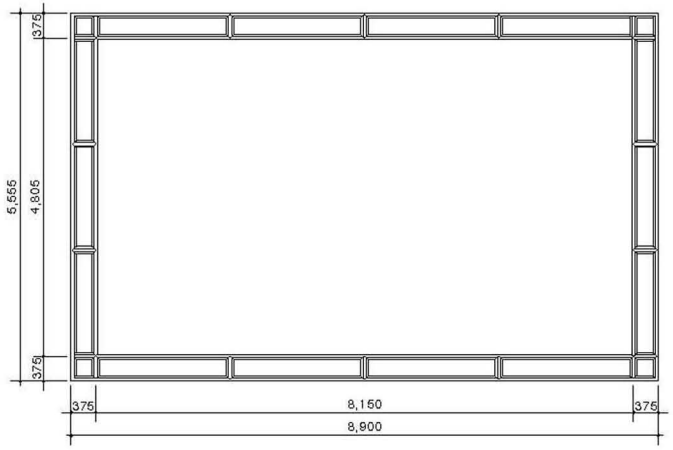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1층 접견실 몰딩 천장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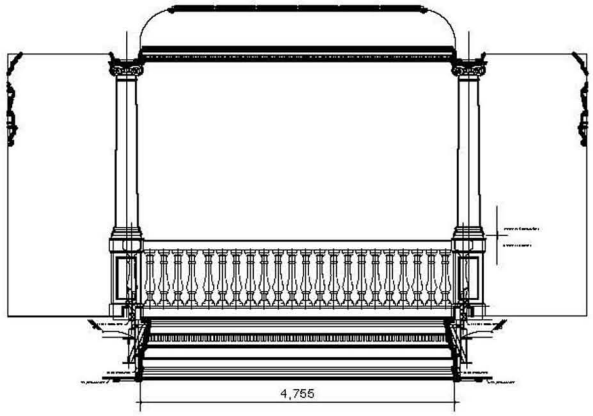
KEY -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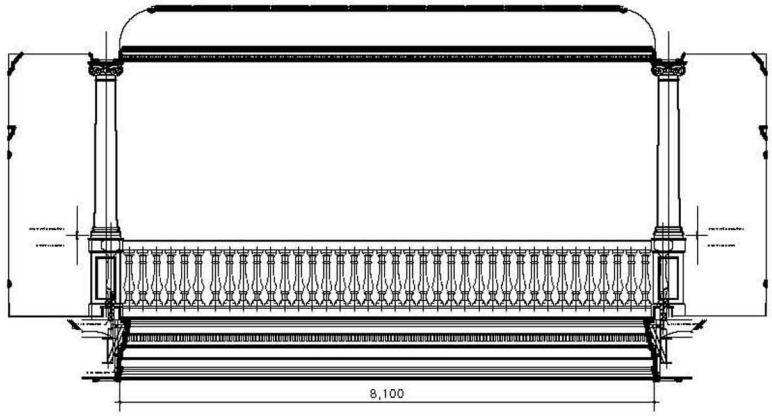
입면-A



입면-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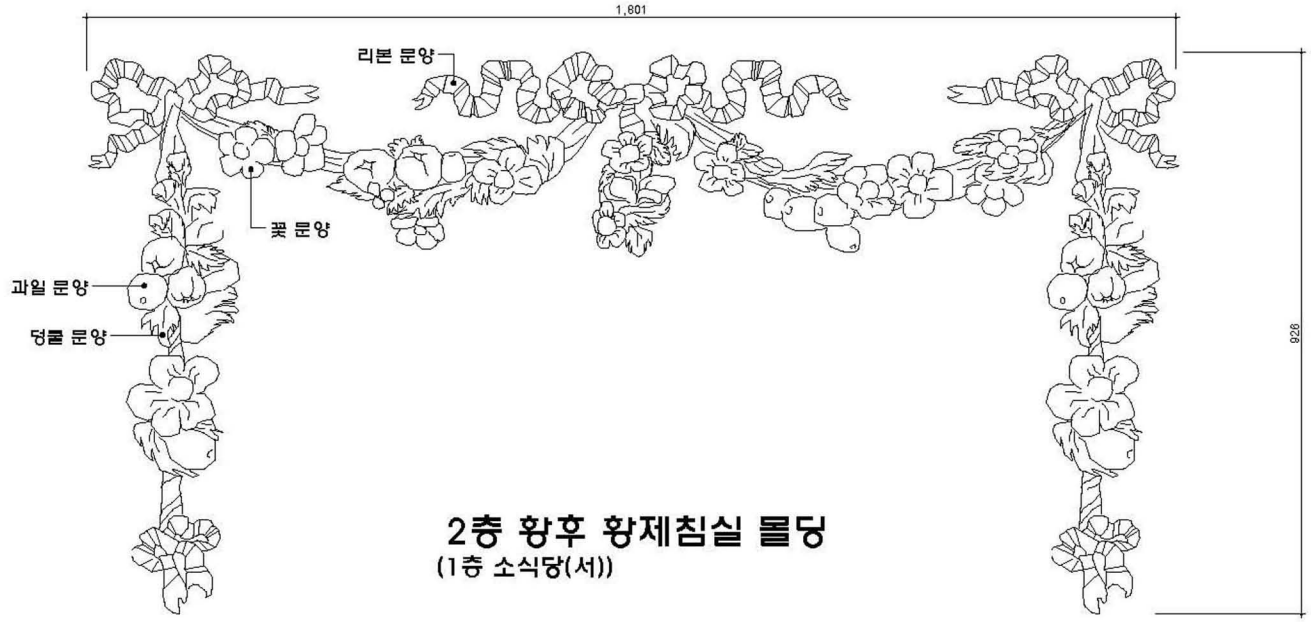


입면-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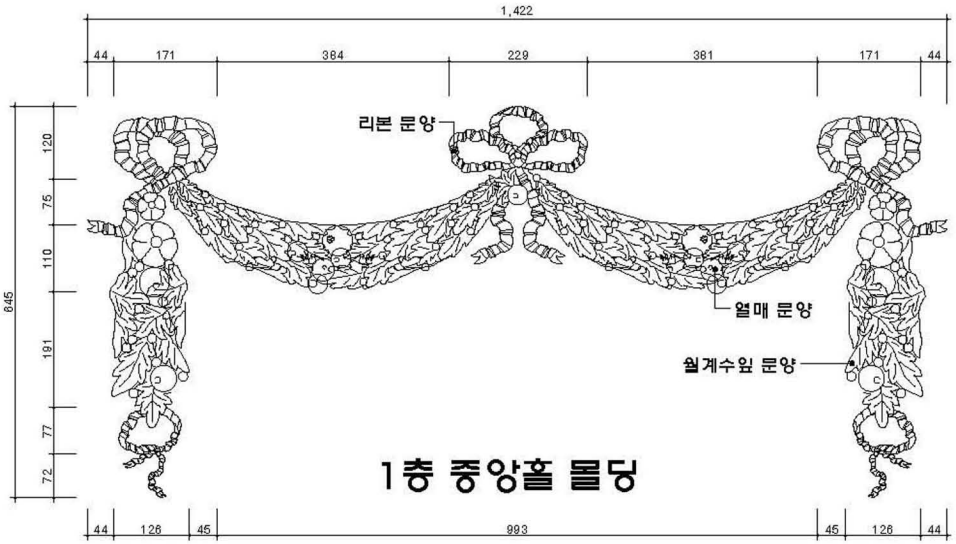


입면-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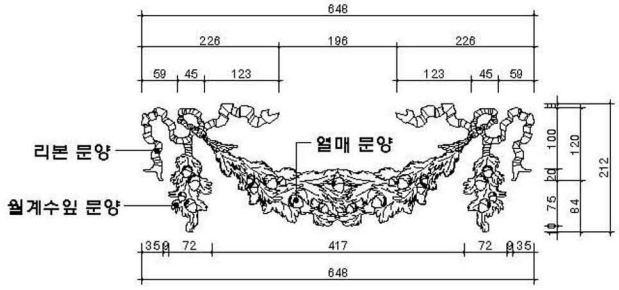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1,2층 중앙홀 몰딩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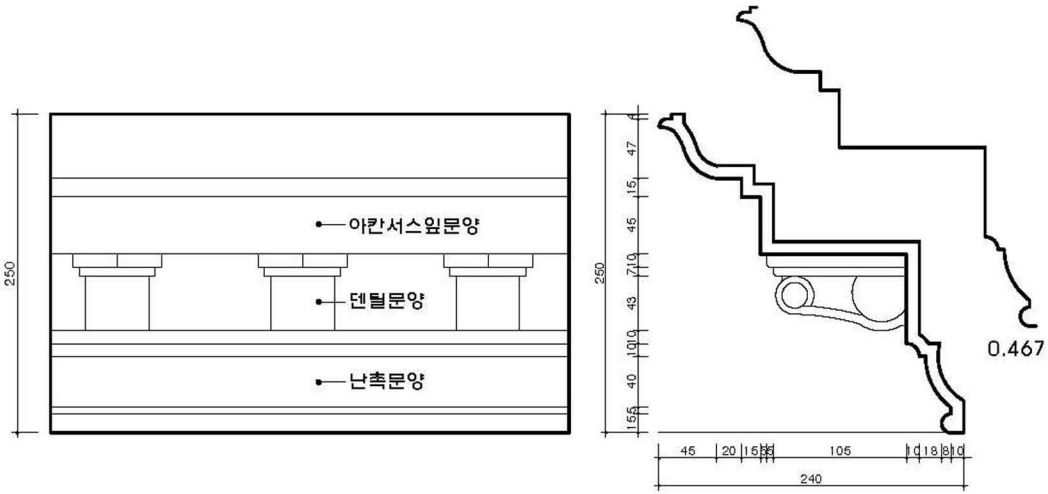
2층 황후 황제침실 몰딩
(1층 소식당(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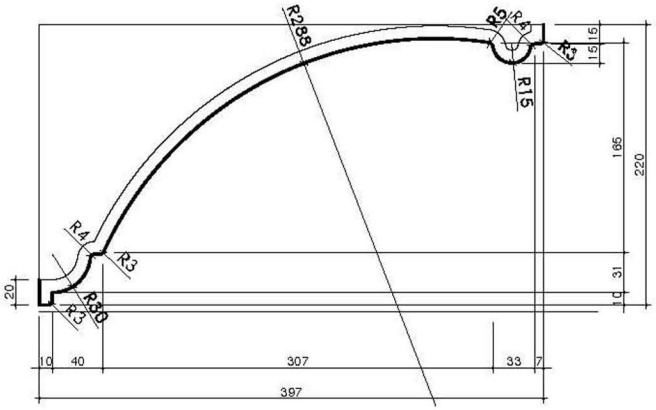
1층 중앙홀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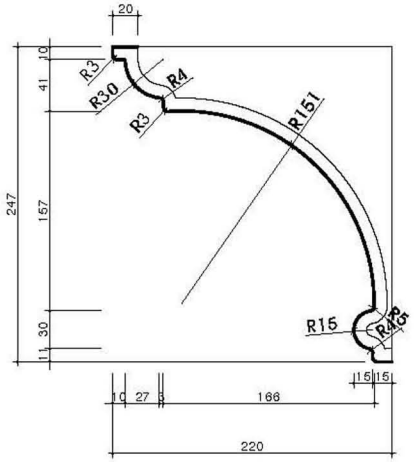
1층 중앙홀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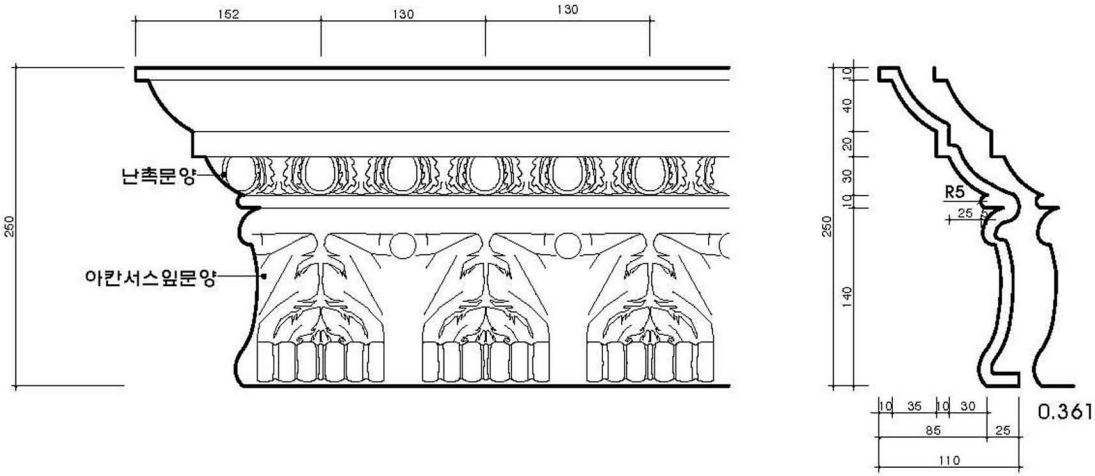
1층 소식당(동,서) 아칸서스잎,덴틸,난촉문양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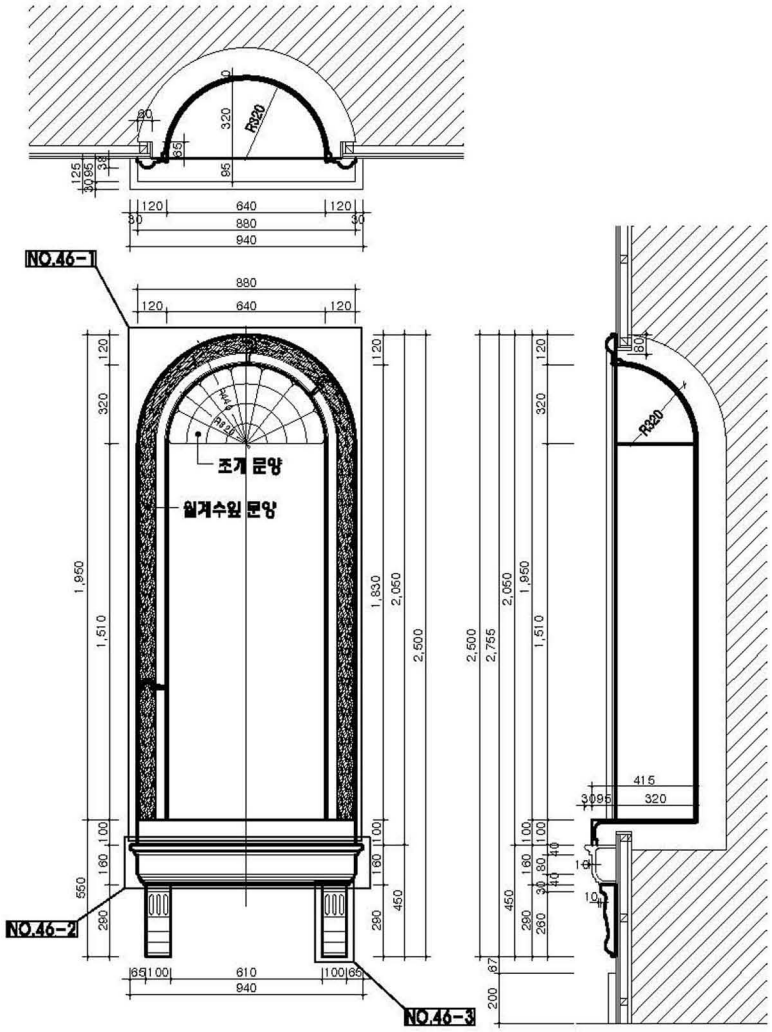
1층 복도 천장, 방풍실 상부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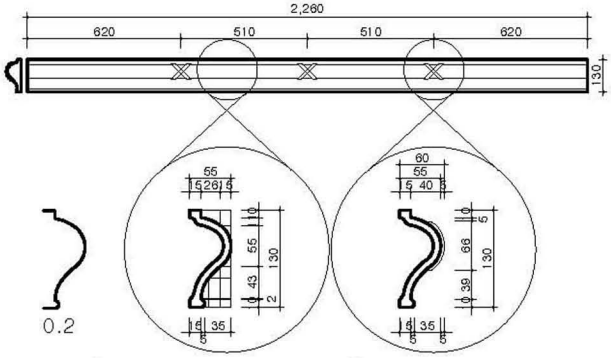
2층 복도 상부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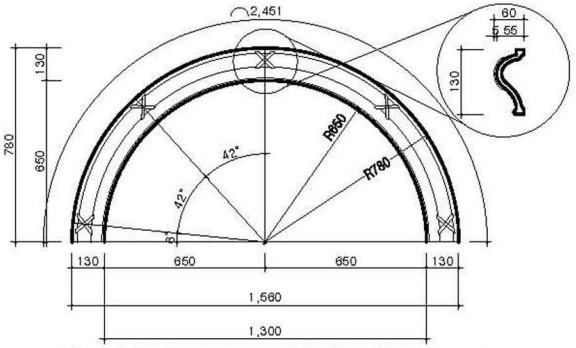
1층 대식당 난촉문양, 아칸서스잎문양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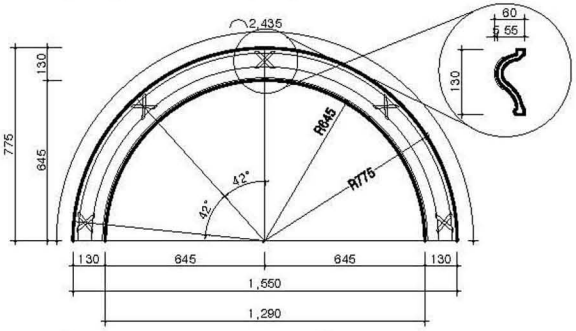
1층 중앙홀 조개, 월계수잎문양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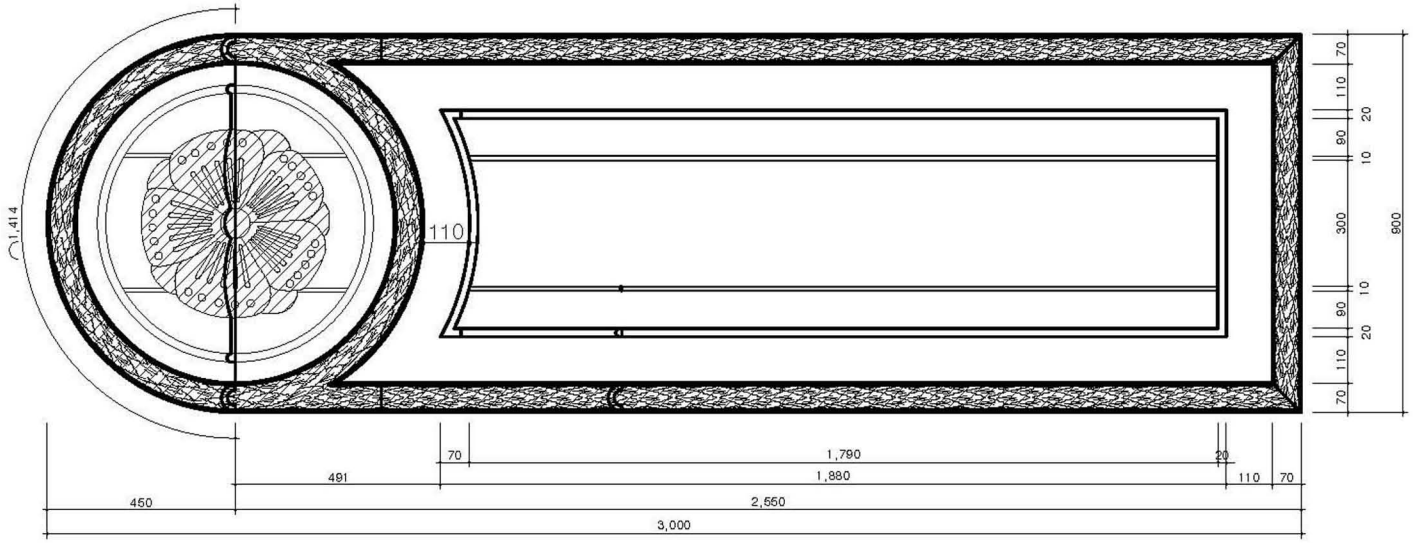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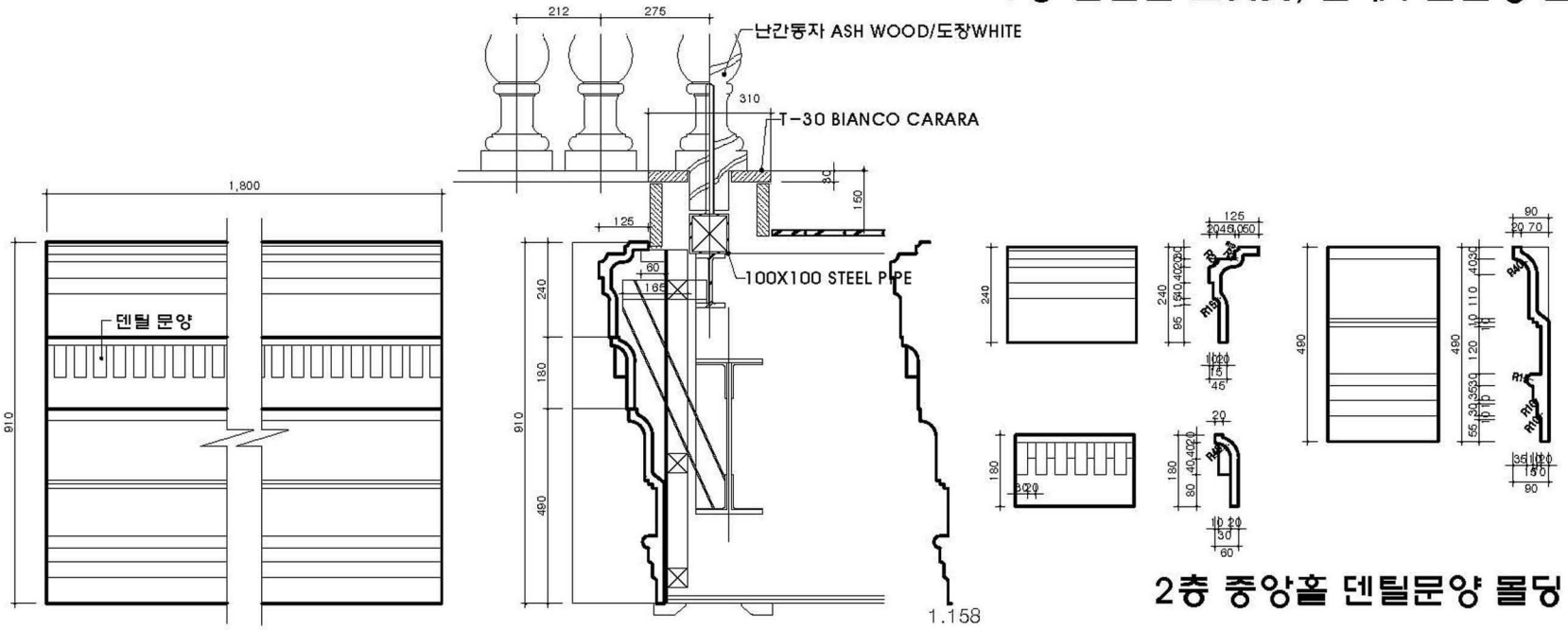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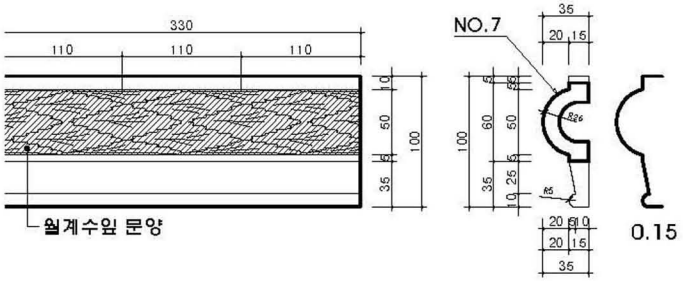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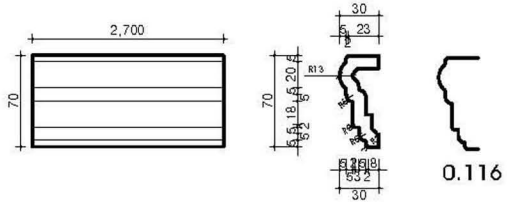
1층 접견실 오얏꽃, 월계수잎문양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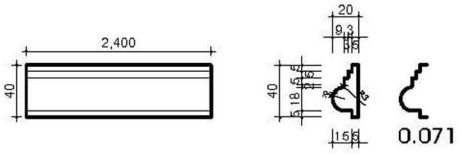
2층 중앙홀 덴틸문양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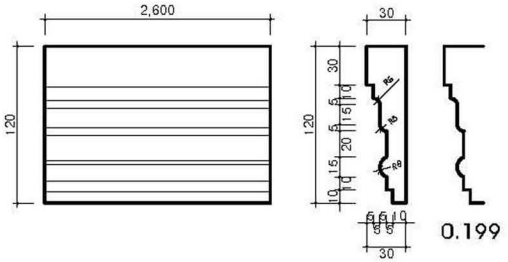
1층 대식당 월계수잎 문양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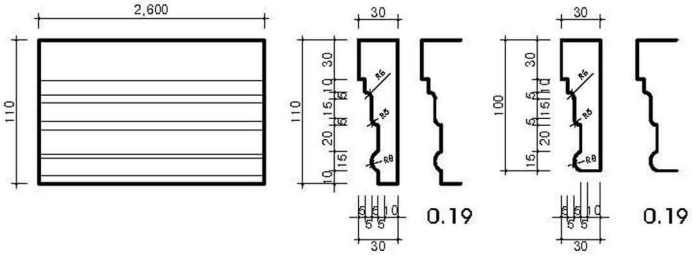
1층 대식당 몰딩
(서북1실 전실,복도, 동북1실 전실,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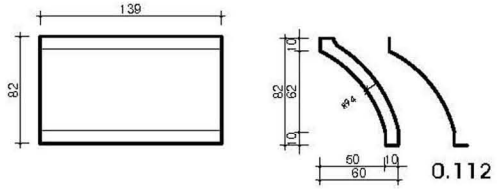
1,2층 서북1실 몰딩
(1,2층 서북1실 전실,복도, 동북1실 전실,복도)
(1,2층 서북2실, 동북1,2실, 2층 시종실1,2,3,4, 응접실)
(2층 황제황후 화장실, 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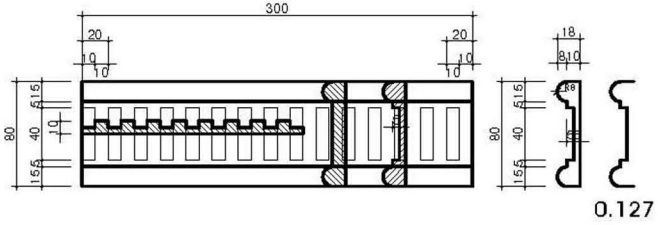
2층 황제황후 침실 몰딩
(1,2층 서북1실 전실,복도, 동북1실 전실,복도)
(1,2층 서북2실, 동북1,2실, 2층 시종실1,2,3,4, 응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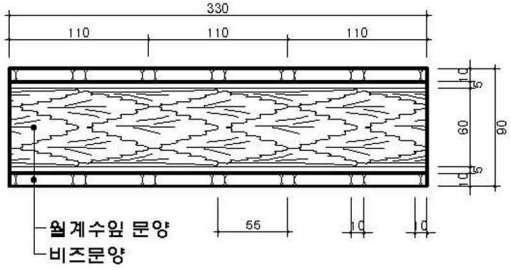
1층 소식당(동,서)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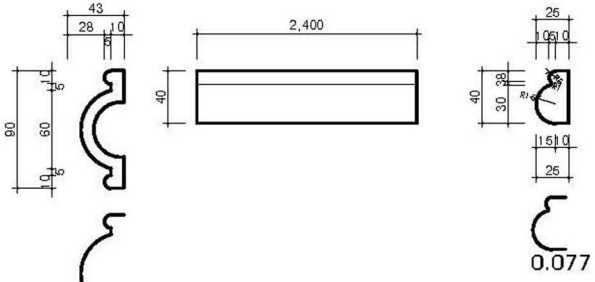
1층 귀빈대기실등 몰딩
(동남1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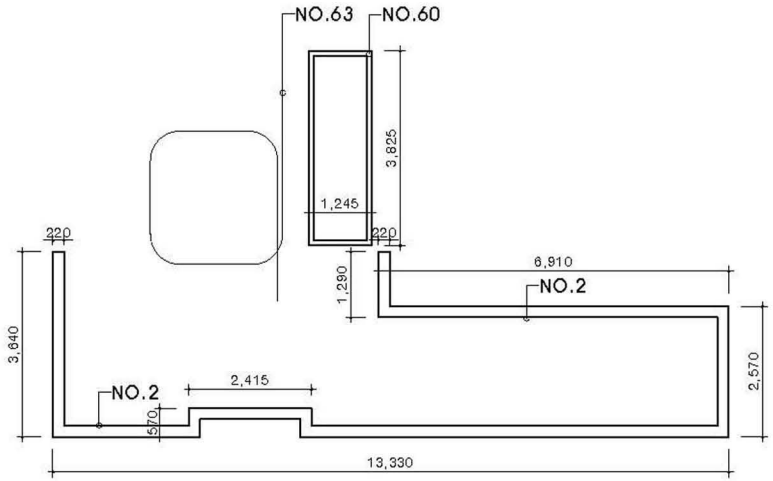
1층 귀빈대기실등 몰딩
(동남1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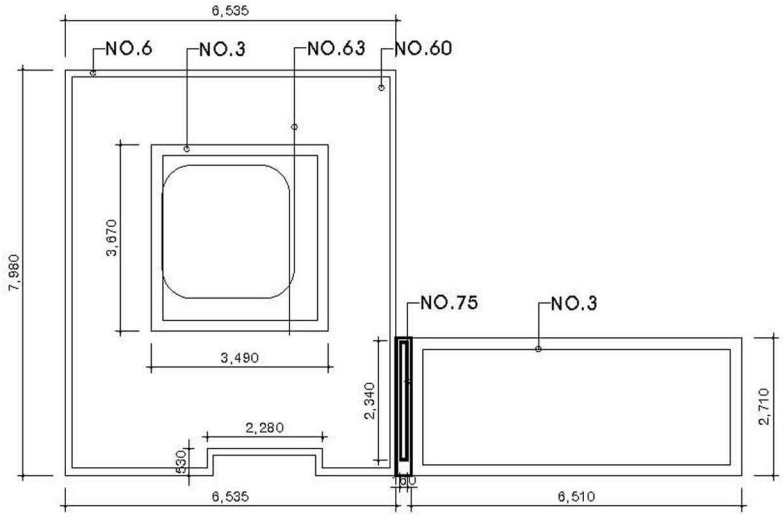
2층 중앙홀 월계수잎, 비즈문양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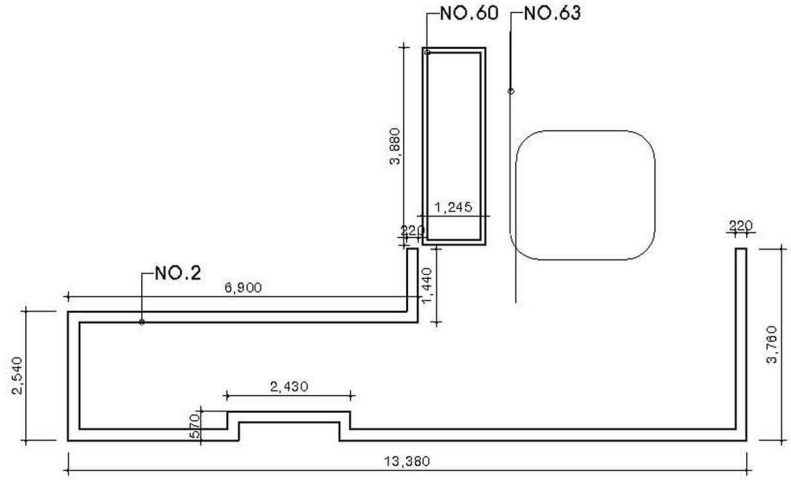
1층 귀빈대기실등 몰딩
(동남1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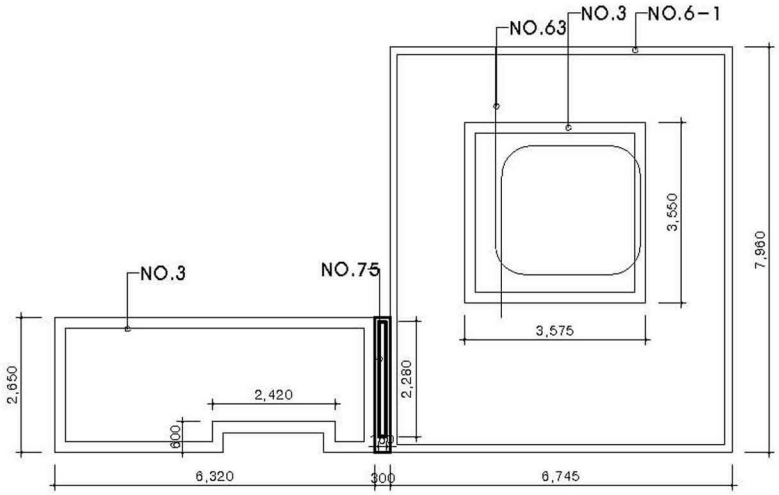
서쪽복도 1층 몰딩 천장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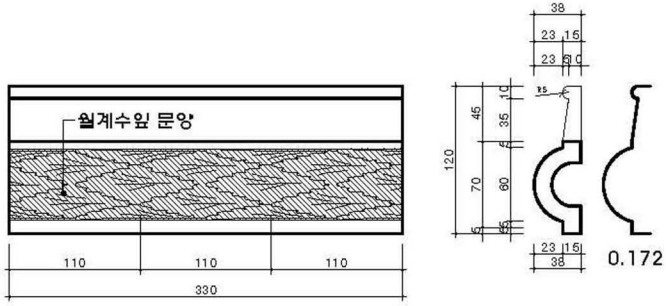
서쪽복도 2층 몰딩 천장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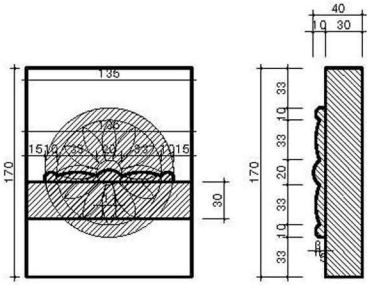
동쪽복도 1층 몰딩 천장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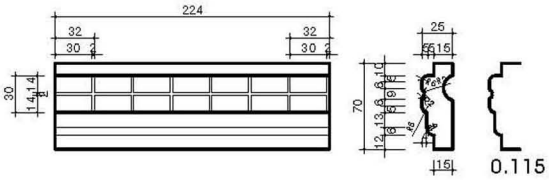
동쪽복도 2층 몰딩 천장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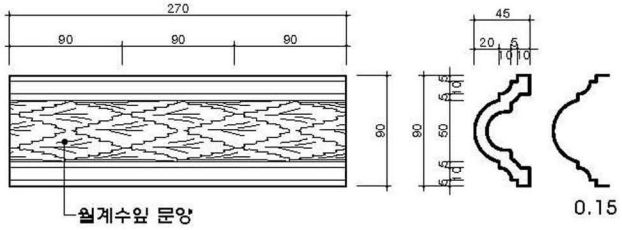
1층 접견실등 월계수잎 문양 몰딩
(동북1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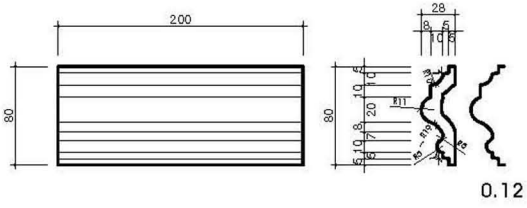
1층 동남1실등 아담스클래식문양 몰딩
(귀빈대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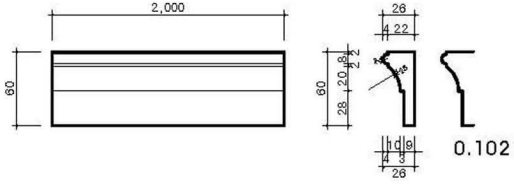
1층 동남1실등 몰딩
(귀빈대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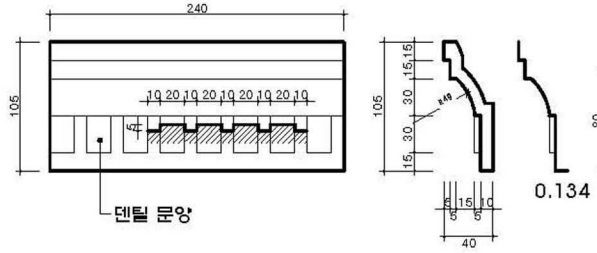
2층 중앙홀 월계수잎 문양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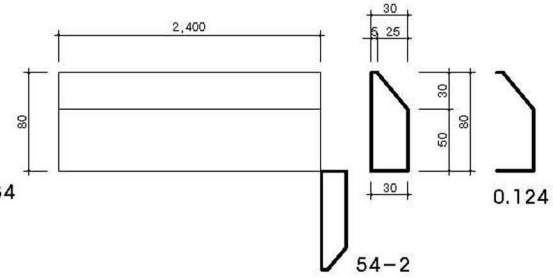
2층 중앙홀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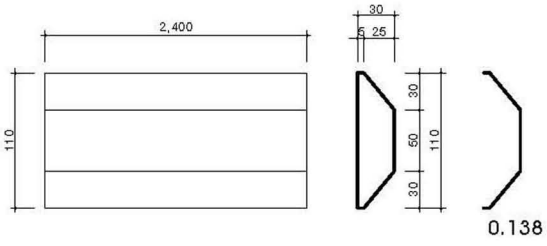
2층 황후황제침실등 몰딩
(황후거실, 황제서재, 황제서재 전실,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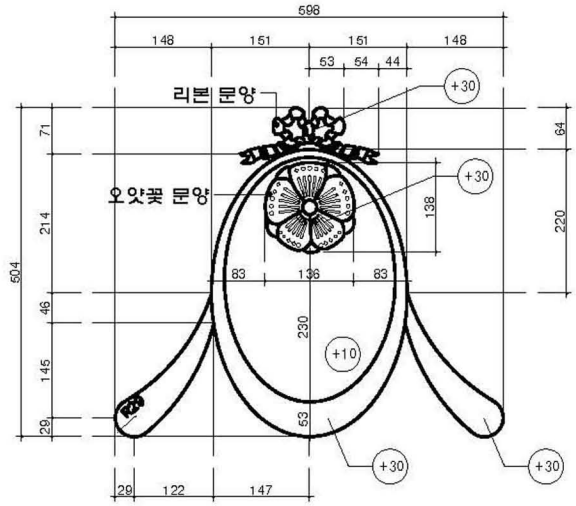
2층 중앙홀 덴틸문양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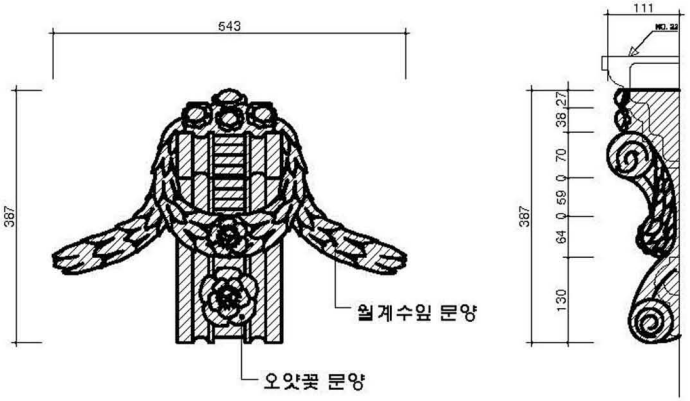
2층 중앙홀 몰딩
(1층 접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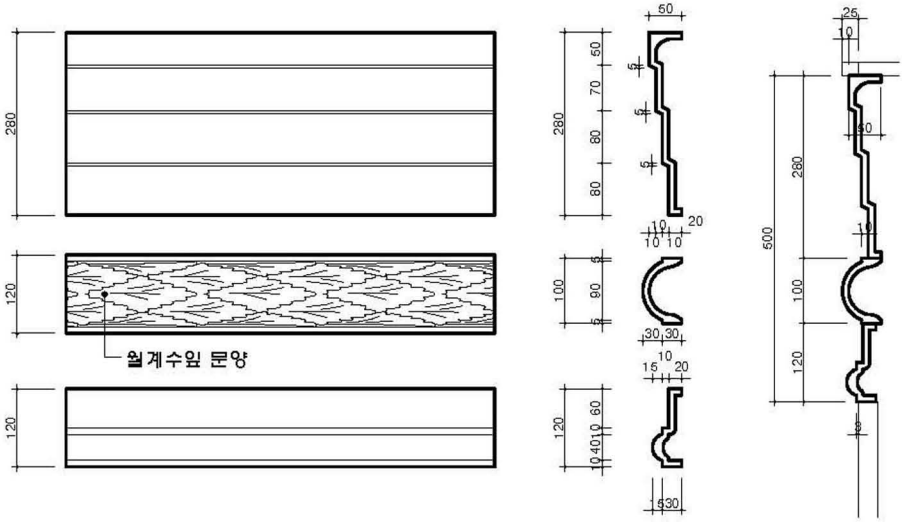
2층 중앙홀 몰딩
(1층 중앙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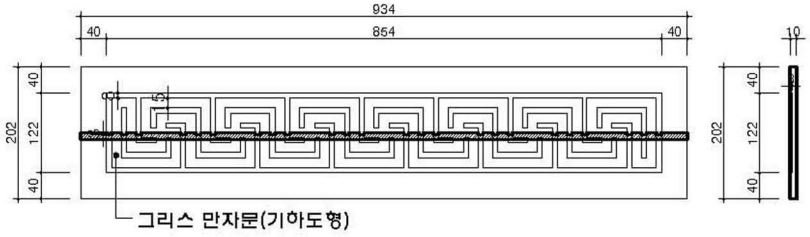
2층 황제 서재 몰딩
(2층 황후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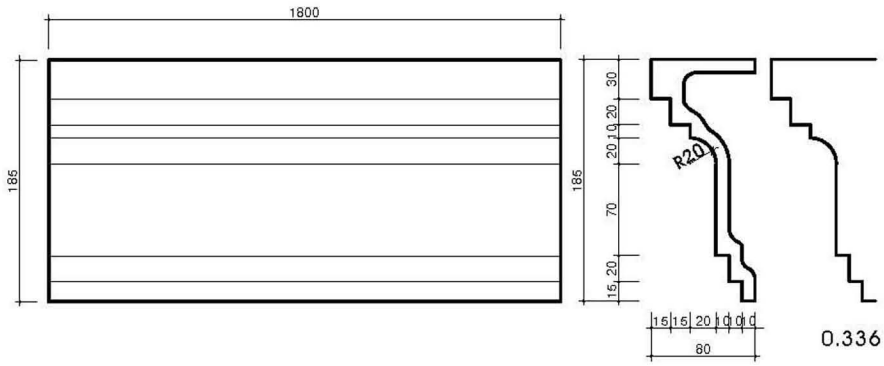
1층 접견실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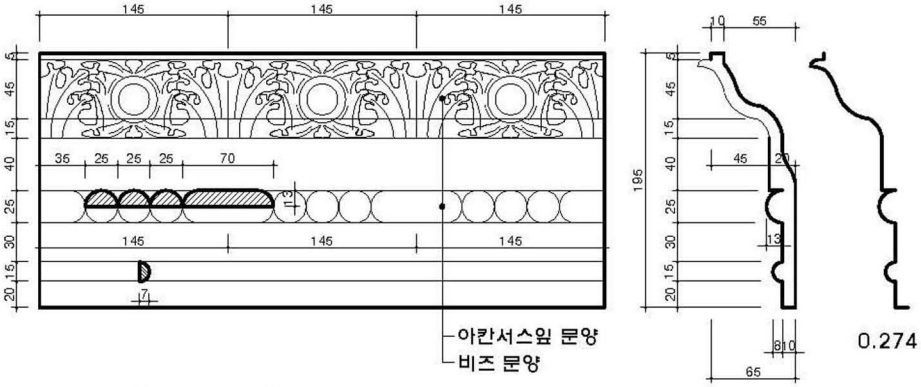
1층 계단 월계수잎문양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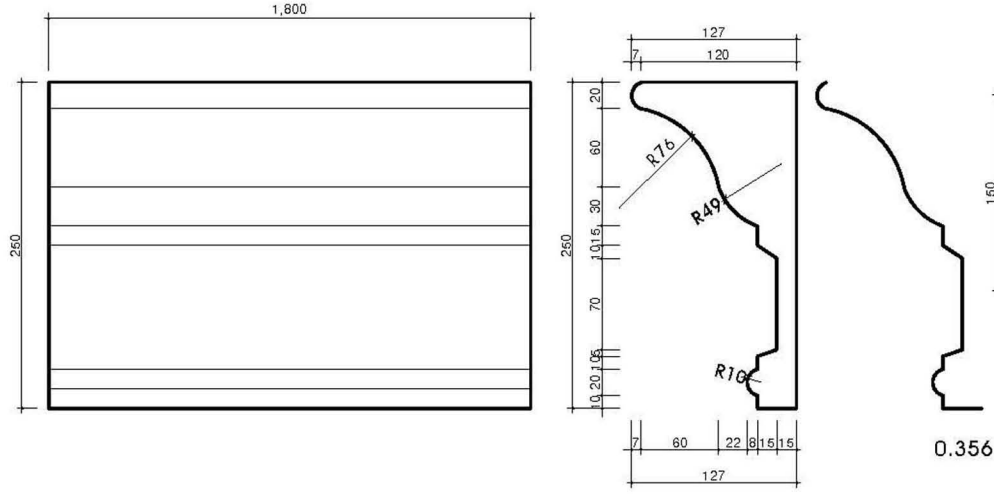
2층 중앙홀 그리스 만자문(기하도형)문양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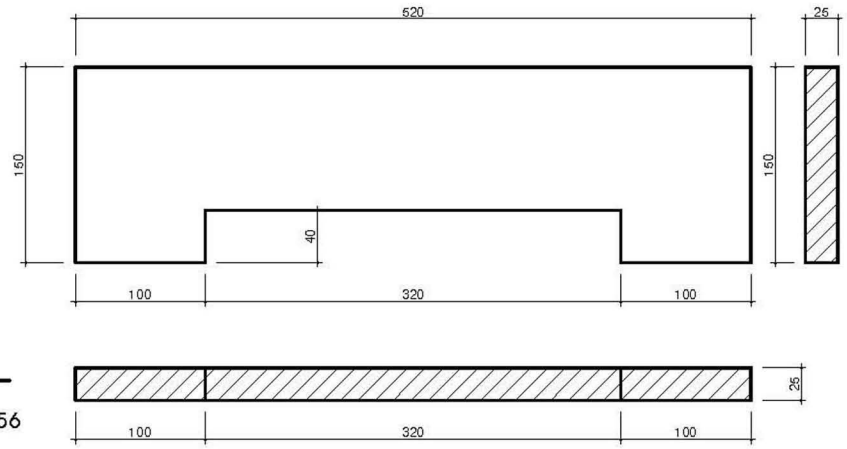
2층 황제거실 복도 몰딩
(황제욕실,화장실,황후욕실,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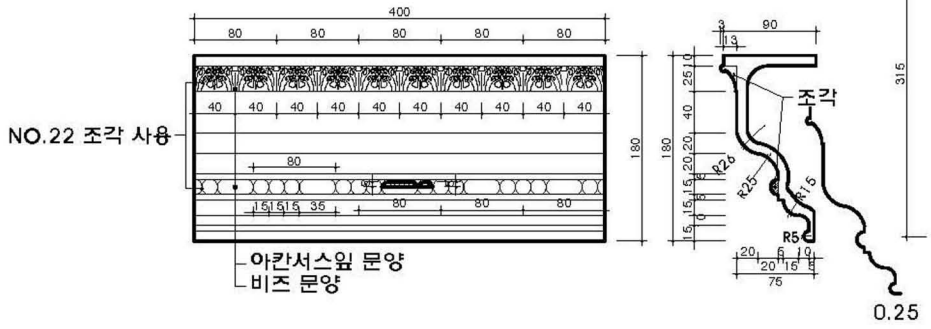
2층 중앙홀 아칸서스잎, 비즈문양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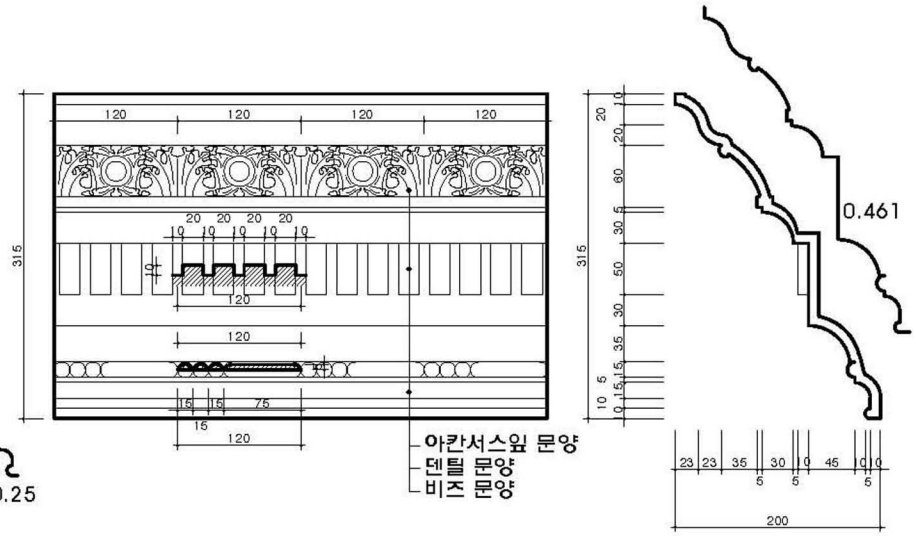
2층 황제황후 침실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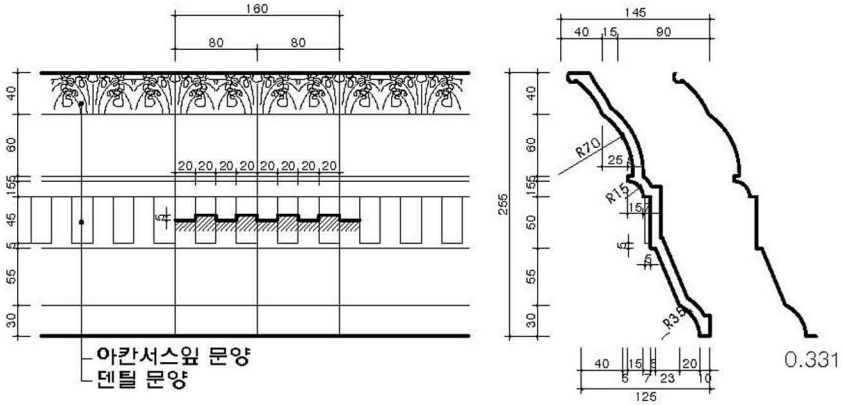
2층 황제서재,황후침실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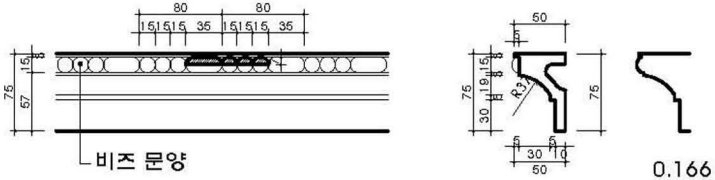
2층 중앙홀 아칸서스잎, 비즈문양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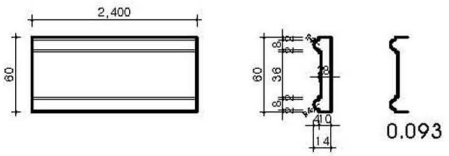
2층 중앙홀 아칸서스잎, 덴틸, 비즈문양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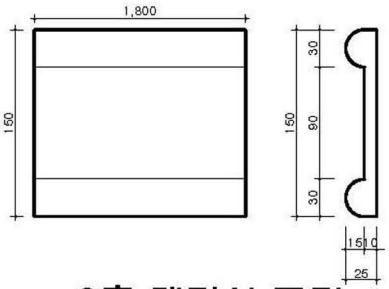
2층 황제거실 아칸서스잎, 덴틸문양 몰딩
(황후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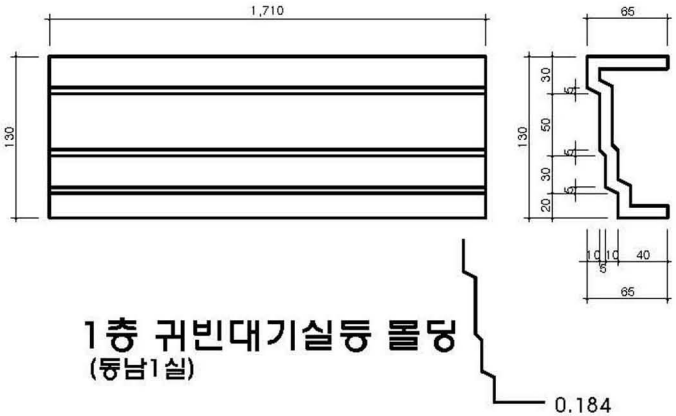
2층 황제거실 비즈문양 몰딩
(황후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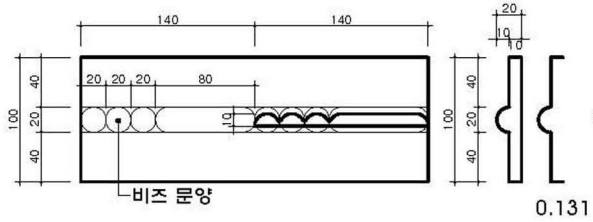
2층 황후황제침실등 몰딩
(황후거실, 황제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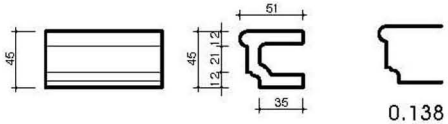
2층 계단실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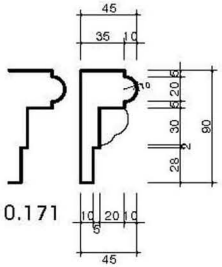
1층 귀빈대기실등 몰딩
(동남1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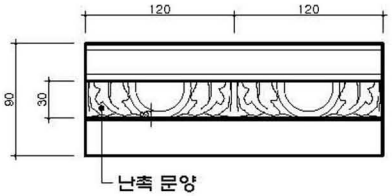


2층 황후황제침실 복도 비즈문양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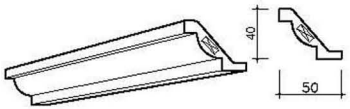


2층 중앙홀 몰딩
(1층 중앙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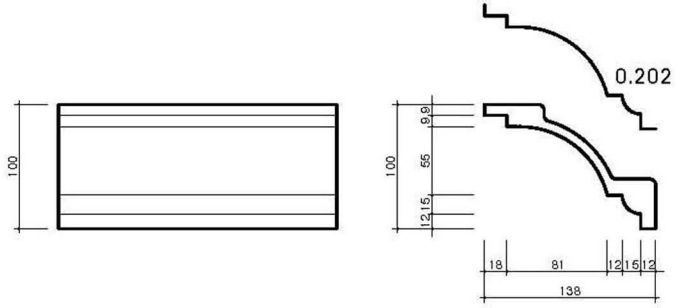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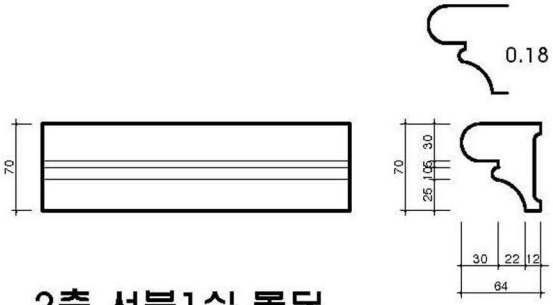
2층 황후거실 몰딩
(황제 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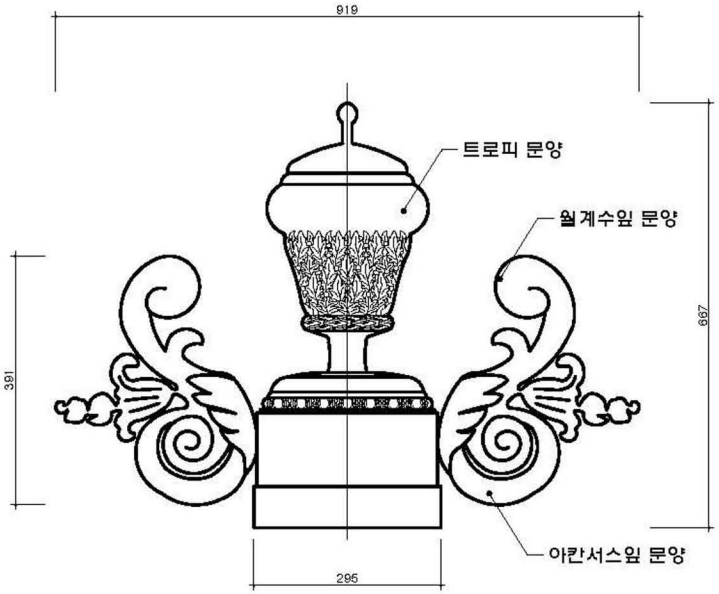
2층 계단실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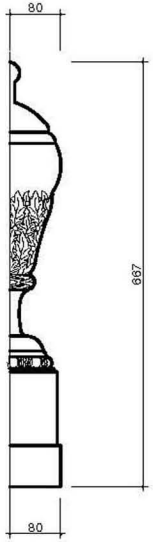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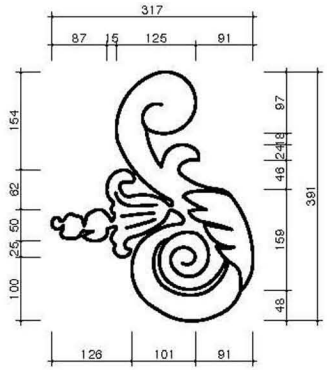
2층 서북1실 몰딩
(2층 서북1실 전실,복도, 동북1실 전실,복도)
(2층 서북2실, 동북1,2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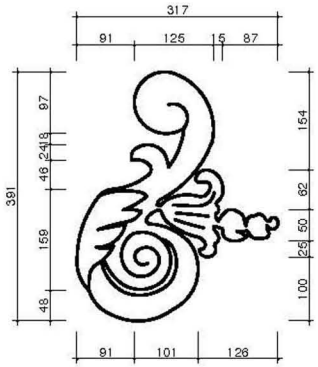


2층 서북1실 몰딩
(2층 서북1실 전실,복도, 동북1실 전실,복도)
(2층 서북2실, 동북1,2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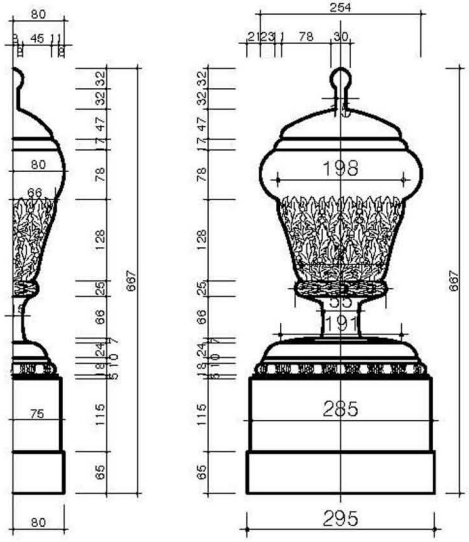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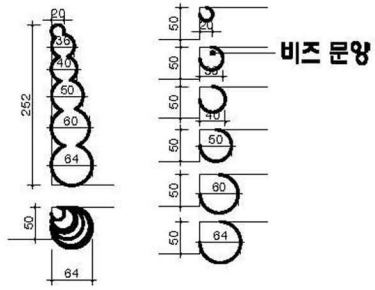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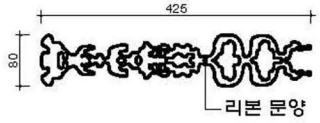


2층 중앙홀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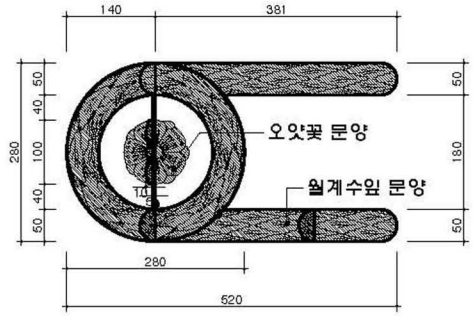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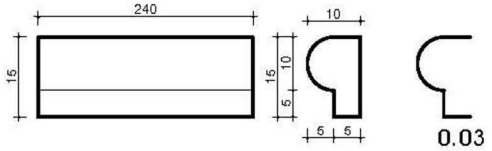
2층 중앙홀 비즈문양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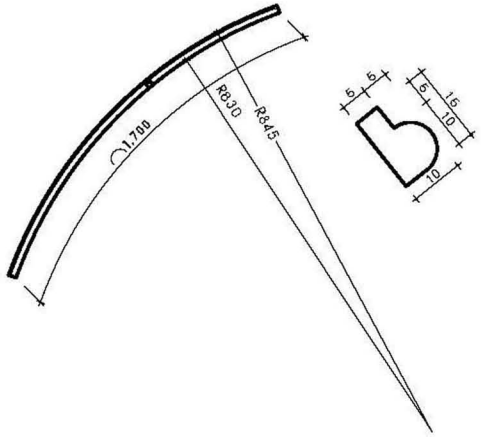
1층 접견실 리본문양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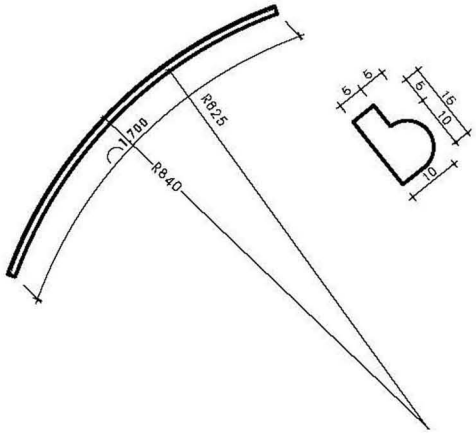
1층 접견실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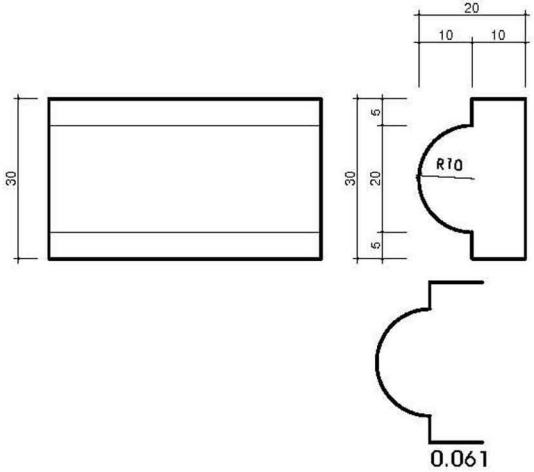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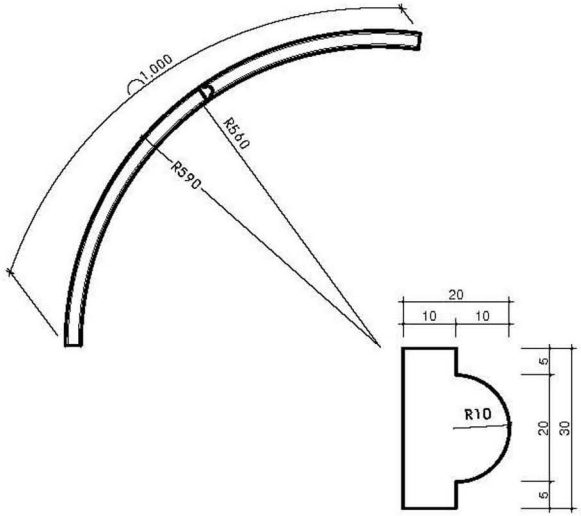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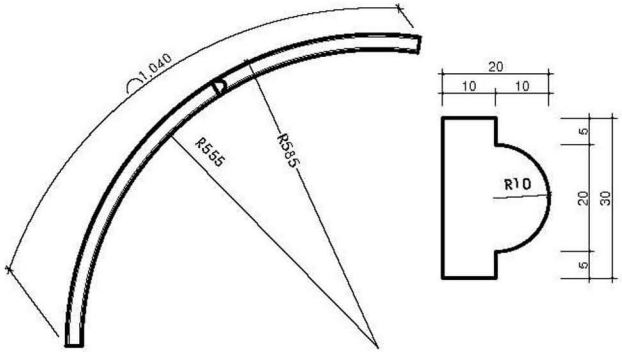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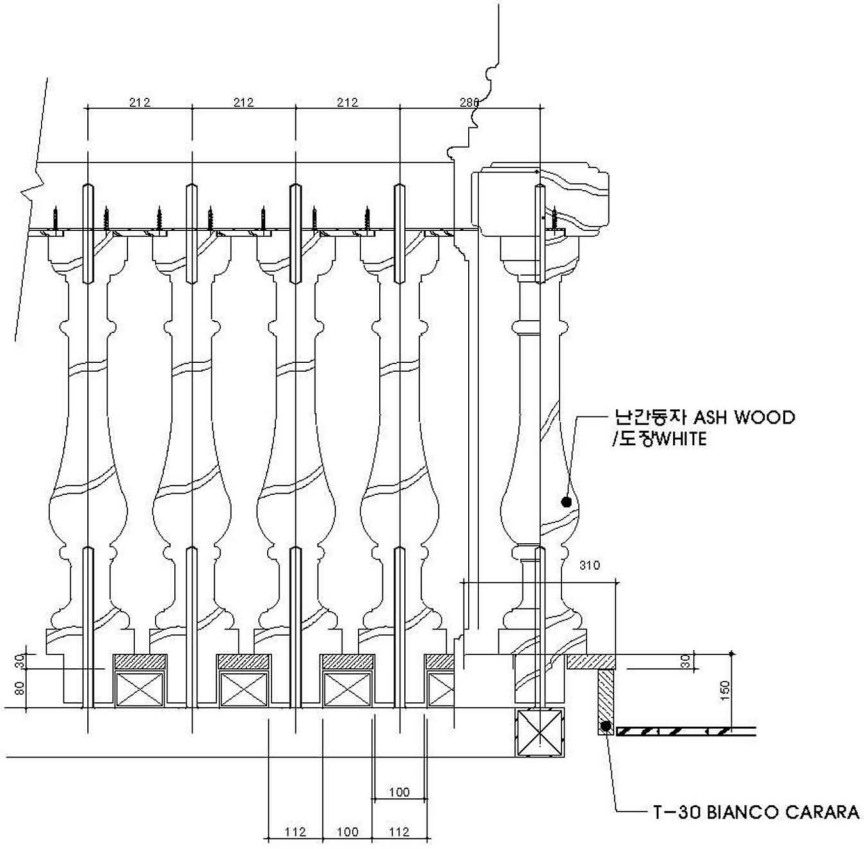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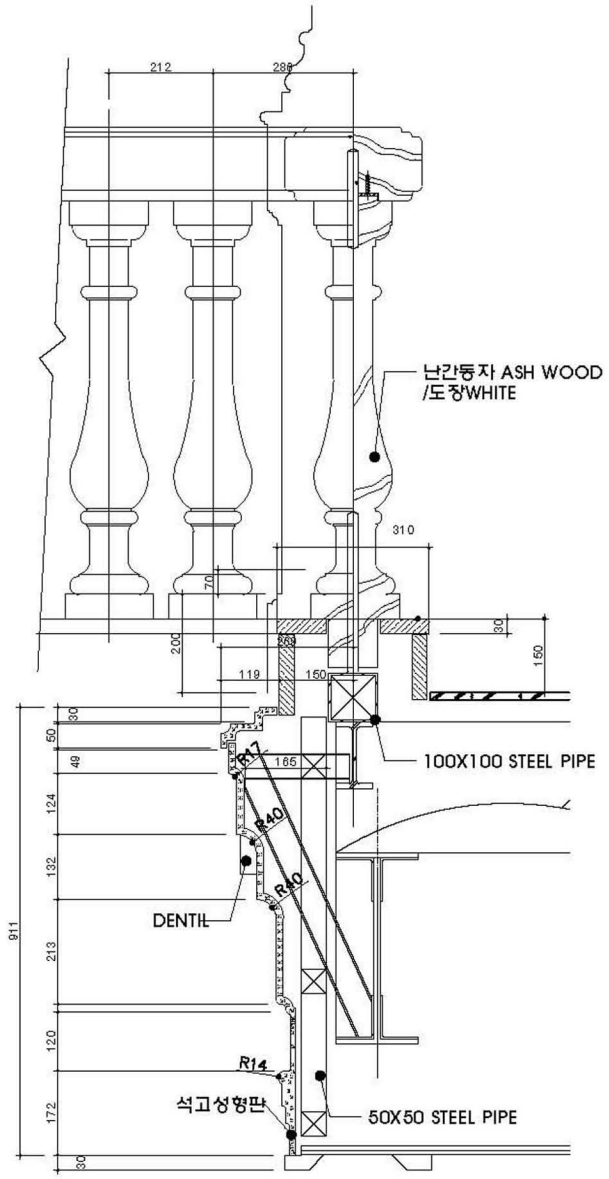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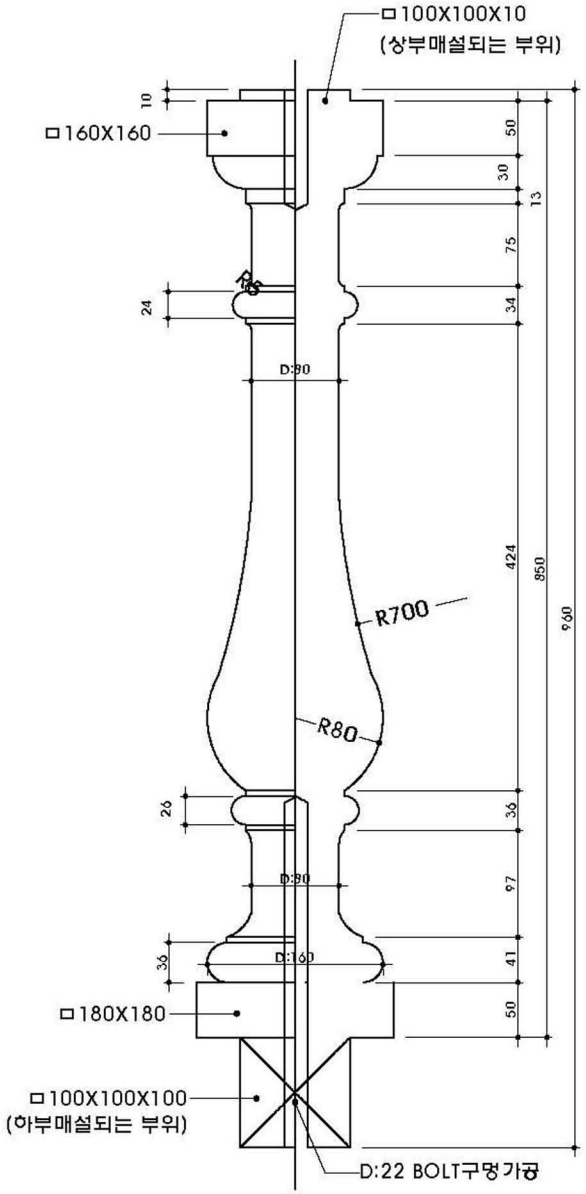
2층 황제서재, 황후거실 몰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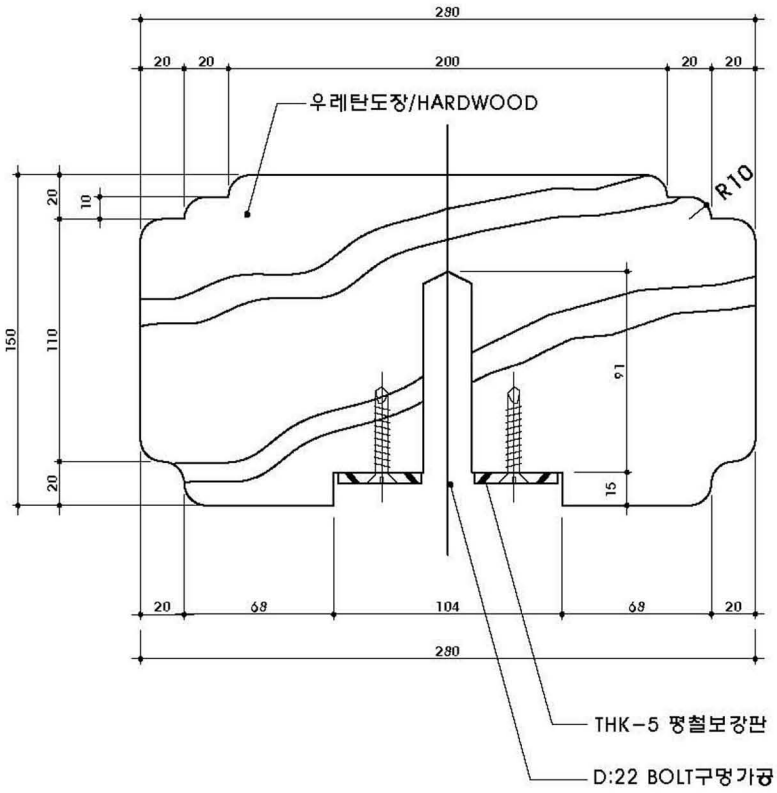
2층 중앙홀 난간 입면상세도



2층 중앙홀 난간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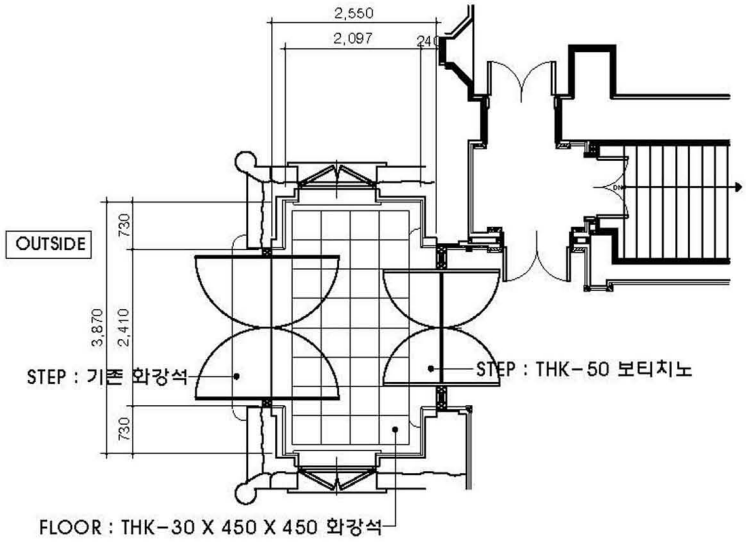
2층 중앙홀 난간 동자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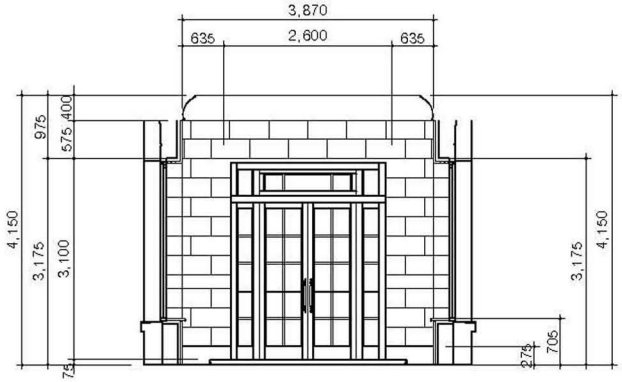
2층 중앙홀 난간 손스침 상세도

덕수궁 석조전 1,2층 서쪽복도 대리석 입면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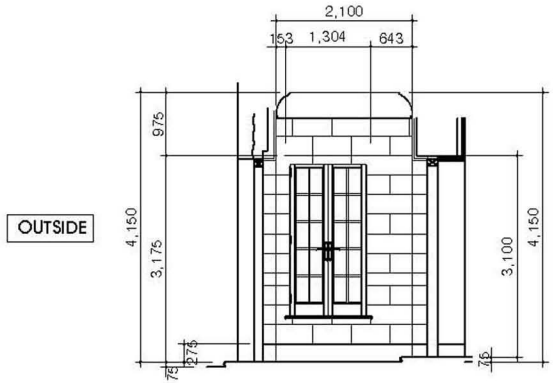
덕수궁 석조전 1,2층 동쪽복도 대리석 입면상세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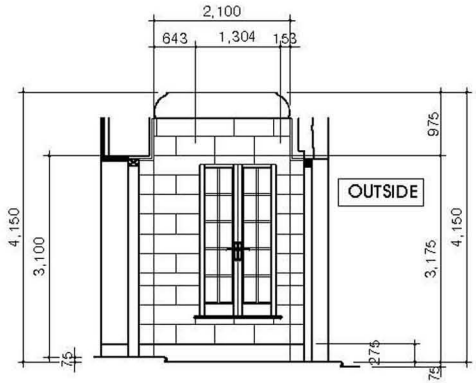
서쪽 방풍실 평면도



동쪽,서쪽 방풍실 입면도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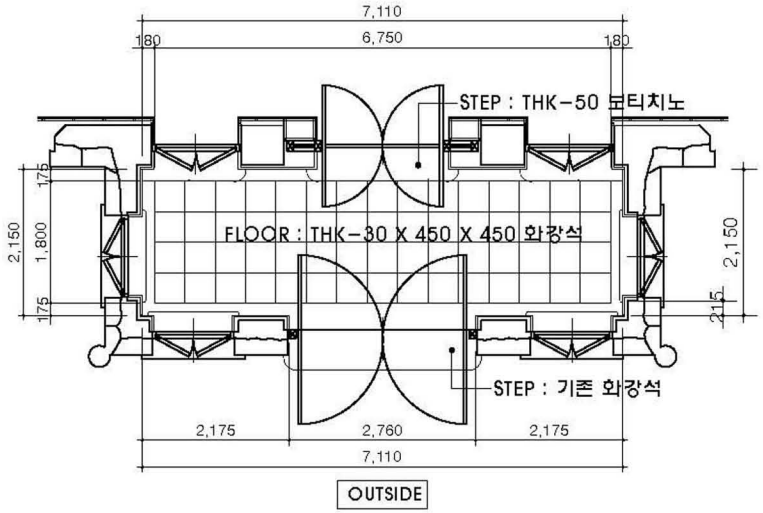


동쪽,서쪽 방풍실 입면도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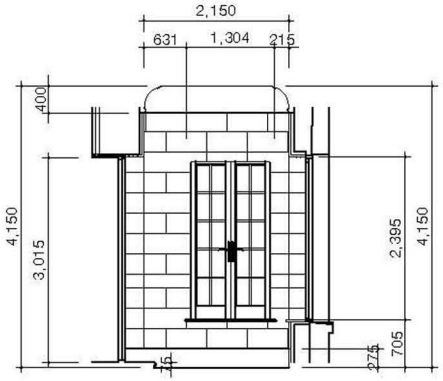
동쪽,서쪽 방풍실 입면도C

동쪽,서쪽 방풍실 입면도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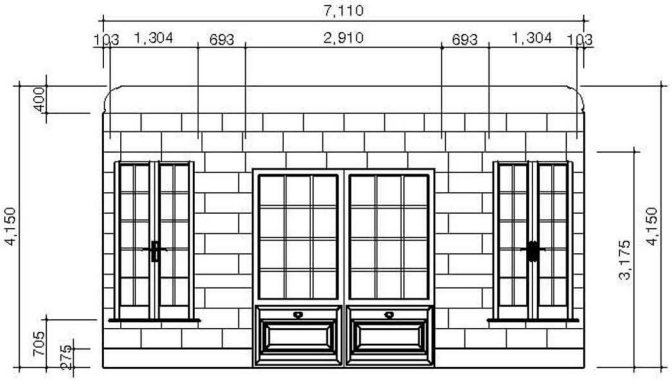


주 출 입 구 평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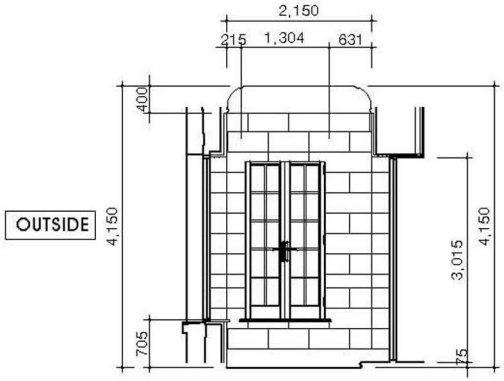
남쪽 방풍실 입면도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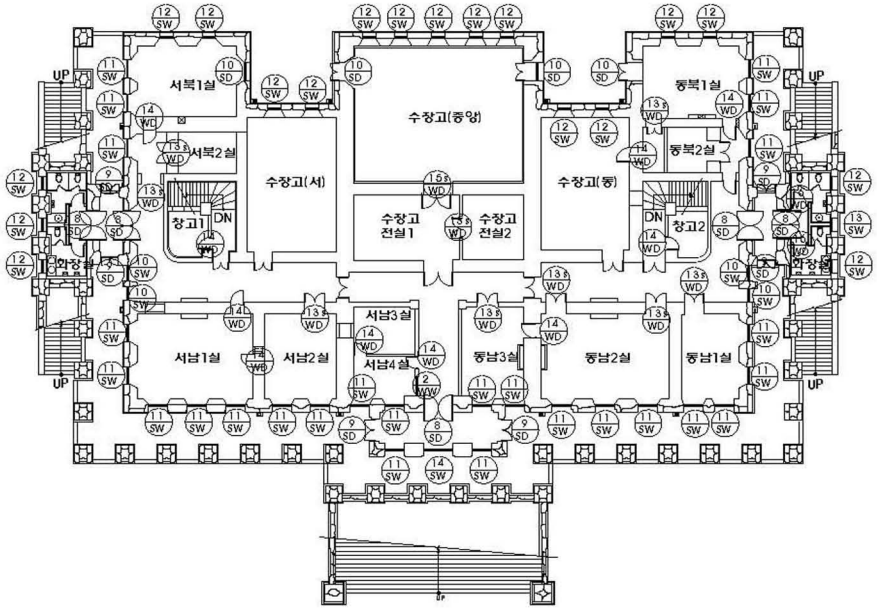
남쪽 방풍실 입면도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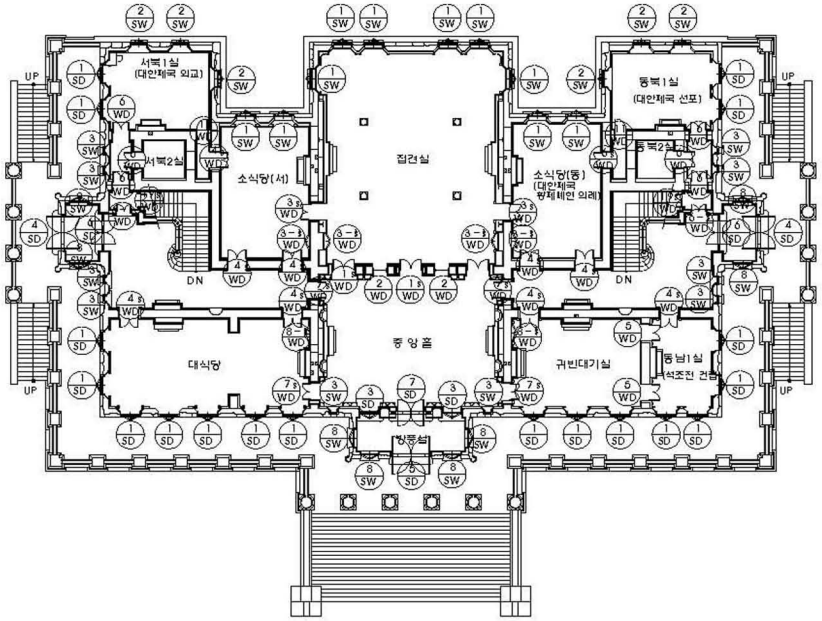
남쪽 방풍실 입면도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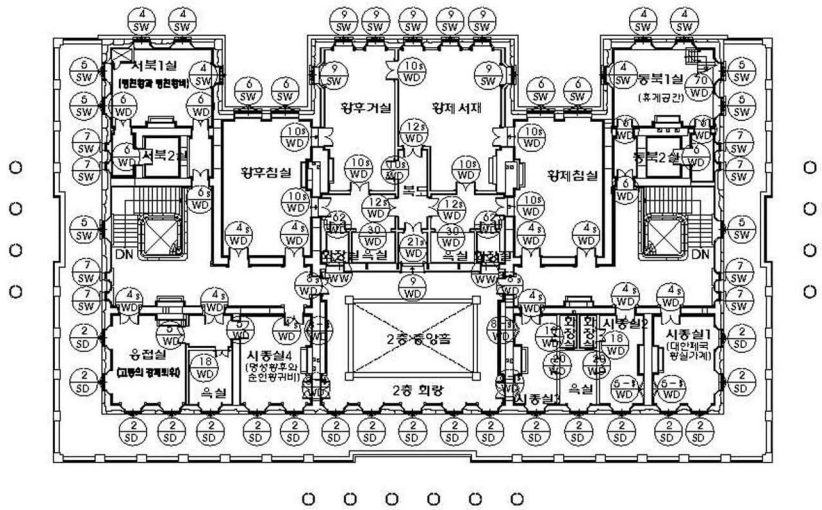
남쪽 방풍실 입면도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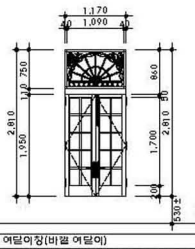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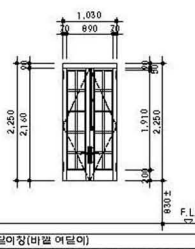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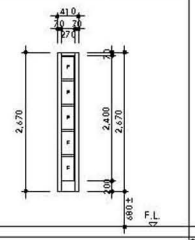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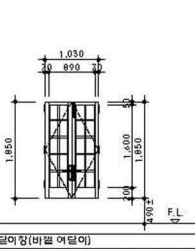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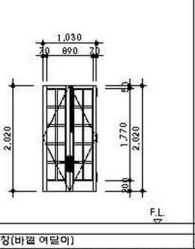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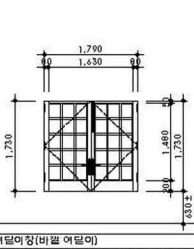
지층 창호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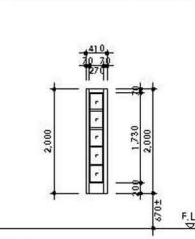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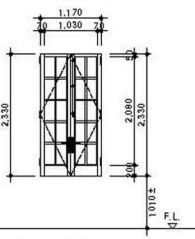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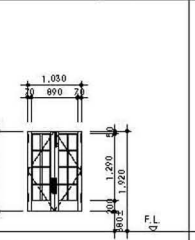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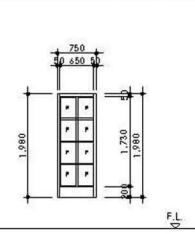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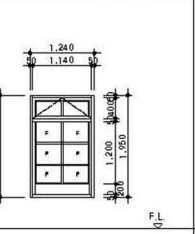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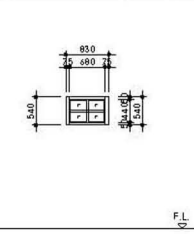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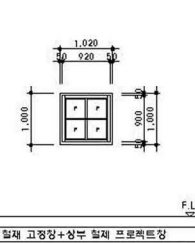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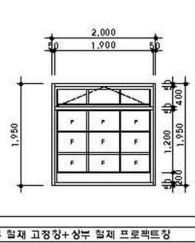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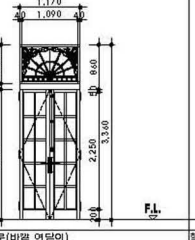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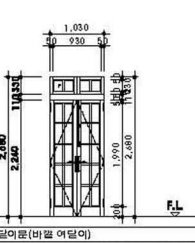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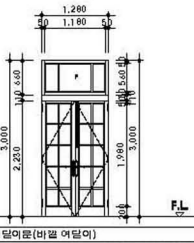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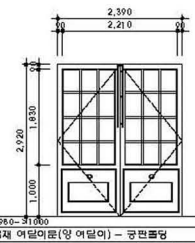
1층 창호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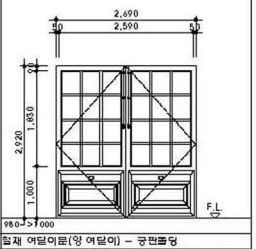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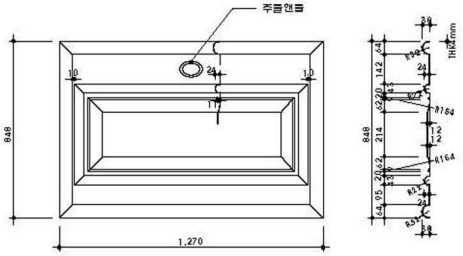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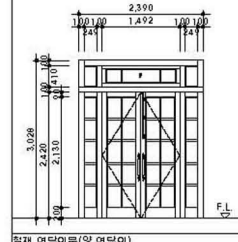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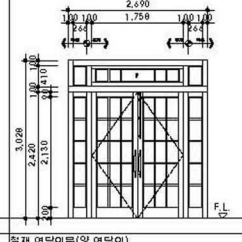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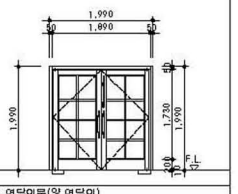
2층 창호평면도

부 호	1 SW	개 소 10	2 SW	개 소 6	3 SW	개 소 10	4 SW	개 소 6	5 SW	개 소 6	6 SW	개 소 4
형 태												
명 칭	철재 여닫이창(바깥 여닫이)		철재 여닫이창(바깥 여닫이)		철재 고정창		철재 여닫이창(바깥 여닫이)		철재 여닫이창(바깥 여닫이)		철재 여닫이창(바깥 여닫이)	
재 료	철재문틀 50X150, 철재문선 50X30, 문살 30X10		철재문틀 50X150, 철재문선 50X30, 문살 30X10		철재문틀 60X150, 철재문선 70X30, 문살 30X10		철재문틀 60X150, 철재문선 50X30, 문살 30X10		철재문틀 60X150, 철재문선 50X30, 문살 30X10		철재문틀 60X150, 철재문선 50X30, 문살 30X10	
철 물	경첩, 손잡이, 잠금이쇠, 기타부속철물일체 SLIDING BOLT(600mm)		경첩, 손잡이, 잠금이쇠, 기타부속철물일체 SLIDING BOLT(1200mm)		부속철물일체		경첩, 손잡이, 잠금이쇠, 기타부속철물일체 SLIDING BOLT(300mm)		경첩, 손잡이, 잠금이쇠, 기타부속철물일체 SLIDING BOLT(900mm)		경첩, 손잡이, 잠금이쇠, 기타부속철물일체 SLIDING BOLT(600mm)	
미감/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위 치	1F-접견실,소식당(동,서)		1F-서북1실, 동북1실		1F-서북 전실1,중북전실1, 서북1실 북도,중북1실 북도,중앙홀		2F-서북1실, 동북1실		2F-서북 전실1,중북전실1, 서북1실 북도,중북1실 북도		2F-현제침실,왕후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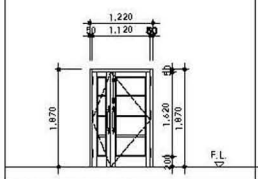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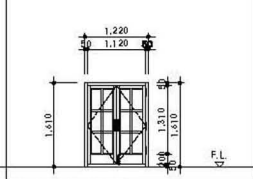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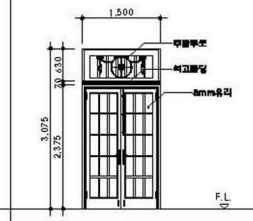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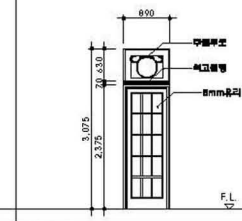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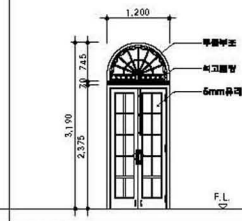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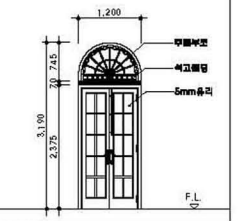
부 호	7 SW	개 소 8	8 SW	개 소 8	9 SW	개 소 7	10 SW	개 소 4	11 SW	개 소 26	12 SW	개 소 18
형 태												
명 칭	철재 고정창		철재 여닫이창(바깥 여닫이)		철재 여닫이창(바깥 여닫이)		철재 고정창		하부 철재 고정창+상부 철제 프로젝트창		철재 고정창	
재 료	철재문틀 50X100, 철재문선 70X30, 문살 30X10		철재문틀 50X100, 철재문선 50X30, 문살 30X10		철재문틀 50X100, 철재문선 50X30, 문살 30X10		철재문틀 50X100, 문살 30X10		철재문틀 50X100, 철재문선 50X30, 문살 30X10		철재문틀 50X100, 문살 30X10	
철 물	부속철물일체		경첩, 손잡이, 잠금이쇠, 기타부속철물일체 SLIDING BOLT(1200mm)		경첩, 손잡이, 잠금이쇠, 기타부속철물일체 SLIDING BOLT(300mm)		부속철물일체		경첩, 손잡이, 잠금이쇠, 기타부속철물일체		부속철물일체	
미감/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위 치	2F-서북2실 전실,동북2실 전실 서북1실 북도,동북1실 북도		1F-방중실(동쪽, 서쪽, 남쪽)		2F-왕제거실,왕후거실		지층-서쪽복도, 동쪽복도		지층-동남1, 2,3실, 서남1, 2, 3, 4실, 방중실(남쪽) 서북1실,동북1실,서북1실 전실, 동북1실 전실		지층-화장실(동쪽,서쪽),수장고(중앙,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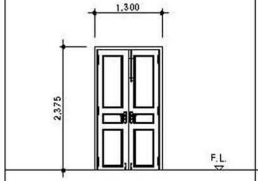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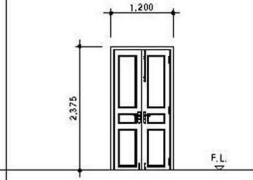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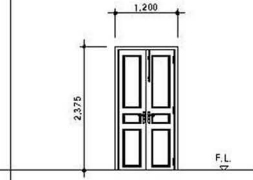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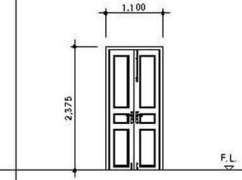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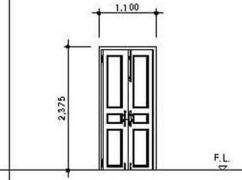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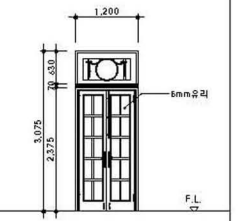
부 호	13 SW	개 소 1	14 SW	개 소 1	1 SD	개 소 18	2 SD	개 소 19	3 SD	개 소 2	4 SD	개 소 2
형 태												
명 칭	하부 철제 고정창+상부 철제 프로젝트창		하부 철제 고정창+상부 철제 프로젝트창		철재 여닫이문(바깥 여닫이)		철재 여닫이문(바깥 여닫이)		철재 여닫이문(바깥 여닫이)		철재 여닫이문(양 여닫이) - 규판돌당	
재 료	철재문틀 50X100, 철재문선 50X30, 문살 30X10		철재문틀 50X100, 철재문선 50X30, 문살 30X10		철재문틀 50X150, 철재문선 50X30, 문살 30X10		철재문틀 50X150, 철재문선 50X30, 문살 30X10		철재문틀 50X150, 철재문선 50X30, 문살 30X10		철재문틀 100X150, 철재문선 90X70(중방이력), 문살 40X30	
철 물	경첩, 손잡이, 잠금이쇠, 기타부속철물일체		경첩, 손잡이, 잠금이쇠, 기타부속철물일체		경첩, 손잡이, 잠금이쇠, 기타부속철물일체, SLIDING BOLT(1200mm)		경첩, 손잡이, 잠금이쇠, 기타부속철물일체 SLIDING BOLT(900mm)		경첩, 손잡이, 잠금이쇠, 기타부속철물일체 SLIDING BOLT(900mm)		인지, 손잡이, 잠금이쇠, 기타부속철물일체 SLIDING BOLT(1200mm-개소당 2개)	
미감/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위 치	지층-화장실		지층-방중실 (남쪽)		1F-동북1실,서북1실,대식당,귀빈대기실,동남1실		2F-중앙홀,응접실,옥실(동쪽,서쪽),시중실 1,2,3,4		1F-방중실(남쪽)		1F-방중실(동쪽,서쪽)	

덕수궁 석조전 창 호 일 람 표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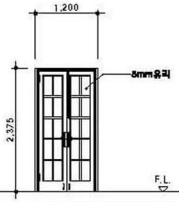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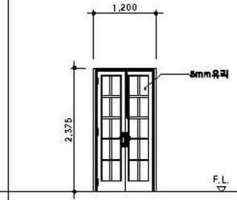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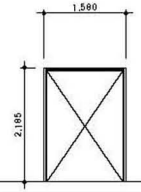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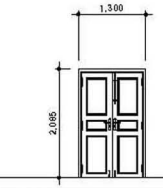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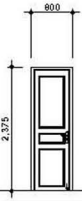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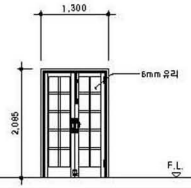
부 호	5 SD	개 소 1		6 SD	개 소 2	7 SD	개 소 1	8 SD	개 소 5
형 태									
명 칭	철재 여닫이문(양 여닫이) — 궁판플덩			철재 여닫이문(양 여닫이)		철재 여닫이문(양 여닫이)		철재 여닫이문(양 여닫이)	
재 료	철재문틀 100X150, 철재문선 90X70(플대격자), 문살 40X30			철재문틀 60X150, 철재문선 90X30, 문살 30X10		철재문틀 60X150, 철재문선 90X30, 문살 30X10		철재문틀 60X100, 철재문선 90X30, 문살 30X10	
철 물	인지, 손잡이, 잠금이쇠, 기타부속철물일체 SLIDING BOLT(1200mm—개소당 2개)			인지, 손잡이, 잠금이쇠, 기타부속철물일체 SLIDING BOLT(900mm)		인지, 손잡이, 잠금이쇠, 기타부속철물일체 SLIDING BOLT(900mm)		인지, 손잡이, 잠금이쇠, 기타부속철물일체 SLIDING BOLT(600mm)	
미감/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위 치	1F—방중실(남쪽)			1F—방중실(동쪽,서쪽)		1F—방중실(남쪽)		지층—방중실,화장실(동쪽,서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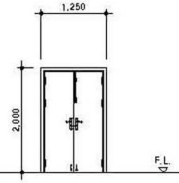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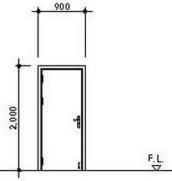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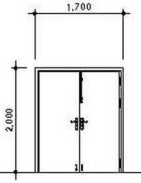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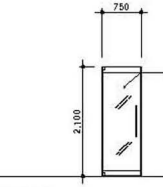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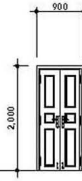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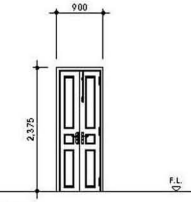
SD5 궁판(주물)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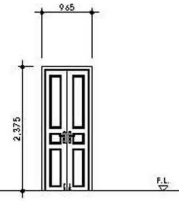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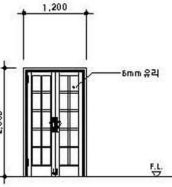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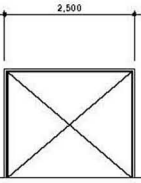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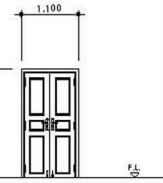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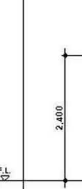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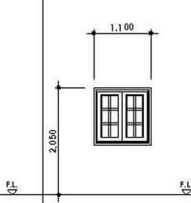
부 호	9 SD	개 소 6	10 SD	개 소 4	1 WD	개 소 3	2 WD	개 소 2	3 WD	개 소 2	3-1 WD	개 소 4
형 태												
명 칭	철재 여닫이문(바깥 여닫이)		철재 여닫이문(바깥 여닫이)		목재 여닫이문(양 여닫이)		목재 고정문		목재 여닫이문		목재 여닫이문	
재 료	철재문틀 60X100, 철재문선 90X30, 문살 30X10		철재문틀 60X100, 철재문선 60X30, 문살 30X10		45mm 오크목재		45mm 오크목재		45mm 오크목재		45mm 오크목재	
철 물	경첩, 손잡이, 잠금이쇠, 기타부속철물일체 SLIDING BOLT(600mm)		경첩, 손잡이, 잠금이쇠, 기타부속철물일체		경첩(SWING), 정식손잡이 PLATE, FLUSH BOLT, DUSTPROOF, DOOR STOP(말굽형), SLIDING BOLT(900mm)				경첩(SWING), 정식손잡이 PLATE, FLUSH BOLT, DUSTPROOF, DOOR STOP(말굽형), SLIDING BOLT(900mm)		경첩(BUTT), 정식손잡이 PLATE, FLUSH BOLT, DUSTPROOF, SLIDING BOLT(900mm)	
미감/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흑색도장 / 12mm복층유리		천연오일스테인미감 / 5mm투명유리		천연오일스테인미감 / 5mm투명유리		천연오일스테인미감 / 5mm투명유리		천연오일스테인미감 / 5mm투명유리	
위 치	지층—방중실		지층—서북1실,동북1실,수장고(중앙)		1F—중앙홀		1F—중앙홀		1F—접견실		1F—접견실, 소식덩(동,서)	

부 호	4 WD	개 소 19	5 WD	개 소 4	5-1 WD	개 소 2	6 WD	개 소 15	6-1 WD	개 소 2	7 WD	개 소 4
형 태												
명 칭	목재 여닫이문		목재 여닫이문		목재 여닫이문		목재 여닫이문		목재 여닫이문		목재 여닫이문(양 여닫이)	
재 료	45mm 오크목재		45mm 오크목재		45mm 오크목재		45mm 오크목재		45mm 오크목재		45mm 오크목재	
철 물	경첩(BUTT), 레버핸들, FLUSH BOLT, DUSTPROOF, DOOR STOP(말굽형), SLIDING BOLT(600mm)		경첩(BUTT), 레버핸들, FLUSH BOLT, DUSTPROOF, DOOR STOP(말굽형), SLIDING BOLT(600mm—2개소)		경첩(BUTT), 레버핸들, FLUSH BOLT, DUSTPROOF, SLIDING BOLT(600mm—2개소)		경첩(BUTT), 레버핸들, FLUSH BOLT, DUSTPROOF, DOOR STOP(말굽형), SLIDING BOLT(600mm—3개소)		경첩(SWING), 정식손잡이 PLATE, FLUSH BOLT, DUSTPROOF, DOOR STOP(말굽형), SLIDING BOLT(600mm—2개소)		경첩(SWING), 정식손잡이 PLATE, FLUSH BOLT, DUSTPROOF, DOOR STOP(말굽형), SLIDING BOLT(900mm)	
미감/유리	천연오일스테인미감		천연오일스테인미감		천연오일스테인미감		천연오일스테인미감		천연오일스테인미감		천연오일스테인미감 / 5mm투명유리	
위 치	1F—대식당, 소식덩(동,서), 귀빈대기실, 동남1실 2F—왕후침실,장재침실,응접실,옥실전실,시종실1,2,3,4		1F—대기실 2F—응접실,시종실4		2F—시종실1,2		1F—서북1실,동북1실,동북1실(접견실,서북전실,동북2실,서북2실,동북전실,동북전실전실) 2F—서북1실,동북1실,동북1실(접견실,서북전실,동북2실,서북2실,동북전실,동북전실전실)		1F—계단실전실(동쪽,서쪽)		1F—중앙홀	

덕수궁 석조전 창 호 일 람 표 — 2

부호	8 WD	개소 2	8-1 WD	개소 6	9 WD	개소 1	10 WD	개소 8	11 WD	개소 2	12 WD	개소 3
형태												
명칭	목재 여닫이문(앙 여닫이)		목재 여닫이문		목재 개방문		목재 여닫이문		목재 여닫이문		목재 여닫이문(앙 여닫이)	
재료	45mm 오크목재		45mm 오크목재		45mm 오크목재		45mm 오크목재		45mm 오크목재		45mm 오크목재	
철물	경첩(SWING), 정식손잡이 PLATE, FLUSH BOLT, DUSTPROOF, DOOR STOP(말굽형), SLIDING BOLT(600mm)		경첩(BUTT), 정식손잡이 PLATE, FLUSH BOLT, DUSTPROOF, DOOR STOP(말굽형), SLIDING BOLT(900mm)				경첩(BUTT), 레버핸들, FLUSH BOLT, DUSTPROOF, DOOR STOP(말굽형), SLIDING BOLT(600mm)		경첩(BUTT), 레버핸들, DOOR STOP(말굽형)		경첩(SWING), 정식손잡이 PLATE, FLUSH BOLT, **DUSTPROOF, DOOR STOP(말굽형), SLIDING BOLT(600mm)**	
미감/유리	천연오일스테인마감 / 5mm투명유리		천연오일스테인마감 / 5mm투명유리				천연오일스테인마감		천연오일스테인마감		천연오일스테인마감 / 5mm투명유리	
위치	2F-중앙홀		1F-대식당,귀빈대기실 2F-시종실 3,4		2F-중앙홀		**2F-황제거실, 황제거실 전실, 황후거실, 황후거실 전실**		1F-서북1실, 동북1실		2F-황제거실 전실, 황후거실 전실, 동복도 전실	

부호	13 WD	개소 8	14 WD	개소 10	15 WD	개소 1	16 WD	개소 2	18 WD	개소 3	19 WD	개소 2
형태												
명칭	목재 여닫이문		목재 여닫이문		목재 여닫이문		유리 여닫이문		목재 여닫이문		목재 여닫이문	
재료	집성문 위 오크무늬목		집성문 위 오크무늬목		집성문 위 오크무늬목				45mm 오크목재		45mm 오크목재	
철물	경첩(BUTT), 레버핸들, FLUSH BOLT, DUSTPROOF, DOOR STOP(말굽형), SLIDING BOLT(600mm)		경첩(BUTT), 레버핸들, DOOR STOP(말굽형)		경첩(BUTT), 레버핸들, FLUSH BOLT, DUSTPROOF, DOOR STOP(말굽형), SLIDING BOLT(600mm)		힌지, 손잡이, 점검어쇠, 기타부속철물일체		경첩(BUTT), 레버핸들, FLUSH BOLT, DUSTPROOF, DOOR STOP(말굽형)		경첩(BUTT), 레버핸들, FLUSH BOLT, DUSTPROOF, DOOR STOP(말굽형), SLIDING BOLT(600mm)	
미감/유리	오일스테인+락카7회		오일스테인+락카7회		오일스테인+락카7회		16mm 투명유리		천연오일스테인마감		천연오일스테인마감	
위치	지층-서북2실 전실, 서남2실, 동남 1,2,3실 동쪽계단실 전실, 서쪽계단실 전실		**지층-황고전실(동쪽),계단실창고(동쪽,서쪽),서쪽1실 수장고(중),서남1,2,3,4실, 동남2실,중북1실**		지층-수장고(중앙)		지층-화장실		2F-속실(서쪽),속실(동쪽 화장실)		1F-계단실	

부호	20 WD	개소 2	21 WD	개소 1	30 WD	개소 2	62 WD	개소 2	70 WD	개소 1	1 WW	개소 2	2 WW	개소 1
형태														
명칭	목재 여닫이문		목재 여닫이문		목재 개방문		목재 여닫이문		목재 여닫이문		목재 여닫이창		목재 고정문	
재료	45mm 오크목재		45mm 오크목재		45mm 오크목재		45mm 오크목재		45mm 오크목재		45mm 오크목재		45mm 오크목재	
철물	경첩(BUTT), 레버핸들, FLUSH BOLT, DUSTPROOF, DOOR STOP(말굽형)		경첩(SWING), 정식손잡이 PLATE, FLUSH BOLT, **DUSTPROOF, DOOR STOP(말굽형), SLIDING BOLT(600mm)**				**경첩(BUTT), 레버핸들, FLUSH BOLT, DUSTPROOF,** 경첩(BUTT), 레버핸들 DOOR STOP(말굽형)		경첩(BUTT), 레버핸들 DOOR STOP(말굽형)		경첩(BUTT), 정식손잡이 PLATE, FLUSH BOLT, DUSTPROOF		천연오일스테인마감 / 5mm투명유리	
미감/유리	천연오일스테인마감		천연오일스테인마감 / 5mm투명유리				천연오일스테인마감		천연오일스테인마감		천연오일스테인마감 / 5mm투명유리			
위치	2F-속실(동쪽)		2F-황제,황후거실 동복도		2F-중앙홀		2F-황제화장실,황후화장실		2F-황제화장실,황후화장실		2F-중앙복도		지층-서남4실	

덕수궁 석조전 창호일람표 - 3

덕수궁 석조전 실측 및 수리보고서

발 행 일 : 2014년
발 행 : 문화재청
기획 · 편집 : ㈜아름터건축사무소
041-567-5870
인 쇄 : 아이디
02-2279-6353
ISBN 978-89-299-0606-1 93610
비매품 · 한정판

93610
9 788929 906061
ISBN 978-89-299-0606-1 93610